

# 황성 민족운동사

강 대 덕  
박 정 수  
최 창 희

황 성 문 화 원

## 차 례

발간사 .....	3
축간사 .....	5
책머리말 .....	9
화보 .....	13

### 제1부 횡성지역의 대외항쟁사

I . 고려시대의 전란사 .....	39
1. 거란족의 침입 .....	39
2. 몽골과 합단적의 침입 .....	41
3. 왜적의 침입 .....	43
II . 조선시대의 전란사 .....	44

### 제2부 횡성지역의 의병항쟁사

I . 횡성지역의 동학운동 .....	57
II . 횡성지역의 의병운동 .....	62
1. 횡성의병의 사상적 연원 .....	62
2. 횡성의병의 창의이념 .....	69

3. 횡성의병의 활동전개 .....	71
1) 전기 의병활동 .....	71
2) 후기 의병활동 .....	80
3) 전환기 의병활동 .....	94
4. 횡성지역 항일의병의 성격 .....	96
5. 횡성지역 항일의병의 의의 .....	97

### 제3부 구국계몽운동

I. 교육구국운동 .....	103
1. 민족교육운동의 전개 .....	103
1) 근대교육의 성립 .....	103
2) 근대 민족교육의 발전 .....	109
2. 강원지방의 근대교육 .....	112
1) 공립 소학교의 개교 .....	112
2) 민족 사립학교의 설립 .....	117
(1) 사립학교의 설립과 성격 .....	117
(2) 사립학교의 현황 .....	120
3) 일제 통감부의 교육정책 .....	123
3. 횡성지방의 전통 교육 .....	125
1) 횡성향교 .....	128
2) 칠봉서원 .....	129
4. 횡성지방의 근대교육 .....	131
1) 갑창학교와 화성학교 .....	131
2) 풍수원성당과 성심학원 .....	132

3) 횡성감리교회와 정화여학교 .....	135
5. 횡성지방의 보통학교 .....	136
1) 횡성공립보통학교의 개교 .....	136
2) 보통학교의 학제와 교육과정 .....	137
<b>II . 국채보상운동</b> .....	140
1.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	140
1) 일본의 차관 공세 .....	140
2)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	143
3)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	151
2. 강원도의 국채보상운동 .....	156
1) 강원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	157
(1) 춘천군의 국채보상운동 .....	159
(2) 화천군의 국채보상운동 .....	160
(3) 홍천군의 국채보상운동 .....	160
(4) 인제군의 국채보상운동 .....	161
(5) 철원군의 국채보상운동 .....	162
(6) 이천군의 국채보상운동 .....	163
(7) 김화군의 국채보상운동 .....	164
(8) 회양군의 국채보상운동 .....	164
(9) 통천군의 국채보상운동 .....	165
(10) 금성군의 국채보상운동 .....	165
(11) 양구군의 국채보상운동 .....	166
(12) 원주군의 국채보상운동 .....	166
(13) 영월군의 국채보상운동 .....	166
(14) 평창군의 국채보상운동 .....	167
(15) 강릉군의 국채보상운동 .....	167

(16) 삼척군의 국채보상운동 .....	168
(17) 간성군의 국채보상운동 .....	168
(18) 고성군의 국채보상운동 .....	169
(19) 울진군의 국채보상운동 .....	169
2) 강원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성격 .....	169
3. 횡성군의 국채보상운동 .....	175

## 제4부 3·1독립운동

I . 식민지 지배체제 .....	183
1. 무단통치 .....	183
1) 조선총독부 .....	183
2) 헌병경찰제도 .....	187
3) 탄압정책의 강행 .....	192
2. 식민지 수탈경제체제 .....	194
1) 토지조사사업 추진 .....	194
2) 한국농민의 수난 .....	203
3) 임야광산어장의 수탈 .....	205
4) 조선회사령 시행 .....	207
II . 1910년대 민족운동 .....	211
1.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	211
1) 의병의 항전 .....	211
2) 비밀결사 운동 .....	214
2.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	225
1) 만주에서의 민족운동 .....	226

(1) 북간도에서의 민족운동 .....	227
(2) 서간도에서의 민족운동 .....	234
(3) 북만주에서의 민족운동 .....	238
2) 러시아에서의 민족운동 .....	239
(1) 러시아혁명 이전의 민족운동 .....	239
(2) 러시아혁명 이후의 민족운동 .....	247
3) 중국 관내지역에서의 민족운동 .....	252
(1) 중국 내 한인사회의 형성 .....	252
(2)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 .....	254
(3) 중국 내 한인단체의 독립운동 .....	256
4) 재미한인의 민족독립운동 .....	261
(1)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 .....	261
(2) 하와이 한인사회의 민족운동 .....	267
(3) 북미 한인사회의 민족운동 .....	281
(4) 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 .....	289
(5) 미주한인의 조국독립운동 .....	296
Ⅲ. 3·1독립운동 .....	314
1. 31독립운동의 배경 .....	314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 .....	314
2) 국내 상황 .....	317
3)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약 .....	319
4) 재일본 유학생의 28독립선언 .....	324
5) 고종의 죽음과 인산 .....	326
2. 31독립운동의 추진 .....	328
3. 31독립운동의 전개 .....	335

IV. 강원도 31독립운동 .....	340
1. 강원도 31독립운동의 배경 .....	340
1) 강원도의 여건 .....	340
2) 항일민족운동의 계승 .....	342
3) 반일감정의 격화 .....	346
2. 강원도 31독립운동 .....	348
1) 강원도 31독립운동의 전개 .....	348
(1) 독립선언서의 전달배포 .....	348
(2) 시위운동의 확산 .....	350
(3) 독립운동의 주도층 .....	351
2) 강원도 31독립운동의 제양상 .....	354
(1) 독립만세시위 .....	354
(2) 햇불시위 .....	355
(3) 무력시위 .....	355
(4) 동맹휴학철시 .....	357
3) 일제의 탄압 .....	357
4) 강원도 31독립운동의 의의 .....	360
V. 황성지역의 3·1독립운동 .....	362
1. 일제 초기의 황성 .....	362
1) 일제의 헌병 통치 .....	362
2) 종교 실태 .....	363
3) 학교 교육 .....	366
4) 농민의 생활 .....	367
5) 교통과 통신 .....	369
2. 황성 31독립운동의 전개 .....	369
1)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배포 .....	370

2) 횡성 31독립운동의 전개 .....	371
3) 3월 27일의 횡성장터 독립만세운동 .....	374
4) 4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 .....	376
5) 4월 2일의 독립만세운동 .....	381
6) 4월 12일 분일리의 독립만세운동 .....	382
7) 민중의 각성 .....	384
3. 횡성 31독립운동의 확산 .....	386
1) 원주군 소초면의 독립만세운동 .....	386
2) 평창군의 독립만세운동 .....	389

## 제5부 사회운동과 의열투쟁

I . 식민지 지배체제의 강화 .....	393
1. 경찰기구 강화 .....	393
2. 친일세력 양성 .....	396
3. 참정권과 ‘지방자치’ .....	398
4. 문화운동과 자치론 .....	400
II . 농민·노동운동 .....	402
1. 식량의 증산과 약탈 .....	402
2. 노동운동 .....	407
3. 농민운동 .....	410
III . 청년운동 .....	414
1. 청년운동의 전개 .....	414
2. 강원청년연맹의 운동 .....	417



3. 강원청년연맹의 해소 .....	423
IV. 신간회 운동 .....	425
1. 협동전선운동의 배경 .....	425
2. 국외에서의 민족유일당운동 .....	427
3. 신간회 운동 .....	430
4. 강원지역의 신간회 운동 .....	434
V. 근우회 운동 .....	436
1. 1920년대의 여성운동 .....	436
2. 근우회 창립 .....	439
3. 강원지방 근우회지회의 조직과 활동 .....	442
VI. 의열투쟁 .....	444
1. 의열투쟁의 배경 .....	444
2. 1920년대 전반의 의열투쟁 .....	447
3. 의열단의 국내외 투쟁 .....	450
4. 재만 독립군의 의열투쟁 .....	453
5. 1920년대 후반의 의열투쟁 .....	455
6. 황성인 최양옥의 의열투쟁 .....	458
1) 대동단 활동 .....	458
2) 대한독립공명단의 조직과 활동 .....	461

## 제6부 항일학생운동

I. 3·1학생독립운동 .....	471
--------------------	-----

1.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	471
1)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의 강화 .....	471
2) 일제 식민지 교육의 실태 .....	473
2. 학생독립운동의 전개 .....	475
3. 31학생독립운동 .....	476
4. 강원도의 31학생독립운동 .....	479
1) 철원지방의 31학생독립운동 .....	480
2) 원주지방의 31학생독립운동 .....	481
3) 횡성보통학교 학생의 상장 패용 .....	482
4) 기타 지방의 학생시위운동 .....	483
Ⅱ. 학생독립운동의 발전 .....	485
1. 1920년대 학생독립운동 .....	485
2. 1930년대 학생독립운동 심화 .....	488
3. 강원도 학생독립운동의 발전 .....	499
1) 보통학교 학생의 항일독립운동 .....	499
(1) 삼척보통학교 .....	502
(2) 고성보통학교 .....	502
(3) 양양보통학교 .....	503
(4) 원주보통학교 .....	503
(5) 평강보통학교 .....	504
2) 춘천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운동 .....	505
(1) 610만세운동과 동맹휴학 .....	507
(2) 광주학생운동 이후 만세시위와 동맹휴학 .....	510
3) 춘천농업학교의 동맹휴학운동 .....	513
(1) 610만세운동과 동맹휴학운동 .....	515
(2) 광주학생운동과 만세시위 .....	516

(3) 만보산사건과 항일운동 .....	519
4) 강릉농업학교의 동맹휴학 .....	520
(1) 광주학생운동과 격문 살포 .....	520
(2) 강릉농업학교의 동맹휴학운동 .....	521
Ⅲ. 비밀결사와 학생운동의 심화 .....	525
1. 항일학생운동의 변화 모색 .....	525
2.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상록회 운동 .....	527
1)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 .....	527
2) 상록회의 수난 .....	531
3. 춘천농업학교의 독서회 운동 .....	533
1) 독서회의 조직과 활동 전개 .....	533
2) 독서회의 수난 .....	537
4. 춘천중학교의 독서회 운동 .....	538
1) 독서회 운동의 전개 .....	538
2) 독서회의 수난 .....	540
5. 춘천사범학교의 항일학생운동 .....	541
1) 전투복장 착용 거부운동 .....	542
2) 경방단 사건과 친일형사 구타 .....	543
3) 징병장행회 송별사 사건 .....	544
4) 백의동맹운동 .....	545
6. 강릉농업학교의 독서회 운동 .....	548
Ⅳ. 황성인의 항일학생운동 .....	550
1. 상록회 운동과 백흥기의 활동 .....	552
2. 독서회 운동과 심재영원후정의 활동 .....	554

부 록

- 횡성항일민족운동 관련 인물 ..... 561
- 횡성항일민족운동 연표 ..... 613

# 제1부

## 황성지역의 대외항쟁사

I. 고려시대의 전란사 / 39

II. 조선시대의 전란사 / 44

강 대 덕  
(독립기념관 교육개발부장)

## 제1부 횡성지역의 대외항쟁사

### I . 고려시대의 전란사

#### 1. 거란족의 침입

우리 민족은 나라를 세운 이래 여러 번 외부의 침략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치면서 독창적인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왔던 찬란하고 우수한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의 대외항쟁사(對外抗爭史) 속에서 고려시대 횡성지역의 전란사(戰亂史)는 곧 거란(契丹)의 침입사 이다. 거란은 1216년(高宗 3)에서 1219년(고종 6)까지 거란유족이 침략하였던 전란으로서 일명 대요수국(大遼收國)<sup>1)</sup>의 침입이라고도 한다.

---

1) 대요수국은 1216년(高麗 高宗 3)에 징주(澄州, 滿洲 海城)에서 거란의 유종(遺種)인 금산왕자(金山王子)금시왕자(金始王子)결노(乞奴)장군(將軍) 어얼(鵝兒)과 청구(靑狗) 등이 예스부(耶斯不)를 추대하여 세운 나라이다. 금(金)나라가 쇠퇴한 틈을 타서 세운 나라로서 건국 한달만에 부하 청구의 반란이 있었고, 그 부하에게 예스부는 살해되어 결노가 추대되었으며 감국(監國)이라 하였다. 그 후 몽골(蒙古)의 장군 목화려(木華黎)의 군에 밀려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고려를 침입하여 왔다.

대요수국이나 거란유족은 원래 요(遼)나라를 세웠던 거란족으로 그들이 몽골(蒙古)지방과 만주(滿洲)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는 중국 북쪽의 한 왕국이었다. 송(宋)과 대결하면서 고려를 침공하여 세 번의 큰 싸움까지 벌였으나 현종(顯宗)때 강감찬(姜邯贊)장군에게 대패하여 쫓겨났었다.

그 후 여진(女眞)과 몽골 족에게 멸망하여 그 거란의 유민들이 만주지방에 살았는데 얼마 후 다시 부흥하여 대요수국을 세웠다. 그러나 징기스칸(成吉思汗, 1162~1227)<sup>2)</sup>이 세운 몽골에게 쫓겨 고려로 쳐들어 온 것이 거란 유족의 침입이다.

특히, 강원 지방은 거란 유족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고장이며, 그 가운데서도 철원(鐵原)춘천(春川)원주(原州)강릉(江陵)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당시 고려는 고종(高宗)이 통치하던 시기로서 최씨 무단정치(武斷政治)가 실시되어 최충헌(崔忠獻)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들의 침입경로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평안황해도 동부를 지나 강원도로 들어와 철원춘천(당시는 按陽이라 함)을 거쳐 횡성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춘천 봉의산(鳳儀山)에서 치열한 혈전(血戰)이 벌어져 교주(交州) 안찰사(按察使)<sup>3)</sup> 어주한(魚周翰)이 전사하였다.

춘천을 점령한 거란족은 횡성으로 남침하였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동두천(東豆川)을 거쳐 경기도 양근(楊根)과 지평(砥平)을 점령한 후, 원주로 침입한 거란족 부대가 있었다. 이 부대가 원주에서 패하여 횡성으로 퇴각하다가 때마침 춘천에서 남하하던 부대와

2) 원(元)나라의 시조로서 이름은 태무진(鐵木眞), 묘호(廟號)는 태조(太祖), 시호(諡號)는 법천계운성무황제(法天啓運聖武皇帝), 징기스칸은 호, 1188년 부족장이 되어 차츰 내외 몽골의 여러 부락을 공격 침략하여 1204년 몽고의 모든 부족을 통일하였다.

3) 교주도(交州道)는 현재의 강원도로서, 교주 안찰사(고려시대 지방장관으로 按廉使)는 강원도 도지사 격이었다.

합류하게 되었다. 이때가 농번기인 1217년 56월의 일이었다.

거란유족의 야만성(野蠻性)을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던 횡성과 원주 주민들은 농사일도 뒤로 미루고 적과 싸우는데 온갖 힘을 다 쏟았다. 여기에서 아홉 번의 격전이 벌어졌다니 그 참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횡성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섬강 강변에는 혈전의 피와 시체로 덮여 있었을 것이다.

거란족은 몽골 족에 살 곳을 빼앗기고 쫓겨왔으므로, 전쟁에 패하면 곧 죽음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야만적이었다. 그들은 부모처자도 함께 들어와 살 곳과 먹을 것을 약탈했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는 어느 전쟁보다도 참혹하고 컸던 것이다.

횡성지역의 전투는 뒤늦게 끝났으나 거란유족은 제천에서 영월을 거쳐 강릉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함경도 방면으로 쫓겨갔는데 이듬해에 다시 평안도 지역에 침입하였다.

거란족의 침입 때 고려의 유명한 장군으로 조충(趙冲, 1171~1220)이 있었는데, 횡성 출신의 인물로 맹활약하였으며 서북면 병마사로서 거란족을 무찔러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죽은 후 개부의 동삼사(開府儀同三司)<sup>4)</sup>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추증(追贈)되어 고종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되었다.

## 2. 몽골과 합단적의 침입

고려시대 횡성지역은 계속해서 몽골과 싸워야 했고, 합단적(哈丹賊)과 싸워야 했으며, 고려 말엽에는 홍건적(紅巾賊)과 싸워야 했다.

4) 고려시대 문관계의 정1품 상위에 해당하는 품계였으나 1362년(공민왕 11)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으로 개정하였다.



몽골과의 싸움은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고 치열한 싸움으로 전국이 싸움터로 변한 참혹한 양상으로 1231년(고종 18)부터 시작되었다.

횡성에서는 큰 싸움은 없었으나 몽골군의 격퇴에 따라 전쟁의 상처는 다를 것이 없었다. 횡성이 외적의 침입으로 고난을 겪고 이를 또 격퇴하는데 큰공을 세웠던 일은 몽골족의 전란이 끝난 직후 합단적의 침입이 있던 때였다.

합단적은 원(元)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나이엔(乃顔)의 군중 중에서 합단(哈丹)의 무리를 말하는데, 그들이 원나라(蒙古)를 떠나 고려에 침입한 것은 1290년(충렬왕 16)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방면에서 철령(鐵嶺)을 넘어 강원도를 침략하였다. 그들은 이듬해인 1291년에 원주로 쳐들어 왔다. 이때 횡성은 횡천(橫川)이라 불렸으며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여 원주의 관할이었다.

합단적이 원주에 침입하여 치악산(雉岳山) 영원산성(鶴原山城)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에 고려의 정규군대보다 민간인들의 싸움이 더욱 빛났던 것인데, 특히 원충갑(元冲甲, 1250~1321)<sup>5)</sup>을 중심으로 한 원주횡성 사람들이 영원산성을 중심으로 하

5) 원충갑은 고려시대 원주사람으로, 충렬왕 17년(1291) 원나라의 반란군 합단적(哈丹賊)이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원주횡성지역을 침입하였는데, 이때 원충갑은 향공진사(鄉貢進士)로 원주의 별초(別抄)에 있었다.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충갑은 10여 차례에 걸쳐 합단적을 무찔러 원주를 지켰다. 그 공으로 원주는 지명이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승격되고 3년 동안 부역(賦役)과 공물(貢物)을 면제받았다. 그의 벼슬은 계속 올라 삼사(三司) 우윤(右尹, 從三品)이 되고, 충선왕(忠宣王) 때는 응양군(鷹揚軍) 상호군(上護軍)이 되고, 충숙왕(忠肅王) 때에는 추성분용정란광국공신의 호를 받았다. 72세에 졸(卒)하여 원주시 지정면 간현 3리 배나무골에 안장되었다. 조선시대 1670년(현종 11)에 충렬사(忠烈祠)라는 사액(賜額) 사당(祠堂)의 주향으로 배향되었다. 아울러 승첩일(勝捷日)인 음력 정월 21일에는 영원산성 대첩제(大捷祭)를 매년 연례적으로 봉행하고 있다.

여 치악산에서 분전하여 합단적을 몰아냈다.

고려시대에 횡성에서 벌어졌던 전란은 그 외에도 홍건적(紅巾賊)의 침략이 있었으나 횡성에서는 큰 싸움은 없었으며 피해 또한 크지 않았다.

### 3. 왜적의 침입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는 횡성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왜적이 침입했을 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일본은 국내에서 정권다툼이 계속되어 그들의 해적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해적은 일본의 변방(邊方)은 물론 우리 나라 변방도 자주 침입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어느 고을이고 일본해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었다.

물론 일시에 침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한번 침입하여 한 고을을 약탈한 후 도망가고 또 다음에 들어와 다른 고을을 약탈하는 방법으로 고려 공민왕(恭愍王)때부터 계속하여 침입하였다.

당시 왜적(倭賊)<sup>6)</sup>은 처음에는 서해안지방, 다음에는 남해안지방

6) 고려 중기 이후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와 중국 연안(沿岸)을 무대로 많은 인명(人名)과 재산(財産)을 해치고 또 약탈하던 일본의 해적단(海賊團)으로, 고려 멸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 왜적 중에는 일본 사회사정의 변동으로 몰락한 무사(武士)들이 주동되어 침략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의 단속과 회유(懷柔)에도 왜적이 근절되지 않자, 조선왕조는 1419년(世宗 1) 왜구(倭寇)의 소굴인 쓰시마(對馬島)를 정벌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쓰시마주(對馬島主) 소오(宗貞盛)씨와 타협하여 삼포(三浦)를 개항, 그들과 무역(貿易)함으로써 무마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왜적은 여전히 선박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백척으로 대거 침입하여 수군(水軍)의 진영(鎭營)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조정에서는 왜적의 침입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논의는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에 출몰하며 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서남해안지방의 경계가 엄중해지자, 다시 동해안 지역으로 옮겨 강원도 강릉(江陵)삼척(三陟)울진(蔚珍)양양(襄陽)고성(高城)지역 등을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 깊숙이 침략하여 치안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 Ⅱ. 조선시대의 전란사

조선왕조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년)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536~1637년)을 들 수 있다.

병자호란 때는 우리 나라 북부에서 전란이 심했고 비록 인조(仁祖)가 항복했던 치욕은 있었지만, 남부지방에서 싸움은 없었다. 따라서 횡성지역에서도 참혹한 싸움이나 백성의 고초는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는 우리 나라 전체가 전란을 당하여 모든 백성이 모진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강원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일본군(日本軍)은 1592년 4월 15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범하였다. 왜군의 주력부대인 고니시(小西行長)의 군대가 4월 14일 선봉으로 부산(釜山)에 상륙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뒤따라 침입한 가토오(加藤清正)구로다(黑田長政)시마즈(島津義弘)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 등과 합세하여 삼로(三路)로 나누어 진격하였다.

4월 26일 충주(忠州)에서 신립(申砮, 1546~1592)<sup>7)</sup>이 지휘하는

7) 신립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무장으로서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입지(立之)이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1567년(宣祖 즉위년) 무과에 급제, 선전관(宣傳

조선 군대를 격파하였다. 그 중의 한 부대는 5월 2일 서울로 진격하는 중에, 충주(忠州)여주(驪州)양근을 지나 원주 방면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5월 22일 여강(驪江, 驪州)에서 원호(元豪, 1533~1592)<sup>8)</sup>가 거느린 원주 군대가 이를 격퇴하고 왜군 50여명을 죽였다.

강원도를 다시 침공한 일본군은 모우리(毛利吉成)가 이끄는 부대였다. 이 부대는 서울에서 강원도 철원김화회양군을 짓밟고 철령(鐵嶺)을 넘어 함경도 안변(安邊)으로 가서 황해도에서 마식령

---

官)을 거쳐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경력(經歷)을 지내고 진주판관(晉州判官)이 되었다. 1583년 온성부사(穩城府使)가 되어 북쪽 변방에 침입해온 이탕개(尼湯介)를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野人)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하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올랐다. 1587년 흥양(興陽)에 왜구(倭寇)가 침입하자, 우방어사(右防禦使)가 되어 군사를 인솔하고 토벌에 나섰다, 이미 왜구가 철수했으므로 돌아오던 중, 양가의 처녀를 첩으로 삼았다 하여 3사(司)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곧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다시 등용되었으나, 졸병을 참살한 죄로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의 한직(閑職)으로 전임되었다. 1590년 평안도병마절도사에 보직되고 이듬해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三道都巡邊使)로 임명되어, 충주 탄금대앞 달천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북상해오는 적군과 대결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패배하자 탄금대(彈琴臺)에서 부하 장수(副將)인 김여물(金汝物, 1548~1592)과 함께 강물에 투신 자결하였다. 그 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 8) 원호(元豪)는 본관이 원주(原州)이며, 자는 중영(仲英)이고,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김덕수(金德秀)의 문인으로 경사(經史)에 능통하였으며, 1567년(明宗 22) 무과에 급제,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이어 경원부사 때 이탕개(尼湯介)의 침입을 격퇴하였고, 1587년(宣祖 20) 전라우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때 좌도(左道)에 침입한 왜구를 막지 못하여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방장(助防將)이 되어, 패잔병의병을 모아 여주 신록사(神勒寺)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구미포(龜尾浦)에서 패주하는 잔적(殘賊)을 섬멸하였다. 이 공로로 여주목사(驪州牧使) 겸 경기강원방어사(京畿江原防禦使)가 되었으며, 김화(金化)에서 왜적의 복병을 만나 분전(奮戰) 끝에 전사하였다. 병조판서(兵曹判書), 좌의정(左議政)에 추증(追贈)되었으며 김화 충장사(忠壯祠)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馬息嶺) 방면으로 들어온 가토오(加藤清正) 부대와 합류한 후, 가토오 부대는 함경북도 방면으로 침입했고, 모우리 부대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강원도를 침략하였던 것이다.

모우리 주력부대는 동해안으로 내려가 삼척(三陟)정선(旌善)영월(寧越)평창(平昌)을 거쳐 다시 영월 주천(酒泉)을 침략한 후 원주로 침략하였다. 또 한 부대는 양양(襄陽)에서 인제(麟蹄)로 넘어와 양구(楊口)춘천(春川)홍천(洪川)횡성을 침략한 후 원주에 침입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임진왜란 시에 유명한 영월산성(鶴原山城) 싸움이 벌어졌고, 당시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있던 김제갑(金梯甲, 1525~1592)<sup>9)</sup>의 장렬한 싸움과 죽음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국이 싸움터로 바뀐 임진왜란으로 항쟁이 진행되자, 횡성에서도 평안할 수 없었다. 횡성지역에 왜군이 쳐들어와 살인방화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한 때는 1592년(壬辰年, 宣祖 25) 8월 29일경이었다. 추석(秋夕) 명절이 막 지나고 추수가 한창이어서 농부들의 풍년가(豐年歌)가 울려 퍼져나갈 무렵이었다.

이순신(李舜臣, 1545~1598)<sup>10)</sup>의 수군이 남해로 들어오는 왜군

9) 김제갑 원주목사의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자는 순초(順初)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고 호는 의재(毅齋)이다. 1592년(宣祖 25) 원주에 왜군이 침입하자 의병과 관군을 이끌고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둘째 아들 시백(時伯)과 부인도 이때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전란 이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원주의 충렬사(忠烈祠)와 괴산의 화엄사에 배향되었다. 1669년(顯宗 10)에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외침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몸바쳐 충성을 다한 원충감김제갑원호 세 분을 모신 사당(祠堂)을 세웠으며, 그 다음해인 1670년(顯宗 11) 원주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사액(賜額)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충렬(忠烈)이라는 액호를 내렸다. 같은 해 고을 북쪽 1리(지금의 원주시 鳳山洞)에 있는 충렬사와 같은 위치에 이 비석을 세웠으며, 원주의 생원(生員) 정석형(鄭錫衡)이 전해 내려오는 김제갑 목사의 공적을 기록하여 비문을 썼다.

10) 이순신(李舜臣)은 본관은 덕수(德水). 자 여해(汝諧). 시호 충무(忠武). 서울 출생이다. 1576년(宣祖 9) 식년무과(式年武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권지훈련원봉사(權知訓練院奉事)로 처음 관직에 진출했다. 이어 함경도의 동구비보권관(董

仇非堡權管)에 보직되고, 이듬해 발포수군만호(鉢浦水軍萬戶)를 거쳐 1583년(선조 16) 건원보권관(乾原堡權管)훈련원참군(訓練院參軍)을 지내고 1586년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거쳐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때는 호인(胡人)의 침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죄(定罪)하려 하자, 그 원인이 첨병(添兵)을 거절한 데 있다 하여 자기의 정당성을 끝내 주장하다 중형은 면했으나 백의종군(白衣從軍)의 길에 올랐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에게 발탁되어 전라도의 조방장(助防將)이 되고, 1589년(선조 22) 선전관정읍현감(井邑縣監) 등 미관말직(微官末職)만을 지내다가 1591년(선조 24)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절충장군(折衝將軍)진도군수(珍島郡守) 등을 지내고 같은 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승진, 좌수영(左水營: 麗水)에 부임하여 군비 확충에 힘썼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玉浦)에서 적선 30여 척을 격파하고 이어 사천(泗川)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 적선 13척을 분쇄한 것을 비롯하여 당포(唐浦)에서 20척, 당항포(唐項浦)에서 100여 척을 각각 격파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품(陞品)되고 7월 한산도(閑山島)에서 적선 70척을 무찔러 한산대첩(閑山大捷)의 큰 무공을 세웠다. 이어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다시 가토요시아키[加珙嘉明]의 수군을 안골포(安骨浦: 창원군 웅천면)에서 격파하고 9월 적군의 근거지 부산에 쳐들어가 100여 척을 부수었다. 1593년(선조 26) 다시 부산과 웅천(熊川)의 적 수군을 격파, 남해안 일대의 적 수군을 완전히 일소하고 한산도로 진을 옮겨 본영(本營)으로 삼고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수군이 내원(來援)하자 죽도(竹島)에 진을 옮기고, 장문포(長門浦)에서 왜군을 격파,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적을 막아 왜군의 작전에 큰 타격을 가하였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확충난민구제산업장려 등에 힘썼다. 1597년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우의정 정탁(鄭琢)의 변호로 도원수 권율(權慄)의 막하에서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였다. 이에 앞서 명일간의 강화회담이 깨어지자 왜군이 다시 침입하여,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원균이 참패하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에 재임명되어, 12척의 함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鳴梁)에서 133척의 적군과 대결, 31척을 부수었다. 다음해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겨 철수하는 적선 500여 척이 노량(露梁)에 집결하자 명나라 제독 진인(陳璘)의 수군과 연합작전을 펴, 적군을 기습하여 혼전(混戰)중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왜란중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민족을 왜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격퇴함으로써 한국 민족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글에도 능하여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시조(時調)한시(漢詩) 등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이 되고 덕풍부원군(德豐府院君)이 추봉되었으며, 좌의정(左議政)이 추증, 13년(光海君 5) 영의정이 더해졌다. 장지는 아산(牙山)의 어라산(於羅

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호남지방의 곡창을 손에 넣지 못한 왜군은 극도로 군량이 부족했다. 함경도를 석권하고 평양 남쪽에서 전선을 뺐던 왜군은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다. 원주지역을 점령한 왜군의 약탈도 극심했다.

왜군은 1592년(壬辰年) 8월 22일 원주를 점령하고 25일 영원산성을 함락하였다. 이때부터 1593년 5월 초까지 약 8개월 간 그들의 약탈이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왜군은 곡창지대인 횡성으로 진출하고, 원주시 호저면(好楮面)일대와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일대에서 출몰하여 곡식을 약탈하였다. 또한 호저면 지찬리와 평촌동에서 학살극도 자행하였다.

왜병은 섬강 상류의 무장리(茂長里)와 월송리(月松里) 강 건너 당시 횡성 땅이던 산현리(山峴里)매호리(梅湖里)로 침입하였다. 이곳은 임진왜란 초기에 조방장 원호(元豪)가 진영을 쳤던 곳이었다. 원호의 거리로 불릴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의병활동이 왕성하게 벌어졌고 산 속에 숨은 피난민들도 의병들을 지원하려는데 뜻을 모아 매호리 바위굴에 숨어 배를 짜면서 적을 감시하고 공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베틀바위라고 불려진다.

이때는 추석을 넘겨 한창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였으므로 전투를 계속하여 피난하던 피난민들과 의병은 식량이 부족했다. 왜군 또한 식량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었으므로 생사를 건 식량쟁탈전이 벌어졌다.

1592년 4월 왜병 15만 명이 부산포로 쳐들어 왔을 때의 전략은 일본 사신 일행이 왕래하던 통신사행길을 따라 조선전국을 침략

---

山)이며,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忠臣門)이 건립되었다. 충무(忠武)의 충렬사(忠烈祠), 여수(麗水)의 충민사(忠愍祠), 아산의 현충사(顯忠祠) 등에 배향되었다. 이 중 현충사는 성역화되어 전시관 등을 건립, 그의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저서에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가 있다.

점령하고, 수군을 호남지방에 상륙시켜 호남 곡창에서 군량미를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또 왜군은 수병을 서해안으로 상륙시켜 한양과 평안도지방에 조세미(租稅米)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조선을 그야말로 아사(餓死)시킨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처음부터 실패했다.

남해로 쳐들어오던 일본 수군은 해안에 접근하는 족족 모두 수장되었다. 1592년 4월에 왜병이 쳐들어 온 후 5월에 서울이 함락되고 6월에 평양이 함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진격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군사의 저지로 전선이 교착되었다가, 조선 군대는 다음해 1월에 평양, 그리고 5월 하순에 수도를 완전히 수복했다.

이 기간 동안 왜군은 군량미 보급에 급급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매우 추운 날씨에 여러 면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이때 황성지역에서 저지른 방화살인약탈은 초조해진 왜병이 그 잔인성을 나타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592년 8월 황성지역에 주둔한 왜군이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아 그 피해가 심해지자, 주민들은 산 속으로 숨거나 피난하였다. 당시 황성군 갑천면(甲川面) 포동리(浦洞里)에 살던 정씨(鄭氏)부부는 전란의 참화를 당했다. 정씨 부인은 피난 대열에 끼였고, 남편 정준제(鄭俊齊)는 의병이 되어 전라도로 떠났다. 수년간 의병으로 싸우던 정씨는 전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부인 김씨는 수 삼일을 남편의 시체를 찾아 헤매어 마침내 시신을 찾았다. 부인이 통곡하면서 여러 날을 시체 곁에서 떠나지 않았더니, 남편의 시체가 가벼워져 수습하여 향리에 안장했다. 이로써 열녀(烈女) 김씨의 정문(旌門)이 내려졌다.

또한 왜병은 군내 공근면(公根面) 삼군리(三軍里)에도 쳐들어 왔다. 황성면에서 섬강을 건너 춘천으로 북상(北上)하는 춘원로(春原



路)를 따라 학곡리(鶴谷里)와 신촌리(新村里)로 빠져 나오면서 공근면 소재지가 동서로 환히 자리잡고 섬강이 북쪽으로 가로질러 동쪽 구비로 돌아서 흘러내린다.

시야에 들어오는 동북 편에 마치 공룡의 머리처럼 생긴 산봉우리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덕재봉(德載峰: 독재봉이라고도 함)이라 부른다. 학곡리와 청곡리(淸谷里) 경계에 있는 독재봉은 높이 343m로 임진란때 이 산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거란족의 침입, 몽골 족의 침입이 있을 때도 매곡청곡 마을 사람들은 물론 공근리 안쪽과 학담도곡창봉삼배어둔상동가곡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아무튼 임진왜란시 횡성지역을 점령한 왜병은 독재봉 맞은편의 말구리재를 찾아 넘었다.

왜병이 학담리에서 이 말구리재를 넘을 때에 관군과 의병이 산 위에서 돌을 굴러 왜병과 말을 구비소에 넘어 뜨려 말구리재에서 한차례 피해를 주었다. 관군과 의병은 다시 동면(同面) 삼배리(三培里)로 숨었다. 삼배리는 화주봉야곡봉만악봉(萬岳峰)의 세 봉우리가 솟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관군과 의병들은 558m의 관심산 계곡 앞에 진을 쳤다. 왜병들은 삼배리 협곡에 관군과 의병이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 좀처럼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틈에 관군과 의병이 야밤에 적진을 기습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임진왜란 때 의병(義兵)이 횡성지역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되자, 삼군리 골짜기까지 조총(鳥銃)부대를 앞세우고 맹공을 가해왔다. 관군과 의병은 관심산 밖 종달바위에다 날센 파수병을 두고 왜병이 쳐들어오면 이 종달바위에서 날짐승의 소리를 내게 하여 삼군리의 계곡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관군과 의병이 종달바위와 서쪽으로 이어져 가파른 산등성이를 이루는 궁터(弓堡)의 요새에서

부터 왜병의 후방을 차단하고 활을 쏘아 공격했으므로 왜병은 마침내 참패하고 후퇴를 하게 되었다.

수년 전 이곳 궁터에서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화살촉을 발견했다고 전해져,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도 하다. 공근면 덕촌리(德村里)에 왜둔지라는 마을이 있다. 왜군이 이곳에 진을 치자, 의병들이 야간을 통해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왜군은 크게 패하여 피를 흘리며 고개를 넘게 되고, 다음 고개에서는 의병의 공격에 막혀 후퇴하게 되지만, 때마침 우기로서 장마 비에 앞 강물이 불어나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고 마침내 의병에 의하여 전멸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왜군이 진을 쳤던 곳을 ‘왜둔지’라 부르고, 의병에게 참패하여 왜군의 피로 물들인 고개를 ‘붉은 고개’라 하며, 그 다음 의병에 의하여 왜군의 길이 막혔던 고개를 ‘막은 고개’라 불리 오늘에 전해진다.

이 같은 일은 훗날 1910년 한일병탄(韓日併呑)의 치욕이 있은 후, 일제가 임진왜란 때 패전의 쓰라린 상처가 있는 이곳에 한(恨)을 품은 유한지(有恨地)라 하여 공근면에 신사(神社)를 짓고 면민(面民)들에게 고개 숙여 참배(參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한을 풀려고 했다. 그렇지만 의병을 도와 조국을 지키려 했던 이 동리 주민들은 그 날의 승전의 기쁨을 되뇌며 식민지 민족의 나라 잃은 아픔을 뼈 속 깊이 새기는 한을 안게 되었다.

## 제2부

# 횡성지역의 의병항쟁사

- I. 횡성지역의 동학운동 / 57
- II. 횡성지역의 의병운동 / 62

강 대 덕  
(독립기념관 교육개발부장)

## 제2부 횡성지역의 의병항쟁사

한국민족은 자주근대화를 수행하여 민족의 근대적 실력을 튼튼히 확립해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자주근대화가 저지 당했으며, 결국은 1910년 일제에게 식민지로 강점 당하여, 온갖 박해와 탄압과 학살과 착취를 당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진 이후에는 수많은 독립운동투사들과 애국적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받쳐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였다.

오늘날 우리 한국민족이 타의에 의해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다시 독립을 찾고 이만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선구자와 애국자들의 희생과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 이래 한국의 근대사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근대적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민족의 노력이 전개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민족의 노력은 개화와 위정척사 그리고 동학사상운동<sup>1)</sup>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운동은 그 내부에 지니고

1) 李澤徽, 「1890년대의 사상사적 흐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爭點』, 집문당, 1994. 43~63쪽.

있는 역사적 성격에서 일정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민족의 강한 의지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

더구나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민족운동은 보다 적극적인 항일운동으로 자리잡았으며,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이후에는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독립운동으로 계승되어갔다.

횡성지역은 강원근대 항일민족운동사의 옹거지로서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위정척사사상과 존화양이의 학문적 전통이 계승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며, 그 바탕에 자리잡은 횡성주민들의 항일 저항의식과 자주의식이 연결되어 전기의병에서는 격렬한 항일투쟁으로 발전된 의병활동의 시작된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항일투쟁은 일제강점기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선행연구가 핵심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충분했던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바람직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sup>2)</sup>

따라서 횡성지역의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1895년의 의병항쟁, 1905년, 1907년 1910년까지의 의병무장투쟁까지 살펴 항일민족운동을 통하여 한민족 스스로가 자주독립에 대한 결심과 인식을 굳게 하였던 지역민중들이 적극 참여하여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인 거족적 항일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던 상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단지, 조동걸 교수(현,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의 『橫城과三一운동』,三一운동 기념비건립 횡성군협찬회, 1972. 제1장 횡성의 역사편, 제4절 「구한말 민족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동학운동과의 관계’, ‘의병운동과의 관계’를 다룬 것이 유일한 것이다.

## I . 횡성지역의 동학운동

우리의 근대적 민족운동으로 최초의 대중운동이었던 동학운동은 동학농민혁명운동,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한다.<sup>3)</sup> 동학운동은 4단계로 발전되었다.<sup>4)</sup> 제1단계는 ‘고부민란’의 단계이다. 이 단계(1894.1.11~3.3.)는 최초로 전라도 고부에서 탐관오리의 봉건적 가렴주구에 대한 민요의 단계이다. 아직 ‘농민혁명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전주 곡에 해당되는 ‘소민란’ 또는 ‘소폭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3) 역사적 용어 호칭에 대하여, 해방 전까지는 주로 ‘東學亂’ 혹은 ‘東匪의 亂’이라고 불렀으나, 1950년대부터는 ‘東學農民革命’ 혹은 ‘甲午農民戰爭’ 등으로 고쳐 부르는 추세이다. 이 운동을 혁명(revolution)으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이를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한 反外勢(反帝) 민족주의 내지 반봉건 평등주의 민중운동으로 간주하며, 農民戰爭(peasant war)이라고 성격 지우는 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계급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혁명 혹은 농민전쟁이라 칭하는 역사가들은 이 운동을 토마스 뮌쩌(Thomas Müntzer, 1498~1525)가 일으켰던 독일 농민전쟁(1524~26)이나 洪秀全(1814~64)이 주동한 중국의 太平天國의 亂(1850~64), 심지어는 프랑스 大革命(1789) 등에 비견시키면서, 한국 민중의 자유평등민권 등 근대적 이상을 지향한 진보적 성격의 잠재적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영익 교수는 1894년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폭발했던 민중운동을 이른바 동학농민봉기라 명하고, 그 규모와 격렬성에 있어 전통시대 한국 민중운동의 최고봉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갑오농민봉기를 진보적 성격의 사회혁명으로 규정하는 南北韓의 통설은 한국근대사를 이른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혹은 마르크스(Karl Marx)류 유물사관의 역사발전론을 한국역사에 도식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한데서 비롯된 誤說이라고 보았다. 1894년 전봉준 등이 일으킨 제1차 농민봉기는 본질적으로 유교의 忠君愛民思想에 바탕한 保守的 指向의 무장개혁운동(armed reform movement)이었다고 규정하였다(柳永益, 「甲午農民蜂起의 保守的 性格」, 『갑오농민혁명의 爭點』, 집문당, 1994. 353쪽).

4) 愼鏞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一潮閣, 1993.

제2단계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제1차 농민혁명운동’의 단계이다. 이것은 호남일대의 농민들이 전봉준(全琫準)손화중(孫化中) 김개남(金開男) 등의 지도하에 무장(茂長)에 남접도소(南接都所)를 설치하고 봉기를 준비한 후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군현을 점령하고 관군을 격파한 다음 전라도 수도인 전주에 입성한 단계(3. 20.~5. 7.)이다.

제3단계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집강소(執綱所)시기이다. 이것은 청군(淸軍)과 일본군(日本軍)이 동학농민혁명운동에 개입하여 조선에 침입하자, 두 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동학농민군과 관군사이에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성립되고, 그 결과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농민통치를 실시했던 단계(5. 8.~9. 12.)이다.

제4단계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제2차 농민혁명운동의 단계이다. 이것은 ‘동학란’ 진압을 구실로 조선에 불법 침입한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고 도리어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도발하며, 궁궐침범을 자행하여 왕궁 시위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마음대로 전권을 농단하며 내정간섭을 자행하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혈전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의 현대적 화력에 눌려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단계(9.13~연말)이다.

일찍이 동학 2세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9~1898)이 동학의 교조신원(敎祖伸寬)을 명분으로 1871년 10월 강원도에 처음 들어온 곳은 영월 직동(稷洞)으로서 그곳에서 만 일년을 은거하며 살았다.<sup>5)</sup> 그후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부터였으며, 주로 영월평창정선인제홍천횡성원주 등지이었다.<sup>6)</sup>

5) 윤석산, 『東學踏查記』, 신서원, 2000, 125~134쪽.

6) 최시형이 1898년 4월 6일 관현에 체포될 때도 原州 好楮面 松洞 趙鎮汝의 집에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과 인연이 깊은 고장이다.

이와 같이 횡성지역의 동학운동은 최시형의 영향으로 강원도 남부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때 많은 횡성군민이 이에 가담하여 원주·홍천·횡성이 한 지역권으로 항일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1894년 가을 전봉준이 전라도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을 때, 충청이북 즉 북접에서는 9월 18일 최시형 교주와 각 지역의 두령을 모아 놓고 함께 싸울 것을 결정한 후, 손병희에게 통령기(統領旗)를 내렸다. 이때 손병희의 통령을 받고 내려온 인물로는 홍천에 차기석(車基錫)·심상현(沈相賢)·오창섭(吳昌燮), 횡성에는 윤면호(尹冕鎬), 원주에는 이화경(李和卿)·임순화(林淳化) 등이었다.

이들은 원주·횡성·홍천에서 동학교도를 모아 횡성군 둔내·갑천 등지를 거쳐 홍천 서석에서 동면으로 진출하여 홍천읍으로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들은 홍천의 정부군과 정면 충돌하여 싸우게 됐고, 그들은 또 다시 횡성군수 이필영(李弼榮)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와 동학군을 토벌하던 갑오의려(甲午義旅)가 민간 포수를 모아 동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하니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반동학(反東學) 갑오의려로 활동하여 동학당(東學黨) 정토입록(征討人錄)과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은 원주의 이철화(李哲和), 횡성의 정준시(鄭駿時)이다.<sup>7)</sup> 특히 홍천지역은 동학군이 동면 속초리(束草里)에서 시작하여, 그해 10월 25일을 전후해서는 서석면(瑞石面) 풍암리(豐岩里)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 최후의 혈전을 벌인 곳으로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곳이다.<sup>8)</sup>

당시 홍천 전투에서 정부 관군(官軍)외에 강력한 민간부대가 있었다. 그것은 지평에서 포수를 모아 만든 맹영재(孟英在)의 동학토

7) 『橫城郡誌』(1968년간) 81쪽에 갑천의 鄭蘭基도 가담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 오늘날 동면 속초리 許氏 문중이나 서석면 풍암리에 가면 10월 25일 전후해서 며칠간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대이다. 맹영재는 횡성지역과 홍천 동면서석면의 전투에서<sup>9)</sup> 세운 공적으로 동학토벌이 끝난 후 지평현감(砥平縣監)의 벼슬을 받았다.<sup>10)</sup>

동학운동은 횡성을 비롯하여 강원남부지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동학교의 정신과 활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후 횡성지역의 항일투쟁은 특히 일제치하에서 1919년 31운동으로 발전시키는 훌륭한 터전이기도 했다. 더구나 횡성지역의 31운동은 동학교도인 천도교도에 의한 것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농민전쟁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19세기 조선사회의 구조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의 구조로서 양반귀족(士)의 바로 아래에 농민층이 있었고, 농민층 아래로 부르조아(bourgeois) 계층에 해당하는 공상이 신양역천층(身良役賤層)으로 취급되어 농민층보다도 도리어 계층 그 자체로서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

19세기 조선사회의 농민층은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부분 지위가 상승하는 양인신분이었으며, 조선후기에 서당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농민층의 교육수준이 현저히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말 조선사회의 농민층은 중세말기 서부유럽 사회의 농민층과는 현저하게 다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9) 洪川郡 瑞石面 豊岩里 자작고개에는 東學革命軍慰靈塔(地方文化財記念物 제 25호)과 東學革命軍義塚이 소재하고 있다.

10) 砥平에는 1894년 당시에 세운 孟英在의 扶正斥邪碑가 현존하고 있다.

11) 서양의 도식에 교조적으로 추종해서 처음부터 농민층은 혁명운동을 전개할 수 없는 미성숙한 계층이었고 오직 부르조아(bourgeois) 계층만이 혁명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한국근대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견해라고 본다 (신용하, 『한국근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一志社, 1994. 135쪽).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부르조아계층은 미성숙했으므로 구체제의 담당신분인 양반귀족,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성숙된 계층인 농민층이 혁명운동을 일으켜 구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sup>12)</sup>

근대사회를 수립하면서 중세적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필수의 선행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중세적 구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부르조아 계층이 아니라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층이었다. 민비 수구파의 관군이 동학농민군에게 연전연패하여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만 없었더라면, 구병입경(驅兵入京)하여 그들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음은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들의 힘은 국내수구파를 붕괴시킬 수 있기에는 충분하였으나, 불법으로 간섭하여 침입해온 일본군의 근대적 무력적 힘을 물리치기에는 부족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물리치지 못하여 신체제를 수립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중세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실제로 성공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근대사와 19세기 한국 근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2)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운동은 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제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당시의 조건을 고려하면, 전제군주제의 입헌군주제로의 변혁은 대세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르조아개혁 추진층의 개화파도 마찬가지여서 1894년 당시에는 아직 공화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입헌군주제를 모색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대신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중세적 구체제의 마지막 정치세력인 민비 수구파 정권을 실력으로 붕괴시켰으며, 중세적 구체제의 사회적 근간인 양반사회신분제를 철저히 폐지하여 신분해방을 성취해서 제도상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했고, 봉건적 지주제도와 수취제도를 전면 부정하여 새로운 근대체제를 추구하였다(신용하, 위의 저서, 135~136쪽).

## Ⅱ. 횡성지역의 의병운동

### 1. 횡성의병의 사상적 연원

개항직전 두 차례의 양요(洋擾)와 그를 이은 강화도조약 전후부터 국론(國論)을 주도하였던 존양위척론은 성리학의 교학적인 범위를 넘어 민족국가전통사회와 문화를 수호하려는, 왜양일체론을 전제로 한 배양척화론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항기의 존양위척운동에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들은 물론 전국적인 유림들이 참여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화서학파는 여타 학파에 비해 춘추대의적 보국의리정신과 존화양이위정척사론에 더욱 철저하였다.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조정의 소명(召命)에 응하여 상경해서 올린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상소를 필두로,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반대해서 올린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지부복궐상소(持斧伏闕上疏)와 경기강원 양도(兩道) 화서연원의 중암(重菴)성재(省齋) 문인 50여 명이 개항반대로 연명하였던 상소, 그리고 1880년 『조선책략(朝鮮策略)』이 계기가 된 1881년 신사년 가을 관동소수 홍재학(洪在鶴)의 개화반대관동연명유소 등은 그 두드러진 사례라 하겠다.

물론 화서 이항로를 비롯한 화서학파의 존양위척론은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백성을 구하고, 그들이 평소 강론하였던 요(堯)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공자(孔子)의 도(道), 즉 국가민족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현실적으로 관련된 시급한 문제는 개항이 가져

을 당시의 정치사회적 위기의식이었다.

이 가운데 최익현의 지부복궐상소와 중암성재 문인의 연명상소는, 비록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시대상황하에서 학문적 연원을 같이한다. 그러면서도 전자는 출사한 관료의 입장에서, 후자는 재야의 입장에서 각각 상소를 올린 것이므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 두 상소의 논지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지금의 일본은 과거와 달라 서양의 ‘창귀(倭鬼)’ ‘전도(前導)’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양일체 倭洋一體 : 필자주) 조선의 구적(仇敵)인 것이다.

둘째, 일본이 통교하고 있는 서양은 이적보다도 아래에 위치한 인간의 형상을 한 금수이다.

셋째, 이런 까닭에 지금의 개항문제는 인수(人獸)의 문제이므로 양이(華夷)의 문제였던 병자(丙子)정묘(丁卯)의 양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넷째, 그러므로 일본과 일단 통교하고 난 후에는 절대로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邪教 : 논자주)가 전국에 만연해 우리의 미풍양속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통상요구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서양과 결탁한 데 대한 일본의 죄를 질책하고 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지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도 역시 화서 이항로의 철저한 춘추대의적 존양위척사상인 것이다. 그리고 화서학파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대외정책 등의 여러 방면에서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13) 『國譯勉菴集』卷3, 疏, 「持斧伏闕斥和議疏」, 124~135쪽.

『重菴集』卷5, 疏, 「代京畿江原兩道儒生論洋倭迹仍請絕和疏」, 100~104쪽.

『習齋集』卷5, 疏狀, 「複合儒生斥洋疏」, 1~6쪽.

뿐만 아니라 연명상소에서는 앞으로 계속될 일본과 서양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내수외양’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즉, ① 군졸을 철저히 훈련시킬 것[練士卒], ② 국고를 튼튼히 할 것[克府庫], ③ 민생의 생업을 태평하게 할 것[安民業], ④ 변방의 수비를 견고히 할 것[固邊備] 등 4가지의 내수정책(內修政策)을 주장하였고, 또 양물(洋物)을 엄격히 금하는 일이 당면한 급선무라고 보았다.<sup>14)</sup>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요구는 묵살된 채 일본과의 조일통상조약(朝日通商條約)이 체결되고 말았다.

이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킨 일본은 대한침략정책으로 진행해 갔다. 이 때 일제가 이러한 침략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 최대의 방해요소로 등장한 것은 바로 그 때까지 조선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 왔던 청나라의 세력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조선 내에서 청나라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 청일전쟁(淸日戰爭)을 도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볼 때, 1876년 강화도조약이 일제 침략세력의 상륙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라면, 이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정치정세는 일제 침략세력의 터전을 쌓아올리는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sup>15)</sup>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김홍집(金弘集)을 총재로 하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조선의 내정개혁’을 급진적으로 단행하였다. 화서학과 문인들은 이러한 갑오개혁을 ‘개정삭(改正朔：年號變更)’·‘역복색(易服色：衣服制度 변경)’·‘변관제(變官制：官制 변경)’·‘혁주군(革州郡：지방제도 변경)’ 등을 개혁한 것을 보고 대변고로 단정했다.<sup>16)</sup>

14) 『習齋集』 卷5, 疏狀, 「複合儒生斥洋疏」 4쪽.

1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 I - 義兵抗爭史 -』(원호처, 1971), 121쪽.

16) 『昭義新編』 卷1, 「西行時在旌善上疏」, 9쪽.

이 가운데 의복제도 변경은 당시로서는 참담한 개혁이었다. 1894년 6월 ‘반영착수(盤領窄袖：둥근 깃에 좁은 소매)’로 1차로 개정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조신(朝臣)의 대례복(大禮服)을 흑단령(黑團領)으로 하고, 진궁(進宮) 때의 통상 예복(禮服)을 흑색주의(黑色周衣)로 2차의 개정을 시행해서 흑색의 서양식 복제(服制)를 택하게 되자, 화서문인인 의암 유인석은 이를 지적하면서 통탄하고 있다.

오호라 애통하도다. 4천 년 화하정맥(華夏正脈)과 2천 년 공맹대도(孔孟大道)와 조선 500년 예악전형(禮樂典型)과 집집마다 수십세(數十世) 관상법도(冠裳法度)가 여기서 단절되었도다. 이제 글 읽는 선비는 어떻게 처신해야 옳겠는가... 이것(變服令：필자주)은 천지(天地)성현(聖賢)선왕(先王)부조(父祖)에 죄를 지은 것이라, 살아서 장차 어찌 하리요. 이제 성토하다 죽고 거의(學義)하다 죽으리니, 선왕의 도(道)를 수호하다 죽는 것은 선비의 의리인 것이다.<sup>17)</sup>

즉 전통적인 복제를 서양식 복제로 개혁한 것은 화맥도맥을 위시해 조선의 정맥과 고유한 습속 등 전통문화까지 모두 일시에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변고를 당한 현실에서는 선비로서의 의의(意義)를 상실했기 때문에 현실대응책으로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거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생각이 의암 유인석으로 하여금 통탄하고 절규하게 하였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칼을 빼어 자문(自刎)하여 목에 피를 왜추(倭酋) 이노우에(井上馨)와 [박]영효(泳孝)[서]광범(光範) 이하 개화파 역적(逆賊)들의 면상에다 뿌린 자가 몇이나 있었는가. 팔로

17) 『昭義新編』 卷4, 「乙未毀服時立言」, 132~133쪽.

(八路)의 사민(士民)중에 통분대호(痛憤大呼)하며 거의 해서 오랑캐의 무리를 무찌르고 역당(開化黨: 필자주)을 섬멸시켜 군신사민(君臣士民)의 몸에서 양복을 벗겨내고 다시 선왕의 법복(法服)을 입히려는 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sup>18)</sup>

이와 같이 현실상황을 살펴볼 때, 횡성지역을 비롯한 강원 전역의 의병봉기 분위기는 의복제도가 바뀐 뒤 즉, 1895년 초두에 벌써 성숙되어 갔다고 하겠다. 이런 정세 하에서 러시아를 위시해 독일프랑스 등의 세 나라는 일본이 청일전쟁의 결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청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인해 일본의 약점이 노정 되자 조선조정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해 가면서 친로정책(親露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일제는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閔妃를 시해한 을미사변(乙未事變)이라는 국제적 범죄를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변을 일으킨 직후에는 민비가 그 동안 “자기의 친당(親黨)을 끌어들이 국왕의 총명을 옹폐(壟蔽)하고 정치를 문란케 해서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 폐위시켜 서인(庶人)으로 삼는다”는 왕후폐위조칙(王后廢位詔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sup>19)</sup> 그리고는 1895년 11월 17일을 기해 建陽원년 1월 1일로 음력에서 양력의 역법(曆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단발령(斷髮令)을 선포하였다.

이항로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敎) 문인들과 의암 유인석은 앞서 변복령이 내려진 뒤에 이미 단발령과 유사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사실을 예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단발령이 내려지기 전인 1895년 윤5월 금계(錦溪) 이근원(李根元)에게 보내는 편지에

18) 『昭義新編』 卷4, 「答朱汝中庸奎書」, 133쪽.

19)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 I - 義兵抗爭史 -』(원호처, 1971), 141쪽.

조종제도(朝宗制度)가 일제히 혁파되고 마침내 선왕의 법복을 무너뜨렸으니, 법복이 훼손되었은즉 훼손(毀形)은 또한 그 다음 일일 것이리라.<sup>20)</sup>

라고 한 것으로 보아 훼손의 예상을 알 수가 있겠다. 이는 바로 의암 유인석을 비롯한 화서문인들이 이미 ‘훼손(毀服)’과 ‘훼손’을 동일한 맥락에서 인식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에서도 이러한 점은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상투와 원메(圓袂 : 法服, 필자주]의 존(存)부존(不存)에 따라 화이인수(華夷人獸)의 판(判)불판(不判)과 강상대도(綱常大道)의 보(保)불보(不保)가 달려 있으니... 머리는 만 번이라도 자를 수 있을지언정 상투는 한번도 잘릴 수 없고, 몸은 만 번이라도 찢길 지언정 원메는 한번도 찢길 수 없다.<sup>21)</sup>

여기서 상투와 ‘원메’의 보존여부에 따라 화이인수가 결판난다고 했으니,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곧 개화와 수구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겠다.<sup>22)</sup> 즉 상투와 ‘원메’가 화와 사람을 상징하고 수구와 자주를 의미하는 데 비해, 삭발과 변복은 오랑캐와 짐승을 상징하고 개화와 예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러므로 강원지역에서 전기의병(前期義兵)이 봉기하는 데 추진력을 제공한 사건은 역시 화이의식에 뿌리박고 있었고 이를 표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이적과 금수를 상징했던 변복령과 단발령의 사건이었다. 이

20) 『昭義新編』 卷4, 「答李文仲根元書」, 134쪽.

21) 『昭義新編』 卷3, 「贈言金仲一還國」, 117쪽.

22) 朴成壽, 「舊韓末義兵戰爭과 儒教的 愛國思想」(『大東文化』 67合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0), 172~173쪽 참조.

23) 朴敏泳, 「毅菴 柳麟錫의 衛正斥邪運動」(『清溪史學』 3, 1986), 183쪽.



점은 전기의병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오로지 의병으로서 말하건대, 공적으로는 천하국가로 하여금 장차 이적금수를 면하게 하고, 사적으로는 내 몸으로 하여금 장차 이적금수를 면하게 함이었다.<sup>24)</sup>

이와 같은 변복령단발령과 더불어 전기의병 봉기의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 준 사건은 을미사변의 민비시해사건이었다.

이번에 거의한 이유는 격문(檄文)과 통문(通文)에서 먼저 위로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는 것을 언급하고, 다음에 단발하는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했다.<sup>25)</sup>

이처럼 화서학파의 전기의병 봉기이유를 말할 때마다 반드시 ‘보국모지수(報國母之讐)’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민비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거의의 명분을 뚜렷이 제시해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횡성지역을 비롯한 강원전역 전기의병 봉기의 직접적인 기운은 변복령이 내려진 직후인 1895년 초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변복령과 단발령은 화이인수론(華夷人獸論)의 이분법적 명분의 문제에서 맥락을 함께 하며, 또 이 두 사건과 을미사변은 모두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항일의병투쟁의 진원지가 되었던 점은 물론 항일독립투쟁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즉 횡성지역의 전기의병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24) 『昭義新編』 卷3, 「與李文仲根元書」, 134쪽.

25) 『昭義新編』 卷5, 「金公梅思鼎贊策」, 134쪽.

## 2. 횡성의병의 창의이념

원래 “의병이란 민병(民兵)으로서 나라가 위급할 적에 義로서 일어나 조정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중군하여 분연히 대적(對敵)하는 자”<sup>26)</sup>를 뜻한다. 의병이란 전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외침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때, 또는 국가의 권위가 실추되었을 때에, 관군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서 정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민병을 말한다.

그간 학계에서는 1895년 11월 15일 단발령 공포 이전의 의병봉기는 회덕(懷德)의병의 문석봉의진(文錫鳳義陣, 1895. 10. 11. 報恩集會)만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여 왔고, 이를 전기의병<sup>27)</sup>의 효시로 인식해 왔다. 그런데 근래 연구된 성과에 의하여, 문석봉 의병이 효시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미 1894년 일제 ‘갑오왜란(甲午倭亂)’에 항거하여 안동(安東)의 서상철(徐相轍)<sup>28)</sup>과 평남(平南) 상원(祥原)의

26)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篇, 上海: 維新社, 1920, 17쪽.; 愛國同志 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 同援護會, 1956, 23쪽. “義兵者 民兵也 國家有急 直以義起 不待朝令之徵發 而從軍 敵 者也”

27) 대체로 한말의병사의 시기구분은 乙未義兵 乙巳義兵 丁未義兵으로 구분하는 3시기 구분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최근 의병의 심층연구에 의한 성과에 따라 趙東杰은 한말의병을 前期義兵(1894~1896) 中期義兵(1904~1907.7) 後期義兵(1907.8~1909.10) 轉換期義兵(1909.11~1915.7) 末期義兵(1915.8~1919.2) 등 크게 5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전기의병은 이 시기구분법에 따른 것이다[趙東杰, 「義兵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的 位置(下)」(『義兵戰爭研究(上)』,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편, 1990.5), 242~244쪽; 趙東杰, 「義兵戰爭과 3·1運動의 關係」(『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1989), 441~449쪽 참조].

28) 朴宗根은 그의 논문 「日清開戰에 있어서 日本軍의 朝鮮王宮占領事件에 대한 朝鮮人民의 反抗鬪爭」(『歷史評論』 316號, 1976)에서 1894년 양력 9월 安東에서 徐相轍의 반일봉기를 의병운동의 출발점으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바 있

김원교(金原喬) 등에 의하여 갑오의병(甲午義兵)이 일어났었고, 또 을미사변 직후에도 강계(江界)에서 김이언(金利彦)김창수(金昌洙, 후일 金九)가 의병활동<sup>29)</sup>을 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강원도지역의 의병은 물론, 횡성지역 전기의병의 발단은 전국적으로 봉기한 을미의병과 같이 춘추정신의 존화양이란 대일통론(大一統論)을 갖고 있는 유교적 입장의 화이관에서 변복령과 단발령인 휘복휘형태양력(太陽曆) 사용, 주군제도 개편, 그리고 민비(閔妃: 명성황후)시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을미의병은 국적토벌(國賊討伐)국모보수(國母報酬)단발불복(斷髮 不服反對)배양배왜(排洋排倭) 등의 가치를 내들고 개화파와 일본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복수설치(復讐雪恥)의 의(義)로서 의병을 기도하였다.

강원과 함께 횡성지역의 전기[을미]의병 창의이념(倡義理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존양(尊攘) - 위척론(衛斥論)의 화이관에서 찾을 수 있다. 의암 유인석습재 이소응 등을 비롯한 화서중암성재 문인들은 일본을 격퇴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같이 화서학파의 존양 위척사상은 중화의 명맥을 보전하여 춘추대의와 대의명분을 사상적으로 삼는 민족자존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의식<sup>30)</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화의식은 자민족중심주의의 일본인식에 대한 지배적 계

었다. 그 후 金祥起는 의병항쟁이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조선정부 각 부서의 「來去案」 기록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그리고 일본의 신문기사 등의 관계자료에 의하여 구체적 사료로 1894년 7월에서 9월까지 安東 胎峰 일대에서 전개된 서상철의 安東義兵을 확인하여 갑오왜란을 직접적 계기로 봉기한 최초 甲午義兵으로 발표하였다[金祥起, 「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35~73쪽].

29) 金九, 『白凡逸志』(白凡金九先生紀念事業會, 1947), 62~85쪽.

30)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實踐思想運動과 春川義兵」, 『春州文化』 11, 春川文化院, 1996, 277쪽.

충서열의식을 강하게 하였고, 조선은 일본보다도 지배적으로 우위에 두었으며, 그 서열[우월]의식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에 대응하였던 대항방법이었다.

둘째는 국적토벌국수보복론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서학과 유생들은 명성왕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에 통분하여 국모를 시해한 원수를 갚는 일을 춘추대의(春秋大義)라 여겼다. 유생들의 국수보복론은 주욕신사(主辱臣死)의 충군애국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으로써 임금에 충성하고자 하는 근왕적(勤王的)인 성격도 찾아볼 수 있다.

셋째는 개화망국론(開化亡國論)에 입각하여 창의하였다. 1890년대는 위정척사의 대상이 일본에 집중되어 척양(斥洋)에서 척왜(斥倭)로 대상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1894~1895년 이후에는 강력한 반개화론에 입각하여 개화파들이 외국과 통상하는 것은 망국의 근원이 되고 반민족적 행위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변복과 삭발을 하고 부임하는 친일부일 개화파 관리들을 처단하였던 것이다.<sup>31)</sup>

### 3. 횡성의병의 활동전개

#### 1) 전기 의병활동

강원 횡성지역에서 전개된 전기의병(1895~1896)운동은 일찍이 화서 이항로가 1866년에 ‘의려책(義旅策)’을 개진할 때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895년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위기상황의

31) 姜大德, 앞의 책, 236쪽.

식을 기저로 한 이항로김평목유증교유인석 문인들의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과 전통적으로 정치체제의 한 주체자였던 사람이라는 신분에서의 윤리적 위기의식에서 의병운동은 행동화된 독자적 대응노력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강원전역은 물론, 횡성지역 전기의병에 영향을 미쳤던 의암 유인석의 ‘처변삼사(處變三事)’가 기본적인 행동강령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을미사변이라는 국가변란과 단발령 시행과 같은 개혁정책으로 인한 문화단절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 처신하는 방비책<sup>32)</sup>이라고 볼 수 있다.

큰 화(大禍)가 오늘에 이르렀으니, 선비로서 처신할 방책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거의소청(舉義掃淸)’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는 것이요, 둘째는 ‘거이수지(去而守之)’로 고국을 떠나 해외에 가서 ‘대의(大義)’를 지키는 것이요, 셋째는 ‘자정(自靖)’으로 세상을 등지고 자정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니, 각자가 자기의 뜻대로 좇아서 할 것이다.<sup>33)</sup>

그리고 이 세 가지 행동방법은 비록 다른 일이지만 그 의의는 모두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 각자 스스로에 따라서 갈 길을 선택하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모두 다 유교의 의리와 도덕적 가치인 도(道)에 귀결되기 때문이다.<sup>34)</sup> 그는 또한 은(殷)의 미자(微子)가

32) 대비책인 「處變三事[處有三策]」는 舉義掃淸去而守之自靖과 舉義掃淸去之守舊自靖守之, 舉義掃淸浮海去守自靖致命[致命遂志], 舉兵浮海自靖 등 표현의 행동양식은 모두 正道 도덕적 가치에 處義의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화서문인의 사람들은 최종적 수단으로서 국가민족문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신분의 책임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출처관을 가지고 있었다.

33) 李正奎, 「從義錄」, 앞의 책, 619쪽; “大禍至此 處義有三 一曰 舉義掃淸 二曰 去而守之 三曰 自靖 各從其志.”

34) 『昭義新編』 卷2, 雜錄, 中央出版文化社, 1981, 69~71쪽.

자(箕子)비간(比干) 등 ‘삼인(三仁)’의 행위가 각각 상이하였으나, 그 귀결점은 모두 ‘인’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설명하였다.<sup>35)</sup>

‘처변삼사’의 대비책에 따라 이필희(李弼熙)원용석(元容錫)안승우(安承禹)신지수(申芝秀)이범직(李範稷) 등 소장(少壯)들은 ‘거의결책(舉義決策)’을 선택하였다. 또 주용규(朱庸奎)박정수(朴貞洙)오인영(吳寅泳)박주순(朴靑淳)원용정(元容正)최병식(崔炳軾)최열(崔烈)이조승(李肇承)정화용(鄭華鎔)홍선표(洪選杓)홍덕표(洪德杓)이정규(李正奎) 등은 유인석을 따라서 요동에 들어가 ‘수의결책(守義決策)’을 지키려고 했고, 양두환(梁斗煥)과 몇몇 동지들은 ‘자정’하기로 결정했다.<sup>36)</sup>

의암 유인석은 당시 양모 덕수이씨(德水李氏)의 상중(1895. 10. 사망)이었으므로 거의할 수 없었다. 다만 일제의 침략세력이 미치지 않는 요순고성(堯舜古城)에 망명하여 의관(衣冠)과 예의(禮義)를 보호보존하고, 전통문화인 구제(舊制)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인석은 얼마 후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신하가 될 수 없고, 신체를 보존하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수의책(守義策)을 포기하고 거의책(舉義策)을 결심하게 된다.<sup>37)</sup>

유인석의 거의책에 호응하여 원주지평제천 지역에서 화서문인과 유종교유인석 문인유생 의병장들이 주도세력을 이루고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이항로유종교유인석 문인으로서 유인석 의병진영에 참여하였던 인물은 다음과 같다.

35) 위의 책, 雜錄, 69쪽. 이 故事의 출처는 『論語』 微子章이다; “微子去之 箕子爲之奴比干諫而死孔子曰 殷有三仁焉.”

36) 『毅菴集』 卷50, 附錄, 從義錄, 739쪽.

37) 『昭義新編』 卷1, 西行時在旌善上疏 6쪽.

- ① 강릉 : 최영훈(崔永勳)오인영(吳寅泳)박주순(朴胄淳)배시강(裴是綱)이동극(李東極)이제규(李濟奎)천낙구(千洛龜)허건(許健)이기훈(李基薰)박선실(朴善實)심상준(沈相駿)최종길(崔鍾吉)
- ② 원주 : 박정수(朴貞洙)원용정(元容正)김사정(金思鼎)원용석(元容錫)구연상(具然庠)심흥규(沈興奎)주현삼(朱鉉三)한동직(韓東直)
- ③ 춘천 : 신지수(申芝秀)
- ④ 홍천 : 박장호(朴長浩)
- ⑤ 횡성 : 배진환(裴縉煥)이명로(李明魯)
- ⑥ 인제 : 장태진(張泰鎭)
- ⑦ 정선 : 김지수(金持修)

전기 을미의병 당시 강원도 의병으로 두드러지게 활약한 의병부대로서는 영서북부지방에서 이소응의 춘천의병과 영서 남부지방에서 유인석의 제천의병, 그리고 영동지방에서 일어난 민용호의 강릉의병이 있다. 그밖에 강원도지역에서 춘천의 지용가김경달(金敬達), 홍천의 최삼여(崔三汝)남궁령(南宮靈), 횡성의 권대형(權大衡)·박성묵(朴性默)홍재구(洪在龜), 원주의 이인영(李麟榮)한동직(韓東直)김병대(金炳大)경희백(慶希伯)강두동(姜斗東)김종오(金鍾鳴), 영월의 엄성하(嚴聖河)김시백(金時伯)김시중(金時中) 등의 의병장이 활동하였다.<sup>38)</sup>

춘천의병은 1895년 12월 6일 습재 이소응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정인회성익현박현성 등과 이면수이진응이만응이경응이면응 등을 참모로 구성하고, 횡성 의진장(義陣將) 권대형(權大衡) 등 홍천지평영평(永平)포천(抱川)철원진장(鐵原陣將)과 각 지

38)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1, 1983, 170쪽.

역의 모병관(募兵官) 등으로 의병 진영을 새로 조직하였다. 춘천의 병은 장관중사 1백여 명에 충군 1천여 명이며, 민군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의병대장 이소응은 모든 의병을 모아놓고 토적복수(討賊復讎)의 동맹을 약속하고, 이미 정한 군제에 새롭게 군율과 율령상벌 조목을 제정하고 춘천의병 편제<sup>39)</sup>를 <표 1>과 같이 편성하였다.

<표 1> 1895년 전기 춘천의병 편제

직 위	이 름
上 將義兵大將	習齋 李昭應
亞 將	九樵 李晚應
軍師將	盤湖 李勉洙[武科 司果]
先鋒將	李載豐[楊州人]
突擊將 兼 監軍事	朴賢[玄]成
前軍將	李冕應
前軍副將 兼 運糧使	申在喜[加平人]
前軍謀士將	李明菴
謀士將	黃 鎭
召討將	洪允令
守城將 兼 運糧使	各邑 地方官
率兵執事都摠隊長	哨長 成益賢
敎鍊執事	李用俊
軍器執事	全致弘

39) 필자는 1999년 12월 초 성균관대 大東文化研究院의 ‘華西學派의 學脈과 民族運動’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가, 乙未義兵 및 華西學派 名譽回復對策委員會 李鍾立 회장님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고, 춘천의병장 李景應 實記인 『乙未義兵實蹟』[이경응 증손 李海正氏 소장]과 습재 이소응의 『習齋稿抄』원본을 새로 발굴하여, 1차로 분석하여 춘천의병편제를 최초로 정리하였다(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286쪽).



運糧使	黃永鎭
參 謀	李守春 等
別從事	閔聖元尹英信
從 事	李斗彩安奭李東國韓喜玉鄭登龍睦昌信 朴敎錫朴閔信李載[培]仁 等
募兵軍官	金順善金太玉黃 更
率兵執事	陳文三崔東漢
率兵都摠使	成益賢
按察軍中事	李晦[景]應
譏察軍官	朴 錫
軍 卒	沈奇澤
春川募軍丁官	柳重洛任燾玉
加平募砲兵官	李忠應
楊口募砲兵官	李大有
狼川募兵官	鄭夏玉
麟蹄募兵官	金安裕
楊州募兵官	池德成
砥平陣將	崔台憲[洪川人]
洪川陣將	南宮檣[洪川人]
橫城陣將	權大衡[橫城人]
鐵原陣將自稱大將	兪鎮奎[鐵原人]
永平抱川陣將	金顯龍[永平人]

이소응은 의병대장에 취임하면서 창의격문(倡義檄文) 「격고팔도(檄告八道)」를 8도에 보내 인심을 격동시켰으니,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 왜노(倭奴)가 창궐하고 국내에 적신(賊臣: 개화파, 필자주)이 그들에게 붙어 국모를 시해하고 임금의 모발을 강제로 자르기

까지 하며, 만백성을 모아서 개나 양[犬羊]의 무리 속에 빠트리게 하며, 요순과 공자주자의 도(道)를 쓸어 없애려하려 하니, 황천상제(皇天上帝)는 위에서 진노하시고, 온 군대와 백성들이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로 생각한다. 무릇 우리 곳곳에서 봉기하는 충의의 장수들은 중화(中華)를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며, 국가를 위해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것으로 제일의 대의(大義)로 삼아야 한다. 의병이 이르는 각 영 각 읍의 장관으로서 만일 자기 일신의 편리할 것을 생각하여, 관망하며 곧 호응하지 않는 자나, 적의 편에 붙어 군정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이적금수(夷狄禽獸)의 앞잡이요, 난신적자의 도당이니 단연 군율(軍律)을 시행하여 먼저 베고 차후에 보고할 것이다.<sup>40)</sup>

춘천의병장에 취임한 이소응은 춘천 봉의산에 제단을 설치하고 ‘거의서천제(擧義誓天祭)’를 지내고, 각 면의 부호들에게 군량을 징발하고 군기고를 열어 일반 민병에게도 무기를 주어 밤낮으로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1월 26일[음 12.12] 춘천의소(春川義所)의 이름으로 인근 고을에 “의병의 군수경용(軍需經用)이 시급하니 각 고을에서 납입해야 할 호포전(戶布錢) 및 조세(租稅)를 밤을 세워서라도 납입하라”는 군수전의 납부를 독촉하는 통문을 보냈다.<sup>41)</sup>

1896년 양력 1월 13일자로 정부에서 조인승<sup>42)</sup>을 춘천부 관찰사 겸 선유사로 임명을 하였으나 그는 춘천부에 부임을 못하고 가평

40) 『習齋集』 卷33, 雜著, 「檄告八道」, 4쪽 ; 『恒窩集』 卷20, 雜著, 「春川倡義布告文」, 1056~1057쪽; 柳重岳은 李敬器[昭應]作을 代筆하여 「春川倡義布告文」도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0, 233쪽. 李求鎔, 「江原道地方의 義兵抗爭」, 『江原義兵運動史』,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99쪽.

42) 『官報』 제244호, 建陽元年 2月 10日 月曜日, 「彙報」에 춘천의병에 처형당한 “春川府觀察使 曹寅承을 潔身으로 就義忠節凜烈事로 政府에 恤金給與件을 上奏하고, 또 特旨로 從一品을 追贈하여 易名之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관아의 향리[豪吏] 신정만(申正萬)집에 수행원과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8일자로 겸임춘천재판소판사(兼任春川裁判所判事)로 발령을 내렸다.<sup>43)</sup>

그러나 조인승 일행이 가평에 머물고 있는 것을 탐지한 춘천의 병은 가평으로 출동하여, 그들을 붙잡아다가 춘천읍 앞 개못개[佳淵里犬淵里, 현 춘천세무소가 소재한 중앙로 23가, 죽림동일대] 처형장에서 10여 명의 의병들이 총살하였다고 한다.<sup>44)</sup> 이것이 을미의병운동 가운데 의병이 친일 현직고관을 처단한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예로서, 춘천의병의 과격성과 반개화성을 대변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내각대신들은 물론 지방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sup>45)</sup>

한편 경기도 지평(砥平)에서 1895년 11월 28일 이춘영(李春永) 안승우이범직(李範稷)원철상(元喆常)신지수(申芝秀) 등과 포군(砲軍) 출신 김백선(金伯善)과 기병(起兵)할 것을 모의하여 원주 안창역(安昌驛)에서 창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거의한 지평의병은 의암 유인석의 제천의병의 전단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의

43) 『官報』 제227호, 建陽元年 1月 21日 火曜, 「敍任及辭令」, 69쪽.

44) 車相瓚, 「내가 亂離치러 본 이야기」, 『擘星』 1권 8호, 1931. 11.

45) 春川府觀察使 曹寅承의 처단사건에 대하여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梅泉野錄』에 의하면, ① 春川觀察使 曹寅承은 본래 書法으로 저명하였으나, 그가 이 때 삭발을 하고 부임하자, 江原道義兵들이 그를 살해하였다. 이 때 살해된 관리들은 20여명이나 되었다[金滄江 澤榮이 加錄]. ② 그는 이 때 삭발을 하고 임지로 떠났다. 그가 도착하여 의병들이 자기를 살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마[轎子] 안에서 小刀를 꺼내어 자결하였다[李蘭谷 建芳이 改正][黃玆, 『梅泉野錄』, 196쪽]; 한편 『독립신문』에 의하면, 李德一이 조인승을 포살한 이유로 강원도 재판소에서 그를 絞首刑으로 판결되었으나, 이듬해인 1897년에 감형되어 終身懲役刑으로 선고받았다. 『독립신문』 제93호, 잡보, 1896년(高宗 33) 11월 7일자와 『독립신문』 제122호, 잡보, 1897년 1월 16일자 참조[李求鎔, 「江原義兵의 抗日鬪爭」(『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II)』, 광복회강원도지부), 138~144쪽].

세를 몰아 원주읍으로 진군하고, 12월 3일 제천 장담으로 남진하여 의진을 설치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이필희서상렬(徐相烈)오인영주용규배시강 등 유인석 문인들이 모여들자, 이춘영 등은 여주의 무과출신으로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후예로 신망이 두터운 이필희를 의병대장에 추대하는 동시에 의진의 면모를 갖추었다.<sup>46)</sup>

안승우는 의병부대가 제천에서 단양주천평창으로 진군하면서, 12월 14일 강릉의진을 결성하기 위해 강릉으로 이동하는 민용호(閔龍鎬)에게 사람을 보내, 제천의진과 합세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sup>47)</sup> 그러자 안승우는 12월 20일 영월로 들어가 이춘영 부대와 합류하고 춘천의병장 이소응(李昭應) 의진에게 춘천과 원주 사이인 횡성원주간을 적으로부터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48)</sup>

횡성지역은 을미의병이 봉기하는 초기단계에 거의 분위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었으며, 원주는 지평에서 시작한 이춘영안승우김백선 등을 모태로 형성한 이필희 의진이 편성되기 이전에 군사를 소모하였던 중요한 지역이다. 원주는 횡성과 함께 화서학파의 주요 본거지 중의 한 지역이었다. 남한강 수계인 원주횡성은 충주 제천 등으로 연결되는 활동근거지였다.

춘천가평은 북한강유역으로서 이항로김평묵유종교 문인들이

46) 李正奎, 『從義錄』, 19쪽.;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355~356쪽. 大將 李弼熙, 中軍 李春永, 先鋒 金伯善, 軍師 徐相烈, 軍務都有司 安承禹, 書記 元容正, 參謀 李弼根 등으로 편성하여 이필희 의병부대를 새롭게 의진을 갖추었다.

47) 원주에서 제천의진(지평의병)의 總督召募將 金思鼎과 都領將 朴雲瑞가 소모한 군사를 민용호가 거짓으로 속여 가로챈 처사 등 강릉의진과의 갈등문제가 노출되었다. 이들 의진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한 논문이 있다.(朴敏泳, 「제천강릉·춘천의병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1895-6)」, 『2001년 제천의병전시관 개관기념 학술회의』, 세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48) 安承禹, 「與春川義兵所」, 『湖西義兵事蹟』, 堤川郡文化院, 1994, 566쪽.;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365쪽.

활동한 근거지이다.

그러므로 횡성지역은 독자적인 활동형태보다는 유인석의 제천의진과 민용호의 강릉의진 그리고 이소응의 춘천의진과 상호관계 속에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활동권역을 형성하여, 춘천강릉 제천 세 의진과 합세하거나 상호 연합하여 의병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2) 후기 의병활동

고종(高宗)은 한국병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한국정부나 국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국제 정의에 호소하여 열강의 여론이나 간섭에 의한 국권회복(國權回復)을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미국러시아 등 각 국에 여러 번 특사(特使)를 파견하여 일본의 한국침략상을 날낱이 폭로하고 한국에 대한 구원을 호소하였는데, 그 중 큰 것이 ‘헤이그’ 특사사건이었다.

고종은 당시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설(李相高)이준(李儁)이위중(李瑋鍾) 등 3인을 특파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하였다. 1907년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한 특사들은 평화회의에 참석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국제세력 관계와 일본측의 방해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자, 부득이 신문기자들에게 일본의 한국 침략상을 날낱이 폭로하고 한국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것을 ‘헤이그’ 특사사건이라고 한다.<sup>49)</sup>

이 사건은 동년 6월 말경에 일본정부에 보고되고, 7월 2일에 이포오(伊藤博文)에게도 알려 왔다. 일본정부는 7월 12일에 회의를

49) 李瑋根, 『韓國獨立運動史』, 尙文院, 1956, 277쪽.

열어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묻고, 일본정부가 앞으로 한국내정의 전권을 장악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천방법으로서 한국 황제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 등을 이또오 통감(統監)에게 지령하였다.

이에 이또오는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불러 고종의 양위를 즉시 강행토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완용 등 내각대신들은 7월 16일 밤부터 18일 밤까지 매일 입궐하여 고종을 협박하고 양위를 서둘러냈다. 고종은 할 수 없이 19일 새벽에 황태자로 하여금 국정을 대리케 한다는 조칙을 내리고 말했다.<sup>50)</sup> 물론 황태자의 대리집정이 양위한 것과는 다르나, 친일내각과 일본인의 강압에 못 이겨 황태자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던 것이고 보면, 이는 곧 고종이 퇴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종의 퇴위는 그간에 일본의 한국 침략행위를 완강하게 저항해 온 국부(國父)마저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했다는 사실도 중대한 일 이거니와, 그 보다도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타의로 국왕이 퇴위 당하였다는 자체가 조선 멸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종 퇴위는 마침내 세 번째로 크게 일어나는 의병항쟁의 요인이 되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다시 의병이 봉기하여 한말의병항쟁 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때의 의병이 1907년 정미년(丁未年)에 기의하였기 때문에 정미의병이라고 부른다.<sup>51)</sup>

정미의병은 고종의 퇴위사건을 계기로 야기되었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의 체결이나, 군대해산이 있기 이전인 7월 22일에 이미 경기도 안성군에서 약 300명의 의병이 일어났다. 그러나 의병이 본격적으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된 것은 정미7조약

50) 李光麟, 『韓國史講座』V(近代篇), 一潮閣, 1981, 493쪽.

51) 丁未義兵을 또 제3기 후기의병(제5단계: 1907. 8.~1908. 5. 제6단계: 1908. 6.~1909. 10.)이라고도 한다.

의 체결과 군대해산이 강행된 이후부터였다. 즉 7월 24일 일본측은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강제로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을 조인토록 하여, 한국의 전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함으로써 차관통치(次官統治)를 시작하였다. 가뜩이나 고종의 퇴위로 분개하고 있던 민심은 더욱 고조되었다.<sup>52)</sup>

그 뿐만 아니라 7월 31일 일제는 그들이 작성한 군대해산의 조칙을 순종으로부터 재가받은 형식을 취하여,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2월부터 친위대에서 선발한 군인으로 시위대(侍衛隊)를 신설하고, 1905년 4월 중앙군인 시위대와 친위대를 통합하여 이름뿐인 1개 위혼성여단(衛混成旅團, 총 4,706명)으로 감축시킨 서울 시위대를 조직하였었다. 그런데 일제가 1907년 7월 31일에 시위대를 훈련원에 집합시켜 해산식을 실시하고,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의 한달 사이에 지방 진위대(鎭衛隊) 해산을 감행하였다.

황실(皇室) 시위대의 극소수만을 남겼을 뿐, 이제 한국군대는 완전히 해산됨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군대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한 나라의 군대는 적어도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백성의 자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거나 국가의 멸망을 뜻함이었다. 그러므로 일제가 이를 강행하였다 함은 그들이 장차 한국을 병탄(併呑)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며, 때문에 이 지경을 당하여 의병이 봉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1905년 4월 현재 대한제국의 총병력은 서울에 있던 시위대와 친위대를 합친 4,706명(1905년 4월 현재)과 지방에 있던 지방의 진위대 2,434명, 그리고 특수부대(헌병대여성학교무관학교 등)

52) 金允植, 『續陰晴史』下, 光武11年(1907) 7月 26日條 213쪽.

병력 500여명을 합한 총 7,60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미비밀각서(丁未秘密覺書)에 따라 그나마 유명 무실했던 한말군대조차 없애려고, 이또오는 우선 8월 1일을 기하여 서울 시위대의 해산을 단행하려 하였다.

이를 눈치챈 한국군 시위대 2개 대대 (제12연대 각 1대대)는 박승환(朴昇煥) 참령(제1연대 1대대장, 현 소령)의 자결에 분기하여, 무장해제는커녕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까지 벌여 피차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결국 이 전투는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의 신호가 되어 각지로 파급되어 갔다.

서울시위대의 항쟁은 일본군보다 열세하여 이겨내지 못했으나, 해산병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져 서울의 사태를 알리는 동시에 해산된 지방진위대 군사들과 더불어 의병에 가담, 합세하여 의병의 주력을 이루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黃玿는 “그들이 곧 성밖으로 달아난 자는 모두 의병에 합류하였다”<sup>53)</sup>고 하였고, 송상도(宋相燾)는 “남은 군인들은 각자 흩어져 八路 의병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로부터였다”<sup>54)</sup>고 하였다. 일본군 자료에서도 “해산된 군인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도망하여 폭도(暴徒: 義兵, 필자주)의 무리에 뛰어들어 오랫동안 화란(禍亂)의 불길을 종식시키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sup>55)</sup>고 기록하였다.

후기 정미의병항쟁은 갑오(甲午)을미의병(乙未義兵)이나 을사의병(乙巳義兵)에서와 같은 민병만의 항쟁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진위대 중에서도 원주나 강화 등의 몇 군데에서는 해산군인세력이 유난스러웠다. 특히 원주진위대의 경우는 해산을 위한 일본 감시관이 오기 전에 무기를 가진 채 미리 봉기함으로써 여러

53) 黃玿, 『梅泉野錄』 卷5, 光武11年 丁未 7月條.

54) 宋相燾, 『騎驢隨筆』, 南相惠條, 121쪽.

55) 『朝鮮暴徒討伐誌』, 139쪽.



의병부대보다도 그 주력을 이루었다.<sup>56)</sup>

고종퇴위와 정미7조약 그리고 한국군대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봉기한 후기의병은 거의 목적을 ‘국권방위(國權防衛)’에 두고 있었다.<sup>57)</sup> 이는 원주에서 재기한 이인영(李麟榮)이 각도 의병장들의 추대를 받아 전국 13도창의대장에 오른 동시에,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서울 진격을 위해서 의병통일체의 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여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내세운 후기의병의 의거목적에서도 족히 알 수 있다.

한말의병은 제1기 의병의 목적을 ‘국수보복(國讐報復)’에 두었고 또 제2기 의병의 거의목적을 ‘국권회복(國權回復)’으로 부각되었으며, 제3기 의병에서는 창의목적을 ‘국권방위(國權防衛)’의 항쟁으로 전개시켜 갔다. 후기 정미의병은 전기 을미의병이나 중기 을사의병의 의병처럼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던 유자들과는 달리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해산병이 합류하면서 그 핵심적 이념이 되고 있었다.

후기의병항쟁은 전투능력이 과거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또 의병의 병수(兵數)로 보거나, 조직에 있어서도 지난 제1기나 제2기보다도 훨씬 규모가 컸던 것이므로, 오묘한 기습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미의병은 갑오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과 같이 민병만의 항쟁은 아니었다. 이는 관군으로서 지난날 의병을 탄압하던 해산병이 일어나 민병인 의병과 합세했던 까닭에 후기의병(제3기 정미의병)은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과는 대

5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1, 512쪽.

57) 그러나 당시 자료인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5일자 「지방의 투쟁」과 맥캔지의 『대한제국의 비극』(신봉용 역주, 탐구신서 266쪽.)을 보면, 의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일제의 과잉진압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으며, 둘째는 일제의 가혹한 조세수탈이다. 민궁호는 강원관찰사 黃鐵의 해산 권유문에 답신할 때 의병봉기의 명분과 관련하여 일제의 조세수탈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暴徒에 關한 編冊』, 115쪽.)

열의 구성 또는 성격 면에서 다양성을 지녔고, 역시 전투면에 있어서도 치열하고 장기적인 “피의 항쟁”을 벌여 한말의병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다.

후기의병<sup>58)</sup> 당시 횡성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과 의병부대는 민공호 의병부대, 이강년 의병부대, 이인영(李麟榮)·이은찬(李殷贊) 의병부대, 허위(許蔦) 의병부대, 왕회중(王會鍾)·김주묵(金湊默) 의병부대, 지용기 의병부대, 유홍석 의병부대, 그리고 러시아령 연해주(沿海州)에서 의병활동의 의맥(義脈)을 이어간 유인석 의병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격렬하게 항쟁한 민공호·이강년·이인영 의병부대가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횡성 출신 의병장으로는 최인순(崔仁舜)·한상렬(韓相烈)·박성묵(朴性默)·강도영(姜道永) 등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하였다. 횡성 출신은 아니지만 횡성에서 활약한 의병장은 송낙중(宋洛中)·이강년(李康年)·민공호(閔肯鎬)·박장호(朴長浩)·여용서(余龍瑞)·심상희(沈相熙)·김상태(金相台)·조병인(趙炳仁)·한봉수(韓鳳洙) 등이 있다.

횡성에서는 한기석(韓基錫)·한갑복(韓甲復) 등도 크게 활약하였으며, 횡성군의 서기(포수계장) 오정묵(吳正默)이 많은 산포수들의 힘을 빌어 사환, 노동자들과 더불어 의병부대를 조직한 후 크게 활약하였다. 횡성 출신의 강도영은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일본수비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한상열은 후에 만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최인순은 강릉에서 전사하였다.

특히 신화 속의 인물처럼 구전되는 민공호(閔肯鎬)는 횡성지역

58) 강원지역 후기의병은 ‘北部守備區大討伐作戰’이 끝나는 7월을 중심으로 양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후기 1기를 1907년 8월부터 1908년 7월까지로, 후기 2기를 1908년 8월부터 1910년 8월 29일 庚戌國恥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활동양상을 살펴본다.

의 의병활동은 물론, 강원전역에서 활약상이 뛰어났다.<sup>59)</sup> 그는 원래 서울출생이며 여흥민씨(驪興閔氏) 일족으로서 일찍이 1897년(光武元年)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 하사로 입대하여 문경(聞慶)풍기(豐基)간성(杆城)고성(高城) 등지의 분견대를 전전 근무한 후, 춘천분견대로 진출되어 1900년(光武4) 정교(正校)직에 올라, 다음해 처음으로 특무정교(特務正校: 特務上士, 오늘날의 元士)의 지위에 발탁되어 원주진위대에 전입되어 근무하였다. 그는 8월 5일 충주수비대 니노미야(李宮)소위로부터 군대해산의 소식을 듣고 약 300여명의 원주진위대 병사를 이끌고 원주 우편취급소 및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민공호는 의병을 조직하면서 오정목을 포군대장으로 투입케 하고 의병부대를 정비하여, 제천충주풍기 등지를 습격하면서 일본수비대와 격전하였다. 민공호부대는 횡성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덕고산(德高山, 현 泰岐山, 1,261m)과 봉복산(鳳腹山, 1,028m)에 감싸있던 갑천면(甲川面, 현 晴日面) 신대리(新垈里) 봉복사(鳳腹寺)에 의병진영을 치고, 홍천인제원주평창영월강릉제천충주풍기울진 등지를 주로 이동하면서 약 1,5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단연 발군의 활약을 보였다. 민공호는 후기의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의병세력을 규합하여 타 의병부대와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활동하였다.<sup>60)</sup>

민공호는 1907년 9월 22일 봉복사에 잠거 중 일본군 사도우(佐

59) 본 연구에서는 일제측의 의병 학살 기록인 『暴徒에 關한 編冊』 등을 주자료로 활용하였다. 위 자료는 누락되거나 과장 보고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는 가능한 범위에서 의병측 자료와 비교 검증하여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사실에 접근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60) 각 의병부대와 상호연락체계는 민공호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는 강원도내 32개 의병진영과 상호연락을 총지휘하였다(『暴徒에 關한 編冊』 122쪽150쪽. 참조).

藤)대위가 지휘하는 원주수비대와 격전하다가 패하고, 홍천인제 강릉 등지로 이동하면서 의병소모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받아 부하를 잃고, 40여명을 이끌고 1908년 2월 29일 원주군 부흥사(富興寺) 석경사(石逕寺)에 있는 선유위원(宣諭委員) 박선빈(朴善斌)한테로 향했다. 영월군 수주면(水周面) 강림(講林, 현 講林面 강림리) 동쪽 10리에 있는 등자치(登子峙) 부근에서 민공호 부하가 잠복하는 것을 탐지한 충주수비대 한국순사대 경시(警視) 권모(權○) 이하 15명이 민공호 의병부대를 쫓아왔다. 북방 약 10리 지점인 궐덕리(蕨德里)에서 민공호가 그의 부하 90여 명과 함께 잠복하고 있는 것을 탐지한 한국 순사대는 오전 11시 궐덕리를 양방면에서 포위하고 권경시 순사대가 공격하였다. 민공호 의병부대는 서방고지를 점령하고 촌락 위벽(圍壁)에 의거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충주수비대 순사대는 수회에 걸쳐 돌격을 반복하여 의병 20명을 사살하고 의병장 민공호를 포박하였다. 남은 의병들은 동북방으로 일단 피신하였다. 그날 밤 민공호 부하 의병 60여명은 강림으로 역습하여 용감한 동작으로 민공호를 구출하고자 순사대를 공격하였다. 피아의 거리가 10수미터로 접근하자, 포박 당하고 있던 민공호가 도주하려고 하자, 권순시 순사대는 그를 살해하였다. 황성의병들은 의병대장 민공호와 의병들의 시신(屍身) 11구를 유기하고 북방으로 퇴각하였다.<sup>61)</sup> 민공호 의병진영은 쇠약해지고 의병들은 전선에서 사망으로 이탈 잠적하거나 귀순하는 자들이 생겼다.<sup>62)</sup>

오정묵은 황성군 청룡면(靑龍面) 갈풍리(葛豐里) 출신으로, 원래 황성군 수순교 겸 포수계장으로 있었다. 그는 1907년 8월 포수

61) 『朝鮮暴徒討伐誌』, 733~734쪽.

62) 朝鮮總督府警務局, 『暴徒史編輯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 제3집, 597~598쪽.

20여명을 인솔하고 봉복사에 수렵차 출장중 민공호의 권유에 못이겨 포군대장으로서 그 무리를 민공호 의병부대에 투신케 함으로써 의병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횡성의병의 민공호 의진과 더불어 충북 제천(堤川)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충주 강령촌(康嶺村)에서 일병(日兵)에게 패배하여 의진의 충돌이 생겨, 마침내 민공호 의진을 떠나 남면 강산동(鋼山洞)에 잠복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 탐지되어 이곳을 떠나 횡성군 청일면 울실리(粟實里)에 잠복 중 귀순자 면죄조칙(免罪詔勅)이 발표되자, 이를 듣고 1908년 4월 3일 마침내 귀순하였다. 그리고 그가 인솔하였던 부하 포수 60여명은 그의 권유에 의해 전부 귀순케 하였다.<sup>63)</sup>

한상열(韓相烈)은 횡성의 독립 의병부대를 지휘하던 의병장으로서 그는 우천면(隅川面) 하수남리(下水南里)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양반 후손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한편, 보부상의 두목을 겸하여 다소 협기(俠氣)가 많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1907년 8월 군대해산 직후 의병이 사방에서 봉기하자 약 200 명의 의병을 소집,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횡성지평홍천원주평창영월 등의 각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는 1908년 4월 2일 홍천군 월운리(月雲里)의 서북에 있는 복동(福洞)에서 일본군 횡성수비대에게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였다. 횡성수비대는 한상열 의병장의 부인을 포로하여 구금시켰다. 그는 더욱 분노하여 마침내 김현국(金顯國)<sup>64)</sup>금기철(琴基哲)과 협력하여 4월 20일 일본군 횡성수

63) 『暴徒史編輯資料』, 598~599쪽.

64) 金致永은 原州郡 所草面 日實里 출신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인물이었으나 민공호가 불러 의병진영의 召募將으로 삼았다. 그는 민공호가 순국하자 대단히 분개하여 金顯國이라 改名하고 韓相說琴基哲 의병부대와 합세하여 횡성 등지를 습격하였으나, 모두 격퇴 당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寧越郡 水周面 雉岳山에 잠적하여 있는 듯하다고 원주경찰서 관내 의병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暴徒史編輯資料』, 599쪽).

비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일면 동평리(銅坪里) 방면으로 이동한 후 잠적하였다.<sup>65)</sup> 그 후 그는 국내에서 항일투쟁의 어려움을 느끼고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결합하고 대한의용부(大韓義勇府)에 가담하여 참모의 중책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 참모로서 국외에서의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sup>66)</sup>

이외에도 횡성지역에서의 항일의병활동은 계속되었다. 1908년 1월 10일 횡성 서방에서 약 40명이, 3월 5일 횡성 동북지점 40리 지점에서 약 150명이, 7일 횡성 동방에서 약 60명이, 13일 횡성 북방 40리 지점에서 약 150명이 항일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유력한 의병장들이 조기에 전사하거나 피체되어 의병부대간의 조직적 연계도 소원해지자, 의병의 사기도 저하되어 의병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역사상 민족과 국가가 위급할 때 언제나 분연히 일어나 우국충정을 펼쳤다. 횡성지역의 항일의병투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1919년 31독립운동과 독립군 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원류를 이루었으며, 그 후에도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민족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어 애국계몽운동과 한국 민족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1907년 5월의 헤이그특사사건과 7월의 고종 폐위, 그리고 8월의 군대 해산으로 의병활동은 극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강제해산으로 직위를 박탈당한 구한말 관군들이 의병으로 변신하고, 광무(光武, 高宗)황제(皇帝)의 폐위 반대운동이 곧바로 의병운동으로 연결된 이 시기의 횡성지역의 의병활동은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였다.

65) 『暴徒史編輯資料』, 599~600쪽.

66) 『橫城郡誌』, 總論, 人脈, 「愛國志士」, 119~120쪽.

군대해산에 반대한 봉기는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의 항전이 가장 치열하였다. 8월 1일 서울진위대의 항전소식을 전해 듣고 동요하는 애국병사를 대대장(參領) 홍유형(洪裕馨)은 무마하려 노력하지만, 도리어 병사들의 반항심만을 북돋아 대대장 김신제(金愼濟)와 특무정교(特務正校, 오늘날 元士) 민공호(閔肯鎬)는 병사들과 더불어 비밀리 봉기계획을 세우고, 8월 5일 병사 250명과 봉기, 무기고를 열고 소총 1,500정 탄환 4만발을 일반 시민에 나누어 준 후 같이 원주 우편취급소, 군청(郡衙), 경찰분서, 일인과 일인 가옥을 급습하여 원주를 완전 장악하고, 8월 5일 여주진위대와 합류하여 서울로 진격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충주경찰고문지부(忠州警察顧問支部)와 항전. 승리를 거두고 8월 8일 원주에서 병기를 거두고 철수하였다. 그러나 김덕제는 평창강릉양양간성통천방면에서, 민공호는 제천충주죽산장호원여주홍천횡성에서 크게 활약하고, 특히 횡성에서는 한기석(韓基錫), 한갑복(韓甲復)이 이에 크게 용기를 얻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어서 음력으로 7월 25일 원주진위대 봉기병은 서울해산병 300명과 횡성원주인제 등지에서 모여든 지방의병 5~6백명과 홍천 남쪽 10리쯤 되는 성전(城前)에서 모여, 홍천 주둔 일군 20명과 싸워 모두 격퇴시키는 등 관동 일대의 의병부대의 핵심으로 그 세력은 무려 4~5천이 되었다.

같은 해 10월 31일부터는 한갑복민공호한상열(韓相烈)이인영여용서(余龍瑞)장모(張某)심상희(沈相熙) 등의 의병장이 거느리는 해산군 및 지방 의병들로 구성된 8천명 이상의 의병들이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현 서원면)에 모이기 시작하여 보초를 배치하고, 그 고지에 방어공사를 시작하고 각

지로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여 더 증원하면서 원주, 충주를 탈환하고 서울 진격을 도모하였다.

1907년 10월에는 심상희의 의병부대가 한백원(韓百源), 임성집(任成集)부대와 함께 전대원의 반을 양총(2030년식의 일본총)으로 무장하고 경상경기강원도 등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으로 일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즈음 사냥을 업으로 하던 산포수(山砲手)들이 의병과 합류하였다. 횡성에서는 서기(書記)로 있던 오정묵(吳正默)이 많은 산포수의 힘을 얻고, 심지어는 이 지방의 사환(使喚)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어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크게 활약하고 이에 힘입어 지평원주·홍천인제에서도 산포수들이 의병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당시 강원도 의병은 거의 군대 해산병정들로 양총으로 무장하고 일찍이 조련을 거친 바 있고 규율이 엄하고 일병과 싸우면 살상이 심히 많았다. 그리고 세력이 방대하여 4~5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강원도에는 의병이 무서워 관원들이 다 달아나 관아를 비운 곳이 19개 군(郡)이나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1907년 11월~12월 사이에 강원도내의 의병과 일군의 대치상황을 『조선폭도토벌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월 별 : 11월~12월

도 별 : 강원도

지 방 : 고모곡 부근(현 횡성군 서원면)

주요 의병장과 그 세력 : 이인영방관일정대일 이하 700명

일군의 배치상황 : 보병 제51연대의 보병 1중대 기병, 산포병, 공병 각 1소대

13도 창의대장이던 이인영(李麟榮)은 원주의병장 이은찬(李殷瓚), 이구재(李九載) 등과 합세하여 횡성지평춘천 등지를 횡행하며 8



도의 의병을 모병하여, 11월에 각도에서 모은 인원을 양주(楊州)에 모이게 함에 따라 횡성지역의 의병은 일부 경기도로 기병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인영민공호 등을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서울로 진격하지만, 동대문 밖 30리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분전하나 워낙 많은 일본군의 수효에 퇴각하게 되었다.

의병활동의 열기가 더욱 거세어지고, 민중이 이에 동조 의병을 적극 도와주므로 의병 토벌이 어려워지자, 일제는 잔악하게도 의병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가를 불사르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일본인들의 간행물에서조차 “폭도에 동정하고 이를 비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토벌대는…책임을 현범(現犯)의 촌읍(村邑)에 돌려 주륙(誅戮)을 가하고, 또는 전촌을 소탕하는 등 처치를 실행하여 초토화하게 했다”고 적고 있다. 횡성 인근에서는 1907년 8월 2일 홍천읍에서 300호, 8월 7일 양평(楊平)에서 300호, 10월 9일 안협군(安峽郡)에서 60호, 10월 23일 홍천군 118호, 11월 5일 홍천지평춘천에서 66호, 11월 12월 양근(楊根, 현 양평)에서 455호가 소실되는 등 전국적으로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일제의 집계숫자만으로도 6,681호가 소실되었다. 이로서도 의병을 토벌할 수 없게되자, 횡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강원충청경북에서 일제는 야수적인 살인극을 벌렸다. 원주에서는 의병용의자 수명을 나무에 묶어 놓고 꺾질을 벗겨 죽이는 등 금수만도 못한 학살을 벌였는데 그 예로

“사람을 수백 명쯤 반 신을 땅에 묻어 놓고 풀 베듯 목을 잘랐다.”

“촌민 7명을 학살 시가에 효수하고 다른 곳에서는 촌민 2명을 총살, 술에 넣어 끓인 후 많은 사람에게 골육을 보라고 강요하였다.”(강원 고성에서)

“남녀 수백 명의 옷을 발가벗겨 종일 빙판 위에 세워두어 동사케 했다.”(황해도 평산)

“양민을 잡아 땅에 눕히고 입에 강제로 물을 부어 놓고 발판을 깔고 올라타 입으로 물이 나오게 했다.”(원주에서)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 공포에 떨기보다는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즉 그들(日人)이 자기의 생활의 파괴자며 침략자라는 판단을 촌민들에게까지 파급시켜 저항운동에 어린이는 물론 친일정부에 협력하던 면장구장(面長區長)까지도 참가하는 폭넓은 저항운동으로 성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907~1909년까지 구한말 군대에서 활약한 의병장을 『폭도토벌지』 『폭도사편집자료』 『매천야록』 『기려수필』 『한국독립운동사』 『황성신문』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민공호(閔肯鎬) : 원주제천홍천횡성
- 한기석(韓基錫) : 횡성
- 심상희(沈相熙) : 춘천횡성
- 이인영(李麟榮) : 홍천양주인제횡성
- 심상희(沈相喜) : 홍천원주횡성
- 한갑복(韓甲復) : 횡성지평
- 한상열(韓相烈) : 횡성지평
- 여용서(余龍瑞) : 횡성지평
- 김상태(金相台) : 영월원주횡성홍천
- 조병인(趙炳仁) : 영월횡성
- 한봉수(韓鳳洙) : 충청도횡성

민공호 의병부대는 횡성출신 한기석한갑복 등의 의병부대와 연락을 취하며 크게 활약하였다. 1907년 9월 횡성군 청일면에 소

재한 봉복사(鳳復寺)에서 350명의 의병이 일군과 격전, 큰 타격을 주고 이어 10월 25일 둔촌에서 의병 약 300명이 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지만, 우리 나라 의병사에 큰 기록을 남긴 민공호는 1908년 2월 29일 치악산 북편 안흥면(安興面) 강림(講林) 동북방 약 10리 되는 등자치(登子峙)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그 날밤 민공호를 탈환하려는 50명의 부하의 항전이 집요하게 시도되자 끝내 사살하고 만다.

한편 한봉수의병장은 원주제천횡성강릉의 의병운동에 자극을 받아 청주에서 기병 하여 청주에서 북방으로 미원(米院)진천괴산(槐山)횡성장호원 등에서 크게 활약, 4년 동안 33승 1패의 전과를 거둔다.

### 3) 전환기 의병활동

전국에서 독립을 부르짖으며 항쟁했던 의병의 눈부신 활동은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년 隆熙 4년)를 맞으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한일병탄(韓日併呑)의 치욕은 민중의 분노를 들끓게 하였지만, 강화되는 일본의 폭력통치는 국내 의병의 활동기반을 축소시켜 그 무대를 만주를 비롯한 한만국경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가장 치열하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의병활동의 중심지였던 강원충청경기경북지역은 일군의 집중적인 지목을 받게 되어, 의병활동의 제한이 많아지자, 점차 활동무대를 옮겨 북상하게 되었다.

1910년 전후까지만 해도 의병항쟁이 왕성했던 성지 횡성지역은 1919년 31만세 운동까지 질곡의 어둠과 암흑의 시기를 맞게 되

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도 항일의식이 거센 횡성지방은, 의병이란 무력에 의한 항쟁에서 일본인에 대한 비협조, 일본상품 불매 등의 정신적인 저항으로 승화되어갔다. 횡성지역 = 항일의 등식을 성립하고 횡성지역은 일본인이 관원을 제외하고는 발을 붙이지 못한 고장으로서 궁지를 가지고 피지배민족의 쓰라림과 분노를 삭이며 광복의 그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밖에도 횡성출신의 의병장으로 몇 명을 더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의병활동도 훌륭했지만, 그들은 가족으로 인한 후환이 의병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고, 또 부담 없이 활동하고자 전 가족을 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민으로 만드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최인순(崔仁舜)도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강릉에서 전사하였다. 횡성 천도교 두령이었던 강덕영(姜德永)은 청일면 춘당(春堂)고개에서 일본 침략자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훗날 횡성 31운동에서 그의 막내 삼촌 강달회(姜達會 : 士文)가 4월 1일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순국하고, 그의 아들 강만형(姜萬馨 : 春學)은 사로 잡혀 왜놈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국하였다.

또한 청일면 신대리(新垈里)에서 태어난 정문재(鄭文在)는 동학란 때 17세의 나이로 의병에 출병하여 화포의 명사수로서 활동하고 후에 선봉대장이 되어 횡성홍천원주 등지의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하북부에 관통상을 입고 낙향하여 사냥으로 소일하며 광복을 기다리다 81세에 세상을 떠났다.

청일면 고시리(古時里)에 살던 방정수도 동학란 때 의거 출병하여 용맹을 떨치다가 중과부적으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아 고문으로 불구의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그리고 한상열 의병장은 일군의 가족에 대한 학대와 고

문 방화 등의 온갖 수단을 동원한 회유, 자수권유와 체포의 노력에도 독립투쟁을 위하여 만주로 떠나 그곳에서 독립운동에 여생을 바쳤다.

지금도 안흥면 강림리와 월현리에 10개소의 무연고 의병총과 서원면 금대리에 1기의 무연고 의병총이 남아 그날의 숭고했던 항일 독립정신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중에 안흥면 강림월현 일대의 무연고 의병 분묘를 1984년 발굴 수습하여 안흥면 강림리 강림중학교 옆의 야산에 모아 합장하고 묘역을 정화하여 성역화하고 비를 세웠다.

#### 4. 횡성지역 항일의병의 성격

한말 횡성지역의 의병항쟁은 한국근대사 및 한국근대사회 변동과 한국독립운동사에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 획기적인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횡성의병은 항일투쟁에 있어서 1895년 음력 12월(양력 1896년 1월) 봉기한 전기의병활동의 성격은 일본제국의 침략의 일환으로 갑오변란, 갑오개혁, 갑오을미변복령, 을미사변, 단발령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망국의 위기로부터 국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만 했던 시기에 국가를 위한 국권회복의 구국운동이었다.

일본의 한국 침략행위를 완강하게 저항해 온 고종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강제 퇴위(退位)당하는 절박한 역사적 상황에서, 횡성의병이 지녔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져 애국애족의 구국적 애국사상이 성장하여 의병항쟁과 항일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말 횡성지역 의병을 포함한 강원 의병과 전국의 의병은 처음부터 국가의 방위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을 상실한 채 안팎으로 대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전후기의병은 신분면과 사상면에서 전통사회의 계급적 갈등과 봉건사회에 있어서도 반봉건 일부농민과의 이념적인 마찰 등을 극복하여 항일투쟁을 자민족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자주자존의식의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후기의병에 있어서는 의병참여가 유생과 농민, 그리고 지방포수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의병토벌에 앞장섰던 관군이 군대해산 후 해산군인마저도 의병에 합류하였으며, 심지어 관아의 관노가 의병장이 되어 참여함으로써 의병구성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sup>67)</sup>

한편, 사상면에 있어서도 위정척사론을 기반으로 한 화서학과 유림계층 뿐만 아니라 개화계층도 의병에 가담하여 대중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평민출신과 관료출신의 의병장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항일투쟁의식과 반봉건운동의 성격도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특히 후기 의병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격전술로 항일투쟁을 선도하였으며, 서양식 양총과 개량된 화승총의 확충으로 전투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 5. 횡성지역 항일의병의 의의

횡성지역 의병은 강원도의병의 한 지역성을 상징하리만큼 끈질

67) 洪川郡에서는 軍隊解散 이후 9월 중순경 洪川官衙의 官奴가 義兵將이 되어 800여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활약하기도 하였다(『皇城新聞』 1907년 9월 19일자 참조).

기계 버티면서 항일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한말의병의 진원지요 응거지이기도 한 강원도 의병이 횡성지역을 포괄하여 춘천원주 지역이 주축이 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횡성지역 의병은 한말의병이 지니고 있는 이념과 성과와 의의적인 면에서 그 핵심적인 귀결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말의병은 그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둔 성과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한말 횡성지역 항일의병은 전기 의병에서 전환기(제4기)의병까지를 통하여 수많은 일본군을 살상하였다. 그렇다고 이 전과만 가지고 의병이 거둔 성과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투면에서 볼 때 의병이나 한국 측에서 입은 피해가 일본인에게 입힌 손해보다 수 십배나 되며, 특히 의병이 일어난 원인과 이에 따른 기본 목표로서 국모복수(國母復讐)을사5조약파기(乙巳五條約破棄)고종황제 복위(高宗皇帝復位) 등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측 피해가 일본인측 피해보다는 훨씬 크고 또 의병의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의병활동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유인석의병대장이 을미의병 당시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이란 격문에서, “공사간(公私間)에 살아날 가망이 만무하니, 화(禍)가 되건 복(福)이 되건 다같이 죽음의 약속을 지킬 따름이다. 말 피를 입에 바르고 함께 맹서하매,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은 예측할 바 아니다. 의리(義理)를 택해서 나아가는 것이니, 경중(輕重)과 대소(大小)는 벌써 정해진 것이다.”<sup>68)</sup>라고 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그

68) 李正奎, 「倡義見聞錄」, 『獨立運動史資料集』1, 87~88쪽.

구실을 다할 뿐이지 결코 성패가 문제될 수 없다고 여겼기에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의병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오로지 ‘싸웠다’ ‘죽었다’는 사실이 값진 것이지, 그들이 싸워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는 그것이 주요한 것은 아니었다. 한말의병의 성과를 표면적으로 나타난 승패의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의병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의병은 물량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이념에서 그 성과와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한말 횡성지역 의병은 일제의 한국병탄을 대일항쟁기간 만큼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은 1905년 5일 ‘포츠머스(Portsmouth) 러일강화조약’에서 이미 러시아로부터 한일병합을 묵인 받았고,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과 그 전인 7월 29일에 ‘태프트가쓰라(W. H. Taft桂太郎)각서’를 통하여 한국점유의 공인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주권수호를 위해 전개한 한말의병의 ‘피의 항쟁’은 마침내 일제로 하여금 1910년 8월 소위 「병합조약」이 능결(勒決)되기까지 그만큼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원래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과정에서 일본군 1개 연대만으로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항일투쟁한 의병부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그들은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했으며,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 사이에 약 14만 여명의 의병과 일본군경이 무려 3천 여회의 접전을 치러야 했을 만큼 일제로 하여금 한국침략 정착에 있어서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sup>69)</sup>

둘째, 특히 한말 횡성지역 의병의 항일의식과 그 활동은 한국민족주의 성장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그 후 항일민족독립운동의

69)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義兵抗爭史』, 336~337쪽.



큰 방향이 민족자력에 의한 무장항쟁임을 계발하였다. 이는 한말 의병이 실제 민족군대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말 군대의 국가 보위적 전통을 의병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계승하였고, 그러한 전통은 이후 민족운동의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 서북 간도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항거한 독립군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한말 강원 의병은 1940년 국내진공작전에 대비하여 중국대륙에서 편성된 광복군(光復軍)의 정신적 원류가 되기도 하였다.<sup>70)</sup>

이와 같이 한말 의병이 남겨준 기본적인 의의를 기초로 하고, 당시 현실적으로 나타난 성과와 의의를 다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말 의병은 친일파의 그 추종세력에 대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후 반민족적 행동을 상당히 견제하였다.

둘째, 일본이 대한민국을 병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히 보던 일본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들이 함부로 취급할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 주었다.

셋째, 국란이 닥칠 때는 언제나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싸우는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킴으로써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래 일본에 대하여 ‘피의 항쟁’을 계속하게 하였다.

넷째, 의병토벌 과정에서 일본인의 야만적(野蠻的)이고 잔악(殘惡)한 국민성이 표출되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섯째, 항일투쟁을 실증으로 한 대한민국인의 독립열망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열강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독립을 약속 받을 수 있게 하였다.

70) 尹炳奭, 『義兵과 獨立軍』, 121쪽.

## 제3부 구국계몽운동

### I. 교육구국운동 / 103

박 정 수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 II. 국채보상운동 / 140

최 창 희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제3부 구국계몽운동

### I. 교육구국운동

#### 1. 민족교육운동의 전개

##### 1) 근대교육의 성립

한국에서의 근대교육은 1800년대 후반에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문호개방 위협 속에서, 국내외로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서양의 근대문물의 자극을 받으며 문호를 개방하면서, 국가적 인재육성을 통한 힘을 필요로 하고 근대사회로의 발전과 민족사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출발하였다.

한편 일본은 1854년에 미국에 의해 개항되어 1860년대 이래 메이지유신과 폐번치현(廢藩治縣)에 의해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로서의 '천황제 정권'을 성립시켜 부국강병을 위하여 체제를 개편하고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이식을 추진하면서 국외로는 구미열강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과 청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18세기 후반기이래 실학사상가들의 자주적인 해외 통상론은 19세기에 들어와서 폐쇄적인 정치상황 속에서도 이규경(李圭景), 최한기(崔漢綺) 등을 거쳐 박규수(朴珪壽), 오경석(吳慶錫) 등에 의해서 ‘개항개화’ 사상으로 발전되어갔다.<sup>1)</sup> 그러나 이 시기에 대원군은 쇄국양이정책(鎖國攘夷政策)을 강행하였으니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외세 위협의 절박한 현실을 목전에 두고 쇄국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올 ‘문호개방’에 대한 준비조차 취해질 수 없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sup>2)</sup>

급기야 1876년에 조선은 포함의 위협으로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외세와의 각축 가운데 출발되기 시작한 한국의 근대교육은 민족적 역량을 추구하면서 교육의 지표를 개화와 계몽, 민족의 각성을 요구하는 방향에 두고 민족의 보전과 자주적 근대화라는 열망으로 집약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에 대한 신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한국에서 근대교육은 근대적 의미의 학생층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 근대적 학생층은 근대적인 지식을 도입하는 근대학교의 성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다. 신세대의 학생층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구국적 교육이념이 발현되니 이는 곧 신교육사상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지식은 전통사회의 유학적 지식과 교육에 대립되는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지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적 요구는 새로운 가치관의 발견과 정립으로 근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필연적인 당위성을 전제로 하였다고 하겠다. 국가는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자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 기대를

1) 金泳鎬, 「實學과 開化思想의 관련문제」, 『韓國史研究』 제8집, 참고.

2) 韓祐勳,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일조각, 1985, 312쪽.

갖게 되었고, 민족을 계몽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역량에 의한 국가를 보전하는 길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서구 근대화의 원동력이 신지식의 전파라는 사실을 믿고 한국 근대화의 기대를 가지고 교육의 방향을 전개해 갔다. 그리하여 근대적 교육은 시작부터 민족주의적인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은 장차 구국교육의 큰 목표를 향한 것이었다. 신교육을 위한 근대학교의 설립은 서양 선교사와 국내의 애국지사에게 의해 추진되었다. 서구식의 근대적인 학교의 설립이 시작되었으니 많은 사립학교가 세워지고 젊은 세대의 지식 전달에 교육은 열과 성을 다 하였다. 애국지사들은 교육사업으로 국가 독립의 기초를 굳게 다지고자 하였다.

근대적 사립학교의 시초는 1883년(고종 20년) 원산에서 원산상공회의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들의 요청으로 개화파 관료인 감리사 겸 덕원부사 정현석(鄭顯奭)이 설립한 원산학사(元山學舍)였다. 서북경략사인 어윤중과 원산항 통상을 관장하고 있던 통리아문의 승지 정현시의 지원이 있었다. 개항장의 주민들이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력으로 관과 합심하여 최초의 근대적 학교를 세운 것은 의미가 크다.<sup>3)</sup> 정현석은 가무곡을 엮은 저술인 『교방가요(教坊歌謠)』를 편찬하여 전해오고 있다. 이 책 권말에 그는 ‘고종 때 대대로 횡성군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886년(고종 23년)에 배재학당(培材學堂), 이화학당(梨花學堂) 등 미국 선교회 계통의 사립학교들이 세워졌다. 외국 선교사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에는 기독교의 선교목적에 의한 일면도 있지만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서는 서양학문을 가르쳤고 일본의 압력에 대응한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1886년(고종 23년)에 험버트 등 3인의 미국인 교

3) 愼鏞夏,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文學과 知性』 第5卷 第1號, 참고.

사를 초청하여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고 양반자제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지리와 같은 서양의 신학문 교육을 실시하였다.<sup>4)</sup> 그러나 1894년에 폐지되었다.

갑오경장 이후 신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신교육을 실시하는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학교 등 각급 관립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1895년(고종 32년) 2월에 고종은 내외정세를 고려하고 교육입국의 조서를 발표하였다. 조서 속에서 기우는 국운을 중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차대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관립학교는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하여서 양반 출신 고관들의 자제가 주로 다녔으므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sup>5)</sup>

을사조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심하여지는 여세에서 1910년에는 성균관, 법학교,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세워졌다. 1910년 4월 현재 중등학교로는 다음과 같은 학교들이 있었다.

	校 名	位 置	學 生 數
관립	成均館	서울	30
"	法學校	"	154
"	漢城師範學校	"	302
"	漢城高等學校	"	232
"	漢城外國語學校	"	538
"	漢城高等女學校	"	224
관립	平壤高等學校	평양	134
공립	釜山實業學校	부산	87
"	大邱農林學校	대구	81

4)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54-55쪽.

5)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5, 422쪽.

도립	平壤農林學校	평양	81
"	咸興農林學校	함흥	미상
공립	全州農林學校	전주	50
"	光州農林學校	광주	미상
"	晉州實業學校	진주	"
"	春川實業學校	춘천	27
"	群山實業學校	군산	40
"	定州實業學校	정주	미상
"	濟州農林學校	제주	"
사립	善隣商業學校	서울	250 <sup>6)</sup>

지방에는 대부분 실업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는 을사5조약 이후 일본이 실무적인 식민지 하급관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국의 교육정책을 간섭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외국어학교의 연도별 입학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어과와 영어과의 지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화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열강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정부가 관공립학교를 설립하였지만, 그것은 국민의 교육열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신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사립학교를 설립한 것은 양반이 아닌 열성적인 평민 출신들이었으며 학생도 평민이 많았다. 사립학교들은 새로운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전달하였고, 민족운동의 근거지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국민의 이러한 여망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각종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는 1910년 5월 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

6)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100~102쪽.

7) 高橋濱吉, 앞의 책, 234쪽

을 발표하여 각종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억압하였다. 그렇지만 구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학교 설립운동으로 이후 2년여 간에 2,225개교의 사립학교들이 학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1910년 7월에 학부에서 관장한 각도별 사립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1910년 7월 기준 학부 소관 학교 현황

도 별	관공립	준공립	사립학교
한성부	18	-	94
경기	7	12	200
충남	4	3	91
충북	2	3	48
전남	7	6	36
전북	6	2	77
경남	8	4	104
경북	5	3	150
강원	4	4	43
황해	2	7	286
평남	5	3	443
평북	5	5	400
함남	5	8	218
함북	3	3	59
계	81	65	2,225

國史編纂委員會篇「韓國獨立運動史」① 자료 171호 참조 - 본 자료는 한국정부의 학부 차관인 依孫一이 각도 현병대장회의(1910년 7월 13일)에서 보고한 학부 소관 학교수 府道別調를 축소하여 작성한 것임

위의 2,225교중에서 사립 종교학교는 모두 823개교이며, 이 학



교들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557개교가 집중되어 있었고, 기독교의 교파별로 보면 감리교와 장로교가 3 : 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당시 학부차관 표손일(俵孫一)은 각도 헌병대장회의의 보고연설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의 민족교육열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교회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2) 근대 민족교육의 발전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전개과정은 1880년대 이후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민족사학의 형성기, 1895년 갑오개혁 추진의 여세로 실시된 관공립학교의 설립기,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제에 의해 교육침략정책이 추진되는 시기, 끝으로 일제식민지 교육정책 시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9)</sup>

1880년대의 민족사학은 서양 선교사들의 교회학교의 창립과 함께 서양문화를 전달하는 곳이 되었고, 새롭게 대두하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구현을 위한 터전이었다. 일본은 경제적 침탈을 앞세워 한국에 대한 '보호정치'로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강한 민족의 힘을 육성함이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하여졌다. 국민들은 신교육, 특히 사학에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민족구국교육을 진흥하게 하였다. 교육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민족운동의 지름길이 되었고, 애국사상, 독립사상이 교육이념의 중심이 되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은 독립가(獨立歌)혈죽가(血竹歌)권학가(勸學歌)를 애창하면서 독립과 애국의지를 굳게 하였다.<sup>10)</sup>

8)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①, 359~360쪽.

9) 金興洙, 「韓國近代民族史學의 성립과 教育內容에 관한 研究」, 『歷史教育』 50집, 역사교육연구회, 1991.

10) 吳天錫, 앞의 책, 198~204쪽.

신교육운동의 기치는 구국계몽과 민족문화운동으로 도시와 농촌의 모든 학교에서 펼쳐 나갔다. 일종의 군사훈련 비슷한 집체훈련은 을미의병으로 시작된 의병항쟁에 곤욕을 치르던 일본세력에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초조감을 가지게도 하였다.<sup>11)</sup> 일본의 국권침탈 직전까지 구국교육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6년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고 무단통치와 함께 식민지교육을 강화하여 갔다. 이 시기부터 일본은 식민지교육을 위한 기초작업을 실천에 옮겨갔다.

개화와 애국교육은 구국교육운동으로 선회하고 애국지사인 선각자들은 학회활동과 사학 육성으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영남학회, 흥사단 등 학문적인 계몽단체들이 조직되어 국민계몽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여져서 애국적인 입장에서 독립정신을 불려일으키고 새로운 지식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여러 학회들은 학보를 발간하여 지식수준을 향상시켜갔고, 계몽적 잡지가 간행되었다. 국어와 국사연구를 통하여 민족적 기개와 자긍심을 심어주는데도 기여하였다. 국사학자들의 저서 속에는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최도통전』 『이순신전』 등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위인의 전기물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은 전국적인 의병항쟁과 망명 애국지사들에 의한 강인한 반일항쟁을 지속하여 갔으나, 1910년 8월,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병합함으로써 결정적 식민지단계로 전락하였다. 이후 한민족은 식민지체제 강화에 대처한 민족적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국권회복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교육을 갈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민족교육의 압박을 가일층 높이기 위해 관공립학교와 사립학

11)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②, 366~367쪽.

교 등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식민지 교육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총독부 무단통치 하에서 극단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여 사립학교 등의 감축으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았다. 일본인들을 우대하여 1912년~1919년간의 교육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근대 학생층 형성은 침체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치하란 현실을 극복하고 독립의 큰 뜻을 위하여, 학생들은 더욱 사명감을 가져야 하였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31항쟁의 기폭제로서 역할을 다 하였던 학생운동의 맥락도 이러한 근대적 학교교육의 성장을 통하여 요염한 불길로 일어날 수 있었다.

1910년 국권의 강점으로 국치를 당한 우리 민족은 민족의 역량을 축적하고 내일을 기약하기 위하여 무력항쟁과 교육계몽을 통한 국권회복이라는 한 차원 높은 목표 아래 국외에 기지를 둔 무력항일 투쟁을 지원하는 문화투쟁을 전개하여 갔다.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비폭력적인 항일운동이었지만, 일제는 헌병경찰제의 무단통치로 탄압을 가중시켜갔다. 이 시기에 한말의 국권회복운동을 계승한 구국교육운동이 신문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일제가 이러한 민족적 문화운동을 1차적 탄압 기회로 삼아 날조하여 만든 사건이 안악사건(安岳事件: 일명 安明根사건)과 105인 사건이다.

안명근은 한국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포오(伊藤博文)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평안도 신천지방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던 중 체포되었다. 일제는 1910년 12월 안명근 사건을 계기로 황해도 일원의 지식인과 자산가 16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어서 하서교육총회, 안악 양산학교 면학회 등과 관련된 안명근 김구 등 애국지사들을 탄압하여, 이 가운데 16명을 공판에 회부하

고, 40여명은 제주도 등에 유형하였다.<sup>12)</sup> 같은 해인 1910년 12월에 다시 일제는 105인사건을 조작, 날조하여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와 관계있는 교육계인사와 기독교지도자, 그리고 외국선교사들을 탄압하였다. 이 사건은 신민회 간부와 기독교인사들 600여명을 체포, 투옥함으로써 비롯되었다. 123명이 공판에 회부되었고 105명이 2심에 넘겨졌다.

1913년 7월 15일의 2심 판결에서 105명 중 99명이 무죄 석방되고, 윤치호(尹致昊)양기탁(梁起鐸)안태국(安泰國)이승훈(李昇薰)임충정(林浬正)옥관빈(玉觀彬) 등 6명은 징역 4년을 언도 받았다. 이것은 탄압 음모의 확대사건임을 인정한 결과였다.<sup>13)</sup>

총독부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면 탄압하였다. 1910년 8월 통감부(統監府)는 「집회취체령」을 발포하여 친일 매국단체인 일진회(一進會)까지 포함하여, 12개의 학회와 결사(結社)를 해산시켰다. 초등학교 교원에게도 제복에 칼을 차고 교단에 서도록 강요하는 식민지 무단교육을 강행하였다.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을 제정 공포하고 식민지교육체제 개편을 실시하였다.

## 2. 강원지방의 근대교육

### 1) 공립 소학교의 개교

갑오개혁으로 학부 관제가 제정되었고, 소학교를 위시한 각급 학교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학교 개교 이전에 급선무는 교

12)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②, 77~79쪽.

1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0~84쪽.

육을 맡을 교원양성에 대한 행정적 조치였다. 1895년(고종 32년) 7월 19일의 소학교령(小學校令) 공포보다 이른 동년 4월 16일에 칙령 제 79호인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의 관제가 공포되었다. 신학제에 의한 최초의 교원양성기관이 설립되었다.

한성사범학교는 본과와 속성과의 2과를 두었고, 본과는 20세~25세, 속성과는 22~35세로 연령제한을 정하여 국어한문국사 지리 과목의 시험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수업연한은 본과 2년, 속성과 6개월로 하였으며, 모집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이었다. 정부는 다시 중학교 관제(1899. 4. 4) 등 학교 관제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 학교 관제와 규칙 제정

관제와 규칙	제정년월일
한성사범학교 관제	1895. 4. 16
외국어학교 관제	1895. 5. 10
성균관 관제	1895. 7. 2.
소학교령	1895. 7. 19
한성사범학교 규칙	1895. 7. 23
성균관경학과 규칙	1895. 8. 9
소학교 규칙 대강	1895. 8. 12
보조공립소학교 규칙	1896. 2. 20
의학교 관제	1899. 3. 24
중학교 관제	1899. 4. 4
상공학교 관제	1899. 6. 24
외국어학교 규칙	1900. 6. 27
경상공학교 관제	1904. 6. 8

일본은 한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민지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제 교육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여 공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06년에 칙령 제14호로 사범학교령이 제정 발표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사범학교는 보통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본과(수업연한 3년)와 예과, 속성과, 강습과(수업연한 1년)를 설치하였다.

본과와 속성과의 학생에게는 식비피복비 등을 지급하고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였다. 복무 연한은 졸업후 본과는 6년, 속성과는 2년의 기간을 의무기간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성사범학교를 신교육령에 의하여 개편하고 학교시설도 확충하였으며, 학생수는 1909년 6월 본과 162명, 속성과 94명이었다.

일제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한국국민의 우민화(愚民化)에 있었다. 1905년의 소학교령에 의한 6년의 수업연한을, 다시 칙령 제44호로 보통학교령을 공포함으로써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하였다.

정부는 1895년 7월 19일자로 공포된 소학교령에 의해 한성(서울)에 관립소학교 4개교를 설립하였다. 한편 학부는 각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지방 주요 도시에도 공립소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관공립소학교 이외에 지방의 애국지사들도 신학문의 교육을 위한 민족주의적 교육열에서 사립학교 설립에 나섰다.

강원도에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도내 각 군에 사립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고, 이어서 공립학교가 설립되었다. 학부는 1895년의 소학교령에 의해 1896년 9월 17일 지방의 공립소학교의 위치를 지정하였다. 한성부와 13도 관찰부의 소재지와 서울 주변의 2개소, 개항장 4개소, 전국의 주요 지역 18곳 등 모두 38개소였다. 지방의 공립소학교의 위치를 지정한 것은 공식적인 학교의 개교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강원도에는 1896년 9월 17일에 춘천

에 관찰부 공립소학교가 설립되고, 강원도의 주요 지역인 원주와 강릉군에도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강원도의 근대교육이 시작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부터 공립소학교의 설립이 계속 증가되어, 1910년 일제의 국권강점시까지 25개교가 문을 열었다. 또한 강원도 최초의 중등학교로 2년제의 실업학교인 춘천공립농업학교가 개교하였다. 1912년 현재, 강원도에는 회양철원금성평강김화홍천이천·형성·정선·삼척·양양·간성·고성·통천·안협·화천·양구·인제·영월·평창 등 각 군 소재지에 보통학교(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sup>14)</sup>

당시의 전국 공립소학교의 설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한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의 임용사항을 게재한 관보이다. 1896년 10월 29일 한성사범학교의 전년도 제1회 졸업생 일부와 당해 년도의 제2회 속성과 졸업생 48명이 전국 각 도의 공립소학교에 다음과 같이 임명되었다.

10월 29일	홍주군공립소학교	심승필
10월 30일	청주군공립소학교	김계명
11월 6일	전라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	장성화(1회 졸업)
	전라남도관찰부공립소학교	조한설(1회 졸업)
	경상남도관찰부공립소학교	윤대선(1회 졸업)
	황해도관찰부공립소학교	김인환(1회 졸업)
	평안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	정운호(1회 졸업)
	강원도관찰부공립소학교	구자용(1회 졸업)
	함경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	정환교
	부산항공립소학교	김병천

14) 江原道, 『江原道郷土史料』, 1914.

	원산항공립소학교	김봉수
	경흥항공립소학교	조재혁
	임천군공립소학교	류철수
	남원군공립소학교	박치상
	순천군공립소학교	이종각
11월 16일	제주목공립소학교	전석규
	홍주군공립소학교	송원섭
	경주군공립소학교	윤필구
	안동군공립소학교	윤보영
	안악군공립소학교	윤상홍
	의주군공립소학교	정규종
	강계군공립소학교	임치형
	성천군공립소학교	김창유
	원주군공립소학교	이승의
	강릉군공립소학교	박희명
	북청군공립소학교	이상원

이상에서 전라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에 임용된 장성화 등 1회 졸업생 6인은 1895년 10월에 졸업한 28인 가운데 이미 서울의 관공립소학교에 임용된 졸업생들을 제외한 미임용 졸업생들이었고, 홍주군공립소학교에 임용된 심승필 등 20명이 1896년 10월에 졸업한 교사들이었다.

공립소학교의 교장은 각 도의 관찰사와 군수가 겸임하였으며, 학교운영과 교육은 전적으로 교사들이 전담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임용 상황은 1896년 1월부터 11월에 이르는 사이에 한성부와 관찰부 소재지를 포함하여 설립위치를 지정하였던 각지의 공립소학교에 교사들을 임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관찰부공립소학교의 구자홍(具滋弘), 원주군공립소학교의 이승



의(李昇儀), 강릉군공립소학교의 박희명(朴熙命) 등 3인의 교사는 강원도 최초의 근대교육을 실천하는 최초의 교사였다.

강원 지방의 근대적 민족교육의 보급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의 주요 지역에 설립된 공립소학교의 실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06년 일제 통감부가 본격적으로 민족교육을 억제하던 시기에, 전국에 개교한 공립소학교 수는 서울 지역을 빼고 100여 개에 이르렀는데, 강원도 지역에는 강원도관찰부공립소학교를 포함하여, 원주강릉회양철원금성평강김화군 등에 8개 교가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전국 각도의 공립소학교의 수를 보면, 경기 22, 충북 3, 전북 5, 전남 3, 경북 8, 경남 7, 황해 4, 평북 6, 평남 10, 함북 6, 함남 13개 소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강원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설립 학교의 수가 많은 도는 경기, 평남, 함남 등 3도뿐이었다. 강원도에 8개교의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어 다른 도보다 많았음은 강원도 지역에서 근대적 민족교육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1906년 이후 공립보통학교가 계속 설립되어, 1910년 8월 현재 강원도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인 공립보통학교는 모두 25개교에 이르렀다.

## 2) 민족 사립학교의 설립

### (1) 사립학교의 설립과 성격

1895년 신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학교 등 관립 학교가 설치되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선각자와 지역 인사들, 그리고 미국 등 기독교 선교사들이 사립 학교를 설립

하였다. 초기에는 정부에서도 사립학교의 설립을 권장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사립학교 보조비 항목을 세우고 보조금을 지출하였다.

1905년 일제가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한국인들은 구국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사립학교를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국권 침탈로 식민지화될 때까지 전국에는 3,000여 개에 가까운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초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사립학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말의 사립 학교

연 대	학교명	설립자	지 명
1883			
1886	원산학사	정현석	원산
	배재학당	미북감리회	서울
	이화여학교	:	:
1890	경신학교	미북장로회	:
1897	정신여학교	:	:
1898	송실학교	:	평양
1903	배화여학교	미남감리회	서울
1904	송의여학교	미북장로회	평양
	호수돈여숙	미남감리회	개성
1905	청년학원	전덕기	서울
	보성학교	이용익	:
	양정의숙	엄주익	:
1906	휘문의숙	민영휘	:
	신성보성여학교	미북장로회	선천
	진명여학교	엄귀비	서울
	숙명여학교	엄귀비	:

1907	보인학교	보인학회	:
	양구의숙	진학신	:
	중등학교	신규식	:
	서전서숙	이상설	간도
	신흥기전여학교	미남장로회	전주
	대성학교	안창호	평양
	오산학교	이승훈	정주
	오성학교	서북학회	서울
1908	봉명학교	이봉래	:
	기호학교	기호흥학회	:
	동덕여자의숙	이재극	:
	대동전수학교	대동학회	:
1909	소의학교	장지영	:

참고: 손인수, 「각급 교육기관」,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44~145, 164~166쪽.

북부지방에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사립학교 설립에 앞장선 사람들 중에는 평민들이 많았고, 대단히 열성적이었다. 사립학교들은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교육하였으며, 역사지리정치법학 등 인문사회 과목과 대수산술 등 여러 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민족운동의 근거지로서 토론회웅변대회운동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의기를 북돋워주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나이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도 하였고, 고급학교 학생이 하급학교의 교사로도 활동하였다.

사립학교가 계속 설립되자, 이를 우려한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1908) 사립학교의 설립과 존속을 인가제로 하고<sup>15)</sup>, 교과서검인정제도를 실시하여 인가된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였

15) 『官報』, 勅令 제62호, 隆熙 2년(1908).

다.<sup>16)</sup> 그리하여 많은 사립학교가 폐교되었다.

총독부 시기에는 한국인에게 실업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실용주의(實用主義)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주력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지식 향상은 일본의 식민정책을 비판하는 독립운동자들을 양산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하여 보통교육에서는 일본어를 필수로 하였고, 실업교육에서는 농업, 공업 등 기술을 교육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들은 일제의 통치정책에 저항하며 민족교육의 중심지로서 맥을 이어갔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나 교사들은 거의가 애국지사들과 항일저항 정신으로 구국교육운동에 나선 이들이었다.

## (2) 사립학교의 현황

1909년 현재 강원 지방에는 통감부의 인가를 얻어 개설한 사립 학교가 53개교 존속하고 있었다. 1910년 5월 현재로는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0개교가 폐교되어 43개교가 운영되었으며, 1913년에 이르러서는 31개교로 감소되었다.<sup>17)</sup> 비인가 사립학교가 다수 운영되고 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숫자는 인가 학교 수와 비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포함한 학교 수는 배가된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의 사립학교들이 재정적 기초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립보통학교가 지방교육기관으로 정착되면서 학생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과 대조되고 있었다.<sup>18)</sup> 한편 사립학교들은 총독부의 탄압과 규제강화로 교육활동에 방해를 받았고, 공립 전환을 유인하

16) 學部令, 제16호(1908년 8월 28일).

17) 江原道憲兵隊本部, 『江原道狀況梗概』, 1913, 285~293쪽.

18) 강원도헌병대본부, 앞의 책, 290쪽.

는 일제의 교육정책으로 그 수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남궁억(南宮憶)이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현산학교(峴山學校)를 설립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강원도 각지에는 사립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들 사립학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학교의 설립 연도와 지명, 교명, 설립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연도	지명	학 교 명	설립자
1905년	강릉	영주학교(榮州學校)	미상
1906년	양양	현산학교(峴山學校)	남궁억
	간성	봉명학교(鳳鳴學校)	미상
	춘천	사내학교(史內學校)	미상
	강릉	동진학교(東進學校)	이근우
1907년	철원	봉명학교(鳳鳴學校)	이봉하
1908년	강릉	화산학교(花山學校)	정현동
	목호	망상학교(望祥學校)	미상
연대미상	강릉	초당의숙(草堂義塾 : 영어학교)	최돈철
	울진	만흥학교(晩興學校)	미상
	삼척	계동학교(啓東學校)	미상
	원주	관동학교(關東學校, 原風學校)	미상
	횡성	갑창학교(甲昌學校)	미상
	철원	배영학교(培英學校)	미상
	북평	보명학교(普明學校)	미상
	북평	명동학교(明東學校)	미상

1909년에 통감부의 인가를 받은 강원도내 학교들의 인가일과 지명은 다음과 같다.

1909년 2월 이천 보흥학교(普興學校)

3월	이천	삼애학교(三愛學校), 명의학교(明義學校)
	강릉	모산학교(茅山學校)
	삼척	명동학교(明東學校)
	통천	통명학교(通明學校)
4월	통천	보양학교(普養學校), 영수학교(嶺首學校)
	철원	봉명학교(鳳鳴學校)
	평강	창흥학교(昌興學校)
	평강	창동학교(昌東學校)
	간성	공명학교(公明學校)
	삼척	보명학교(普明學校)
5월	통천	명촌학교(明村學校)
6월	강릉	동진학교(東進學校))
7월	통천	동명학교(東明學校)
8월	화천	화남학교(華南學校)
9월	강릉	신리학교(新里學校)

이상의 사립학교들 이외에, 횡성군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풍수원성당의 부속학교인 성심학원(聖心學院)이 1896년 설립되었다. 이 학교에서 교육한 후 서울에 성직유학을 보내어, 성직자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강원도 내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활동이 활발하였던 학교는 양양 현산학교(峴山學校)이다. 설립자인 한서 남궁억(南宮億)은 개화기의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근대교육기관인 동문학(同文學)에서 영어 등 근대학문을 수학하였으며, 갑오개혁 후 관직에 재직하면서 민영환이 설립한 흥화학교에서 영어와 국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는 1906년 양양군수로 부임한 후 지역유지들과 함께 기금을 만들어 현산학교를 설립하였다.

개교 당시 학생 수는 200여 명이었으며, 교사는 군수로서 교장을

겸직한 남궁억이 영어와 음악을 담당하고, 정우용 김홍식이 홍영 등이 교사로 교육을 담당하였다. 현산학교는 ‘국권갱생의 길은 오직 하나인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교육 목표를 두었다.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자, 남궁억은 군수직을 사직하고 학교를 지방 유림인 정현동(鄭顯東)에게 맡기었다. 남궁억은 상경하여 학회활동과 교육활동을 계속하였고, 31운동 이후에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보리울(牟谷)에서 무궁화 심기운동 등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 3) 일제 통감부의 교육정책

1906년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교육정책에서는 민족교육을 방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한민족의 항일 독립정신을 탄압하고 독립의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였다.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연관 있는 국어, 역사 등 교과시간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식민지교육이 민족 동화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1911년 8월 23일 공포된 칙령 229호 조선교육령이 발효하면서 이들 교과목을 아예 폐지하고, 일본어 시간은 확대하였다. 교과서 검정제도를 실시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였고, 민족 사립학교를 억압하였다.

조선교육령은 식민지 교육의 기본법이 되었다. 그 요지는 첫째로 충량한 신민의 육성, 둘째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 셋째 실업교육의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충량한 신민의 의미는 곧 일본천황

에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신과 일본어 교육은 이를 위해 강화되었다. 국사과목은 일본역사 교과에 포함시켰으며, 한국어는 한문으로 묶어 우리 언어를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려 했다. 원삼국시대의 역사를 왜곡하여 ‘동조동근’(同祖同根)이니 하는 말로 현혹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을 문화적 열등감에 빠지게 하여 그들의 노예화하려는 기만정책이었다.

사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내세웠으나 대학(大學)은 염두에도 없었고, 학제를 443제로 개편하여 전문학교 과정을 합쳐도 일본의 소학교와 중학교의 수업연한에 절반밖에 안되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막기 위해 전문학교의 시행령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성전문학교 등이 각종 학교급으로 전락하였다.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하므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

교원양성기관인 한성사범학교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를 설치하였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교원속성과는 1년 이내로 하였다. 사범과의 입학자격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교원속성과는 고등과 2년의 학력과 연령 16세 이상을 자격으로 제한하였다. 여교사 양성을 위해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업연한을 1년으로, 자격은 3년제 여자고보를 졸업한 자로 하였다.

실업교육의 강화는 실용주의 교육의 명분으로 식민통치를 위해 필요한 일선 하급관리 양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교육을 막고, 독립의 기상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

강원도의 실업교육기관은 2년제 춘천공립농업학교가 있었으며, 광복 전에 철원원주강릉통천에 1년제의 간이농업학교와 인제에 1년제 간이공업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제 통감부는 각급 학교에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였다. 교사의



부족에 대한 보충과 모범교육 실시를 위한 것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운영을 장악하고 식민지교육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감부는 일본인 교사를 통하여 교육의 모범을 보이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여, 일본인 교사 임명을 합리화하였다.

일본인 교사는 초기에는 관공립학교에 주로 배치되었으나 점차 사립학교까지 강제로 배치하였다. 1906년 통감부 설치 당시에 벌써 일본인 교사가 서울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sup>19)</sup> 일본인 교사 배치는 1907년 정미7조약이 강제 체결된 이후 차관정치가 실시되면서 표손일(俵孫一) 학부차관에 의해서 더욱 확대되어 갔다.

### 3. 황성지방의 전통 교육

개항과 더불어 근대 문물이 유입되고 개화정책이 적극 추진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지방 중등교육기관으로는 관학인 향교(鄕校)와 사학인 서원(書院)이 있었다. 그리고 초급과정인 서당이 있어 기초 교육을 담당하였다.

양반의 자제들은 어릴 때 서당에 가서 초보적 한문을 배운 뒤, 8세가 되면 서울에서는 4학(四學)에, 지방에서는 향교에 진학하였다. 이 4학과 향교에서 수학한 유생들은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하고 이들이 초시에 합격하면, 다시 중앙에 모여서 복시(覆試)를 보고 합격하므로써 과거의 최후 합격자가 되었다.

향교는 고려 때부터 국가가 설립한 관립학교로 조선후기까지

19) 『황성신문』, 1906년 3월 27일, 「이등통감이 학부참여관 弊原坦과 각 학교에 있는 일본인 교사 접견」.

존속되었다. 향교 건물 배치는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과 중국과 조선의 유교성현을 제향하는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그리고 유생의 기숙사인 동재(東齋)서재(西齋)가 있어서 양반과 서류(庶類)를 구분하여 수용하였다.

그 운영은 지방의 주부(州府)와 군현(郡縣)에서 관장하였으며, 주부에는 종6품의 관리인 교수(敎授)와 훈도(訓導)를 배치하고, 군현에는 종9품의 훈도를 두어 교학의 기능을 맡게 하였다.

향교의 또 다른 기능은 대성전(大成殿)에 유교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는 봉사(奉祀)의 기능이 있었다. 교육과 성현 제향의 기능 이외에 향교는 향촌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여 풍속을 순화하는 책임도 다 하였다.

향교의 학생정원은 부목에는 각 9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향교의 수업내용은 소학(小學)사서(四書)오경(五經) 이외에 주자근사록(朱子近思錄)이륜행실(二倫行實)여대향약(呂代鄉約)삼강실록(三綱實錄)오속(五俗)농서(農書) 등을 가르쳤다.

조정에서 향교에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수세를 받아 여러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운영의 결과는 수령의 인사에 반영되었다. 수령은 매월의 교육실적을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주군현의 수령(守令)들은 매월말 관할 관찰사에게 학생들의 학업성과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몸소 향교에 나가서 학문을 독려하였다. 성적 우수 유생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하였으며, 관찰사는 각 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매 6월마다 도회소(都會所)에 불러서 시험을 치고 성적 우수자는 중앙에 천거하여 생원진사시와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향교의 연례행사를 실시하여 유교적 정신을 이어갔으니 특별강

습, 향사례, 향음례, 경로례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향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향과 서원이 발달하면서 부진하여졌다. 효종은 향교진흥책을 써서 지방유생 중 향교안(鄕校案 : 향교유생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과거응시를 허락하지 않는 부흥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문묘의 향사 기능만을 지속해 오고 있다.

1918년 현재 전국 향교의 수는 335개소로 조사되었으며, 그 재산은 문묘의 관리와 사회교화 사업을 위한 시설에 충당되었다.

서원은 민간 자제를 교육하는 교학적 기능과 선현봉사라는 두 기능을 가진 조선시대의 사학(私學)이다. 1543(중종 38년)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창건된 이래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갔다. 백운동서원은 뒤에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건의해서 중국 백록동 고사를 본 받아 사액(賜額)과 전토를 지급하도록 하니, 이른바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였다. 이후 각지에 서원이 증가하여, 정부가 남설을 금하는 시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600여 개를 넘게 되었다.

서원은 1871년(고종 8년) 대원군(大院君)에 의해 47개소를 제외한 전국의 서원을 훼손할 때까지, 조선시대의 대표적 사학 구실을 하였다.

서원은 사림세력의 중앙관계진출 및 향촌질서 확립을 위한 일련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서원은 조선시대 사림의 근거지가 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현에 대한 봉사와 향촌질서를 유지하고, 시정을 비판하는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다하였다. 그러나 점차 당쟁(黨爭)의 온상화, 피역

(避役)의 소굴화하는 경향과 대민작폐의 폐단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서원의 폐단에 대한 논의는 인조(仁祖) 이후 계속 있었으나, 조선 후기 대원군에 의해 충북 괴산의 만동묘(萬東廟)와 화양서원(華陽書院)을 폐쇄하면서 대대적 정비가 단행되었다.

서원은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성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족의 수가 많거나 읍세가 크면 서원의 수도 많았다. 강원도에는 강릉 3, 원주 5, 춘천 3, 영월 2, 김화 2곳에 서원이 있었다.

서당(書堂)은 서민 자제들의 기초적 교육을 담당한 향촌의 교육기관으로, 근대교육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전국의 촌락에 설치되어, 강독(講讀)제술(製述)습자(習字) 등을 교육하였다. 강독은 천자문(千字文)동몽선습(童蒙先習)통감(通鑑)소학 등을 다루었다.

### 1) 횡성향교

횡성 향교의 건립연대는 1398년(태조 7년)으로 전해지나, 최초의 건립자와 지명은 불확실하다. 현재의 위치인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28번지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몇 곳으로 옮겨졌다. 횡성읍 북천(혹은 현재의 갑천면 화전)에 있다가 약 200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횡성향교는 조선 건국 초기에 성현의 배향과 지방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고 향촌의 세속질서 교화를 위하여 건립되었다.<sup>20)</sup>

1647(인조 25년) 대성전(大成殿)을 상량하고, 1726년(영조 3년)에 중수하였으며, 1769년(영조 46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sup>21)</sup>

20) 1985년 1월 17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되어 있다.

21) 1950년 한국전쟁으로 횡성향교의 명륜당과 동서재 등 건물이 소실되고 대성전만이 화를 면하였다. 1954년 전교 한명수(韓明洙)에 의해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중건하였으며, 1960년 명륜당을 복원하였다. 1971년에 대성전

조선시대에는 조정으로부터 토지, 전적, 노비 등을 지급 받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근대교육의 시작으로 교육의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존(釋尊)을 봉행하고 있다. 현재의 향교 운영은 전교(典敎) 1명과 장의(掌議) 6~7명이 담당하며, 향교재단에서 관리하고 사회문화의 교화 역할을 하고 있다.

## 2) 칠봉서원

칠봉서원(七峰書院)은 횡성군 서원면 산현리 칠봉 마을에 있던 서원이다. 1612년(광해군 4년)에 건립되었다. 1624년(인조 2년)에 사묘(祠廟)를 건립하고 고려말에 절의를 지킨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을 봉안하여 칠봉서원이라 하였다. 14년 후인 1638년(인조 16년)에 팔계군 정종영(鄭宗榮), 한백겸(韓百謙)을 봉안하였고, 그 후 원호(元昊)도 봉안하였다.

『서원등록』(書院騰錄)에 의하면, 유생 한용명(韓用明) 등이 상소를 올리자, 예조(禮曹)에서 임금에게 건의하여, 1663년(현종 4년)에 국가로부터 현관(액: 額)을 하사 받아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사액서원은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전답 3결(약 2만평)과 노비 20명, 전적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칠봉서원도 당시의 예에 따라 전답 3결과 노비 20명, 그리고 약간의 전적을 하

---

을 보수하였는데, 이때 구상량문(舊上樑文)에서 ‘청 순치(順治) 4년 명륜무(明隆武) 2년 정해(丁亥) 9월 27일 상량(上樑)’이라는 기록을 찾아, 대성전이 약 260여 년 전에 건축된 것이 확인되었다. 1978년에 전교 김태진(金台鎭) 등이 대성전 담장을 개축하고 명륜당과 동서재의 단청작업을 하였다. 현재 향교 경내에는 대성전 10칸, 명륜당 20칸, 중삼문, 동재 7칸반, 서재 7칸반 등 총 48칸이 있다. 대선전에는 5성(五聖: 공자, 증자, 자사, 안자, 맹자)을 비롯한 공문십철(孔門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한국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사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sup>22)</sup>

1871년(고종 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전국의 600여개의 서원 중(祠宇影堂을 포함하면 695개) 47개만 남기고 모든 서원이 훼철될 때 칠봉서원도 철폐되었다고 본다.<sup>23)</sup>

칠봉서원의 건물 구성에 관해서는 사당 건립 기록과 서재(西齋)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에 의하면 칠봉서원보다 12년 뒤에 건립되었던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이 28칸이었으며 칠봉서원은 26칸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두 서원 모두 사액서원이었음을 보건대, 서원의 규모나 강당, 기숙사인 재, 그리고 부속건물의 구성도 유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칠봉서원의 규모와 구성, 배치는 서원 건물 구성의 일반적인 예를 알 수 있는 필암서원도동서원의 전개도와 칠봉서원지의 실측도를 참고로 할 수 있다.<sup>24)</sup>

강원도의 대표적 서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그 서원의 세력이나 규모는 타도의 서원 규모에 비해 손색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칠봉서원은 조선 후기까지는 행정구역상 원주군 고모곡면(古毛谷面)에 속하였으나, 18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칠봉서원의 명칭을 써서 서원면으로 개칭되었고, 1895년(고종 32년)에 지방관제규정에 의해 횡성군에 편입되었다.<sup>25)</sup>

22) 原州郡廳, 『原州地方書院學術調查報告書』, 1992, 47쪽.

23) 서원의 건축물은 1910년대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육신 觀瀾 원호집』에 의하면,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 당한 이후에 철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사당, 강당, 동서재, 그리고 서고, 문, 문루 건물이 있던 건물지터에는 연안 김씨 가문의 분묘 3기가 있고, 서원의 부속 건물이 있던 곳으로 짐작되는 근처에는 민가들이 있어서 서원의 옛 모습은 찾기가 힘들다.

24) 앞의 책, 49~55쪽.

25) 1983년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다시 원주군 호저면에 편입되었다.

## 4. 횡성지방의 근대교육

### 1) 갑창학교와 화성학교

갑오경장 이후 신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관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이 다수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횡성에는 갑창학교(甲昌學校)와 화성학교(花城學校)가 설립되어 운영된 것으로 전한다.<sup>26)</sup> 그러나 그 설립 시기, 설립자, 그리고 학교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 추정하건대 향교, 또는 천도교, 기독교 계통의 종교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것이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 초기까지 강원도에 설립되었던 사립학교들은 다음 표와 같다.

사립학교 일람

군명	교명	인가연월일	군명	교명	인가연월일
삼척	명동학교	1910. 3. 9	통천	영수학교	1910. 4. 1
삼척	보명학교	1910. 4. 28	통천	통명학교	1910. 5. 19
강릉	동진학교	1909. 6. 4	철원	봉명학교	1909. 4. 1
강릉	모산학교	1909. 3. 26	화천	화남학교	1909. 8. 2.
강릉	신리학교	1909. 9. 21	이천	보흥학교	1909. 2. 7
간성	공명학교	1910. 3. 31	이천	삼애학교	1909. 3. 4
통천	동명학교	1909. 7. 9	이천	명의학교	1909. 3. 4
통천	보양학교	1909. 4. 7	평강	창흥학교	1909. 4. 26
통천	명춘학교	1909. 4. 10	평강	창동학교	1909. 4. 28

자료: 춘천현병대본부, 『江原道狀況梗概』, 289쪽.

26) 『강원교육사』, 98쪽. 『횡성군지』, 686쪽.

위 표에 조사되지 않은 강릉의 영주(瀛州)학교화산학교, 삼척의 계동학교, 원주의 관동학교, 횡성의 갑창학교, 철원의 배영학교, 춘천의 사내학교 외에 30개교에 이르는 다수의 인가 학교들의 상황은 모두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1909년 11월 53개교였던 사립학교들이 1910년 5월에는 43교로 감소되었다. 그것은 재정난으로 학교운영의 기초가 불완전하였지만, 일제가 사립학교 설치령을 시행하여 탄압한 것이 주원인이었다.<sup>27)</sup>

사립 화성학교를 계승하여 공립으로 발전한 학교가 공립횡성보통학교이다.

## 2) 풍수원성당과 성심학원

1896년 풍수원성당(豊水院聖堂) 부속학교로 설립된 성심서원(聖心書院)은 1931년 4월 1일 성심학원(聖心學院)으로 개명되었다.

천주교가 소개된 것은 서양문화가 전래된 초기부터였다. 새로운 종교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실학자들이다.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마테오 리치가 지은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천주교에 대해 신앙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정조(正祖) 때에 남인(南人) 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이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승훈이벽이가환정약전정약종정약용권철신권일신 등 남인의 명사가 많았다.

별열(閼闕) 중심의 양반사회에 대한 서학(西學)의 도전이 표면화하여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전례(典禮)문제였다. 1785년(정조 9년)에 조선왕조는 천주교(서학)를 사교(邪教)로 규정하여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조 재위연간에는 큰 박해는 없었으며 교세

27) 『강원도교육사』, 98쪽.



는 더욱 커졌다. 그러다가 순조(純祖)가 즉위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가해졌다. 신유사옥(辛酉邪獄 : 1801), 황사영(黃嗣永) 백서(帛書) 사건 등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정책은 계속되었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韓佛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된 이후 강원도에 천주교의 공식적인 전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미 공식적인 전도 이전에 전국에 많은 신자들을 가질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고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강원도에 천주교가 전래된 시기도 훨씬 앞설 것으로 생각된다.

천주교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산간지방을 찾아 용기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용기가마 안에서 미사를 보는 등 신앙심을 키웠다. 특히 강원도 원주와 횡성홍천 등지에 천주교 신자가 많이 있었다. 산간에 숨어서 생활하는 교도들을 찾아왔던 김시몬 신부는 울진에서 순교하였고, 최요한 신부도 춘천에서 잡혀 원주에서 순교하였다.

강원도의 천주교 전래는 횡성의 천주교 전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천주교 역사의 한 장을 이루는 곳이 서원면 풍수원성당 이다.

풍수원성당은 1866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인 병인박해(丙寅迫害)가 도화선이 되었던 병인양요(丙寅洋擾) 이후 더욱 가혹하여진 신도들에 대한 박해를 피하여 모여든 신자들을 중심으로 촌락을 이룬 서원면 유현 2리 풍수원 마을에 건립되었다.

1888년 서울 교구장은 풍수원성당을 본당으로 승격시키고, 초대 신부로 프랑스인 르메르를 임명하였다. 풍수원성당은 강원도 일원인 춘천화천홍천횡성원주양평 등 12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신자 수는 2,000여명에 이르렀다.

1906년 2대 신부로 정규하(鄭奎夏)가 부임하여 현재의 성당건축을 시작하였다. 정규하(영세명 아오스당)신부는 초창기 풍수원성당

의 기초를 세운 공헌자로 그는 곧 성당의 역사였다. 그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중국 폐낭신학교에서 신부서품을 받고 귀국하여 부임하였다. 직접 성당건축을 설계하고 서양식 건축기술자 3명을 중국에서 불리와 부지 1,500평 위에 본격적인 건축에 착수하였다. 옹기가마에서 직접 벽돌을 구웠다. 취약한 교통조건을 극복하고 서울로부터 건축 자재를 운반하였다. 모든 신자들은 농사와 생계를 접고 합심하여 불철주야 건축을 진행하였다.

건축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 1907년 대역사는 끝나고, 오늘의 풍수원성당이 창건되었다.<sup>28)</sup> 1차로 성당 건립을 완성한 뒤, 정규하 신부는 성당의 부속학교로 성심서원을 설립하여 교우 자녀들의 교육에 헌신하였다. 성심서원은 1931년 성심학원으로 개칭되었고 국어한문수학 등 근대학문을 가르쳐 문맹퇴치에 노력하였으며, 우수학생을 서울 등으로 성직유학을 보냈다. 그리하여 국내 어느 성당보다 많은 신부를 배출하였다. 이곳 성당 출신 성직자 중에는 멀리 프랑스의 리옹신학교와 로마의 신학교를 거친 이들도 있다.<sup>29)</sup>

신문화의 조류와 함께 생겨난 근대적 교육기관인 성심서원에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싹트고, 그것이 31운동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성심서원은 몇 차례의 교명 개칭을 거쳐, 1982년 유현초등학교 광동분교로 격하되었다가 현재는 농촌인구의 도시전출로 학생수가

28) 풍수원성당은 서울의 명동성당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서 깊고 아름다운 성당으로 100여 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69호로 지정되었다. 정규하 신부는 45년간 봉직하였으며, 80세를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갔다.

29) 趙東杰, 『횡성과 31운동』, 1972, 71쪽. 풍수원성당은 90년의 역사 속에서 27명의 신부를 배출하였다. 성심학원은 이들 성직자들에게는 어린 시절 카톨릭 신앙의 온상이었다고 하겠다. 성심학원은 우리나라 종교계 및 문화운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감소하여 폐교되었다.

■ 성심학원의 연혁

1888년	풍수원성당 본당 승격
1905년 ~ 1907년	성당 신축 준공
1896년 6월 12일	풍수원성당 부속학교 성심서원 설립
1931년 4월 1일	성심학원으로 교명 변경(4년제)
1938년 4월 1일	심상과로 개편(5년제)
1946년 12월 19일	광동국민학교로 교명 변경인가(6년제)
1969년 5월	천주교 춘천교구 재단에서 원주교구 학교법인 진광학원으로 이양
1971년 12월 24일	: 천주교재단에서 횡성군 공립학교로 설립자 변경
1982년 3월 1일	: 유현초등학교 광동분교로 격하
1997년 3월 1일	: 폐교

3) 횡성감리교회와 정화여학교

횡성읍 읍상리에 위치한 횡성감리교회는 1906년 4월 6일 미국 기독교 선교사 모리스부처의 선교활동으로 창립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진 횡성군의 대표적 기독교 교회이다. 현재 27개의 지교회를 설립하여 많은 신자들을 갖고 있다.

횡성감리교회는 1913년 부속학교로 정화여학교를 설립하여 여성교육에 공헌하였으며, 강원도내 여성교육의 시발이기도 하다. 당시 여학교는 근대적 신지식을 가르쳐, 여성을 양반사회에서의 예속적 지위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16년 4월에 조근영목사가 화성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유아교육에도 헌신하여 수천명의 유아를 배출하였다.

191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으킨 소년운동의 고조에 힘입어 1919년에는 엽윗청년회와 소년회를 조직하여, 청소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정기를 고취시켰다. 횡성지방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31만세운동에 많은 청소년이 가담하여 항일운동에 앞장섰다.<sup>30)</sup>

## 5. 횡성지방의 보통학교

### 1) 횡성공립보통학교의 개교

1895년 7월 19일에 공포된 소학교령(小學校令)에 따라, 강원도에는 1896년 9월 17일에 강원도관찰부공립소학교(춘천공립소학교), 강릉공립소학교, 원주공립소학교의 위치가 지정되어 공식 개교하였고, 이후에 각 군 소재지에 소학교가 점차 설립되었다.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어 식민지교육의 기본법이 되었다. 이 법의 적용에 의하여 횡성군에 4년제의 횡성공립보통학교가 1911년 6월 27일자 조선총독부고시 제200호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았다.

횡성공립보통학교는 본래 횡성 객사(客舍)에 있던 근대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 화성학교(花城學校)를 인수하여 발전하였다. 31운동 당시까지 4년제의 학제였다. 기초교육인 서당교육을 거친 학생들이 많아 오늘날의 학령아 보다는 연령이 높았으며 교육수준 또한 심화단계였다.

초대 교장은 일본인 삼호춘조(三戶春造)였다. 같은 해 11월 1일

---

30) 현재의 횡성감리교회는 430평 규모의 현대식 교회를 신축하여 횡성지방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

횡성공립보통학교로 개명하여 개교를 하였다. 1914년 3월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16년에는 최초로 수업연한 2년제 여학생이 입학하였다.

횡성군 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아직은 신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여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기를 꺼려하였으므로, 초기에는 학생수가 많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은 극히 소수였다.

1919년 4월 1일 현재의 횡성초등학교의 위치로 옮겨왔다. 1918년 현 위치에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지 정지작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신축교사도 건축되어 1919년 봄에 횡성객사에서 이전하였다고 한다.<sup>31)</sup> 이전 당시 학교주변은 솔밭과 과수원 지대로 밤이면 야생동물이 출몰할 만큼 황량하였다고 한다.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은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16일 고종황제의 인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슴에 삼베천의 상장(喪章)을 달고 등교하여, 무언의 항일시위를 하였다.<sup>32)</sup> 이후 계속된 횡성지방의 31독립운동에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다.

## 2) 보통학교의 학제와 교육과정

일제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인 1906년 2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침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기구로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다. 통감부는 정치문화교육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항일 민족정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민족교육운동을 억압하는 교육시책을 세웠다. 통감부는 한국의 학교제도를 개편

31) 횡성국민학교, 『횡성국민학교 80년사』, 1991, 89쪽.

32) 조동걸, 앞의 책, 70쪽.

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1906년 8월 27일 사범학교령(칙령 제41호), 고등학교령(칙령 제42호), 외국어학교령(칙령 제43호), 보통학교령(칙령 제44호)을 공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사범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0호), 고등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2호),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제22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3호)을 공포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통감부의 침략정책에 의해 개편된 내용은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명하고, 종래의 심상과 3년, 고등과 2년을 4년으로 하는 통합과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수업연한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일본어 교육이 필수교과로 증가하는 대신에, 한국어 교육 시간은 축소되었다. 더욱이 국사는 지리역사로 교과목을 정하고 학년별 이수과정에서는 제외되어 우리 역사교육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일본어 교육 시간수가 늘어나면서 일본인 교사를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 교사는 학생과 한국인 교사를 감시하는 임무도 부여되었다.<sup>33)</sup>

1910년 국권침탈 후 일제는 한국민족에 대한 식민지교육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한국 국민에 대한 우민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반민족적인 교육,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교육의 충실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인의 교육을 통한 독립의식의 성장을 의식하여서였다. 1911년에서 1912년에 이르러서 1군 1교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학부령 제23호로 공포된 보통학교 교과과정 및 주당 시간 수를 통하여 일제 식민지화 교육의 정체를 알 수 있다.

33) 金興洙, 『韓國近代歷史教育研究』, 삼영사, 1990, 157~160쪽.

■ 보통학교 각 학년 교육과정 및 매주 시간표

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수신	1	1	1	1	체조	3	3	3	3
국어	6	6	6	6	수예	-	-	-	-
한문	4	4	4	4	창가	-	-	-	-
일어	6	6	6	6	수공	-	-	-	-
산수	6	6	6	6	농업	-	-	-	-
지리역사	-	-	-	-	상업	-	-	-	-
이과	-	-	-	-	계	28	28	30	30
도서	-	-	-	-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135쪽.

1911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총독부는 보통교육의 보급을 내세우며 한국 민족을 회유하였으나 통감부시기와 다른 것이 없었다. 수업연한은 4년이었으며 지방의 상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하여 3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인에 대한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침을 적용하여 교육수준을 낮게 하는 교육시책을 전개하였다. 보통학교의 수는 1912년 말 공립 328개교, 사립 25개교로 353개교였고, 1919년 5월말에는 공립 482개교, 사립 33개교로 515개교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에 각급 교육기관의 수는 1,717개교에서 1,320개교로 감소되었다. 보통학교 수는 늘었으나 중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줄어 한국인에 대한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낮게 하려고 기초적인 교육만을 실시하려는 우민화정책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 시기에 강원도의 보통학교의 실태는 1군 1교의 원칙에 의해 설립된 25개교에 72학급 3,285명의 학생이 있었다.

## Ⅱ . 국채보상운동

### 1.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 1) 일본의 차관 공세

1876년의 문호개방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은 점차 증대되었으나, 세입을 늘릴만한 재원이 없었다. 조선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여 재정을 보충하기도 하고, 수차 일본에 차관을 교섭하기도 하였다. 1882년에 박영효(朴泳孝)가 수신사(修信使)로 파견되어 처음으로 일본에서 17만 원(圓)을 차관으로 빌렸다. 그러나 5만 원은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에서 약정한 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고, 12만 원은 일본유학생 파견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적극적인 차관 공세를 취했다. 그들은 조선의 이권을 확보하고 내정간섭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1895년 2월에 30만 원을 차관으로 제공하고, 인천부산원산의 해관세(海關稅)를 담보로 저당하였다. 3월에 다시 3백만 원의 차관을 제공하고 해관세와 조세(租稅)를 담보로 하였다.<sup>34)</sup>

그러나 삼국간섭(三國干涉)을 계기로 조선정부가 친로(親露) 경향을 띠고, 특히 일본이 민비(閔妃)를 시해(弑害)하자, 한국인의 대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1896년 2월 고종이 주한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간 후 개편된 친러파 내각은 일본과의 차관교섭을 파

34) 趙璣濬,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77, 166180쪽.



기하고, 구미 제국(歐美諸國)과의 차관교섭에 나섰다. 구미제국도 이권을 차지하려고 차관교섭을 집요하게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내정개혁도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진전되지 못하였다.<sup>35)</sup>

일본은 1904년 2월 8일에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한국은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의 위협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일본은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제 체결하고, 한국에 대한 침략방안을 추진하였다.

전세가 유리하자, 일본은 내정개혁을 구실로 8월 22일에 「한일외국인고문용빙(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協定書)」를 체결, 각 부(部)에 고문을 두어 고문정치(顧問政治)가 시작되었다. 재정고문 메가타(目賀田種太郎)가 재정정리에 착수하면서 일본의 차관공세는 본격화되었다. 메가타는 우선 1905년 1월에 한국의 화폐정리채(貨幣整理債) 명목으로,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입하였다. 그러나 화폐정리채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금융공황을 초래하여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반면에 일본의 금융독점을 강화시켰다. 메가타는 다시 6월에 구채상환(舊債償還) 및 세계부족보충비(歲計不足補充費) 명목으로 200만 원의 국고증권채(國庫證券債)를 발행하고, 이를 일본정부의 지불보증으로 모집하여, 식민지 작업의 일단인 행정개편에 지출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 乙巳五條約)을 강제 체결하고 통감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질서를 본격화하였다. 12월에는 천일은행(天一銀行) 및 한성은행(漢城銀行)의 창립보조 대부와 지방 금융조합 창립자금 등 화폐

35) 金泳鎬, 「舊韓末 借款問題의 展開構造」,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 正音文化社, 1985, 395~407쪽. 趙璣濬, 『全訂版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82, 166~189쪽.

개혁에서 비롯된 금융공황구제 및 민간금융지원 명목으로 금융자금채(金融資金債) 150만 원을 일본정부로부터 차입했다.

그러나 금융자금채 역시 명목과는 달리 한성창고주식회사(漢城倉庫株式會社)와 어음조합(於音組合) 등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한국의 토착상인자본을 흡수하고 민족계 은행을 예측시키는데 충당되었다. 결국 차관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재정화폐금융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3월에 통감 이포오(伊藤博文)의 조치로 시정개선 및 기업자금 명목으로 흥업은행(興業銀行)에서 1,00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구문전(口文錢)으로 100만 원을 떼어먹고, 한국은 실수금(實受金) 900만 원을 1,000만 원조로 차입하였다.

일본의 차관공세로 대한제국 정부는 1907년초에 원금만 1,65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재정고문 메가타가 취임한 이후 도입한 화폐정리자금채 300만원, 국고증권채 200만원, 금융자금채 150만원, 시정개선(施政改善) 및 기업자금조(企業資金條) 1,000만 원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된 것은 1,150만 원이고, 150만 원은 그 이자였다.

1907년 2월에 신채(新債)로 구채(舊債) 약 350만 원을 정리하고도 대일(對日) 부채는 1,300여만 원이나 남았다. 1906년에 한국의 세입총액이 1,318만 9,336환(圓)이고, 세출총액이 1,395만 523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채 1,300여만 원은 대한제국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다.<sup>36)</sup> 1905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약 5년 동안 한국의 대일 부채는 4,500여만 원에 이르르게 되었다.<sup>37)</sup>

요컨대 차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강요된 타율적인 것이었

36) 崔 竣, 『韓國新聞史論攷』, 一潮閣, 1976, 116쪽.

37) 李松姬, 「韓末 國債報償運動에 關한 一研究」, 『梨大史苑』 제15집, 梨大史學科, 1978, 6쪽.

으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의 재원으로 거의 모두 사용되었다. 일본의 차관공세는 한국재정을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적 독립을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관의 상환의무는 한국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대한제국정부가 거액의 외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 2)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한국민은 일본의 식민지화 추진을 국권상실의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국권수호를 위하여 다양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인들은 차관증대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자, 차관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을 전개하였다.<sup>38)</sup>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를 국민의 모금으로 갚자는 거족적인 애국운동이었다.<sup>39)</sup> 국채는 국권의

- 38) 崔 竣, 1967,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 『白山學報』 제3호, 白山學會.  
 朴容玉, 1968, 「國債報償運動에의 女性參與」, 『史叢』 第1213合輯, 高大史學會.  
 李松姬, 1978, 「韓末 國債報償運動에 관한 一研究」, 『梨大史苑』 第15輯, 梨大史學會.  
 李尙根, 1990, 「國債報償運動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18輯, 국사편찬위원회.  
 趙恒來, 1994, 「國債報償運動의 發端과 展開過程」,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아세아문화사, 1994  
 愼鏞廈, 1994, 「愛國啓蒙運動에서 본 國債報償運動」, 위의 책.  
 朴容玉, 1994, 「國債報償運動의 發端背景과 女性參與」, 위의 책.  
 鄭晉錫, 1994, 「國債報償運動과 言論의 役割」, 위의 책.  
 이상근, 1995, 「영남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일제의 한국침략과 영남지방의 반일운동』, 한국근대사연구소.  
 金淇周, 1996, 「광주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全南史學』 第10輯, 185~220쪽.  
 李尙根, 2000, 「京畿地域 國債報償運動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89~213쪽.
- 39) 愼鏞廈吳斗煥趙恒來朴容玉鄭晉錫 共著,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아세아문화사, 1994.

상실 여부와 직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국채보상 움직임은 경북 대구(大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7년 1월 29일(음력 1906년 12월 16일)에 대구의 출판사 광문사(廣文社)에서 그 명칭을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는 특별회가 개최되었다. 서상돈(徐相敦, 1851~1913)은 도내 인사 200여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채 일천삼백만원을 갚지 못하면 장차 토지라도 허급(許給)할 것인데, 지금 국고금으로는 갚지 못할지라. 우리 이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그 대금을 매월 1인당 20전씩만 수합(收合)하면, 그 빚을 갚을 것”

이라 주장하고, 자신부터 800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참석 회원들은 모두 의기가 분발하여 즉시 각 도에 권하기로 하였다. 광문사 사장 김광제(金光濟)가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없애자, 참석자들도 즉석에서 담배를 끊고 의연금으로 2천여 원을 각출하였다.<sup>40)</sup>

사장 김광제부사장 서상돈, 대동광문회 회장 박해령(朴海齡)회원 김윤란(金允蘭, 일명 金炳淳) 등 17인이 발기하여, 2월 21일(음력 1월 9일)에 대구 북후정(北後亭)에서 대구민의회(大邱民議所) 즉 단연회(斷烟會)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광제서상돈 명의로 「국채 1천3백만환 보상취지(國債一千三百萬圓報償趣旨)」를 낭독하였다. 취지문은 국채 1천 3백만 환은 나라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로,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이집트월남과 같이 나라가 망하는 형세가 반드시 올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국고로는 갚을 형편이 어려우니, 2천만 국민들이 3개월간 담배 피우는 것을 폐지하

40) 『皇城新聞』, 1907년 3월 21일, 잡보. 『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59~60쪽.

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월 20전씩 거둔다면 1천 3백만 환을 모을 수 있으며,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한다 하더라도 1원10원100원1,000원을 특별 의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2천만 국민이 모두 합심 단결하면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제창하였다.

국망의 위기를 단지 3개월간 단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자, 참여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담뱃대를 버리고 앞 다투어 의금(義金)을 출연(出捐)하였다.<sup>41)</sup>

단연회는 24일 장날에 다시 북후정에서 대회를 열었다. 의연금이 모아지자, 일본 경찰이 갖은 위협으로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시민들은 격분하여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서상하(徐相夏)도정호(都正浩)이근영(李根泳)을 대표로 선출하여, 취지서와 규칙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잘 교섭하라고 요청하였다.<sup>42)</sup>

광문사의 국채보상취지서가 전국 각처에 공포되고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즉시 호응하였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곧 지역별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다시 직업별 지방별가문별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신분과 성별과 직업과 지역을 초월한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대구에서는 남일동 여성들이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南一洞佩物廢止婦人會)를 결성하여 금은 등의 가락지귀걸이 같은 패물을 의연하며 애국대열에 뛰어들었다. 이에 경향 각지의 여성들이 각성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sup>43)</sup>

『황성신문(皇城新聞)』『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제국신문

41) 趙恒來, 「國債報償運動의 發端과 展開過程」,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아세아문화사, 1994, 65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1일, 잡보. 『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1907년 3월, 60~61쪽.

42)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9일, 잡보.

43)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8일, 잡보.

(帝國新聞)』『만세보(萬歲報)』 등 언론기관은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운동의 확산과 지속적인 전개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언론기관들은 각 지방의 국채보상운동 단체의 취지서와 모금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논설사설 그리고 기고문을 통하여 국채보상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의연에 참여한 단체나 개인의 명단과 금액을 대대적으로 게재하였다.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의 기관지인 국민신보사(國民新報社)도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하였다. 1907년 2월 하순부터 4월말까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의연한 자는 4만여 명에 달하였다.<sup>44)</sup>

단천군(端川郡)의 이병덕(李炳德)김인화(金仁化) 등은 ‘국채보상가(國債報償歌)’를 지어 불러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발양하고 국채보상에 힘쓰자고 제창하였다.<sup>45)</sup>

서울의 김성희(金成喜)유문상(劉文相) 등은 2월 22일에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를 설립, 각지에서 전개되는 운동을 서울에서 총괄하는 기구로 자부하고, 그 취지서와 회칙을 제정 발표하여 합법적 운동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

서울의 북촌에 사는 서병염(徐丙炎)윤흥섭(尹興燮) 등 59인은 국채보상중앙의무사(國債報償中央義務社)를 조직하고, 동포들이 능력에 따라 다소를 불구하고 의금을 연출하여 수금소인 황성신문사로 보내면, 그 씨명과 금액을 신문에 게재하기로 하며, 수합금은 매월 말에 합계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의금저금소는 신용 있는 은행으로 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다.<sup>46)</sup>

각 지방에서도 도, 군, 면 단위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지하는 취지서를 발표하고 국채보상회를 발족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단체들은

44) 崔 竣, 앞의 책, 527541쪽.

45)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4일, 잡보.

46) 『皇城新聞』, 1907년 2월 2527일, 3월 2일, 잡보.

설립 취지서와 공함을 발표하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부강을 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바야흐로 국권 만희의 날이며 민명(民命) 재생의 때라고 역설했다.<sup>47)</sup>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고종도 단연을 실천하고, 영친왕(英親王)의 길례(吉禮)를 연기하도록 명하였다.<sup>48)</sup> 황제가 단연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현직 관료와 지도급 인사들이 단연을 결심하고 의연에 참여하였다. 태복사(太僕司) 주사 서정필(徐廷弼)이규동(李揆同)은 각 부에 통첩하여, 일반 관리들에게 월봉 중에서 몇 환씩 저축금으로 떼어둔 금액을 연보하자고 제의하였다.<sup>49)</sup>

관립영어학교(官立英語學校)의 교장 이하 학생과 사환까지 담배를 끊고 그 대금을 국채보상에 쓰기로 동맹하였다. 계동(桂洞) 보흥학교(普興學校)의 생도들이 몇 십전씩 각출하자, 부형들은 담뱃대를 모두 없앴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내놓고, 고아원 학도들도 심부름 값을 의연금으로 바쳤다. 짚신을 삼아서 처와 함께 비지를 사서 연명하면서도 의연에 참여한 82세의 노인도 있었다. 그에 비해 부호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인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물의가 일어났다.<sup>50)</sup>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의 사환병, 육군연성학교(陸軍研成學校)의 교성대(敎成隊) 병사, 그리고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병사들도 성금을 기성회로 보냈다.

47)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8일3월 7일, 잡보.

『皇城新聞』, 1907년 3월 2일 잡보. 『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64쪽.

48)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7일3월 7일, 잡보, 『태국신문』, 1907년 2월 27일, 잡보.

49) 『皇城新聞』, 1907년 3월 25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7일, 잡보.

50)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427일, 3월 1671516일, 잡보, 『皇城新聞』, 1907년 3월 4일, 잡보. 4월 1115일, 잡보.

서민층과 하층민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예컨대 서울 양반 집의 노비와 침공(針工)들이 품값을 모두 의연금으로 바쳤다. 노복(奴僕)들도 술을 끊고 출연하였다.<sup>51)</sup> 나무꾼들은 땀나무와 짚신을 팔아 의연하고 백정도 참여하였다.

서울의 노동자와 인력거꾼들이 잇달아 의연에 참여하였다. 경무서 죄수들이 짚신을 삼고 혹은 절식(節食)하여 모은 돈을 대한매 일신보사에 보냈고, 감옥서 죄수들이 가죽신을 만들어 판돈을 의연하였다.<sup>52)</sup>

운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의연 참가자는 일반 서민대중 중심으로 옮겨졌다. 정부의 고관이나 부유층들 보다 일반 민중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었다.

종교인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승려들은 각 사찰에 통지를 보내 의연을 권고하였다. 여승들도 의연금을 각출하였다. 원산(元山) 와 우동(臥牛洞) 기독교회당에서는 단연을 결심하고 그 대금을 연조하기로 작정하고 수금위원을 선정하였다. 의주(義州)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들에 취지를 열렬히 연설하여 방청자들이 자원 출의케 하였다. 덕천군(德川郡) 기독교인 김문근의 일장 연설로 군내의 남녀노소가 다투어 의연하였다. 수원(水原)의 영국인 신부 부재열(夫在烈)도 남녀 교인과 함께 출의하였다. 천도교회에서도 거액을 의연하기로 논의하였다.<sup>53)</sup>

각 약방에서도 단연동맹을 하고 의연금을 모아 기성회로 보냈다. 의학교에서는 교장이 교관과 학도들에게 “흡연이 위생과 경제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단연동맹가(斷烟同盟歌)를 불렀다.<sup>54)</sup>

51)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6일3월 816일, 잡보. 조항래, 앞의 글, 77쪽.

52)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427일, 3월 52023, 4월 614일19일, 잡보.

53) 『皇城新聞』, 1907년 3월 131828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714214월 5일. 잡보.

54)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028일, 4월 18일, 잡보.



성환(成歡)의 최두경(崔斗卿)은 집을 팔아 연조하고, 그의 부인과 장모는 은가락지와 은비녀를 의연하였으며, 고용된 아이들도 출연하였다. 고(故) 판서 김영목(金永穆) 부인도 사는 집을 팔아 적은 집을 마련하고 1천 냥을 의연하였다. 강원도 회양군(淮陽郡)의 김응수(金應壽)는 농우(農牛)를 팔아 10원을 출의하였다.<sup>55)</sup> 경북 성주군(星州郡)의 이승희(李承熙)는 자신의 회갑연 비용을 출연하고, 집안의 부인은 은가락지를 내놓고, 종질은 가사를 포기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전념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단연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배판매 금지, 분초(焚草) 등으로 전개되었다. 국채보상을 위한 단연운동에는 누구나 동참하였다. 4월초 평남 23개 군의 각학도춘기대운동회(各學徒春期大運動會)에 참석한 학생과 관람자 2천여 명이 한 사람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sup>56)</sup>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애국계몽단체, 학회, 언론기관들은 국채보상운동의 취지서를 보도하고 보상소를 설립하여 이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기독교청년회(基督教青年會)서우학회(西友學會)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 등은 국민의 의무와 단연에 관한 토론회연설회 등을 자주 열어, 국민의 애국심을 환기하고 절용보국(節用報國)의 생활을 강조하였다.<sup>57)</sup>

한국민의 열렬한 국채보상운동 전개를 보고 외국인들도 감탄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에 있던 어느 서양인은 국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의연금을 내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55) 『皇城新聞』, 1907년 3월 16일, 4월 10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7일, 잡보.

56)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72831일, 4월 19일, 잡보.

57) 趙恒來, 앞의 글, 81~82쪽.

없는 일이라고 감탄하고 4원을 의연하였다. 프랑스 선교사 명약일(明若日)도 10원을 출연하였다. 평북 영유군(永柔郡) 이화학교(梨花學校)의 일본인 교사도 감격하여 의연하였다.<sup>58)</sup>

국외의 한인사회도 적극 호응하였다. 일본 동경의 유학생들은 대구 국채보상취지문을 읽고, 2월 중순에 1백여 명이 회동하여 단연동맹을 발기하였다. 일본인들이 구름같이 모여와서 축하를 하고, 일본에 체류하는 서양인도 각기 출의(出義)를 말하였다. 일본 유학생들이 설립한 태극학회(太極學會) 회원 등 800여 명은 유학생총회를 개최하고 단연한 담뱃값으로 국채를 보상할 것을 결의하였다. 유학생들은 2차에 걸쳐 48원 5전을 황성신문사로 보내었다.<sup>59)</sup>

미주(美洲)의 한인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共立協會)는 대한매일신보사에 기함(寄函)을 보내 국채보상운동을 격려했다. 공립협회 석천동(石泉洞)지방회원들은 일화(日貨) 140원을 연조하였다. 한규현최정익은 앞으로 국채를 다 갚는 날까지 매월 일화 2원씩 연납하기로 작정했다.<sup>60)</sup> 공립협회는 3월 25일에 「국채보상의연발기서(國債報償義捐發起書)」를 발표, 미주 동포들도 힘을 다하여 보조할 것을 호소하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박형모남궁염신봉희염달옥 등이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동포들의 의견을 촉구하고, 황사용강영대신봉희염달옥 4인을 수전위원으로 정하고, 그 동안 연조한 금액과 성명을 서울의 기성회에 보고하였다. 5월 23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20명이 미화(美貨) 42불(韓貨 83

58)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6일, 5월 26일, 잡보.

59) 金祥起, 「韓末 太極學會의 思想과 活動」, 『嶺南史學』 창간호, 1985, 嶺南大國史學會, 457쪽. 『皇城新聞』, 1907년 3월 21일, 4월 13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3일, 잡보. 『西友』 제6호(1907년 5월), 31~33쪽.

60)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6일, 잡보.

원 63전)을 모아 황성신문사로 보내왔다. 하와이 에와 등지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5월초에 의연금을 보내왔고, 부인들은 ‘의연서(義捐書)’를 보내 국채보상운동을 격려하였다.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의 동포들도 55원을 거두어 국채보상기성회로 보내왔다.<sup>61)</sup>

### 3)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국내외에서 전 국민이 호응하여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기탁하는 의연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종일(李鐘一)김광제(金光濟)박용규(朴容奎)서병규(徐丙珪)이면우(李冕宇)오영근(吳榮根) 등은 4월 8일에 각 지방의 수금을 총관하는 통합기구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규정과 공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소장으로 한규설을 추대하고, 부소장에 김종한(金宗漢), 회계감독에 박용규서병규, 감사원에 이강호(李康鎬)양기탁(梁起鐸)이면우, 사무원에 안덕용(安德瑢)윤치호(尹致昊) 등 12인을, 평의원에는 사회 유지 20인을 선출하였다. 5월 25일에 특별회를 개최하고 제반 임무를 확장하였는데, 소장은 윤웅렬(尹雄烈), 평의장은 조재우(趙在禹), 감사원은 김광제로 정하고, 회계에 능한 서기 4인을 따로 택하여 경향의 각 수금소를 모두 검사하기로 하였다.<sup>62)</sup>

거의 같은 시기인 4월초에 각 사회와 13도 대표자들이 보성관

61) 『제국신문』, 1907년 5월 727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0일, 잡보. 『共立新報』, 1907년 4월 26일, 별보. 『皇城新聞』, 1907년 5월 23일, 광고.

62)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8일, 別紙. 4월 11일, 5월 25일, 잡보. 柳子厚, 『李僑先生傳』, 東邦文化社, 1947, 204쪽.

(普成館)에서 회동하여 국채보상연합회의소(國債報償聯合會議所)를 조직하고 앞으로 연합규칙을 공간하기로 하고, 각 발기소에서 전후에 거둔 금액과 각 인명을 연합회의소에 보고하면 편집하여 월보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국채보상연합회의소는 대한자강회 회관을 임시사무소로 하였다. 임원은 의장에 이준(李儁), 부의장에 김광제, 위원장에 윤효정(尹孝定)을 선정하였다. 4월 20일경에는 소장에 이도재(李道宰), 부소장에 이용직(李容植)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30일에는 이도재가 사면되고 부소장 이용직을 소장으로 추천하고 지석영(池錫永)을 부회장으로 선정하였다.<sup>63)</sup> 그리고 국채보상에 대한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조사회(國債報償調査會)를 설치하고, 검사를 주관하기 위해 국채보상검사소(國債報償檢査所)를 설립하였다.<sup>64)</sup>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의 추진체가 실질적으로 통일되지 못하여, 오히려 의연금 수합에 경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5월말에 지원금총합소 검사원 이강호와 연합회의소 총무 김광제가 특별회를 열고, 각 지방에서 수합한 금액은 지원금총합소에서는 총관하고, 일반 국민의 국채보상에 대한 지도에 관한 일은 연합회의소에서 장악하기로 결의하였다. 두 보상소가 의연기구를 대표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을 뿐, 보상운동에 참가하는 온 국민을 영도해 나갈 통일기구는 설치되지 못하였다.<sup>65)</sup> 그렇지만 종래 분산적으로 전개된 운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두

63) 『皇城新聞』, 1907년 4월 8일, 잡보. 4월 11일, 廣告.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30일, 잡보.

64) 李鉉淙, 「舊韓末 政治社會學會會社言論團體調查資料」, 『亞細亞學報』 제2집, 亞細亞學術研究會, 1966, 92~93쪽.

65)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6일, 5월 28일, 잡보. 『제국신문』, 1907년 5월 28일, 잡보. 柳子厚, 앞의 책, 212쪽.

보상소의 주도 아래 지도층과 민중이 결합되고, 각 지역별 지도자들이 통합되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당시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지도한 것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와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임원들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고급 관료층과 지식인민족자산가 및 상인층이었다. 지원금총합소와 연합회의소가 한규설윤용렬김종한 등 전 관료나 민족자산가를 소장으로 추대한 것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흡수하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제의 탄압을 피하려는 방략에서 비롯되었다. 재무처리를 한일은행장(韓一銀行長)천일은행장(天一銀行長)농공은행장(農工銀行長)한성은행(漢城銀行) 총무창고회사장 등 은행가들이 담당하여 의연금 관리의 공신력을 높이고 능률화를 도모하였다. 방략상 관료층과 민족자산가들을 표면에 내세웠으나, 실제로 국채보상운동을 거국적으로 주도한 것은 애국계몽단체학회언론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던 지식인들이었다.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와 국채보상연합회의소의 주도 아래 전국 방방곡곡에 국채보상소가 설립되었다.<sup>66)</sup>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1908년 4월 30일 현재 대한매일신보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수합한 의연금 총액은 14만 3천5백42원 33전이였다.<sup>67)</sup> 주한 일본헌병대가 그 후 3개월이 지나서 7월 27일 현재 집계한 의연금 총액은 18만 7천8백42원 78전 5리에 달하였다.<sup>68)</sup> 1908년 9월까지 대한매일신보사가 접수한 의연금 총액은 6만 1천 5백 원이었다.

66) 李松姬, 앞의 글, 2528쪽.

67)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6, -保護及び併合, (東京, 巖南堂書店, 1964), 50쪽.  
The Seoul Press, Sept. 30th, 1908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Fund : The Accused Acquitted."

68) 崔 竣, 앞의 글, 541쪽.

그러나 이 의연금 총액은 실제 보다 훨씬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1907년 8월 22일에 경무고문(警務顧問) 마루야마(丸山重俊)가 아래 표와 같이 1907년 6월말까지 모집된 금액을 도별 월별로 집계하여 보고한 것을 보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어 5월말까지 24만 1천 98원 91전 3리, 6월말까지는 27만 2천 689원 51전 9리로 집계되었다.<sup>69)</sup> 이 보고서의 집계가 정확하다면, 앞서 주한일본 헌병대가 1908년 7월 27일 현재로 집계한 18만 7천8백42원 78전은 잘못된 것이다.

국채보상 모집금액(國債報償募集金額)

道 名	5월까지 모집금	6월중 모집금	計
서 울	62,735.080	109.20	62,844.280
경 기 도	13,916.087	4,412. 512	18,328.399
충청북도	3,778.625	227.530	4,006.155
충청남도	15,669.355	327.835	15,997.190
전라북도	6,341.004	1,972.935	8,313.939
전라남도	8,408.880	4,149.200	12,558.080
경상북도	23,853.031	4,006.559	27,859.590
경상남도	20,008.514	1,163.270	21,171.584
황 해 도	24,286.175	5,862.480	28,148.655
평안남도	25,083.185	400.000	25,483.185
평안북도	21,277.762	3,539.615	24,817.577
강 원 도	4,258.515	6,412.870	10,671.385
함경남도	10,505.500	799.800	11,305.300
함경북도	977.400	207.000	1,184.400
합 계	241,098 913	31,590.606	272,689.519

당시 국채보상을 위하여 당오전(當五錢) 또는 구화(舊貨)로 출연한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여성들이 금은으로 만든 가락지비

6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1995, 화보

녀귀결이 등의 패물을 출연하였다. 그런데 이들 당오전과 구화, 그리고 패물을 신화(新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금액이 경무고문이 보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여하튼 6월말까지 수합된 의연금 총액은 27만 2천 6백89원이었고, 이후 7월과 8월에도 도합 2만 7천8백여 원이 수합되었다. 그리고 9월 이후 점차 줄어들고 11월부터는 극히 저조하였으나, 계속 의연금이 수합된 것을 고려하면<sup>70)</sup>, 적어도 30만 원 이상이 수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3년 3개월 만인 1910년 4월 17일 현재 국채보상금처리회(國債報償金處理會)가 조사한 각 처의 저금액 총계는 15만 9천 2백 53원 99전 9리이었다.<sup>71)</sup> 1908년 7월에 주한 일본헌병대가 조사한 금액 보다 2만 8천 5백여 원이나 줄어들었다. 당시 일본의 『외교시보(外交時報)』에서도 1년여를 경과한 기간(1907년 2월~1908년 9월 상반기)에 접수된 의연금 총액이 예기한 금액의 100분의 1에도 미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72)</sup> 종래에는 이런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여 당시 모은 의연금 총액은 2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경무고문 보고서를 보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4월부터 12월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6~8월에는 가장 많은 의연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운동주체역량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1908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금 각출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일제 통감부는 이를 일종의 배일운동(排日運動)으로 단정하고, 온갖 모략과 방법으로 방해하고 간교한 탄압

70) 李松姬, 앞의 글, 28쪽.

71) 黃 玆, 『梅泉野錄』 권6, 隆熙4년 경술 4월조, 530쪽.

72) 松宮春一郎, 『韓國時報』, 『外交時報』 제131호, 外交時報社, 東京, 1908, 501쪽.

을 자행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 중심체는 양기탁(梁起鐸)과 베델(Bethel E. T. 裴說)이 이끄는 대한매일신보사였는데, 일제는 1907년 이후 베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공작을 전개하여, 1908년 5월에 3주(週)의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7월에는 통감부가 “대한매일신보가 보관한 국채보상금을 베델양기탁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3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기탁을 구속해 버렸다. 이른바 「국채보상금소비사건(國債報償金消費事件)」이었다. 통감부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장이었던 윤웅렬(尹雄烈)은 “보상금중 3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이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통감부의 공작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암초에 부딪쳐 끝내는 중지부를 찍고야 말았다.<sup>73)</sup>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충정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계통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제의 방해탄압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었다. 비록 좌절로 끝나긴 하였으나, 국채보상운동은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

## 2. 강원도의 국채보상운동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를 국민의 모금으로 갚자는 거족적인 애국운동이었다.

73) 이구용김홍수최창희, 『춘천항일독립운동사』, 춘천문화원, 1999, 169~172쪽.



1907년 1월말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곧바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대일부채(對日負債) 1,300만 원을 이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매월 1인당 20전씩만 수합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서상돈의 주장은 전 국민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2월 21일에 대구에서 단연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채1천3백만원보상취지’가 공포되고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즉시 호응하여, 신분성별직업초월한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내는 물론 일본 만주 노령 그리고 미주에까지 퍼져나갔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항일의병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던 강원도에도 곧바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각 지역에 국채보상운동단체가 조직되어 의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1) 강원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강원도의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3월부터 춘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월 초순에 정3품 남세희(南世熙)와 전승지 이수인(李守寅)이 국채보상에 대하여 발문(發文)설명하여 시장과 마을에 설득하자, 군민들이 감격하여 의연하였다.

그리고 춘천군수 이명래(李明來)와 조두하(趙斗夏)이공종(李肯鐘) 등 15인이 1907년 음력 1월에 춘천군국채보상동맹을 조직하고, ‘춘천군국채보상동맹취지서’를 발표하였다.<sup>74)</sup>

취지서는 춘천지방의 국채보상운동을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내의 국채보상운동 확산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4)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628일, 잡보.

3월에 이르면 강원도 내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할 단체들이 속속 조직되었다. 고성군(高城郡)에서 김중하(金重夏)가 국채보상기성회를 발기하고, 홍천군에서 송재풍(宋在豐) 등 6인이 의무회(義務會)를 만들고 의금(義金)을 모집하였다. 화천군에서는 오종영(吳宗泳)김춘식(吉春植) 등 6인이 국채보상회사(國債報償會社)를 설립하였다. 춘천군에서는 조두하이공종 등 15인이 국채보상을 위하여 단연동맹(斷煙同盟)을 하였다. 회양군에서도 송성락(宋聖洛) 등 19인이 단연회를 조직하였다. 강릉에서는 선비들이 향교에 모여서, 매 호에 1환 50전씩을 분배하고 석 달 안에 걷기로 작정하여, 의논이 비등하였다. 내부 주사 최종락은 강릉 유생들에게 각 동리에서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은 사리에 온당하지 못하니 정지하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sup>75)</sup>

이후 홍천군국채보상회화천군국채보상회원주군국채보상의무소울진군국채보상동맹이천군국채보상의무사 등이 결성되어 각각 군내에서 의연금을 수합하여 서울로 보냈다. 강릉에서는 이근우(李根宇)가 국채보상회를 발기하여 취지서를 작성하여 사람들에게 간절히 권유하고 수금하였다.<sup>76)</sup>

특히 영월군의 지우석(池우錫)은 5월초에 국채보상에 관한 통문(通文)을 작성, 강원도내 각 군에 배포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sup>77)</sup>

75) 『皇城新聞』, 1907년 3월 2829일, 잡보. 『京鄉新聞』, 1907년 4월 519일, 강원보.

76) 『皇城新聞』, 1907년 5월 20일, 7월 12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9일, 잡보.

77)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5일, 잡보.

## (1) 춘천군의 국채보상운동

춘천에서는 1907년 3월부터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정3품 남세희와 전승지 이수인이 국채보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장시와 마을에 설득하여, 군내에서 계속 의연하였다. 그리고 춘천군수 이명래와 조두하 등 15인이 춘천군국채보상동맹을 조직하고, 「춘천군국채보상동맹취지서」를 발표하였다.<sup>78)</sup> 이후 각 동리에서 의연금미 수합되어 서울로 보내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공표되었다.

춘천지방의 국채보상운동은 5월에 절정에 달하였다. 농번기인 6월에는 부진하였지만, 7월에 다시 의연활동이 재기하여 8월에 활발하였다.

춘천지방에서 국채보상금 의연에 참여하여 이름이 신문에 기록된 사람은 1,100명을 넘는다. 동리의 이름으로 참여한 사람들까지 헤아리면 약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출연한 총액은 당오전(當五錢) 2,645냥(兩)과 신화 321환(圓) 35전6리이었다.<sup>79)</sup>

춘천지방의 국채보상운동은 전직 관료가 국채보상 운동을 일으키고, 군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 영향력 있는 집강(執綱)면장사과(司果)주사 등이 의연에 앞장섰다.

그러나 춘천지방의 국채보상운동은 대부분이 일반 민중이 주도하였다. 거의 모두가 남성들이었다. 여성으로는 북내이작면(北內二作面) 고탄상리(古呑上里)의 황순옥(黃舜玉)부인 박씨<sup>80)</sup>, 그리고 사내면 면대리(面垔里)의 박소사(朴召史)가 화폐로 의연에 참여한 것이외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지방의 여성들이 패물(佩物)을 출연

78) 『皇城新聞』, 1907년 3월 1628일, 잡보.

79) 이구용김홍수최창희, 『춘천항일독립운동사』, 1999. 춘천문화원, 172~185쪽. 『皇城新聞』, 1907년 5월 22일, 광고.

80) 『皇城新聞』, 1907년 5월 27일, 광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개일리에서 고인(雇人)이 참여한 것도 유일한 예이다.

### (2) 화천군의 국채보상운동

화천군에서는 1907년 3월에 오종영(吳宗泳) 등 6인이 국채보상회를 설립하고 의연금 모집을 전개하고, 신화 2환(圓)을 우선 황성신문사의 경비에 보태 쓰라고 보냈다.

화천군에서는 1907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신문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이 2,150여인이며, 화천군부인회 등에 의연한 사람을 포함하면 약 2,200인이 참여하여, 850여 환을 의연한 것으로 집계된다. 화천부인회가 조직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권장한 것이 주목된다. 논미리의 황소사(黃召史), 용암리(龍巖里) 상촌(上村)의 김소사(金召史)가 개별적으로 의연하였다.<sup>81)</sup>

### (3) 홍천군의 국채보상운동

홍천군에서는 3월에 송재풍(宋在豐)정한연(鄭漢淵) 등 6인이 의무회(義務會)를 만들고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홍천군국채보상회는 의연금 각출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5월 초순에 홍천군국채보상회 회의장(會議長) 김우현(金羽鉉)은 모금한 의무금 202환(圓) 11전 5리를 황성신문사에 송치하고, 아울러 황성신문사의 경비로 1환을 특연하였다.

홍천군에서는 진사주사참봉(參奉)사과(司果)통정(通政) 등의 전현직 관리와 양반, 그리고 제설군(宰設軍)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81) 『皇城新聞』, 1907년 3월 28일, 5월 930일, 7월 51213일, 8월 10일, 9월 21일, 10월 1일, 잡보.

1908년 1월 10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1113일, 잡보.

참여하였다.<sup>82)</sup> 그리고 마을에 설립된 소학교(小學校)소학당(小學堂)에서 의연금을 출연한 것이 특징적이다. 서석면의 검산리(儉山里)상군두리(上軍杜里)청량리(淸凉里)의 소학교, 수하리(水下里)생곡리(笙谷里)풍암리(豐巖里)하군두리(下軍杜里)의 소학당 등에서 학동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홍천군에서 운동에 참여하여 신문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은 1,712인 이다. 북방면 부사원(府司院), 군내면 갈마곡(葛麻谷), 도남면 제곡리(諸谷里)에서는 동중에서, 그리고 군내면 진리(津里)에서는 동중계(洞中契)가 참여하였다. 이들을 합계하면 홍천군에서는 1,800여 인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모두 당오전(當五錢) 2,025량(兩)과 555환(圓) 80전을 의연하였다.

여성으로는 두촌면 철정리(哲亭里)의 신영시(辛榮時) 어머니 김씨, 화촌면 내삼포(內三浦)의 이종혁(李鍾赫) 처 이씨, 북방면 화동리(花洞里)의 이빙구(李憑求) 어머니 경씨(慶氏)와 여중(婢子) 김섬(金蟾) 등이 참여하여 합계 7원 90전을 의연하였다.<sup>83)</sup>

#### (4) 인제군의 국채보상운동

인제군 상도리(上道里)에 거주하는 한면우(韓冕愚)와 정태일(鄭泰逸)의 전 가족이 모두 국채보상의연에 참여하였다. 특히 한면우는 본인, 아버지, 4명의 동생, 어머니계모서모 2인, 아내 2인계수(季嫂) 3인매제 6인, 아들딸조카 5인, 그리고 노비 4인을 포함해서 전 가족 30인 몫으로 의연금 8환 25전을 출연하였다.

82) 『皇城新聞』, 1907년 3월 28일, 5월 1314일, 잡보, 5월 1718일, 광고.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8일, 광고.

83) 『皇城新聞』, 1907년 4월 62427일. 5월 11일, 잡보. 1718일, 광고. 27 28일. 7월 368일. 9월 222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6 17일. 7월 917일. 8월 11일, 잡보.

정태일은 아버지동생어머니, 처와 계수, 그리고 매제 2인을 포함해서 전 가족 8인의 몫으로 모두 3환 40전을 출연하였다. 같은 마을의 이보영(李普榮)도 아들과 함께 1환 59전을 의연하였다.

인제군에서는 1,030여인 이상이 참여하여, 345환 이상을 의연하였다. 여성으로는 군내면 고사동(古沙洞)의 박소사(朴召史)와 김소사(金召史)가 각각 10전씩 출연하였다.

인제군 남면 내의 22개 마을 중에서 21개 마을이 의연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남면에서 국채보상의무금 모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면민의 참여를 권장하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특히 갑둔리는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이 은둔하면서 『동경대전(東經大典)』과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간행한 곳으로, 당시까지 동학교단 조직이 남아있어 국채보상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남면에서는 참봉통정진사감찰(監察)주사가선(嘉善)전사과(前司果)전도사(前都事) 등 전현직의 관리와 양반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외건달리(外健達里)에서 9세 어린이 김응복(金應福), 8세 어린이 최순봉(崔順鳳)이 참여한 것도 주목된다.<sup>84)</sup>

군내의 상민 도중(商民都中)에 속한 상인들 26인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14환 70전을 의연한 것도, 인제군 국채보상운동이 다른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철원군의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철원군발기소(鐵原郡發起所)가 설립되어 일찍부터

84) 『皇城新聞』, 1907년 4월 ?일, 5월 23일, 6월 29일, 9월 29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18일, 7월 31일, 잡보. 광고.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6월에는 전군수 홍봉관(洪鵬觀), 세무주사 윤홍식(尹鴻植)과 학원(學員) 최양(崔陽) 등이 발기인이 되어 철원군 공립보통학교 안에 국채보상의연금 수취소(收聚所)가 설치되어, 의연금을 접수하여 145환 91전을 모금하였다.<sup>85)</sup>

송내면(松內面)에서는 전도정(前都正) 이재교(李在敎)가 앞장서서 의금 모금 유사로 김정규이낙구를 선정하여 면내에서 의연금을 모았다.

철원군에서는 여성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4월초에 철원군발기소에 박관병부인 이씨와 송소사, 박봉구부인 김씨, 염선운(廉善云) 부인 송씨, 임소사, 이치순 부인 박씨 등이 의연금을 출연하였다.<sup>86)</sup> 그리고 4월 중순에 서변면(西邊面) 이현리(梨峴里)의 전주사(前主事) 이범□의 자친 김소사와 처 엄씨, 전령(前令) 이봉하(李鳳夏)의 자당 윤소사(尹召史)와 이봉하 처 심씨(沈氏) 등이 의연금 10원(圓)과 은지환(銀指環) 2개를 서울의 국채보상기성회로 보냈다.

철원군에서는 신문에 성명이 게재된 사람이 총 795인이며, 송내면 장포리(長浦里) 동중(洞中), 무장면(畝長面) 하토(下土) 동중에 참여한 사람을 감안하면 약 850인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며, 화폐 318환 28전, 엽전 297량, 그리고 은지환 2개를 출연하였다.<sup>87)</sup>

#### (6) 이천군의 국채보상운동

이천군에서는 김용식(金容植)윤상균(尹相□) 등이 발기하여 4월 초에 이천군국채보상의무사(伊川郡國債報償義務社)를 조직하고 취

85)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18일, 잡보. 7월 2728일, 잡보.

86)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7일, 광고. 4월 16일, 잡보.

87)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151925일, 7월 28일, 8월 913일, 잡보.

『皇城新聞』, 1907년 5월 827일, 6월 62224일, 7월 27일, 12월 28일, 잡보.

지서를 작성하여, 6월 9일에 『대한매일신보』에 공포하였다.<sup>88)</sup>

이천군에서는 천주교인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연금을 모아 경향신문사에 보냈다. 참여자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0여 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천군에서의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4월부터 1908년 2월까지 전개되었는데, 약 420여인이 참여하여, 구화 165원 13전, 신화 172환 49전, 그리고 엽전(葉錢) 785량을 출연하였다.<sup>89)</sup>

#### (7) 김화군의 국채보상운동

김화군(金化郡)에서는 1907년 4월말부터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김화군의 국채보상금 출연상황은 5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황성신문』에 게재되었다.

김화군에서는 총 262인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모두 신화 132환 60전을 출연하였다. 여성으로는 내면(內面) 신흥리(新興里)의 김소사(金召史)가 20전을 출연하였다.<sup>90)</sup>

#### (8) 회양군의 국채보상운동

회양군(淮陽郡)은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국채보상의무금을 출연하였다. 3월 중순에 회양군 내에서 19인이 13환 10전을 모아서 황성신문사에 보냈다.

김응수(金應壽)는 본래 산골짜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인데 회양군국채보상회가 발기하였다는 것을 듣고 농우(農牛)를 팔아서 10

88)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9일, 잡보.

89)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6일, 5월 14일, 1908년 2월 78911일, 잡보.

『皇城新聞』, 1907년 5월 1일, 잡보. 『京鄉新聞』, 1907년 6월 4일, 7월 519일.

90) 『皇城新聞』 1907년 5월 24일, 6월 341028일, 8월 30일, 잡보.



환을 특별히 출연하였다.

회양군에서는 3월에 송성락(宋聖洛)송종유(宋宗裕) 등 19인이 단연회(斷煙會)를 조직하고, 의무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였다. 회양군 국채보상 의무회장(義務會長) 송성낙은 황성신문사의 경비에 보용하라고 1환을 기부하였다.

5월에는 송석인(宋奭仁)송종유김양배(金亮培) 등이 매 장날과 향회(鄉會) 때에 국채보상금 의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회양군에서는 총 395인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신화 115환 70전을 출연하여 황성신문사로 보냈다.<sup>91)</sup>

#### (9) 통천군의 국채보상운동

통천군(通川郡)에서는 5월말에 임도면(臨道面)순달면(順達面)벽산면(碧山面) 등에서 모두 104인이 신화 93환 60전을 출연하였다. 임도면에서는 최병록(崔秉祿) 처 한씨(韓氏)와 최소사(崔召史)가 50전씩 합해서 1환을 출연하였다. 그리고 순달면에서 이완규(李完珪)의 3형제가 7환을 국채보상금으로 의연한 것이 주목된다.<sup>92)</sup>

#### (10) 금성군의 국채보상운동

금성군(金城郡)에서는 갈리재교회와 독안말교회의 신자들이 앞장서서 의연금을 모았다.

금성군에서는 62인이 모두 구화 35원 60전, 신화 9환을 80전을 의연하였다. 여성으로는 심의덕(沈宜德) 자친과 김종서(金中瑞) 부인이 각각 20전, 금성 당현의 이의빙(李宜聘) 부인 김씨가 4환, 유

91) 『皇城新聞』, 1907년 3월 20일, 8월 5일, 광고. 3월 29일, 4월 10일, 5월 18일, 6월 10일, 잡보.

92) 『皇城新聞』, 1907년 5월 31일, 廣告.

씨(劉氏)가 40전)을 의연하였다.<sup>93)</sup>

#### (11) 양구군의 국채보상운동

양구군에서는 내면(內面) 고대리 진사 최창혁이 20원, 대동리(大同里) 의관(議官) 김관희(金寬熙)가 10원, 합해서 30원을 국채보상금으로 출연하여, 4월 2일에 대한매일신보사에 입수(入收)되었다.<sup>94)</sup>

#### (12) 원주군의 국채보상운동

원주군에서는 4월초에 이민(敏)황과 최재민(崔在民)이 국채보상을 위해 의조소(義助所)를 설립하고 군내에 포고하여 여러 사람들이 앞다투어 의연하였다. 이들은 원주군국채보상의무소를 조직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였다.<sup>95)</sup>

원주군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국채보상의연금을 모집하였는데, 305인 이상이 참여하여, 신화 약 40환, 구화 34원 55전, 엽전 304兩을 출연하였다.<sup>96)</sup>

#### (13) 영월군의 국채보상운동

영월군의 지우석(池우錫) 등은 국채보상에 관한 통문을 작성하여 강원도내 각 군에 돌려 국채보상운동에 강원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

93)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25일. 잡보. 『皇城新聞』 1907년 7월 6일, 8월 6일. 광고.

94)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7일, 광고. 5월 9일, 잡보.

95)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6일, 5월 12일, 잡보.

96)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412일, 8월 8일, 12월 18일. 잡보. 『京鄉新聞』, 1907년 6월 7일. 『皇城新聞』, 1907년 4월 1027일, 5월 212230일, 6월 7일, 7월 26일, 10월 15일. 잡보.

영월군에서는 총 475인이 국채보상의연금으로 모두 구화 139원 35전, 신화 35환 30전을 출연하여 대한매일신보사에 보냈다.<sup>97)</sup>

#### (14) 평창군의 국채보상운동

평창군에서는 북면 하일동의 주민 6인이 5원을 국채보상의연금으로 출연하였다.<sup>98)</sup>

#### (15) 강릉군의 국채보상운동

강릉 국채보상운동은 기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강릉군의 퇴기(退妓)인 초옥(楚玉)경선(鏡仙)신춘(新春)춘앵(春鶯)금선(錦仙)월선(月仙)금향(錦香)옥선(玉仙) 등 8인은 국채보상금으로 6환 50전을 모아 황성신문사에 보냈다.

강릉의 선비들이 향교에 모여 의연금을 내기로 의논을 모았으나, 국채보상금을 억지로 내라는 것은 문제라는 의론이 비등하였다. 강릉 유생들은 매 호에게 1환 50전씩 의연금을 걷기로 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물의가 일어나자, 내부 주사 최종락(崔鍾洛)이 강릉 유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국채보상금을 강제로 각 동리에서 분배하는 것은 사리에 온당치 못하니, 정지하라고 하였다.<sup>99)</sup>

그러나 수년간 『황성신문』을 구독한 금학동(錦鶴洞)의 나재환(羅在恒)은 신문에 게재된 국채보상취지서를 읽고 기뻐서 춤추며 이웃 동리의 동지와 더불어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그는 산황리(山篁

97)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3일, 5월 5일, 6월 2일, 7월 910일, 8월 8일. 잡보.

98)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8일. 잡보.

99) 『京鄉新聞』, 1907년 4월 519일, 강원보. 『皇城新聞』, 1907년 3월 27일, 4월 8일. 잡보.

里) 조병억(曹秉億) 등 14인이 의연한 신화 16환 50전을 황성신문사에 전송하였다. 그리고 1환을 황성신문사에 보내 국채보상금 모금에 더욱더 권면하라고 격려하였다.

강릉에서는 이근우(李根宇)가 국채보상회를 발기하고 취지서를 작성하여 인민에게 격절(激切)히 권유하고 수금을 하였다. 그는 황성신문사의 경비에 보용하라고 4환을 보냈다.<sup>100)</sup>

강릉지방의 국채보상 의연금 출연에는 참봉(參奉)주사(主事) 동몽(童蒙) 등이 참여하였다. 강릉군에서는 100여인이 참여하여 구화 약 70원, 신화 38환 25전을 출연하였다.<sup>101)</sup>

#### (16) 삼척군의 국채보상운동

삼척군(三陟郡)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비교적 늦게 전개되었던 것 같다. 대한매일신보사에 제1회 의연금으로 207원 70전을 의연하였다.<sup>102)</sup>

#### (17) 간성군의 국채보상운동

간성군(杆城郡)에서는 금강산(金剛山) 건봉사(乾鳳寺)에 부설된 봉명학교(鳳鳴學校)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서, 152원 76전을 출연하였다.

간성군에서는 약 100여 인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화 156원 76전, 신화 13환을 출연하였다.<sup>103)</sup>

100) 『皇城新聞』, 1907년 5월 22일, 7월 12일, 잡보.

101) 『皇城新聞』, 1907년 3월 27일, 4월 13일, 27일, 5월 22일, 7월 2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2일. 잡보.

102)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68일. 잡보.

103)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일, 5월 7일, 8월 8일, 잡보. 『皇城新聞』, 1907년 5월 21일. 잡보.

(18) 고성군의 국채보상운동

금강산 유점사의 유신학교(楡新學校)에서 약 60인이 52원 65전을 의연하여, 4월 20일에 대한매일신보에 접수되었다. 유점사에서 20원을 의연하고, 남녀 승려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절에서 고용살이하는 사람 권주백(權注伯)도 15전을 출연하였다.<sup>104)</sup>

(19) 울진군의 국채보상운동

울진군(蔚珍郡)에서는 군주사(郡主事) 장병하(張秉廈)남치도(南致圖) 등 5인이 국채보상동맹취지서를 발기하고 의금을 모집하였는데, 신화 1환을 황성신문사에 보내 보용케 하였다.<sup>105)</sup>

2) 강원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성격

강원도내의 각 군별 국채보상의연금 출연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군 별	참여자수	신화(圓)	舊貨銀指環	當五錢(兩)
춘천군	약 1,500	321.35		2,645
화천군	약 2,200	850.00		
홍천군	약 1,800	555.80		2,025
인제군	1,030	345.00		
철원군	약 820	318.28	銀指環 2개	297
이천군	약 420	172.49	165.13	785

104)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11일, 잡보. 24일, 광고.

105) 『皇城新聞』, 1907년 5월 20일, 잡보.

횡성군	410	175.00		
영월군	475	35.30	139.35	
삼척군	약 500	4.00	207.70	
김화군	262	132.60		
회양군	395	115.70		
통천군	104	93.60		
금성군	62	9.80	35.60	
양구군	2		30.00	
원주군	305		74.55	304
평창군	6		5.00	
강릉군	약 100	38.25	70.00	
간성군	약 100	13.00	156.76	
고성군	약 60		52.65	

이상의 국채보상의연금 출연을 종합하면, 강원도에서는 1907년 3월부터 1908년 2월까지 약 10,550여 명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신화와 구화를 합하여 4,117환, 당오전 6,056냥, 은지환(銀指環) 2개를 의연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 수자는 정확하지는 않다. 당시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다른 기관이나 신문사에서 수합한 국채보상의연금 상황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고종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국권회복을 기도한 것을 구실로, 일제가 강제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케 하고,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에 전국 각처에서 의병들이 봉기하여 항일전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항일 의병전쟁으로 국채보상의연금을 서울로 발송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각 지방에서는 지방의 은행이나 취급소에 의연금

을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는데,<sup>106)</sup> 이러한 의연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전국의 국채보상운동에서 의연금이 모두 얼마나 수합되었는지도 자료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1908년 4월 30일 현재 대한매일신보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수합한 의연금 총액은 14만 3천5백42원 33전이였다.<sup>107)</sup> 그러나 한국주둔 일본헌병대가 7월 27일까지 각 기관에 수합된 의연금 액수를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의연금 총액은 18만 8천여 환에 달하였다. 일본헌병대가 각 기관에서 모집한 것을 보고한 것은 아래와 같다.<sup>108)</sup>

대한매일신보사	3만 6천여환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4만 2천 3백환
황성신문사	8만 2천여환
제국신문사	8천 420환 6전
만세보사	359환
국민신보사	56환
국채보상기성회	1만 8천 700환 22전 5리

1908년 9월까지 대한매일신보사가 접수한 의연금 총액은 6만 1천 5백 원이었다. 그러나 의연금 총액은 실제액 보다 훨씬 축소된 것 같다. 1907년 8월 22일에 경무고문 마루야마(丸山重俊)가 1907년 6월말까지 모집된 금액을 보고한 것을 보면, 5월말까지 24만

106) 『皇城新聞』, 1907년 11월 14일, 잡보.

107) 金正明 編, 1964, 『日韓外交資料集成』 6, 東京, 巖南堂書店, 50쪽.

108) 崔 竣, 1976,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 『韓國新聞史論攷』, 125~126쪽.

1,098원 91전 3리, 6월말까지는 27만 2천 689원 51전 9리로 집계되었다.<sup>109)</sup> 이 보고에 의하면 앞서 주한일본 헌병대가 1908년 7월 27일 현재로 집계한 18만 7천8백42원 78전은 축소된 것 같다.

당시 당오전 또는 구화로 출연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이 금은의 가락지비녀귀걸이 등을 출연하였는데, 이들을 신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금액이 경무고문이 보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여하튼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6월말까지 수합된 의연금 총액은 27만 2천 6백89원이었고, 이후 7월과 8월에도 포함 2만 7천8백여 원이 수합되었다.

9월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11월부터는 극히 저조하였으나, 계속 의연금이 수합된 것을 고려하면<sup>110)</sup>, 적어도 30만 원 이상이 수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채보상운동의 시초부터 5월중까지 모집된 의연금의 총액이 2백 31만 989원(?) 13전이었다고 제시한 서술도 있다.<sup>111)</sup>

#### 1907년 5월 현재 각 지역별 국채보상금 모금액

서울	627,350.80	京畿	139,160.87
忠北	37,786.25	忠南	156,693.55
全北	63,410.04	全南	84,088.80
慶北	238,530.31	慶南	200,083.14
黃海	242,861.75	江原	42,585.15

109) 朝鮮統監府 警務局 司法係 機密書類(19071908년도).

110) 李松姬, 앞의 글, 28쪽.

111) 國史編纂委員會, 1968, 『韓國獨立運動史』 一, 174~177쪽.

이節은 『朝鮮의 保護及 併合』 『大韓每日申報』 『日館記錄』 등 참조.



平南	250,831.85	平北	212,777.62
咸南	105,055.00	咸北	9,774.00
		總計	2,310,989.13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3년 3개월 만인 1910년 4월 17일 현재 국채보상금처리회가 조사한 각 처의 저금액 총계는 15만 9천 2백 53원 99전 9리였다.<sup>112)</sup> 1908년 7월에 주한 일본헌병대가 조사한 금액 보다 2만 8천 5백여 원이나 줄어들었다. 당시 일본의 『外交時報』에서도 1년여를 경과한 기간(1907년 2월~1908년 9월 상반기)에 접수된 의연금 총액이 예정한 금액의 100분의 1에도 미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113)</sup>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종래에는 의연금 총액은 2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무국 사법계(警務局司法係)가 1907년 8월 22일에 경무고문(警務顧問) 마루야마(丸山重俊)에게 보고한 기밀서류(機密書類, 顧秘 제987호)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출연한 금액이 4월까지 1,738환 41전 5리, 5월에 2,520환 10전, 6월에 6,412환 87전으로, 6월말까지 합계 10,671환 38전5리를 출연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금액이 경무국에서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친구화의 합산, 그리고 당오전 등을 환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집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112) 黃 玆, 『梅泉野錄』 권6, 隆熙4년 경술 4월조, 530쪽.

113) 松宮春一郎, 『韓國時報』, 『外交時報』 제131호, 外交時報社, 東京, 1908. 501쪽.

국채보상모집금 각 도별 집계표

도명	1907년 4월말까지	5월중	6월	합계
강원도	1,738.415	2,520.100	6,412.870	10,671.385
경성	62,355.830	379.250	109.200	62,844.280
경기도 (경성제외)	8,573.585	5,342.502	4,412.312	18,328.399
충청북도	2,502.950	1,275.675	227.530	4,006.155
충청남도	8,340.000	7,329.355	327,835	15,997.190
전라북도	5,316.106	1,024.898	1,972.935	8,313.939
전라남도	1,900.460	6,508.420	4,149.200	12,558.080
경상북도	8,973.390	14,879.641	4,006.559	27,859.590
경상남도	15,790.904	4,213.410	1,163.270	21,171.584
황해도	9,412.130	14,874.045	3,862.480	28,148.655
함경북도	408.400	569.000	207.000	1,184.400
함경남도	8,669.270	1,836.230	799.800	11,305.300
평안남도	23,712.285	1,370.900	400.000	25,483.185
평안북도	6,519.500	4,758.262	3,539.615	24,817.377
계	164,217.225	66,881.688	31,590.606	272,689.519

여하튼 경무고문에게 보고한 기밀서류(顧秘 제987호)에 의하면, 1907년 6월말까지 전국에서 272,689환 51전9리를 수합하였는데, 강원도에서는 10,671환 38전5리를 수합하였다. 전국의 의연 총액에 대비해 보면, 강원도는 3.9%를 차지한다. 당시에 전국의 인구는 9,781,671인이었는데, 강원도 인구는 그 6.4%를 차지하는 627,833인이었다.<sup>114)</sup> 당시의 인구와 의연금 출연액을 검토해보면,

114) 『京郷新聞』, 1908년 5월 22일, 「새로난 한국 호구표를 상고함」 참조.

통계상으로는 전국 평균에 비해 강원도의 국채보상운동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강원도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으며, 특히 국채보상운동 기간에 항일의병항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으므로, 강원도민들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국권회복을 위한 국채보상운동에 나름대로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횡성군의 국채보상운동

횡성군에서는 5월에 갑천면(甲川面)의 부동리(釜洞里), 구방내(舊坊內), 화전리(花田里), 전촌리(荃村里), 대관대(大官岱), 삽교리(插橋里)의 주민, 그리고 횡성군의 우사상도중(右社商都中)에 속한 상인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sup>115)</sup>

5월11일	甲川面	釜洞里	21인	新貨	5圓	20전	
		舊坊內	43인		6환	52전	5리
		花田里	50인		11환	47전	5리
		荃村里	21인		8환	15전	
		大官岱	31인		8환	20전	
		삽橋里	70인		16환	40전	
				都合 신화	55환	95전	『황성신문』
13일	右社商	都中	125인	신화	108환	35전	『황성신문』

그리고 6월에는 삼리 군영촌(三里 群英村) 주민들이 의연금을

115) 『皇城新聞』, 1907년 5월 1113일, 광고.

출연하였다.<sup>116)</sup>

6월24일 三里 群英村 48인 신화 9환 85전 『황성신문』

횡성군 내의 국채보상운동을 확산시키는데는 상인들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5월 초순에 횡성군 내의 상인들 125인이 신화 108환 35전을 의무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들은 여러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업활동을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파급시키는 몫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횡성군에서는 410인이 도합 175환을 국채보상금으로 의연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성으로는 갑천면 구방내의 강소사(姜召史), 그리고 우사상도중의 윤석환(尹石煥) 어머니 이씨, 서소사(徐召史)가 국채보상의연금을 출연하였다.

횡성군의 각 면과 동리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 甲川面 釜洞里

沈能杞 鄭贊基 鄭學基 沈性澤 陳永夏 陳永國 崔翊泳 高鍾善 高載榮  
崔佐泳 石正烈 石重萬 各 10錢  
최基東 崔繼煥 韓培雲 李儒復 鄭孝基 各 20錢 鄭蘭基 1圓  
柳承烈 柳承烈 各 50錢 金琬喜 30錢  
合 5圓 20錢

▪ 舊坊內

安鍾國 安承哲 各 50錢 安時衡 李啓淙 池蓮在 各 30錢  
姜文永 15錢 姜在文 7錢 5里  
趙應烈 姜殷洙 崔聖教 崔允中 李彬元 尹學淳 安相潤 各 20錢

116) 『皇城新聞』, 1907년 6월 24일, 광고.

李義範 金鳳濟 許 杭 陳德成 元敬義 元厚植 金龍濟 梁柱喜 鄧哲和  
 李康穆 許萬鎰 姜周永 姜大洙 姜漢洙 金明道 尹世模 金範用 姜召史  
 姜錫永 全鳳夏 全明三 安鍾九 金 鏡 郭錫鎮 全世昊 최成錄 申致均  
 申敬均 최永元 各 10錢 合 6圓 52錢 5里

▪ 花田里

韓尙愚 俞鎮雄 元之性 리應善 최在建 各 50錢  
 申錫龍 鄧煥容 金和景 各 30錢  
 정鍾行 리鉉益 俞致珏 石琦永 최學洙 許 섭 各 20錢  
 金載元 7錢 5里 리教行 최在遠 各 1환  
 元明義 鄧煥哲 元道義 鄧煥斗 정煥泰 崔漢東 金得遜 尹秉烈 尹積童  
 리容吉 權奎植 尹重鉉 崔允中 박仁浩 崔鍾斗 沈宜鍾 金在洙 리容喆  
 박義浩 元之興 鄧煥德 元教義 各 10錢

合 8圓 87錢 5里

최鍾玉 리應浩 金商勳 李甫鉉 李在元 各 30錢  
 최在仁 金禮培 陳鍾喆 리장善 박慶熙 各 20錢  
 崔友凡 10錢 合 2환 60錢

▪ 荃村里

曹章煥 金商學 최基河 金樂淳 金商儀 羅基顯 韓春鐸 曹鶴煥 各 30錢  
 韓弼鐸 리鳳九 金炳奎 各 1圓 元有成 리柄烈 韓培元 各 50錢  
 金炳鎬 曹鳳煥 리己奉 權基鶴 박基浩 各 20錢 韓明洙 15錢  
 裴士一 10錢 合 8圓 15錢

▪ 大官垈

洪在駿 리東極 嚴柱成 郭鍾鉉 韓殷明 郭泰鉉 최屹 各 50錢  
 金弘奎 40錢 리象睦 南宮泳 金希天 各 30錢  
 郭仁默 金健弼 曹錫煥 郭孝玄 郭孝奉 金省五 洪福洙 曹秉日 鄧文基  
 郭聖默 安在成 郭仁煥 南宮潤 郭禹鉉 各 20錢  
 元鍾時 郭孝仁 申泰喜 金教雲 金振五 郭孝燮 各 10錢  
 合 8환 20錢

▪ 삼橋里

金英根 咸致謙 金泰連 各 1환      鄭斗永 80錢      金秉連 60錢  
 리益善 崔鳳煥 金鍾應 黃致三 安宗國 白藥卿 金慶煥 各 50錢  
 劉學瑞 40錢      韓奎錫 崔正元 金正玉 安永琦 各 30錢  
 韓範錫 崔在成 盧啓祥 金仁植 金永涉 韓仁錫 金鍾麟 金萬成 黃成瑞  
 安鍾鳴 金鍾碩 金智培 安孝植 金在善 金致龜 金教駿 金平中 各 20錢  
 韓得順 15錢  
 劉永守 정尙鎔 全慶淑 高建午 徐鳳基 金汝璣 김用祥 徐鳳麟 咸德甫  
 정明和 洪萬洙 康基錄 洪善汝 리炳錫 崔善慶 金守慶 黃文實 金三涉  
 金顯중 安永周 崔在天 崔千玉 黃仁瑞 金載燁 張云瑞 金永守 金聲璘  
 金永희 車善文 全學瑞 金峻중 金平心 리洛奎 各 10錢  
 成聯福 5錢      合 16환 40錢  
 都合 新貨 55圓 95錢

▪ 橫城郡 右社商都中

趙俊泰 韓鳳九 柳敬來 各 5환      李敬完 4환  
 韓春三 朴乃文 洪聖順 各 3환      金公民 柳時東 韓春明 各 2환 50錢  
 朴基連 金相裕 卓英益 高永國 方漢昌 金敬憲 申玉鉉 韓仲文 洪德汝  
 韓君三 方昌榮 박鳳九 박允化 各 2圓      權重九 1圓 50錢  
 吳敬고 黃守一 吳昌善 趙啓興 吳才益 尹夏敬 吳才弘 趙乃薰 南文才  
 柳斗伯 咸致瑞 方漢禧 方朝榮 尹石煥 母李氏 李正益 柳化瑞 朴敬化  
 嚴福汝 衞君玉 金興燁 各 1圓  
 李중翊 安公直 韓善弼 金公善 朴希道 劉化實 李俊明 金正一 安益壽  
 孔周甫 盧正五 皮子三 韓敬守 孫致云 安公弼 柳喜東 鄭顯驥 尹聖有  
 辛希秀 金成三 리圭培 리遇應 各 50錢  
 車國甫 高士連 金聖才 리化一 李源三 洪順瑞 金敬佐 韓道心 林春瑞  
 朴聖嫻 金聖源 權炳龍 朱源瑞 各 30錢  
 李德興 金夫成 辛源甫 趙敬文 朱聖化 徐公三 咸士凡 辛致明 李源고  
 朴永根 梁景植 徐召史 姜東秀 李汝奉 李永西 金源先 鄭道敬 曹成培  
 金君七 金寬民 최學西 金成伯 全聖寬 張仁守 金善培 金春西 權彦守  
 金錫九 최昌善 各 20錢

河德千 김公瞻 李炳一 朴自先 김德三 朴才源 각 10錢  
최學守 朴守明 각 50錢      金奉吉 李善德 각 30錢  
리丁學 池中龍 咸福仁 金萬福 각 20錢      皮七夕 15錢  
嚴千五 50錢      車景文 1圓      合 新貨 108圓 35錢

▪ 橫城面 三里群英村

俞致冕 安聖心 安鍾道 金聖五 李聖澤 각 50錢  
리興善 李致甫 李云善 柳其順 김成公 金成云 李命集 金善一 金東栗  
金德甫 安善一 李春西 金致交 安汝實 金大賢 李奎振 吳化善 安千萬  
각 20錢  
崔源基 許德興 尹君明 安永善 金元先 리順道 金春先 金大景 李仕交  
安順一 리士年 崔鳳瑞 崔養善 金致三 金聖五 金星七 黃永守 金仁守  
金春日 金永五 金成伯 김養善 박致伯 咸敬五 吳汝老 각 15錢  
合 新貨 9圓 85錢

## 제4부

# 3·1 독립운동

- I. 식민지 지배체제 / 183
- II. 1910년대 민족운동 / 211
- III. 31독립운동 / 314
- IV. 강원도 31독립운동 / 340
- V. 황성지역의 31독립운동 / 362

최 창 희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제4부 3.1 독립운동

### I. 식민지 지배체제

#### 1. 무단통치

##### 1) 조선총독부

1905년 11월에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를 무력적으로 강압하여 을사5조약(乙巳五條約)을 체결케 하고, 이어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을 식민통치하기 시작되었다. 한국인들은 다양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군대와 헌병을 증강하여 한국인들의 항일투쟁을 짓밟았다.<sup>1)</sup>

1910년 8월 29일에 일제는 이완용 등의 친일 매국 내각을 위협,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併合)'하여,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멸망하였다.

일제는 통감부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로 바꾸고 한국인에 대하여 본격적이고 완전한 식민 지배를 시작하였다. 통감부의 설치

1) 강만길, 『고쳐쓴 -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19~25쪽.

이후 한국에 대한 통치체제가 방대해지고, 군대헌병경찰 그리고 헌병보조원(憲兵補助員) 등 치안기구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1910년 8월에 주권 탈취와 동시에 가혹한 무단통치(武斷統治) 체제를 확립하였다. 일제는 한국민족의 격양된 주권회복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후 10년간 무단통치를 계속하였다.

일제는 한국을 일본과 차별하여 통치하였다. 일본 ‘천황(天皇)’에 직속된 조선총독은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권입법권 군대사용권(軍隊使用權) 등 일체의 정무를 통할(統轄) 행사하는 식민지 지배의 절대 권력자였다.

조선총독은 육군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초대 총독에는 ‘병합’ 당시 통감 테라우찌(寺內正毅)가 그대로 눌러앉았다. 이후 35년 동안에 10대에 걸쳐 8명의 총독이 교체되었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헌법의 적용범위 밖에 두어 조선인은 기본적인 인권(人權)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총독은 군부(軍部)는 물론 정계에서도 그 비중이 큰 위치였다. 일본 수상을 거쳐 조선총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총독을 거쳐 수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업적 중심의 기만적이고 가혹한 식민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심지어는 현직 총독이 사기죄로 파면된 예도 있었다.<sup>2)</sup>

총독부의 행정기구는 ‘병합’ 당초에는 대한제국의 중앙정부관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의 개설과 함께 기구가 확대 정비되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1910년 10월의 조직이 그 근간을 이루었다.

총독부의 조직은 중앙행정기구는 1관방(官房) 5부(部) 9국(局)이

2) 柳永益, 「朝鮮總督府 初期의 構造와 機能」, 『31運動50週年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崔昌熙, 「官吏任用制度」, 『서울六百年史』 제4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1, 201~256쪽.

중심이 되었는데, 1912년과 1913년에 부분적으로 개편되고, 1919년 31운동 이후 대폭 개편되었다. 총독부에는 내무부(內務部)탁지부(度支部)농상공부(農商工部)사법부(司法部) 등 4부를 두었으나, 1919년 8월에 내무(內務)재무(財務)식산(殖産)법무(法務)의 4국으로 격하시켰다. 전체 식민지시기를 통해 국장에는 대부분 일본인이 임명되었고, 예외로 한두 사람의 친일파 조선인이 임명되었을 뿐이다.

지방의 통치조직은 1910년 9월 조선총독부지방관제에서 시작하여, 1913년 10월 「부제(府制)」, 1915년 5월의 「도제(道制)」, 1917년 6월의 「면제(面制)」의 실시로 개편되었다. 처음에는 전국을 13도(道) 12부(府) 317군(郡)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1914년에 실시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따라, 전국을 13도 12부 220군 2,522면으로 개편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각 도의 관찰사를 도장관(道長官)이라 개칭하고, 도의 행정사무를 관장케 하였다. 도장관 즉 뒷날의 도지사(道知事)에는 친일 조선인이 상당수 등용되었다. 도장관의 보좌역으로서 민정 파악을 담당했던 참여관(參與官)은 모두 친일조선인이 임명되었다. 통감부시기에는 각 도의 한국인 관찰사 밑에 일본인 참여관을 두어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했으나, '병합' 후에는 도장관을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고, 그 밑에 조선인 참여관을 두어 실권 없는 자리로나마 친일파를 우대하였다.

부제 실시로 지방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부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 설치되었다. 부는 최초의 공법인이고 자치 입법적(自治立法的)인 조례 제정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집행기관으로 부윤(府尹)을 두고, 그 자문기관으로서 관선 협의회원으로 조직되는 협의회(協議會)를 두었다.

조선총독부 본부의 관리는 상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일인으로 채웠고, 지방관청도 도와 부의 간부직원은 모두 일인이었다. 군수에는 조선인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군 행정의 실권은 일본인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다. 면장(面長)이나 면직원은 대부분 조선 사람이었다. 같은 관리라 해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대우의 차이가 컸다.

사법기관에는 재판소와 감옥 등이 있었다. 사법기관은 통감부 때부터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한국인을 투옥시키고, 외국인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없앨 목적으로 그 기구가 짜여졌다. 1910년에 고등법원(高等法院),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구재판소(區裁判所)의 4급제와 3심제였는데, 1912년 4월 1일 행정정리의 일환으로 3급제(高等法院, 覆審法院, 地方法院) 3심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총독에 직속되어 중앙행정부서의 하나로 됨에 따라, 사법기관의 구성과 법관 인사 등이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총독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통치의 합리화와 조선인의 정치참여를 선전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하였다. 대한제국의 황족(皇族)이나 친일고관을 ‘우대’하고 또 식민지통치에 조선인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였다. 중추원에서는 1급 친일파 15명을 고문(顧問)으로 임명하고, 2급 친일파 20명을 찬의(贊議), 그 밖의 35명을 부찬의(副贊議)에 임명했다. 중추원고문에는 이완용(李完用)송병준(宋秉畷) 등 ‘병합’의 장본인, 일본의 주구(走狗)들이 임명되었으나, 그것도 허울뿐이었다.

중추원 의사규칙에 의하면, 의장인 정무총감(政務總監)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 없고, 또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의장이 의사종결을 선포한 뒤에는 아

무도 의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며, 그것마저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귀족 칭호와 은사금(恩賜金)을 받고 ‘병합’을 성사시킨 후 식민통치의 들러리 노릇을 하면서 일신의 영화를 누린 중추원의 고문과 참의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민족반역자들이었다.

## 2) 헌병경찰제도

일제는 1907년 10월 7일에 「한국주차헌병(韓國駐劄憲兵)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한국 주둔 헌병이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업무를 장악케 하여, 이후 악명 높은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본 헌병이 한국에 있어서 고등경찰(기밀경찰)과 보통경찰(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직무 관장)을 담당한 것은 러일전쟁 때부터였다. 그 후 1907년에 고종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의 구국항쟁이 각지에서 치열해지자, 일제는 1907년 10월에 한일경찰을 일원화시킨 다음 한국주차 헌병을 조선통감에게 예속시켜 전국의 경찰직무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헌병대를 확장하여 한국주차헌병대로 개편하고, 악명 높은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郎) 육군소장을 초대 헌병대장으로 임명하고, 헌병을 일약 5배로 증가시켜 1907년 말에는 2,369명에 달하였다. 또한 한국인 무뢰배 4,065명을 헌병보조원으로 임용하여 의병 토벌의 주구로 삼고, 정보 탐색에 주력케 하는 등 반민족적 임무를 부여하였다. 주한 일본 헌병은 군사경찰행정경찰 및 사법경찰까지도 장악하였다.

1909년 6월 24일에 경찰권 위임각서를 강요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탈취하고, 1910년 6월에 29일에 「통감부경찰관서관제」를 공포

하여 헌병조직을 경찰조직과 통합함으로써 세계에 유례가 없는 헌병경찰제도를 확립시켰다.<sup>3)</sup>

1910년 ‘병합’ 후 9월 10일에 「조선헌병조례(朝鮮憲兵條例)」를 발표하여 헌병대장 아카시를 한국 주차 헌병사령관으로 승격시켰다. 10월 1일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를 공포하여, 일본의 조선 주차헌병사령관(朝鮮駐劄憲兵司令官)이 경성에 설치된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의 경무총감을 겸임케 하고, 각 도의 헌병대장(憲兵隊長)이 도 경무부장(警務部長)을 겸임케 하여 헌병경찰을 일원화시켰다. 조선 주차 헌병은 군사경찰 업무는 물론 일반 민간인에 대한 경찰업무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병합’ 전에 주로 도시에 배치되었던 헌병은 ‘병합’ 후에는 분산 배치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지방에 헌병대,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헌병파출소(憲兵派出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경찰기구로 각도 경무부 밑에 경찰서, 순사주재소(巡查駐在所), 순사파출소(巡查派出所)를 설치하여 전국에 헌병과 순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것은 ‘병합’에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한인들의 항일운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헌병과 경찰의 두 조직체계가 연립하고 헌병이 최고 치안책임자로서 두 조직의 장(長)을 겸하여 일원적인 명령계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의 특성을 살려, 경찰은 개항지 및 철도 연선을 비롯하여 주로 질서를 요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경찰을 주관하고, 헌병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방,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에 주로 배치되었다.

헌병이나 경찰의 숫자도 ‘병합’ 이후 급격히 증원되었다. 헌병의

3) 金龍德, 「헌병경찰제도의 성립」, 『金載元 紀念論叢』, 1969.

金雲泰,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39~40쪽.

경우 1910년에는 전국에 헌병대 본부에서 헌병분견소까지 헌병기관은 653개 처에 인원이 2,019명이었으나, 1911년에는 935개 처에 7,749명으로, 1년 동안에 인원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찰의 경우에도 1910년에는 경무총감부에서 순사파출소까지 경찰관서가 481개소에 인원이 5,881명이었으나, 1911년에는 678개소에 6,222명으로 증가되었다.

헌병과 경찰의 인원 비율은 1910년에는 경찰 74.4%, 헌병 25.6%이었으나, 1년 뒤인 1911년에는 헌병 55.5%, 경찰 44.5%의 비율로 바뀌었다. 불과 1년 만에 헌병 병력이 급증하고 헌병경찰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산간벽지에까지 설치된 헌병분견소, 순사파출소에는 많으면 10명 적어도 5~6명씩 헌병경찰이 배치되어 한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헌병경찰은 항일 의병 ‘토벌’은 물론, 첩보의 수집, 범죄의 즉결 처분과 민사쟁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세관업무, 산림감시, 민적 업무, 우편호위, 검역방역 업무, 강우량 측정, 밀수입 등 경제단속, 노동자 단속, 일본어 보급, 농사개량업무 등 통치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간접으로 관장하였다. 특히 고등경찰은 국내의 사찰과 정보업무 이외에 만주노령중국미주 등지까지 그 손길을 뻗쳐 망명 애국인사를 미행, 잠복 추격하여 감시 탄압하고, 심지어는 밀정을 시켜 암살까지 자행하였다.

헌병과 경찰에는 상당수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0년의 경우 헌병 인원 2,019명 가운데 조선인이 1,012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헌병보조원으로서 각 헌병기관에 배치되어 일본 헌병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같은 해의 경찰 인원 5,881명중에 조선인 3,493명이 포함되었는데, 경무관(警務官)경시(警視)경부(警部) 등 간부급이 약 120명, 통역(通譯)이 58명, 순사가 181명, 순사보가

3,131명이었다. 전국적인 병합반대투쟁을 탄압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헌병경찰제도의 하급요원 절반이 한인이었던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헌병경찰조직의 배치가 완료된 1914년 현재 전국에는 경찰기관이 732개소(경무부 13, 경찰서 101, 순사주재소 504, 순사파출소 108 등)에 경찰병력이 5,756명(경무부장 13, 경무관 3, 경시 36, 경부 269, 순사 2,368, 순사보 3,067명 등)이며, 헌병기관이 997개소(헌병대 13, 헌병분대 78, 헌병분견소 99, 헌병파출소 316, 헌병출장소 490 등)에 헌병 병력이 11,159명(장교 111, 준사관하사 773, 상등병 2,525, 보조원 4,749, 정탐 3,000명 등)이었다. 1914년 헌병경찰병력 중 한인은 경시(警視) 1인, 경부(警部) 100인, 순사 100인이 있을 뿐이고, 순사보와 헌병보조원은 전원 한인이며 정탐은 한인일본인이 섞여 있었다. 그 후 헌병경찰기관과 병력은 매년 증가하였다.

헌병경찰에게는 만능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결심판권(既決審判權)이 부여되었다. 1910년 12월에는 경찰서장과 헌병분대장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를 즉결할 수 있게 「범죄즉결례(犯罪即決例)」가 제정되었다. 무고한 한인들에게 벌금태형(笞刑)구류(拘留) 등의 억압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던 이 즉결례에 의하여 처벌된 한인은, 1911년에 18,100여 건, 1913년에 21,400여 건, 1918년에는 82,121건으로 증가되었다.

일제는 헌병경찰만으로도 부족하여 일반 문관관리와 각급 학교의 교원까지도 금테를 두른 제복과 제모에 칼을 차게 하여 주민과 학생을 위압하였다.

정규 군사력도 증강 배치하였다. 일제의 한국 침략과 식민통치에 지주의 역할을 한 것은 한국주차일본군이였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화에 맞서 한민족이 강인하고 지속적으로 대항하자, 일제는 군대 병력을 배경으로 하는 무단적 통치 방법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일본 육군은 러일전쟁 때부터 한국 내에서 사실상 전시군정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주차권을 배경으로 이른바 ‘한일의정서’, ‘을사5조약’을 강요하고, 통감부 설치 후 1906년 8월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에 의해 경성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육군 대장(도는 중장)을 사령관에 임명하고 주한 여러 부대를 통솔케 하였다. 병력은 처음에는 일본 내의 사단이 1개씩 2년 교대제로 한국에 주차하였다.

일제는 ‘일한병합조약’을 강요하여 병합을 강행하고 무단총독제를 수립하였다. 의병 ‘토벌’을 위하여 산간지방에 배치되었던 수비대를 집결시켜 재배치하는 한편 1915년 12월 24일 이래 조선에 2개의 정규사단 증설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19사단과 제20사단이 용산(龍山)과 나남(羅南)에 본부를 두고, 전국의 중요도시에 연대 병력 혹은 대대병력을 배치하였다. 이들 상주군이 1921년까지 한국의 방위와 치안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총독은 육군대장으로서 군사통솔권을 갖고 있었으며, 각 도 장관은 비상 급변의 때에는 지방군사령관에게 출병요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육군의 주력은 경성 용산평양나남에 두고, 지방 각 군청 소재지나 각 정류장 등에 수비대를 분산 배치하였다. 해군 기지로는 진해만(鎭海灣)과 영흥만(永興灣)에 방비대(防備隊)를 두었다가 1916년 4월에 진해에 군항부(軍港部)를 두고 이에 구축함을 부속시켰다.<sup>4)</sup>

---

4) 金雲泰, 앞의 글, 41~51쪽.

### 3) 탄압정책의 강행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대항한 것은 군대 해산 후 전력이 강화된 의병부대들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의병항쟁의 진압을 서둘렀다. 그들은 1909년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에 정규군 보병 2개 연대(聯隊)와 해군함정까지 동원,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을 자행, 삼남지방, 특히 지리산(智異山)과 전라도 해안지대에서 활약한 의병부대에 대해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의병활동을 근절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의병진압을 빙자하여 민간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었다.<sup>5)</sup>

일제는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탄압을 자행했다. 1907년 7월에 「신문지법(新聞紙法)」을, 1908년 4월 「신문지규칙」을 시행하여 언론기관을 통제하였다. 1910년 ‘병합’과 함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을 폐간시키고, 총독부 어용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와 그 한글판인 『매일신보(每日申報)』만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병합’을 전후해서 서적에 대한 대대적인 폐간발매 금지압수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대한역사(初等大韓歷史)』와 같은 교과서를 비롯해서 『동국역사(東國歷史)』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와 같은 역사서와 『이순신전(李舜臣傳)』 『프랑스혁명사』 등이 판매 금지되었다.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등 애국계몽운동 잡지들은 모두 폐간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의 모체가 된 대한협회(大韓協會)서북학회(西北學會) 등 각종 단체도 탄압을 받아 끝내 해산되었다. 1907년 7월 이

5) 강만길, 앞의 책, 23~24쪽.

미 「보안법(保安法)」을 공포하여 결사(結社)를 해산할 수 있게 하였고, 1910년 8월 ‘병합’과 함께 「집회(集會) 취체(取締)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정치적 집회가 금지되면서, 9월부터 애국계몽단체 전체가 해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또 대한제국 시기부터 양성했던 근대적 민족교육에 대한 열기를 철저히 탄압했다. 통감부시기에 이미 각종 「학교령」을 만들어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통제하고, 관립학교를 증가시키는 한편,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여 일본어 교육을 강화했다. 1908년 8월에 「사립학교령」과 「서당(書堂)에 관한 훈령」 등을 공포하여 서당 및 사립학교의 설립과 교과서 채택을 감독하여, 한인의 민족교육 활동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사립학교령은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까지도 모두 6개월 이내에 다시 인가를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6월말까지 인가를 출원한 1,995개 학교 가운데 겨우 820개만을 설립을 인가하였다. 그것도 778개 학교는 종교계 학교이고, 민족계 학교는 42개 교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령은 학부대신의 명령을 위배하거나 유해(有害)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08년에 약 5,000개에 달하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령이 시행된 후인 1910년 8월에 1,900여 개로 줄어들었다.

조선총독부는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일민족운동이 지속되자, 1911년에 이른바 ‘안악사건(安岳事件)’과 ‘테라우찌총독암살미수사건(寺內總督暗殺未遂事件)’ 등을 조작하여 애국계몽운동계 인사들을 대거 검거했다. ‘안악사건’은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동생 안명근(安明根)이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한 것을 계기로 황해도지방의 유력 인사 160여 명을 검거 탄압한 것이었다. ‘총독암살 미수사건’은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의 실체를 파악, 이를 탄압하고

당시 배일의식이 강했던 서북지방의 기독교의 교세확장과 미국 선교사들을 축출하려고 날조한 사건이었다. 1911년 7월 26일에 일제는 평안도 일대의 반일인사들이 1910년 12월 테라우찌총독이 서순(西巡) 때 그를 암살하려는 기도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독교인 약 6백여 명을 검거하여 제1심에서 105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2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허구성 내지 법률상의 부당성이 드러나,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윤치호(尹致昊) 외 5인을 제외한 99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sup>6)</sup>

일제는 ‘병합’을 전후하여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탄압했으나, 한민족의 항일운동의 줄기는 단절되지 않아 31운동과 만주에서의 무장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다.

## 2. 식민지 수탈경제체제

### 1) 토지조사사업 추진

한국을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는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을 바꾸어갔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반출하고, 그들의 상품과 자본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이른바 식민지 수탈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농상공부를 비롯하여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세관전매국영림창권업모범장공업전습소평양광업소 등을 설치하여 경제적 약탈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그들의 식량기자원료생산자상품판매

6)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 一志社, 1990, 18~60쪽.

시장으로 만들어 갔다.

1910년대에는 그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서, 토지와 지세수탈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강행하고, 한국의 기업과 자본주의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회사령(會社令)을 제정 시행하였다.<sup>7)</sup> 그리고 무단적 지배질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통운수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고, 무역금융어업임업 등의 산업을 식민지 수탈에 용이하도록 개편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체계의 정비를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최대의 지주가 되었고 안정적으로 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되어 자금이 풍부한 일본인의 토지 매수가 급증하고, 영세한 한국 농민의 토지 상실이 가속화되어 중세적인 지주-소작관계가 강화되는 등 중농층의 몰락이 심해졌다.

토지조사사업은 이미 대한제국 정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양지아문(量地衙門, 1898), 지계아문(地契衙門, 1901), 그리고 탁지부양지국(量地局) 등으로 그 담당기관이 옮겨지며 토지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일제의 방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을 사실상 반식민지(半植民地)로서 지배하면서부터 일제는 토지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잇달아 제정 공포함으로써 한국에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였다. 1906년 10월에 「토지가옥증명규칙」을 발표하여 일부 지역의

7) 高承濟, 「植民地經濟政策과 民族經濟」, 『韓國現代史』, 國史編纂委員會, 1982, 113~118쪽.

토지를 측량하고,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보해 주었다.

일제는 1907년 7월에 ‘임시제실유 및 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을 만들고, 같은 해 12월에 「제실재산정리국 관제(帝室財産整理局官制)」에 따라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역둔토(驛屯土)와 궁장토(宮庄土) 등의 관리를 통감부에 이관하였고, 한국 강점 후 이들 토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일제는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관제를 발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조사사업의 집행을 담당케 하였다. ‘병합’ 후 1910년 9월에 조선총독부토지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토지조사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1912년 8월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 및 그 시행세칙을 공포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통감부의 토지 조사정리 사업은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나,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은 자원 탐색과 식민 농정의 기반 구축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12년 5월부터 1918년 10월까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10년 3월에 일제의 강요로 대한제국이 토지조사국관제를 발표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실질적인 기간은 8년 10개월에 이르고, 2,456만 원이라는 거액의 경비가 투입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추진 목적을 지세 부담의 공평, 지적의 확정과 소유권 보호, 토지 개량과 이용의 자유 보장, 그리고 생산력의 증진 등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질적인 목표는 일본인의 토지소유와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을 증대시키기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근간이 되었던 토지조사령은 토지소유권 재정(裁定) 원칙을, 첫째 토지소유권은 조선총독 또는 그 권한을 위촉

받은 자가 재결 확정하며, 둘째 소유권의 주장은 신고주의(申告主義)를 원칙으로 하며, 셋째 불복자(不服者)에 대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일제는 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 조사, 지형(地形)지모(地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메이지(明治) 초년에 실시한 지조개정(地租改正)과 그 후 강탈한 유구국(琉球國)과 대만(臺灣)에서의 토지조사 경험을 기초로 해서, 조선에서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지세(地稅) 부과와 정리'로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강권적으로 창출하려 하였다.

소유권조사는 토지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배타적인 자본주의적 사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전통적 사유권은 개항 이전의 조선사회에서도 성립되어 있었다. 개항 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적' 사유권을 확립하여 지주중심의 자본주의체제를 확립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은 그것을 '근대' 법적으로 완결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사유권은 정밀히 조사되지 않았고, 경작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소유권(部分所有權)으로서의 도지권(賭地權) 등은 아무 보상 없이 토지소유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막대한 토지삼림지(森林地)를 국유지로 편입시켜 총독부의 재원 증대를 꾀하였고, 또 국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를 비롯한 일인 농업회사에 불하하여 토지수탈을 합법, 가속화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구지주층(舊地主層)을 새로운 지주로 인정 포섭하여 그들을 부일협력자로 만들었다.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에 침입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조사사업 기간에 일본인 토지경영은 경영인수는 약 10배, 투자액은 5배 이상, 면적은 약 4배나

증가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18년 현재 조선총독부 소유지와 동양척식회사 소유지는 전체 경작면적의 4.2%이었고, 일본인 개인소유지는 전체의 7.5%이었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지주는 조선 전체 경작지의 10% 이상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이래 발달해온 농민적 토지소유는 크게 후퇴하고, 많은 농민은 토지를 상실케 되고, 일본인의 토지소유가 그만큼 급증하였던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은 형식에 치중하여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농민소유의 토지가 부당하게 국유지로 편입되어, 많은 경작농민들은 억울한 처지를 당해야만 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조선총독부는 전체 농경지의 약 10%나 되는 35만 7천여 정보의 경지(耕地), 전체 임야의 약 60%에 달하는 926만 정보의 임야를 국유지라는 명목으로 그 소유로 편입하였다. 이것은 전국토의 40%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많은 토지소유권 분쟁을 일으켰다. 전체의 토지조사 총 1,910만 7,520필 가운데 분쟁지로 조사된 것은 그것의 약 0.5%에 해당되는 33,937건 99,445필이나 되었다. 분쟁지 중에서 99,138필(99.7%)이 소유권으로, 307필(0.3%)이 경계(境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 전 분쟁의 90% 이상이 소유권 문제였던 것이다.

소유권분쟁은 국유지와 민유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은 64,570필지(65%)인데, 거의가 농민에게 불리하게 귀결되었다. 농민이 대대로 개간 경작한 농토를 총독부가 농민의 무자무력을 이용하여 국유지(國有地)에 편입한 경우가 많았다. 궁방(宮房)에 투탁(投托) 혹은 혼입(混入)되었던 농민의 땅이나, 개간지(開墾地)도장(導掌)의 소유지를 증거미비의 구실로 국유화하였다. 또 역둔토(驛屯土)목장토(牧場土)는 역졸(驛



卒)이나 군졸(軍卒)에 의하여 개간된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개간 경작하던 토지가 편입된 것이었는데, 토지조사에서는 무조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삼림(森林)원야(原野)화전(火田)제언(堤堰) 등에서 농민이 대대로 개간 경작하던 토지도 농민에게는 아무런 문증(文證)이 없었으므로 모두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민유지 소유권 분쟁은 34,875필지(35%)이었는데, 그 분쟁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였다. 첫째는 토지의 권리증명이 명백치 못하였고, 혹은 군수의 증명을 근거로 소유권을 인정하자, 사기(詐欺)불법취득(不法取得)하는 매매저당(賣買抵當) 등이 행해지고, 지방의 실력자들이 농민토지를 불법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는 동중(洞中)문중(門中)의 공유지(公有地) 등이 그 대표자나 유력자에 의하여 사유지로 신고되어, 경작농민들이 모르는 틈에 토지권리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셋째는 제실재산(帝室財産)으로 처리된 토지에서도 경작민들이 억울하게 소유권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황족에게 부여된 제실재산은 1907년 7월 이후 국유재산과 분리 정리되었으나, 농민의 개간경작지(開墾耕作地)가 포함되어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토지조사사업 때 궁내부(宮內府) 소관의 토지 중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많은 토지가 경작농에서 제실 소유로 옮겨졌다.

제실 소유의 토지 중 궁장토는 전답노전(蘆田) 약 25,800정보, 산림평야 19,400정보, 주택 190호, 택지 약 50정보가 국유지에 편입되어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궁장토의 국유지 편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3,132건 14,232필지로서, 분쟁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종래에 공전역토둔토목장토 등은 농민이 대대로 세습 경작하여 사유지나 마찬가지로 농민의 권리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일

제가 역둔토라는 이름으로 국유지에 편입시켜 경작농민은 토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것은 1912년의 경지 총면적의 약 20분의 1에 해당하는 133,633정보에 이르는 방대한 토지였고, 이를 경작하는 소작인은 331,748명이나 되었다.

제실재산의 토지는 일부는 구왕실(舊王室) 재산으로 남았으나, 대부분은 역둔토삼림원야와 함께 국유화되고, 다시 불하(拂下) 형식으로 일인의 회사농장에 넘어갔다. 특히 1908년 12월에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19년 현재 소유한 토지는 78,520정보, 1926년에는 93,390정보에 이르렀다. 그 외의 일인 대농장이 소유하게 된 토지는 막대한 면적에 달하였다.

한국의 경작농민은 헌병경찰 밑에서 추진된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었다. 설령 항거한다 하더라도, 형식을 중요시하는 조사에서는 관습(慣習) 경작민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민들은 경작지의 국유지 편입, 소작료 징수 및 토지권리 관계 등에 대하여 총독부에 항의 청원하였으나, 국유지분쟁은 헌병경찰과 관의 단속과 탄압으로 미연에 저지되었고, 소송을 한다 해도 농민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3만 3천여 건의 분쟁 중에서 일제의 관권에 의해 화해조정된 것은 약 1만 2천 건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농촌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하여 종래의 봉건적 지배층이 토지 소유자로 재등장하였다. 부재지주(不在地主)로 전신한 양반들은 전 농가호수의 3.4%에 불과하였으나, 전 농지의 50.3%를 소유하고 구태의연하게 봉건적 소작경영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배타적 토지소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등기제도가 실시됨으로써 토지 매매가 급증했고, 그 결

과 지주 특히 일본인 지주에 의한 토지점병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1917년에는 토지 매매건수가 약 17만 4천 건에 매매면적이 34만 3천여 필지였으나, 1920년에는 27만 1,800여 건에 55만 7천여 필지로 각각 1.6배 정도 증가하였다. 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의 상품화가 급진전되고, 그것은 농민적 토지소유를 후퇴시키고 식민지 지주제를 재편성, 강화시켰던 것이다.

조상 대대로 토지를 세습 경작한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단순한 계약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토지조사사업은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을 몰락시킨 반면, 소작농과 농업노동자 및 이농민을 증가시켰다. 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 현재 자작농은 전체 농가호수의 19.7%, 약간의 자기소유 농지와 소작지를 경작하는 자소작농은 39.4%, 전혀 자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 37.8%이었으며, 자작 겸 지주가 2.5%, 완전 지주는 0.6%이었다. 결국 영세농은 전농가의 76.2%에 달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 현재 논 65%, 밭의 43.6%가 소작지였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시키는 일련의 작업으로 소작인은 신분적 자유를 부여받았으나,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다시 지주에게 예속되고 말았다. 세습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은 약화되고, 이제는 지주가 임의로 소작인을 갈아치울 수 있게 되었다. 소작인은 현물소작료(現物小作料) 이외에 소작관계의 지속을 위해 선물을 바치고, 때로는 지주의 요청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야만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후 농가 1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논 0.575정보, 밭 1.095정보, 합계 1.670정보에 불과하였다. 당시 답 1단보(段步)의 평균 생산량은 0.932석(石)이었는데, 당시의 대가족제도에서는 가족 부양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농촌경제는 더욱 궁핍해지고, 자작농은 소작농고농(雇農) 또는 화전민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토지조사사업은 또한 농가구조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를 만들어냈다. 서북지방에서는 대체로 자작농이 우세하였고, 남한에서는 소작농이 지배적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을 급증시켜, 식민지 지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일제는 지가를 사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삼고 빠짐없이 지세를 거둘 수 있는 장부체계를 만들었다. 조선총독부의 지가 산출은 한국의 서북부보다는 남부가 비싸게, 그리고 한인의 소유지보다는 일본인의 소유지가 싸게 사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18년에는 「지세령(地稅令)」이 발표되어 지가의 2,000분의 1이 지세로 확정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과세지는 52% 증가하고, 지세징수액은 1911년에 6,245,000여 원이, 1920년에는 11,570,000여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증가된 만큼 농민의 세금부담은 무거워졌다. 농민들에게는 증액된 지세 이외에도 호별세(戶別稅)가옥세(家屋稅) 등의 새로운 세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더불어 1911년 4월에 「토지수용령」(土地收用令)을 발표하여 관공청사 설립, 도로철도시설, 국방군사 및 제철광산업 등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토지를 무제한 수용하였다.<sup>8)</sup>

일제초기 식민지농업정책의 중추를 이루는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근대적 소유제도를 확립시킨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제 경영관계에서는 전근대적 양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오히려 토지에 대한 봉건적 지대수취(地代收取)가 강화되어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하였다.

8) 鄭在貞,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한국사』 47, 2001. 국사편찬위원회, 52~66쪽.

## 2) 한국농민의 수난

일제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식량과, 본국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최대한 많이 생산, 반출하기 위하여 한국의 농업기반을 재편하였다. 그들은 한국농민의 농사와 가공, 그리고 거래에 강압적으로 개입하여 식량과 원료를 값싸고 신속하게 수집하여갔다.

일제는 면화양잠 등 일본 자본주의 공업의 원료를 싼값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 1906년에 수원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개설하고 목포에 그 출장소를 두고, 쌀·면화양잠과실축우의 증산을 독려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면방직 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면화를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의 남부지방에서 육지면 재배를 강요하고 이를 값싸게 수집하기 위하여 온갖 폭력을 자행하였다. 헌병이나 순사가 총과 칼을 휴대하고 다니며, 농가에서 면화를 재배하지 않고 심은 콩과 보리를 밟아 부러뜨리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에는 품종 선정, 종자 개량, 비료 증시 등의 기술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1912년에는 ‘육지면장려 제1기 계획’을 세워 1918년까지 경작면적 10만 정보를 대체로 달성하였으며, 1919년에는 제2기 10개년 계획을 세워, 경작 면적 25만 정보, 생산량 약 2억 5천근을 목표로 내걸었다.

일제는 면화의 유통에도 간섭하였다. 그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면화를 전량 거두어가기 위하여 공출제도를 시행하였다. 총독부 관리들은 목표 수매량을 채우기 위해 면화 재배 농가를 점검하고 숨겨진 면화까지도 수색하였으며, 한국 농가의 자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조면기(操綿機)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온갖 구실을 붙여 면화의 품질을 싸게 평가하여 값을 깎았다.

일제는 한국 농업과 농민에게 온갖 강제를 자행하였다. 한국 농민은 지형지목의 변경에 관한 제한, 경작물 종류의 제한, 품종의 제한, 경작 방법, 시비, 수리, 제초끝 베기잡곡조제포장 등의 제한, 소작권의 매매 및 소작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 등을 받았다. 그리고 마름에 대한 보수, 미곡 검사의 수수료, 지주마름추수원의 향응접대비와 선물, 지주마름 댁의 수발 및 노력 제공 등의 잡역을 부담하게 되었다.

일제는 한국의 농업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모내기의 방법과 벼의 수확과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일이 간섭 감시하였다. 자신의 농사에 흥을 낼 수 없는 한국농민은 지주와 관청이 시키는 대로 모를 내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고, 벼를 말리면 그만이었다.

동척을 비롯한 일본인 지주의 엄격한 통제와 수탈로 소작농은 전보다 많은 노동과 생산비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소작농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였다. 빈곤한 소농들은 종자곡도 없어서 고리대금을 얻어 농사를 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논은 점차 고리대의 담보로 압류되어 추수가 끝나더라도 농민들의 수중에 들어갈 곡식은 거의 없었다. 당시 금융조합이 농민금융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고리대로 연명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농민은 각종의 세금과 공과금에 시달렸다. 국세(地稅), 지방세(戶稅가옥세·지세·부과세·시가지세·부가세·시장세·도장세(屠場稅)·도축세·차량세·부동산취득세), 면비(面費), 학교비 등을 부담하여야 했다. 그밖에 간접세와 농회수리조합의 조합비와 수리비(水利費) 등이 덧붙여졌다. 그리하여 1915~20년 사이에 농가 1호당 국세 부담액은 2배, 지방세 부담액은 6배로 늘어났다.

일제의 권력과 지주에 의한 토지수탈은 한국농민의 생활에 심대

한 타격을 주었다. 토지를 잃은 농민은 소작인머슴화전민이 되거나, 실업자 또는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토지를 상실하고 산지로 숨어들어 화전을 일구어 경작하는 화전민이 1916년에는 24만 5천여명에 달하였다. 국내에서의 생활수단을 잃고 국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도 해마다 증가하여 1911~20년 사이에 40만 명을 넘어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진행된 미국 가격의 앙등, 소작료의 상승, 각종 세금의 증대는 한국농민들이 최저한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농촌을 피폐케 하였다.

전통적 관습에 어긋나고 최저한의 생활마저 위협하는 일제의 식민 농정에 대하여 원한과 불만을 품게 된 한국농민들은 소작료 납부 거부, 토지반환 청원,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로 농민들에게 온갖 폭압을 자행하였으므로 합법적인 항거는 불가능하였지만, 비밀결사를 만들어 저항하였다. 1918년 3월에는 강원도 철원군 마장면 농민들이, 5월에는 춘천군 서하면 농민들이 각각 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sup>9)</sup>

### 3) 임야·광산·어장의 수탈

한국의 산림은 1912년까지만 해도 무성울창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통치로 점차 민둥산으로 변해갔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동안에 군사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국의 산림에서 벌채를 시작하였다. 1908년 1월에 「삼림법(森林法)」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임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1911년 6월에 「삼림령(森林令)」을 공포하여, 산림의 소유권을 제한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주의 사유림을 보호하고 민중의 임야 이용을

9) 鄭在貞, 앞의 글, 66~73쪽.

단속하였다. 이것은 한국 농민의 화전을 박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또 1912년 8월에 「조선국유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처분령」을 공포하여 일본인에게 국유림과 임산물을 수시로 불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한국인은 산에 들어가 연료와 약초를 채취하는 공동 이용권까지 빼앗기게 되었다.

일제는 1917년 2월부터 1924년까지 임야정리조사를 추진하여 식민지적 임야소유제를 만들고 산림 수탈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임야를 모두 국유지에 강제 편입시켰다. 약 160만 정보의 사유림이 국유지가 되었다.

일제는 한국 강점 이전에 구미제국의 광산채굴권 획득에 대항하여 직산 금광을 비롯하여 은율재령, 철원의 철광, 창원안변송화장연 등의 금광을 장악했다. 그리고 1906년 7월 「광업법」을 공포하여 이들 광산의 장악을 법적으로 공인하였다. 이 법은 일본인에게 광업권을 허가하고, 또 국유라는 명목아래 광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광산 독점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15년 12월에 「조선광업령」과 그 시행세칙을 공포하고, 한국정부의 소관이었던 평양의 사동고방산의 석탄광산을 조선총독부 평양광업소로 이관하였다. 1911년부터 17년까지 대대적인 광상(鑛床) 조사를 실시하고, 1918년에는 지질조사소를 설치하여 광공업 수탈을 위해 조선의 지하자원을 전면 조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군수물자의 수요가 격증하자, 일본 자본의 한국 광산 진출이 현저해지고 신식기술을 도입하여 광물 수탈을 본격화하였다. 진남포제련소, 노량진의 금은선광장, 껌이포 제철소 등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했다. 1919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광산 자본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침투하여 무연탄흑연동아연텅스텐각종 유용 광물을 채굴하였다.



일제는 1908년 10월에 「한일어업협정」을 강제 체결하고, 11월에 「한국어업법」을 공포하여, 한국의 어업을 면허 또는 허가제로 바꾸었다. 강점 이후 1911년 6월에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어업에 대한 기득권을 부인하고 새로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이것은 한국인 소유의 유망한 어장과 한국 황실 소유의 어장을 빼앗아 일본인에게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일제는 트롤어업저인망어업잠수기어업 등 근대적인 기계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가하고, 한국인에게는 조어업만을 허가하여 한국 어민을 영세화시켰다. 그리고 어업조합을 설치하고, 이의 실권을 3만 명의 일본 어민이 장악케 하여, 20만 명의 한국 어민을 억압하도록 하였다.<sup>10)</sup>

#### 4) 조선회사령 시행

1910년 8월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이후 민족자본의 발전은 봉쇄되었다. 일제는 1911년 1월 1일부터 조선회사령(朝鮮會社令)을 실시하여, 한국 산업자본의 발전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주의의 원료생산지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어 나갔다.<sup>11)</sup>

회사령은 한국 안에서의 모든 회사는 조선총독의 허가(許可)를 받아야만 설립되며, 한국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본점지점을 한국에 설립할 때에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였다. 그리고 한국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함을 주목적으로 할 때에는 한국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여야 하였다.

조선총독은 회사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조건에 위반할

10) 鄭在貞, 앞의 글, 74~78쪽.

11) 高承濟, 앞의 글, 118~121쪽.

때,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을 정지금지하고, 그 회사를 폐쇄해산할 수 있었다. 부실 신고로 허가 받은 회사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다. 허가 없이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체형(體刑)이나 5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은 모두 회사로 간주하며, 회사가 아닌 것은 그 명칭에 ‘회사’라는 문자를 사용치 못하게 하였다. 이 규정은 대한제국시기에 설립된 많은 한국인 회사를 정비하려고 설정한 것이었다.

이 법령 실시의 경과 규정으로서, 한국 정부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 회사가 일본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어떤 종류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케 하였다. 이것은 이미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회사에 대한 처리를 위한 편법이며, 또한 한국인 설립의 민족계 회사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조선회사령의 핵심은 한국 안의 모든 회사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되며, 설립 후에도 회사의 운영은 조선총독의 엄중한 감독을 받게 한 것이었다. 회사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은 회사령의 성격과 목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 일본 상법에서는 회사 설립에 있어서 계출주의(屆出主義)를 채택하였는데, 한국에서는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회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허가주의를 실시한 근본 목적은 일본자본주의의 성장단계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당시의 일본자본주의는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국내의 공업화가 긴박하게 요청되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계기로 공업화의 초기단계에 돌입한 일본은, 1910

년대에는 그 도약의 후반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자본가들에게 한국이 개방된다면, 일본자본이 고율 이윤을 쫓아 한국으로 대량 유출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 내의 공업화가 큰 차질을 빚게 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는 1차적으로 일본 국내자본이 한국 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일제는 회사령을 통하여 한국인의 민족계 자본에 의한 근대적 기업의 설립을 억제하였다. 1890년대부터 교육의 확대와 사회개발로 근대적 기업들이 속출하고, 1900년대에 이르러 애국계몽운동과 관련하여 기업열이 높아가고 있었는데, 이를 우려한 일제는 한국인의 산업진출을 저지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회사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은 막대한 초과 이윤을 획득하자, 한국에 대한 자본 투자를 확대하였다. 1914년에는 회사령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회사 설립의 허가조건을 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제의 권력과 자본이 야합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그들이 허가한 일본회사를 공무원과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지원했다.

1911년에 한인 공업회사의 납입자본금이 전체납입자본금의 17%이었고 일본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32%이었으며, 한일인 합자회사는 51%이었다. 그러나 1917년에는 한인 자본이 전체의 12.7%로 감소된 데 비하여, 일본인 자본은 대폭 증가하여 83.2%를 점유하고, 한일인 합자회사는 4.1%로 격감되었다. ‘병합’ 무렵 한일인 합작 경영으로 표시된 공업회사의 대부분이 본래 일본인 자본이었다가, 식민지배가 정착되면서 본색을 드러냈거나, 혹은 ‘병합’ 7년 사이에 일인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1910년대에는 일제에 의하여 국책회사(國策會社)가 몇 개 설립된 이외에, 민간 회사가 신설된 것은 거의 보잘 것 없었다. 조선공

업협회(朝鮮工業協會)의 자료에 의하면, 1921년 현재 조선에 설립된 기업 회사는 728개 회사에 총불입자본(總拂入資本)은 1억 9,959만 9천 원이었다. 그 중 농림수산업은 77개에 706만 4천원, 제조업은 161개에 1,975만 8천원, 금융운수업 기타 상업을 합한 회사는 463개에 1억 4,616만 7천 원이었다. 회사의 절대 다수는 유통부문에 집중되어, 수적으로는 전체 회사의 63.6%, 불입자본금으로는 73.1%를 점유하였다. 제조업, 즉 생산부문의 회사는 수적으로는 2위를 차지하나, 불입자본금은 겨우 9.9%를 차지할 뿐이다. 농림수산업은 수적으로는 10.6%이지만 불입자본금은 10.4%로 자본 규모로 보면 2위를 점유한다. 유통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는 일제의 조선회사령의 실시로 나타난 결과였다.

1910년대에 설립된 회사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1920년 말 현재 총 544개 사(社) 가운데, 일본인 회사가 414개로 전체 회사의 76.1%를 차지하고 불입자본금의 비율은 83.1%를 점유하였다. 한인 회사는 99개로서 전체 회사의 18.2%이고 불입자본금은 겨우 10.5%에 지나지 않았다. 그 외의 31개는 한일인 합동회사 또는 외국인 회사였다. 이러한 한인과 일본인 회사간의 심한 격차는 회사령실시 이후 한인의 회사 설립과 운영이 매우 어려웠음을 말해주며, 또한 한민족계 자본의 미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회사는 거의가 일본인 회사였고, 한국인 회사는 경성방직회사(京城紡織會社)와 몇 개의 은행이 있을 뿐이었다.

당시의 제조공업의 실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917년 말 현재 전체 공장 수는 1,358개인데, 경영주의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 소유가 736개로 가장 많고, 한인 소유는 609개, 기타 외국인 소유는 13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면염직업제지업피혁업요업과 같은 세공업은 한인 경영의 공

장이 많은데, 이 부문은 전통적인 수공업분야로서 재래식 공장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누염료제제목공제분연초제조전기가스양조제염인쇄제철업 등의 공업 부문에는 일본인 소유 공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교적 자본과 기술을 요하는 공업 부문에는 한국인들이 진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공장 규모로 보면, 한 공장당 평균 자본액이 2만 8천여 원으로서 거의가 군소 공장이었다. 전기가스업제철제련업제면업연초제조업 등 큰 자본이 소요되는 공장이 90여 개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공장은 더욱 영세한 자본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장의 평균자본액을 보면, 일인소유 공장은 1만 6천 원인데, 한인소유 공장은 3천여 원으로서 아직도 수공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영세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 특히, 조선회사령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한인 자본은 법인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길을 봉쇄되고 민족자본의 발전은 저지되었다.

## Ⅱ . 1910년대 민족운동

### 1.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 1) 의병의 항전

일제 무단통치하에서도 한민족은 여러 형태의 항일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한민족은 우선 국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민족문제 해결이 급선무였다.

1910년대의 민족운동은 한말의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반성하고 문제점들을 검토한 위에, 일제의 무단통치에 적극 대항할 수 있는 민족운동체제를 재정비하고 독립쟁취를 위한 새로운 운동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것은 의병전쟁을 독립군적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계몽운동을 반성하면서 독립군 양성교육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심적인 추세였다.

의병전쟁은 일제가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보병 2개 연대와 해군 함대까지 동원하여 자행한 야만적인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에 의해 표면상 국내에서는 쇠퇴해 갔다. 한국 강점을 앞두고 일본군이 의병항쟁을 근절하려고 초토작전을 펼친 것을 황현(黃玹, 1855~1910)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아래와 같이 적었다.<sup>12)</sup>

“일본군이 길을 나누어 호남지방의 의병을 수색했다. 위로는 금산(錦山)진산(珍山)김제(金堤)만경(萬頃)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진주(晉州)하동(河東), 남쪽은 목포(木浦)로부터 사방을 그물 치듯 포위하여 마을을 수색하고 집집마다 뒤져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모두 죽였다. 이 때문에 행인이 끊어지고 이웃의 왕래가 끊겼다. 의병들은 삼삼오오 도망하여 흩어졌으나 숨을 곳이 없었다. 군센 자는 나와 싸우다 죽어갔고, 약한 자는 도망하다가 칼을 맞았다.”

일제는 ‘의병토벌’을 빙자하여 민간들도 철저히 탄압하고, 이 작전을 통해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어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구축해 나갔다.

의병은 소규모적이고 산발적인 유격전을 계속하였다. 1910년 이

12) 黃玹, 『梅泉野錄』 卷六, 국사편찬위원회, 1955, 504쪽.

후 의병은 주로 황해강원함경평안도 등 중부 이북 지역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10여 명 혹은 7~8명 정도 소부대의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의병은 공격대상으로 일부 친일 경향의 양반 지주나 부호 등도 목표로 했으나, 대개 헌병분견소, 경찰서, 국경수비대 등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을 공격하면서 1915~16년까지 투쟁하였다.

1911년 이후 의병활동은 경기도 강기동(姜基東)전성근(田聖根)최영우(崔永宇), 충북 최익삼(崔益三), 경북 노병직(盧炳稷)사상두(史相斗), 전북 정세창(鄭世昌)김학준(金學俊), 황해도 한정만(韓貞萬)채응언(蔡應彦), 평남 동종찬(董宗贊) 등의 부대가 활약하였다.

당시 강원지방에서 활약한 주요 의병장은 강두필(姜斗弼)정경태(鄭敬泰)신태여(申泰汝)박치도(朴致道)함병태(咸炳台)이진도(李鎭道)박문술(朴文術)권태정(權泰鼎)이기연(李基淵)강기동(姜基東)김종태(金宗泰)김병일(金炳一)채응언(蔡應彦)김정언(金貞彦) 등이었다.<sup>13)</sup>

일제 통계를 보아도, 19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의병의 교전회수 128회에 참전 병력 1,832인(1910년 9월~1911년 8월 교전 50회, 의병 390인), 1911년 9월부터 1912년 8월까지 13회 교전에 70인, 1912년 9월부터 1913년 8월까지 5회 교전에 45인이 참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항일투쟁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1911년과 1912년에 강원도에서 만도 43회에 걸쳐 의병이 일군과 교전하였던 것이다.<sup>14)</sup>

당시 눈부신 활약으로 신출귀몰하여 일본 군경을 놀라게 한 의병은 강기동채응언정경태(鄭敬泰) 등이었다. 일제는 현상금을

13) 조동걸, 「1910년대 독립운동의 변천과 특성」,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39~40쪽. 春川憲兵隊, 『江原道狀況梗概』, 1913, 248쪽.

14) 春川憲兵隊, 위의 책, 244~247쪽.

걸고 특별헌병수사반을 조직하여 의병장을 체포하려 하였다. 강기동은 본래 한국군 기병 출신인데 한때 의병 수백 명을 이끌고 경기도를 근거로 강원함경도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채응언은 한국군 보병대 군조였는데, 군대해산 후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3,4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강원황해평남함경도 등에서 활약하였다. 국권 상실 후에도 100여 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계릴라식 항전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채응언 체포에 현상금 280원을 걸 정도로 맹활약을 하였으나, 1915년 7월에 체포되었다.

일제가 헌병경찰과 정규군을 동원하여 철저히 탄압하여 국내에서의 항전이 불가능하자, 이에 장기적인 항전을 대비해 북계책(北計策)을 추진하여 중국의 만주나 러시아령 연해주에 항전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군으로 전환한 의병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13도의군 같은 전국의병의 통합체를 조직하며, 만주지역에서 독립군투쟁으로 전환하여 무장독립전쟁으로 맥을 이어갔다.

이들과는 달리 국내에 잔존하였으나, 직접 활동하지 않고 잠적한 의병들은 계몽운동 계열과 연합하여 민족운동을 선도하였다. 혹은 서당 훈도화전민술장수옛장수 등으로 변신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2) 비밀결사 운동

1910년대에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은 비밀결사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의병항쟁이 약화되자, 의병을 재정비하여 조선총독부를 축출하려는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sup>15)</sup> 1906년 최익현(崔益

15) 崔昌熙, 「31獨立運動과 江原地方」, 『江原道史』 歷史編, 江原道, 1995, 1262~1264쪽.



鉉)과 더불어 전라도 태인(泰仁)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2년간 대마도(對馬島)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임병찬(林炳瓚)은 최익현의 유언대로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였다. 1912년 9월과 다음해 1월에 의병을 규합하라는 고종(高宗)의 밀조(密詔)를 받은 그는 아들 응철(應喆)이 다시 밀조를 받들고 내려오자,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는 ‘정2품 자헌대부 독립의군부 육군부장 전라남북도 순무총장(正二品資憲大夫獨立義軍府 陸軍副將全羅南北道巡撫總將)’의 명을 받고, 1913년 3월 23일에 각 도 대표를 선임하고, 우선 전라도에는 각 군 대표까지 선임하였다. 독립의군부는 전국 각 군 조직을 마친 후에 일시에 궤기함으로써 국권을 탈환하고 대한제국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국권반환요구서(國權返還要求書)를 조선총독은 물론 일본 내각대신, 일본 헌병경찰분견소에 이르기까지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민의 총의(總意)를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1914년 5월에 사전 발각됨으로서 주동자 54인이 모두 투옥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립의군부 조직은 붕괴당하고 말았다. 항일의병을 일으켜 거사를 도모하기 전에 유럽세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임병찬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게 단독면회를 요청하였다. 5월 29일 총독대리로 온 경무총감에게 일본의 한국 병합의 부당성을 통박하고 국권반환과 일본군 철병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의 한국독립과 원조만이 동양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역설하였다. 일제에게 피체된 임병찬은 통분한 나머지 자결을 꾀했으나 실패하고, 보안법 위반으로 1년 감금형을 선고받고 거문도로 이송되었다. 일제는 감금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시 2년간 유배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는 유배 중인 1916년 5월 순국하였다.

1913년에는 경북 풍기(豊基)에서 채기중(蔡基中)이 주도하여 유

창순(庠昌淳)유장열(柳璋烈)한훈(韓焄)강순필(姜順必)김병렬(金炳烈)정만교(鄭萬敎)김상오(金相五)정운홍(鄭雲洪)정진화(鄭鎭華) 등 한말 의병 또는 그와 관련이 깊은 인사들과 뜻을 합하여 풍기광복단(豐基光復團)을 결성하였다.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 구입과 군자금 모집을 방략으로 정한 채기중은 자금탈취를 위해 일인이 경영하는 영월의 증석광에 광부로 잠입하여 활동했으며, 부호 집을 대상으로 자금수합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안동의 이종영(李種諲) 집을 거점으로 이용하면서 만주의 독립군기지와 연락을 취하였다.<sup>16)</sup>

독립군 지원을 위해 1913년 1월 15일에 경북 달성군에서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이 결성되었다. 서상일(徐相日)이 수성면 안일암에서 정월 대보름의 시회(詩會)를 가장해 모인 윤상태(尹相泰)이시영(李始榮)정운일홍주일 등과 국권회복을 위한 결사체 조직을 협의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대구지역의 계몽운동단체인 달성친목회를 이끌며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한 서상일은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자산가이면서 항일의식을 겸비한 윤상태를 끌어들여 조직의 기초를 다졌다. 그리고 의병 출신인 김규황병기 등을 합세시켜 단세를 확장하였다.

국권회복단은 초기에는 국내에서의 단세 확장, 해외운동세력과의 연계 및 지원, 독립 쟁취란 목표를 정하였다. 1914년 1월 15일에 안일암에서 연례 회합을 갖고 조직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중앙총부를 대구에 두고, 총령(總領) 휘하에 외교부교통부기밀부문서부권유부결사대를 두고 각각 담당자를 선임하였다. 마산에 지부를 설치하고 대구에 태궁상회향산상회 등을 연락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단원 확보를 위해 천도교기독교불교 조직

16) 姜英心, 「국내민족운동」,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136~145쪽.

을 적극 활용하여 단원을 규합하였다.

국권회복단은 혈기 왕성한 청년들로 강유원간친회(講遊園懇親會)를 조직하여 독립 운동가들과 기맥을 통하고, 해외 유학생 및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항일사상을 고취시키고 단세 확장군자금 모집, 그리고 독립운동 역군 양성에 주력하였다. 또 만주노령 등 국외 동지에게 군대양성과 무기구입을 위한 군자금 조달을 지원하는데도 힘썼다.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를 봉사하여 대종교적(大宗教的)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국권회복단은 대구 태을상회(太乙商會, 徐相日)와 부산 백산상회(白山商會, 安熙濟)를 연락거점으로 삼고 활동했다.

그러나 대구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을 하다가 조직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국권회복단 내부에서 운동방략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이후 조직과 활동이 위축되었다. 단원 중에서 보다 과격한 인사가 풍기광복단과 합류하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하였다.

국권회복단은 이후 사태를 관망하면서 단세를 보존하다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경남지역에서 31운동의 확산에 힘쓰는 한편,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연락 업무를 적극 담당하였으며, 파리장서(巴里長書) 송달을 지원하기도 하였다.<sup>17)</sup>

1915년에는 경북 문경(聞慶)의 유생들, 특히 한말 의병장인 이인영(李麟榮)이강년(李康年)과 인연이 깊은 이동하(李東下)이은영(李殷榮)김낙문(金洛文)이정재(李滉宰)최욱영(崔旭永) 등이 민단조합(民團組合)을 조직했다. 이들은 주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유력자를 포섭하는 한편 운동자금의 수합에 주력하였다. 그러

17) 姜英心, 「朝鮮國權恢復團의 結成과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150~162쪽.

나 자금조달 계획이 어려움에 처하자, 김낙문은 1916년 10월 강원도 영월군의 일본인 중석광의 경영자금을 강탈하려고 채기중 등 부하 10여 명을 광부로 위장시켜 파견하였으나 발각되고 말았다.

1913년 평양에서 승의여학교 교사 황애덕(黃愛德)이 효덕(李孝德), 승현여학교 교사 김경희(金敬熙), 기독교인 안정석(安貞錫) 등이 박현숙(朴賢淑) 등 20여 명의 학생을 포섭하여 승의여학교 기숙사에서 송죽회(松竹會)를 결성하였다. 1910년대 여성들이 조직한 유일한 비밀결사인 송죽회는 철저한 점조직으로써 비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회원들이 방학 때 수예편물 등을 하여 모은 돈을 월회비로 납부케 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이를 국외 독립운동자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는 애국지사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송죽회는 1916년에는 동교졸업생으로 장로교 계통 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회원을 지방책으로 삼아 지방 조직을 확대해 나갔으며, 일제 말기에는 일본하와 이미국 본토까지 조직을 확대하였다.

1914년 5월에 평양에서 김영운(金永胤)이 대성학교 학생 및 대성학교와 관련된 청년과 학생들 중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기성불단을 조직하였다. 김영운을 비롯한 주무자들은 단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급선무인 일제와의 투쟁을 위해 무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김영운은 단원 수명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 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북경상해 혹은 노령이나 미국 등지로 건너가 학업에 전념하면서 국권회복에 투신할 준비를 강구하려고 계획하였다. 비밀리에 단원 확대와 준비론적인 운동 강화에 노력하던 중 불행히도 1915년 3월에 일경에 의해 단원들이 피체되었다.

1916년 6월 말에 전라도 남원군 지리산에서 이증연(李增淵)황

해철(黃海轍)최진영(崔鎭泳) 등 12인이 모여 국권회복을 위해 비밀결사체를 결성하였다. 이증연 등은 일본에게 한국이 병합당한 것은 당시의 대신들의 잘못이므로 불충한 신하들을 암살하고 국가독립을 도모하자고 혈서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거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자산가들에게 금전을 기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직원인 김병우(金炳祐)가 1917년 2월에 붙잡혀 조직이 발각되었다.

1915년 영주(榮州)에서 풍기공립보통학교 교사인 박제선(朴濟璿)·권영목(權寧睦) 등이 대동상점(大同商店)이란 잡화점을 경영하여 독립운동의 자금 조달과 연락 거점을 만들었다. 잡화와 곡물을 취급한 대동상점은 뒤에 대한광복회의 연락소가 되었다. 이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선발대로 권영목을 보내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1918년에 대동상점의 비밀활동이 발각되었다.

1915년 7월(음력)에 대구 달성공원에서 풍기광복단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 중 일부 과격한 인사가 모여 비밀결사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했다. 광복회는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혁명 기지를 확보한 후, 적시에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은 목표로 삼았던 무장혁명단체였다. 광복회는 민족운동의 방략을 독립전쟁론에 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독립군양성에 목적을 두고 군자금 모집과 무기 구입에 초점을 두었으며, 친일 부호의 처단 등을 투쟁 목표로 삼았다.

한말 의병장 허위(許蔭)의 제자인 박상진(朴尙鎭)이 주도하여 처음에는 경상도 일대에서 조직되었으나, 1916년부터는 충청강원황해평안전라도 등지로 확대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박상진채기중우재룡(禹在龍)한훈 이외에도 충청도 김한중(金漢鍾)과

황해도 이관구(李觀求) 등이 새로운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이석대(李奭大)·김좌진(金佐鎭) 등을 부사령으로 만주에 파견하였다.

근대 지향성이 강한 대한광복회는 국왕 없는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국내외 100여 곳에 거점을 확보하고 무기를 준비하려고 하였다.

대한광복회는 중앙에 총사령(總司令), 부사령(副司令), 지휘장(指揮長), 재무부(財務部), 선전부(宣傳部) 등을 두고, 각 도에 지부장, 간도(間島)에는 별도로 부회장을 두어 통솔하는 비밀 군사조직이었다. 그리고 대구(상덕태상회)·영주(대동상점)·천안·광주(이명서)·삼척(김동호)·인천(이재덕·황학수)·서울(어재하)·안동(이종영)·고령(김재열)·해주·신의주 그리고 만주의 안동(安東, 三達洋行)·장춘(長春, 상원양행) 등지에 잡화상이나 미곡상 또는 음식점이나 여관을 설치하여 활동거점으로 삼았다.

대한광복회의 활동지침으로 비밀폭동암살명령 등 4대 요강이 시달되었다. 대한광복회는 우선 군자금 조달을 위해 부호의 의연금을 거두는 것이 대중을 이루지만, 그 외에 세금 탈취와 일인광산 습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주(慶州)에서 우편차를 습격하여 세금 일부를 탈취, 군자금을 모았다. 전국의 부호 명단을 작성하여 각각 배당액을 산정해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게 하거나, 또는 강제로 모금하기도 하였다. 1917년과 1918년 초에는 군자금 모금에 응하지 않는 칠곡(漆谷) 부호 장승원(張承遠), 아산(牙山) 박용하(朴容夏), 보성(寶城) 양재학(梁在學), 별교(筏橋) 서도현(徐道賢) 등을 처단했다. 이들 부호의 처단 현장에 ‘선고장(宣告狀)’을 두었기 때문에 광복회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1918년 초부터 관련자들이 발각되어 관련 인사들이 피검되어 조직이 무너졌다. 그러나 대한광복회는 이듬해에 일어난 31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폭넓게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1917년 3월 평양에서는 송실학교와 평양신학교 출신자와 재학생 및 일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를 결성하였다. 청년학생의 항일 비밀결사인 조선국민회의 결성에는 장일환(張日煥)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14년 9월에 미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적 지도자인 박용만(朴容萬)을 만나 국내에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국내외가 상호 협력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915년 4월에 비밀리에 귀국한 장일환은 강석봉(姜錫奉)서광조(徐光朝)백세빈(白世彬) 등을 포섭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 관련 인사들이 체포되자 계획 실천을 잠시 보류하였다. 그 뒤 1917년 3월 23일에 평양 신양리에서 장일환 등 10여 명이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송실학교와 관련된 기독교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그 외에 평양신학교경성 연희전문학교군산 영명학교 학생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지 지식청년들을 연합하고자 계획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제국주의화하는 일본이 장차 중국 침략을 위해 구미세력과 패권 쟁탈을 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기로 이용하여 자주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선국민회는 본부격인 평양지역에는 회장이 담당하고 경상도전라도황해도 지역에 구역장을 설치하고 각 지역에 연고가 있는 회원을 배치하여, 국민회 조직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발전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하와이 국민회와의 연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회원을 비밀리에 미주로 파견하려고 계획하였다. 또한 중국지역으로의 기반 확대를 위해 안동과 북경에 외국통신원을 배치하였다. 특히 조선국민회는 간도지역에 토지를 구입하고 동지를 규합

이주시켜 장래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장차 독립 쟁패 기회에 대비하여 무력준비계획도 수립하였다. 의지가 강고한 청년 회원들을 항일역군으로 육성키 위해 중국 각지의 무관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였으며, 각지의 유지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군자금을 출자케 하고 그 자금의 일부로 권총 등의 무기를 구입할 계획도 세웠다. 독립전쟁론적 방략을 지향한 조선국민회는 1918년 2월경에 일제 당국에 의하여 발각, 25명이 체포되어 해산되었다. 그러나 그 조직 기반은 잔존하여 31운동 때 평양중심의 시위운동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5년 3월에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에 재학 중인 이용우(李用雨)가 중심이 되어 경제사상 운동 단체인 조선산직장려계(朝鮮産織獎勵契)를 조직하였다. 경성 교원양성소 학생들은 1914년 10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그들의 현대적 문물제도의 발달을 보고 우리 민족도 상당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영구히 일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귀국하자마자 실천방법을 강구하였다. 이용우는 학생들과 회합하면서 경제사상운동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고, 학동 및 청년층에 조선혼을 고취시키고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며, 일본인에게 빼앗긴 각종 사업을 조선인 스스로 흥하게 할 조직을 결성하여 민족부흥의 길을 찾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게 탈취 당한 경제권을 탈환하려면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도 결의하였다.

이용우는 휘문중학교 교사 남형우(南亨祐)와 상의하고 최남선(崔南善)의 자문을 받고, 각 중등학교 교사들 중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아 조선산직장려계를 조직하였다. 계의 운영은 주식제도를 채택하여 1주에 20원으로 하였다. 계의 회원은 각지의 교사 44인, 경성양성소 학생 17인을 포함하여 130여 명에 이르렀는데, 그 대



표적 인물로는 유근(柳瑾)백남규(白南奎)안재홍(安在鴻)김성수(金性洙)신석우(申錫雨) 등 당시 국내의 명망 있는 신지식청년층을 거의 망라하였다. 산직장려계는 그 창립 동기를 “조선의 원료로 조선에서 조선인이 방적하여 조선인이 제직(製織)하여 조선인이 착용하자”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급자족을 통해 한국인 민족자본의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조선산직장려계는 미국 하와이에서 간행되는 『국민보(國民報)』를 비밀리에 반입하여 구독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1916년 3월 보안법 위반으로 일제 관헌의 탄압을 받아 고생하였다.

1915년 8월 함경남도 단천에서 강명환(姜明煥)방주익(方周翼)최석희(崔錫熙) 등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단천자립단(端川自立團)을 결성하였다. 단천군 내 기독교 인사들인 이들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거부하고 국권회복의 의지를 품고 있는 동지들과 협의하여, 단원은 결사로 구한국을 광복시킬 목적을 담은 「자립단규칙서」를 작성하고 비밀결사인 자립단을 조직하였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자립단은 단천군 내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한 이원(利原)북청(北靑)성진(城津)길주(吉州)갑산(甲山)풍산(豊山) 등지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자립단은 운동자금 확보를 위해 단원들로부터 특별회사금과 입단금 1원, 그리고 월연금 20전씩의 단비를 받아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단의 기금을 상업경영에 투자하여 이식을 꾀하고, 그 자금으로 단원의 자제 및 인근 청년들을 위한 구국 교육사업을 전개하여 장래의 혁명에 대비한다는 준비론적인 교육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기질을 배양하기 위해 광복청년연성소(光復靑年練成所)를 설치하고 대한독립군에 배속시킨 교관의 지도 아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항일투쟁을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하다가 자립단은 1916년 3월에 일본 헌병대에게 조직이 발각되어 19명이 피체되었다.

중국의 간도 및 평북 일대를 중심으로 비밀결사체인 선명당(鮮明黨)이 활동하였다. 정연웅(鄭延雄)임광모(林光模)가 결성한 선명당은 조선 총독 이하 대관 암살을 목적으로 동지 규합에 주력하며 활동하였다. 그러나 1916년 4월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이용규(李容珪)김태영(金泰泳)전용규(田瑢圭) 등이 흠치교(岫嘯敎)의 종교적 조직을 이용하여 동지를 규합, 국권회복의 계획을 모의하였다.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흠치교의 비밀결사는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척살하려던 의협투쟁 방법을 택하였다. 1917년 6, 7월에 조직이 발각되었다.

1916년 음력 10월에는 청림교(靑林敎) 수령 이원식(李元植)이 청림교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는 시국관을 펴면서 신도를 모집하였다. 이에 이종학정태순 등이 가담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가 피체되었다.

1910년대에는 일제의 무단통치의 감시체제하에서 정치경제 등 민족적 활동이 봉쇄되었으므로 교육을 통해 그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주로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교육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교사들은 조국사랑 노래나 독립군가애국가 등을 모아 비밀리에 창가집을 편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보급하였다. 또 금지된 민족역사서나 인물전기 등도 비밀리에 교육시켰다.

1914년 경기도 개성의 사립 한영서원(韓英書院) 교사 신영순(申永淳)이상춘(李常春) 등이 배일사상을 양성하려고 국권회복을 고무하는 애국가와 독립군가를 수집 창작하여 애국창가집을 만들어 한영서원과 호스돈여학교 생도들에게 반포하였다.

함북 종성군 주을면 온천동에 있는 사립 온천학교(溫泉學校) 교사 최봉남(崔鵬南)·정주환(鄭周煥) 등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국생각가’ 혹은 안중근을 칭양하는 찬가 등을 비밀리에 가르쳤다. 이 학교에서는 역사나 지리 등의 일반 교과목 중에서도 민족교육을 강화하여 한국의 역사와 지리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함남 이원군 남면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박원동(朴元東)은 사속 일신재 교사 김창연(金昌衍)·이근동(李根東) 등과 국권회복에 관해 협의하고, 북간도에서 가져온 『신한독립사(新韓獨立史)』와 『최신창가집』 등을 교육하였다.

함남 영흥군 홍인면 소재 사립 문명학교의 교사 이학룡(李學龍)은 학생들에게 『애국창가집』을 가르쳐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심어 주려고 노력했다.<sup>18)</sup>

## 2.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의 하나는 국외에서의 민족독립운동이었다. 국외 독립운동은 중국의 서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와 러시아령 연해주(沿海州) 등 한국과의 국경과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미주의 본토와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서도 전개되었다.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펼치던 의병과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을 추진하여, 1910년을 전후한 조국독립운동기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8) 姜英心, 「국내민족운동」, 145~180쪽.

국외 한인사회는 계몽운동과 민족교육을 통하여 한인들에게 근대적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각 지역의 한인사회는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민족운동단체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북간도(北間島)의 간민교육회(墾民教育會)와 그를 발전시킨 간민회(墾民會), 서간도(西間島)의 경학사(耕學社)와 그를 계승한 부민단(扶民團) 및 한족회(韓族會), 연해주지방에서의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과 성명회(聲明會)와 권업회(勸業會), 그리고 미주와 하와이의 국민회(國民會) 등은 그 지역의 주도적 항일민족운동단체였다.

이 시기 국외독립운동의 특징은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다. 한말의 의병전쟁과 구국계몽운동의 이념과 논리를 합일발전시켜 정립한 독립전쟁론은, 일제로부터 민족해방을 달성하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은 한민족이 독립전쟁을 준비하여 적기(適期)에 일제와 전쟁을 결행하는 것이리라는 이론체계였다. 국민은 군자금을 내어 독립군(광복군)을 양성하고 군비를 갖춘 뒤, 일제와 혈전을 벌이는 일을 최대 의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근대적인 민족역량을 향상시키고 시기를 기다리다가 일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때, 독립군이 일제와 맞서 독립전쟁을 결행하면, 조국광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 1) 만주에서의 민족운동

만주지역은 노령지역과 함께 해외 한인들이 ‘원동(遠東)’으로 불렸다. 만주는 일제통치하의 국내와는 달리 한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투쟁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내의 동포들이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가져올 독립운동의 중심지

로서 희망과 기대가 컸던 곳이다.

만주는 국내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수십만 명이 넘는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고가 깊은 곳이었다. 더욱이 일본과 전쟁을 치른 경험을 갖고 있고, 일제의 팽창야욕을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와 주민들이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독립전쟁 개시의 적기로서 전망하는 미일전쟁중일전쟁러일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지역에 근거를 둔 한인 독립군부대들이 일본과의 전쟁을 통하여 조국광복을 달성할 수 있는 주전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 (1) 북간도에서의 민족운동

북간도 지역은 19세기 후반 이래 함경도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대거 이주하여 상당한 규모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북간도 지역은 1910년 일제의 ‘병합’ 이후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망명하여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면서 근대적인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유력한 국외 독립운동기지로 가장 먼저 기반을 다졌다.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5조약이 체결되자, 국망을 예견한 민족운동가들은 1906년 4월경부터 북간도의 용정촌(龍井村)을 독립운동기지의 한 예정지로 설정했다. 이상설(李相高)이동녕(李東寧)정순만(鄭淳萬)황달영(黃達永)김우용(金禹鏞)홍창섭(洪昌燮)여준(呂準)박정서(朴禎瑞) 등은 1906년 8월 용정촌에 도착한 후 서전서숙(瑞甸書塾)을 개설하였다. 이 서숙은 신학문과 함께 철저한 항일민족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상은 독립군 양성소와 같았다. 1907년 4월에 이상설이 헤이그특사로 이동녕정순만과 함께 용정촌을 떠난 후에, 용정에 일제 통감부간도파출소(統監府間島派出所)가 설치되어 그들의 감시와 방해, 그리고 재정난으로 서전서숙은 교문

을 닫고 말았다.

북간도 한인사회는 통감부간도파출소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각 방면에 걸쳐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독립전쟁론'을 구현시킬 기지를 마련하였다. 용정촌 부근인 명동촌(明東村)에 김약연(金躍淵)박정서 등이 명동서숙(明東書塾)을 건립했다. 이는 명동학교로 발전하였는데, 국내의 신민회(新民會)에서 파견한 정재면(鄭載冕)을 단장으로 하는 북간도교육단을 맞이하면서 민족교육기관으로 성장해 갔다. 교육단의 설득으로 명동학교는 구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구의 신문화를 수용하는 근대 민족주의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 학교로 개편하였다. 그 명성이 알려져 입학지원자들이 북간도뿐만 아니라 러시아령 연해주와 국내의 회령(會寧) 등지에서도 몰려들었다. 1912년 일제에 의해 소각될 때까지 항일교육을 계속하여 수많은 애국인재를 배출, 독립군 또는 우국투사로 활약하게 하였다.

북간도에서의 최초의 민족운동단체는 1909년 9월의 「간도협약(間島協約)」 체결 직후에 조직되었다. 간도협약의 체결로 일본은 한청간에 분쟁이 되어온 간도영유권을 청국에 넘겨주는 대신에 용정촌국자가(國子街)두도구(頭道溝)백초구(百草溝) 4개 지역의 거주와 무역을 위한 개방, 길회철도부설권(吉會鐵道敷設權) 등 이권, 그리고 한인들의 재판에 대한 법정입회권을 획득했다. 한인들은 이 간도협약을 통하여 거주권과 토지가옥소유권을 받아내는 대신, 재판과 납세의무 등 청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이 청국에 귀화하지 않는 한, 일제는 통감부임시파출소를 뒤이은 일본영사관 및 그 분소의 설치를 통하여 한인에 대한 직접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인 민족운동가들은 간도협약의 독소적 조항에 반발하였다. 서

전서숙과 명동서숙의 중심인물이었던 기독교신자 박정서가 청국 관청의 승인을 얻어 연길현 국자가에서 한민자치회(韓民自治會)를 조직하였다. 한민자치회는 한인의 자치와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강력한 독립운동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어,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세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일본의 항의를 받은 청국의 명령으로 한민자치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1910년에 청국은 한인들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이봉우(李鳳雨)윤해(尹海) 등의 찬동을 받아 한민교육회(韓民教育會)를 조직케 하였다. 한인자제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한민교육회는 북간도 한인들의 자치권 확보를 추구했던 한민자치회 관계자들과, 일본의 외교적 압력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일본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려고 하는 청국 당국과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한민교육회는 각지에 교육위원을 파견하여 한인들에게서 기금을 모집하고, 연길현 20개 구역에 보통소학교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1910년 일제의 '병합' 후 명칭을 간민교육회(墾民教育會)로 바꾸고, 한인들에게 중국 국적의 취득과 변발청장(辮髮清裝)을 적극 권장하는 등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교육회 내에 모범학당을 설립하여 청국식으로 초등학교 과정과 교원양성과정을 설치하여 한인자제들을 교육하였다.

1910년을 전후하여 북간도로 망명한 반일적인 진보적 인물들, 특히 서북학회(西北學會) 회원들이 대거 교육회에 참여함으로써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1911년 2월경에는 북간도 전 지역에 걸쳐 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인 유력자들로 결성된 72형제파가 건물을 구입하여 1910년 9월 10일에 회관으로 기부하는 등 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당시 간민교육회의 중심인물은 회장 이동춘을 비롯하여 윤해

박찬익 등이었다. 이들은 신민회 간부였던 이동휘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동휘는 교육생 30여 명과 함께 기독교 전도와 교육활동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이동휘는 캐나다 선교사 구예선(具禮善, R. Griesson)과 제후하고 김립(金立)윤해장기영(張基永) 등과 연해주북간도함경도 일대를 포괄하는 한중로기독교선교단(韓中露基督教宣敎團)을 조직하여 민족의 계몽운동을 펼쳤다. 또 대종교의 창시자인 나철(羅喆)을 비롯하여 서일(徐一)계화(桂和)현천묵(玄天默)백순 등 대종교도들도 참여하였다. 화룡현 삼도구(和龍縣 三道溝) 청파호(靑波湖)에 대종교 북도본사(北道本司)를, 하동(河東)에 남도본사를 두고 선교하면서, 풍락동(風樂洞)과 청파호 등지에 실업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힘썼다. 오상근(吳相根)오병묵(吳炳默) 등은 연길현 와룡동(延吉縣臥龍洞)의 기독교 창동소학교(昌東小學校)에 남녀공학의 중학교를 증설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간민교육회의 주도 인물들은 ‘병합’ 이후 한인들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강변하며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일본에 맞서 청국의 보호를 받으며 민족교육을 실시하며 북간도 한인사회를 결집해 나갔다. 간민교육회 간부들은 청국의 지방관과 같은 예우를 받으며 한인자제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한인 소유의 학당사숙 등의 교육기관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간민교육회는 각처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파견하여 항일운동을 추진할 인재양성에 주력하며, 북간도 민족운동의 기초를 쌓았다. 자동(滋東)에 정동중학교(正東中學校)를 비롯하여 은진(恩眞)·명신(明信)광성(光成)창동(昌東)북일(北一) 등의 중학교를 각지에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이 1,000호 이상이나 거주하는 수분전자 나자구(綏芬甸子 羅子溝)에는 대전학교(大甸



學校)라는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명동학교를 비롯한 각지의 중학교와 심지어는 소학교에서도 병식체조(兵式體操)와 같은 기초적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전쟁론의 실현에 전력하였다.

간민교육회가 근대적인 교육과 기독교를 전파하고 청국 입적을 장려하며 청국의 의복과 머리 모양을 하였으므로, 전통적인 유학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특히 청국 당국이 전통적인 교육을 행하고 있는 유학자들의 사숙(私塾)을 간민교육회가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데 대하여 불만이 컸다. 정안립(鄭案立)김정규(金貞奎)차호균(車鎬均) 등 24명의 유학자들은 사숙개량회(私塾改良會)를 조직하고 근대적 교육을 반대하고 유학경전 강독에 의한 교육을 견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사숙개량회는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그 배후에 일본당국이 있다는 의구심에서 청국 당국이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에 사숙개량회 주도자들은 비밀리에 사우계(士友契)를 조직하고 회원을 확충하여 1913년 가을에는 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일제 당국은 간민교육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일제는 일진회 회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조선인회(朝鮮人會)를 만들게 하였다. 조선인회는 한인들을 중국 당국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목표를 세우고, 간민교육회가 북간도 한인사회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일본 당국은 한인 소학교서당노인회불당일진회의 종교인 시천교(侍天敎)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인들의 친일화를 꾀하였다. 결국 일본 당국의 외교적 압력을 받은 중국 당국의 명령으로 간민교육회는 해산되었다.

간민교육회의 회원들이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된 25명이 발기하

여, 1913년 2월 26일에 연길(延吉)화룡(和龍)왕청(汪淸)훈춘(琿春) 등 4개현 유력자들을 초청하여 간민회(墾民會)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 규약초안을 통과시켜 3월 30일에 중국 당국의 공식 승인을 얻었다. 간민회는 중국 지방당국의 관할 내에서 북간도 한인들의 자치적인 조직으로서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간민회는 4월에 김약연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구성하고, 5월에 연길화룡왕청 등의 현에 지방총회를 설립하고, 50호마다 지회를 조직하여 자치적 성격을 완비하였다. 7월에 중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한인호구를 조사하고 국자가에 새로운 회관을 개관하였다. 간민회와 함께 애국청년들로 청년친목회와 대동협신회(大東協新會)를 조직하였다. 청년친목회는 『청년』이란 월간 잡지를 발간하고, 대동협신회에서는 계봉우가 쓴 『중등역사』와 『오수불망(吾鬻不忘)』 등 교과서를 간행함과 동시에 월간 잡지로 『대진(大震)』을 발행하였다.

간민회 회원이 중심이 된 한인기독교인들은 중국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기독교인들과 중한연합전도회를 조직하였다. 한인기독교인들은 일본의 방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북간도 한인교회들을 형식상 중국 기독교단에 소속시켰다.

간민회는 이동휘정재면박찬익 등 3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북경에 파견, 중화민국의 성립을 축하하고 대통령 원세개(袁世凱)에게 중국 내 한인들의 자치적인 지위 허용을 요청하였다. 1913년 중반 경에 중국 입적을 신청한 한인은 약 25만에 이르렀다.

간민회는 1914년 3월에 해산될 때까지 간도 동포들에게 조국정신을 고취하여 사상 변화에 큰 몫을 하였다. 간민회 간부들은 고루한 인습과 아집에 빠져 있던 많은 동포들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며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간민회의 교육권장원들은 구타를 당하

거나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김정규를 비롯한 사우계 회원들의 비판도 완강하였다. 간민회 간부들은 자신들의 진의를 오해하고 있는 유학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이동휘는 1913년 8월에 김정규에게 조국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오래 전에 북간도에 이주한 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강력하였다. 간민회가 북간도 전체 한인을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여 1913년 6월에 최남가한진동홍자문위원인 등은 간민회가 북간도 한인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이주민들과 유학자들 300명을 모아 농무계(農務契)를 조직했다. 농무계는 간민회가 정치적으로 북간도 한인의 자치조직의 지위를 갖는데 반발하였다. 중국 당국과 간민회는 농무계 지도자들이 일본의 첩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한편 강유위(康有爲)가 이끄는 북경의 공교회(孔敎會) 활동에 고무된 사우계의 유학자들이 1913년 11월말에 공교회 연길지회를 조직하였다. 국자가에 집결한 386인의 한인유학자들은 간민회의 신교육과 중국 동화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지방당국은 공교회가 서당을 재건하고 근대적 학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당국은 공교회 간부인 정안립박의풍 등을 일본과 연계를 갖고 있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일제 당국은 1913년 가을부터 한인들의 내부 갈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민회를 조직하여 간민회를 반대하게 하였다.

1913년 말에 간민회가 중국경찰을 동행하고 호구 조사를 실시하자, 농무계와 공교회는 중국당국에 간민회 간부를 비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농무계 지도자들은 간민회를 반대하고 중국당국에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를 열었다. 1914년 1월초에 농무계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연길에 집결한 2천여 명의 한인농민들은 간민회 핵심간부들을 죽이고 회관을 불사르겠다고 위협까지 하였다.

간민회는 총회를 열어 친일적인 ‘불순분자’의 침투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입회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그리고 1만여 명의 대중집회를 개최하여 한인대표를 북경에 파견하여 원세개에게 요청, 한인들의 중국 입적을 지원할 것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에 따라 중국 당국의 명령으로 간민회와 농무계는 해산되었다.<sup>19)</sup>

## (2) 서간도에서의 민족운동

서간도 역시 일찍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농민들이 이주해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 서간도에서는 한인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흩어져 살고 있었다. 1909년 가을에 일제가 ‘남한대토벌작전’을 실시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의병투쟁이 불가능해지자, 신민회 간부들이 국외로 활동무대를 옮겨 독립운동근거지를 건설하려고 백두산과 가까운 서간도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이주하여 한인들이 정착촌을 건설하였다. 신민회 간부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유력한 독립운동근거지의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柳河縣三源浦 鄒家街) 일대였다. 이 지역은 앞에 평지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야산이 이어져 있어 독립운동기지로서 매우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다.

1910년 말부터 이회영(李會榮)의 5형제를 위시하여, 안동 유생인 이상룡(李相龍)김대락김동삼 일행, 이동녕(李東寧)김창환(金昌煥)주진수(朱鎭洙)여준윤기섭(尹琦燮)이탁 등이 대가족을 이끌

19) 潘炳律, 「해외민족운동- 만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180~191쪽.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一潮閣, 1990.

고 1911년 초까지 이곳에 도착하고, 연이어 국내 각지에서 유지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1911년 여름 추가가 대고산(大孤山)에서 이회영이시영이동녕이상룡 등이 노천회의를 열고 독립운동기지를 경영할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였다. 경학사는 병농일치제에 입각한 교육을 통하여 자제들을 독립운동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민단적 성격을 띤 자치기관이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문무쌍전(文武雙全)의 교육을 담당할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낮에는 개간과 농업에 종사하며 틈틈이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독립운동기지화가 시작되었다.

유하현의 한인들은 중국인의 의구심과 한인배척운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복장과 머리 모양을 하고 중국의 풍습과 언어를 배우는데 힘썼다. 그것은 중국 당국의 지원을 획득함과 동시에 일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이주계획이 차질을 빚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주 첫해인 191112년 연속 유례없는 대홍년을 만나 식량마저 부족하였으며, 풍토병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경학사와 신흥강습소의 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경학사 간부들은 활동 자금 모집을 위해 이관직과 장도순을 국내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1913년 봄에 일제의 암살계획을 전해듣고, 이회영은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로, 이동녕은 러시아령 연해주로, 이시영은 봉천으로 떠났다. 신흥강습소의 청년학도들도 국내 또는 노령으로 떠났지만, 김창환윤기섭 등이 동리를 돌아다니며 모금하여 강습소를 계속 유지하였다.

신흥강습소는 1912년 봄에 이회영이 중국당국의 호의로 통화현 합니하(通化縣 哈泥河) 강가에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였다. 신흥강습소는 4년제 중등교육과정과 함께 3개월 또는 6개월의 무관양성

을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경학사가 사실상 해체된 후, 국내로부터 이주민이 증가하자, 1913년 가을부터 경학사의 자치단체적 성격을 계승하려는 단체들이 속속 조직되었다. 그 첫 번째 단체가 부민단(扶民團)으로, 허혁(許赫)이석(李洑) 등이 합니하에서 조직하였다. 부민단은 경학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방조직을 확충하였다. 부민단은 한인자치와 한인사회의 모든 분쟁을 재결(裁決)하고, 중국인 또는 중국관청과의 분쟁을 대신 처리해 주었으며, 신흥학교를 통해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과 각지의 한인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부민단의 최고 목표는 각종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부민단의 본부가 있는 합니하(哈泥河)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민족운동가들은 넓은 토지를 사들여 이곳을 서간도 제2의 독립운동기지로 삼으면서, 신흥강습소를 신흥학교로 개칭하고, 이석영(李石榮)의 재정후원과 교직원학생들의 노력으로 1913년 5월에 큰 교사를 신축하였다. 신흥학교는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 근 1,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을 교육하였다. 신흥강습소나 신흥학교는 형식적으로는 중학교 학제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전쟁을 구현할 무관과 민족운동가를 양성하였다.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조직한 신흥학우단(新興學友團)도 한인의 자치를 향상시키면서 항일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경학사 사장을 역임한 이상룡이 서간도 한인들의 자치자위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자신계(自新契)를 조직하였다. 또 같은 성격을 지닌 교육회도 서간도에서 조직되었다. 이들 3단체는 31운동 전후까지 별도로 활동하다가 31운동후 한족회(韓族會)로 통합되었다.

1913년 3월에 신흥학교 교장 여준과 교감 윤기섭이 신흥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강력한 혁명단체인 신흥학우단(新興學友團)을 조직하였다. 처음에는 ‘옛 땅을 회복한다’는 뜻을 가진 ‘다물’의 이름을 따서 ‘다물단’이라고 하였다가 곧 신흥학우단으로 개칭하였다. 신흥학우단은 만주지역 한인혁명운동의 핵심 조직으로서, 단원들은 서간도는 물론 남북만주, 그리고 국내외 독립운동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삼원보 대화사(大花斜)에 근거지를 둔 학우단은 기관지 『신흥학우보』(新興學友報)를 발간하고, 군사학 등 각종 학술의 연구와 간행물을 발행하여, 혁명이론의 선전과 애국사상 고취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신흥학우단은 50호 이상의 한인거주지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은 신흥학우단에서 담당하였다.

부민단과 신흥학우단은 신흥학교와 각 분지교(分支校)에 노동강습소(勞動講習所)와 노동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였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군사훈련과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민중의 자위체를 조직케 하여 일본 첩자의 침입을 방지하였다.

신흥학우단이 주도하여 1915년에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할 독립군의 군영으로 백서농장(白西農庄)이 설립되었다. 백서농장은 신흥학교와 그 분교와 지교, 그리고 노동강습소 등에서 배출한 청년 약 380여 명이 처음 입영하였다. 봉천성 통화현 팔리초구 소북차(奉天省通化縣八里哨區小北岔)에 위치한 백서농장은 백두산 서쪽편 산록의 사방 2백여 리에 달하는 무인지경의 고원평야에 건설된 독립군영(獨立軍營)이었다. 농장은 일종의 둔전제로 운영되었으나, 영양실조와 병으로 인하여 농장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여 최후로 30여 명이 남게 되었다. 31운동 후 한족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백서농장은 해산되고, 군인들은 유하현 삼원포로 떠났다.<sup>20)</sup>

20) 潘炳律, 앞의 글, 192~196쪽.

## (3) 북만주에서의 민족운동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흥개호(興凱湖) 북쪽의 중국 밀산부 봉밀산(密山府 蜂密山) 부근에서도 일찍부터 독립운동근거지 건설이 추진되었다.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이 미주의 국민회 원동전권위원으로 파견되어 1909년에 이승희(李承熙)와 협의하여 봉밀산에 독립운동근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승희는 1909년 가을에 100여 호의 이민 집단을 거느리고 봉밀산 밑의 기름진 땅 12팍지(1팍지는 32日耕)를 구입하여 터전을 잡고, 한민학교를 건설하였다. 이 한인촌락을 한국을 부흥시킨다는 뜻에서 한흥동(韓興洞)이라 하였다. 블라디보스톡의 자산가 김학만(金學萬)도 별도로 기지개척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국민회가 원동에 파견한 정재관(鄭在寬)김성무(金成武) 등이 봉밀산 기지 개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상설 등은 1910년 3월에 블라디보스톡에 태동실업주식회사(泰東實業株式會社)를 설립하여 한인 유지들을 규합하여 주식을 사게 하고 한흥동의 경영을 후원케 하였다. 김성무는 태동실업주식회사의 자금 모집에 힘입어 밀산현에서 30팍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만주와 노령의 한인농민들을 이주시켜 개간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후일 흥범도가 독립군을 이끌고 봉밀산 지역에 들어왔다. 그는 우리동무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야학과 체력단련을 통해 후일을 도모했다. 흥범도는 한흥동 한민학교의 교장, 교감으로 활약했으며, 이승희와 이상설의 후원으로 봉밀산에 설립된 밀산무관학교의 교관으로도 활약하였다.<sup>21)</sup>

---

21) 潘炳律, 앞의 글, 196~197쪽.



## 2) 러시아에서의 민족운동

### (1) 러시아혁명 이전의 민족운동

러시아령 연해주에는 이미 1860년대부터 러일전쟁 이전까지 한인들이 이주하여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최재형(崔才亨)·최봉준(崔鳳俊)·김학만(金學萬)·차석보(車錫甫) 등은 각 지방 한민회(韓民會)의 풍헌(風憲)·도헌(都憲) 등의 직임을 맡으며 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자치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연해주에서의 의병활동의 중심 인물은 1902년 이래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를 지내다가 러일전쟁 때 의병항쟁을 전개한 이범윤(李範允)이었다. 그는 최재형과 연합하여 3~4천명에 달하는 의병을 모아 노브키에프스크(煙秋)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또 만주 장백현(長白縣)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홍범도(洪範圖)와 김영선(金永先)·엄인섭(嚴仁燮)·안중근(安重根) 등의 의병장이 이범윤의 휘하에서 활동하거나 다른 부대를 편성하여 활약하였다. 이들은 일본과 대립관계에 있는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의 5연발 또는 14연발의 총을 구입하여 일제와 싸웠다.

1908년 여름에 두만강을 넘나들며 국내진입작전을 감행했던 연해주 의병은 가을부터 침체되었다. 그러나 1909년 10월에 안중근 의사가 이또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여 항일열기가 다시 고조되자, 의병 지도자들은 재기를 도모하였다. 1908년 여름에 연해주에 온 유인석은 이범윤·최재형 등에게 의병을 다시 일으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범윤은 노보키에브스크에 의병본부를 설치하고, 지부 설립, 자금조달과 무기구입에 힘쓰며 국내 진입계획을 추진하였다. 북한지방에서 의병활동으로 명망이 높았던 홍범도 역시 국내 진공을 준비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망명한 이상설이중 호신채호이동휘윤해김하구(金河球) 등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급진적인 의병항쟁 보다는 실력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전쟁론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연해주에 미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의 시베리아 지방총회와 그 지회를 결성하였다.

1910년 7월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7월 8일에 유인석을 비롯한 이범윤이상설 등은 노령내의 의병은 물론 국내의 모든 의병까지도 한 조직체로 통합하고 국내진입을 목표로, 연해주 남부 지신허(地新墟) 마을 근처의 재피겨우에서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을 조직하였다.

유인석이 도총재(都總裁)에 추대되고, 이범윤을 창의(彰義)총재, 이남기를 장의(壯義)총재, 우병렬(禹炳烈)을 도총소찬모(都總所贊謀), 삼수갑산에서 활약하던 홍범도와 황해도 의병장 이진용(李鎭龍)을 동의원(同議員)으로 임명하였다. 국내에서 신민회를 주도하던 안창호이갑 등 애국계몽운동계열의 인사들은 동의원, 이상설은 외교대원(外交大員)으로 선정되었다. 연해주 의병의 통합은 물론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의 공동전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3도의군은 유인석과 이상설의 이름으로 고종에게 상소를 보내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연해주로 와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지도할 것을 호소하였다.<sup>22)</sup> 또 블라디보스톡 일본 총영사관에 대표를 보내어, 일본천황에게 ‘일한병합’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는 조약을 극비리에 강제 체결한 1910년 8월 22일의 다음날에 연해주 한인 200명이 블라디보스톡 신한촌(新

22) 尹炳奭, 앞의 책, 178~179쪽.

韓村) 한인학교에 집결하여 성명회(聲明會)를 조직하였다. 유인석 이범윤김학만차석보김좌두(金佐斗)김치보 등의 명의로 취지서를 배포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병합을 비판하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기로 하고, 항의서한에 서명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성명회는 영불어로 작성한 서한에 중국과 러시아 지역 한인 8,624인의 서명을 첨부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영국독일네덜란드이태리중국러시아미국 등 정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항의로 러시아 당국이 9월 13일에 개척리를 포위하고 이상설이범윤 등 성명회와 십삼도의군 간부 42인을 체포 투옥하고, 그 중에서 김좌두안한주이규풍 등을 이르쿠츠크로 추방하였다. 그리고 ‘일한병합’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은 9월 9일에 『대동신보(大東新報)』에 대해 정간조치를 내렸다.

연해주 한인들의 민족운동은 시련에 부딪혔다. 1910년 7월에 제 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어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됨으로써,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의병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1911년 6월에 「러일범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가 자국내의 정치범들을 서로 인도한다는 비밀조항에 합의하였으므로, 러시아 당국이 자국 내에서 한인들이 공공연히 반일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에 귀화한 한인(元戶)들이 의병운동에 비우호적, 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인적물적 지원을 기피했던 것이다. 즉각적인 무력적 방법에 의한 일본과의 결전을 주장하던 ‘급진파(의병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교육과 산업 활동에 의한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방략을 옹호한 ‘완진파’의 애국계몽운동계열의 노선이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점진론’을 주장해온 국민회가 민족운동의 지도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국민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민회는 공화주의적 정치이념을 갖고, 미국인들, 특히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러시아는 만주철도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국민회가 연해주 한인사회에 친미적인 선전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국민회의 활동여건이 어려워지자, 1911년 봄 안창호는 노령을 떠났다. 1911년 6월에 양성춘(楊成春)의 아내와 형이 정순만을 살해하고 기호파가 이 사건의 배후선동자로 무고되자, 정재관(鄭在寬)이강(李剛)은 치타로 도피하였다. 김성무백원보황공도(黃公道) 등 국민회 간부들 역시 기호파와 북도파의 공격으로 구금되거나 오지로 도피하였다.

정재관이강은 9월에 치타에 도착하여 자바이칼주아무르주시 베리아지역에 흩어져 있는 10만명의 한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장로교에서 러시아정교로 개종하여 한인들의 정교 포교에 나서는 한편, 국민회 조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9개의 국민회지회를 기반으로 1911년 말 국민회시베리아지방총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치타지역 러시아정교회의 주선으로 1912년 1월 2일에 『대한인정교보』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새로운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연해주 한인민족운동가들은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조직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연해주에는 4개의 주요한 그룹들이 한인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출신 지역에 따라 기호파(畿湖派), 북도파(北道派), 서도파(西道派), 그리고 1. 5세대 또는 2세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근업회(勤業會) 세력이었다.

한형권(韓馨權)유진률(俞鎭律) 등이 1911년 초에 결성한 근업회는 비교적 파쟁의식이 약했다. 기호파와 서도파 간의 파쟁으로 『대동공보(大東共報)』의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근업회 청년들이 대동공보사 경영을 떠맡고 나서서, 1911년 6월에 러시아당국으로부터 『대양보(大洋報)』의 간행을 인가받았다. 북도파 지도자인 이종호(李鍾浩)는 함북청년회를 기반으로 1911년 3월 이후 러시아당국의 인가를 받는 한인조직 결성에 나서서, 6월 1일에 최재형홍범도 등의 지원을 받아 권업회(勸業會) 발기회를 결성하였다. 근업회도 이종호와 타협하여 6월 16일에 새로운 근업회발기회를 만들었다. 기호파 이상설 역시 독자적으로 러시아당국에 ‘권업회’란 이름의 단체인가를 신청하고 있었다.

이종호와 이상설이 타협한 결과, 11월 24일에 통합된 권업회가 러시아 당국의 인가를 얻었다. 이상설과 김립(金立)의 노력으로 국민회 정재관을 비롯하여 황공도백원보 등 서도파 인물들도 권업회 창립에 참가했다. 1911년 12월 19일 권업회는 신한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간부를 선출하였다. 그동안 이주개척과 항일운동에 투신해 온 인사들 즉, 십삼도의군과 성명회의 핵심인물, 그리고 연해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두 권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총재단에는 도총재(都總裁) 유인석을 비롯하여 이범윤김학만 최재형 등 3인이 총재로 선출되고, 권업회의 의사결정기구인 의사부(議事部)의 의장부의장은 이상설과 이종호, 의원에는 김립한형권김기용이민복이범석홍병환김만송 등 각파의 주요 인물들이 선출되었다. 집행부서에도 각파 인물들이 안배되어 한인사회에서의 지방파쟁을 지양하고 통합을 이루려고 하였다.

러시아당국이 최초로 공식 인가한 한인의 자치적 조직인 권업회는 겉으로는 실업과 교육의 장려를 표방하여, 일본과의 마찰을 우

려한 러시아의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본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다.

연해주와 흑룡주(黑龍州) 일대에 전제권을 가진 극동총독 곤닥찌는 권업회를 후원했다. 그는 1912년 2월 23일에 신한촌을 방문하여 3천여 명의 한인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방문연설에서 한인들의 도덕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칭찬하고, 사회적교육적문화적 활동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권업회는 회원수와 지회를 확대하였다. 1914년 해산될 때까지,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역인 하바로브스크, 이만, 니콜스크 - 우수리스크, 노보키예브스크, 신연동(니콜라옙스크), 바라바쉬 등 10개 이상의 지회를 확대하고, 당초 300명이던 회원수도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권업회는 한인의 자치기관 지위를 부여받아 러시아당국의 행정기능을 대행하였다.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정교행사를 개최하고 러시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약 4,000명의 한인이 러시아에 입적하였다. 러시아의 위탁으로 1913년 3월에 블라디보스톡 거주 한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권업회는 1912년 5월 4일에 기관지로 『권업신문(勸業新聞)』을 창간했다. 『해조신문(海朝新聞)』 『대동공보』 『대동신보』 『대양보』를 계승한 한인사회의 언론지로서 『권업신문』을 주 1회씩 발간하여 한인사회의 교육계몽과 통합에 기여하였다. 1914년 8월 정간될 때까지 126호를 발간하고 그 배포수는 1912년에 930부에서 정간당시는 1,400부로 증가하고, 노령 각지는 물론 국내만주중국관내일본 그리고 미주와 하와이까지 배포되었다.

권업회는 교육진흥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1912년 3월에 거

류민회와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 있는 계동학교(啓東學校)를 한민학교(韓民學校)로 확대하고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민족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 만들었다. 한민학교는 한인사회 최대의 학교로서 러시아령 한인사회 남녀교육의 모범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 학풍이 크게 진흥되어, 1914년 2월 현재, 권업회 본부 또는 지회의 관할 하에 있던 학교가 약 10개에 학생수가 약 1,000명에 달하였다.

권업회는 또한 이만 이북의 라블류 일대에 한인농업단지를 조성하여 한인들을 대거 이주정착시키려는 야심적인 계획을 세웠다. 간부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단지를 물색하고 1912년 12월에 러시아당국의 허가를 얻었다. 자금을 모집하며 농업학교 설립, 자위대와 상주 경찰대의 조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령 한인사회는 1914년을 맞이하여 노령이주 5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권업회장 최재형을 비롯하여 최봉준채두성박영휘 등이 발기하여, 1914년 2월에 7일간 각 지방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업회의 활동은 대체로 러시아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권업회를 통하여 한인들의 러시아화를 도모하고, 한인들은 권업회를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교육, 문화적 함양을 통한 지위향상을 추구했다. 이러한 권업회 활동은 궁극적으로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동휘이종호이상설이동녕 등 민족운동가들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려는 민족운동가들은 1913년 가을에 비밀리에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조직하였다. 러시아인들, 특히 하급병사들 사이에는 러일전쟁 10주년

인 1914년에 일본에 대한 복수전으로서 제2의 러일전쟁이 발발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다. 이동휘이상설이종호정재관이동녕 등은 러일전쟁이 재발할 때, 일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전개할 조직으로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무기구입군대조직 등 준비에 나섰다.<sup>23)</sup>

대한광복군정부는 이상설을 초대 정도령(正都領), 계봉우를 책임 비서로 선출하고, 연해주북간도서간도를 각각 제1제2제3군구로 나누고 독립전쟁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군대양성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1913년부터 동북만(東北滿) 수분전자 나자구(綏芬甸子羅子溝)에 독립운동사상 최초의 사관학교인 대전학교(大甸學校)를 설립하였다. 또 러시아 극동총독과 교섭하여 흥개호 주변의 이유태(伊柳街) 및 흑룡강과 송화강이 합류하는 곳의 토지를 빌려 광복군훈련을 위한 군영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양군호(養軍號)해도호(海島號) 등 광복군양성을 위한 비밀결사를 운영하였다. 노동회도 노동수입 중 일부를 저축, 광복군 양성에 사용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1914년 8월 1일에 블라디보스톡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한인사회는 러시아정부의 전쟁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기독교와 기금모집을 통하여 전쟁을 후원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이 동맹관계가 됨으로써 한인사회는 국제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고 말았다. 한인 민족운동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곧닷지 총독은 한인노령이주50주년기념식의 연기를 명령했다. 연해주 군정순무사는 8월 20일에 권업회 등의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고, 36명의 한인지도자들에게 48시간 내에 러시아영토를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권업신문』 역시 9월초에 폐간되었다. 신한촌 거류민회는

23) 潘炳律, 앞의 글, 197~205쪽.



해산되자, 이름을 위생부로 바꾸었으나 여러 제약을 받으며 겨우 민회활동을 유지하였다.

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의 활동도 제약받았다. 정재관이 권업회에 참여하기 위해 1911년 12월말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난 이후, 이강이 시베리아지방총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시베리아지방총회는 1913년 5월말에 16개 지회 대표들이 참가한 제1회 대회에서 『대한인정교보』를 기관지로 인정하고, 1914년 6월 중순에 19개 지회 대표들이 참가한 제2회 대회에서 노령한인이주50주년기념행사에 19개의 지회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15년 12월에 개최 예정이던 제3회 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열리지 못했다.

## (2) 러시아혁명 이후의 민족운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7년 2월혁명에 이르는 시기는 러시아 한인 민족운동의 일대 침체기였다.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농촌오지 또는 북만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설이갑이 1917년 4월 5월에 사망하고 이동휘는 러시아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노령 한인사회를 결집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입적한 한인, 즉 원호인들의 주도로 1917년 6월 4일에 니콜리스크에서 이르쿠츠크 이동의 각지 대표 9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로한족대표자회(全露韓族代表者會)가 개최되었다. 사회혁명당 계열의 원호인 지식인들이 주도한 대회는 러시아 임시정부 지지를 결정하고 축전을 보냈다. 그러나 대회는 러시아내에서의 원호인만의 자치와 권리신장에 비중을 두고, 항일대책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에 입적하지 않은 여호인들의 참여도 배제되었다.

결국 다수파인 원호 70여명과 소수파인 여호 30여 명의 대표들

간에 합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호인만으로 고려족중앙총회(高麗族中央總會)를 조직하는데 머물렀다. 원호인들의 민족자치 우선의 입장은 10월혁명까지도 지속되었다.

1918년 초에 러시아정교 신부 출신인 오와실리(吳永俊)와 러시아장교인 유스테판, 김립박이반채성오이한영전태국 등 한인 지도자 10여명이 발기하여 한족중앙총회(韓族中央總會)를 결성하였다. 한족중앙총회는 고려족중앙총회가 여호인들을 배제한 점을 비판하고, 입적비입적을 불문하고 대동단결하고 국가 장래에 필요한 교육과 실업 진흥을 꾀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고려족중앙총회는 한족중앙총회의 대동단결주의를 수용하여 한족중앙총회와의 제휴통합 교섭에 나섰다.

1918년 1월 17일에 양 진영은 한인의 대동단결에 합의하고 통합하였다. 그러나 시베리아독립정부를 지지하는 고려족중앙총회와 중앙의 소비에트정부를 지지하는 한족중앙총회의 대립적인 입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중앙에서 10월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혁명당세력의 강제지역인 시베리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볼셰비키세력이 아직 확고한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한인들이 시베리아 정부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족중앙총회에 맞서 독자적인 세력 결집을 꾀했던 한족중앙총회 주도자들을 중심으로 1918년 3월에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선인정치망명자회의가 개최되어,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원동 노령지역의 10월혁명 지지파들이 원동인민위원회와 하바로프스크시 볼셰비키당의 후원과 지도하에 추진한 대회에는 이동휘김립양기탁이동녕유동열홍범도김성무김하구 등이 참여하였다. 대회에서는 러시아 볼셰비키혁명과 조선

독립운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부르주아민주주의적 또는 입헌군주제적 입장에 있던 인물들로, 순수한 독립운동만을 위한 광의단(光義團)을 조직하고, 원동인민위원회로부터는 후원만을 얻자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동휘의 제안에 찬성하는 다수파는 불셰비즘에 찬동하고 조선혁명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여 불셰비키세력과의 밀접한 연대를 강조하였다.

이동휘의 주장에 반대한 그룹은 유동열을 제외한 이동녕양기탁안정근조성환 등 신민회 간부들 대부분이었다. 이동휘의 제안과 불셰비키세력의 주장을 지지한 좌파그룹의 이동휘김알렉산드라유동열박애이한영김립오성묵오하묵이인섭유스테판오와실리임호전일박이반 등은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을 발기하였다. 한인사회당 창립을 위한 한인사회당중앙위원회 확대 총회를 1918년 5월 10일에 개최하고 중앙간부를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소비에트러시아와의 연대와 반일반제(反帝)의 사회주의 노선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조직선전군사 등 주요 부서를 설치하였다.

한인사회당은 중앙간부위원장으로 이동휘, 부위원장에 오와실리를 선출하고 청년부의장 오성묵, 한글서기 겸 『자유종』 주필 김립, 군사부장 겸 군사학교장 유동열, 재무부장 겸 선전부장 이인섭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장교훈련을 위한 군사학교를 설립하고, 김알렉산드라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 주둔 일본군 병사들을 상대로 반제반전사업을 추진하였다.

한인사회당은 원동인민위원회의 승인과 지원 하에 하바로프스크·이만니콜리스크바라바사연추 등 각지에 이동휘유동열김립이한영 등 간부들을 파견하여 불셰비키혁명세력의 적위대(赤衛

隊)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1918년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니콜리스크에서 제2회 전로한족 대표자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선 도시에서는 영국프랑스의 암묵적 지원을 받은 체코군에 의한 반볼셰비키 봉기가 일어나고, 체코군 구출을 명분으로 일본군 등 서구열강의 무력개입이 임박해 있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고무된 러시아 반혁명세력이 재집결하는 등 볼셰비키세력이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대회에는 노령의 각 지방 단체 대표와 학교 대표 129명이 참가하였다. 한인사회당은 소비에트 권력만이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한인노동자들의 합법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에트정부의 지지와 승인을 얻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로한족중앙총회의 본부를 소비에트 볼셰비키세력의 본거지인 하바로프스크로 이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입적인 중심의 다수파가 반대함으로써 이 시도는 좌절되었다.

대회에서는 시세문제와 토지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전개되었다. 대회는 자유평등우애를 근본으로 하여 민족의 자립생활 수행을 위하여 대러시아혁명에서 얻은 바를 일심단체하여 표방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볼셰비키정권에 비판적이면서도 이에 도전할 수 없는 당시 연해주 한인사회의 고충이 반영된 것이었다. 한인사회당의 소비에트정권지지 결의안을 무마하기 위해 대회가 중립적인 입장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인사회당 대표들은 대회를 탈퇴하고, 한인사회당 계열은 전로한족중앙총회의 주요간부로서 선출되지도 못하였다.

제2회 전로한족대표자회가 폐회한 후, 6월 29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체코군이 반볼셰비키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극동 각 지역의

볼셰비키정권들이 무너졌다. 8월초에 일본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무력 개입함으로써, 한인사회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일본군은 체코군백위파군과 협력하여 볼셰비키정권을 무너뜨렸다. 체코군이 봉기하자, 한인사회당의 전일유동열 등이 100명의 조선인 적위대를 이끌고 러시아적군과 함께 우수리전투에 참가하여 연합군과 합세한 카르미코프 백위파군과 싸웠다. 그러나 적위대원들은 반수 이상이 전사하고, 한인사회당의 주요 간부들은 북만주나 농촌지역으로 도피잠복하였다.

1918년 11월에 중간파 주도의 옴스크정부가 콜차크제독의 군사 쿠데타로 붕괴된 이후, 1920년 초 볼셰비키혁명세력이 백위파세력을 구축하게 되기까지 시베리아는 한인민족운동에 탄압적인 백위파 천하가 되었다. 한인사회당 당원들은 러시아 볼셰비키세력과 함께 농촌이나 지하로 잠입하였다. 사회혁명당계열의 전로한족중앙총회는 적극적인 활동을 삼가면서 가까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파리강화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령의 한인사회도 재개의 기회를 맞았다. 31운동을 전후로 민족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전로한족중앙총회와 한인사회당은 전체 민족운동선상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조직을 정비하였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파리평화회의에 2명의 대표를 파견하는 한편, 노령과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세력을 결집하여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확대개편하였다. 그리고 1919년 3월 17일에 연해주지역의 독립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임시정부적 기관을 자임하게 되었다. 지하로 잠입하였던 한인사회당은 이동휘를 비롯한 간부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재집결하면서 활동재개를 모색하고, 1919년 4월말 한인사회당대표자회의를 개최

하고 신민단(新民團)과의 합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 재건하였다.<sup>24)</sup>

### 3) 중국 관내지역에서의 민족운동

#### (1) 중국 내 한인사회의 형성

한인들이 중국 관내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였다. 초기에는 한인들이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가 북간도·서간도에 이주 정착했지만, 1900년대에 이르면 점차 북만주와 중국 관내로 이주영역을 넓혀갔다.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무대도 이들 지역으로 확산되어갔다.

중국 관내에서 한인독립운동은 상해남경북경무한(武漢)중경(重慶)광주(廣州)연안(延安) 등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전개되었다. 1910년대에는 상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였다. 상해가 반일독립운동의 주요 무대가 된 것은 첫째 국내와 가깝고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교통요충지라는 점, 둘째 국제열강을 비롯한 각국의 외교기관이 주재하고 있어 외교활동을 통한 효율성이 기대되었던 점, 셋째 열강의 조계(租界)들이 설치되어 있어 활동 공간의 확충이 가능한 점, 넷째 중국월남인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세력과의 국제연대 형성의 가능성이 기대되었던 점 등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한인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1911년의 중국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성공 소식에 고무되어 중국관내로 망명한 경우가 많았다. 여운형(呂運亨)김규식(金奎植) 등 청년 민족운동가들은 신해혁명의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고 중국행을 단행하였다.

---

24) 潘炳律, 앞의 글, 205~215쪽.

한인들은 상해로 모여들어 프랑스조계와 공공조계에 동지를 틀었고, 일부는 상해현에도 거주하였다. 프랑스조계는 일본세력이 개입할 수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므로, 한인의 주된 거주지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만주독점과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묵인하였으나, 프랑스는 영미에 대항하는 정책의 기초 위에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또한 프랑스는 일본 도쿄에 머물며 반프랑스 독립운동을 전개한 베트남왕국 망명세력을 놓고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국제관계는 프랑스조계 당국의 한인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조계 당국은 한인의 반일독립운동에 대해 방관적 또는 지원 입장을 취하였으며, 한인들을 대일본 정보수집 및 외교활동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한인들이 프랑스조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1910년 이전에 상해 한인은 50명 정도로 추정된다. 1910년대 초반에 이르러 상해에는 소규모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당시 한인들은 상업에 종사하거나 영국미국의 전차회사에서 일했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성공하자, 많은 한인들이 상해로 모여들어, 1917년 중반에는 500여 명으로, 그리고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시기에는 1,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상해로 이주한 한인들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았고 경제적 상황도 나은 편이었다. 그들은 취업유학독립운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상해로 이주했으나, 공통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강렬한 반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인들은 기독교 대중교 등의 종교활동을 통해 상호부조와 단결의 기틀을 다져갔다.

기독교인들은 1914년 10월에 우호한인예배회(寓滬韓人禮拜會)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주말 예배행사를 가졌다. 대종교도 신규식(申圭植)·조완구(趙琬九)·김두봉(金斗奉)·박찬익(朴贊翊) 등을 중심으로 어천절(御天節)·개천절(開天節)·국치기념일(國恥紀念日) 행사 등을 주관하였다. 종교행사는 한인들의 단합과 경각심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적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1918년 가을에 여운형·신석우(申錫雨) 등의 주도로 상해고려교민친목회(上海高麗僑民親睦會)가 결성되었다. 친목회는 상해 거류동포의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한인사회를 결집시키며 독립운동의 색채를 띠었다.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젊은 회원을 중심으로 『우리들 소식』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신규식·조성환·박은식·민충식이 중심이 되어 체화동락회(楸華同樂會)를 조직하여, 한인의 단결 및 국외 한인단체와의 연락 등을 도모하였다.

중국에는 1910년대 초부터 중국 및 구미의 대학에 유학하려는 한인들이 모여들었다. 중국혁명의 진전에 따라 유학생들은 1913년 후반기부터 상해로 이동하였다. 한인 학생들은 남양공학(南洋公學)·복단대학(復旦大學)·금릉대학(金陵大學)·동오대학(東吳大學) 등을 비롯하여 각급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었다. 1915년 이강희(李康熙) 등 55명이 상해한인유학생회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은 중국인 학생활동에도 참여하였다.<sup>25)</sup>

## (2)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

신해혁명에 고무되어 망명한 한인들은 한국의 독립과 혁명을 위

25) 韓相禱, 「해외민족운동- 중국 관내지역」,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15~220쪽.



해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형성을 희망하고, 중국혁명에의 참여를 통한 한중연대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신규식조성환은 중국혁명에 지지의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남경의 유학생들은 1911년 말 학생군(學生軍)에 들어가 북벌에 참가하고, 다시 육군학당(陸軍學堂)에 들어가 각종 군사기술을 습득하였다. 혁명군의 준비확충을 위한 기부금 모금과 의료구호 활동에도 동참하였다.

그렇지만 전체 한인의 명의로 중국혁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다. 한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대변하고 활동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중국 혁명세력측에서 관내 각 지방에 한인단체를 만들고, 각 지방에 한인동지들과 급히 연락하여 서로 보호 부조하자는 것을 제안해 옴에 따라, 한중연대의 입장에서 동제사(同濟社)와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가 결성되었다.

한인들은 중국혁명 성공의 날이 곧 한국의 독립해방의 때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중국 혁명세력과의 연대는 한국해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신규식은 『민립보(民立報)』 사원으로 반일혁명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던 서천복(徐天復)을 통해 진기미(陳其美)·송교인(宋教仁)·황흥(黃興)·대계도(戴季陶) 등 중국혁명의 주요인물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의 주요 지지기반인 『민권보(民權報)』, 혁명의식을 진작시킨 『민립보』 등의 언론기관, 진보적 혁명문학단체를 표방하며 혁명적 논조를 주도한 남사(南社), 중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사무보조와 취업알선 기관을 표방한 환구중국학생회(寰球中國學生會)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중 혁명세력의 연대를 모색한 신규식은 환구중국학생회의 취지와 역할을 참조하여 박달학원(博達學院) 설립을 주도하였던 것 같다.

1912년 4월 중순에 손문(孫文)을 면담한 신규식은 한중 간의 국제연대를 통한 독립운동의 기반조성이 선결과제이며, 그러한 유대 위에서 한인독립운동의 독자적인 행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규식은 한인 청년들을 선발하여 운남강무당(雲南講武堂)에 보냈다. 이범석김종진김홍일 등의 중국 군사학교 유학, 조동호 신성모민필호정환범 등의 각급 고등교육기관 진학은 신규식의 소개와 알선으로 이루어졌다.

1910년대 중국 혁명세력과 한인 독립운동세력의 국제연대는 신아동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912년 말에 결성된 신아동제사의 주요 인물은 신규식과 진기미송교안호한민(胡漢民)요중개(廖仲凱)대계도진과부(陳果夫)오철성(吳鐵城) 등이었다. 특히 진기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신아동제사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그 감독이 되어 물질상정신상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외에 조소앙은 1916년 인도중국대만필리핀월남파키스탄 등의 민족운동세력과의 반제연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였다.<sup>26)</sup>

### (3) 중국 내 한인단체의 독립운동

1912년 7월 4일에 신규식박은식이 주도하여 신채호조소앙 문일평(文一平)김규식박찬익조성환신건식민필호신석우한진산정원택여운형선우혁조동호홍명희 등을 참여시켜 동제사(同濟社)가 결성되었다. 동제사는 총재이사장간사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성기에는 회원이 300여명이나 되었다. 동제사는 표면상으로는 동포들을 서로 돕는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국권회복을 전개한 독립운동단체였다. 신규식김규식홍명희정인보문일평 등은 상해와 남경 지역을 왕래하며 유학생들을 지도하였다.

26) 韓相禱, 앞의 글, 220~224쪽.

그리고 동제사 총회 및 창립기념식, 박달학원 개학식, 흥범식안 증근의사 추도회 등을 개최하여 단원의 결속을 다졌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동제사의 성격도 상호부조적 차원을 넘어 점차 반일 민족주의 운동단체로 전환하여 갔다.

동제사는 중국 각지와 구미일본에 분사(分社)를 두었으며, 『신한민보(新韓民報)』 『국민보(國民報)』 등 미주 한인들이 발행한 신문을 국내로 반입시켰다. 동제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운동 단체로서 성격이 변모되어 갔다.

1915년에는 신규식박은식 등이 프랑스조계 명덕리(明德里)에서 대동보국단(大同輔國團)을 조직하여, 시베리아간도지역의 한인들과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한진교(韓鎭敎)선우혁(鮮于赫) 등 국내 인물과 연계하여 세력 확대에 주력하였다.

1913년 12월 17일에 개교한 박달학원은 프랑스조계에 위치하며, 중국유럽미국의 대학에 유학하려는 한인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한 예비교육기관이었다. 동제사의 부설적 성격을 띤 박달학원은 박은식신채호홍명희문일평조소양조성환 등과 중국인 농죽(農竹)과 미국 국적의 화교 모대위(毛大衛) 등이 교사로 참여하였다. 교육기간은 1년 6개월이며, 영어중국어 지리역사수학 등을 교육하였다. 세 차례에 걸쳐 1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가족을 동반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 자체의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한인 자력에 의한 교육기관 설립 노력으로 1916년 가을에 여운형선우혁한진교김철 등이 중심이 되어 상해한인기독교소학교(上海韓人基督教小學校)가 개교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공공조계 곤명로 재복리(昆明路載福里) 75호로 이전하여 인성학교로 개명하였다. 재정적 기반이 약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

다. 1918년 10월에는 공공조계에 있는 미국인 운영의 명강중학(明強中學) 내로 이전하였다. 인성학교는 국어국사지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어한문산술이과수공(手工) 등을 가르쳤다. 인성학교는 상해고려교민친목회의 교육부 소관이었다가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상해한인교민단에서 운영하였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한인독립운동의 국제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1월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인 청도(靑島)를 점령하였다. 북경 원세개(袁世凱)정권의 친일정책과 일본의 21개조 요구는 중국인들의 반일운동을 자극하였다. 한인사회는 이러한 국제관계를 독립운동의 호기로 파악하였다. 일부 한인들은 중국과 독일의 연합으로 일본이 패배하리라고 전망하였다. 1914년 말 성낙형(成樂馨) 등이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을 결성했다. 이듬해 3월경에 러시아의 탄압을 피해 상해로 온 이상설을 중심으로 신한혁명당은 조직을 정비하고, 열강과의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노선, 국내외 독립운동세력과의 연계, 무장투쟁 노선 등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 신한혁명당은 본부장(이상설)재무(李春日)교통(유동열)외교(성낙형)감독(박은식) 등의 부서를 갖추고, 상해한구(漢口)심양장춘(長春)안동연길 및 서울원산평양회령나남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대한제국 망명정부 수립을 목표로 신한혁명당은 광무황제를 당수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성낙형을 국내에 파견, 망명정부 조직을 제안하는 공문을 광무황제에게 올리고 중국을 상대로 한 중한의방조약(中韓宜防條約) 체결의 위임장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상설 등은 활동무대를 북경으로 옮겼고, 조성환은 서간도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독일정부의 보증 하에 북경정부와 한국망명정

부 간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장래 독립전쟁에 대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이 유럽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일본에 빼앗긴 청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진출하면,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결국 각국의 연합체제가 구축되고 일본이 고립되어 일본의 패배가 분명해 질 것이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국과 연합하여 독립 쟁취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신한혁명당의 독립운동 계획이었다.

신한혁명당은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만주 시베리아미주 지방을 통할하여 단일부대를 편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즉 중국과 독일이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영국러시아도 원조할 것이며, 이때 독립군부대가 일본군의 운송로를 차단하여 일본군을 패배시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914년 5월에 중국이 21개조를 수락함에 따라 중일 개전의 기대는 무산되고, 전황도 독일의 패전과 일본의 연합국 합류국면으로 급변하였다. 더욱이 성낙형이 체포되어 국내조직이 붕괴됨에 따라 국제정세를 이용하려는 외교 노력은 좌절되었다. 중국 독일 등의 지원을 통해 독립전쟁의 기반을 마련한 토대 위에, 만주와 노령의 독립전쟁 역량을 결합시키려고 한 신한혁명당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신한혁명당은 신규식 중심의 상해지역 공화주의세력과, 이상설 등 만주노령지역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인물들의 연합이었다. 신한혁명당이 노령북간도미주 지역과 상해북경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던 국외 독립운동세력이 연계하는 한편, 국내조직과의 연결을 시도한 것은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는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으로 이어졌다.

신한혁명당은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의 미숙성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환경을 독립쟁취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한혁명당은 중국혁명에 대해 우려와 함께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상해 한인사회는 중국혁명세력의 원세개 토벌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1917년 7월에 신규식(申櫟)조소앙(趙鏞殷)신석우(申獻民)박용만한진교(韓震)홍명희(洪煒)박은식신채호윤세복(尹世復)조성환(曹煜)박기준(朴基駿)신빈(申斌)김규식(金成)이일(李逸) 등 14인이 발기하여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였다. 대중교동제사 신한혁명당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발기한 대동단결선언은 민족통일기구 결성과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인 독립운동세력으로 하여금 신한혁명당식 국제외교 방안을 일전하여, 독립운동의 활로를 새로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케 하였다. 권업회대한광복군정부간민회부민단 등 국외 독립운동단체들이 해산되었으며, 신한혁명당에 의한 망명정부 수립 시도도 무산되는 등 독립운동의 분발과 재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국내외의 요구에 호응하여 독립운동세력이 임시정부 수립을 구상한 것이 대동단결선언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조소앙이 작성한 선언은 대동단결의 필연성을 전제하고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전선 결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한혁명당 등이 견지하였던 입헌군주제 노선을 종결시키고 국민주권 노선을 내세웠다. 그리고 독립을 위한 전단계로 임시정부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통일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선언서는 민족대회와 혹은 임시의정원의 조직, 거류민단 또는 연통제의 조직을 통한 통치체제 구축, 공화제 헌법의 제정과 법치주의 시행,

국내의 친일경향 대두와 독립의지 퇴조에 대한 대책 등을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은 상해에서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니콜리스크, 미주의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중국의 상해북경 그리고 만주 등의 독립운동세력에게 송달되었다. 선언에서 역설한 임시정부수립론은 1910년대 미주 한인사회에서 제기된 ‘무형국가론(無形國家論)’을 비롯한 임시정부수립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sup>27)</sup>

#### 4) 재미한인의 민족독립운동

##### (1)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

일제 침략이 본격화하던 20세기 초에 미주에서 형성된 한인사회는 그들의 자치와 근대적인 역량을 향상시켜 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목표로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한인의 비공식적인 미국 이주는 18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미주 본토에는 1887년경에 의주(義州) 인삼상인이 진출하여 중국인들을 찾아다니며 인삼을 팔았다.<sup>28)</sup> 인삼상인은 이후 증가하여 1902년에는 20여명에 이르렀다.

1902년 5월에 한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거주하는 한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인 F. F. 바스웁을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명예영사로 서임(敍任)하였다.<sup>29)</sup> 1902년 10월경에는 미국 본토에 적어도 30명 이상의 한국인이 있었다. 미국에 입적한 한국인 5명, 유학생은 뉴욕에 5명, 샌프란시스코에 8명, 각지에 산재하는

27) 韓相禱, 앞의 글, 224~237쪽.

28) 『皇城新聞』, 1902년 10월 23일, 잡보.

29) 盧載淵, 『在美韓人史略』, 1963, 羅城, 456쪽.

사람이 10명 좌우, 또 오하이오 대학교에 부인 1명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인삼과 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체재하는 한인이 상당수 있었다.

한국인의 하와이 이주도 18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9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인삼상인으로 활동했던 한인들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1896년 5월에 중국인으로 기록된 한인 2명. 1898년에는 박(Park)의 성을 가진 한국상인, 식료품상인 4명, 약장수 3명이 도착했다. 1900년 1월에는 한인 인삼장사 2명과 약장수 3명이 도착했다. 1900년 7월과 1901년 6월 사이에도 4명이 도착하였다. 한인 인삼상인약장수식료품상인들은 중국인일본인 거주지를 찾아다니면서 상품을 팔았다. 그리고 1901년 7월초부터 1902년 6월 말까지 한인 12명이 일본을 거쳐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미주 한인사회는 1902년 12월에 시작된 공식적인 하와이 노동자 이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30)</sup> 하와이는 1778년 1월에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에게 발견된 이후, 1835년경부터 사탕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수적으로 감소되고 노동을 싫어하여, 농장주와 하와이 왕국은 1852년부터 중국 노동자(苦力)를 도입하였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3년 계약이 끝나면 도시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한 민족이 노동력을 독점하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중국 노동자의 도입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미국이 1882년에 중국인배제법을 실시하자, 1883년 하와이도 중국인 이주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30) 崔昌熙, 「韓國人の 하와이 移民」, 『國史館論叢』 第9輯, 국사편찬위원회, 1989, 147~238쪽. 최봉운, 『미국속의 한국인』, 종로서적, 1983, 72쪽. Wayne Patterson,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Immigration to Hawaii, 1886~191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9p.



농장주와 하와이 정부는 1878년부터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노동자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든 노동을 기피했다. 1881년에 노르웨이인 600명, 1882~1885년에 독일인 300명이 도착하였으나, 운송비용이 너무 비쌌다. 포르투갈인들이 1878년 이래 약 14,000명이 도착하였지만, 역시 운송비가 비싸고 높은 임금을 요구하였다.

농장주들은 일본인 노동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5년부터 제도적인 일본인 이민이 시작되어, 1890년대 초에는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집단을 형성하였다. 하와이 일본인은 1890년에 12,610명, 1896년에 24,407명에 이르렀다. 일본인 노동자들도 농장을 떠나 도시로 진출하였다. 또한 그들은 공동 파업을 일으켜 작업을 중지시키기 일쑤였다.

농장주들은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를 도입함으로써 일본인의 파업을 줄이고 저임금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관심에서 한국인 노동이민이 1896년 가을에 농장주들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탕농장회사인 핵필드회사가 하와이 정부 각료회의에서 한국 노동자 도입을 제안하여 11월 2일에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곧 바로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1898년 미국 대통령 맥킨리가 하와이 병합을 선포하자, 다시 설탕산업이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값싼 노동력 확보가 절실한 농장주들은 일본인들을 계속 도입하였다. 일본인 노동자가 급증하여, 1902년에 농장의 총 노동자 42,242명 중 일본인이 73.5%를 차지하였다.

일본인들의 파업과 도주도 점증하였으며, 농장주들의 반감과 불신도 점차 커져갔다. 일본인들은 좋은 조건을 찾아서 농장을 옮기고, 도시의 상업에 진출하여 백인 상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으로 본토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노동자의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절실했다. 농장주들은 한국인은 중국인·일본인보다 훌륭하고 가장 부지런한 노동자라고 알고 있었다. 1901년 여름에 하와이공화국의 외무장관 쿠퍼(Henry E. Cooper)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국인 도입을 제기하였다.<sup>31)</sup> 하와이 사탕수수농장협회는 인천에 있는 미국무역회사 사장 타운센드(Walter D. Townsend)와 접촉하여 이민문제를 추진하였다. 또 1902년 3월초에 하와이에 기착한 주한미국공사 알렌을 만나 한국인의 하와이 이주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알렌은 3월말에 고종을 납득시켜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한 후, 데셀러(David W. Deshler)를 이민모집 책임자로 선정하였다. 인천과 일본 신호(神戶)와의 해상 수송을 독점하고 있던 데셀러는 이민 수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하와이사탕수수농장협회로부터 이민 1인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받고 이민사업을 추진하였다.<sup>32)</sup>

고종은 1902년 11월 칙령을 선포하고 데셀러에게 노동자의 모집과 하와이로 보내는 운송업무를 부여하였다. 당시 흑심한 기근이 겹쳐 외국에서 쌀을 수입할 사정이었으므로, 관리들은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정부는 11월 16일에 수민원(綏民院)을 설치하여, 외국에 여행 또는 이주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데셀러는 동서개발회사를 인천에 설립, 이민모집에 착수하고, 모

31) 徐光云, 『美州韓人七十年史』, 海外僑胞問題研究所, 1973, 29~30쪽.

32) 崔昌熙, 앞의 글, 176~181쪽.

집과 운송에 따른 재정문제를 관장하기 위해 데실러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민모집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원산목포진남포 등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도 광고하였다. 그러나 이민 응모자가 적었다.

동서개발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선전을 강구하여 하와이의 기후와 환경을 소개하고, 월급 16달러는 한화 64원으로서 큰 소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인천 내리감리교회 목사 존스(George H. Jones)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존스는 교회신자들과 이웃을 설득하고, 서울 등지까지 다니면서 이주를 권장하였다.

기독교인과 부두노동자 등 121명이 첫 이주자로 확정되었다. 이주자들은 동서개발회사로부터 100달러 정도의 돈을 지급 받았다. 50달러는 선임으로 데실러가 지불하고, 나머지 50달러는 지참금조(持參金條)로 이민감독관에게 보이기 위해 이주자들에게 지급되었다.

1902년 12월 22일에 이민 제1진 121명이 일본 대판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의 겐카이(Genkai)호에 승선, 인천항을 떠났다. 일본 신호(神戶)에서 신체검사 결과 19명이 탈락하여 102명이 상선 개릭(Gaelic)호로 하와이로 향했다. 1903년 1월 12일 화요일 자정에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했다. 다음날 신체검사 결과 16명이 귀국 조치되고, 86명(남자 48명, 여자 16명, 어린이 22명)이 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민들은 오아후섬의 와이아루아 농장의 무쿠레이아(Mokuleia) 막사에 도착하여, 사탕수수 배양과 관개시설 건설 등의 노동에 종사하였다.

제2차 이민 집단 90명이 1903년 2월 8일 인천항을 출발, 3월 2일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신체검사 결과 27명이 불합격되어, 63명만이 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오아후섬의 북부 해변에 있는 카후쿠(Kahuku) 농장에 도착, 나무 칩상을 갖춘 약 20동의 오두

막집으로 구성된 막사에 배치되었다. 부부에게는 방 1개가 허용되고, 독신자들은 3, 4명이 한방에서 같이 쓰도록 배정되었다. 그리고 한인 노동자들은 매월 16달러, 통역자는 30달러씩을 받았다. 제3차 이민 85명은 3월 1일 인천항을 떠났다. 신체검사 결과 73명이 하와이에 입국하였다.

이후 한국인의 이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응모자들은 한국에서 1차 신체검사에 통과해도, 일본의 장기(長崎)신호 횡빈(橫濱)에서 2차 신체검사를 받아 질병이 있는 자는 탈락되었다. 그리고 10여 일이 걸리는 항해 후 호놀룰루 항에서 3차 신체검사를 받고 불합격되면 한국으로 귀환 조치되었다. 신체검사가 엄격했던 것은 당시 한국 각지에 콜레라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만연된 때문이었다. 호놀룰루에서 전염병이 발견되면, 이민 전체를 며칠씩 심지어 10여 일간 격리시키기도 하였다.

1902년 12월부터 1905년 7월초까지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한인은 모두 7,226명이었다. 1903년에 16차의 선편에 1,133명, 1904년에 33차의 선편에 3,434명, 1905년 7월초까지 16차 선편에 2,659명이 이주하였다. 남자가 6,048명(83.7%), 부녀자 637명(8.8%), 남녀 어린이 541명(7.5%)이었다. 7,226명중에 479명(6.6%)이 신체검사에서 탈락되어 환국하였으므로, 실제 이민은 6,747명이었다 한다.<sup>33)</sup>

그러나 1905년 6월까지 총 7,296명이 이주하고,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총 98명이 하와이에 도착하여 총 7,394명이 도착했다는 추정, 그리고 1905년 9월에 정부가 파견하여 한국인의 하와이 이주 상황을 살펴보고 귀국한 윤치호(尹致昊)의 보고에 의하면, 1905년 7월 1일까지 7,519명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고 한다.<sup>34)</sup>

33) 崔昌熙, 앞의 글, 192~206쪽. 盧載淵, 앞의 책, 458쪽.

34)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 章文閣, 1973, 80~81쪽.

『大韓每日申報』, 1906년 1월 12일, 잡보.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알 수 없다. 대체로 7,200여 명에서 7,500여 명이 건너갔으나, 신체검사에서 480명 정도가 탈락되어 실제 이주한 한인은 6,700여 명 내지 7,040명 정도이었다.

이주자의 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평안도가 가장 많고, 충청도가 가장 적었다. 교육정도는 65%가 문맹이었다. 신분을 보면, 선비, 사족 후예, 광무군인(光武軍人), 정부의 하급관리, 경찰, 교사, 목사, 정치적 망명객, 통역, 동학잔당, 학생, 농민, 소작인, 머슴, 광부, 잡역노동자, 부두노동자, 낱품팔이, 부랑아, 건달, 승려 등 다양하였다.<sup>35)</sup>

한인들은 일을 잘 해 사탕수수농장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일본인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반대하고, 일본정부가 한국에 압력을 가해 1905년 4월에 한국정부가 갑자기 이민금지령을 내려 하와이 이민은 금지되었다.<sup>36)</sup>

하와이에 이주한 한국인들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조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곧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전개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 (2) 하와이 한인사회의 민족운동

### ① 하와이 한인단체의 조직

1903년 이민 초기부터 한인들은 사탕수수농장 단위로 동회(洞會)를 조직하여 질서 유지, 상호부조, 권익신장을 도모하였다. 동회는 투표로 선임하는 동장과 총무서기사찰(查察)로 구성되었

35) 崔昌熙, 앞의 글, 229~232쪽.

36) 崔永浩, 「韓國人 初期 하와이 移民」,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5, 943~966쪽.

다. 동장은 밖으로는 동중을 대변하며, 안으로는 한인들 간의 분쟁과 마찰을 조정하고 규율을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규율 위반자에게는 벌금 1~2달러를 부과하였다.<sup>37)</sup>

농장에서는 야간에 영어학급을 열어 청년들은 교육하고, 기독교회를 조직하여 주일에 예배하였다. 카후쿠농장의 한인들은 1903년 봄에 서로 돕고 스스로 규제하자는 목적에서 자조회(自助會)를 조직하고, 상호친교 강화, 부녀자들의 존중 보호, 도박음주 금지, 수상한 여자들의 막사 출입을 금하는 규정을 만들었다.<sup>38)</sup>

한인들은 상호간의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조직하였다. 1903년 11월에 홍승하(洪承河)의 지도로 하와이 여러 섬의 청년들이 호놀룰루에 집합하였다. 홍승하(尹炳球)문홍석(文鴻錫)박윤섭(朴允燮)임치정(林蚩正)임형주(林炯住)김정국(金正洙)송헌주 등 감리교 계통의 인사와 유학생들은 한국의 정세를 토론하고, 정치적 단체로 신민회(新民會, New People's Society)를 조직하였다. 회장에는 홍승하가 선출되었다.<sup>39)</sup> 구국정신을 고취하여 일제의 침략행위를 제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민회는 강령으로 동족단결, 민지계발, 국정쇄신을 내세웠다. 12월 2일에 윤병구(尹炳球)홍승하 등이 카우아이섬 가파아지방에 신민회 지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sup>40)</sup>

한인들은 국내에서 이민에 응모할 때 이주경비로 100달러씩을 받고, 하와이에 가서 생활이 안정되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탕수수농장주동맹회에서 이를 탕감하였는데도. 이민 당

37) 玄楯, 『My Autobiography』, 64쪽. 尹炳奭, 앞의 책, 261~262쪽.

38) Soon Hyun, MY AUTOBIOGRAPHY,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275~276쪽.

39) Soon Hyun, MY AUTOBIOGRAPHY, 276쪽. 鄭斗玉, 『在美韓族獨立運動實記』, 27~28쪽.

40) 盧載淵, 앞의 책, 460쪽.

시 사무원이던 테일러(A. W. Taylor)가 1904년 초에 농장을 찾아 다니며 부당하게 이민 선비(船費)를 징수하려 하였다. 신민회는 한인들에게 테일러의 요구를 거절하도록 통고했다. 그러나 신민회원 가운데 일부가 테일러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월 17일 테일러가 오아후 에와 농장을 찾아와 난폭하게 한인들을 협박하자, 한인청년들이 테일러 일행에게 폭행을 가했다. 테일러는 곧 법정에 무소(誣訴)하고, 자기는 은행사무원으로 물품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둘러댔다. 테일러와 다툰 한인 8명이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테일러는 종적을 감춰 버렸다. 한인들은 징역 3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다.<sup>41)</sup> 그러나 신민회 회원들 사이에 시비가 계속되어 신민회가 내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성공회(聖公會)와 불교 신자들이 신민회에 반기를 들었다. 성공회 계열의 김익성(金翊成)과 최윤백 등 전통적 군주제 관념에 머물던 인사들이 신민회의 이름과 강령이 대한제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역적행위라고 비난하고, 신민회를 한국 정부에 고발하였다. 결국 신민회는 내부 분열과 외적 비난으로 1904년 4월 20일에 해체되고 말았다.<sup>42)</sup>

1905년에 멕시코 이민의 참상이 알려지자, 정부는 윤치호(尹致昊)를 조사차 멕시코로 떠나게 했다. 1905년 9월 8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윤치호는 각 지방의 한인들을 두루 살폈다. 당시 한인들 중에는 윤치호에게 신민회가 역적 도모를 하였다고 고발하기도 하였다.<sup>43)</sup>

하와이 한인들은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가 본격화되고, 국외 한

41) 徐光云, 『美州韓人70年史』(僑胞政策資料 第15輯), 海外僑胞問題研究所, 1973, 32쪽.

42) 鄭斗玉, 앞의 책, 28쪽. 尹炳奭, 앞의 책, 262~263쪽.

43) 徐光云, 앞의 책, 34쪽. 鄭斗玉, 앞의 책.

인들에 대한 일제의 지배의도가 노골화되자, 각종 단체를 결성하였다. 1905년 11월 17일에 일제가 을사5조약을 강제로 맺고 외교권을 박탈하여 한국은 사실상 국권을 잃었다. 하와이 한인들은 동포를 서로 돕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1906년에 혈성단(血誠團)자강회(自強會)공진회(共進會) 등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1907년에 이르러 헤이그특사, 고종의 강제퇴위, 정미7조약 체결, 신문지법보안법, 군대해산령 등이 연이어 시행되어, 일제의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었다. 국내에서는 항일의병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하와이 한인들은 의성회국민동맹회(國民同盟會)국민단합회(國民團合會)신간회(新幹會)부흥회(復興會)전흥협회(電興協會) 등 항일단체를 결성하였다. 하와이섬의 코나하갈라우호노카파야가파아나와아와일루아 등 7개 지방의 동회에서도 항일운동과 일화배척을 결의하였다.<sup>44)</sup>

1907년 9월까지 하와이 각 지방에는 14개의 독립운동 단체와 12개의 동회가 조직되어 한인 민족운동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에와친목회** : 1905년 1월에 하와이 한인들은 본국정부에 영사(領事)파견을 청원하였으나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일제는 하와이 한인들을 그들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한국 외부에 하와이 일본 영사를 한국 명예영사로 임용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05년 5월 3일 오아후 에와 농장에서 윤병구정원명(鄭元明)김성권(金聲權)강영소(姜永韶)김규성(金圭燮)이만춘(李萬春) 등이 항일운동일본상품 배척동족상애를 목적으로 에와친목회(親睦會)를 조직하고, 정원명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일제의 강요로 한국정부가 5월 5일에 하와이일본총영사를 한국

44) 김도훈, 「해외민족운동 - 미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40쪽.



명예총영사로 정하자, 한인들은 이동호(李東鎬)를 총대(總代)로 뽑아 7월말 경 한국에 보내 한국영사 파견을 직접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좌절되자, 에와친목회를 비롯한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와 더불어 재미한인공동대회(在美韓人共同大會)를 개최하고, 「배일결의문(排日決議文)」을 한국정부에 발송하였다.

에와친목회는 1906년 5월부터 1년 동안 『친목회보』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한인들의 지식발달과 친목을 다지며 애국정신 고취에 힘을 기울였다.<sup>45)</sup> 또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 환난을 당한 동포를 구휼하기 위해 금화 27원과 위문하는 장서를 공립신문사에 보냈다. 1907년 봄에는 국내의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 호응하여 회원들이 미화 56. 25달러를 모집하여 황성신문사에 보냈다.<sup>46)</sup>

**와이파후공동회** : 1906년 3월 10일에 오아후섬 와이파후(Waipahu) 농장에서 안원규(安元奎)전도원정상교 들이 공동회(共同會)를 조직하였다. 그 목적은 환란상구(患難相救)와 일화배척이고, 회장은 안원규 이었다.

**혈성단** : 1906년 5월 10일에 하와이섬 올라(Olaa) 3마일 농장에서 신판석(申判錫)공덕화 등의 발기로 혈성단(血誠團)을 조직하였다. 설립 목적은 배일운동과 동족상애(同族相愛)이고, 회장은 공덕화 이었다.

**자강회** : 카와이섬 막가월리농장의 한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45) 『皇城新聞』, 1907년 5월 27일, 잡보. 『太極學報』 第11號, 1907년 6월 24일, 「親睦會報」.

46) 『共立新報』, 1906년 6월 18일, 잡보. 『皇城新聞』, 1907년 5월 16일, 잡보. 5월 17일, 광고,

피해를 당한 교포들에게 금화 12원 25전과 함께 위문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1906년 6월 4일에 송건홍종표(洪宗杓)고석주(高錫柱)·이형기이관묵(李觀默) 등이 실력양성과 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자강회(自強會)를 조직하였다. 카와이섬 에리메리 한인들은 대한자강회 지회를 설립하고, 1907년 9월부터 1908년 1월까지 5개월간 월보 『자신보』를 발행하여 국내와 국외 동포들에게 발송, 신선한 문명을 전파하였다. 자강회는 엘리엘리하나버비카파야 3개 지방에도 지회를 설립하였다. 자강회는 1908년 봄에 한인합성협회에 통합되었다.<sup>47)</sup>

**공진회** : 1906년 12월 2일 호놀룰루에서 민찬호(李來洙) 임정수(林正洙)임준호(任準鎬) 등이 공진회(共進會)를 조직하였다. 협력 일심하여 환난을 상구(相救)하며 교육을 면려하여 인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고, 회장은 민찬호 이었다. 공진회에는 각 여관 주인들도 합심 참여하였는데, 1907년 7월에 회보 제1호를 발간하였다.<sup>48)</sup>

**노소동맹회** : 1907년 2월 3일에 하와이섬 하비농장에서 정병섭 편성원 등이 발기하여, 동족상애와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노소동맹회(老少同盟會)를 조직하였다. 회장은 편성원 이었다.

**의성회** : 1907년 2월 5일에는 마우이섬 카일루아(Kailua) 농장에서 항일운동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의성회(義成會)가 결성되었는데, 회장에는 김재규가 선임되었다.

47) 『共立新報』, 1906년 5월(6월?), 「布哇同胞 義捐」. 1908년 2월 5일, 「자신잡지」. 4월 1일, 「량회 합동」. 『大同公報』, 1907년 10월 11일, 잡보.

48) 『共立新報』, 1906년 12월 (?)일, 「布哇共進會」. 1907년 7월 12일, 잡보, 「共進會報新刊」.

**국민단합회** : 1907년 7월 17일 마우이섬 가히기아농장에서 김건호 등이 대동단결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국민단합회(國民團合會)를 결성하였다. 김건호가 회장이었다.

**신간회** : 1907년 7월 18일에 하와이섬 파하월로농장에서 동회를 변경하여 신간회(新幹會)를 조직하였다. 신간회의 설립목적은 무예장려와 항일운동이고, 회장은 김성옥 이었다.

**실지회** : 1907년 7월 20일에 하와이섬 힐로(Hilo)지방에서 한인들이 공동대회를 개최하고 실지회(實地會)를 조직하였다. 그 목적은 무예 장려, 실업 장려, 일화배척이고, 회장은 박승렬 이었다.

**국민공동회** : 1907년 7월 22일에 하와이섬 올라 9마일 농장에서 한인들이 일제의 강요로 정미7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채극여김봉기 등의 발기로 국민공동회(國民共同會)를 조직하였는데, 그 목적은 무예 장려와 일화배척이고, 채극려가 회장에 선정되었다. 뒤에 국민동맹회(國民同盟會)로 개명하였다.

**부흥회** : 1907년 8월 5일 마우이섬 하마구아복구농장에서 전백선서성년 등이 발기하여 인재양성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부흥회(復興會)를 조직하였다.

**전흥협회** : 1907년 9월 3일에는 오아후섬 호놀룰루에서 김익성 박상하(朴相夏)조병요(趙炳堯)최병현 등 성공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흥협회(電興協會)를 조직하였다. 동심협력하여 환난을 상구(相救)하며 교육을 발달케 하고 충성을 다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처음 회장은 김익성 이었다. 전흥협회는 1908년 5월 23일부터 10개월간 『전흥협회보』를 매일 발행하여 문맹퇴

치운동에 공헌하였다. 하와이 한인단체 합동운동에 응하지 않고 독립되어 있었으나, 1909년 1월 25일에 합성협회와 통합하였다.<sup>49)</sup>

## ② 하와이 한인 단체의 통합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26개에 달하는 각종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것은 조국의 비운을 통분하며,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 열정의 표출이었다. 많은 단체가 속출한 것은 하와이 군도가 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따라서 하와이 한인단체의 조직은 각 지방별, 농장별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단체는 성격상 약간의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대개 항일운동과 동족상애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동포들의 상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자치회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의 한인 인구 4천여 명 중 모든 단체의 활동회원이 약 800여명인데 비해 20여 개의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은 한인사회에 분열을 이루게 되고, 인적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판이 높았으며, 점차 여러 단체의 통합론이 제기되었다.

미주한인 민족운동단체의 통합론은 본토에 있는 공립협회에서도 제기되었다. 1907년 2월에 미국 의회에서 하와이 등지로부터 본토로 입국하는 동양인의 이민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하와이 한인들의 본토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sup>50)</sup> 하와이 한인들이 본토로 진출하면서 본토 한인사회가 활기를 띠었는데, 이제 인적인 증가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미 본토와 하와이 한인사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 또는 단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와이 한인단체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1907년 봄부터 합동운동

49) 『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동괴상합」.

50) 노재연, 앞의 책, 482쪽.

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고, 하와이 거주 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각 지방에 분립된 단체를 통합하여 독립운동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sup>51)</sup> 8월말에 하와이 각 단체 대표자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여,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5일 동안 회의한 결과, 1907년 9월 2일 상오 9시에 4개조의 개조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처음에는 국민동맹회공진회에와친목회와이나이 친목지회와 이파후 공동회부흥회의성회라와이와 스피골 공진지회 등이 완전한 단체를 성립하여 국권을 만회할 주의로 합성협회(合成協會)를 조직하였다.<sup>52)</sup>

농장 한인들이 노는 날인 1907년 9월 3일에 각처 동포들이 호놀룰루 항구로 모여 통일된 단체로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하고 규칙을 제정하였다. 한인합성협회는 회원이 800여 명에 이르렀고, 회장에 임정수, 부회장에 안원규를 선임하고, 호놀룰루 리리하가에 중앙회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공진회보』와 『친목회보』를 합하여 한인합성협회의 기관지 『합성신보(合成新報)』로 하기로 하였다. 주자(鑄字)를 구입하여 10월 22일부터 『합성신보』를 발행했다.<sup>53)</sup>

한인합성협회의 목적은 조국의 국권광복과 동포의 안녕보장, 교육장려이며, 주의를 민족주의였다. 합성협회는 회비를 예납금(例納金)이라 하고 1년에 2.25달러를 내도록 하였다. 합성협회는 하와이의 여러 섬에 47개 지회를 설립하는 한편, 1,051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합성신보』는 제1권 11호까지 발간한 후에, 기계를 구입하여 3주

51) 『共立新報』, 1908년 2월 12일, 3월 19일, 잡보.

52) 『海朝新聞』, 1908년 3월 19일, 論說.

53) 『共立新報』, 1908년 4월 1일, 9월 20일, 잡보. 『大同公報』, 1907년 10월 17일, 잡보. 『海朝新聞』, 1908년 3월 1920일, 논설.

일을 정간하였다가 1908년 2월 12일에 제 12호를 속간하고, 다시 확장하여 제2권 16호를 출간하였다. 1908년 8월에 활자 구입과 확장으로 몇 달 정간되었으나,<sup>54)</sup> 12월에 다시 지면을 바꾸고 더 강경한 논조로 『합성신보』를 속간하였다.

자강회는 1908년 봄에, 전흥협회는 1909년 1월 25일에 합성협회와 합동하였다. 한인합성협회가 명실상부하게 하와이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다. 곧이어 1909년 2월에 합성협회가 미국 본토의 공립협회와 통합하여 국민회가 되었다.<sup>55)</sup>

하와이에서 합성협회가 조직된 것은 국내외 한인들을 고무하였다. 국내에는 공진회와 친목회가 합하여 합성협회가 조직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립신보』는 1907년 하와이 한인단체들의 합동을 치하하였다. 연해주의 『해조신문(海朝新聞)』은 한인합성협회의 전도를 축하하고, 연해주 한인들에의 분발을 촉구했다.<sup>56)</sup>

『공립신보』는 1907년 9월 20일에, 다수의 단체를 합력하고 교육을 권장하여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재정을 마련하여 전쟁을 준비하자고 역설하였다. 1908년 3월 18일에는 하와이의 합성협회와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가 합심진력하여 완전무결한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국권회복과 민족보전을 기약하자고 제안하였다.<sup>57)</sup>

### ③ 한국영사관 설치 요청

1903년 2월 중순에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고종을 알현하고,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은 일본인 이민 기회를 제한하고, 일본

54) 『共立新報』, 1907년 9월 6일, 11월 15일, 잡보. 1908년 4월 1일, 9월 2일, 잡보. 『大同公報』, 1908년 3월 19일, 잡보.

55) 『共立新報』, 1908년 12월 30일, 잡보. 『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잡보.

56) 『皇城新聞』, 1907년 9월 26일, 잡보. 『共立新報』, 1907년 9월 20일, 잡보. 『海朝新聞』. 1908년 3월 20일, 논설.

57) 『共立新報』, 1907년 9월 20일, 논설. 1908년 3월 18일, 「希望布哇在留同胞」.

이민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며, 하와이 일본인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비우호적인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하와이 농장주들이 알렌을 통하여 하야시를 설득하였다.<sup>58)</sup>

친로파 이용익(李容翊)이 하와이 이민이 노예무역이라고 주장하여 논쟁이 생겼다. 이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위층에게까지 파급되고, 또한 재정이 궁핍하여 수민원에는 아무런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다. 1903년 5월 12일 『제국신문』이 하와이 이민의 중지를 주장하였다.<sup>59)</sup>

알렌은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과 만나, 하와이이민 가운데 노예에 포함된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해명하고, 한국인 이민들을 위해 호놀룰루에 한국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렌의 외교적인 활약과 설득으로 이민은 계속되었다.<sup>60)</sup>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직후 2월 23일에 한국 정부를 압박,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케 하고, 4월 8일에는 각의에서 「韓國保護權 確立의 件」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대외관계는 오로지 일본이 담당하고, 재외 한국인은 일본의 보호감독 하에 두며, 한국은 외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는 일제가 한국에 대한 열강의 승인을 받고 아울러 한국에 대한 독점권을 러시아로부터 보장받으려는 것이었다. 또한 국외 한인들도 일제의 신민으로 편입시켜 항일운동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sup>61)</sup>

58) Wayne Patterson, 앞의 책, 70~71쪽. 『皇城新聞』 1903년 2월 9일.

59) 『제국신문』 1903년 5월 12일.

60) Wayne Patterson, 앞의 책, 80~81쪽.

61) 김도훈, 「韓末 韓人の 美洲移民과 民族運動」, 『國史館論叢』 제8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1904년 6월에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 하와이에 영사를 파견할 것을 주장하는 청의서(請議書)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6월 25일에 하와이주재 일본 이민감독관을 한국 명예영사로 채용하라고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한국정부가 외부협판 윤치호를 하와이영사로 임명하였다는 설이 7월 2일 신문에 보도되자, 주한일본공사 하야시는 9월 2일에 하와이 한국영사는 하와이 일본영사로 차정(差定)하기로 고종이 이미 윤허하였으니, 한국정부는 속히 조치하라고 촉구하였다.<sup>62)</sup>

하와이 영사파견 문제가 한일간에 외교적 현안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영사를 파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1905년 1월에 문경호 등 하와이 한인들은 6,000여 명이 의금을 모아 영사관 운영자금을 준비할 것이니, 영사를 파송하라고 청원하였다.<sup>63)</sup>

일본이 4월 21일 한국 외부에게 속히 처리하라고 재촉하자, 한국정부는 5월 5일에 하와이일본총영사를 한국명예총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영사위임장을 주한일본공사관에 보냈다. 그리고 주미한국공사를 통해 미국정부에 알렸다.<sup>64)</sup>

하와이 한인들은 이를 듣고 경악하였다. 한인들은 일본인 영사 대신 한국인 영사를 파견하라고 주미공사에게 요청하고, 총대로 선출한 이동호(李東鎬)를 귀국시켜 6월 3일에 외부에 직접 청원하였다.<sup>65)</sup> 하와이 한인들은 자신들이 영사관 운영 경비와 영사 월급

62) 『皇城新聞』, 1904년 6월 12일, 7월 21·12일, 9월 6일, 잡보.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舊韓國外交文書』 日案7, 1904년 6월 25일, 「布哇在留韓民保護의 緊要와 名譽領事 毛利推薦의 件」. 9월 2일, 「하와이韓民保護 名譽領事 設置件의 回答促求」.

63) 『대한민일신보』, 1905년 1월 26일, 잡보.

64) 『舊韓國外交文書』 日案7, 1905년 4월 21일, 「布哇韓國名譽領事의 日領事齋藤任用推薦」. 5월 5일, 「日總領事齋藤의 布哇名譽總領事 任命 通報」.

5월 9일, 「布哇名譽總領事任命件對美通告 照覆」.

65) 『皇城新聞』, 1905년 5월 17일, 8월 10일, 잡보.



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며 영사파견을 간청하였다. 한인들은 한국영사관 건물을 건립할 목적으로 약 8,000달러를 모았다. 그러나 7월에 미국정부는 하와이 주재 일본영사를 하와이한국명예영사로 인준하고 말았다.<sup>66)</sup>

1905년 11월 17일 을사5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외의 한인들을 각국에 주재한 일본공사와 영사가 대신 ‘보호’하게 되었다.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각국 주재 외교기관을 철폐하였다. 11월 27일 미국 국무장관은 주미한국공사관과 주한미국공사관을 철폐한다는 것을 일본정부에 통보하였다.

미국이 한미조약에 의거하여 거중 조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공립협회는 미국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1906년 1월 샌프란시스코주재 일본영사가 재미한인의 사무총괄을 선언하자, 주미한국공사관을 철수하였다. 국외 한인은 망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한제국은 1906년 2월 15일 “해외 한인은 어느 곳에 있던지 일본 영사의 보호를 받으라”고 선언하였다..

하와이와 미주의 한인사회는 재미한인공동대회(在美韓人共同大會)를 개최하고 일본을 배척할 것을 결의하였다. 에와친목회는 공립협회와 연서로 배일결의문을 한국정부에 발송하여, 일본의 간섭행위를 배척하며 항일운동의 기치를 본격화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은 그들의 자치문제와 국권회복 운동 방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에 주미일본영사관이 미국 각처에 거류하는 한인들을 조사하자, 재미 한인들은 이를 반대 불응하였다.<sup>67)</sup>

66) *THE KOREA REVIEW* Vol. 5 No. 8(1905년 8월, 318쪽),

『皇城新聞』, 1905년 7월 24일, 잡보.

67) 『共立新報』, 1905년 12월 6일, 1906년 1월 8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16일, 잡보.

## ④ 러일강화회담에 대표 참석 요구

1904년 2월 8일 밤에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05년 1월 1일 러시아의 요새 여순(旅順)을 함락시키고, 5월 27일과 28일에 대마도 근해에서 러시아 발틱함대를 전멸시켰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Theodore D. Roosevelt)는 러일강화회의를 미국 뉴햄프셔주 포오츠머드(Portsmouth)항에서 열도록 주선하고, 육군장관 태프트(William H. Taft)를 일본 동경에 보내서 일본의 강화조건을 사전에 타진케 했다.

태프트는 1905년 7월 호놀룰루에 기착하였다. 한인들은 호놀룰루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한인대표를 강화회의에 파견하여 대한독립청원서(大韓獨立請願書)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감리교회 목사 와드맨(J. W. Wadman)이 대표 윤병구(尹炳球)를 태프트에게 인사시키는 동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받아 주었다.

윤병구는 한인들의 성금 500달러와 태프트의 소개장을 휴대하고, 7월 19일 워싱턴으로 향했다. 그는 조지 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인 이승만(李承晩)과 동행, 8월초에 뉴욕 오이스터만(Oyster Bay) 별장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한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러일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주미한국공사를 경유하여 참석권 요구를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거절하였다. 두 사람은 8월 15일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공사관으로 찾아가서 공문 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윤정(金潤晶)이 본국 정부의 훈령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여, 결국 실패하고 정식교섭을 못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이 윤병구를 러일강화회의에 참석시킨다는 소식은, 일본이 곧 우리의 국권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던 국

내의 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대한매일신보』는 그것이 한국인에게 희망을 주는 ‘광휘(光輝)’라고 찬탄하였다. 『황성신문』도 모든 국민이 하와이 동포의 충의를 본받아 애국심이 일체단결하고 만절불변(萬折不變)하면 국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의 상동청년회(尙洞靑年會)에서는 윤병구가 러일강화회의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여비 보조를 위해 모금하였다. 상동청년회 서기 정순만(鄭淳萬)은 359원(元)을 모금하였다.<sup>68)</sup>

하와이 한인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 한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제의 침략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하였다.<sup>69)</sup>

### (3) 북미 한인사회의 민족운동

#### ① 북미 한인단체의 조직과 활동

미주 본토에는 1887년경부터 한국의 인삼상인이 진출하여 중국인들에게 인삼을 팔았다. 이후 한인들이 계속 증가하여 1902년 10월경에는 인삼상인과 유학생 등 30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류하고 있었다.<sup>70)</sup>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거류하였으나, 점차 로스앤젤레스 등지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인삼장수 이외에도 점차 농장철도역광산어장에 종사하거나, 음식점 조역가정집 고용살이세탁소일노동행상 등으로 살아갔다. 한인 노동자들은 농장에서는 1시간당 15전, 철도와 광

68) 『皇城新聞』, 1905년 8월 31일, 9월 4일, 잡보. 5일, 논설.

『大韓每日申報』, 1905년 9월 2일, 잡보. 7일, 寄書.

69) 尹炳奭, 앞의 책, 317~319쪽.

70) 崔昌熙, 앞의 글, 174~176쪽.

산에서는 25전, 알래스카 어장에서는 매월 평균 37달러를 받았다. 또한 음식점 조역은 매월 30달러, 고용살이는 매월 20달러를 받는 등 하와이보다는 다소 경제사정이 좋았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 형편이었다.

**상향친목회** : 미주 한인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특히 인삼상인들은 행상구역 때문에 시비가 잦았다. 한인들의 반목을 없애는 한편 노동 주선과 생활 지도에 나섰던 안창호(安昌浩)가 이대위(李大爲)김성무(金聖武)장경(張景) 등 9인과 함께 1903년 9월 23일에 샌프란시스코(桑港)에서 친목회(親睦會)를 조직하였다. 친목회는 인삼의 가격과 판매구역을 조정하고 1904년부터는 하와이에서 본토로 건너오는 한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공립협회** :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한국침략이 노골화되자, 미주 한인들은 일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치단체를 결성하였다. 1905년 4월 15일에 상향친목회를 바탕으로 애국동족상부(同族相扶)환난상구(患難相救)항일운동을 목적으로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헐버트가 11월 13일에 공립협회를 방문하여 일제의 동태와 상황을 전달하자, 공립협회는 공립관(共立館)을 설립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각지에 지회를 설립하였다. 11월 20일에 『공립신보(共立新報)』를 발간함으로써 정치단체로서의 면목을 갖추었다.

1906년 2월 주미공사관이 폐지되고 한국정부가 국외 한인에게 일본영사의 ‘보호’를 받으라고 훈령하자, 공립협회는 하와이 에와 친목회와 함께 재미한인공동대회를 개최하고 배일결의문을 한국정부에 발송하였다.

4월에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공립관이 전소되자, 한국정부는 상항주재 일본영사를 통하여 의연금을 보내려고 하였다. 공립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일본영사를 방문하여 한인사회에 대한 간섭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1907년 6월까지 공립협회는 샌프란시스코리버사이드(Riverside)·로스앤젤레스레드랜드(Redland)·록스프링(Rock Spring) 등 5개 지회에 6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어 솔트레이크(Salt Lake)·사크라멘토(Sacramento)·프레노(Fresno)·핸포드(Hanford) 등에 지회를 증설했다.

공립협회는 밖으로는 세계열강과 공립하고, 안으로는 군신과 빈부귀천사농공상이 모두 공립하여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며, 공화주의를 내세워 입헌제도를 채택하였다. 공립협회 조직은 각 지방회와 그를 총괄하는 총회가 근간이 되었다. 공립협회의 대의원회는 입법을, 총회는 행정을 담당하는 이권(二權) 분립제를 채택하였다. 공립협회는 민족주의이념과 민주주의제도 아래 국외 한인의 단합상보, 이권보장 그리고 배일활동을 주도하여, 국내외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모았다.

공립협회는 『공립신보』를 통하여 일본의 한국침략 행위와 그 불법성을 국외에 알리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독립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립신보는 국내외 각처에 지사를 설립하고 신문 보급을 확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1908년 8월에는 미주 13처, 본국 41처, 노령 1처 등 총 55개 처에 지사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1907년에 ‘신문지법’을 공포하고 1908년 5월 ‘신문지 압수처분에 관한 내규’ 등을 시행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행하는 한국인 신문에 대해서도 통제와 압수를 강화하였으므로, 1908년 8월 12일에는 본국의 지사를 모두 폐쇄당하고 신문은 압

수되었다. 가혹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1910년 국망 때까지 공립신보(『新韓民報』로 개칭)는 꾸준히 국내에 보급되어 구국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sup>71)</sup>

**대동보국회** : 캘리포니아 파사디나(Pasadena)에서 1905년 12월 9일에 장경(張景)김밀리사(金美理士)김우제(金愚濟)변창수이병호방사겸 등이 대동교육회(大同教育會)를 조직하였다. 대동교육회는 애국과 환난상구를 표방했지만, 군주제의 보전을 강조한 근왕적 성향이 짙었다. 대동교육회는 시세가 급변함에 따라 강력한 항일구국을 전개할 목적으로 1907년 3월 2일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로 발전되었다. 대동보국회는 전국민의 대동합력으로 조국의 군주제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동양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2대 주의로, 인민의 교육확장실업홍가자치창설 등을 3대 강령으로 제창하였다. 그리고 1907년 10월 3일에 『대동공보(大同公報)』를 창간하여 강경한 항일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대동보국회의 활동은 미주뿐만 아니라 국내에까지 알려져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스타튼프레스노칼린덴버슬트레이크 등 5개 처에 지방회를 설치하고, 중국 상해에 대표를 파견하여 지회를 조직하고 『대동신문(大同新聞)』도 간행하였다.

대동보국회는 공립협회와 더불어 미주 한인세력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sup>72)</sup> 1907년에 일제의 강요로 정미7조약이 체결되자, 국내에서는 의병전쟁이 본격화되었다.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독립전쟁 수행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국외 한인들의 궤기를 촉구하였다.

**뉴욕 공제회** : 1907년 7월 25일 뉴욕에서 안정수(安正洙)황용

71) 尹炳奭, 앞의 책, 265~315쪽.

72) 崔起榮,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일조각, 1997, 227~265쪽.

성신성구(申聲求)서필순(徐弼淳)이원익(李源益) 등 유학생과 김승제양흥빈송헌길 등 구한국 관리출신들이 동족상조항일운동교의돈독을 목적으로 공제회(共濟會)를 조직하였다. 9월에 일본영사가 뉴욕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인의 인명을 조사하자, 공제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영사의 국외 한인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거절할 것을 결의하였다.<sup>73)</sup>

**시애틀 동맹신흥회** : 1907년 11월 24일 시애틀에서도 이정실김익제박용하장한조김경식오창덕강봉희 등이 동족상애항일운동을 표방하면서 동맹신흥회(同盟新興會)를 결성하였다.<sup>74)</sup>

## ② 북미 한인단체의 통합운동

1907년에 미국 본토에는 4개 단체가 있었으나, 당시 1,300여명의 한인 중 공립협회 회원 800여 명, 대동보국회 회원 500여 명 등으로 대동, 공립 두 단체가 중심적인 활동을 펼쳤다.<sup>75)</sup>

미국 본토는 하와이와는 달리 광활한 지역에 동포들이 산재하여 이를 규합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내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국권회복의 거점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공립협회 지도부는 1907년에 독립전쟁을 구현할 독립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통일연합기관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 1월초 안창호이강임준기(林俊基) 등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Riverside)에서 대한신민회(大韓新民會)를 발기하였다.

공립협회는 국내외 각 지역에 공립협회 지회를 설치하여, 이를 연합통일하여 국권회복과 공화정에 바탕한 근대국민국가를 건설

73) 『共立新報』, 1907년 5월 31일, 잡보, 9월 27일, 각국전보. 10월 4일, 잡보.

74) 윤병석, 앞의 책, 280~285쪽. 『共立新報』, 1907년 12월 13일, 「寄函」.

75) 김도훈, 「해외민족운동 - 미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41~243쪽.

하러 하였다. 1907년 1월에 대한신민회 창건을 위해 안창호를 국내에 파견한 공립협회는 우선 미주지역 한인단체의 통합에 관심을 기울였다. 1907년 7월에 조직된 하와이의 국민동맹회와 전흥협회, 시애틀의 동맹신흥회 등은 공립협회와 연합 상응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공함을 보냈다.

1907년 8월에 이르러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새크라멘토와 해수문 지방의 동포들이 이병호(李秉湖)를 총대의원으로 뽑아 두 단체에 파견했다. 공립협회는 이에 찬성하고 교섭위원 양주삼을 대동보국회에 보냈으나, 대동보국회의 실권자인 총무 장경의 부재로 결의가 보류되었다.<sup>76)</sup>

하와이에서 1907년 9월에 24개 단체가 통합하여 한인합성협회를 결성하고 하와이 한인들의 통일기관임을 선언하자, 공립협회에서도 11월 하순에 안정수강영대(姜永大)가 단체통합을 주장했다.

1907년 말부터 한인 단체 통합론이 더욱 높아졌다. 1908년 1월경 국내에서 신민회 조직을 일단락한 공립협회는 2월 20일 총회에서 하와이와 블라디보스톡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해삼위지역에 전권위원으로 파견된 이강의 노력으로 1908년 9월에 수청(水淸) 지방회를 조직하고, 11월에는 블라디보스톡의 정순만(鄭淳萬)채성하(蔡成河)한형권(韓馨權) 등을 공립협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리고 김성무(金成武)가 파견되어 1909년 1월에 공립협회 해삼위항지방회를 설립하였다. 1909년 국민회에 통합되기 직전까지 공립협회는 9개 지회에 800명의 회원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수청(水淸)짜따 그리고 만주에까지 지방회를 조직하였다.

공립협회는 1908년 10월에 자본금 2만 달러의 아세아실업주식회

76) 『共立新報』, 1907년 8월 23일. 잡보.



사(亞細亞實業株式會社)를 발기하였다. 이 회사는 자본금 총액의 1/10이 되면 해삼위에 설립하고 미주하와이국내에 그 지점을 설치하여, 독립전쟁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sup>77)</sup>

### ③ 애국동지대표회와 장인환전명운 의거

단체통합론은 조국독립운동의 효과적 활동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인식되었다. 통합추진은 1908년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애국동지대표회(愛國同志代表會)를 계기로 급진전되었다. 애국동지대표회는 박용만(朴容萬)의 주도로 개최되었다.<sup>78)</sup>

박용만은 1905년 2월에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네브라스카 콜로라도유타 등의 중서부 지방으로 갔다. 그는 숙부 박장현(朴章鉉)과 함께 유일한(柳一韓)정한경(鄭翰景)정양필(鄭良弼)을 커니(Kearney)시에 배치하고, 1906년에는 링컨 시에서 이종희(李鍾熙)이희경(李熙景)김용대(金容大)를 학교에 보냈으며, 김병희(金丙熙)권중호(權鍾浩)정영기(鄭永基)조진찬(曹鎭贊) 등을 취역시켰다.

1907년에 박장현은 콜로라도 덴버(Denver)로 옮겨 여관을 경영하며 한인들의 노동주선에 힘써 많은 한인들이 몰려들었다. 6월경에 박장현이 병사한 후, 박용만은 당지의 예비학교에 입학하고 여관과 한인 직업주선소를 운영하였다.

1908년 1월 1일에 박용만은 덴버 근처의 한인유지들을 모아 임시회를 열고, 6월에 덴버에서 해외 동포대표를 소집하여 애국동지대표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는 대표회 소집취지서를 미

77) 김도훈, 「해외민족운동 - 미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43~245쪽.

78) 강원도 철원 출신의 박용만은 일본 경응의숙(慶應義塾)에서 2년간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1904년에 일본이 한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보안회(輔安會)를 조직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옥살이를 하였다.

주, 하와이, 노령의 한인단체에 보내, 각처의 대표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의했다. 대표회를 덴버에서 열기로 한 것은,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6월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선거가 덴버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이 기회에 한국에 독립할 만한 백성이 있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함이었다.<sup>79)</sup>

미주 한인단체의 연합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908년 3월 2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張仁煥)전명운(田明雲) 의사가 일제의 한국침략을 정당하다고 선전한 스티븐스를 총살한 의거가 발생했다.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상향한인공동회를 조직, 호외를 발행하고 각처 동포들에게 전보로 소식을 전하고 변호사를 연빙하여 재판을 시작했다. 미주하와이멕시코원동(遠東) 그리고 국내의 각처에서 의연금을 거두어 상향한인공동회로 보내 양의사의 감형(減刑)운동을 전개하였다. 의연금이 7천여 원의 거액에 달하여 양의사 최후 선고에 목적을 이루자, 이를 계기로 국외 한인들이 새롭게 각성하고 동심협력을 말하며 여러 단체를 통합하자는 의논이 점점 커져갔다.

독립운동단체의 연합과 통합을 둘러싸고 의논이 분분한 가운데 각지의 대표들이 한국독립을 강구할 목적으로 덴버에 모였다. 1908년 7월 13일에 개최된 애국동지대표회의에는 콜로라도 대표 오흥영(吳興泳), 네부라스카 대표 박처후(朴處厚), 오마하 대표 김사현(金思賢), 링컨시 대표 이종철(李鍾喆), 캔사스 대표 김장석(金章石), 대동보국회 대표 김용덕(金龍德)이명섭(李明燮), 하와이 대표 김성근(金聲根), 뉴욕 대표 윤병구(尹炳球)김헌식(金憲植), 그리고 러시아령 해삼위 동포들이 의연금을 모집하고 그들의 대표로

79) 方善柱, 『在美韓人の獨立運動』, 翰林大學校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11~21쪽. 『大同公報』 1908년 2월 27일, 『共立新報』, 1908년 3월 4일. 잡보.

위임한 이상설이승만 등 한인 4, 50명이 덴버의 그레에스감리교회에 모였다.

애국동지대표회는 5일 동안 8차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면서 독립운동단체의 통합과 조국독립운동에 대한 방략을 토의했다.<sup>80)</sup> 회의 결과,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하나는 각지의 한인단체가 일체가 되어 독립운동에 나갈 것을 결의하고 각 단체의 통합을 급진전시시켰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병학교(少年兵學校)를 설립 운영할 것을 결정한 것이었다.

#### (4) 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

##### ① 국민회의 조직

미주한인들은 1908년 봄에는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 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까지 통합하여, 멕시코 그리고 국내까지 연합할 기초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공립협회는 원동지부가 조직되기 시작하자,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1908년 11월 30일에 하와이와 미주의 대표들과 공립협회 총회장 대리 정재관(鄭在寬), 그리고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총회장 정원명(鄭元明)이 발기하여 단체합동발기문과 합동조례를 발표하였다. 1909년 1월 9일에 공립협회의 최정익(崔正益)강명화이대위(李大爲), 한인합성협회의 고석주(高錫柱)김성권(金聲權)안원규(安元奎)가 규칙기초위원으로 선출되었다.<sup>81)</sup>

규칙기초위원들이 규칙을 기초하고 양회 합동의 절차를 협의함

8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一, 1968, 1001~1005쪽.

『共立新報』, 1908년 7월 8일, 14일, 잡보.

81)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 12월 13일, 1908년 1월 8일. 잡보.

『新韓民報』, 1909년 1월 13일. 잡보.

으로써 양대 단체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1909년 1월 20일자 『신한민보』는 4천명의 대단체가 결합된 국민회가 2월 1일부터 출발한다고 발표하고, 국민회는 교육발달, 실업장려, 풍속개량, 정법유신을 설립 목적으로 하니,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들은 통합하라고 권고하였다.

한인합성협회와 공립협회가 1909년 2월 1일을 기해 국민회로 통합되었다. 이날 오후 8시 반 샌프란시스코 국민회관에서 회원은 물론 일반 동포들이 모여 외국인 빈객을 초청한 가운데 경축행사를 거행했다. 회원들은 각 소속 지방회에 모여 단체통합을 경축했다.

국민회는 국외뿐만 아니라 2천만 국민을 단합케 하여 국민의 이익과 국권회복을 도모하며, 한인사회의 자치는 물론 항일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 자임, 출발했다. 그리고 『공립신보』와 『합성신보』는 각각 『신한민보(新韓民報)』와 『신한국보(新韓國報)』로 명칭을 바꾸어 속간되었다.<sup>82)</sup>

국민회는 창립 직후부터 국민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한편,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09년 초부터 일본의 한국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1909년 2월에 하와이지방총회는 공동회를 개최하고 이완용(李完用)과 송병준(宋秉峻)에게 전보를 보내 경고하고, 일황(日皇)에게 ‘합병’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조직하였다. 1909년 4월에 황사용(黃思溶)·방화중(邦化重)을 멕시코에 특파하여 멕시코지방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독립투쟁에 유리한 노령과 만주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는데 힘썼다. 5월에 총회장 정재관(鄭在寬)을 만주에, 이상설을 러시아령에 각각 특파원으로 파견하여 조직 확대와 독립운동 추진을 꾀하였다. 이상설은 해삼위에

82) 윤병석, 앞의 책, 286~288쪽,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24일. 잡보.

가서 김성무와 전명운을 동반하고 러시아령을 순행하고, 정재관은 이강을 동행하여 만주를 순행하였다. 하와이에서는 한사교를 통신원으로 뽑아 해삼위에 파송했다. 그리하여 1909년 말에 만주와 노령 일대에 13개 지방회에 10,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sup>83)</sup>

1909년 7월경에 북미지방총회는 미주의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리버사이드(河邊)솔트레이크(鹽湖)파사디나(紫地), 러시아령의 수청신영동화발포(花發浦)해삼위, 멕시코의 메리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본국에 돌아간 원우현이 황해도에 국민회지부를 결성하려는 것을 승인하고, 10월 13일에는 공립협회 하르빈지방회가 국민회지방회로 개명하였다.

국민회는 1911년에는 러시아령에 16개 지방회를 조직하고, 수청에 시베리아 지방총회를 설립하였으며, 만주에 8개 지방회를 조직하고, 하르빈에 만주리아지방총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민회는 1909년 4월에 아세아실업주식회사를 태동실업주식회사(泰東實業株式會社)로 개칭하여, 장정과 규칙을 정하고 5월부터 자본금 모집에 착수하였다. 자본금 5만 원을 모금한 뒤 1911년에 이강정재관김성무 등이 만주 밀산부 봉밀산(蜂蜜山) 지역에 2,430 에이커의 땅을 구입하여 한인 200여 호를 이주시켜 개간하였다. 그러나 개척자금의 절대 부족과 계속된 흉년으로 독립군기지 개척은 실패하였다.<sup>84)</sup>

국민회의 목적은 교육과 실업을 진흥하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여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 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하는데 있었다(憲章 2조). 국민회의 이념은 민족주의였고, 제도와 운영은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미주한인 사회의 안녕과 자치를 신장하고 나아가

83) 『新韓民報』, 1909년 3월 10일, 6월 2일, 잡보.

84) 방선주, 앞의 책, 46~48쪽.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sup>85)</sup>

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북미하와이멕시코·시베리아만주 등에 지방총회를 두었으며, 각 지방총회 밑에 116개의 지방회를 설립하였다. 철저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중앙총회지방총회지방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민주국가의 국민과 같이 모두가 평등한 것이었다. 또한 입법과 행정의 분권제를 채택했다. 지방회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평의회, 지방총회는 지방회에서 선임된 대의회, 중앙총회는 지방총회에서 선임된 대표회가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었다. 임원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각 지방회는 15인 이상이 주재한 회원의 청원으로 지방총회의 인준을 얻어 설립되고, 그 지방에 있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운영하였다. 지방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총무서기재무학무원법무원구제원 각 1인과 평의원 3~9인으로 구성되었다. 지방회는 지방총회에 제반 사항을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총회에는 임원을 선정하며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회, 그리고 대의원회를 임시 소집할 수 있는 임원회가 있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방총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총무서기재무학무원법무원외교원구제원 각 1인씩을 두고 있었는데, 임기는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1년이었다. 지방총회는 중대사항은 수시로, 기타사항은 월말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은 연말에 중앙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중앙총회는 지방총회의 대표원 3인과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총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총무서기재무학무원법무원외교원 각 1인을 두었다. 대표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이었

85) 『新韓民報』, 1909년 3월 24일, 「國民會章程脫稿」.

다. 중앙총회의 운영도 입법행정의 이원제를 두고 있었다.

각 회의 사무소는, 중앙총회는 일정한 사무소가 없이 수시로 편리한 곳에, 지방총회는 각 지방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방회는 회원이 모이는 한 곳에 두도록 하였다. 재정은 입회금월연금(月捐金)의연금교육금구제금벌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국민회 북미총회와 하와이총회는 1910년 1월에 중앙총회를 원동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1910년 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거류민회장 양성춘(楊成春)이 정순만에게 살해되고, 『대동공보』 주필이며 국민회 전권위원인 이강이 피신하여야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②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1909년 2월에 국민회가 창립되었으나, 대동보국회는 이에 통합되지 않고 1909년 7월말 시애틀 동맹신흥회와 병합하고 활동을 계속하였다. 1909년 초부터 국내에서 일제의 한국 ‘합방’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민회는 3월에 대한제국 정부와 융희황제를 전면 부인하고, 국권을 회복할 사람은 우리 동포뿐이니 경성하여 맹진하자고 선언하고,<sup>86)</sup>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국권회복을 수립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력하였다.

국민회는 1909년 3월 24일에 「국민회장정」을 발표하고, 모든 국외 한인을 총관할 최고의 통일연합기관으로 국민회중앙총회 설립을 도모하였다. 중앙총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임시로 북미지방총회가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주와 노령 일대에 70여개의 지방회가 설립되고 회원이 3,000여 명으로 증가하자, 국민회는 1909년 10월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을 결

86) 『共立新報』, 1909년 8월 4일, 잡보. 『新韓民報』, 1909년 3월 3일, 논설.

의하였다.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해 국민회에서 파견한 이강김성무가 만주 봉밀산현에 농토를 매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1910년 1월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는 국권회복과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와 인접한 원동(遠東)지역에 중앙총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1910년 2월 10일 대동보국회를 통합한 국민회는 5월에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라 개칭하고, 국외 한인의 최고기관임을 선포하였다. 이제 대한인국민회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표방한 한민족의 유일한 전 세계적인 광역 단체가 되었다.

미주 한인들은 대한인국민회를 결성함으로써 국권회복과 민족독립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6월에 일제의 한국 ‘합방’계획이 구체화되자, 대한인국민회는 일제에 투항한 순종황제를 부인하고, 한국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한국인의 복리를 도모할 정부 수립을 천명하였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8월 일제의 한국병합에 충격을 받고 각 지방총회를 판정하는 중앙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선 대표원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허용되는 가정부(假政府)를 설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선언하였다.<sup>87)</sup>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10월 5일 『신한민보』에 「大韓人の自治機關」이란 글을 게재하여,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 임시정부의 수립, 회원 비회원을 막론하고 법을 구속하고 의무금을 부과 징수하자는 구상을 밝히고,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다.<sup>88)</sup>

대한인국민회는 스스로를 국가 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인 임시

87) 『新韓民報』, 1909년 2월 9일, 9월 21일, 논설. 9월 28일. 잡보.

88) 방선주, 앞의 책, 51~52쪽.



정부로 설립하고 입법행정사법 등 3권 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시하며, 인민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1911년 3월에 국외 한인의 통일기관이자 임시정부인 중앙총회를 설립하였다. 중앙총회장으로 선출된 최정익은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박용만을 『신한민보』 주필로 초빙하여 한인들의 정치적 식견을 넓히게 하였다.

1911년 2월 『신한민보』 주필로 부임한 박용만은 미일전쟁 발발이 조국의 독립 기회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조국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제정하여 국외 한인을 결속시키고 정치적으로 복종시켜, 무형(無形)국가 또는 임시정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중앙총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구심체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만주시베리아의 각 지방회에서 지방총회 설립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중앙총회 건설은 시급하였다. 1911년 8월에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 임원을 선정하고 중앙총회를 발족시켰다. 중앙총회가 탄생되자, 회원들은 대한인국민회를 한국민의 가정부의 총기관으로, 중앙총회를 중앙정부로 인식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120여 개의 지방회를 가졌다. 미주를 제외하고, 수청지방총회에 12, 시베리아지방총회에 9, 만주리아지방총회에 8, 중앙총회가 직접 관할하는 5개 지방회, 그리고 러시아 페트로스버그의 이위중(李瑋鍾)을 비롯한 저명 인사, 중국의 남경 혁명군 안에 다수 한인 등이 국민회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중앙총회는 1912년 11월 8일에 제1회 대표원의회(代表員議會)를 개최하였다. 대한인국민회의 최초로 개최된 입법회의에서 헌장 제정, 조국역사 편찬, 교과서 제정, 장인환 의사의 감형운동, 실업과

외교기관 설치안, 미주하와이 지방총회 기관지의 중앙총회 양여 등이 의결되었다. 중앙총회장에 윤병구, 부회장 황사용을 선임하고 외교원 박용만을 임명 승인하였다.

11월 20일에 대한인국민회는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을 선포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 “각지에 있는 해외동포는 대한인국민회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선포하였다. 중앙총회는 12월 7일에 우리 국가를 대표하던 태극기 대신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국민회기(國民會旗)를 제정 공고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스스로를 한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가정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인국민회는 1914년 4월 미국정부로부터 재미 한인의 대표적 자치기관으로 인정받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연합국에 참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한인 독립운동 단체를 탄압하여,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와 만주리아지방총회는 해체되었다.<sup>89)</sup>

대한제국이 붕괴한 1910년에서 1914년까지 대한인국민회의 권위는 임시정부의 그것이었다.

#### (5) 미주한인의 조국독립운동

##### ① 한인소년병학교의 설립과 운영

1908년 7월에 덴버에서 개최된 애국동지대표회는 ‘한인군사학교’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박용만은 1908년 5월에 박처후(朴處厚) 임동식(林東植)정한경(鄭翰景) 등과 협의하여 청년동지의 군사교육을 실시할 소년병학교 설립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7월 대표회의

89) 방선주, 앞의 책, 53~78쪽. 김도훈, 앞의 글, 251~263쪽.

에서 설립안을 제출하여 이를 가결시켰다.<sup>90)</sup>

9월에 네브라스카대학에 입학한 박용만은 12월 겨울방학에 박 처후임동식과 의논하여, 농장을 세워 학생들의 기숙할 곳을 정하고 미국 군용총을 사들였다. 그리고 박용만과 정한경은 네브라스카주정부와 커니(Kearney)시청에 인가를 얻었다. 다음해 6월에 커니농장에 소년병학교(The Young Korean Military School)의 군기를 걸고 학도 13명을 모았다. 겨울방학에는 링컨으로 옮겼다.

1910년 봄에 박용만은 헤이스팅스(Hastings)의 장로교회 대학교와 교섭하여, 대학 내에 여름학교를 열었다. 학교 한 채를 빌리고 일용기구와 식기와 침상을 공급받고, 토지도 받아 농사를 시작했다. 유은상(柳殷相)김병희(金丙熙) 등이 20에이커의 농장을 맡아 경영했다. 그리고 4월 1일에 커니 소년병학교를 헤이스팅스대학 구내로 옮겼다. 학생들은 대학 기숙사 링랜드관(Ringland Hall)에 유숙하며, 학교식당에서 자신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미국 군사학원이 인정한 과정에 따라 학업과 훈련을 하였다.<sup>91)</sup>

1910년 여름학기에는 김장호가 30여명의 학도들을 조련시켰다. 박용만은 미국 서부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연조금(捐助金) 600여 달러를 모아 학도의 군복과 무기를 장만하고 교사들에게 수로금(酬勞金)을 주었다.

박용만은 네브라스카주에 거류하는 한인들을 한인公會(韓人公會)에 속하게 하고, 일년에 3달러씩 인두세를 받아 학교 재정에 충당하였다. 조진찬(趙鎭燾)김유성(金維成)정영기(鄭永基) 등이 특연금과 총 15정을 기부하였다. 국외 최초의 한인사관학교인 소년병학교의 재정 기반이 튼튼해지자 학생수도 증가하였다.

90) 『新韓民報』, 1911년 4월 27일. 잡보.

91) 방선주, 앞의 책, 25~26쪽.

한인 학생들은 남의 도움 없이 일하며 학교를 다녔다. 그들은 여름방학에는 소년병학교에 입소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수학하였다. 수학과정은 3년이었다. 소년병학교에서 학생들은 노동과 학습, 군사훈련, 그리고 문학 활동을 하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점호를 받고 청소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시간 일을 나가 1시간에 20~25센트를 받고 일하였다. 일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농장에서 12시까지 일했다. 12시 15분에 집합하여 점심을 먹고 1시간 자유시간을 가졌다. 그 후 2시간을 공부한 다음, 군복을 입고 군기를 갖추고 조련장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하였다. 6시에 저녁을 먹은 후 공치가달음질하기씨름총 쏘기풍류치기나팔불기 등을 하였다. 밤에는 공부하고 저녁점호를 받고 소등나팔을 불면 모두 취침하였다.

한인소년병학교의 교과는 국어, 영어, 한문, 일어, 수학, 역사, 지리, 이과, 성서, 군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군사훈련은 미국의 군사훈련을 모방하였고, 그 교과과정은 웨스트포인트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교사진은 홍승국김홍기박처후양공묵신형호박장순박원경백일규이종철정희원이용규이명섭이걸 등이었다. 미국내 여러 군사학교를 수료한 이종철은 군사교육을 철저히 하여 미국인들조차 칭찬하였다.

8월말이 되면 학생들은 각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1주일에 2, 3원씩 받는 부업을 해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학생들은 장차 독립전쟁의 지휘관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아냈다.<sup>92)</sup>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군사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었다. 『신한민보』는 독립자주를 위한 욕망과 목적이 있더라도 준비가 없

92) 『新韓民報』, 1911년 4월 27일. 잡보.

으면 이를 수 없다며 무예연습을 강조하였다. 소년병학교 제1기를 마친 박처후는 무기가 아니면 강토를 회복할 수 없다며 승무주의(崇武主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창호도 소년병학교를 세우고 상무(尙武) 정신을 단련함을 기뻐하였다.<sup>93)</sup>

박용만은 네브라스카주립대학에 재학하면서 소년병학교를 운영하였다. 1911년부터 약 1년간 『신한민보』 주필을 맡았으며, 『국민개병설(國民皆兵說)』(1911)을 저술하고 『군인수지(軍人須知)』(1912)를 역술하였다. 그는 『국민개병설』에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중시하여 현대적 국민의 의무, 특히 병역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정치학을 전공한 박용만은 1909년 1학년 여름에 ROTC 야외훈련을 받고 두 학기에 걸쳐 군사학 과목을 선택하였다. 2학년 때도 군사학을 택했다. 3학년 때인 1911년에는 『신한민보』 주필로 활약하였는데도 군사학을 수강하며 분주하게 보냈다. 4학년 때도 군사조련(Drill)을 선택했다. 1912년 8월 9일 학사학위를 받고, 9월 16일에 소년병학교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은 13명이고 참석한 빈객은 백인 100명, 한인 50명이었다.

박용만이 1912년 11월에 하와이로 떠나자, 한인소년병학교는 박처후가 교장이 되어 운영하였다. 그러나 인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1914년에 폐교되었다. 소년병학교는 1911년 8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1914년까지 6년 동안 약 100여명의 생도를 배출했다.

한인소년병학교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미주와 하와이에서 제일 먼저 군사학교를 세워 조국광복이라는 큰 목적을 설정하고 한인들의 응집력을 높이는데 공헌하였다. 둘째 이 소년병

93) 『新韓民報』, 1909년 6월 1629일, 8월 4일, 10월 4일. 잡보. 방선주, 앞의 책, 28쪽.

학교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만주노령 등으로 옮겨가 독립군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하거나 미국군에 자원입대하여 유럽전선에서 싸웠다. 셋째 이 학교 출신들이 재미 한인사회의 실질적인 중견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권회복을 전개하였다. 넷째 이 병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네브라스카한인공회’에는 네브라스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소속시켜 의무금을 강제 징수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자치망명정부를 실험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용만의 일관된 목적은 한인사회에 자치기관을 만들어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가하고, 군인을 둔전병식으로 훈련하여 광복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sup>94)</sup>

## ② 대한인국민회의 독립군양성

1909년 6월부터 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군인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중학교에서 무관학교 과정을 교수하던 국민회 솔트레이크시 지방회는 독립군 양성을 위해 학생양성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신한민보』 주필 최정익은 1909년 8월 4일에 「大乎國民」이란 글을 게재하여, 조속히 군인양성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1910년 5월에는 국민회 산하 클레몬트(Clarent) 학생양성소에 군사훈련반을 조직하여 매주 3일씩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롬폭에서 의용훈련대(義勇訓練隊)를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1910년 7월에 일제의 한국 ‘합방’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새크라멘토에서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애국동맹단(愛國同盟團)을 조직하고 7월 4일에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애국동맹단은 국내에 비밀통신기관을 설치하여 단원을 모집하고, 북

94) 방선주, 앞의 책, 28~29, 34~44쪽.

미지방총회가 외교를 포함한 군인양성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애국동맹단은 외교 선전을 통해 세계 각국에 일제의 무력적 한국침략을 알리는데 주력하며, 원동지역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할 사관생도를 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와이지방총회는 호놀룰루에서 각 지방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대동공진단(大同共進團)을 조직하고, 항일방침을 결정하였다. 대동공진단은 외교와 선전사업은 대한인국민회가 담당하고, 군인양성사업을 공진단이 맡아 각 지방에 양성소를 설립하고 청년 동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7월 6일에 애국동맹단과 대동공진단은 연서로 한국 황제에게 전보를 보내, ‘합방’ 반대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일본 황제와 한국 통감에게도 전보를 보내 ‘합방’을 취소할 것과 선전포고를 하였다.

애국동맹단과 대동공진단은 「무예장려문(武藝獎勵文)」을 발표하여 한인들의 무예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체조요지(體操要旨)』를 출판 보급하여 청년들의 군사훈련을 장려하였다. 11월에 캔사스에 소년병학원(少年兵學院), 12월에는 와이오밍(Wyoming) 슈페리오(Superior)에 청년병학원(靑年兵學院)이 조직되어 매일 저녁에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대동공진단도 1910년 8월부터 하와이 각 지역에 군인양성소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11월에 대동공진단은 군인양성소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로 이관하였다. 하와이지방총회는 연무부(練武部)를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연무부는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한인 청년들을 모아, 매일 저녁에 목총을 메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때 군사훈련에 참가한 한인들은 약 200여 명에 이르렀다.<sup>95)</sup>

95) 김도훈, 앞의 글, 251~254쪽.

## ③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

1912년 12월초에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기관지인 『신한국보』 주필로 부임한 박용만은 언론기관을 일신하는 한편, 한인들에게 군사지식과 민족운동을 교양하였다. 그리고 하와이지방총회 회원에게 매년 의무금 5달러를 부담케 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그는 지방총회의 자치제도를 정비하여 1913년 5월에 하와이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특별경찰권을 승인받았다. 하와이 각 섬에 대한인국민회 경찰부장(警察部長)을 설치하여 한인 간에 시비사건이 있으면, 국민회 경찰부장이 조사 처리케 하였다. 하와이 법정은 국민회의 경찰조사와 초심(初審)을 법정행사로 인정하였다. 경찰권 행사는 국외 한인을 그들의 지배 하에 예속시키려는 일본의 속셈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박용만은 국민회현장을 정비하여, 국민회가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쥐 민주주의 국가제도에 합부한 자치정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한편, 군인양성 사업에 매진하였다. 12월에 이르러 연무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군인양성운동을 기반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단과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박용만은 하와이군사령부의 인가를 받아 1914년 6월 10일에 오아후섬 카할루에서 대조선국민군단(大朝鮮國民軍團, Korean Military corporation)과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Korean Military Academy)를 창설하여 독립군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은 모든 한인 독립군을 국민군단으로 편성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으며, 사관학교는 국민군단의 핵심이 될 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군단과 사관학교의 운영은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에서 담당하였다. 사관학교는 박용만을 비롯하여 박종수(朴鍾洙)구종곤(具鍾坤)이호(李浩)안원규(安元奎)김세근



(=金世根)이정권(李正權)노훈(盧勳) 등이 맡았다. 특히 안원규 박종수는 리비회사로부터 도급 계약한 1,360에이커의 아후이마누(Ahuimanu) 파인애플농장을 기부하여 300~400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군단 부지를 제공하였다. 또 임응천한태경한치운 등은 농사 수익 전액을 군단에 기부하여 재정적으로 군단 창설을 후원하였다. 이들은 또한 군단과 사관학교의 기간 요원과 교관으로 활약하였다.

1913년 8월 29일에 병학교 막사와 군문(軍門)의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남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학교 학도 180여 명이 사열식을 가졌다.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의 편제는 미국 군대를 모방하여 근대적 조직을 갖추었다. 조직을 보면, 군단사령부, 군단경리부, 제복소, 병학교, 훈련소 대대, 훈련소 중대, 훈련소 소대, 별동대, 곡호수(曲號手), 고수(鼓手) 등으로 이루어졌다. 박용만은 대조선국민군단 단장과 병학교 단장을 겸임하였다.

박용만은 대조선국민군단을 둔전병식으로 운영하여, 단원들은 군단에 기숙하면서 파인애플 농장에서 노동하고 틈틈히 군사훈련과 학습을 하게 하였다. 학도들은 야외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교실에서는 군사학을 학습하였다. 하와이 군사령부가 실제 총의 사용을 불허하였으므로 학도들은 목총으로 군사훈련을 하였다. 교련기구는 사관의 단총(45식) 39정과 군도(軍刀) 10개, 나팔 12개, 북 6개, 목총 350정, 그리고 영문으로 된 교과서 28종이 있었다.

사관학교의 교과내용은 헤이스팅스 한인소년병학교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교재는 총 28종에 달하였는데, 박용만이 1911년에 역술한 『군인수지(軍人須知)』는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다.

사관학교의 재정은 파인애플 경작 수입과 특별 연조금으로 충당

하였는데, 1914년까지 수입 총액이 78,642달러 25센트이었는데, 2개년 동안 군단경비로 58,442달러 25센트를 지출하고, 잔액 20,200달러는 원동 사업을 위해 적립하였다.

그러나 대조선국민군단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본과 러시아가 연합국에 가담하여 미국과 친밀한 유대를 맺었다. 일본은 1915년 여름에 미국 국무장관에게 하와이의 대조선국민군단의 활동을 중단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의 지시로 박용만과 그 지지 세력을 조사한 하와이정부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 승인하였던 특별경찰권을 취소하여 한인사회의 자치권을 박탈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파인애플 농장의 흉작과 불경기로 수입이 감소되어 더 이상 농장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여 학도들이 흩어졌다.. 학생 수삼십 명이 남아 정두옥의 교섭으로 와이엘루아 사탕농장으로 옮겼다. 다시 태병선이 교섭하여 카후농장으로 이전하였으나, 1917년 무렵에 문을 닫고 말았다.<sup>96)</sup>

#### ④ 멕시코의 한인사회의 민족운동

1905년 3월에 1,033명의 한인이 멕시코에 이주하면서 멕시코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영국인 마이어스(John G. Myers)와 대륙식산합자회사(大陸殖民合資會社)의 일본인 오바 간이치(大庭貫一)가 광주원산평양개성수원인천진남포부산 등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황성신문』에 멕시코 농부모집 광고를 7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들은 한인 통역 이준혁(李俊赫)권병숙(權丙淑)을 고용하여 1904년 10월부터 이민을 모집하였다.

96) 방선주, 앞의 책, 78~81쪽. 鄭斗玉, 『在美韓族獨立運動實記』.

4년 계약기간으로 1,035명이 이민을 신청하였는데, 남자 702명, 여자 135명, 아동 198명이었다. 가족 이민이 257호, 독신은 196명이었다.<sup>97)</sup> 이주자의 계층은 구한국 군인이었던 사람이 200명으로 가장 많고, 소작인, 잡역부, 전직 하급관리, 소수의 양반, 부랑아, 걸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무당과 신부가 각 1명, 내시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강제로 승선하게 된 걸식 아동들도 있었다.<sup>98)</sup>

1905년 2월 28일 오전 6시에 1,035명은 영국 상선 일포오드(S. S. Ilford)호로 인천항을 출발하였다. 그러나 군산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 한인들이 담배가 미비하여 소동을 일으켜 인천항으로 뒤돌아왔다. 식민회사가 담배와 짚신 그리고 호조(護照)를 지급하여 30일 오전 6시에 다시 출발하였다. 항해한 지 10여 일에 7, 8세의 아이 2명이 수질(水疾)로 죽어 시체는 바다에 버렸다. 나머지 1,033명은 36일의 항해 끝에 4월 6일 오전 9시에 멕시코의 살리나 쿠르스 항구에 도착하였다.

염병(瘟疫) 환자 4명, 열증(熱症) 환자 10명이 있어, 멕시코 해관에서 상륙을 허락하지 않아 4일간 배 안에서 머물렀다. 한인들이 일본 요리인 19명과 서로 다투어 칼을 휘두르고 총까지 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멕시코 정부가 병사 50명을 배에 배치하여 충돌을 저지하였다. 4월 10일(양력 5월 15일?) 정오에 상륙하여 환자 14명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머지 한인들은 하오 6시 30분에 기차를 타고 출발, 11일 오전 10시에 코앗사 코알코스항에 도착하였다.

12일 멕시코 배에 승선하여 오후 2시에 출발, 13일 하오 3시에 프로그레소에 도착하였다. 부두에서 질병 검사를 받고 열이 있는

97) 손보기, 「미주동포사회」, 『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653~654쪽.

『皇城新聞』, 1905년 4월 4일, 잡보.

98)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71~78쪽.

사람 72명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나머지 900여 명은 차를 타고 양력 5월 20일 저녁 8시 반에 유카탄(Yucatan)주 메리다(Merida)에 도착하였다.

메리다 철도회사에서 3일간 휴식 후에 15명 사원이 한인들을 68, 69명씩 균분하였다. 프로그레소병원에 머물던 72명은 소생하여 4월 19일에 메리다에 도착하였다. 살리나 쿠르스 병원에 머물던 14명 중 3명은 죽고 11명은 완쾌하여 5월 10일에 메리다에 이르렀다.

농장주들이 모여 한인들을 노예경매처럼 4, 5명 또는 30명씩 나누어 24개 농장에 끌고 갔다. 농장은 각각 2, 30리 혹은 1, 2백리 떨어진 곳도 있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움막집 같은 초가집 1채씩, 독신자는 6, 7명에 1채씩 제공되었으나 토굴과 흡사하였다.

3, 4일을 휴식하고 농장에 끌려가 힘든 노동을 하였다.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한인들은 폭염 속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에네켄 밭에 잡초를 뽑고 가시 돋친 에네켄 줄기 따기, 그리고 공장에서 밧줄을 만들었다. 하루 12시간씩 죽도록 노동해도 임금은 멕시코 은화(墨銀) 35전이였다. 거기에서도 식비라 하여 매일 25전씩을 제하였다. 의복은 처음에 백양목 2벌, 풀 모자 1개, 가죽신 1쌍씩 지급되었는데, 그 대금은 임금에서 제하였다. 물과 풍토가 맞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이나 신약하여 힘든 일을 못할 경우에는 야외 공간에 폐기하였다.

농장주들은 항상 한인들에게 이민 선비가 300원이니, 이를 갚고 4년간 농장주에게도 이익이 많아야 계약에 자유스럽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한인의 왕래를 엄금하여 정거장과 항구를 단속하고 한인에게는 표를 팔지 않았다.<sup>99)</sup>

99)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1920일, 寄書.

국내에서 멕시코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국인 하혜(河惠)의 편지가 서울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메리다에 거주하는 하혜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신문 『문흥일보(文興日報)』에 멕시코 한인들의 참상을 기고하였다. 유학생 안정수(安鼎洙) 등이 『문흥일보』 기사와 하혜의 편지를 동봉하여 6월 30일에 서울 상동청년회로 발송하였다. 상동청년회는 이것을 『황성신문』 1905년 7월 29일자에 보도하였다.<sup>100)</sup>

고종은 8월 1일에 멕시코 한인들을 속히 귀환시킬 정책을 강구하라고 칙유(勅諭)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현지 조사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라고 주장하였다.<sup>101)</sup> 상동청년회는 의정부에 공함을 보내, 속히 식민회사와 교섭하여 우리 동포를 생환케 하라고 요청하였다.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8월 11일에 멕시코 정부에 전문을 보내, 우리 동포를 잘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미한국공사관에 멕시코와 교섭해 동포를 구하라고 훈령하였다.<sup>102)</sup> 그리고 14일에 일본정부에게 멕시코 정부에 한인 보호를 요청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일본은 멕시코 한인의 보호를 멕시코 주재 일본공사에게 위탁하라고 한국정부에 종용했다.<sup>103)</sup>

멕시코 정부는 한국정부에 회신을 보내, 한인들이 노예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와전이며, 오히려 유카탄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우대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정부는 일본 시찰 중인 외부협관 윤치호(尹致昊)에게 여비 1,000원(元)을 보내, 하와이와 멕

100) 『皇城新聞』, 1905년 7월 29일, 잡보, 寄書.

101) 『高宗實錄』, 1905년 8월 1일. 『大韓每日申報』, 1905년 8월 1일, 社說.

102) 『皇城新聞』, 1905년 8월 71417일, 잡보.

103) 『舊韓國外交文書』, 日案7, 1905년 8월 14일, 「멕시코領柳奇坦等地 日美人의 韓民賣買虐待에 對한 禁止 및 保護要請」. 8월 22일, 「在멕시코韓民 保護件 同地日官館에의 囑托憑憑」.

시코에 가서 한인 정형을 시찰하라고 전훈(電訓)하였다. 그러나 윤치호가 여비가 부족하여 하와이만 시찰하겠다고 전보를 보내자, 고종은 금화 500원을 보내 멕시코 한인도 시찰하라고 지시하였다. 윤치호는 여비가 부족하여 하와이만 시찰하고, 10월 17일에 일본 동경에 도착, 귀국하였다.<sup>104)</sup>

한국정부는 주미공사대리 김윤정(金潤晶)에게 전훈하여, 주미공사관 인원을 멕시코에 파송하여 동포를 시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인들을 인솔하고 멕시코로 가서 온갖 방법으로 동포들을 확대한 통역 권병숙(權丙淑)은 9월 10일에 『황성신문』에 글을 보내, 학대설은 중국인의 모략이며 오히려 한인들이 우대 받고 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공립협회에서 1905년 가을에 파견한 방화중(方和重)이 한인의 참상을 보고하고, 인삼상인 박영순(朴永順)이 한인들이 식민회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팔려와 에네켄농장에서 금수처럼 온갖 학대를 받고 있으며, 탈출 환국할 계획만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상동청년회도 8월 24일에 멕시코 이민을 시찰하려고 이범수(李範壽)박장현(朴章鉉)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범수는 중국 상해에서 병이 생겨 돌아왔다. 박장현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비가 부족하였다. 상동청년회는 9월 29일에 구출운동 강연회를 열고 즉석에서 의연금을 다시 모집하였다.<sup>105)</sup>

박장현은 10월경 홍콩을 떠나 11월에 워싱턴을 거쳐 커니에 도착, 한인 학생 20여 명의 입학을 알선하였다. 상동청년회가 모금하여 보

104) 『皇城新聞』, 1905년 9월 2723일, 10월 21118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5년 8월 2330일, 잡보.

105) 『皇城新聞』, 1905년 10월 21일, 11월 151617일, 8월 23일, 잡보.

『共立新報』, 1905년 11월 22일12월 6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5년 9월 30일, 12월 20일, 잡보.

낸 미화 197달러 50센트를 12월 28일에 영수한 박장현은 30일에 출발하여 뉴욕에 도착, 기독교연합총회에서 교회증서를 얻은 후, 육로 여행 8일만 인 1906년 1월 24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하였다.

그는 메리다지방을 조사할 방도를 강구하다가, 농장주들에게 속전(贖錢) 100 페소를 지불하고 풀려난 염우규(廉禹圭)안규선(安奎善)을 만나 유카탄 한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견문하였다. 박장현은 여비 부족과 위험 부담 때문에 유카탄 방문을 포기하고 2월에 미국 커니시로 돌아가, 정부의 교섭 없이는 동포의 참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sup>106)</sup>

멕시코의 한인 김형정 등 100여 인이 12월 29일에 『제국신문』 『황성신문』에 상서하여, 멕시코에 팔려간 정황과 힘든 생활상을 자세히 밝혔다. 국내외에서 멕시코 한인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권병숙은 1906년 7월 『황성신문』에 기서(寄書)하여, 사실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변명하였다.<sup>107)</sup>

멕시코 한인들의 이주 선박비 및 일체 경비(150 달러)는 에네켄 농장 측에서 부담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한인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는 부채노예제의 위장술이었다. 노예 같은 처절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한인들은 동맹파업을 하거나 탈출하였다.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주들은 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 서반아어를 몰라 길을 물을 수 없고 동양인의 얼굴이 바로 노출되어 탈출은 실패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1906년 봄에 한인 3명이 멕시코에서 탈출,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였다. 이광준(李光俊)은 에네켄 농장에서 도망하여 걸

106) 『共立新報』, 1906년 3월 12일, 잡보.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19~21일, 寄書.

107) 『皇城新聞』, 1906년 4월 7일, 잡보. 7월 26~28일, 「墨西哥駐在 權丙淑 寄書」. 『帝國新聞』, 1906년 3월 14~16일, 寄書.

어서 로스엔젤리스에 도착하였다. 천신만고를 겪어서 병이 깊어진 이광준이 환국하기를 원하자, 공립협회대동보국회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는 선비 67달러를 모집하여 귀국시켰다.<sup>108)</sup>

한인노동자들은 4년간 지옥 같은 노예생활을 감내해야만 계약만료 후 풀려날 수 있었다. 한인들은 멕시코에서 가장 근면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계약만료 때 지불하기로 한 1백 페소(임금의 2/10)의 수로금(酬勞金)은 25개 농장 가운데 3개 농장만 약속을 지켰을 뿐 그 밖의 22개 농장은 맨주먹으로 한인들을 내쫓았다.

멕시코 한인들은 역경에서도 민족운동에 나섰다. 이근영은 1908년 12월 29일에 상항의 공립신보사의 재정부족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일본인이 농장에 와서 한인들의 성명을 조사하고자 하자, 한인들은 우리는 당당한 독립국 백성으로 죽을 지언정 역사상 원수인 왜놈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근영방경일황면주신광희조병하김운원김제선 등 8명은 계약만료 8개월 전에 농장주에게 80~100페소를 지불하고 해방되었다. 김제선은 1908년 7월에 프로그레소 64번가 428호에 집을 장만하고 10월 5일부터 주일이면 한인들의 예배장소로 이용하였다.

한인들은 1909년 봄에 단체를 결합하고 실업에 힘쓰기 위하여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임원은 회장에 이근영, 총무 김유원, 회계 김제선, 사찰 황면주를 선임하였다.<sup>109)</sup>

108) 『共立新報』, 1906년 3월 □일, 「更探詳報」. 1907년 12월 27일, 廣告.

『皇城新聞』, 1907년 7월 24일, 雜報, 「美洲喜信」.

109) 『共立新報』, 1909년 1월 20일, 寄書, 『大東共報』, 1909년 3월 28일, 4월 21일, 잡보.

이자경, 앞의 책, 98. 312~313쪽.



멕시코 한인들의 4년 계약기간이 끝나가자, 국민회미주지방총회에서는 황사용방화중을 멕시코로 파송하여 한인들의 앞일을 인도코자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멕시코 한인들은 멕시코 화폐 25원을 모아 여비에 보테라고 국민회로 보냈다.<sup>110)</sup>

1909년 4월 3일경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한 황사용방화중은 17일경 유카탄 프로그레소에 도착했다. 이들은 수로금 100 페소 지급 요청과 경무청에 간혀 있는 13명의 동포 구출에 힘썼다. 그리고 각 지방을 순방해 동포들의 사정을 조사하였다.

메리다 한인들은 국민회지방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1909년 5월 9일 16개 농장에서 파견한 대표 70여명이 모여 국민회북미지방총회 산하의 메리다지방회를 창립하였다. 회원 305명으로 창립된 메리다지방회는 회장 이근영, 부회장 방경일, 총무 김운원, 구제원 김제선 등을 선출하였다.<sup>111)</sup>

평양출신으로 한국 군인이었던 이근영 등은 1909년 봄부터 무력 항일전쟁을 전개하여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자는 목적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농장계약이 만료된 5월 12일 이후에는 메리다 인근의 락타작골쏘실 등의 젊은이들을 모아 저녁에 한두 시간씩 군사훈련을 하였다.

국민회 메리다지방회는 1909년 11월 17일 저녁에 을사5조약 치욕 4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18일에 2소대로 편성된 110명이 시가행진을 하며 무예시위를 하였다. 그들은 서반아어로 을사5조약 무효와 일제 규탄을 적은 전단 500장을 상점과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시위 행렬은 운동장에서 7~8 종목의 무예체조를 시범한 뒤 군가와 애국가를 우렁차게 제창하

110) 『大東共報』, 1909년 4월 28일, 5월 30일, 잡보. 『大韓興學報』, 1909년 6월 20일, 雜纂.

111) 이자경, 앞의 책, 312~317쪽. 『大東共報』, 1909년 7월 8일, 잡보.

고, 유카탄 총독부 앞에서 황사용이 일제의 한국 침략상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여 멕시코인들의 찬양을 받았다. 오후 6시 메리다 지방회관에서 을사5조약 체결과정을 희화한 연극을 공연하였다. 19일에는 농장으로 돌아가는 회원들이 본진(한국군)과 적진(일본군)으로 나누어 가상 결투극을 거행하여, 본진이 적진을 대파시키고 한국을 침공한데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장면을 연출하였다.<sup>112)</sup>

멕시코 한인들은 1910년 2월 경 작둔지방에서 승무학교(崇武學校)를 설립하였다. 구한국군 공병하사였던 이근영은 교장으로 부임한 직후, 『보병요조초선(步兵要操抄選)』을 저술, 승무학교의 무예훈련 교본으로 사용케 하였다.

국민회메리다지방회는 창립 1주년 기념일인 1910년 5월 9일에 100여 명의 회원이 기념식을 거행하고 병식운동을 시험하였다. 2주년인 1911년 5월 9일에 승무학교는 문무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5명의 우등생에게 포상하였다. 이날 10여 명이 승무학교에 입학했으며 많은 동포들이 찬조금을 기부했다. 9월에는 승무학교 학도가 32명으로 늘어났다.<sup>113)</sup>

그러나 승무학교는 바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1910년 5월 10일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 일반 민중의 생계가 곤란하여졌다. 한인들은 농장에서 해방된 후 생활안정을 얻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자 메리다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모든 사적 집회를 금지하였다. 이에 승무학교는 1913년 3월에 문을 닫고 말았다.

1909년 봄부터 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멕시코의 한인들을 하와이로 이접시킬 방도를 강구하였다.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는 국내

112) 『大韓興學報』 第9號, 1910년 1월 10일, 「出於愛國」.

113) 『大東共報』, 1910년 7월 3일, 잡보. 이자경, 앞의 책, 318~323쪽.

와 러시아령에 거류하는 동포들을 하와이로 이주시키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북미총회는 하와이총회장 정원명에게 멕시코 동포를 위하여 일체를 주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sup>114)</sup>

당시 멕시코에 재류하는 한인은 974명이었다. 유카탄 지방에는 남자 613명, 여자 171명이며, 기타 각지에 흩어진 동포가 190명이었다.

1911년 1월 7일에,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대의회(代議會)에서 멕시코 한인 구제안을 통과시키고 황사용을 각지와 하와이에 보내 멕시코 한인의 실정을 전파하였다. 하와이지방총회는 사탕농장주동맹회에 이민 수용을 교섭하여 허락을 얻었다.

대한인국민회는 멕시코 한인들의 하와이 입국허가를 받으면, 1회에 100명씩을 이민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11년 2월 11일에 미주 한인들에게서 후원고분금(後援股本金)을 모집하여 이주 경비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와이에서는 1911년 7월 30일부터, 미국에서는 10월 30일부터 고분금 모집을 시작하여, 불과 몇달만에 후원금 예약이 하와이에서 5,441달러, 미국에서 536달러에 이르렀다.

이민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때, 멕시코 한인들은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국에 오기 시작하였다. 1911년 9월 11일에 메리다지방회 회장 이근영 등 4명이 멕시코 만사니요항구에서 파나마호를 타고 19일 샌프란시스코항에 기착, 불법입국자로 이민국에 검거되었다. 미국 정부는 11월 3일에 이근영 일행의 입국을 거절하는 동시에, 멕시코의 한인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이민 청원까지 퇴각하였다. 그리고 이근영 일행의 이민

114) 『新韓民報』, 1909년 6월 23일. 잡보.

국 서류 경비와 출국 선비를 합하여 574.82달러를 국민회에 요구하였다.

대한인국민회가 경비를 지출하고 이근영 일행은 멕시코로 추방당하였다. 멕시코 한인의 이주운동은 실패하고 모집한 후원금은 환부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멕시코 한인들이 위급할 때에 대한인국민회가 도왔다.<sup>115)</sup>

### Ⅲ. 3·1독립운동

#### 1. 3·1독립운동의 배경

#####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

1918년 11월 11일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이유궁전에서 독일이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오스트리아터키와 함께 영국프랑스 등과 해외시장 분할을 둘러싸고 1914년부터 4년간 싸웠던 전쟁이었다.

이 대전으로 대영제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자본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한국의 독립운동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일본은 이 전쟁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

115) 김원용, 『在美韓人50年史』, 622~624쪽.

중국의 산둥반도 남단의 교주만(膠州灣)의 독일 조차지와 태평양의 독일령 군도(群島)를 점령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세계 공산혁명을 목표로 하는 볼셰비키 정부에 대하여, 이를 와해시키려는 자본주의 열강들이 극동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낼 임무를 일본에게 부여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 일본은 1918년 8월에 시베리아에 11개 사단을 파견, 이후 4년간 바이칼호 동쪽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거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만주연해주에서의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일제와 타협한 중국과 러시아 당국에 의해 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금지 억압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세계 지성계에 큰 충격과 함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힘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에 눈을 뜨고, 정의인도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지식인들도 사회개조세계개조의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하여, 1917년 7월 신규식조소양박은식박용만신채호 등에 의해 「대동단결선언」이 나타났다. 이 선언은 독립과 평등을 성스러운 권리라고 함으로써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부정하였다. 1918년 11월 28일에 상해에서 창립되어 31운동의 단서를 연 신한청년당의 강령에서 사회개조와 세계대동을 천명하였다.

한편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연합국과 동맹국들은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전쟁의 목표를 보다 숭고한 이념으로 승화시켜 제시하기에 바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민족적 존립’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미국대통령 윌슨은 1916년 5월 27일부터 항구적인 평화를 위

한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함께 “모든 국민은 그들이 속해 살 주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자, 연합국들은 이 대전을 민주주의와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의 대결로 규정하였다.

러시아 볼셰비키정권은 1917년 말에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자결선언, 비밀외교 폐지를 주장하여 참전국 국민들과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볼셰비키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항하여 연합국 측의 ‘평화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미국대통령 윌슨이 1918년 1월에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포함하여 전후처리의 「14개조 평화원칙」을 연합국 측에 제안, 동의를 얻었다. 여기에는 공개적인 평화조약, 비밀조약의 폐지, 해양자유의 원칙, 국제통상의 평등주의, 민족자결, 국제연맹의 창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연합국 측의 이념으로서 전 세계에 선전되었다. 이에 유럽에서 독일의 지배 하에 있던 소수민족들은 종전(終戰)과 함께 독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제정(帝政)이 무너졌다. 한편 제1차대전의 종전이 다가오자, 독일 지배 하에 있던 체코 등 유럽 소수민족과 에이레이집트 등 약소민족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 국가인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이 패전하고, 연합국 측의 민족자결주의 등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해방자유와 평등민주주의가 풍미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적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약소국의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조가 풍미하자, 한국인들은 ‘세계개조의 신시대’가 눈

앞에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일손의 민족자결주의는 한국 민족운동가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물론 승전국 측에 속하는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될 리는 만무했다. 당시 민족운동가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민족자결주의가 한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경우에도,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에게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한국에도 적용해 달라고 호소한다면, 미국 등이 적극 후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 2) 국내 상황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원인은 일제에 의한 주권상실과 가혹한 식민통치이었다.<sup>116)</sup> 1910년대 일제는 헌병경찰과 한국주둔군의 무력에 의해 무단정치를 실시했다. 그들은 1905년 을사5조약늑약 이후 재정금융화폐교통통신 등을 탈취하여 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동양척식회사의 설립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유지(國有地)를 창출하여 총독부 당국과 일본인회사와 일인들이 광범한 토지를 지배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다수 농민은 토지를 상실하고 몰락하였다. 일제는 회사령(會社令)을 시행하여 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압하였으며, 삼림어업광업 등 산업자원을 박탈해 갔다. 1910년대 후반 이후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이 급진전되면서 한인 노동자가 급증하여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한국의 시장과 무역은 일본에 의해 독점되었다. 한국은 쌀을 비

116) 崔昌熙, 「독립운동과 강원지방」, 『江原道史』 歷史編, 강원도사편찬위원회, 1995, 1275~1276쪽.

롯한 일본의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지로 전락되고, 직물을 비롯한 일본 공업제품의 소비시장으로 변모되었다. 결사와 집회,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철저하게 억압되었다. 식민지 노예교육의 실시로 민족성 상실의 위기를 맞았으며, 한국 민족은 열등한 민족으로 멸시받았다. 한국인의 교육과 산업 활동은 제한통제되었으며, 같은 노동에도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또는 2/3에 불과하였다.

1910년대 후반에는 쌀값 폭등으로 인해 민생의 도탄이 극에 달하였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한 뒤, 미곡을 집중적으로 반출해갔다. 미곡의 일본에로의 이출율이 1910년 66%에서 1919년에는 98.6%로 늘어났다. 조선의 쌀값은 일본의 쌀값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여 도시 인구의 급증, 1인당 쌀 소비량의 증가, 주류(酒類) 수요의 증대, 시베리아 출병으로 인한 군량미의 조달 등으로 말미암아 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업 노동력의 도시 유출, 인건비 상승, 폭풍우 피해 등으로 1917년도 쌀 생산량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쌀값이 상승하자, 일본 정부는 1918년에 보유미 매출을 오히려 줄였다. 일본의 미곡상들과 지주들이 매점매석하여 쌀값이 폭등의 양상을 띠어, ‘쌀소동’이라고 하는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3년간 풍작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자 조선의 쌀값도 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전쟁 특수경기를 타고 돈을 모은 일본인들이 조선의 미곡 투기에 나섰다기 때문이었다. 쌀값 등귀는 서민 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공황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1917년 5월에 1석에 18원 33전 하던 쌀값은 10월에 23원 50전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쌀값 폭등 시기에 일본정부는 자국내



의 쌀값 진정을 위해 비밀리에 오사카의 미곡상을 통해 조선 쌀 20만 석을 매점하게 하였다. 이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어 국내에 큰 파문이 일어났다. 매점 때문에 1918년 후반기에는 38~39원 대까지 등귀하였으며, 1919년 2월에는 43원 57전을 돌파하여, 당시 신문에는 ‘사람 죽일 시세’라고 표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궁민을 위해 구제회(救濟會)를 조직하고 쌀값으로 쌀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그 양도 적고 파는 곳도 몇 곳 되지 않아 굶주린 민중들은 하루 종일 열을 지어 1인당 2되씩 파는 쌀을 기다리다가 사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 1918년 8월 28일에는 종로소학교에서 쌀을 사려고 기다리던 군중 200여명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곧 군중이 1,000여 명으로 늘어나 학교 건물을 파괴하는 사태로 커졌다. 8월 22일에는 목포의 철도 인부들이 쌀집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부산서울원산 등지에서 대중의 쫓겨가는 전단이 살포되기도 하였다. 1918년에 이르러 노동자들의 동맹파업과 임금투쟁이 급증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1916년에 6건에 참여인원 362명, 1917년에 8건에 1,128명이었으나, 1918년에는 50건에 4,442명으로 급증하였다.

191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농민층의 몰락, 노동계층의 증대, 자본가층의 성장 억제, 쌀값 폭등으로 인한 궁민의 불만 등으로 각 계층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3)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약

민족자결주의에 대하여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인 것은 미주한인들이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 안창호(安昌浩)는 1918년 12월 1일에

재미한인전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듬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대표로 이승만민찬호(閔瓚鎬)정한경(鄭翰景)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전승국인 일본의 항의로 미국정부가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출발할 수 없었다.<sup>117)</sup>

1918년 12월 13일부터 뉴욕에서 제2차 약소민족동맹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신한협회 대표로 김헌식(金憲植), 중서부지역 대표로 시카고 정한경, 대한인국민회 대표로 민찬호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파리평화회의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소민족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미주 동포들이 한국대표로 정한경이승만민찬호를 파리평화회의에 보낸다는 소식이 일본의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에 보도되고, 약소민족동맹회의의 소식이 『저팬 어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에 보도되자, 재일 한국유학생들은 큰 자극과 고무를 받고 독립운동 문제를 의논하였다.

중국 상해의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독립운동 진영의 정비를 도모하였다. 신규식조소앙 등은 ‘조선사회당(朝鮮社會黨)’ 명의로 1917년 8월에 개최된 만국사회당대회에 전문을 발송하여, 모든 민족의 정치적 균등, 국제정의의 실현, 피압박민족의 원상복귀, 국제적인 한국독립의 실현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동제사 회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지사들은 1918년 여름부터 독립운동의 진로 설정에 몰두하였다. 이들은 세계대전의 종결을 새로운 기회라고 파악하고,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 노선을 채택하였다.

특히 민족자결주의가 세계적 풍조이므로 이 기회에 독립운동을

117) 신국주, 「31독립선언」,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22~226쪽.

전개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강외교를 통한 독립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여운형 등은 파리강화회의를 기회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승전국의 식민지에도 적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국제정세 변화를 독립운동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판단에서, 1918년 8월 20일경에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이 결성되었다. 여운형(呂運亨)이 대표 겸 총무로 초기 활동을 관장하고, 김규식김철(金澈)서병호선우혁(鮮于爨)조동호(趙東祐)장덕수(張德秀)한진교(韓鎭敎) 등이 참여하였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죽음을 맹세한 당원의 대다수는 동제사 회원으로 신민회계열의 공화주의 및 기독교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신한청년당은 결성취지문에서 독립을 완성함은 사업의 시작이며, 우리 민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선하고 정대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애국심과 박애심 있고 고달한 이상을 품는 신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당헌에서는 인류문화의 증진과 평등자유순결박애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당강에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 사회제도 개혁, 국제 강권주의와 제국주의 반대, 평등과 평화에 입각한 인류사회 건설을 표방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대통령 특사 크레인(Charles R. Crane)을 중국에 파견하여 전후 평화회담에서의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산둥반도 처리문제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표파견을 적극 권고하였다. 중국정부가 개최한 크레인특사 환영 집회에 신한청년당 대표 여운형이 범태평양회의 회원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크레인 특사는 집회 연설에서 전후 식민지 처리문제가 피압박 민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될 것이며, 중국도 평화회담에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운형은 파리평화회의에 한국대표를 참석시켜 한민족의 독립의사를 발표하고,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한반도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크레인에게 평화회의에 한국대표가 참석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크레인은 한민족도 파리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여운형은 신한청년당 긴급회의를 열어 11월 28일에 「한국독립에 관한 진정서」 2통을 파리평화회의 의장과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전달해 주도록 크레인에게 부탁하였다. 윌슨에게 보낸 진정서는 한국이 일제 침략으로 정신적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폭로하고,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진정서는 일본의 한국침략 과정과 한국민의 저항, 일제 식민지배하 한국민의 참상 등을 밝히고, 병합조약의 무효 선언과 한국문제 토의를 요구하였다. 또 같은 문서 2통을 파리평화회의 중국대표단 고문인 상해 『밀라도 리뷰』(Millard Review) 사장 밀라드(Thomas Millard)에게 전달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김규식(金奎植)을 신한청년당 대표 겸 한국대표로 선정, 1919년 2월 1일 파리로 출발시켰다.

김규식은 3월 13일 파리에 도착, 샤토당가(街) 38번지에 ‘평화회의 한국민대표관’을 설치했다. 곧 헐버트(Homer B. Hulbert)이관용(李灌鎔)김복(金復)황기환(黃圮煥)조소양(趙素養)여운홍이 합류했다. 대표단은 5월 10일에 파리평화회의에 한국민의 주장을 알리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각국 원수와 국회정부 및 정치가언론기관에 사본을 발송했다. 4월 중순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김규식이관용은 ‘평화회의 대한민국위원 겸 파리위원’의 자격으로 활동하였다.

신한청년당은 국내외 각지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민족 전체

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촉구하고, 파리강화회의 대표의 활동자금을 모금하였다. 국내에는 선우혁김철을 1차로, 서병호 김순애백남규를 2차로 파견하였다. 선우혁은 1919년 2월 초 평북 선천에 도착하여 양전백(梁甸伯)이승훈(李昇薰)길선주(吉善宙) 목사 등을 만나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대해 적극적인 찬동을 얻고 2월 상순에 상해로 돌아갔다.<sup>118)</sup> 당시 평안도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와 학생들이 연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김철은 서울의 천도교 측과 접촉하여 3만 원의 송금을 약속받고, 서병호와 김순애는 대구지방의 애국지사와 접촉하고 상해로 돌아갔다.

여운형은 직접 간도와 연해주를 순방하였다. 간도에서 여준(呂準), 연해주에서 박은식문창범이동휘 등, 북간도 간민회장 김약연(金躍淵)과 정재면(鄭載冕) 등을 만나,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일독립운동을 거족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한청년당이 파리평화회의와 국내외 각지에 대표를 파견하여 활동한 것은 28동경유학생 독립선언과 31운동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시기에 신한청년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임시의정원과 내각에 실무요원으로 참여하여 초기 임정의 중심세력으로 역할 하였다.<sup>119)</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1919년 2월에 만주를 중심으로 국내외 독립운동가를 망라하여 대조선독립단(大朝鮮獨立團)이 조직되었다. 대조선독립단은 김교헌(金敎獻)김규식김동삼(金東三)김약연김좌

118) 김희곤, 「신한청년당」,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151~181쪽.

119) 韓相禱, 「해외민족운동 - 중국 관내지역」,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15~237쪽.

진(金佐鎭)김학만(金學萬)정재관(鄭在寬)조용은(趙鏞殷)이동녕(李東寧)이동휘이범윤(李範允)이상룡(李相龍)이승만이시영(李始榮)문창범박용만(朴容萬)박은식신채호(申采浩)안창호(安昌浩) 등 39명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하였다. 선언서는 국외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은 국내 동포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와 타협할 수 없는 적이며, 항일독립전쟁은 하늘의 인도와 대동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성하고도 정의로운 전쟁이며, 비장한 결단에 의해서만 민족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4) 재일본 유학생의 28독립선언

미주 한인동포들의 독립운동 소식은 일본에 있던 한국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촉발시켰다. 1918년 12월 29일 유학생 학우회와 12월 30일의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동서통합옹변대회에서 한국 독립문제를 의제로 하여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조국독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19년 1월 6일 한국유학생들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옹변대회를 열고 국제적 운동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고, 최팔용(崔八鏞)윤창석(尹昌錫)김도연(金度演)이종근(李鍾根)송계백(宋繼白)최근우(崔謹愚)백관수(白寬洙)김상덕(金相德)서춘(徐椿)전영택(田榮澤) 등 10명을 독립운동 실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을 하여 일본정부와 귀족원중의원, 각국 대사공사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1월 7일 회의에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

이 무렵 중국 상해 신한청년당에서 보낸 조용은과 장덕수가 동경에 도착하여 유학생 궐기를 고취하였다. 뒤이어 이광수가 도착하여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재일본 한국유학생들은 이광수김철수를 추가하여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2월 8일을 기하여 재일본동경조선독립청년단(在日本東京朝鮮獨立靑年團)의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송계백을 국내에 파견, 국내 민족지도자들과 접촉하여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자금을 모집하며, 선언서 인쇄활자를 구해 오도록 하였다.<sup>120)</sup>

송계백은 「28독립선언서」 원고를 비밀리에 휴대하고 국내에 들어와 현상윤(玄相允)최린(崔麟) 등을 만났다. 이것이 국내 독립지사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 31운동 준비를 본격화시켰다.

재일본 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선언서」「결의문」「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부, 동경 및 일본 각 신문사와 잡지사, 여러 학자들에게 우송하고, 오후 2시에 유학생학우회 선거를 치르고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약 400명이 모여 대회를 개최하였다. 최팔용의 사회로 대회의 명칭을 조선독립청년단 대회로 바꾸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박관수가 「선언서」를 낭독하고, 김도연이 4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유학생들은 열광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28독립선언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민족은 역사상 이 민족(異民族)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음을 천명하고, 사기와 폭력에 의한 국권탈취의 불법성과 침략정책을 고발하였다. 또 10년간의 식민통치의 모순과 한국민족의 생존을 위한 독립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동양평화를 내세운 일본의 한국 침략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 민족은 영원히 일본과 혈전을 할 것이며, 한국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여 세계평화와 인

120) 강재언,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193~218쪽.

류문화에 공헌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오후 3시 50분에 일본 경찰에 포위된 유학생들은 일대 난투극을 벌이었으나, 실행위원을 포함하여 27명이 검속되었다. 재일 유학생 100여 명은 2월 12일 히비야(日比谷)공원 음악당 근처에 모여, 일본 의회에 독립을 청원할 대표로 이달(李達)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조국 독립의 필연성을 연설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유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국민대회청원서」를 일본의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없자. 2월 23일에 「조선청년 독립단국민대회촉진부 취지서」를 인쇄하여 히비야공원에서 시위할 계획을 세웠다. 사전에 발각되어 변희용(卞熙鎔)강종찬(姜宗燦)최승만(崔承萬)장인환(張仁煥)이 구금되었으나, 오후 2시 경 약 150명의 유학생이 히비야공원에 모여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기도하였으나, 곧 일경에 의해 집회는 해산되었다.<sup>121)</sup>

## 5) 고종의 죽음과 인산

1919년 1월 22일에 고종황제가 돌연히 죽었다. 1907년 일제의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절치부심하던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정략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일본 여인과 혼례를 올리기로 예정된 셋째 황태자인(李垠)의 혼례식을 앞두고, 이를 좋아하지 않아 자결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 당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고종황제 독살설은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에 의해 민중에게 널리 퍼졌다.

121) 이정은, 「31운동의 배경」,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313~318쪽.



고종황제는 1919년 1월 22일 덕수궁(德壽宮)에서 승하(昇遐), 일제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신빙서(조선이 병합을 自願했다는 내용)에 이완용(李完用) 등 7적(賊)이 조인하고, 황제께 비준 압보(押寶)를 강박했으나 불허하므로 그 밤에 독시(毒弑)되었다.

그리고 국민대회에서 발표된 격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종의 독살설을 밝혔다.

일제가 파리강화회의에 “한족은 일본의 정치에 열복(悅服)하여 분립을 불원(不願)한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만국의 이목을 기폐(欺蔽)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완용을 귀족대표, 김윤식(金允植)을 유림대표, 윤택영(尹澤榮)은 종척(宗戚) 대표, 조중응(趙重應)은 사회대표라고 가칭하면서 서명 날인하고, 고종황제께 비준 압보를 박청(迫請)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윤덕영(尹德榮)한상학(韓相鶴)으로 하여금 선(膳)에 시(侍)케 하고 두 궁녀로서 밤에 드시는 식혜(食醯)에 독약을 화진(和進)케 하였다. 직후 두 궁녀까지 잔약을 먹여 참살함으로써 비밀이 새지 않게 하였다.

고종 독살설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고종에 대한 애도, 나라를 잃은 슬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혼합되어 민심은 크게 동요되었다. 독살설이 퍼지자 서울시민들은 철시를 하고 노래와 춤을 삼갔다. 덕수궁 앞에는 통곡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사(殉死)하는 사람도 많았다.<sup>122)</sup>

독살설은 식민지 지배 하에 쌓였던 한민족의 울분을 폭발시키고 배일사상이 비등하여 31운동 발발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이 양반유생 주도로 마을의 뒷동산이나 언덕에

122) 『朝鮮獨立新聞』, 第2號, 3월 3일(金鎮鳳, 『三一運動史研究』, 國學資料院, 2000, 101쪽에서 재인용).

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국장일이 3월 3일로 정해지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주민들은 오륙 명씩, 또는 십여 명씩 떼를 지어 서울로 향했다. 남대문 정거장에는 매일 평균 1,500~1,600명의 승객이 드나들었는데, 2월 26일에는 3,000여 명, 27일에는 6,000여 명이 상경하였다.

31운동의 주도자들은 거사일을 고종황제의 장례식 이틀 전인 3월 1일로 잡았다. 국장 배관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한 수만 명이 자연스럽게 참여 또는 목격하고, 각종 선언서나 결의문 등을 습득하여 두루마기나 옷에 숨겨 귀향하거나, 우편으로 친지에게 보냈으며, 국장에 참여하였다가 31운동을 목격 또는 참여한 사람들은 이를 지방에 전파하여, 31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는데 큰 몫을 하였다.<sup>123)</sup>

1910년대 말에는 한인들의 반일운동이 기운이 성숙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고종(高宗)이 갑자기 승하하자, 거족적인 반일 기운이 팽배하게 되고, 여기에 국제정세의 변화가 가세하여 31운동을 점화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2. 3.1 독립운동의 추진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민족독립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일찍부터 세워놓고 있었다. 그 하나는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최 린(崔麟) 등 천도교 측에서 수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송진우(宋鎭禹)현상윤(玄相允)김성수(金性洙) 등 중앙학교(中央學校) 측이 세운 것이었다. 이들은 일본 신문을 통하여 민족

123) 이정은, 앞의 글, 318~319쪽.

자결주의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또 서울의 YMCA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서양인들과 접촉하던 박희도(朴熙道)이갑성(李甲成),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김원벽(金元璧), 보성전문학교 강기덕(康基德)과 졸업생 주익(朱翼), 경성의전 한위건(韓偉健), 세브란스의전 이용설(李容高) 등 청년학생층이 민족자결주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여러 갈래의 국내 움직임은 모두 1918년 12월에서 1919년 1월 사이에 태동하여, 각각 독립운동에 관해 밀의를 거듭하고 있었다. 특히 천도교측은 독립운동의 3가지 원칙을 1919년 1월 상순에 벌써 결정하였다.

천도교간부인 보성학교 교장 최 린, 중앙학교 교장 송진우, 중앙학교 교원 현상윤 등이 민족자결원칙에 의한 민중운동에 합의하면서 국내 각계의 계획이 일원화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천도교 기독교학생조직이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의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뒤에 서로 다른 계통의 활동을 알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천도교 제3대 교주인 손병희는 1918년 말 파리강화회의에서 약소민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 때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천도교의 중진인 권동진오세창최 린 등과 협의하여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천도교 내의 결속을 목적으로 1919년 1월 5일부터 49일간의 연성기도회(煉性祈禱會)를 거행하였다. 권동진오세창은 1918년 12월초부터 한국이 독립을 도모할 호기라고 생각하고 먼저 최 린에게 말했다. 최 린은 일본유학생 대표를 만나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권동진오세창최 린이 손병희를 만나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천도교 측의 주도체가 형성되었다. 운동은 원칙적으로

대중화일원화비폭력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2월초에 최 린이 송진우현상윤최남선(崔南善)과 논의하여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발표하여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에게 국권반환요구서(國權返還要求書)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獨立請願書)를 제출하여, 국제여론에 의해 일본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독립을 성취하기로 결정하였다.<sup>124)</sup>

천도교측 주도체들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면 기독교 불교유교 등 각 교단을 망라하는 동시에 저명인사들을 민족대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들은 1월 중순경부터 2월 상순까지 박영효(朴泳孝)한규설(韓圭堯)윤용구(尹用求)김윤식(金允植)윤치호 등을 만나 의견을 알아보았으나 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최 린송진우현상윤최남선 등은 크게 실망하고 한때 독립운동을 포기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1월 21일에 갑자기 고종이 승하하고, 일본인이 고종을 독살하였다는 풍문이 나돌아 민중의 배일감정이 절정에 이르자, 최 린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송진우현상윤최남선과 만나 각 종교단체와 교섭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최남선의 제의에 따라, 기독교 측과 협의하기 위해 오산학교(五山學校) 출신 김도태(金道泰)를 정주(定州)로 보내 이승훈을 상경케 하였다. 2월 11일에 서울로 올라온 이승훈이 송진우신익희(申翼熙)와 만나 기독교 측도 천도교 측의 독립운동 계획에 합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승훈은 다음날 밤에 정주로 내려가 기독교 측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124) 최영희, 「서울의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59~275쪽.

최 린이 1월 하순 한용운(韓龍雲)을 만나 쾌히 승낙을 받음으로써 불교 측과의 합동도 이루어졌다. 한용운은 승려 백용성(白龍城)과 협의하여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 그는 거창(居昌)의 곽종석(郭鍾錫)을 찾아가 유림 측과 교섭하였으나 참가시키는데 실패했다.

기독교 측의 계획은 처음에는 두 갈래로 시작되었다. 하나는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장로교계통의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의 감리교계통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었다. 이승훈은 1918년 말경에 민족자결주의와 강화회의 소식을 듣고, 교회 간부 이명룡(李明龍)양전백정기정(鄭基定) 등과 의논하였다. 그리고 1919년 1월 하순 중국 상해에서 파견된 선우혁(鮮于赫)이 평안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승훈양전백길선주안세환(安世桓)을 만나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고했다.

이승훈은 동지들과 협의하여 운동의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기독교 측 인사들은 평양에서 독립을 선언하기로 결정하고, 송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송실중학교(崇實中學校)송덕고등보통학교(崇德高等普通學校)송의여학교(崇義女學校)의 학생을 중심으로 3월 3일 고종 국장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시위를 일으키기로 작정했다. 윤덕삼(尹惠三)은 송덕고등보통학교 교사 함석원(咸錫元)곽권응(郭權膺)황찬영(黃贊永)김제현(金濟鉉) 등을, 안세환은 송실전문 학생 이보식(李普植)박형룡(朴亨龍) 등을 설득하고, 다시 함석원은 관립고등보통학교 교사들을 교섭하고, 윤덕삼은 송의송현여학교(崇賢女學校) 교사들을 교섭하였다. 이즈음 이승훈이 상경하여 천도교 측과 협의한 결과, 기독교 측의 계획을 보류하고 천도교 측과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서울의 기독교 측 인사들은 박희도함태영(咸台永)을 중심으로 감리교계통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청년 학생들과도 연락을 취

했다. 기독교 측 인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자, 중앙기독교청년회 간사인 박희도는 청년학생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은 박희도가 이승훈을 만나 이승훈 중심의 계획으로 통합되고, 다시 이승훈을 통해 천도교 측과 합류되었다.

학생 중심의 계획은 1919년 1월 23일 박희도가 연희전문학생 김원벽을 만나서 각 전문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모으기로 하였다. 26일경 보성전문 졸업생 주익, 재학생 강기덕, 연희전문 학생 윤화정(尹和鼎)김원벽, 경성전수학교 윤자영(尹滋英), 세브란스의전 이용설, 경성공업전문 주종의(朱種宜), 경성의전 김형기(金炯璣) 등을 관수동 대관원(大觀園)에 초대하여 청년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2월 3일경 추진계획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각 학교 학생대표들은 각자 자기 학교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층을 규합하였다. 김원벽은 연희전문 학생청년회장인 이병주(李秉周)에게, 이병주는 회원 40여명에게 알려 찬성을 얻었다. 주익이 2월 20일경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인쇄를 시작하려던 참에, 23일 이승훈과 박희도가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류교섭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학생층도 천도교 기독교측의 추진계획에 참여키로 하였다.

이로써 31운동의 주도체가 단일화되고, 천도교기독교학생층의 개별적인 시위계획이 통합되어 그 추진이 급진전되었다. 이에 불교 측이 가담함으로써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의 인선이 시작되었다. 천도교 측에서는 2월 25일부터 권동진과 오세창이 담당하여 이종일(李鍾一)권병덕(權秉惠)김완규(金完圭)홍기조(洪基兆)홍병기(洪秉箕)나용환(羅龍煥)박준승(朴準承)나인협(羅仁協)·임예환(林禮煥)이중훈(李鍾勳) 등 11인에게 거사계획을 알리고

서명케 함으로써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 린과 함께 15인이 서명하였다. 기독교 측에서는 이승훈양전백이명룡유여대(劉如大)·김병조(金秉祚)·길선주·신홍식(申洪植)·박희도·오화영·정춘수(鄭春洙)·이갑성(李甲成)·최성모(崔聖模)·이필주(李弼柱)·김창준(金昌俊)·박동완(朴東完)·신석구(申錫九) 등 16인이 27일에 서명하였다. 여기에 불교 측의 한용운·백용성이 서명하여 민족대표는 모두 33인으로 결정되었다.

33인 이외에도 거사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사들이 있으나, 개인사정이나 다음 독립운동을 위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송진우·현상윤·정로식(鄭魯湜)·김도태(金道泰)·최남선·임규(林圭)·박인호(朴寅浩)·노헌용(盧憲容)·김홍규(金弘奎)·이경섭(李景燮)·함태영·안세환·김세환(金世煥)·김지환(金智煥)·강기덕·김원벽 등 16인이었다.

원래 독립선언은 고종 국장일인 3월 3일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3월 1일로 변경했다. 동경유학생들이 2월 8일에 이미 독립을 선언하였고, 국내 학생들의 독립선언도 임박하였으므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또 국장일에 거사하는 것은 불경(不敬)이라 피하고, 3월 2일은 일요일이라 기독교 측에서 피하였기 때문에 결국 3월 1일로 확정하였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중에서 서울에 있던 20여인은 2월 28일 밤에 제동(齊洞) 손병희 집에서 거사계획을 최종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3월 1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을 선언하려던 예정을 변경하여 같은 시각에 태화관(泰華館)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민중이 탑골공원에 모이면 혹시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한 때문이었다.

독립선언서는 최 린·현상윤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최남선이 자

기가 작성하겠다고 제의하여 그에게 낙착되었다. 며칠 후 최남선은 선언서 초안을 최 린에게 전했다. 그러나 한용운이 독립운동에 직접 책임질 수 없는 최남선이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짓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선언서의 손질이 끝난 뒤였다. 현전하는 독립선언서의 뒤에 있는 공약삼장(公約三章)은 한용운이 추가한 것이라 한다.

독립선언서의 원고는 오세창(吳世昌)을 통해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普成社) 인쇄소 사장 이종일에게 넘겨졌다. 이종일은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1,000매를 인쇄했다. 이를 경운동(慶雲洞) 자기 집으로 운반하여 28일 아침부터 전국 각지로 전달하였다. 천도교 측의 안상덕(安商憲)이 2~3천매를 맡아 강원도와 함경도, 김홍렬(金洪烈)이 약 3천매를 평안도, 인종익(印宗益)이 2~3천매를 맡아 김창준은 평양과 선천, 이갑성은 서울과 경상도, 불교 측의 한용운이 약 3천매를 맡아 주로 경상도의 사찰에, 학생 측의 김성국이 2천 매 내외를 맡아 서울과 지방에 각각 배포케 하고, 나머지는 천도교 직원 이관(李權)에게 주어 서울에 배포하게 하였다. 그중 이갑성의 지시를 받은 김성국이 가져간 1,500매는 승동예배당(勝洞禮拜堂)에 모인 학생 대표들에게 전달, 서울의 여러 곳에 배포되었다. 이리하여 3월 1일에는 서울과 중요 도시에 선언서가 배포되었다.

국내외의 요로에 독립선언서 및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분담하였다. 일본에 전달 책임을 맡은 임 규는 2월 26일 최남선의 부탁으로 독립통고문(獨立通告文)과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27일 서울을 떠나 3월 1일 동경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를 등사하여 3일에 일본 내각총리대신귀족원중의원에 우송하였다. 5일에는 각 정당 및 중견 의원, 신문사와 잡지사, 각 대학의 저명 학자에게도 우



송했다.

미국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호소문은 현순(玄楯)과 김지환이 맡았다. 이승훈과 함태영의 결정으로 감리교목사 현순은 2월 26일 상해로 출발했다. 전도사 김지환은 3월 2일 아침에 호소문 2통과 독립선언서 10매를 받고 출발해서 오후 11시경 만주 안동(安東)에 도착하였다. 김지환은 이를 목사 김병농에게 전하여 현순에게 우송하도록 부탁했다.<sup>125)</sup>

조선총독 하세카와(長谷川好道)에게 독립의견서(獨立意見書)와 독립선언서를 전달키로 한 이갑성은 3월 1일 태화관에 모였을 때, 세브란스의전 서영환(徐英煥)에게 주어 총독부에 전달하게 하였다.

### 3. 3·1독립운동의 전개

3월 1일 정오경 민족대표 33인 중 29인(길선주김병조유여대정춘수는 지방에 있어 불참)은 태화관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최 린이 주인에게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민족대표 일동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게 하였다. 10분도 되지 않아 일경 80명이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했다.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式辭)를 들고,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한 뒤 일경에 연행되어 갔다.

탑골공원(塔洞公園)에서는 정오경부터 강기덕김원벽 등의 연락으로 오전 수업을 마치고 달려온 남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 4~5천명이 모여 독립식전(獨立式典)을 기다렸다. 경성의학전문학교

125) 신국주, 앞의 글, 226~246쪽.

학생들은 전원이 결석하고 식장에 모였다. 오후 2시가 되자, 팔각정 단상에는 큰 태극기가 나타나고 독립을 선언하는 식전이 개막되었다. 경신학교(敬新學校) 졸업생 정재용(鄭在鎔)이 단상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 낭독이 끝날 무렵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군중 속에서 터져 나왔다. 만세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고 학생들은 모자를 하늘에 던져 올리고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공원에는 어느새 서울 시민과 지방에서 고종 국장을 참배하러온 사람들로 꽉 메워졌다. 학생과 시민들은 공원문을 뛰쳐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질서 정연하게 시위행진 하였다. 학생상인신사농만유림 등 남녀노소가 시위행렬에 가담하여 시가를 누비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국장에 참례하러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민중과 서울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날이 저물도록 시위를 계속했다. 군중의 일부는 종로에서 광고남대문남대문역을 거쳐 의주통(義州通)으로 꺾어 프랑상공사관으로 행진했다. 다른 일대는 대한문(大漢門) 앞에서 만세 부르고, 일부는 일본 군경의 제지를 뚫고 대한문 안으로 들어가 고종황제의 영전을 향하여 조례(弔禮)를 행하였다. 그들은 대한문 앞에서 독립연설회를 가진 다음, 일부는 미국영사관 앞으로 행진하고, 일부는 구리개(乙支路) 방향으로 향하고, 일부는 일본인 거리인 진고개(忠武路) 방향으로 행진하려다가 일경에게 저지되었다. 또 군중의 일부는 종로에서 광화문통을 지나 경복궁 쪽으로 행진하고, 다른 일대는 창덕궁 쪽으로 향했다. 해질 무렵부터는 교외로 번져나갔다. 저녁 8시경에는 마포 전차 종점부근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는 밤 11시까지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1일 서울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은 수십만 명이 참여하여 거리를

휩쓸었다. 그러나 시위 군중은 공약삼장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질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단 1건의 폭행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다. 경찰과 헌병 이외에도 용산(龍山)에 있는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중대를 동원해서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다. 이날 민족대표 29인을 비롯한 주모자 130여인이 체포되었다.<sup>126)</sup>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은 서울뿐이 아니었다. 평양진 남포안주(安州)의주선천(宣川)원산 등 대체로 이북지방의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펼쳐졌다. 이들 도시는 경의선과 경원선 등 철도연변에 위치하고, 민족대표 중 기독교 측 대표들의 출신지이기 때문에 연락이 용이했던 것이다.

2일에는 이미 쫓겨났던 도시는 물론 황주(黃州)중화(中和)강서(江西)대동(大同)함흥 등지에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3일에는 예산(禮山)개성수안(遂安)사리원송림(松林)곡산(谷山)통천(通川)으로 확산되었다. 4일에는 옥구(沃溝)성천(成川)양덕(陽德)용천(龍川) 등으로 번져 나갔다.

3월 1일에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날이 갈수록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독립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은 천도교나 기독교의 조직을 통한 경우, 고종의 국장 참관차 상경했던 지방의 유림이나 학생이 귀향하여 계획한 경우, 인근 지방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였다. 그리하여 3월 중순까지는 전국 13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파급되었다.

만세운동의 파급 경향을 보면, 대체로 서울에서 의주로 연결되

126) 최영희, 앞의 글, 269~281쪽.

는 서북 지방에서 남부와 동부 지방으로, 교통이 편리한 철도 연변의 대도시에서 중소 도시읍면리로 전파되어갔다. 규모가 큰 시위는 대개 장날에 일어났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또는 5일, 10일 간격으로 몇 차례씩 거듭하여 일어났다.

운동의 주체는 각 계층을 망라하였다. 천도교 측이 주동한 지역은 북부의 6도였으며, 남부의 7도에서는 그 활동이 미약하거나 전혀 없었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계속되는 탄압으로 삼남 지방에서는 그 교세가 궤멸 또는 북상한데 있는 것 같다. 천도교 측이 주동한 곳은 중소 도시와 산간지역이었다. 기독교 측이 주동한 곳은 주로 북부지방이었다. 충청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남감리교북감리교 등 신교와 구세군이 주체가 되었지만, 천주교의 활동은 전혀 없었다. 기독교 측의 만세운동은 대도시와 철도연변에서 일어났다. 천도교와 기독교 측이 합동으로 일으킨 곳도 많지만, 함경도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시위를 일으켰다.

학생들이 단독으로 시위를 전개한 지역은 주로 남부 지방이었으며, 서당 생도가 주체가 된 곳도 10여 곳이나 된다. 학생들은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각 지방의 운동에는 농민이 가담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지역운동으로 그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곳의 대부분은 농민이 주동한 것이었다. 도시의 상인은 서로 연합하여 철시를 단행하여 일제에 저항하였다. 노동자승려관리는 물론 아동결안기생이 주동한 시위도 있었다.

지방의 시위는 중앙 지도체와 연결된 것보다 각 지방 독자의 계획으로 결행된 곳이 훨씬 더 많았다. 시위 규모는 작으면 수십 명, 수백 명의 경우가 많았고, 수천 또는 수만 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시위는 한 곳에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쉼기한

곳도 많았다. 서울은 13차, 해주는 8차, 개성마산진주함흥은 각각 7차에 걸쳐 시위하였다. 면사무소 소재지 정도의 취락에서는 3~4차씩 일어난 곳이 많았다.

횟수가 많기로는 경기황해경남평북 등의 순이며, 부군별로는 서울 64회, 의주 37회, 시흥(始興) 23회, 고양(高陽) 22회, 수원 20회, 해주북청(北靑)은 각각 16회 시위했다. 참가인원이 많기로는 경기평북경남황해 등의 순이며, 부군별로는 서울 수십만 명을 비롯하여 의주 약 3만 명, 강화(江華) 약 2만 4천명, 선천(宣川) 2만 명, 삭주(朔州) 2만명, 정주(定州) 수만 명 등이었다.<sup>127)</sup>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전개된 도별 상황을 보면 <표 2> 와 같다.<sup>128)</sup>

<도별 31운동 상황>

道別	府郡數	會集人員	示威回數	單純示威	示威衝突
경기도	22	약 47만	288	180	108
강원도	20	약 2만 5천	74	53	21
충청북도	9	약 2만 8천	56	28	28
충청남도	13	약 5만	75	35	40
전라북도	14	약 1만	39	32	7
전라남도	18	수만	44	40	4
경상북도	20	약 2만 6천	62	36	26
경상남도	21	약 10만	121	82	39
황해도	17	약 7만	137	84	53
평안남도	15	약 6만	85	59	26

127) 崔昌熙, 「31獨立運動과 江原地方」, 1275~1283쪽.

128) 金鎮鳳, 「31운동과 민중」, 『三一運動五十周年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62쪽 재인용.

평안북도	18	약 15만	114	66	48
함경남도	15	약 2만 5천	75	57	18
함경북도	10	약 2만	44	36	8
계	212	약 110만	1,214	788	426

이를 보면 1,214회 시위에 참가 연인원이 110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일제 측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은 분명한 사건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시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는 시위횟수 1,542회에 참가 연인원 205만여 명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이 숫자가 사실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까지 확대되어 만주미주연해주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 IV. 강원도 3·1독립운동

### 1. 강원도 3·1독립운동의 배경

#### 1) 강원도의 여건

3월 1일 서울의 시위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한민족이 거주하는 해외의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처의 독립운동

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기와 양상이 각각 달랐다.<sup>129)</sup>

한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한 강원도는 동쪽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고, 마식령광주차령소백산맥이 동서로 뻗어, 산이 많고 평야가 적다. 강원도는 동부 해안, 철원춘천원주 등의 부근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다. 태백산맥 동쪽의 영동, 서쪽의 영서 지역은 오랫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제각각 다른 문화와 특성을 지녀왔다.

강원도라는 이름과 행정구역은 조선왕조 건국초 1395년(太祖 4년)에 전국을 8도로 나눌 때 이루어졌고, 원주에 감영(監營)이 있었다.

경찰행정은, 도에는 헌병대장인 육군소좌(陸軍少佐)가 경무부장(警務部長)에 임명되고, 군에는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면에는 헌병파견소(憲兵派遣所)가 있어서 경찰업무를 맡았다. 지방의 경찰은 일반 행정과 독립, 헌병경찰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31운동 때 일부지역에서 헌병분견소가 경찰서(警察署)로 교체되고 각 면에 경찰주재소(警察駐在所)가 있었으나, 강원도 헌병대장(警務課長)의 관할 아래 있어 헌병경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31운동 전의 강원도의 군수는 모두 한인이었지만, 그 밑의 내무과장(內務課長)은 일인이 배치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경찰서장도 모두 일본인이었다.

강원도는 강제 병합 이후에도 반일(反日) 의병투쟁이 치열하였으므로, 초기에는 일본 수비대(守備隊)가 각 고을마다 주둔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전에 대개 북쪽 국경 방면으로 이동하고, 다만 경원선이 통과하는 철원평강에 수비병이 약간 있었다. 그런데 31

129) 趙東杰, 「三一運動과 地方史的 性格 - 江原道를 中心으로 -」, 『歷史學報』 第47輯, 1970, 104쪽.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3월 12일에 춘천에 1개 중대, 4월 5일에 2개 중대가 원주와 강릉에 본부를 두고 흩어져서 운동을 탄압하였다. 이 3개 중대는 춘천에 대대본부를 설치한 제20사단 제79연대 병력이었고, 동해안 고성에는 원산에서 내려온 제19사단 제74연대의 1개 소대가 3월에 이미 주둔하였었다.

강원도의 사법기관은 지리와 교통조건에 따라 다른 도와는 달리 6개 지청(支廳)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을 3개 지방법원의 관할 아래 두었다. 즉 철원춘천원주지청은 경성지방법원에, 원산강릉지청은 함흥지방법원에, 울진지청은 대구지방법원에 속해 있었다. 헌병대장은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에 의하여 3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판결할 수 있었으며, 각 군의 경찰서장(헌병분견소장)은 조선태형령(朝鮮苔刑令)에 의거해서 참혹한 태형을 부과했다.

## 2) 항일민족운동의 계승

강원도 31운동의 직접적인 민족저력은 의병투쟁과 구국계몽운동을 통하여 다져졌다. ‘병합’ 이후에도 강원평안함경도에서는 평민층이 중심이 된 의병투쟁이 계속 전개되었다. 강원도에서의 의병투쟁에는 특히 포수들이 참여하여 큰 활약을 하였다. 1910년 9월 경북과 황해도에 ‘대토벌작전(大討伐作戰)’이 실시되면서 국내 의병의 항쟁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경기강원도는 이북지방과 함께 1910, 1911년에도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는 강기동(姜基東)채응언(蔡應彦)정경태(鄭慶泰)김종태(金宗泰) 등이 경기강원충청황해함경평안도에서 활약했다. 1912, 1913년에도 의병은 계속되고 1919년 31운동 직전까지 소수의 병력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무단통치 아래서 의병들은 만주노령으로 옮겨가 새로운 운동



기반을 구축하고 독립군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화전민술장사머슴살이로 은둔하다가 31운동 때 등장하여 적극 투쟁하였다.<sup>130)</sup>

구국계몽운동은 개화운동을 계승하였으나, 주권이 상실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절박한 위기에서 구국투쟁의 성격을 띤 정치운동으로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1905년 을사5조약 이후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 전국에 널리 파급된 신교육구국운동은 국권을 회복하려는 강렬한 독립사상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여 민족의 역량을 성장시켰다. 당시 신문화운동은 주로 사립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강원도에서는 김화 신창학교(信昌學校), 철원 봉명학교(鳳鳴學校)·정의학교(貞義學校)·배영학교(培英學校), 그리고 양양 현산학교(峴山學校)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원주 노림의숙(魯林義塾)처럼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도 있었다. 강원도에는 사립학교 26개(8개교는 종교계통)가 설치되어 항일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고 10년 후 31운동의 주동 인물을 배출하였다.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탈취한 뒤 각종 법령과 정책을 시행하여 수많은 제약과 탄압을 자행하였다. 특히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식민지교육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무단통치로 민족교육은 시련을 맞게 되었다.

31운동 직전인 1918년 말 현재 강원지방의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30) 朴成壽, 『獨立運動史研究』, 創作과 批評社, 1980, 73~84, 123~191쪽.

<1918년 말 현재 강원도의 교육기관><sup>131)</sup>

구분 도별	보 통 학 교						실 업 학 교				합 계	사 립 각 종 학 교			
	관 립	공 립	사 립	계	고 등 보 통	여 자 고 등 보 통	농 업	상 업	간 이 실 업	계		일 반	종 교	계	서 당
강원	-	30	-	30	-	-	1	-	5	6	36	18	8	26	2,139
전국 총계	2	469	37	508	10	6	17	3	69	90	618	463	312	775	28,369

보통학교는 군청 소재지나 중요 도시에 설립되었으나, 고등보통학교는 강원도 지역에 전혀 설립되지 않고, 농업학교와 간이실업학교만 있었다. 그것은 일제의 교육정책이 인문(人文)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각종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항일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고 31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에 서당이 많은 것은 보수적 전통교육이 강했음을 뜻한다. 신문화에 대한 반발로 유학교육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한국어한국사한국지리 등의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며 교과내용에 민족차별을 포함시켰다. 사립학교는 물론 서당에 대해서도 취체규칙(取締規則)을 만들어 학교의 설립 교원채용교과과정교과서에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슬한 악조건을 무릅쓰고 교육은 명맥을 유지하여, 잔학한 무단통치를 체험하면서 독립과 국권회복의 절실함을 확인하고 민족주의 사상을 더욱 고취했다.<sup>132)</sup>

13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8年度 第430表에 의거하여 작성.

132) 愼鏞夏, 「31運動의 再評價」, 『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 文學과 知性社, 1980, 224~225쪽.

공립학교도 신문화운동에 큰 의미를 가지나, 주요도시에만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므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중등학교는 춘천농업학교철원간이농업학교인제간이공업학교 뿐이었다. 때문에 보통학교 졸업생은 서울개성원산 등으로 진학하였다. 공립 보통학교는 1919년 3월 현재 30개교가 있고 생도총수는 5,848명이었다. 횡성 등 각 군청소재지와 평해(平海)북평(北坪)주천(酒泉)문막(文幕)화남(華南), 화천군)고성흡곡(歙谷)금성(金城)안협(安峽)에 있었다. 구한말에 설립된 많은 사립학교들은 일제하에 대개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고, 강릉 영어학교, 철원 배영학교처럼 폐교된 경우도 있다. 교회에서 부설학교를 세워 근대사상을 보급시키기도 하였다.

31운동의 발발과 확산에는 유교천도교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 유교는 강원도의 경우 31운동에서 어느 종교보다도 큰 영향을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10년 주권상실 후 마치 유교의 부흥운동처럼 각 마을마다 서당을 새로 마련하여 전통적인 유교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신문화도입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가지나, 항일운동이라는 면에서는 신문화운동과 결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은 유생들을 격분시켜 31운동의 확산에 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천도교는 강원도 31운동의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영서 남부인 횡성홍천원주영월평창정선군 등은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약하였다. 반면에 유교세력이 강했던 강릉양양삼척 등의 영동지방은 반동학군(反東學軍)을 조직하여 앞장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동학농민군은 1895년부터 의병에 가담, 항일전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896년 가을 의병이 거의 해산되자

활빈당(活貧黨)으로 활약하였다. 활빈당은 충청도 내포(內浦) 지방에서 일어나 관동지방에 이르는 일대에서 1904년까지 활동하며 토지분배를 요구하고, 외국의 농산물 수탈, 광산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자본침투 등에 반대하며 각지에서 출몰 항쟁하였다.<sup>133)</sup> 31운동 당시 횡성에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천도교 대교구(大敎區)가 있었다. 영서지방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이후 춘천화천철원평강·김화이천 등에 전파되어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기독교는 강원도의 거의 모든 군에 감리교가 전파되었으나 대중화되지는 못하여, 기독교 그 자체가 31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에 수반하여 들어온 신문화의 사조, 그리고 지방청년들의 집단적인 활동을 교회가 조장한 것은 31운동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교회 부설 학교는 근대사상 보급에 한 몫을 담당했다. 불교는 강원도에서 정신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31운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 3) 반일감정의 격화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과 수탈에 대한 항쟁이었다. 1905년 을사5조약 이후 일제는 재정금융화폐교통통신 등을 탈취하여 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동양척식회사의 설립과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일제관현과 악질적인 친일배들의 횡포가 자행되고 일본인 회사와 개인들이 광범위한 토지를 수탈 지배하게 되었다.

강원도 지역도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비교적 심하였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충북 다음으로 일본인 거주자가 적었지만, 일인의 경

133) 姜在彦, 『근대한국사상사연구』, 한울, 1983, 135~149쪽.

제적 수탈은 심했다. 춘천에 약 1천명, 그리고 철원평강강릉에 4백 명 정도의 일본인이 살았고, 춘천철원고성군에 일본인 경영의 농장이 있었다.<sup>134)</sup>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국유림구분조사임야조사사업광업령 등을 통하여 토지임산물광물을 탈취하고, 숲장사어업 심지어 아편재배까지 하여 농촌경제를 파탄시켰다. 농민에게 주세연초세를 부과하여 착취하고 화전경작을 제한하며 또 공동묘지제를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한민족의 반일감정은 고조되었다. 또한 도로공사나 관공서 건립을 추진하며 개인의 토지와 가옥을 수용하고, 각종 토목공사에 한국인을 동원하였다. 여기에다 일제의 한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많은 불만이 쌓여 일인에 대한 민족감정이 팽배하였다.<sup>135)</sup>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일제의 부당한 임야 탈취에 맞서, 1913년 4월에 삼척군 원덕면 임원리(臨院里) 주민 500여 명이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재측량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위 항거하였다.<sup>136)</sup> 1918년 철원군 마장면의 농민 500명이, 또 춘천군 농민 350여 명이 각각 면사무소를 공격하였다.

노동자들도 전국 각지에서 20여 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임금의 인상, 비인간적인 대우 개선, 민족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노동파업을 일으켰다. 1919년에는 전국에서 84건의 동맹파업에 9,011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그중 92%가 한인이었다.

당시의 민심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곧 폭발할 듯한 긴장상태였

134) 朴慶植, 『朝鮮三一獨立運動』, 日本 平凡社, 1987, 120쪽.

135) 崔昌熙, 「중부지방의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333~342쪽.

136) 김일기, 『三陟市誌』 제1편 역사, 三陟市廳, 1997, 25~26쪽.

다.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세의 변화, 국외 민족운동가들의 독립사상의 전파, 일본유학생들의 민족자결주의 소개 등으로 민중의 항일독립의식이 높아졌다. 더욱이 고종 독살설이 유포되어 한민족을 격분케 하였다. 특히 청년 학생들 사이에는 독립운동의 당위성이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sup>137)</sup> 그러므로 유력한 지도자들이 거사계획을 세우고 설득하면, 항일독립의식이 높아진 민중들이 적극 참여하여 거족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sup>138)</sup>

## 2. 강원도 3·1독립운동

### 1) 강원도 3·1독립운동의 전개

#### (1) 독립선언서의 전달·배포

1919년 3월 10일 철원에서 시위함으로써 강원지방의 31독립운동이 점화되었다. 31독립운동은 대체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시작되어, 군청면사무소 소재지, 시장, 그리고 자연 촌락으로 확산되었다. 교통이 불편했던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늦게 시위가 일어났지만, 운동은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평강 이외에는 서울과 사전 연락 없이 시위하였으므로, 전체가 상호 보조를 맞추지는 못하였다.<sup>139)</sup>

독립선언서는 31운동을 촉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13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692~93쪽, 이하 『독립운동사자료집』으로 줄임.

138)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692~693쪽.

139)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1959, 874쪽.

한 역할을 하였다. 33인의 ‘민족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는 전민족의 쉼기를 촉구하여 반일의식이 팽배하던 한민족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케 하였다. 내용은 소극적이었지만 한민족이 봉기하는 데는 큰 몫을 담당하였다.<sup>140)</sup>

강원함경도의 독립선언서 분배를 맡은 서울 천도교본부의 안상덕(安商愐)이 6~7백매를 28일 천도교평강교구장 이태윤(李泰潤)에게 전하여 영서북부에 배포하게 하고 원산으로 떠났다. 이태윤은 철원김화 교구와도 연락, 3월 1일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에서 김찬호(金瓚鎬)가 돌아와 실황을 보고하자, 서둘러 이를 배포하였다. 철원군은 최병훈(崔炳勳)이 170매(혹은 2백 매)를, 김화군은 채장숙(蔡章淑)이 150매를 가져가 그 중에 90매는 화천교구에 보내고, 회양군(淮陽郡)은 김천일(金千鎰)이 120매를 가져가 그 중에서 32매를 통천군(通川郡)에 전하고, 이천군은 장선경(張善慶)이 15매를, 춘천군은 임종한(林宗漢)신윤철(申允喆)이 150매를 배포케 하였다. 그러나 춘천군은 배포 전에 발각되어 압수당하고, 양구인 제군에도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곳은 천도교 조직을 통하여 비교적 계통적으로 배포되어 독립운동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배포 담당자들이 3월초에 검거되어 곧 시위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횡성군은 천도교인 장도훈(張道勳)을 서울에 보내 입수하고, 평창에 전하여 원주영월정선강릉에 전달케 하였다. 횡성원주영월지방에는 충북 제천의 이범우(李範雨)가 전하기도 하였다. 원주는 고종의 인산에 참례했던 사람이 전하기도 하였다. 양양은 고종의 인산 참례자인 유림 그리고 여학생에 의하여 전해졌다. 간성과 삼척에도 입수되었다.

---

140) 姜在彦, 앞의 책, 245쪽.

이와 같이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가 천도교기독교학생, 그리고 고종의 국장에 참례한 유학자 등을 통해서, 또는 지방에서 서울에 사람을 보내 가져와 비밀리에 각 처에 배포되었다. 각지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거나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살포하고, 학교 및 군중 집회장에서 낭독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 외에 선전문격문취지서경고문 등 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여러 종류의 문서가 배포되어 민중을 고무 각성시켜 참여를 유도하였다. 일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독립선언서 등의 배포를 저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각종 문서의 내용은 점차 대중 스스로의 요구조건을 강렬하게 표출하여, 운동 초기의 취약성을 극복해 갔다.<sup>141)</sup>

## (2) 시위운동의 확산

31운동의 전국적인 경향은 3월 초순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월 중순 이후 4월 상순까지는 전국에 걸쳐 거족적인 운동이 절정에 이르러 작열 혈전하고, 4월 하순에 이르러 지하운동으로 변질하는 한편 일제와 세계 여론을 관망하는 양상을 띄우게 되었다.<sup>142)</sup>

강원도 31운동은 3월 10일에 철원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발로 도내로 확산되었다. 그 한 흐름은 원산가도를 따라 11, 12일에 김화금성회양방면으로, 또한 흐름은 충주가도를 따라 23일 화천에서 쫓기던 후 춘천홍천, 그리고 횡성원주 등으로 퍼져갔다.

그리고 4월 1일 강릉, 3일 통천양구, 4일 이천평창양양, 7일 정선, 10일 울진, 15일 삼척회양, 18일 간성, 21일 영월에서 쫓기하였다. 그리하여 4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군에서 매일 시위를

141) 崔昌熙, 「江原道の 31運動」,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II), 光復會江原道支部, 1992, 390~391쪽.

142) 尹炳奭, 『31운동사』, 정음사, 1975, 49~50쪽.



계속했다. 그러나 5월 9일 양양시위를 끝으로 잠잠해졌다.<sup>143)</sup>

강원도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 남짓 운동을 계속했다. 3월말부터 4월 초순까지가 가장 많고 치열하였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절정기는 하루 평균 4, 5개소에서 시위하였다.<sup>144)</sup>

### (3) 독립운동의 주도층

강원도의 31독립운동은 처음에는 천도교나 기독교의 교단 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고종 국장에 참례하고 서울 시위를 목격한 유림 또는 서울 학생들이 귀향하여 일으킴으로써 거족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또 인근지방의 운동소식과 독립선언서선전문 등의 전달에 영향 받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대개 교통이 편리하고 천도교기독교 등 중앙의 운동주동체와 연결되고, 운동을 추진할 만한 세력이 큰 지역에서 먼저 궤기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지도체와 연결된 것 보다, 점차 각 지방 나름의 조직과 민중의 자발적 참여로 결행된 곳이 많아졌다.

초기 운동의 주동체가 천도교기독교학생 등의 단체인 것은, 일제 탄압으로 다른 사회단체가 거의 해산되었으나, 이들은 명맥을 유지하며 역량을 배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천도교인들은 고종의 죽음 때 관내 각 교구장들이 서울본부에서 시위운동에 관한 방책을 받은 듯 영서 북부와 남부에서 비밀리에 거사 계획을 수립, 시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지방에서의 31운동은 대부분 천도교도에 의하여 주동되어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45)</sup>

천도교인들은 국권회복과 독립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신념을 갖

14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572999~1000쪽.

144)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二, 1968, 282~286쪽.

145)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619~620쪽.

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운동을 주도하며, 운동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의 장기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유교가 강했던 강릉양양 등 영동지방에서는 통천을 제외하면 천도교의 세력과 활동이 거의 없었다.

기독교 또한 31독립운동에 깊게 참여하였다. 유교는 의병투쟁 때 많은 지도자를 상실하여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못했으나, 고종 국장에 참례했던 유림들이 귀향하여 격렬한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했다.<sup>146)</sup> 유림이 주동한 것은 홍천군 동면, 양양군, 삼척군의 시위가 두드러졌다. 불교는 비세속적인 성격과 조직이 확실히 못했으므로 적극 가담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종교 간의 협력은 많지 않았다. 어느 한 종교가 단독 추진한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협력해서 시위한 것은 홍천뿐이고, 기독교와 유림이 합쳐 거사한 곳은 양양뿐이었다.

그러나 지식인청년과 학생은 누구와도 쉽게 합류할 수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을 조직화하였다. 철원양양흡곡문막통천삼척 등의 공사립학교 학생들이 참가하고, 횡성강릉인제영월의 보통학교 학생들의 계획은 사전에 저지됐다.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곳은 기독교, 산군(山郡)에서는 천도교가 주동하고, 그밖에는 학생서당생도농민 또는 양반이 앞장섰다.

강원도의 31독립운동은 대체로 천도교인일반 지식인청년과 학생유생기독교인 그리고 의병 출신들이 주동하였다. 특히 의병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병합' 후 술장사나 화전민으로 숨어살다가 31운동에 주동급으로 참여한 것은, 의병투쟁과 31운동의

---

146) 姜在彦, 앞의 책, 243쪽.

담당자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동인물 중에는 일본 유학생이나 간도에서 귀환한 사람, 서울의 학생, 또는 면장, 군청이나 면사무소의 직원 등이 앞장서서 참여하였다. 의병투쟁 및 애국계몽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독립운동가들이 운동의 사상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교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층농촌지도자들이 민중을 동원하였다.

초기에는 지식인층종교인의 주도로 시위하고, 비무장 무저항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젊은 학생층과 농민노동자상인층에 의해 확산되었다. 식민지 하에서 소작농농업노동자화전민으로 전략해 간 농민들이 31운동에서 가장 큰 역량을 발휘했다. 그들은 군중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주동자나 참여 군중은 독립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시위로 파리강화회의에 호소하여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미 독립되었다고 믿고 만세 부른 곳도 있었다. 독립의 가능성을 의심한 사람들도 독립의 기운을 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운동 여하에 따라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독립은 불가능하나 일제의 통치와 착취, 민족 차별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31운동은 주동 인물들이 협력 또는 합세해서 추진한 것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농민학생노동자상인종교인서당생도어부 등이 군중의 대부분으로, 이들이 망라되거나 어느 한 계층이 단독 시위한 경우도 있었다. 계층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신분 남녀를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운동을 계획 조직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 시위계획이 실패한 것은 한인 관리를 설득하다가 탄로 나가거나, 구장의 배신, 미국선교사의 고발로 말미암은 것

도 있으나, 대부분은 행정 검속으로 발각된 것이었다.

군중들은 군수면장관공리현병보조원일인 관공리 등을 위협하여 강제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시위 때는 대개 큰 태극기나 ‘독립만세’의 깃발을 앞세웠는데, 간혹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또는 시위 대표자의 이름을 쓴 기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일본인 관공리는 모두 죽여야 한다. 구금된 동포를 탈환하자” 또는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함성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 하였다.

## 2) 강원도 3·1독립운동의 제양상

### (1) 독립만세시위

시위 형태도 지역과 주도 또는 참여 계층에 따라 다양하였다.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평화적 시위, 밤에 산에서 횃불 봉화를 올리며 만세 부르는 횃불시위, 그리고 돌과 몽둥이로 관공서 등을 공격 파괴하는 무력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31운동의 전국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무력 또는 횃불 시위로 발전하였다. 평화적 시위는 기독교인의 단독 시위 또는 공사립학교 생도의 주동에서 나타났다.

처음에는 대개 5일장을 이용하여 장꾼 등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시장을 누비고 군청면사무소경찰관주재소현병파견소학교 등에 몰려가 시위하였다. 군중이 모이기 쉽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관공서 소재지나 주변에서 시위하였다. 장날에 시위한 것은 인원 집결을 장꾼으로 가장시켜 적발을 막고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려는 의도였다. 또 도로공사의 부역꾼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군경의 경계가 삼엄해지자, 미리 기일과 장소를 약속하여 모이고, 장꾼에 섞여 군중을 선동하고 관헌의 감시를 피해 각 집마다 찾아가 동원했다. 시위도 점차 평일에 일으켰다. 군중을 계획적으로 동원하는 데는 30, 40대의 구장일반 지식인이 앞장서고, 각 계층연령의 연합적인 지도자가 효과적이었다.

### (2) 횃불시위

밤에 마을의 언덕뒷동산 등에서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횃불시위는 대개 구릉이나 평야에서 일어나고 한 곳에서 횃불을 올리면 그를 신호로 주변 마을에서도 호응하였다.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각처에서 횃불 시위가 전개되었다. 간성(3개면)화천(1개소)삼척(3월 31일)김화정선율진(4월 1일)춘천평창(4월 2일)양양(4월 4일)강릉양구(4월 5일)원주(4월 7~9, 11일)철원(4월 10일)홍천군(4월 11일) 등에서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원주군 문막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는 며칠씩 서로 호응하며 횃불 시위를 계속하였다.

평화적 또는 횃불 시위는 폭력적 저항운동으로서의 반일의병투쟁의 실패를 반성하고, 반일적 저항세력의 온존을 꾀하면서 최후까지 계속 독립을 주장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 (3) 무력시위

군중들은 스스로의 사상과 운동방법을 갖고 31운동에 참여하여 비폭력 저항과 폭력적 저항을 병행하였다. 군중들은 시위하다 피검자가 생기면 경찰관서에 몰려가 석방을 요구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던지, 무력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무력시위로 전환하였다. 군중들은 미리 점심을 망태기에 넣

어 걸머메고, 팽이곤봉장작 등을 휴대하여 전투에 대비하고, 훈련된 정규군처럼 지휘자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다. 결국 독립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일본을 축출하고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었으므로 무력화는 당연한 것이었다.

군중들은 투석으로 면사무소군청우편소 등 비교적 저항력이 약한 곳을 파괴하고 관리를 구타하는 등 기선을 잡아 사기를 높인 다음, 경찰관서나 헌병분견소파견소 등을 공격, 문 유리창 벽을 부수며 체포된 동지를 탈환하려고 하였다. 또 일인친일배시위 불참자의 가옥이나 중국인의 상점을 부수었다. 군중들은 때로는 권총을 소지발사하였고, 무기와 탄약을 탈취할 목적으로 주재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군중들이 관공서를 공격한 것은 일제통치에 대한 전면적 거부이며 응징이었다. 그것은 또 사회의 이목을 끌기 쉽고, 한국의 독립과 함께 일제 관헌들이 그 존재를 잃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무력시위로 겨우 일본인들은 겁에 질려 군경기관 소재지로 피신하거나, 배에 태워 바다에 대피하기도 하였다. 또 일선의 부일협력자인 한국인 면직원헌병보조원이 사직하였다.

3월 23일 화천, 28일 김화에서 군중이 헌병에게 무력을 가하고 우편소와 일인 상점을 공격함으로써 무력시위가 시작됐다. 강원도에서는 26건 50여 회의 무력시위가 전개됐다. 양양경찰서, 이천헌병분견소, 원주홍천통천철원군의 면사무소, 이천군 지하리통천군 고저리양양군 기사문의 헌병주재소 등 아홉 곳을 파괴했다. 그리고 경찰관서 4, 헌병파견소 4, 군청면사무소 6, 우편소 3개소 등 관공서 17개소를 무력 공격했다.

시위 참집인원은 1회에 수천 명의 경우도 있었다. 5, 6명이 만세를 부르기도 했지만 대개는 수백 명의 규모였다. 자연총력 단위나

생활권 중심으로 몇 개 마을이나 면군이 연합해서 쫓기하기도 하였다.

일제 측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는 3, 4월에 56건 시위했다고 하나, 선언서 배포 등 미수에 그친 27건 이상을 제외해도 90건에 이르고 144회 이상의 시위에 총 6만 5천 400명이 참여했다. 일제는 사망 22명, 부상 68명이라고 하나, 사망자는 37명 이상이며,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sup>147)</sup>

#### (4) 동맹휴학·철시

시위 이외에도 다양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동맹휴학, 상인의 철시도 대두되었다. 학생의 휴학결석이 증가하고 입학학생이 감소되었다. 상인들은 독립운동 초기부터 평일은 물론 장날에도 철시하여 인심을 들끓게 하여 운동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횡성에서는 철시하고, 울진에서는 일본 상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일인 대금업자나 금융조합에 대한 공격파괴로 일본의 고리대금융자본의 침투에 대해서도 응징하였다. 그 결과 일인 대금업자들은 대출을 중지하고 회수에만 전념하였다.<sup>148)</sup>

### 3) 일제의 탄압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제재는 신속하고도 철저했다. 헌병대경찰서군청이 상호 연락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온갖 수단을 강구, 시위를 사전에 봉쇄하려고 하였다. 시위 예상 지역에 헌병을 급파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고종 국장에 참례하고 귀향하거나, 일

147)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571~572, 939쪽.

148) 최창희, 「江原道の 31運動」, 311~389쪽.

본 유학생 또는 타도에서 왕래하며 언동이 이상한 한인은 물론 외국 선교사까지 미행 적발했다. 각 종교인, 공사립학교의 교사와 학생서당생도행상인을 감시하고, 문서왕래각종 모임야간 외출을 통제하고 종교 집회에 밀정을 침투시켜 내사했다. 정거장항만의 출입자를 검사하고 호구조사와 숙박업소에 대한 임검을 실시, 주동자를 색출하였다. 한국의 독립은 망상이라고 역설하며, 시위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각처에서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력을 증원, 무차별 발포하여 시위를 저지했다. 한인 수렵자의 총가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하고, 화약고의 관리를 강화했다. 일본인들로 자위단(自衛團)을 조직하여 재향군인을 동원하였다. 증원된 군대는 진압을 맡고 경찰관현은 주동자 검거를 맡았다.

소규모의 평화적 시위는 회유방면하였다. 운동이 재발하거나 격렬하면 위협과 발포로 사상자를 내며 진압했다. 천도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천도교구장기독교인교사유력자를 불러, 교인학생농민의 시위 참여를 저지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족분열을 획책했다.

군중의 집합을 막으려고 시장을 폐쇄정지하고, 상인에게는 폐지 및 개점에 대한 서약을 받았다. 강원도는 강릉양양물치간 성평강봉평이천군 지하리화천 등 9개 시장이 22회에 걸쳐 정지되었다. 그러나 항쟁의 방법으로 철시한 곳에서는 상업회의소 경찰서를 통하여 강제로 개점케 하였다. 이를 거절하자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문을 열게 하였다.

운동자는 철저히 검거해서 잔학한 고문과 참혹한 옥살이를 시켰다. 피살자까지도 무덤을 파고 관을 파괴했다. 일제는 유력자를 각 관서에 불러 설득회유하고 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강요했다. 시위자는 자수케 하여 혼유하고 면장 구장이 서약서에 연판하게 했다. 또 관민면담회를 열어 한인들의 의견을 개선케 하여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관공리친일 양반지주들의 협력을 얻어 방지책을 강구했다. 지주로 하여금 소작인을 계고케 하고, 광산과 공장의 감독자들과 연락하여 노동자들을 감독케 했다.<sup>149)</sup>

일제는 국제적 이목을 고려해서 31운동 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고, 그들의 잔인한 만행을 감추려 하였다. 31운동 관계 통계자료는 실제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31운동 때 전국에서 검거된 자는 19,525명이었다. 이 중에 여성 47명이 포함되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가 3,349명(여성 141명 포함)으로 제일 많이 검거되고, 다음은 황해도 2,495(여성 85)명, 경상남도 2,377(여성 72)명, 경상북도 2,103(여성 220)명, 평안남도 1,541(여성 46)명, 함경남도 1,383(여성 5), 평안북도 1,180(여성 26)명, 그리고 강원도는 1,156명이 검거되었는데 그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다. 전라남도는 785(여성 6)명, 충남 681(여성 13)명, 함북 633(여성 26)명, 전북 622(여성 17)명, 충북 578명, 그리고 국외에서 171(여성 6)명이 검거되었다.

강원도에서 1919년 1년간 31운동을 전개하다가 검거된 자를 군별로 보면 화천 175, 양양 172, 원주 87, 홍천 87, 김화 76, 철원 71(여자 6명 포함), 영월 69, 강릉 66, 이천 60, 횡성 56, 통천 56, 춘천 50, 회양 33, 울진 30, 평강 29, 간성 22, 정선 20, 양구 18, 인제 15, 평창군 14명이었다.<sup>150)</sup>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는 57회의 시위에 9만 9천 510명이 참가, 사망 144명, 부상 645명,

149)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663~670쪽.

150) 朝鮮總督官房庶務部調査課, 『朝鮮의獨立思想及運動』, 104쪽.

피검 1천 250명에 달했다고 한다.

#### 4) 강원도 3·1독립운동의 의의

31운동은 어떠한 특징의 지도사상이나 정치결사에 의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지도된 운동은 아니었다. 전국에서 각 계층의 민중이 스스로의 사상과 투쟁 방법을 통하여 일으킨 민족운동이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지역적 시기적으로 분산되고, 운동의 지도 주체도 각각 독자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족독립과 국권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졌으나, 비조직적이고 행동이 통일되지 못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일제의 잔인한 학살무력 탄압으로 적수공권의 독립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채, 점차 표면상 시위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지만 31운동은 모든 면에서 한국민족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sup>151)</sup> 또한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를 통하여 한민족 스스로가 독립에 대한 결심과 인식을 굳게 하였다.

31운동 후 내심으로는 파리강화회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또 일제 식민정책이 전환되어 언론 자유나 한인 차별대우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적 전망을 하거나, 반대로 일제의 압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한민족운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첫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지속화 활동이 대두되었다. 양반 유생 중에는 비밀리에 무기를 준비하여 시기를 기

151) 崔永禧, 「民族抗日獨立運動의 主流」, 『日帝下の 民族運動史』, 玄音社, 1971, 74쪽.

다리자는 전쟁준비론이 나타났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임시정부 선포문이 4월 23일경 춘천에 전해지자, 철원군 도피안사(到彼安寺)에서 8월초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이 조직되고 각 군에 지부를 설치했다. 이 애국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는 창일계(昌一契)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자금을 모았다. 춘천과 김화의 감리교인을 중심으로 독립자금 모금 등 임시정부 지원 활동이 일어났다.

둘째 31운동은 민족의식을 근대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지식인의 민족의식이 민중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대중성을 띠게 되었다. 천도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공화정치(共和政治)를 계몽하고, 농민들이 공화정체를 표방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원 단체에 가담한 것은 그러한 움직임의 표출이었다.

셋째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민족운동이 대두되었다. 강원도에서는 태을교(太乙敎)의 독립단(獨立團), 울진청년회의 활동이 활발하였다.<sup>152)</sup> 또한 일인 또는 관공리에 대한 한인의 태도가 당당해졌다. 유생들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근절하려고 조직한 자위단의 서명을 거부했다. 식민지교육에 대한 저항으로 서당교육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넷째 식민지정책에 대한 저항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각종 강습을 통한 농업지도 및 육지면(陸地綿) 재배를 기피하고, 강제로 배부하는 뽕나무소나무의 묘목을 불태웠다. 가로수를 뽑고, 이를 금지하는 목찰도 파손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차별대우의 개선 요구로 도로공사 등이 부진하였다. 광업연초업어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일인 경영의 음식점상점을 이용치 않고

15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31운동사(상), 1983, 598 647~648쪽(이하 『독립운동사』 제2권으로 줄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펴서 타격을 주었다. 땅이나 집을 일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회수하여 점차 일본인들을 구축하려 했다.

다섯째 근대문화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정치사상이 양양되었다. 진학률이 점차 높아지고, 노동야학 등 성인교육의 활발해졌다. 또 시국의 추이를 관찰하려고 외국 신문을 구독하는 자가 현저히 증가했다. 일부 지식계층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퍼졌다.<sup>153)</sup>

여섯째 이제까지 전개된 여러 형태의 운동과 결합되어 그 유산을 계승하고 한계성을 극복하여 민족운동을 보다 전진시키고 다음의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종교 간의 반목이 불식되고 독립을 위해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다. 지방 청년회의 활동에 모든 종교가 망라되어 민족운동을 모색하였다.

## V. 횡성지역의 3·1독립운동

### 1. 일제 초기의 횡성

#### 1) 일제의 헌병 통치

1919년 31운동 때 횡성에는 행정기관으로서 군청과 헌병 분견소가 있었다. 당시 군수는 심상준(沈相俊)이고 헌병분견소장은 도

---

153)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692~693842~847쪽.

변경삼랑(渡邊慶三郎)이었다. 군수는 한국인이었으나, 치안의 실권은 헌병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황성군의 재판 관할은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맡고 있었다. 원주지청에서는 대개 예심 정도에 그쳤던 것 같다. 일제는 조선태형령을 발포하여, 3개월분의 징역은 90대의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태형은 경찰서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헌병분견소장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었다. 헌병분견소장은 명목상 가벼운 범죄는 재판하였고, 또 마음대로 때릴 수 있게끔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즉,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라는 규정에 의하여 헌병분견소장(경찰서장)이 법원의 재판에 넘기지 않고 3개월까지 구류를 살게 할 수도 있고, 90대의 태형을 때릴 수도 있었다. 31운동 때 만세시위에 가담하였다가 이 태형령에 의해 태형을 맞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 2) 종교 실태

당시 황성지방의 종교는 천도교유교천주교감리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황성군 31운동을 주도 담당한 종교는 천도교, 감리교, 그리고 유교였으며, 다른 지방에 비하면 불교의 활동이 없었다.

천도교는 황성군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황성 31운동은 거의 천도교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황성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천도교 대교구(大教區)가 설치되어 있었다. 황성 대교구는 원주와 평창지방까지 관할하고 있었다. 황성군에는 많은 천도교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황성면우천면갑천면안흥면, 그리고 원주 소초면과 평창군 대화면(방림면

포함)에 보다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 횡성천도교 대교구장은 횡성면 읍하리(邑下里)에 거주하던 최종하(崔宗河)였다. 횡성에는 신재근(申在根)장도훈(張道勳)김인경(金麟卿) 등 유능한 인사가 천도교회 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지만, 이채일(李采一)이동구(李東求) 등 중앙 천도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다.

횡성 천도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도자와 교도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31운동을 일으키는데 보다 유리하였다. 서울에서 천도교회가 주동하여 31운동을 일으켰으므로, 그 영향으로 횡성 31운동도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천도교회는 횡성읍과 농촌에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횡성청년회(회장 趙喆九)는 천도교인의 모임은 아니었지만, 천도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횡성 천도교회는 현재 읍하리(邑下里) 천주교회 근방에 있었다.

감리교회는 당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 교인이 수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지도자인 내지리(奈之里) 정해경(鄭海璟)과 읍하리 탁영재(卓英才)가 참여한 것으로 보아, 얼마 안 되는 교인이었지만 대부분 31운동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감리교회가 횡성 31운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31운동에서 유교도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에는 유학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3월 3일의 고종황제 인산(因山)에 참례하러 서울로 모여든 유학자들이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하고 각각 귀향하여 지방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횡성군 서원면 매호리(梅湖里 : 당시 분일리)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은 천도교인도, 감리교인도 아닌 유학자들에 의

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3월 16일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례치 못하였다고 해서 가슴에 삼베 천을 달고 다녔다는 당시 헌병사령부의 기록도 유교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sup>154)</sup>

1905년 11월에 일제가 을사5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해가자, 고종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이준(李儁)이상설(李相高)이위중(李瑋鍾) 등의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제는 이것을 구실 삼아 1907년 7월에 정미7조약을 강요하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케 하였다. 1910년 8월 22일에 일한병합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고종은 ‘이태왕(李太王)’으로 불리며 덕수궁(德壽宮)에 기거하였는데,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중병이 발생하여 22일에 붕어(崩御)하였다고 일본 당국이 발표하였다. 민중들 사이에는 일본 여자의 독약 때문에 별안간 승하(昇遐)해 자손들도 임종하지 못했다는 유언(流言)이 나돌았다.<sup>155)</sup>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옛 임금에 대한 유교윤리적인 충성심과 슬픔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전파시키는 중요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 31운동 당시 곳곳에서 서당 훈도가 앞장을 섰던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횡성 31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인경김윤배(金允培)박영하(朴英夏) 등이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의 교사였다는 점도 유교가 한 몫을 담당하였음을 인정케 한다.

154) 趙東杰, 『橫城과 三一운동』, 三一운동기념비건립 횡성군협찬회, 1972, 65~69쪽.

155) 金鎮鳳, 『三一運動史研究』, 國學資料院, 2000, 100~101쪽.

나라가 망한 후 마을마다 글방을 차려 놓고 선생을 모셔다가 자녀들을 공부시켰다. 횡성지방에서도 서당이 증설되어 유학과 신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서당에서 배운 유교 윤리는 31운동 때 특히 시골에서 큰 빛을 발휘했던 것이다.

천주교는 31운동 때 프랑스 선교단의 지시를 받고 있어서, 천주교가 교회 조직을 통해서는 31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횡성군 서원면 풍수원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성당이 세워졌다. 그리고 횡성지방에는 강원도 어느 지방보다 일찍 천주교가 전래하여 많은 순교자를 내었다. 그러나 천주교가 횡성의 31운동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다.

### 3) 학교 교육

31운동 때 횡성에 있던 교육기관은 횡성보통학교가 대표적이었다. 횡성보통학교는 원래 횡성 객사(客舍)에 있던 화성학교(花城學校)가 변천한 것이다. 강원 지방의 공립소학교는 1896년 9월 17일에 춘천공립소학교(강원도관찰부공립소학교)가 강릉공립소학교와 원주공립소학교와 함께 위치가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개교한 이후에 각 군청 소재지에 학교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에 횡성회양철원금성평강김화홍천이천정선삼척양양간성고성통천안협화천양구인제영월평창 등에 공립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횡성보통학교는 31운동 당시는 4년제의 학교였다. 보통학교라면 오늘날 초등학교를 말하지만, 현재의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그것은 보통학교 학생이면 대개 가정에서 한문 공부를 하고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러므로 학습 과목의 교육수준은 높았으며, 학생들도 대부분 20세에 가까운 사람이 많았다.

횡성에는 이와 같은 보통학교 졸업생이 천도교회에서 횡성청년회를 조직하였으며, 청년회 회장은 조철구(趙喆九) 이었다.

횡정보통학교는 사립학교였던 화성학교를 인수하여 공립학교로 발전한 것이다. 당시 횡성군 내에는 사립학교로서 성심서원(聖心書院)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광동초등학교의 전신이다. 원래 풍수원 성당의 부속학교로 세워진 성심서원은 우리나라 종교계 및 신문화운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다.

횡정보통학교나 성심서원은 신문화의 조류와 함께 생겨난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다. 여기에서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신교육 활동과 인재양성이 31운동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으로는 마을마다 거의 설치되어 있던 글방이나 서당이 있었다. 이들 사립 서당이나 글방은 규모는 작았으나, 일제의 한국교육 탄압에 맞서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31운동의 발발과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1운동은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호응하였다는 점도 있으나, 지방에서는 봉건적 충성심이 고종의 죽음에 자극되어 일어났다는 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시골의 전통적인 서당교육은 지방 31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 4) 농민의 생활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민족을 무참히 탄압, 착취하였다. 1918년

에 토지조사사업을 끝내고, 일본은 한국 농촌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도 소위 세부측량을 할 때, 일본의 관리나 친일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선량한 농민을 괴롭혔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이후에도 동양척식회사를 통해서 농토를 독점하고, 혹은 농지세로서 농작물을 착취하였다.

일제는 농토뿐만 아니라 임야도 빼앗았다. 1911년 9월에 삼림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국유림구분조사(國有林區分調査) 및 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을 실시하면서 개인 소유의 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특히 사유림을 계출 신고하게 하였는데, 신고서류에 측량도면을 첨부하게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붙여, 실제로 산을 소유한 사람도 일본의 관리나 친일파 혹은 특별히 유식한 사람이 아니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산에 대한 측량 도면을 만드는 것은 당시 농촌 사람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유림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계 측량을 할 때, 좋은 산은 국유림에 편입시키는 등의 착취 행위를 예사로 자행했다.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으로 만들거나, 친일파의 소유로 확정시켜 놓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묘지제, 화전 경작의 제한, 임산물 채취의 제한 등의 조치를 엄격히 취하였다. 그리하여 농민의 생활은 가혹한 구속을 받았다. 국유림이나 친일파의 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농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써야할 목재와 연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친일파나 일제의 관공서에 가서 애원하여야 얼마간의 나무를 구할 수 있었고, 아니면 일본 관리의 눈을 피하여 나무를 도벌해야만 됐다.

일제는 주세와 연초세 등을 통하여 농민을 착취하였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농민을 부역으로 강제 동원하거나 값싼 품 싹으로 일을 시켰다. 당시 횡성에서는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문재와 전재

를 넘는 길을 우천면 우항리(牛項里)에서 원주군 소초면 평장리(平庄里)를 통하여 경기도로 가는 길을 닦아 1918년부터 개통하였다. 그리고 원주에서 횡성에 이르는 길은 춘천으로 통하는데, 원주~횡성 간의 도로는 거의 지방 농민의 부역에 의해서 닦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농민이 받은 고통은 수많았다. 농민들은 곳곳에서 측량 기수나 일제의 관리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일제의 뽕나무 재배 강요에 시달렸다.

## 5) 교통과 통신

당시 횡성읍에는 우편소(郵便所)가 있었고, 전화는 행정전화로서 헌병분견소에만 있었다고 한다. 교통은 우천면을 통과하여 가는 길이 막 개통되었다. 그리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그러므로 아직 자동차는 다니지 않았다. 횡성 사람들의 서울과의 교통은 걸어서 양평을 거쳐 가지 않으면, 원주문막(文幕)을 지나 약 20리쯤의 거리에 있는 부론면 뱃터에서 배를 타고 갔다. 부론면 뱃터는 고려 때부터 유명한 서울로 가는 뱃길이었다. 이 뱃길은 고려와 조선왕조 때 정부가 설치한 교통으로서 주로 조세를 거두어 나르는데 많이 이용되었다. 부론면 뱃터의 정부 창고(조창 : 漕倉)는 흥원창(興元倉)이라 하였다.<sup>156)</sup>

## 2. 횡성 3·1독립운동의 전개

횡성군의 31운동은 처음에 천도교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서울

156) 조동걸, 앞의 책, 70~75쪽.

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이는 곧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졌다.

횡성 천도교회 출신으로 도훈(道訓)이던 이채일(李采一)과 의사원(議事員) 이동구(李東求)가 서울 천도교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동구는 서울에서 31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의 31운동과 천도교회의 활약에 대한 소식이 비교적 자세하게 횡성에 전달되었다.

### 1)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배포

서울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전국 각 지방에 직접 천도교인이나 기독교인을 보내 전달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선언서가 배포되기도 전에 발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발각되지 않고 지방의 천도교인이나 기독교인 혹은 그 곳 청년회 대표에게 전달되어, 31운동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횡성에도 다른 지방처럼 독립선언서가 청년회 대표에게 전달됐던 것 같다. 당시 횡성면 회계서기로 있으면서 횡성청년회 총무였던 박순기(朴淳紀)는 독립선언서 1통을 전달받았다 한다.<sup>157)</sup>

당시 횡성 천도교회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대교구였다. 대교구장은 횡성읍 읍하리의 최종하(43세)였다. 횡성 천도교회의 지도층 인사는 봉훈(奉訓)인 영영포리 신재근(64세, 농업), 정곡면(井谷面) 상안흥리 장도훈(49세, 농업)김인경(38세, 서당교사)안경춘(20세),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강달회(姜達會, 51세)강만형(姜萬馨, 28세)하영현(河永賢), 교항리 추병학(秋秉學, 47세)추병륜(秋秉倫, 45세) 등이었다. 둔둔리는 원주 땅이라 해도 당시에는 횡성생

157) 1970년 10월 10일, 횡성면 반곡리에 거주하는 박순기(朴淳紀) 노인(당시 77세)의 증언(조동걸, 앞의 책, 76쪽).

활권에 속해 있어서, 사람들이 횡성 장을 많이 이용하였다.

최종하신재근장도훈이 협의하여, 3월초에 장도훈이 돈 3원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장도훈은 서울에서 천도교 의사원으로 활약하던 이동구를 만나서 큰 태극기 1폭, 창호지로 만든 태극기 20매, 그리고 독립선언서 40매를 구하여 3월 11일 횡성에 돌아 왔다.

장도훈이 독립선언서를 가져오면서 횡성 만세운동 계획은 급진전되었다. 12일 밤 신재근의 집에 최종하신재근장도훈김인경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우천(隅川)공근(公根)횡성면에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주군 소초면은 강만형이, 정곡갑천(甲川)둔내면(屯內面)은 안경춘(安敬春)과 김인경이 맡아 배포케 하여 군민의 민족적 각성과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도모하였다. 김인경은 최종하로부터 선언서 등 12매를 받아 천도교인 이인영에게 선언서 3매를 배포하라고 주었다.

## 2) 횡성 3·1독립운동의 전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는 3월 12일(음력 2월 11일)과 13일에 횡성군내의 여러 곳에 연락하여 배포하였다.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함께 약 10일간 만세 운동을 추진하였다. 운동의 추진은 일제 관현의 눈을 피하여 읍하리 천도교회 교구실과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신재근 집에서 10여일 동안 만세시위 계획을 세우며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할 때, 영영포리 구장 위창래(魏昌來)는 비밀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3월 16일 횡성보통학교의 학생 일부가 고종 죽음에 조의(弔意)를 표시하는 뜻으로 삼베 천의 상장(喪章)을 가슴에 달고 학교에 등교하였다. 그것은 일제에 대한 무언의 시위였다. 헌병사

령관은 일본 정부에 이를 보고하고, 3월 12일 이후 춘천에 주둔해 있던 보병 79연대의 병력 일부를 원주로 이동시켜 원주횡성 지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의 상장 시위로 횡성군에는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다. 따라서 횡성 천도교회가 추진하던 만세운동 계획도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3월 27일(음력 2월 26일)에 횡성군에서 첫 번째로 횡성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4월 1일에 2차, 2일에 3차에 걸쳐서 횡성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4월 1일부터 7일까지 횡성시장의 철폐운동이 펼쳐졌고, 4월 12일에는 서원면 분일리(매호리)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져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정면으로 항쟁하였다.

횡성 천도교회가 만세운동을 추진할 때 각 지방에서 참가한 사람은 천도교인, 감리교인, 유학자, 그리고 청년회원 등이 참여하였다. 주도층을 보면, 세 갈래의 계통이었다. 그 하나는 천도교 계통으로, 횡성천도교구장 최종하, 읍상리 전성수(全聖洙), 영영포리 신재근, 법주리 강성순(姜聲順), 갑천면 매일리 김운배, 안흥면 안흥리 천선재(千善在, 78세), 상안흥리 장도훈김인경안경춘, 가좌곡리 김연의(金演儀, 21세), 하산전리 조상렬(趙常烈),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강달회강만형하영현(河永賢), 교항리 추병학(秋秉學)추병륜(秋秉倫) 등이었다. 유학자인 우천면 두곡리 김명기(金明起) 김진대(金振大) 등이 주동자로 참여하였다.

또 하나는 내지리 정해경탁영재(卓英才) 등의 감리교 계통이었다. 다른 또 하나는 윤태환(尹泰煥)최동수(崔東壽) 등 청년회의 계통이었다.

연령층도 20세 초반의 청년에서 78세의 노인까지 만세운동 계

획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횡성면을 비롯하여, 갑천면, 우천면과 안흥면 서부(하산전리, 가좌곡리 등), 안흥면 동부(전재 동부), 그리고 원주 소초면 등 다섯 지역이 주동하였다. 소초면은 거의 둔둔리 한 마을이 해당되나, 둔둔리의 중심 인물 강만형의 매부이며 강달회의 종손서(從孫婿)가 되는 교항리의 추병학과 그의 동생 추병륜이 포섭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인경은 원래 평창 대화면 윤교리(현 방림면 雲橋里) 사람인데, 안흥에서 글방 선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독립선언서 12매를 평창 대화면 윤교리에서 살던 이인영에게 전달하여, 평창에서도 만세운동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횡성의 만세운동은 곧 원주와 평창으로 번져 나갔다. 4월 1일의 횡성장터 만세운동은 4월 5일 원주군 소초면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횡성 천도교회가 독립선언서를 평창까지 배부하여 4월 4일과 5일에 평창군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려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4월 3일 비밀이 탄로되어 관계자가 모두 잡혀 평창 만세운동은 실현되지 못했다.

횡성 31운동에서는 5명이 피살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헌병에게 잡히어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았다. 혹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온갖 고통을 겪었다. 그 중에서는 강만형 처럼 옥중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외에도 서원면 분일리(分一里지금 매호리)에서 단독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 분일리 만세운동은 원주군 지정면(地正面)건등면(建登面, 지금 문막면) 방면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유학자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 3) 3월 27일의 횡성장터 독립만세운동

1919년 3월 10일경 횡성 천도교회 봉훈 신재근의 집(영영포리 441번지)에서 횡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신재근장도훈이 협의하여 독립만세 운동을 펴기로 결정하였다.

장도훈은 3원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천도교 의사원으로 활약하던 이동구를 만나 독립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매를 가지고 3월 11일에 횡성으로 돌아왔다. 장도훈은 당시 49세로서 정곡면(현 안흥면) 상안흥리 물안골(240번지)에서 살았다. 그는 원래 평남 성천군 성천면 안리 사람인데 1907년에 안흥으로 이사 왔다. 평안도에서 을사5조약에 반대하여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당시 의병대장으로 이름 높은 유인석(柳麟錫)의 고향인 강원도로 찾아와 안흥에서 살았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횡성 천도교회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직접 서울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왔다.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고 31운동을 추진한 곳은 횡성면 읍하리에 있던 천도교회 교구실과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이었다. 여기에서 20대의 청년들인 강만형과 안경춘이 가담하여 활동하고, 횡성면 읍하리의 청년회원 윤태환(尹泰煥, 22세)이 동의하여 적극 참여하였다.

강만형은 당시 28세로서 원주 소초면 둔둔리(223번지)에 살았다. 그는 구한말 의병으로 횡성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왜병과 싸우다가 전사한 강도영(姜道永)의 아들이며, 4월 1일 만세운동 때 피살당한 강달회(士文)의 종손자이다. 그들은 집안이 모두 천도교 가문이었다. 강만형은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반일감정이 누구보다 격렬했다. 안경춘은 안승훈(安承勳)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20세로서 정곡면 상안흥리 배나무골(641번지)에 살았



다. 그는 장도훈과 김인경에게 글을 배운 청년이었다. 윤태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최종하와 감리교인 탁영재와 더불어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횡성의 31독립운동은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출발하였다. 횡성 만세운동은 횡성장날인 3월 27일(음력 2월 26일)에 시작되었다. 3월 27일 오전 11시경 신재근은 횡성시장에서 장꾼들을 모이도록 선동하였다. 상인들은 점심때부터 상점 문을 닫았고, 군중들은 만세시위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신재근은 읍하리 청년회원 윤태환에게,

오늘 신 시장 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므로 너도 함께 만세를 부르자. 너는 청년인데 그다지도 정신이 없고 썩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된 의무감으로 크게 찬성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강력히 권하며, 태극기를 주고 참여케 하였다.

오후 1시에 횡성읍내 시장에 약 300명의 군중이 모였다. 신재근·장도훈·안경춘·강만형 등이 신도로 쪽에 모인 군중 앞에 나서서 태극기를 배포하였다. 윤태환이 기수가 되어 큰 태극기를 높이 세워두고 선두에 나섰다. 천도교인 8명과 그외 4명 등 지도급 인사 12명이 군중 앞에 나타났다. 우선 신재근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였다. 이때 뜻밖에 일제 헌병이 몰려왔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도 못하고 주동자 12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군중들도 호응하여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

이에 앞서 만세운동 주동자들이 먼저 상점의 폐쇄부터 요구하여,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으며 시위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눈치챈 횡성 헌병분견소가 급히 원주에 연락하여 헌병 3명, 보병 4명을

불러들여 만반의 대응 조치를 갖추고 군중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관헌은 만세시위가 시작되자, 곧 주동자인 천도교인 8명을 포박하였다. 군중들은 지도자를 잃어 어찌할 바를 몰라 더 이상 시위를 전개하지 못하고 우선 해산하여 다음 계획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날의 운동은 장시간 계속되지 못하였지만, 만세시위 소식이 군내 각 마을에 전해져서 만세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천도교인들도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감리교인과의 연합하여 4월 1일 보다 큰 규모로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월 27일의 횡성 장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제에 붙잡힌 인사들은 2년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살았다. 신재근장도훈 각 2년, 안경춘 10개월, 강만형 8개월, 윤태환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청에서 예심을 거쳐 그 해 5월 1일에 경성지방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서류 심사로서 기각되었다.<sup>158)</sup>

#### 4) 4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

3월 27일의 만세운동에서 횡성 천도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체포되어, 헌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남은 천도교인들은 더욱 분격하였다.

횡성 천도교 지도자들은 지난 장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조직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그는 감리교회 지도자인 내지리 정해경(43세)과 영영포리 탁영재와 연락하여 더욱 규모를 넓혔다.

158)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 三, 1977, 135183쪽.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430466721쪽.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950, 952~954쪽.

천도교회에서도 교인들인 우천면 법주리 강성순(姜聲順, 27세), 정곡면 안흥리 김인경(38세), 가좌곡리 김연의(21세), 하산전리 조상렬(趙常烈, 49세) 김순서(金順瑞), 갑천면 매일리 김윤배(56세), 횡성면 읍상리 전성수(全聖洙, 34세), 원주 소초면 둔둔리 강달희(51세) 하영현(?세), 그리고 교항리의 추병륜(45세) 형제 등이 죽음을 각오하고 만세군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3월 27일 장사하러 횡성 장터에 왔던 영월군 양변면 주천리 김성서(金聖西)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김윤신(金允信) 등 천도교인들은 만세운동을 위하여 장사를 가장하고 마을을 다니며 활약했다.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사람들은 천도교인 하영현장사문 등의 인솔로 참여하였다.

만세운동 주동자들은 “이번 장날 구경거리가 많다”고 민중에게 호기심을 불러넣기도 하고,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 “만세운동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집에 불을 놓을 것이라”고 협박도 하였다. 천도교회와 감리교회는 연합하여 3월 27일의 운동을 교훈으로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4월 1일 장날에 횡성 장터에 많은 군중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민을 설득 선동하였다.

4월 1일(음력 3월 1일) 횡성장터에는 아침부터 대목장처럼 많은 군중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횡성에 주둔하여 행패를 부리는 일제 헌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였다. 군중이 온 장터에 가득 찰 때까지 주동자들은 기다렸다. 그리고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과 장터의 요소요소에는 주로 천도교인이 파견되어 만세시위 계획을 설명하였다. 만세운동을 이해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민족의 이름으로 질책하였다.

장터의 여러 술집에서는 서로 술을 권하며 만세시위 참여를 권했다. 당시 수로공부(修路工夫)로 있던 전한국은 장터 한농옥 술집

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받아주었다. 횡성면 옥동리 한치 고개에서 술을 팔던 황소아줌마(김순이, 황소갈보)도 술판에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하였다. 송강루 옆에 있던 황용구(黃龍九)의 술집에서도 만세운동을 역설하는 소리가 높았다.

군중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고 만세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점심때가 지나도 군중들은 흩어질 생각을 않고 저녁때를 기다렸다.

일제는 원주 주둔 군대를 횡성에 증강 배치하였다.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은 ‘강력히 무기를 사용해서 폭동을 조속히 진압하라’는 특별 명령을 발포하였다. 일제 관헌은 낮에 군중의 동향을 주시하고 비상 태세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일제는 일본 민간인과 헌병들의 가족을 당시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규화(李珪和)의 집(현 군청 뒤의 언덕에 있던 관사)에 피신시켰다. 그리고 횡성면사무소의 중요 서류를 낮에 비상 반출하여 숨겼다. 횡성군수 심상준(沈相俊)과 횡성면장 김석환(金錫煥)은 낮에 면서기들은 소집하고, “오늘 총소리가 나더라도 놀래지 말고 몸조심하라”면서 관리들을 단속하고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일제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인들을 상대로 전쟁과 같은 태세를 갖추었다. 한국인 군수와 면장은 다른 곳의 관리들에 비하여 친일적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 군수들은 일제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희생되는 한국인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군중에게 사전에 위협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횡성 군수는 군민의 위협보다는 친일관리들의 몸조심에만 관심이 있었다.

4월 1일 오후 4시가 되었다. 군중의 일부가 장터에서 쌀가게를 하던 조흥렬(趙興烈) 집으로 달려가 집을 고치려고 준비해 둔 서까래를 잘라서 군중에게 나누어주었다. 윤석환은 장작을 군중에게 배급하였다. 몽둥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

적당한 막대기나 곤봉을 가지고 모였다.

서까래장작곤봉을 가지고 군중들이 시장에 모이자, 오후 5시쯤 주동자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000여 명의 군중이 호응하여 우리와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한 주동자는 탁영재, 조홍렬, 혹은 정두철(鄭斗澈)이라고도 전해진다.

천지를 진동하는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군중은 장터에 있던 게시판은 물론, 군청과 면사무소 앞에 있던 게시판을 파괴하며 군청으로 몰려갔다. 상점은 거의 문을 닫았고, 술집도 문을 닫았다.

군중들의 매를 맞고 헌병보조원 감독 이규화는 도망쳤다. 헌병상등병 소도료(小島了)가 말을 타고 다니며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자, 청년회원 최동수(崔東壽)가 말 위에 뛰어올라 끌어내려 밟고 때렸다. 유학자 김진대(金振大) 노인은 담뱃대로 헌병을 호령하며 때렸다. 그는 유생 김명기의 부친으로 당시 우천면 두곡리에 살았다.

이 때 뒷산에 잠복해 있던 헌병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군중은 잠시 멈칫했으나, 10년 동안 참았던 분노와 울분이 다시 폭발하였다. 황용구 술집에서 총소리에 놀라 들어앉아 술을 먹던 남자들은 옥동에서 온 황소아즙마가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날 황소아즙마는 칼을 들고 다니며 운동을 재촉했다고 한다. 군중들은 문을 열어 놓고 시위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상점은 친일파라고 힐난하며 돌로 상점 문을 파괴하였다.

천도교인과 감리교인은 물론 시장 상인과 농민 등 약 1,300명이 다시 장터에 집결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곤봉을 휘두르며 면사무소와 군청으로 달려가 돌을 던지며 공격하고, 헌병분견소로 향했다.

오후 7시경 날이 점점 저물어 갈 무렵, 이미 엄중한 경계를 펴

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뒷산에 잠복해 있던 일제 헌병과 보병들이 군중의 선두를 향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대한독립만세 소리, 총소리, 그리고 아우성 속에 날은 어두워졌다.

군중의 선두에 섰던 수로공부 전한국이 쓰러지고, 이어서 여기저기서 총을 맞은 사람들이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법주리 강성순(강사윤, 그의 부친 강승문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 잡음)을 비롯하여 둔둔리 하영현(하돌림)강달회(강사문) 등이 쓰러졌다.<sup>159)</sup>

일제의 총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군중들은 우왕좌왕하며 해산하였다. 일제 헌병과 헌병보조원, 그리고 보병들이 장터로 내려와 주동자를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총에 맞아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탁영재김명기최동수 등은 멀리 피신하였다. 부상자들도 왜놈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피를 흘리며 집으로 피신했다.

일제의 무자비한 사격으로 즉사한 4명의 시신을 일제는 면사무소 마당으로 운반하여 거적으로 덮었다. 총에 맞은 1명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바로 죽었다. 중상자 8명은 박인춘(朴寅春)과 동업하던 심용구(沈容求) 병원(지금의 양조장)으로 옮겨졌다. 3명은 간신히 몸을 움직여 집으로 피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집으로 피신하고, 일제 헌병의 감시가 심해지자 부상을 숨기었다. 영영포리에 거주하던 윤동선(1970년 10월 10일 현재 86세, 우천면 추동리 거주)은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목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잡혀가서 매를 맞고 석방되었다.

피살자의 시신은 이날 밤에 모두 주민들이 집으로 모셔 갔다. 둔둔리 사람들은 횡성면사무소로 몰려가 하영현과 강달회의 시체를 찾아 가지고 밤길에 돌아가 3일장을 지냈다. 둔둔리 사람들은

159) 『독립운동사』 제2권, 576~578쪽. 『韓國民族運動史料』 三, 154173183쪽.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I, 490526534558564730쪽.

울음을 삼키면서 장사 지낸 후 4월 5일에 소초면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일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붙잡힌 사람은 물론, 4월 2일부터 대대적인 사찰로 일제 관헌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혹한 태형(苔刑)을 당하였다. 헌병대에서 태형으로 90대의 매를 맞아서 살이 일그러져 1년 동안 병 치료로 아무 일도 못한 사람도 있었다.

일제 관헌에 피체된 정해경김성서는 1년 6월, 천선재는 징역 1년, 김인경조상렬김윤신전성수김윤배김연의(김순서) 등은 각각 8월, 추병륜은 각각 6월의 징역을 살아야했다. 탁영재최동수김명기(김사극)추병학은 만세운동 후에 숨어 버렸다.

만세운동 주동자들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경찰이 괴롭혀 모두 가난한 살림에서 고생하였다. 일제에 시달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몰래 떠나 그 후손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좌곡리(현 상하가리) 구렁마을에 살던 김연의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가족과 더불어 만주로 들어가 독립운동에 남은 삶을 바쳤으나, 그 후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sup>160)</sup>

4월 1일에는 우천둔내청일공근서원면에서도 마을마다 산위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만세 불렀고, 밤에는 안흥면갑천면에서도 마을마다 태극기를 세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하나,<sup>161)</sup> 확인할 수 없다.

### 5) 4월 2일의 독립만세운동

4월 1일 밤까지 만세운동을 벌였던 군중은 잡혀가기도 하고, 횡

160) 조동걸, 앞의 책, 75~98쪽.

161)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1948, 950쪽.

성 장터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2일 날이 새자, 약 200여 명의 군중이 현병분견소에 몰려가 독립운동의 허가를 요구하고, 전날 시위 때 잡혀간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군중 대표 정호봉(鄭鎬鳳)·조흥렬(趙興烈)이 일인 현병분견소장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옥신각신하였다. 통역은 이규화가 맡았다. 현병분견소장의 강경한 태도로 군중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이후에도 횡성군에서는 온갖 탄압을 자행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횡성읍 상인들은 2일부터 상점의 문을 열지 않기로 합의하고 모두 폐쇄하였다. 시장의 철시는 일제에 대해 무언의 항쟁이었다. 군수와 현병분견소장의 간청으로 7일에 문을 열고 개점하였다.

#### 6) 4월 12일 분일리의 독립만세운동

만세운동의 분위기는 군내 여러 마을로 번져갔다. 서원면 분일리(書院面 分一里)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분일리(현 梅湖里) 만세운동은 원주 방면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것 같다. 원주는 당시 원주군이라 불렸다.

원주읍에서 계획하던 독립만세운동은 당시 원주 감리교회 미국인 선교사가 현병과 내통하여 사전에 탄로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원주읍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만세시위 한번 일으키지 못하였다.

원주 사람들은 읍을 벗어나 대개 마을 단위로 소규모의 운동을 일으켰다. 원주군에서의 만세운동은 4월 8일과 9일에 지정면건등면(문막면)부론면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영향을 받아 서원면 분일리에서도 비슷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분일리는 조항(鳥項)·상촌(上村)·수동(水洞)·향산(香山) 등 4개



의 작은 마을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동리로 섬강 연안에 위치하며, 마을 북판에 작은 동산이 있다.

향산 송병기(宋秉箕, 28세, 농업)성태현(成泰鉉, 29세, 농업)박민희(朴民喜, 41세, 농업)수동 이정헌(李正憲, 26세, 농업)이 송병기의 사촌형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에 찬동하고, 송병창의 제의로 마을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12일에 향산 주민 약 50명을 거느리고 향산과 수동 사이의 동산 위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만세 소리는 주변 마을로 울려 퍼졌다. 상촌 유정근(柳定根, 40세, 농업)이두연(李斗淵, 39세, 농업)과 수동 이종우(李鍾禹, 40세, 농업)는 수동 느티나무 옆 김옥봉(金玉鳳, 40세, 농업)의 주막에서 김옥봉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다가 대한독립만세를 듣고 뛰쳐나갔다. 유정근의 제의로 이들은 수동 주민들을 규합하여 동산에 올라가 합세하여 저녁 9시경부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부른 마을 사람들은 동산에서 내려와 네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도록 만세를 불렀다. 군중들은 만세시위에 불참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문을 부수고 폭력을 가했다. 70여 명의 군중은 수동에서 상촌, 상촌에서 조항으로 옮겨 섬강 건너 원주 지정면 무장 마을을 향해 만세를 외쳤다. 다시 조항에서 향산으로 마을돌이를 하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다음날 날쌔 무렵에 해산하였다고 한다.

당시 분일리는 단시간에 일본의 관헌이 출동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주민들은 하루나마 독립된 기분에서 흥겹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

그 후 일제 관헌의 검거로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징역을 살았다.

송병기는 징역 10월, 성태현박민희는 8월, 유정근은 7월, 이정현·이두연·이종우·김옥봉은 각각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였다.<sup>162)</sup>

### 7) 민중의 각성

3월 27일과 4월 1일, 그리고 2일의 시위운동이 전개된 뒤, 횡성군내 각 마을은 물론 원주평창영월에 이르기까지 만세운동에 관한 소문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퍼져 나갔다.

4월 7일 12시경에는 누군가가 횡성 장터 길가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을 붙여놓았다.

마을에서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극렬히 변호하며 시국을 이야기하던 사람 가운데는 일본 앞잡이에게 발각되어 잡혀가기도 했다. 주소가 일정치 않은 잡화행상 이기순(李奇順, 37세)은 4월 5일 둔내면 자포곡리의 천관여(千官汝) 집에서 동리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마을에 오면, 크게 분발하여 함께 만세 부르라고 선동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공근면 하갈마곡리 이유태(李裕泰) 등은 곳곳에서 친일도배를 질책하다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다.<sup>163)</sup>

일제 관헌은 횡성읍내 경계를 철저히 강화하였다. 그러나 군내

162)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950~952쪽. 『朝鮮獨立運動』 I, 628748쪽.  
김옥봉은 그 후 행방불명되고, 성태현박민희이정현의 후손은 없다. 송병기의 아들 방헌(邦憲)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유정근의 아들 용규(瑢圭)는 서울에, 이두연의 아들 병문(秉文)은 상춘에, 이종우의 아들 승호(昇浩)는 수동에 각각 살고 있다(조동걸, 앞의 책, 101~106쪽).

163) 『독립운동사』 제2권, 579쪽.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952쪽.

각 면의 마을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횡성군수와 헌병분견소장은 1919년 4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비밀 공문을 각 면장과 동장에게 하달하였다.

秘 제15호

大正8년 4월 15일

횡성군수

횡성헌병분견소장

각 면장 앞

각 구장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한 건 내첩(內牒)

“요즈음 소요 전파의 상황을 사찰한 즉, 읍내는 경비가 엄하여 놀아날 여지가 없음을 보고, 경비가 비교적 허술한 지방에 미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그의 주요한 원인은 타군 타도에서 들어오는 나쁜 무리의 선동과 협박에 의한 것이 많다니 유감스럽다. 그들 나쁜 무리가 귀면 내에 들어와 선동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곧 힘을 모아 포박하여 헌병에 넘길 것이며, 이것을 관하 일반인에게도 급히 주지시켜 좋은 성과를 올리기 특별 내첩함.”

이 공문은 횡성을 내는 경비가 엄하여 운동이 재발할 여지가 없으나, 읍내 이외의 경비가 허술한 지방에 만세운동이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다른 도나 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군내의 면 지역으로 들어와 선동하면 포박하여 헌병에 넘길 것이며, 일반인에게 이를 주지시켜 운동의 파급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sup>164)</sup>

164) 조동걸, 앞의 책, 98~110쪽. 이 공문은 영영포리 구장 위창래(魏昌來)의 아들 위성현(魏聖鉉)이 가지고 있던 것임.

### 3. 횡성 3·1독립운동의 확산

횡성 31운동은 3월 12일부터 만세운동이 추진되어 결국 5명의 피살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기에 이르는 강력한 항쟁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횡성의 31운동은 군내는 물론 이웃 고을로 확산되었다. 원주군 소초면과 평창군의 31운동은 횡성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것이다.

#### 1) 원주군 소초면의 독립만세운동

원주군 소초면은 교통 관계로 횡성군과 가까워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초면 주민들은 3월 27일과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에 가담하였다. 3월 27일 횡성 만세시위의 선봉에 섰던 둔둔리(屯屯里) 강만형은 장터에서 체포되었다.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 때는 둔둔리의 강달회(姜達會, 사문)와 하영현(河永賢, 돌림)이 피살되었다.

횡성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제 관헌에 피체되거나 사상자가 속출하자, 소초면 주민들은 격분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특히 많은 희생자가 생긴 둔둔리 주민들의 발의로 둔둔리와 평장리(平庄里) 사람들이 주동하여, 4월 5일 소초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둔둔리에서 횡성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은 강만형과 강달회였다. 강달회는 강만형의 작은할아버지이다. 강만형은 강도영(姜道永)의 아들이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천도교인인 강도영은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횡성군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한 항일 투사였다. 둔둔리 강씨 문중은 강도영의 뜻을 계승하여 모두 천도교를 믿었으며, 일제 통치에 대해 항쟁의식이

강했다. 이러한 항일 정서는 강씨 문중뿐만 아니라 둔둔리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공감을 얻고 있었다.

둔둔리 주민들은 구한말 춘천지방에서 의병으로 활동하던 박영하(朴永夏)를 마을 서당의 선생으로 모셔 놓고 청소년들을 교육하며 항일사상을 배양하고 있었다. 박영하의 교육은 둔둔리 뿐만 아니라 소초면 일대에 파급되었다. 강도영의 사상과 항일정신은 그의 사위인 교항리(橋項里) 추병학(秋秉學)과 그의 동생 병륜(秉倫)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소초면은 만세운동의 기반이 어느 곳보다 튼튼하였다.

항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소초면 주민들은 3월 27일과 4월 1일에 횡성 장터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 많은 희생자가 생겼던 것이다. 그 때 교항리의 추병륜이 연락 차 서울에 갔다 오다가 양평에서 체포되어 징역을 살았다고 한다.<sup>165)</sup>

4월 1일 횡성 장터 만세운동 중 피살된 강달회의 장례식이 4월 3일 거행되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강달회의 억울한 죽음에 격분하여, 소초면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였다. 둔둔리의 글방 선생 박영하는 평장리 신현철(申鉉喆)에게 서신을 보내 둔둔리 주민들의 뜻을 알리고 같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였다.

한국 독립을 위하여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자신도 만세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 신현철은 4월 3일 밤 동생 신현성(申鉉成)을 앞세워, 신현성의 친구 김흥렬(金興烈)과 유재경(柳在景, 유복) 등 청년들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설명하고 소초면 만세운동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신현철이 지휘하여 평장리 김정환(金正煥)의 집(1970년에는 許基鎬의 집, 南成烈이 거

165) 추교성(秋敎成)의 증언(조동길 앞의 책, 110쪽).

주)을 거점으로 면내 각 마을에 연락을 취하기로 하였다.

신현성유재경김홍렬장세규(張世奎)이순이(李淳伊) 등 평장리의 청년들은 신현철의 비밀 연락문을 가지고 둔둔리장양리(長陽里)의관리(衣冠里)평장리교항리 등을 다니며, 4월 5일 소초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적극 설득하였다. 수암리(壽巖里)가 제외된 것은 현병파견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4월 5일 평장리는 신현성과 김홍렬(金興烈) 등이 주민을 선도하고, 장양리는 심능준(沈能俊) 등을 심의성(沈宜聖)이, 둔둔리는 신경묵(辛敬默) 등을 박영하가, 교항리는 김동선(金東先), 의관리는 김동혁(金東赫) 등이 각각 주민들을 이끌고 면사무소로 모여들었다.

4월 5일 소초면 농민 수백 명이 평장리에 있는 소초면사무소로 향했다. 처음에는 '부채고개'에서 모이기도 하였으나, 점심때가 가까워 올 무렵 군중들은 소초면사무소 앞에 모여들었다. 군중은 오후 1시경부터 면사무소로 들어가 면장 남상철(南相喆)을 끌어내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외쳤다. 그러나 남상철은 응하지 않았다. 김춘선김동혁 등은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면장을 압박질렀다. 면장은 끝내 거절하였다. 흥분한 군중은 박영하의 선창에 따라 계속해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소초면 만세운동 소식을 뒤늦게 들은 수암리 현병파견소에서는 안한연(安漢淵)변덕준(邊德俊) 등의 현병보조원을 앞세우고 각 마을을 다니며 만세운동 참여자를 붙잡아 갔다. 만세운동의 주동자 신현철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의 사람들은 태형을 맞고 나왔다.<sup>166)</sup>

166) 조동걸, 앞의 책, 109~114쪽.

## 2) 평창군의 독립만세운동

평창군의 독립만세운동은 횡성 지방의 연락을 받고 추진되었다. 장도훈이 서울에 가서 구해온 독립선언서 중 12매를 횡성 천도교 구장 최종하가 안흥에서 서당 훈도를 하는 김인경(金麟卿)에게 넘겨주었다. 평창군 대화면 운교리 사람인 김인경은 3월 13일 횡성면 영영포리 신재근 집에서 받은 독립선언서를 운교리 이인영(李麟榮)에게 전달하였다. 이인영은 16일경 대화리(大和里) 천도교인 최상달(崔相達, 40세, 농업)에게 전달하여, 평창군 만세시위가 추진되었다.

한편 평창면 하일리(河一里)의 유학자 이승로(李承魯, 44세)는 다른 계통으로 독립선언서를 입수하고 이종하(李鍾河, 25세, 농업)와 함께 만세시위를 추진하였다.

천도교인과 유학자에 의하여 두 갈래로 각각 추진된 시위계획은 통합되었다. 평창면 원당리(331번지) 사람으로 대화면 계촌리(桂村里)에 사는 천도교인 유영묵(劉永默, 53세, 농업) 집에서 3월 21일에 원당리(元堂里 290번지) 천도교인 손상봉(孫相鳳, 57세, 농업) 원당리(293번지) 김흥지(金興至, 47세, 농업) 이승로, 운교리(452번지) 천도교인 김흥주(金興周, 50세, 농업) 등이 모였다. 이들은 각각 추진된 시위계획을 통합, 4월 4일 대화리 장날과, 5일 평창 장날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손상봉은 평창면 조둔리(烏屯里) 최태제(崔泰悌), 행동리(杏洞里) 오정천(吳正天)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하라고 선동하였다. 손상봉은 4월 3일에는 이종하와 함께 이승로 집에서 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만들었다. 운교리의 김희주(金熙周)도 평창과 대화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운동의 조직을 확대하였다.

4월 3일 이종하는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 평창 장터에서 종이를 구입하여 손상봉과 같이 이승로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평창 장터에서 종이를 구입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선전한 것이 일제 관헌에 알려져 이날 밤에 주동자들이 모두 잡혀가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sup>167)</sup>

31운동은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여 이후 강력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해방 때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항일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횡성에서도 탁영재 등 감리교인이 중심이 되어 철원애국단에 가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활동을 폈다. 그리고 신간회, 농민조합, 청년회 활동에도 가담하였다.<sup>168)</sup>

---

167) 『독립운동사』 제2권, 596~597쪽.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5집, 967~969쪽. 조동걸, 앞의 책, 114~118쪽.

168) 1970년 10월부터 1972년 3월까지 31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해준 사람들의 명단 참조(조동걸, 앞의 책, 107~108쪽).



## 제5부

# 사회운동과 의열투쟁

- I. 식민지 지배체제의 강화 / 393
- II. 농민·노동운동 / 402
- III. 청년운동 / 414
- IV. 신간회 운동 / 425
- V. 근우회 운동 / 436
- VI. 의열투쟁 / 444

최 창 희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 제5부 사회운동과 의열투쟁

### I. 식민지 지배체제의 강화

#### 1. 경찰기구 강화

가혹한 무단통치가 10년간 지속되었음에도 한민족은 굴하지 않고 거족적인 31운동을 일으켰다. 당황한 일제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무단통치로는 문화의식이 높은 한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식민지정책을 바꿨다.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文化政治)’를 내걸고, 겉으로는 유화정책을 쓰면서 민족운동을 분열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독부의 직제를 개정해서 총독을 “육해군 대장으로 보임한다”는 조목을 없애고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후에도 총독에는 육군이나 해군의 대장(大將) 출신만이 임명되었다. 일제는 패망 때까지 단 1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를 채택했으나, 실제로는 무단통치기의 헌병이 ‘문화정치’의 경찰로 옮겨 앉았다. 헌

병사령관을 총독부의 경무총감(警務總監)에 임명하고, 조선주둔 헌병대 소속의 헌병이 총독부의 경찰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복무연한에 관계없이 예비역에 편입시켰다. 한인 헌병보조원을 대량으로 양성하여 헌병대와 경찰서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국경지대나 독립운동이 격렬한 곳에는 헌병대가 여전히 배치되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헌병경찰제도가 그대로 연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31운동 후 활발해진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경찰병력이 크게 증가되었다. 일제는 1919년 8월에 경무국 직제를 개정하였다. 중앙관서인 경무국(警務局)에는 경무과고등경찰과보안과위생과의 4과를 두었다. 고등경찰과가 사상경찰 및 신문잡지와 출판물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보안과는 행정경찰소방경찰사법경찰 및 범죄 즉결사무와 민사 쟁송 조정 및 집달리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각 도에는 도지사 밑에 제3부를 두고, 제3부장은 도사무관으로 보임하였다. 제3부장은 지사의 명에 의해 경찰 및 위생사무를 집행하며, 경사경부경부보 및 순사를 지휘 감독했다. 제3부에는 경무고등경찰보안위생 등 4과를 두었다.

그리고 부(府)군(郡)도(島)에는 경찰서를 설치했다. 경시나 경부로서 서장을 임명했다. 서장은 상관의 명에 의하여 경찰위생업무를 집행하면서, 경부보순사 등을 지휘 감독했다. 경찰서의 직할구역에는 하급기관으로 파출소가 설치되었다. 면에는 1면 1개를 원칙으로 주재소가 설치되나, 치안사정 등에 따라서 2개 이상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경찰관서는 31운동 전인 1918년에 751개 소였으나, '문화정치기'인 1920년에는 2,716개소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인원은

1918년에 약 5,400명이었으나, 1920년에는 약 1만 8,400명으로 역시 3배 이상 증원되었다. 경찰비용은 1918년에 약 8백만 원이었으나, 1920년에는 약 2,400만 원으로 역시 3배 증액되었다.

경찰력이 증원되었으나, 거의 모두는 일본인에 의하여 충당되었다. 1925년 3월말 현재로 경찰관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일본인이 60.3%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계급별 구성을 보면, 경찰부장 13명은 모두 일본인이며, 경사경부경부보는 일본인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식민지인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많은 하급은 조선인 경찰이 맡았다.

경찰기동력이 강화되고 경찰의 군대식 훈련도 실시되었다. 겨우 10기(騎)였던 경찰기마대가 32기로 확충되었고, 지문사진수배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제3부장을 사령관, 서장을 대대장으로 하는 중대소대분대의 경찰경비대가 편성되었다.

군대는 전시편성 2개 사단과 해군경비대가 상주하게 되어, 역과 군마다에 일본군 수비대가 배치되었다.

1910년 8월에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한 이후에도, 대한제국의 치안법령을 여전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고조되는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925년 5월에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 법안은 1925년 2월 25일에 비준된 일소기본조약(日蘇基本條約)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적색에의 공포를 선동하고, 아울러 보통선거제의 제안으로 그들에게 민주주의에의 환상을 갖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군부독재의 기틀을 한꺼번에 달성하려는 음흉한 저의에서 제안되었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고, 또는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

였다. 국체를 변혁한다는 것은 일황(日皇)의 절대성에 변경의 색채를 가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은 전면적 공산혁명은 물론, 사유재산제도를 위태롭게 할 모든 부정적 행위도 포함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악법이라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일제는 1928년 6월에 이 법을 더 개악하여 국체변혁을 꾀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중벌을 부과하게 하였다. 그리고 ‘특고형사(特高刑事)’와 사복형사 밀정들의 민족운동가 및 지식인학생에 대한 감시와 체포를 크게 강화하였다. 또 무정부주의자공산주의자와 기타 운동자를 단속한다는 핑계로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sup>1)</sup>

조선총독부는 1922년 7월에 호구조사규정을 제정하고 경찰서장에게 외근 순사로 하여금 3개월마다 1회 이상 호구조사를 실시케 하였다. 호구조사는 자산소득뿐만 아니라 사상당파경력 등까지 조사하여, 대민사찰의 성격이 강했다.<sup>2)</sup>

## 2. 친일세력 양성

31운동 후 일제는 친일세력을 확대시켜 민족분열을 획책하였다. 일제는 ‘병합’ 이전에 이미 유학생정치망명자 및 고급관리의 일부를 협박 매수해서 친일파(親日派)로 만들어 ‘병합’ 과정에서 적절히 이용하였다. 그러나 ‘병합’ 후에는 극히 일부만을 식민통치에 참여시키고, 대부분은 실권 없이 ‘우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1) 강만길, 『고쳐쓴 -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25~27쪽.

林鍾國,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121~129쪽.

2) 윤해동, 「문화정치의 실상」,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17~29쪽.

31운동이 폭발하자, 일제는 친일파를 앞장세워 사태 수습을 서둘렀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오히려 31운동의 열기 속에서 친일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일제는 새로운 친일세력을 양성하여, 식민지 통치에 이용하고 민족운동전선을 분열시킬 정책을 수립하였다.

31운동 직후 폭탄 세례를 받으며 부임한 사이토(齋藤實, 1858~1936) 총독은 한인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친일파 양성책을 구상하였다. 그의 구상에 따라, 일제는 우선 ‘신명을 바칠’ 직업적 친일파를 양성하여, 이들을 여론의 조성, 친일단체의 조직, 독립운동가의 적발과 정보 수집, 독립운동에 대한 파괴 활동, 대외 선전, 독립운동가의 포섭과 변절 설득 등에 이용했다.

일제는 31운동 무렵, 민정 시찰과 독립운동가의 적발을 목적으로 지방시찰원 제도를 창설하였다. 1919년 9월,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는 이 제도를 확충 정비하여 민정시찰관 제도를 만들었다. 민정시찰관은 위의 임무 이외에도 총독부의 정책 선전과 지방유지의 포섭공작을 담당했다. 1920년 2월 사이토는 총독부 내에 민정시찰관 제도를 상설기관으로 만들고, 행정수완을 겸비한 친일적인 한인 사무관을 민정시찰관으로 임명하였다. 민정시찰관은 상시 지방을 순력하면서 은밀히 민정을 내사하고 ‘사상선도’, 정책 선전 등에 종사하는 등 친일에 진력하여 도지사 등으로 영달(?)한 계층이다.

사이토는 1920년 11월에는 조선정보위원회를 창설, 대내외의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민족운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대책 수립 및 친일세력의 포섭 육성을 강화하였다.<sup>3)</sup>

그리고 교풍회국민협회(國民協會)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 등을

3) 林鍾國, 앞의 책, 111~120쪽.

만들어 친일 여론을 조성하고, 대지주와 예속자본가들의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유민회(維民會), 유생들의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등의 친일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선인 소작회상조회(朝鮮人小作會相助會)를 조직하여 농민운동을 약화시켰다.

31운동 후 자유주의나 민족주의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등의 좌파이론도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한인사회에는 지주자산가계급과 소작인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었다. 일제는 이를 기회로 사회주의 노선과 소작농민 및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지주와 자산가 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을 개량주의자나 친일파로 만들어 민족운동세력을 분열약화시켰다.<sup>4)</sup>

### 3. 참정권과 ‘지방자치’

민족독립운동을 억압하고 더 많은 친일파를 양성한 일제는 민족분열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족부르주아지의 일부를 물산장려운동문화운동자치운동 등 개량주의운동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인에게도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허용할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나 한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므로, 일제는 조선의회(朝鮮議會)를 만들지도 않았고, 일본의회에 한인대표를 참가시키지도 않았다. 다만 지방행정기관에 자문기관을 두어 참정권 부여를 선전하고, 그것을 통해 친일파의 폭을 넓혀감으로

4) 강만길, 앞의 책, 27~29쪽.

써 완전독립절대독립 노선을 고수하는 독립운동전열을 혼란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참정권 문제를 비추자, 일부 대지주와 예속 자본가 등 친일파들은 이른바 참정권 청원운동을 벌여 민중의 반일감정을 식혔다. 친일파들은 1920년부터 1924년까지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아무 반응도 없는 일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계와 언론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

친일파들의 참정권 청원운동을 조선총독부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이용하였다. 그러나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吉)의 지시를 받아 청원운동을 주동한 민원식(閔元植)이 양근환(梁權煥)에게 살해되었을 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과 금융 불황, 1925년 치안유지법 및 정권의 교체 등 일련의 사태에서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26년 조선인의 거족적인 저항과 신간회 운동이 본격화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참정권 부여 문제를 재론하였다. 1927년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장 나카무라 소노스케(中村宗之助)는 조선인에게 일본 의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자치주의 지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총독에게 건의하였다.<sup>5)</sup>

총독부는 지방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 자치에 대해 훈련한다고 선전했다. 자문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둔 부협의회(府協議會)면협의회(面協議會)도평의회(道評議會)와 교육기관에 둔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의 네 가지였다.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부의 협의회원은 완전 선거제였으나, 면협의회는 경우 일본인과 한인 지주가 많아진 전국 24개의 지정

5) 윤해동, 앞의 글, 29~33쪽.



면(指定面)만 선거제 이었고, 나머지 약 2,500개의 보통면의 협의회원은 모두 군수가 지명했다.

도평의회의 경우, 회원의 3분의 2를 부면협의회원이 뽑은 후보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역시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학교평의회는 부와 군에만 설치되었는데, 부의 회원은 선거제이었으나, 군의 회원은 면협의회원이 뽑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였다.

도지사부윤군수가 임명하는 회원의 대부분은 친일적 인사였다. 선거제의 경우도 일본인의 당선률이 훨씬 높았다. 선거권이 부세(府稅)나 면부과금(面附課金)을 1년에 5원 이상 납부한 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일본인과 한인 지주 및 자산가와 부유한 상인만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권자 납세액이 3원이었다.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던 협의회를 선거회원 보다 임명회원이 많게 하여 일본인이나 친일 한인이 임명될 문을 넓혀 놓았던 것이다.

결국 한인의 참정권을 내세우고 ‘자치제에 대한 훈련’이라 선전한 일제의 자치제는 실제로는 친일파 육성책 내지 민족분열정책의 연장에 불과하였다.

#### 4. 문화운동과 자치론

일제는 31운동으로 높아진 독립운동의 열기를 문화운동 쪽으로 유도하여, 절대독립론독립전쟁론적 분위기를 약화시키는 책략도 추진하였다. 31운동 후 민족운동은 절대독립론독립전쟁론을 견지하는 세력과, 독립준비론·실력양성론외교독립론을 새로 내세

우는 세력으로 크게 양분되었다. 일제는 온건적인 독립준비론실력양성론을 이용하여, 그것을 문화운동으로 연결시키려 하였다.

31운동 후 국내에서 사회주의운동이 대두되자, 민족주의자의 일부는 한때 민족운동의 방향을 잃게 되었다. 일제는 이를 틈타 민족운동 방향을 문화운동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종교운동수양운동사교운동생활개선운동농촌계몽운동 등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그 운동의 주동자를 포섭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적극적 독립운동노선에서 한 걸음 물러선 일부 우파(右派) 민족주의자들은 타협주의나 더 나아가서 친일적 노선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들은 '문화정치'문화운동과 논리를 같이하는 '민족성 개량' '실력양성' '자치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이탈해 귀국한 이광수(李光洙)는 1922년 『동아일보』에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을 게재하여, 교육 진흥, 산업 발전, 민중 진작 등을 민족개조운동의 방법으로 내세웠다. 또 현대의 조선인은 “허위 되고 공상과 공론만 즐겨 나타(懶惰)하고 신의와 충성이 없고, 일에 임하여 용기가 없고, 극히 빈궁하고, 이런 의미로 보아 이 개조는 조선민족의 성격을 현재의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서 식민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치론’을 펼쳤다. 그는 1924년에 『동아일보』사설에 5회에 걸쳐 「민족의 경륜(經綸)」을 발표하였다. 이광수는 식민지배 아래서 조선인이 정치적 생활을 가지지 못하게 된 첫째 원인은 일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둘째 원인은 “병합 이래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직 밑에서 하는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자치권의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정부를 대수(對手)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의식(節概意識)이 있었던”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하였다.

민족개조론자자치론자 이광수가 곧 철저한 친일 이론가 및 행동가로 바뀌어간 것은 ‘문화정치’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민족분열 정책의 한 변형이었다.

## Ⅱ . 농민 · 노동운동

### 1. 식량의 증산과 약탈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의 미곡은 계속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특히 청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업화 단계에 들어간 일본은 급증하는 식량수요를 본토의 생산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되고, 1900년 이후부터는 식량부족 국가가 되어,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 충당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한 식민지 농업정책을 실시하여, 한국을 그들의 부족한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기의 호황으로 일본 공업화는 더욱 급진전되고 공장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쌀값이 폭등하고 식량부족도 더욱 심화되었다. 서민생활의 악화는 결국 1918년 8월에 도오교오(東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생활난 구제와 쌀값 인하를 요구하는 ‘쌀소동(米騷動)’으로 번졌다.

일제는 심각해지는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쌀의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 농업을 그들의 식량공급지로 개편하였다. 우선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작제도를 엄호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조선산미증식계획(朝鮮産米增殖計劃)을 실시하였다. 법제화된 소작제도를 통하여 한인 농민들의 식량소비 수준을 최저로 억제하여 잉여농산물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미곡을 일본으로 약탈해 갈 수 있게 하였다. 소작제는 고율의 현물소작료를 강화하여, 한국 농민을 몰락시키고 토지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노동력을 분리시켰다.

일제가 부족한 식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은 생산량 증대였다. 그것은 조선산미증식계획의 수립 실시로 나타났다. 생산증가를 위한 단위당 비용이 일본 보다 저렴한 한국에서 그들은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개간간척지목 변환관개 개선 등에 있어서 자본의 이윤율이 일본 농업 보다 한국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산미증식계획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주로 토지 개량(관개개선, 지목변경, 개간 및 간척)과 농사 개량(시비증대, 우량품종 보급)에 주력하였다. 이 계획의 장기 목표는 1920년부터 30년간에 걸쳐서 80만 정보의 토지를 개량하고 경종법(耕種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우선 제1기의 목표로서 1920년부터 1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2억 3,621만원을 투자하여 42만 7,500정보의 토지를 개량하고 경종법을 개선함으로써 920만석의 쌀을 증산, 460만석을 일본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다.

일제는 토지개량에 주력하여 1920년 11월에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에 토지개량과를 신설하고, 관개개선수리시설지목전환개간 및 간척 등 모든 개량사업을 관장케 하였다. 1920~34년간에

토지개량사업 시행면적을 42만 7,500정보로 추정하고, 그 총공사비 1억 6,800만 원 중에서 3,855만 원(23%)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산미증식계획에서 벼 품종(水稻品種)의 개량과 보급을 강조한 일제는 각 지방행정 구역별로 채종답(採種沓)을 만들고 우량 품종으로 바꾸고, 화학비료 사용을 전국적으로 장려하였다.

그렇지만 1925년까지 6년 동안 매년 2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총독부 예산에서 지출하는데 그쳐서, 토지개량에 착수한 곳이 9만 7,500정보이고, 준공한 것은 7만 1,000정보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1925년에 중단되었다. 토지개량은 계획의 약 60%밖에 실시되지 못하였다. 총독부의 보조금 지출도 계획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민간인의 자본도 예정대로 동원되지 않았다. 일본인 자본은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장기투자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로 소규모 공업과 식료품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한인지주의 토착자본은 토지개량 농사개선 보다는 경지의 구입을 통한 소작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연 평균 생산량은 계획 실시 이전인 1917~21년에는 1,410만 1천 석이었으나, 1922~26년에는 1,450만 1천 석으로서 그 증가지수는 5개년 간에 100에서 102.8로 겨우 2.8%가 증가한 것뿐이다. 그러나 일본에의 쌀 수출은 격증하여, 1910년에 54만 4천 석이던 것이 1919년에 2백9만 석으로, 1924년에는 4백75만 8천 석이 되어, 14년 만에 쌀 반출량이 무려 8.75배나 증가되었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인의 미곡 소비 수준을 강제로 절하시키면서 연평균 400만석 이상의 미곡을 일본으로 유출시켰던 것이다.

1926년에는 제2차 산미증산계획이 집행되었다. 그것은 1926년부터 12년간에 걸쳐서 3억 2,533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35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시행하고, 약 817만석의 미곡을 증산하여 일본에

이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소요 자금은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일본 대장성 예금부 및 총독부 등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도 토지개량에 주력하였다. 1927년 5월에 총독부에 토지개량부를 설치하고 미곡증산을 추진하였다. 12월에 조선토지개량령의 공포와 함께 조선수리조합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토지개량과 수리조합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또 동양척식회사에 토지개량부를 설치케 하고,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를 창설하여 총독부의 원조 하에 토지개량 사업을 담당케 하였다.

제2차 계획은 관개개선지목전환개간간척 등의 방법으로 35만 정보의 토지를 개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소요예산 중 총독부의 보조금 총액은 6,507만원이었으나, 대부분 상당한 자력을 가진 일본인 지주들에게 지급되도록 정책화되었기 때문에, 꼭 보조금이 필요한 한인 중소지주와 자작농은 수혜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이 사업을 계기로 더욱 쇠퇴하였다.

우량 품종의 보급에 주력한 일제는 1928년 권농공제조합(勸農共濟組合)을 창설하고, 수원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개칭하여 기후풍토에 맞는 품종을 개량하도록 하였다. 또 농민들에게 새로운 벼 품종의 재배, 묘상(苗床)의 개량, 이식시비(施肥)중경(中耕) 제초의 개선, 병충해의 방지, 퇴비 장려, 적기의 파종과 수확 등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을 맞아 한국미의 공급이 일본 쌀 값을 폭락시킬 위험성이 높아가고, 1933년 한국의 미곡생산이 대폭작을 보이자, 제2차 산미증식계획도 1934년에 중단되었다. 토지개량과 사업자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곡의 증수도 목표의 34%, 단보당 증수량은 목표액의 79%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그렇지만 미곡의 대일반출량은 여전히 급증하였다. 1917~21년

을 기준(100)으로 할 때 생산량의 증가지수는 1927~31년의 연평균이 111.9로 증가하고, 1932~36년에는 연평균 120.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곡의 대일반출량은 1927~31년에 300.9로 격증하고, 1932~36년에는 398.7로 급증하여, 일본의 공업화에 따르는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였던 것이다.

한국미의 일본반입은 일본농업에 큰 위협이었다. 품질이 좋고 저렴한 한국미가 일본에 반입되면서 일본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자, 일본 지주들의 한국미 배척운동이 1930년 초부터 일어났다. 일본정부는 1933년 3월 미곡통제법(米穀統制法)을 공포하여 한국미 수입을 규제하였으며, 1934년에 제2차 산미증식계획을 중지시켰던 것이다.

제2차 계획의 집행기간에 생산량은 약간 증가되었으나, 반면에 대일 반출량이 급증한 사실은 당시 한인의 식량소비 수준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말한다. 한인 1인당 연간 미곡소비량은 1917~21년에는 연평균 0.6860석이었는데, 1927~31년에는 연평균 0.4964석으로 줄어들고, 다시 1932~36년에는 0.4017석으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식량 총소비량은 계속 저하되었다. 1918년에 2.012석에서 1924년에 1.916석, 다시 1930년에는 1.694석으로 급락되었다. 한국 농촌의 궁핍상태를 산미증식운동으로 극복한다고 총독부가 내세운 구호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일제는 풍년기근에 허덕이는 한국인에게 현미(玄米)칠분도미(七分搗米)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여 양식의 부족분을 메우려 하였다. 1924년에 만주에서 좁쌀 326만 섬, 1930년에 172만 섬을 들여와 공급하였다.<sup>6)</sup>

또한 농민의 농토로부터의 축출도 심해졌다.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농촌을 떠나 일본 만주 등지로 이동하였다. 총독부는 궁여지

6) 米昇右, 『日帝 農民 收奪相』, 綠苑出版社, 1983, 182쪽.

책으로 자력갱생(自力更生)에 의한 농촌산촌어촌의 진흥을 내세웠으나, 그것은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된 뒤의 공백을 메우려는 선전에 불과하였다.<sup>7)</sup>

## 2. 노동운동

문화개방 이후에 개항장의 부두노동자를 비롯하여 일부 생산 공장에서 임금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했다.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는 일본자본주의의 식민지경영에 따라 토목공사장 일용노동자는 증가했으나, 공장노동자의 증가는 대단히 완만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식료품공업이나 방직공업에 종사하였다. 공장 노동자는 1920년의 46,200명에서 1923년에는 59,578명으로, 1926년에는 73,345명으로, 그리고 1928년에는 약 88,000명으로 증가하였다.<sup>8)</sup>

식민지 산업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수도 증가되었으나, 노동조건은 열악성을 면치 못하였다. 한인의 노임은 같은 직종의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절반이 못되었다. 1929년의 통계는 일본인 성년 공장노동자가 하루 2원 32전을 받는데 비해 한인 성년 노동자는 1원을 받았다. 한인 노동자의 46.9%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는데, 일인 노동자의 0.3%만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나쁜 노동조건과 민족간의 차별대우에 대응하여 한인 노동자들은 노동쟁의(勞動爭議)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20년부터 1930년까지에 총 891건에 한인 노동자 7만 3,450명이 참가했다.

7) 배성준, 「수탈체제의 강화」,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1, 60~67쪽.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32쪽.



31운동 이후 거세게 들어온 사회주의사상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의식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진 데 반해 노동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20년대 노동쟁의는 임금인상 요구가 40.6%로 가장 많았고, 임금 인하 반대가 25.4%, 대우 개선 요구가 8.3%, 기타가 25.4%로 되어 있다.

노동단체는 1890년대부터 나타나서 성진(城津)의 부두노동조합, 군산의 공동노동조합 등이 결성되었다. 1905년에서 1919년 사이에 전국 노동자 조직이 30여 개로 늘어났다. 1920년에는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가 성립되었다.

전국에 20여 개의 지회를 설치한 노동공제회는 1만 5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잡지 『공제(共濟)』를 발간하면서 계몽 강연, 소비조합 설립, 노동쟁의 진상 조사 및 중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앙기구 안에 선진적 노동자들과 개량주의적 세력이 대립되어 1922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사회주의 사조가 널리 퍼지고 사상단체들이 성립된 데 영향을 받아 1922년 10월에 조선노동연맹회(朝鮮勞動聯盟會)가 결성되었다. 노동연맹회는 성립 초에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도하면서 각 지방의 노동조합 결성에 주력하여 많은 노동농민 단체들이 성립되었다. 이들을 모체로 1924년 4월에 전국 노동자농민 단체를 거의 망라하여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되었다. 성립 당시 노농총동맹은 260여 개의 산하단체와 5만 3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기의 노동운동은 지역별 조직이 중심이었으며, 아직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 1920년대 후반기로 넘어서면서 사회운동의 방향전환론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조선노

농총동맹은 1927년 9월에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과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으로 분리되었다. 조선노동총동맹에는 156개의 단체가 가담하고 회원은 2만 6백여 명이였다.

조선노동총동맹은 수많은 노동쟁의를 조직 지도하였다. 그러나 1928년 3월부터 시작된 제3차 공산당사건으로 중앙간부 대부분이 검거됨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7월에 시작된 4차 공산당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총연맹은 다시 전면적으로 파괴되는 타격을 받고, 한 때 침체기에 빠졌다. 이듬해 7월에 중앙기구를 재편하였으나 1932년에 노동총동맹은 가맹단체 56개, 회원 1만 8천여 명으로 줄었다.

일제의 탄압 아래서 노동총동맹은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연합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각 지방의 노동쟁의를 지도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전환되었다.

1920년대 노동운동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였던 투쟁은 원산총파업이었다. 원산항에는 일찍부터 노동운동이 발달하고 1925년에 원산노동연합회가 결성되고, 1929년에는 54개 가맹단체에 약 2천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총파업은 1929년에 영국계 자본이 경영하는 석유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한인 노동자를 구타한데서 발단되었다. 이를 원산노동조합회가 지휘하여, 그 산하의 원산지역 전체 노동조합이 합세한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노동연합회는 일본인 감독 파면, 최저임금제 확립, 해고수당 제정, 작업중 사망자 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휘하였다. 일본 경찰이 노동연합회를 해체시키려고 어용 노동단체를 만들어 수습하려 하자, 이에 분개한 원산 시내 모든 노동자가 동조 파업하였다. 파업의 장기화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자, 전국의 노동조합농민조합청년회신간회 등에서 성금을

보내 지원하였다.

한 회사의 파업에서 전체 한인사회의 후원으로 발전한 원산총파업은 약 4개월 만에 끝났다.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파업자금이 고갈된 노동연합회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복업(復業)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파업은 전체 노동자의 사회의식을 크게 높이고, 식민통치자들의 한인 노동자계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 3. 농민운동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주제를 강화하였다. 농민적 토지소유를 통한 부농층의 성장을 저지하고, 농민의 소작인화 내지 토지이탈을 촉진시켰다.

1910년대에 이미 농민들은 사유지(私有地) 및 역둔토(驛屯土)의 국유지화와 소작료 인상에 반대하여 곳곳에서 항쟁하였다. 31운동 이후에 식민지 농업정책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의식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농민운동도 본격화해갔다.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한 후, 일제는 약 5천명의 대지주를 매개로 한국의 농업개발을 추진하고 농촌사회를 지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상실과 소작인화(小作人化), 소작료 고액화, 소작권의 불안정, 마름(舍音)에 대한 부담의 과중 등이 급진전되었다. 여기에 총독부의 각종 정책과 일본인 지주에 대한 민족적 저항심 등이 겹쳐 1920년대에 소작쟁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 발생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소작농민들은 쟁의과정에서 투쟁조직을 결성하고 쟁의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갔다. 일정한 규율을 갖춘 소작인조합소작인대표자

회투쟁동맹 등을 결성하여 큰 규모의 쟁의를 상당 기간 계속한 지역도 많았다. 소작인들은 시위 농성, 아사기아동맹 결성, 소작료 불납 및 경작거부 동맹, 추수 거부, 농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였다.

열악한 지위와 농민의 각성은 소작쟁의로 나타났다. 1920년에 15건에 4,140명이 참가한 소작쟁의는 1922년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 12월 13일, 전남 순천군 서면의 소작인 1,600여 명이 지주의 횡포에 분개하여 쫓겨나고, 28일에는 낙안면(樂安面) 부근의 소작인 800여 명이 소작 상조회를 조직하여 지주의 횡포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쌍암면(雙岩面)의 소작인 1,100여 명은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소작대회기성회(小作大會期成會)까지 조직하였다.<sup>9)</sup>

1923년에는 충북 영동(永同)의 소작인 수백 명이 지주 공격 대연설회를 열고, 전남 순천의 소작인 400여 명이 악덕 지주에 대하여 소작료 불납을 결의하는 등 소작쟁의 176건에 9,060명이 참가하였다. 1924년에는 1월에 전남 광주의 농민 500여 명이 소작쟁의 문제로 경찰서를 습격하였으며, 7월에는 무안군 암태면(岩泰面) 농민 600여 명이 소작쟁의로 구속된 농민의 석방을 요구하며 목포 법원 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였으며, 11월에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安平面) 소작인 1,500여 명이 악덕 지주에 결사 항쟁할 것을 결의하는 등 소작쟁의 164건에 6,929명이 참가하였다.<sup>10)</sup> 1925년에는 10월에 도초도(都草島) 농민 1,000여 명이 목포경찰서를 습격하였고, 11월에는 나주(羅州)에 있는 동양척식회사 소작인 10,000여 명이 무장 출동한 일본 경찰과 충돌하는 등 204건의 소

9) 米昇右, 앞의 책, 173쪽.

10)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에 있어서 朝鮮의 治安狀況』, 1933, 157쪽.

작쟁의가 발생하였다. 1926년에는 1월에 무안군 자은면(慈恩面)에서 소작인 1,000여 명이 경찰 280명과 충돌하는 등 198건, 1927년에는 275건, 1928년 1,590건, 1929년 423건이 발생하였다. 1930년에 726건에 13,012명 참가, 1931년 667건에 10,182명 참가, 1932년 300건, 1933년 1,975건, 1934년 7,544건이 발생하였다.<sup>11)</sup> 1935년에 2만 5,834건, 1937년에는 3만 1799건, 1939년에 1만 6452건이 발생하였다. 20년 동안에 총 14만 969건이 발생하여, 1년에 평균 7,480건이 일어난 셈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통해 지주소작관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소작농민들의 지주에 대한 저항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작쟁의의 원인을 보면, 소작권 및 소작지 관계의 쟁의가 가장 많고, 소작료 관계 쟁의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소작권 및 소작지 확보를 위한 쟁의는 해가 갈수록 증가되어, 1927~29년에는 소작쟁의의 47.3%에서, 1933~36년에는 78.8%, 1937~39년에는 82.8%로 늘어났다. 당시 한인 농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작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

소작농이 많아지고 소작조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민운동은 점차 빈번해지고 점점 조직화되어갔다. 농민운동은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인 면 단위 소작인조합과 같은 농민단체에서 시작되었다.

면 단위 소작농이 망라된 소작인조합 등 농민단체는 1922년경에 이미 3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고, 이후 계속 증가되어 1933년에는 1,301개로 증가되었다. 소작인조합 등 농민단체가 처음으로 전국적 조직으로 연결된 것은 조선노동공제회에 의해서였다. 노동공제회는 그 지부에 농민부나 소작인부를 두어 농민조직을 추진하

11) 米昇右, 앞의 책, 178~180쪽.

고, 또 소작인대회를 개최하여 일정하게 소작쟁의를 지도하였다.

노동공제회가 해체되고 성립된 조선노농총동맹도 계속 농민조직의 확대를 지원하고 소작쟁의를 지도했다. 1927년 노농총동맹에서 분리된 조선농민총동맹은 32개 산하 단체와 2만 4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전국 농민운동의 총본산으로 출발하였다.

농민총동맹이 발족한 후부터 전국의 농민단체는 크게 증가하여, 1928년 현재 농민총동맹의 가맹단체는 200여 개로 늘어났다. 또한 종래의 소작인조합이 자작빈농(自作貧農)과 자작중농(自作中農)을 포함한 농민조합으로 개편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식민지 정책의 결과로 자작 중농층에서 빈농층으로 전락한 농민들까지 포함한 농민조합으로의 개편은 농민운동의 확대 강화를 위해, 그리고 총독부의 탄압과 분열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농민총동맹은 총독부의 탄압으로 그 활동이 극히 제약되었다. 더욱이 간부들이 조선공산당사건으로 검거되고, 내부의 분파투쟁과 개량주의적 요소 때문에 영향력 있는 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농민총동맹은 1933년 현재 35개 가맹단체, 회원 3만 4천 명을 가졌으면서도 자연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1925년 천도교 신파(新派)쪽의 김기전(金起田)이돈화(李敦化)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는 『조선농민(朝鮮農民)』을 발행하였는데, 1933년에는 1,069개의 산하 단체에 약 5만 명의 사원을 가진 큰 단체로 발전하였다. 조선농민사가 천도교단이 주도권을 가져 종교적 성격이 강하고 개량주의적 단체인데 불만을 가진 이성환(李晟煥) 등이 탈퇴하여 1931년에 전조선농민사(全朝鮮農民社)를 결성했으나, 역시 개량주의적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해 쇠퇴하였다.

1920년대의 농민조합운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농민조합이 지주부농 출신의 지식청년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야학독서회활동 등 교양주의계몽주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다. 둘째, 신규 소작인의 층들에 대한 농민조합 측의 대응과 수리조합 반대투쟁 등에서 드러나듯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셋째, 집회금지불법구검에 대한 반대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합법투쟁을 고수하여 운동영역을 축소시켰다.

### Ⅲ. 청년운동

#### 1. 청년운동의 전개

문호개방 후 신교육을 받은 청년학생층이 증가함에 따라 민족운동 과정을 통하여 이들의 활동이 점점 두드러졌다. 그러나 무단통치 10년간에는 청년학생 운동이 질식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은 31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일제가 표방한 ‘문화정치’란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하고, 그들의 식민정책의 근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민통치는 심화되었다. 그러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이거나 허용되자, 한민족은 전국 각지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수많은 단체를 설립하였다. 각종 사회운동이 다소 활성화되면서 청년학생운동도 활기를 띠어갔다. 1920년에는 985개, 1921년에는 2,989

개, 1922년에는 9월까지 3,002개 단체가 설립되었다. 당시 설립된 단체에는 종교단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조직된 단체는 청년회였다. 수양과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운동 단체가 1920년에 이미 251개 단체가 결성되었고, 1921년에 446개, 1922년에는 488개로 계속 증가하였다.<sup>12)</sup>

청년단체들이 급속히 증가하자, 각 단체의 연합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6월 28일 서울에서 각계 인사 53인이 모여 전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全朝鮮青年會聯合期成會)를 발기하고, 12월 1일 서울에서 서울청년회 등 116개의 청년단체가 가입한 조선청년회연합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sup>13)</sup>

조선청년회연합회는 그 중앙위원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참여하였으나, 지도부는 개량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교육진흥·산업진흥도덕수양을 통한 지(智)덕(德)체(體)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청년회연합회는 1922년 1월 김윤식(金允植)의 사회장(社會葬)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다. 청년회연합회 간부인 장덕수(張德秀)·오상근(吳祥根) 등이 김윤식 사회장위원회에 관계하자, 김사국(金思國)·김한(金翰) 등 서울청년회 간부는 김윤식이 봉건적 유물에 불과하다 하여 그의 사회장을 극력 반대하였다. 지도부의 개량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서울청년회 소속 중앙집행위원들의 불만과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청년단체들은 민족개량주의(民族改良主義)와 사회주의(社會主義) 계열로 분열, 양립하게 되었

12)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의 治安狀況』, 1927, 193~194쪽.

鄭秉培, 「1920~1930년대 春川地域의 青年學生運動」(翰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5쪽.

13) 安建鎬, 「朝鮮青年會聯合會 組織과 活動」, 『韓國史研究』 88, 1995, 109~113쪽.



다.<sup>14)</sup> 결국 서울청년회계가 4월에 연합회에서 이탈한 뒤, 청년회 연합회는 계속 개량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장덕수 등 개량주의적 세력을 배제한 서울청년회는 강령에서 사회주의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개량주의를 청산했다. 1923년 3월에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혁신적 청년세력이 총집결하여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를 개최, 여성교육경제노동소작인민족의 문제 등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민족자결 및 민족독립은 오늘날 무용이라 하고, 무산계급 해방을 제1의 의무로 내세웠다. 당시 전국의 청년단체 488개 가운데 94개 단체가 청년당대회에 참여하였는데, 이 대회는 무산자계급해방과 민족독립을 분리시켜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조선청년당대회가 조선총독부의 집회금지로 해산되자, 그 핵심세력은 청년당사(靑年黨社)를 조직하고, 기관지 『청년당』을 발행하였지만, 이데올로기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 쇠퇴하였다.

한편 신사상연구회(新思想研究會, 火曜會의 전신)북성회(北星會, 국내 조직은 北風會) 등을 중심으로 1924년에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이 조직되어, 기관지 『신흥청년(新興靑年)』을 간행하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결국 서울청년회와 신흥청년동맹 등 사회주의 계열은 1924년 4월에 독자적으로 사회주의 청년단체인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을 서울에서 결성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의 성립은 같은 해 조선노동총동맹의 창립과 함께 대중운동 단체의 전국화의 일환이었다. 청년총동맹은 223개 산하단체에 총 회원 3만 7천여 명의 대표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년회북성회신사상연구회 등의 협동에 의해 청년운동의

14)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2, 청계연구소, 1986, 100~109쪽.

전국적 통일지도기관으로 성립되었다. 조선청년총동맹은 ‘대중 본위의 신사회 건설’, ‘조선민족 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될 것’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선청년총동맹은 제1, 2차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타격을 받았다. 제3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가 1926년 ‘정우회선언(政友會宣言)’을 통해 민족협동전선운동을 펴고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되자, 조선청년총동맹은 중앙집권적 기구를 강화하고 도 단위 협력기관으로 도연맹(道聯盟)을 조직하는 한편, 신간회 중심의 민족협동전선에 적극 참여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은 합법단체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앙단위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도연맹 집회도 한인의 현실문제가 안전일 경우에는 모두 금지되었다. 1930년대 이후에는 그 지도부에 개량주의적 세력이 침투하여 우경화 되었다. 도연맹들은 중앙을 소부르주아집단으로 규탄하면서 스스로 조직을 해체했다. 그 결과 대중적 기반을 잃은 조선청년총동맹의 중앙조직도 자연히 소멸되어 갔다. 그러나 뒷날 국제공산당청년연맹(國際共產靑年同盟)은 ‘공청(共靑) 테제’를 통해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를 ‘좌경적 경향에 의한 중대한 정치적 오류’로 비판하였다.

## 2. 강원청년연맹의 운동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도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도내의 청년단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영동지방에서부터 일어났다.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서울청년회를 비롯한 94개 단체의 대표 154명, 개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강원도에서는 강원청년간친회(江原靑年懇親會) 대표 윤태진(尹台鎭)정용철(鄭容轍), 고성금강청년회(高城金剛靑年會) 장봉한(張鳳翰)박길수(朴吉守), 철원청년회 이봉하(李鳳夏)김응환(金應煥) 등이 참석하였다.<sup>15)</sup>

1927년 말 현재 강원도에는 65개의 청년단체가 있었는데, 민족주의 단체가 5개, 사회주의 단체가 19개, 그리고 나머지 41개는 순수한 청년 단체였다.<sup>16)</sup>

영동지방의 청년단체들은 1925년 1월 5일에 관동청년회(關東靑年會) 발기인회를 개최, 관동청년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어종면(魚宗沔) 등 14인을 준비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에 박태선(朴泰善)최우집(崔禹集) 등을 통천김화 등에 파견하여 대회를 선전하고 청년단체를 결합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5월 21일에 관동청년대회를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에서 개최하고, 청년문제와 사회 및 경제문제에 대해 토의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금지로 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5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sup>17)</sup>

영서지방에서는 10월 23일에 청년단체 대표자가 철원에 모여 청년운동의 통일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평강철원 등지의 부괴청년회(斧壞靑年會)철원청년 화갑성청년회(甲成靑年會)철원무산청년회(鐵原無産靑年會)성우회(星友會)진세회(進世會) 등이 발기하여 강원청년연맹 준비회가 조직되고, 준비사무소를 평강읍내

15) 金俊燁金昌順, 앞의 책, 100~149쪽.

16) 조선총독부 警務局, 『朝鮮의 治安狀況』, 1927, 193~194쪽.

17) 『동아일보』, 1925년 1월 12일, 「關東靑年發起會」. 3월 16일, 「關東靑年大會 準備에 奔忙」. 5월 24일, 「關東靑年大會 禁止되고 懇談會 開催」.

부괴청년회에 두게 되었다.<sup>18)</sup>

강원청년연맹(江原靑年聯盟)이 11월 25일에 철원에서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강원청년연맹은 ‘모든 관동무산청년단체(關東無産靑年團體)는 하나의 기치 아래로 모여 그 사명을 다하자’고 선언하고, “청년운동에 통일을 기할 것, 필연적으로 전개될 사회 진운에 공헌을 기할 것, 계급의식을 환기하여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것”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sup>19)</sup> 그리고 지방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원청년연맹은 이용순(李龍洵, 조선일보기자, 철원지방청년회 주도)정의식(鄭宜植, 동아일보기자, 부괴청년회 주도) 등을 조선청년총동맹에서 개최하는 각도연맹간부회의에 파견하여, 강원도청년운동의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초기의 강원청년연맹은 철원평강 등의 영서북부에 국한되고, 창립 초부터 위원의 과반수가 투옥되는 등의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강원도 전체의 청년운동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활동도 부진하였다. 영서지방 청년운동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춘천청년회는 1927년 2월 집행위원회에서 사회운동자들의 집회가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영서사회운동자간친회(嶺西社會運動者懇親會)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에 힘썼다.<sup>20)</sup>

간친회의 준비회원들이 5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의 창립대회에 참가하였는데, 대의원 10여명이 인사동 이화여관에 모여 강원도 청년운동에 대해 토의한 결과, 강원도 전체를 범위로 하는 사회운동단체대회

18) 『동아일보』, 1925년 10월 28일, 「江原靑聯 鐵原서 發起」.

19) 『조선일보』, 1925년 12월 2일, 「九個團體가 모여 江原道聯盟創立」.

20) 『동아일보』, 1926년 2월 26일, 「江原靑年同盟常務委員會」. 1927년 2월 23일, 「靑總問題討議, 春靑執行委員會」.

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29일에 춘천청년회를 비롯하여 울진정진회(蔚珍正進會)철원청년회고성변성청년회(高城邊城靑年會)양양동화청년회(襄陽同化靑年會)원주청년회삼척전진회(三陟前進會) 등 7개 단체가 발기하여, 전강원도사회운동단체대회(全江原道社會運動團體大會)의 개최를 결정하고, 임시사무소를 춘천청년회 안에 설치하였다.

7월 11일부터 2일간 전강원도사회운동단체대회가 춘천기독교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여 개 단체에서 40여명의 대의원이 참가하여 조직교육경제사회정치당면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토의하였다. 조직문제로는 청년형평(衡平)노동여성소년운동에 관한 것, 교육문제로는 조선인 교육무산아동(無産兒童) 교육남녀평등 교육 등이 논의되었다. 당면문제로는 사회운동의 방향전환 등의 문제가, 경제문제로는 노동임금 제정8시간노동제 실시소작제도 개선마름(舍音)제도 철폐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사회문제로는 이류단체(異類團體) 박멸인신매매 금지 등이, 정치문제로는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동양척식회사 및 지방 금융기관의 배척민족단일당 조직수리조합 등의 문제가 토의되었다.<sup>21)</sup>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에 관한 건은 1926년 11월 15일 정우회선언(政友會宣言) 이후 사회주의 세력이 정치운동을 지향한다는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정우회선언은 1, 2차의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에 따른 사회운동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조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분파투쟁의 청산과 사상단체의 통일을 주장하고, 둘째 대중의 무지와 자연성장성의 퇴치를 위하여 조직 및 교육운동을 제기하고, 셋째 종래의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사회주의세력에 의하여 지나치게 타

21) 『동아일보』, 1927년 6월 5일, 「七個團體聯合發起로 江原社會團體大會」. 7월 20일, 「四十餘 代議員으로 兩日間 繼續開會」.

협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방향전환론은 대세가 되고, 강원도사회운동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sup>22)</sup>

경제 분야에서 노동문제와 소작문제는 식민지정책의 모순에 대한 정면적인 저항이었다. 일제가 표방한 문화정치의 모순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전강원도사회운동단체에서도 제기되었다. 사회운동단체대회는 방향전환론에 입각하여 신간회(新幹會)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현존의 모든 결사단체가 신간회에 그대로 가입하기로 결의한 후에 해산하였다.<sup>23)</sup>

강원청년연맹은 근본적으로 조직을 변혁하고 방향을 전 민족적 정치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혁신대회를 준비하였다. 8월 10일에 혁신대회준비위원회는 강원청년연맹은 일부 단체의 ‘국부적’ 연합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혁신대회를 통하여 “도내 청년단체의 통일을 기하고 아울러 맑스주의적 중앙집권조직 하에 전 민족 청년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sup>24)</sup>

춘천청년회는 혁신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10여 명을 새로 가입시키고 위원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선언강령규약의 개정, 회원정리, 강원청년연맹대회 개최, 신간회지회 설치, 교양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를 분담하고 혁신총회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를 가결하였다.

또한 춘천청년회는 8월 22일에 이광(李珩)심은숙(沈恩淑) 등을 초청하여 추기강연회(秋期講演會)를 개최하는 한편, 강원청년연맹

22)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3, 4~16쪽.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232쪽.

23) 朝鮮總督府 警務局, 『朝鮮の治安狀況』, 1927, 146~147쪽.

24) 『동아일보』, 1927년 8월 12일. 「江原靑年聯盟 革新大會 開催」.

의 혁신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여, 염경환박순택이 그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강원청년연맹의 혁신대회는 9월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강릉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신입위원의 선거와 규약의 통과, 군동맹 기준규약을 제정하였다. 둘째 날은 3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주제를 토론하였다. 1부에서는 세포단체 조직 및 정리, 조직청년의 조련교양, 미조직청년의 교양 등 청년운동이 토론되었고, 2부에서는 노농형평소년여성운동 등이, 제3부에서는 민족단일당 결성 촉진, 신간회 지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건 등 주로 정치문제에 대해 폭넓게 토의하였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도일(渡日) 조선인노동자, 조선공산당 공판, 교육제도 등에 관한 토의가 벌어졌다.<sup>25)</sup>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간섭하여 주의중지금지 등의 조치를 수시로 내렸다. 1927년 9월 12일에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 오가와(大川立北, 교무주임)를 배척하기 위해 전개했던 동맹휴학에 관한 토의 등이 중지되었다.

10월 1일에 강원청년연맹은 집행위원회를 열어 혁신대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혁신대회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영동영북영서에 순회강연대를 파견하였다. 춘천청년회에서 10월 11일에 제2회 집행위원회를 열어 군청년연맹 조직, 임시총회 소집, 신간회 발기의 건 등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할 방침을 토의하였다.<sup>26)</sup>

전강원도사회운동단체대회, 각 군 청년혁신총회, 강원청년동맹의

25) 『중외일보』, 1927년 8월 14일, 21일, 「江原靑聯革新 準備事項決議」.

『조선일보』, 1927년 10월 4일, 7일, 8일. 『東亞日報』, 1927년 8월 14일.

26) 『동아일보』, 1927년 10월 7일, 「禁止, 中止에 中 各代議員 열화」. 16일, 「春川靑年委員會」.

혁신대회 등을 거치면서 도내 각 지역의 항일운동은 신간회를 적극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10월에 원주에서 신간회 지회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양양강릉울진고성이천삼척양구 등에서 차례로 신간회지회가 설립되었다.

춘천청년회에서도 신간회 지회의 설립문제를 수차 논의하였다. 혁신총회 이후 집행위원회에서 지부설치 준비에 관하여 유의동지(有意同志)에 교섭하여 연합 발기할 것과, 발기선언서를 작성 배포하는 동시에 각 노동계급을 망라하여 가입원서를 받아서 8월 25일에 창립준비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sup>27)</sup>

신간회 춘천지회는 1929년 5월 이전에 설립되어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929년 말까지 존재하였다. 춘천청년회 출신의 염경환이 신간회 춘천지회의 간사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지회의 설립 시기, 부서 및 간부진, 활동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염경환을 비롯한 춘천청년회의 주요 인물들이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1929년 2월경에 검거되었기 때문에, 그 후 신간회 춘천지회의 활동도 미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8)</sup>

### 3. 강원청년연맹의 해소

1925년 8월 15일에 조직된 춘천청년회 등 강원지방 군(郡)연맹의 청년단체들의 통합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25년 11월 25일에

27) 『중외일보』, 1927년 8월 14일, 「當面問題 可決, 革新後의 春靑」. 신간회 춘천지회의 설립 시기는 분명치 않다(정병배, 앞의 글, 21쪽).

28) 『동아일보』, 1929년 9월 12일, 「朝共 北滿總局秘書朴有德 外 7名 起訴」. 朝鮮總督府 警務局,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69쪽.  
朴慶植 편, 『朝鮮問題資料叢書』 6, 180쪽.



강원청년연맹(江原靑年聯盟)이 조직되었다. 춘천청년회 염경환이 간부로 임명되어 적극 활동하는 등 강원 청년운동은 1927년에 이르러 자못 활발하였다. 사회주의세력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강원청년연맹도 이에 부응하여 혁신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신간회 지부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도내 각지에는 신간회 지부가 설립되었다.

강원청년연맹은 1927년 이후 신간회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청년동맹이 1931년 초부터 우경화(右傾化) 되어가자, 각 지방단체들이 반발하여 조선청년동맹의 해소를 제창하였다.

강원지방 단체들도 조선청년동맹의 우경화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강원청년연맹은 1930년 11월 10일에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선청년동맹의 위원을 선거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결의하였다.<sup>29)</sup> 조선청년동맹 지도부의 우익전향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자, 강원청년연맹도 조선청년동맹의 해소를 제창하였다.

1931년 2월 12일에 삼척청년동맹이 해소문제를 논의한 것을 필두로, 3월 16일 양양청년동맹, 3월 20일 강릉청년동맹 등이 집행위원회를 열어 해소를 결의하고 구체적 방법은 정기대회에서 협의하기로 정하였다.<sup>30)</sup> 강원청년연맹도 3월 30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청년동맹의 해소를 결의하였다.

조선청년동맹은 1931년부터 실질적인 해소과정에 들어갔다. 각 지방의 청년단체도 자진 해소되어 갔다. 강원청년연맹에서도 해소에 대한 이론의 확립과 전선(戰線)의 통일, 그리고 해소 이후의 운

29) 『동아일보』, 1930년 12월 7일, 「靑總懇談會의 權限, 委員選舉에 反對」.

30) 김정숙, 「1920~1930년대 영동지역 사회운동」, 『역사와 현실』 9, 1993, 287~302쪽. 『朝鮮問題資料叢書』 6, 447~448쪽.

동 방침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연합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끝내 해소되었다.<sup>31)</sup>

## IV. 신간회 운동

### 1. 협동전선운동의 배경

31운동 후 민족운동은, 그 일부가 일본의 민족분열정책과 연결되어 타협주의 노선으로 선회하였고, 한편에서는 국내외에 사회주의운동이 확대되면서, 전선의 분열상이 나타났다. 또한 국민대표회(國民代表會)의 실패 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운동이 침체되고 전체 민족운동전선이 분산되어갔다. 따라서 192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민족운동전선에는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었다.<sup>32)</sup>

이러한 방법론 모색은 국외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 수립운동의 범주를 넘어 ‘이당치국(以黨治國)’원리에 입각한 민족유일당운동(民族唯一黨運動) 또는 대독립당운동(大獨立黨運動)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 중반부터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되자, 이에 대신할 민족운동 총지휘부로서 민족유일당을 건설해서 민족독립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흩어진 민족운동전선을

31) 『동아일보』, 1931년 4월 10일, 「江原靑聯에서靑總解消決議」. 12일, 「江原道社會團體聯合懇親會 開催」.

32) 姜萬吉, 앞의 책, 80~82쪽.

결속하고, 갈라진 좌우익(左右翼) 전선을 통일하여 민족운동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민족운동이 임시정부 수립운동 단계에서 정당운동의 단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의 민족운동의 경우, 1920년대 전반기에 중국 관내(關內) 지역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임시정부 운동과의 일정한 관계 아래 진행된 무장투쟁과 그것에 뒤를 이는 3부(府) 성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기에는 노령 연해주와 중국 관내지역에서 통일전선운동으로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주지방의 3부 통일운동과 좌우익전선 통일운동이 나타났다.

국내 민족운동에서는 1923년에 지주자본가 및 일부 지식인의 주도로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과 민립대학설립운동(民立大學設立運動)이 일어났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이 해에 이광수(李光洙)의 「민족적 경륜(民族的 經綸)」 등이 발표되면서 민족진영의 일부가 타협주의 노선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사상이 들어오고 있었다. 특히 「민족적 경륜」 발표는 우익진영을 타협주의적 민족주의세력과 비타협주의세력으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또 비타협적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타협주의에 대항하면서 민족협동전선론(民族協同戰線論)을 펴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주의 단체인 북풍회(北風會)는 1924년에 그 강령에서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병행에 대한 시간적 합동”을 내세웠으며, 민족주의자들도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은 “본질상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분리는 해방 후에야 맞게 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1925년 일제의 치안유지법 실시로 민족협동전선에 대한 요구는 한층 더 높아졌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25년에 조선사정연구회(朝

鮮事情研究會)가 조직되어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더해갔다. 같은 해에 결성된 조선공산당도 “일본제국주의 통치의 완전한 타도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당면문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모든 역량을 모아 민족유일당전선을 만들어 적에게 완전한 공격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26년 1월에 결성된 정우회(政友會)도 8월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의 제휴에 의한 민족협동전선의 건설을 주장하는 「정우회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조선공산당의 제13회 중앙집행위원회도 1926년 2월에 “민족공산 양 운동자를 통일하기 위한 국민당(國民黨) 조직의 전제로서 천도교를 기초로 할 것”을 결의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접촉했다. 그러나 협동전선운동이 최 린 등 타협적 천도교세력 중심으로 될 것을 우려하여 중지했다.

국내에서의 민족협동전선 결성을 위한 움직임과 국외 민족유일당운동의 영향, 코민테른의 노선변화 등이 배경이 되어, 서울청년회계의 사회주의자들과 조선물산장려회계의 민족주의자들이 제휴했다. 종교계교육계와 국외에서 귀국한 일부 민족운동 세력이 참여한 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가 1926년 7월에 성립됨으로써 한정된 규모의 민족협동전선이 성립되고, 민흥회 회원 전원이 무조건 신간회에 참가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민족협동전선 성립을 선도하였다.

## 2. 국외에서의 민족유일당운동

민족운동전선을 통일하려는 국외 민족유일당운동의 선구적 조직은 1926년 3월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된 민족당주비

회(民族黨籌備會)였다.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의 중추적 인물이었던 최고려(崔高麗)김석하(金錫夏) 등이 상해 임정의 창조파계 및 국내 사회주의운동의 서울계 등과 제휴하고,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아 조직한 민족당주비회는 그 회원이 “서울에 잠입하여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에 대해 입회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흥회의 성립과도 연결되었다.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비교적 일찍 일어난 곳은 북경이었다. 장건상(張建相)원세훈(元世勳)조성환(曹成煥) 등을 중심으로 1926년 10월에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韓國獨立唯一黨北京促成會)가 조직되었다. 북경축성회는 일본제국주의 박멸, 한국의 절대 독립을 조장, 민족혁명의 유일전선을 구성, 전 세계 피압박 민중의 단결 등을 주장하였다. 북경축성회 성립을 계기로 중국 관내 민족유일당운동은 곧 상해남경(南京)무한(武漢)광둥(廣東) 등지로 확대되어 각 지방에서 유일당축성회가 조직되었다.

만주에서는 정의부참의부신민부를 비롯한 각 민족운동단체의 통합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1928년에 18개 독립운동단체의 대표 39명이 모여 유일당 축성문제를 토의했으나, 바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선 북만청년총동맹남만청년총동맹재만농민동맹 등을 중심으로 전민족유일당조직축성회와, 정의부다물단(多勿團)북만조선인청년총동맹남만청년동맹 등이 참가하고, 참의부(參義府)와 신민부(新民府)가 동의한 전민족유일당조직협의회(全民族唯一黨組織協議會)의 두 단체로 일단 통일되었다.

이후 정의부가 참의부신민부와 의 통합운동을 전개했으나, 완전 통합에는 실패했다. 정의부가 신민부의 민정파와 참의부의 일부 세력을 합쳐 1929년에 국민부(國民府)를 조직하면서 정의신민참의부는 해체되었다. 또한 축성회측은 신민부와 정의부의 일부,

신민부 군정파가 중심이 되어 민족유일당재만족진회(民族唯一黨在滿策進會, 일명 혁신의회)를 만들어 국민부 측과 양립하였다.<sup>33)</sup>

중국 관내와 만주의 사회주의 계열도 민족유일당운동에 적극 참가했다. 중국 관내지방에 난립되어 있던 재중국본부청년동맹(在中國本部青年同盟) 등 8개의 청년단체가 연합하여 1928년에 재중국 한인청년동맹(在中國韓人青年同盟)을 결성하고, 민족유일당운동에 참가하기로 하고 신민부 군정파에 가담하여 혁신의회의 일원이 되었다. 또 남만청년동맹 등 6개의 청년동맹이 합쳐 1929년에 남만 한인청년총동맹(南滿韓人青年總同盟)을 결성하여 협의회 계통의 국민부를 지지하였다.

결국 1920년대 전반기 만주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중심단체이던 정의신민참의 3부가 1920년대 후반기에는 국민부와 혁신의회의 두 세력으로 개편되었을 뿐 완전한 통일전선을 이루지는 못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 혁신의회 계통은 김좌진(金佐鎭) 중심의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를 구성했다. 그러나 김좌진이 암살된 후에는 홍진(洪震)이청천(李青天) 등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 한국독립당은 지방주민회의 연합체로서 한족자치연합회(韓族自治聯合會)를 성립시켜 지도하는 한편, 군사조직으로 한국독립당군을 조직해 군사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독립당군은 북동만주를 중심으로 활약하다가, 1933년경 중국 관내로 옮겨갔다.

국민부 계통은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과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했다. 조선혁명당은 국민부를 행정기관으로 하고 조선혁명군을 통해 군사 활동을 전개했다. 1930년대 전반기에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서봉(梁瑞奉)이 이끄는 1만여 명의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만연합군(日滿聯合軍)과

33) 尹炳奭, 「1928~9年の 正義參議新民府의 統合運動」, 『史學研究』 21, 韓國史學會, 1969.

정규전을 벌였다. 양서봉 사망 후 고이허(高而虛)가 조선혁명군정부를 조직하고, 중국의 반만항일군(反滿抗日軍)과 함께 한중항일동맹회(韓中抗日同盟會)를 조직하여 1936년경까지 활약하였다.<sup>34)</sup>

상해 임시정부가 민족해방운동전선 전체를 통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후, 1920년대 후반기에는 민족유일당 결성이 전체 민족해방운동전선을 통해 최대 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운동이 극복하지 못했던 지방색과벌의식방법론적 대립사상적 대립을 극복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국외 전선의 민족유일당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3. 신간회 운동

국외에서의 민족유일당운동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개된 신간회 운동은 1920년대 후반기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대표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신간회 운동은 1920년대 후반기 민족운동의 방향성을 대표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신간회는 언론계, 기독교천도교불교 등의 종교계, 그리고 공산당 등의 비타협주의적 좌우익 대표 28명의 발기에 의해 1927년 2월 5일에 결성되었다. 이상재(李商在)를 회장, 홍명희(洪命憲)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신간회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강령을 내세우고, 자치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반대하였다. 합법단체인 신간회는 한인에 대한 착취기관 철폐, 일본인의 한국이민 반대,

34) 丁原鈺, 「在滿 抗日獨立運動團體의 全民族唯一黨運動」, 『白山學報』19, 1975.

35) 宋建鎬, 「新幹會運動」, 『韓國近代史論』II, 知識産業社, 1977.

水野直樹, 「新幹會運動에 關한 若干의 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4, 1977.

타협적 정치운동 배격, 식민지 교육정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노동과업소작쟁의동맹휴학 등을 지도했다.

초기의 신간회는 개인본위 조직이었으나, 조선노동총동맹조선청년총동맹 등이 적극 참가함으로써, 회원과 지회가 급속히 증가 확대되었다. 1927년 말에는 국내와 일본의 동경지회대판지회 등을 포함하여 총 104개 지회가 결성되고 회원은 창립 1주년 때 2만 명이었다. 이후 149개로 늘어났다가 해소될 때는 124개 정도로 지회 수는 줄었으나, 회원은 약 4만 명에 이르렀다. 신간회의 중앙조직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세력이 우세하고, 지회 조직은 사회주의세력이 우세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정기대회를 개최할 수 없자, 각 지방마다 인접한 몇 개의 지회가 합동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정기대회를 대신하는 북대표대회(復代表大會)를 열어 1929년 6월에 ‘신간회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간사제를 중앙집행위원제로 바꾸고, 지회의 권한을 확장하여 본부에 대한 견제력이 강화되었다. 도연합회가 설치되고, 지회조직을 분회(分會)로 세분하여 직업별지역별 조직을 구축하여, 신간회가 아래로부터의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게 되었다.

1929년 6월 28, 29일 이틀 동안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북대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강원지방 대표로 양양의 김병환(金炳煥)이 참석하였다. 북대표대회에서 허헌(許憲)이 집행위원장으로 당선되고, 홍명희 등 56명의 중앙집행위원, 조병옥(趙炳玉) 등 8명의 중앙집행위원 후보, 권동진 등 13명의 중앙검사위원이 당선되었다. 김병환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sup>36)</sup>

재편된 신간회는 본부 간부진에도 사회주의자들이 크게 진출했

36) 金俊燁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3, 58쪽.



다. 조선공산당 재건을 당면 임무로 삼은 사회주의 진영은 신간회 지회 회원을 적극적으로 재건운동에 끌어들이면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1929년 7월부터는 일제와의 투쟁방침을 결의 확정하고, 회보 발행, 지회 활동의 활성화, 재정 확립, 지방 순회 등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사단을 광주에 파견했다. ‘광주학생사건보고 대연설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금지되자, 학생운동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천도교기독교불교 세력 및 조선청년총동맹조선노동총동맹근우회 등과 제휴하여 1929년 12월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하였다. 그러나 집행위원장 허헌을 비롯한 90여 명이 체포되어 중단되고 말았다.

타격을 받은 신간회를 김병로(金炳魯)가 본부의 재정을 전담하면서 이끌어나갔다. 그러나 점점 우경화(右傾化) 타협화하여, 1930년 후반부터 신간회 본부는 온건노선을 견지하였다. 신간회는 천도교의 최 린 중심의 세력이 주장하는 자치운동과 협력하여 합법운동을 주장하게 되었다. 또 사회민주주의적 이론을 확립하여 합법운동으로 전환하려는 조선청년총동맹과 제휴하였다. 이러한 신간회 본부의 합법노선으로의 전환은 사회주의세력이 우세했던 각 지회에서 해소론이 대두되는 원인이 되었다.

1930년 12월에 부산지회가 처음으로 해소론을 제기한 후, 이원(利原)평양경서(京西)인 찬단천(端川)홍원(洪原)성진(城津)칠곡(漆谷)서울 지회 등이 잇따라 해소를 결의하였다. 신간회를 해소시켜야 할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었다. 첫째, 신간회의 근본정신인 비타협주의를 무시하고 지도부가 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타협주의화와 민족개량주의의 발호가 지적되었

다. 둘째, 신간회의 조직형태가 정당적 형태로 되어 있어, 적극적 투쟁도 하지 못하고 노동대중의 투쟁의욕을 말살하여 계급적 대신출을 방해하는 데 이르렀다고 하였다. 셋째, 신간회의 강령이 추상적이며 구체적 운동지침이 없으므로, 오히려 투쟁의식을 말살할 뿐이라는 것이다. 넷째, 세계공황과 일본의 만주문제 개입 등의 객관적 정세변화에 따르는 주체적 조응조건(照應條件) 즉 노동대중의 전투화혁명화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즈음 국제공산주의 쪽의 신간회에 대한 성격규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즉, 1930년 9월에 프로핀테른의 '9월테제'에서 신간회를 민족개량주의 단체로 규정하였다. 신간회 운동에 참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조선의 운동은 양대 진영 병렬협동이 가장 동지적 지속을 하여야 할 정세에 있고, 둘이서 서로 대립 배격할 정세를 가지지 않았다” 하여 해소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1931년 5월에 열린 전체대회에서 해소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해소안이 가결되어, 신간회는 해소되었다.

신간회 운동은 1920년대 후반기의 국내와 일본에서의 민족운동을 주도하면서 폭넓은 민중운동으로 뿌리내려갔다. 그러나 일본이 교묘하고도 끈질긴 탄압을 가하여 중앙본부의 활동을 철저히 제한하고, 전국의 지회에 대해 해체공작을 벌여나갔고, 좌익세력이 우세했던 지회에서 본부 지도층의 우경화타협주의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소론이 일어났으며, 1930년 코민테른의 신간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해소의 원인이 되었다.

#### 4. 강원지역의 신간회 운동

1920년대 강원 영서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은 춘천청년회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춘천청년회는 1925년 조직되어 신간회가 설립되던 1927년에 그 활동이 활발하였다. 당시 신간회의 조직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춘천지역의 청년운동 역시 신간회 지회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신간회 춘천지회 간사로 활동한 염경환(廉經煥)은 1920년대 춘천지역 청년운동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춘천청년회의 창립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1927년 강원청년연맹이 혁신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간부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된 이래, 일제의 탄압으로 지도부가 검거되어 4차에 걸쳐 당을 개편하였다. 제4차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되자, 1927년 3월에 강원도에도 도 기관이 조직되어, 조선공산당 강원도 책임비서에 함연호(咸演浩), 위원에 한명찬(韓明燦)정의식(鄭宜植)이 임명되고, 고려공산청년회에 한명찬이 임명되었다. 1928년 2월 전국당대회 이후 조선공산당 강원도 책임비서에 함연호, 위원에 정의식이 임명되고,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에 정의식, 위원에는 염경환과 김필선(金弼善)이 함께 임명되었다.<sup>37)</sup>

그러나 제4차 조선공산당은 1928년 7월부터 시작된 검거로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춘천지역의 사회주의운동도 염경환 등 핵심인물들이 검거되어 일대 타격을 받았다. 1929년 3월 화천등지에서 31운동 10주년을 기하여 격문을 뿌리던 조선공산당 북만주총국(北滿洲總局) 비서 박유덕(朴有德)이 체포됨으로써, 그와

37) 姜德相樞村秀樹, 『現代史資料』 29, 109~110쪽.

연계된 춘천화천지역의 청년회 핵심 활동가인 엄경환박순택(朴順澤)장창화(張昌華) 등 30여 명이 일경에 체포되었던 것이다.<sup>38)</sup>

춘천경찰서 순사였던 박유덕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체포된 사람들을 탈출하게 하고, 자신은 만주로 가서 활동하였다. 그는 고려공산당원이며 제3국제공산당원인 박원서(朴元瑞)와 연락하여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을 설치하고, 중앙집행위원 겸 북만주 책임비서로 활동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조선공산당 검거사건 이후 국내정세의 파악과 파벌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28년 가을경에 국내로 들어와 10월경에 춘천청년회 관계자들과 연락하여, 각 마을에 소비조합 형식의 기관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사상을 선전할 계획으로 활동하였다.<sup>39)</sup> 그는 화천의 사립 광동학교(光東學校)의 교사 김영래(金泳來) 등 화천지역 운동가들과도 연계를 맺고 있었다.

검거된 피의자 30여 명 중 민정삼(閔正三) 등 15명은 불기소로, 신채봉(申采鳳) 등 2명은 기소중지로 각각 석방되고, 박달현(朴達鉉) 등 6명은 면소되었다. 기소된 8명 가운데 박유덕은 징역 5년, 엄경환박순택장창화 등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고, 김필선김영래김병규김두현 등은 무죄로 석방되었다.<sup>40)</sup>

엄경환 등이 출옥한 1931년 1월에는 이미 신간회와 조선청년동맹의 해소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강원청년연맹과 각 군 연맹들도 사실상 해소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원청년연맹의 해소 이후 사회주의 청년운동은 지역전위 조직을 중심으로 적색농민조합적색

38) 『동아일보』, 1929년 9월 12일, 「朝共北滿總局秘書 朴有德外七名 起訴」.

39) 『동아일보』, 1930년 3월 28일, 「江原道 共產黨 朴有德 等 公判」.

40) 『동아일보』, 1929년 9월 12일, 「朝共北滿總局秘書 朴有德外七名 起訴」. 1930년 12월 19일, 「朴有德五年, 其他 被告는 各一年役」. 12월 25일, 「朴有德五年, 其他被告는 各一年役」.

노동조합 등을 조직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강릉고성삼척 양양울진 등 영서지방에서 전개된 혁명적 농조운동이 그 예이다.

그러나 영서지역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1920년대 춘천지역의 청년운동을 주도했던 춘천청년회는 염경환 등 핵심인물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나, 영서지방은 사회주의 운동의 지역적대중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염경환 등 핵심인물들이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그 여파는 1930년대까지 미치고 있었다.<sup>41)</sup>

## V. 근우회 운동

### 1. 1920년대의 여성운동

31운동 이후 여성운동은 다양한 발전적 변화를 보였다. 근대적인 의미의 여성운동은 31운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 여성들이 사회적국가적 책임감과 권리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침략, 국권의 상실이라는 민족의 비극 앞에 여성들은 한낱 여성이기에 앞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구국투쟁의 길에 뛰어 들었다.

1919~20년에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다수의 여성 단체가 비밀리에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31운동 직후 제일 먼저 탄생된 것은 정신여학교(眞信女學校) 출신으로 현직 교사로 근무하던

---

41) 鄭秉培, 앞의 글, 26~34쪽.

오현주(吳玄州)장선희(張善禧)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이었다. 이회는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피체된 애국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구제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 기독교 사상이 투철한 김원경(金元慶)최숙자(崔淑子) 등이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중국 상해에서 민족지도자들이 임시정부 수립을 앞두고 국내 여성 대표의 파견을 요청하자, 혈성단애국부인회와 협의하여 김원경을 상해로 파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두 단체의 통합 기운이 조성되어, 6월에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가 결성되었다.

전 여성의 대표기관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는 총재부 총재, 회장부회장평의원서가지방통신원해외통신원 등을 선임하고, 지방 조직을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다.

1919년 6월 평양에서도 북장로파 부인 신도 한영신(韓永信)이 김보원(金寶源)김용복(金用福) 등을 포섭하여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박승일(朴昇一)이성실(李誠實) 등이 임시정부 후원을 목적으로 또 다른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이 무렵 진남포강서(江西) 등 주요 지방에도 같은 목적을 가진 여성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에 임시정부는 평양의 두 단체의 통합을 권유, 11월에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다.

1919년 서울과 평양의 애국부인회 이외에도 대한부인청년단부인관찰단결백단 등이 조직되어 여성의 실력향상을 위한 계몽적인 여성교육운동을 전개하고, 민족자립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였다.<sup>42)</sup>

42) 朴容玉, 「權友會의 女性運動과 民族運動」, 『韓國近代民族主義運動史研究』, 1987, 237~238쪽.

계몽적 여성교육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1920년 4월에 조선여자교육협회가 조직되었다. 1921~22년에는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여자고학생상조화조선여자청년화불교여자청년화내수단(內修團)반도여자청년회 등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

1920~23년에 걸쳐 전개된 여성운동은 주로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에서 전개되었다. 기독교계열 중심의 여성운동의 확대는 이를 결집할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3년 8월 18일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가 창립되어 여성운동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민족자립경제를 이룩할 목적으로 만든 여성단체로는 1923년 6월에 설립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朝鮮女子基督節制會)가 대표적이었다. 여자기독교절제회는 설립 3주년 만에 3천여 회원과 60여 개의 지방지회를 갖는 큰 규모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은 6개월 전부터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의 절제검약정신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1923년 2월에 최영아(崔永牙)박영자(朴英子) 등 중류 이상 부인 50여 명이 조직한 토산애용부인회(土產愛用婦人會)도 부인들이 솔선하여 토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이후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며 활동하였다. 첫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교육운동이 활발하여졌다. 그 결과 경성여자미술연구회조선여자직업조합과 같은 전문직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 둘째, 여성노동자 증가와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으로 여공(女工) 단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원산여자노우회(元山女子勞友會)부산여공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사회주의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는 1924년 5월에 조직된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이었다. 허정숙(許貞淑)정중명(鄭鍾鳴)김필애(金弼愛)

정칠성(丁七星)지성신(池貞信)주세죽(朱世竹)심은숙(沈恩淑) 등이 중심인물이며, 이들은 뒷날 근우회 운동에 대거 참여하였다.

1925년 1월에는 박정덕(朴貞德)정달악(鄭達岳)한동죽(韓東竹) 조보희(趙寶嬉)김은곡(金隱谷)허정숙(許正淑)김필순(金弼順)주세죽 외 7명이 계급해방을 표방하며 경성여자청년동맹 발기회를 구성하고 21일에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2월에는 박원희(朴元熙)이정숙(李貞淑)김숙정(金淑貞)박숙자(朴淑子)박춘자(朴春子)문정애(文貞愛) 등이 서울청년회의 지원 아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경성여자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사회주의 계열의 두 여성단체가 결성되어, 상호 대립되며 여성운동계의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하여 파장이 많았다. 조선여자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은 같은 회관에 자리 잡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급의식 각성을 위하여 맹렬한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자체의 교양과 훈련을 위하여 힘썼다.

지방에도 역시 유사한 단체들이 속출하였다. 해주신흥여성동우회암태(岩泰)부인화안동여성화금릉(金陵)여성화길주신진(吉州新進)여자회인천여자청년동맹, 진주진해제주 등의 여자청년회 등이 그것이다.

## 2. 근우회 창립

1920년대의 항일독립운동은 민족주의적 성향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양분되어 전개되었다. 국내외에서 분열된 항일민족운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강력한 민족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족유일당운동이 192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민족유일당운동은 여성운동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1926년 12월 5일에 경성여자청년동맹과 경성여자청년회 사이의 반목이 해소되고 두 단체가 통합하여 중앙여자청년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여성운동계의 파장이 종식되었다.

그리고 홍(洪)에스터김활란(金活蘭)방신영(方信榮) 등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 계열의 여성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정종명황신덕(黃信德) 등이 참가하여 직업여성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1926년 12월에 망월구락부(望月俱樂部)가 조직되었다.

1927년 2월 15일에 신간회가 창립되자, 여성운동계에서도 영향을 받아 여성운동단체의 통합론이 제기되어, 근우회(權友會)가 조직되었다. 근우회의 창립에는 망월구락부와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망월구락부는 기독교계의 여성들과 사회주의계 여성들이 참여한 단체로 두 계열의 여성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1927년 2월 14일에 조직된 재경동경유학생친목회(在京東京留學生親睦會)는 근우회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동경유학생친목회는 범여성적인 전국적 여성기관을 조직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유영준(劉英俊)양매윤(梁邁倫)이효덕(李孝德)이덕휘(李德輝)김일엽(金一葉)유각경(兪珏卿) 등 각 방면의 유력한 여성지도자 12명을 준비위원으로 선출, 근우회의 창립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1927년 4월 26일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의 명칭을 '근우회'로 결정하고, 5월 27일 YWCA강당에서 유각경의 사회로 근우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김활란(金活蘭)을 회장, 유각경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21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였다. 집행위원의 구성을 보면, 김활란유각경홍에스터 등 6명은 우파적 기독교계열이고, 이현경(李

賢卿)정칠성(丁七星)황신덕(黃信德) 등 8명은 좌파적 사회주의계열이었다. 이로써 기독교계의 우파적 민족주의계 여성운동과 좌파적 사회주의계 여성운동과의 연합전선인 근우회가 창립되었다.

근우회는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향상을 강령으로 하고, 운동 목표는 여성 자신의 해방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여성의 교양 제고운동과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닌 여성단체가 근우회였다.

1920년대의 여성운동은 사회적으로는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여성내부에서는 지배적인 남성사회에 도전하여 부인해방을 주장하는 계몽운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주의계열의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와는 서로 이념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민족독립운동이라는 명제에서는 합일되었다.

근우회의 강령은 ① 조선여자의 견고한 단결을 도모, ② 조선여자의 지위향상 도모, 즉 조선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구체적 행동강령으로,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철폐, ② 일체의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③ 조혼폐지 및 결혼의 자유, ④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 ⑤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옹호, ⑥ 부인노동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지불, ⑦ 부인 및 소년층의 위험노동 및 야업폐지 등 7개항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근우회의 창립 이념인 전여성의 '단결'을 전제로 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근우회의 활동은 여성교양제고운동과 항일민족운동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교양을 높이기 위한 운동은 이전에 기독교계 여성단체나 지방여자청년회 등에서 주로 행하던 문맹퇴치운동 및 생활개선운동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그것은 무학자(無學

者)를 대상으로 한 종래의 여성계몽적 운동이 아니라, 근우회 이념을 대중여성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하였다.

근우회는 창립 초기부터 민족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맹휴운동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행하고, 광주학생운동에 대하여도 이 운동을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확산시키려 노력하였다. 둘째, 한민족에 대한 일본인의 멸시와 학대에 대한 조사를 행하고, 셋째는 여공의 파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담당하였다.

근우회는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했다. 근우회는 1927년 창립 이후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전국 각지와 일본 만주 등 국외에 약 60여 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었다. 각 지회에서는 ① 강연회토론회 주최, ② 야유회체육대회웃놀이 개최, ③ 기술강습회를 실시하여 여성의 단결과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사상적인 대립과 불화로 신간회가 해체되자, 근우회도 해산되는 운명에 처하였다. 여기에 일제의 여성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근우회는 1931년에 해산되고 말았다.<sup>43)</sup>

### 3. 강원지방 근우회지회의 조직과 활동

강원도에서는 1928년 4월 3일에 근우회 춘천지회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7월 26일에 강릉지회가 조직되고, 고성 등에도 근우회 지회가 조직되어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였다.<sup>44)</sup>

43) 申載洪, 『抗日獨立運動史研究』, 신서원, 1999, 346~357쪽.

44) 이구용, 「근우회와 강원여성」, 『강원도여성사』, 강원도, 1996, 350~354쪽.

강원도에서 근우회가 전개한 대표적 활동으로는 1927년 6월의 철원(鐵原) 사건과 1928년 1월에 발생한 고성(高城)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철원사건은 1927년 6월 26일 일본인의 과수원에 들어가 오디를 따먹은 8세 여아 오순덕을 과수원 주인이 붙들어 넓적다리의 살을 도려낸 악독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 철원군민들은 격분하여 군민성토탈회를 개최하였으나, 경찰의 금지령으로 중단되었다. 근우회에서는 이 사건을 항일민족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927년 7월 1일 정기집행위원회에 토의 의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에 의하여 금지 명령을 받았다.

1928년 1월에 발생한 고성(高城)사건에 대하여, 근우회가 전개한 항일민족운동이 그 실례가 되겠다.<sup>45)</sup>

근우회 춘천지회는 1928년 4월 3일 조직되었다. 집행위원장에 김일진(金一鎭), 재무부에는 서영숙(徐英淑)·여홍순(呂洪順), 교양부에 김영숙(金英淑)·장경수(張敬壽), 선전부에 김진수(金振壽)·김경희(金瓊熙), 조사부에 이종숙(李鍾淑)·손시인(孫是仁), 상무위원에 김일진·서영숙·김영숙·김영숙·김진수·이종숙 등이었다.

춘천지회가 조직된 날에 회원 교양, 문맹 퇴치, 사회경제 조사, 현 조선 교육제도 개선, 여권 옹호, 인신매매 철폐, 회관 설치 및 회비 등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후 근우회 춘천지회는 중앙본부의 강령과 사업을 실천에 옮겨갔다.

근우회 춘천지회는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중요사업은 강연회토론회를 통한 여성의 지위 향상, 야유회체육대회웃놀이 등을 통해 여성의 단결 도모, 기술강습회 등을 통해 경제력 강화 및 생활개선 등을 도모하였다.

45) 『東亞日報』, 1927년 6월 2830일. 7월 3일, 1928년 2월 3일.  
 朴容玉, 「權友會의 女性運動과 民族運動」, 『韓國近代民族主義運動史研究』, 1987, 237~238쪽.

그러나 1931년 신간회의 해소와 더불어 근우회 중앙본부가 정식 해산도 없이 자연 소멸되자, 춘천지회도 역시 해소되고 말았다.<sup>46)</sup> 근우회가 해소된 것은 일제의 탄압, ‘코민테른’의 정책변경과 이에 동조한 사회주의계의 태도, 여성해방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성 자체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근우회는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좌우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범여성의 단일적 민족운동단체였다. 근우회는 봉격적 구습과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이중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여성전체의 단결과 지위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여성운동의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VI. 의열투쟁

### 1. 의열투쟁의 배경

의열투쟁(義烈鬪爭)은 의사와 열사의 투쟁을 말한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사적 기개로써 의로운 일의 실행에 용맹 과감하게 나섰던 독립운동가들을 의사(義士)라 하고, 대의를 좇아서 죽음의 길로 감연히 뛰어든 독립운동가들을 열사(烈士)라고 한다. 의사가 대체로 무기를 가지고서 대적거사를 벌였다면, 열사는 맨손의 항거나 자결로써 충절과 의분을 드러냈다. 그러나 의사나 열

---

46) 『東亞日報』, 1928년 4월 7일.

사는 모두 소아(小我)를 버리고 의를 취하며 자기희생을 마다않거나 자진해서 택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의열투쟁은 1894년 이래 반일 의병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05년 일제가 강제로 을사5조약을 체결케 하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들, 자결로써 일제 침략에 저항한 전현직 관료군인과 유생들, 을사오적과 침략원흉을 저격 응징한 여러 의사들의 거사는 모두 의열투쟁 이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자, 많은 재야 유생과 전직 관료, 그리고 백성들이 잇따라 자결로 항거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각종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제와 친일부역자들을 처단 응징하였다.

의열투쟁은 31운동 이후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다. 단발적일회적개인적 거사나 자결로써 의분을 표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방법을 버리고, 조직적계획적집단적연속적공격적 거사로써 투쟁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 거사의 규모도 커지고 수단이 다변화하며 내용이 풍성화 되었다.

거족적인 31운동이 실패하자, 다수의 독립운동가와 일반 대중은 비폭력 시위항쟁이 갖는 한계를 절감했다. 폭력수단을 총동원한 지속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다. 만주노령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독립성취의 첩경이라고 상정하고, 무장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 부대 조직에 주력하였다. 그들은 군사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강력한 폭력투쟁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였다. 1919년 3월에 국외 독립운동가 39인의 연명으로 길림(吉林)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는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6월에는 ‘작탄(炸彈)으로 구국의 책임을 부담’할 목적으로 구국모험단(救國冒險團)이 조직되어 폭탄제조법을 단원들

에게 교수하기 시작하였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도 1919년 4월 20일에 상해 공동조계에 폭탄제조 학습소를 비밀리에 설치하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였다. 9월에 한성정부(漢城政府) 및 노령 국민의회(國民議會)와 통합한 상해 임시정부는 보다 전투적인 방향으로 독립운동 노선을 강화하였다. 전쟁에 의해 일제를 격멸하는 것을 독립 성취의 최상위 전략으로 설정하고, 대일결전의 날까지 각 부문에서 민족역량을 증강시켜 가는 준비단계로 삼았다. 그리고 폭력과 비폭력, 무장과 비무장 수단을 두루 동원하는 복합전술로써 일제에 대항하기로 노선을 정하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 2월에 일제 요인을 섬멸하고 반민족분자를 응징할 것을 결의하고, 적괴(賊魁 : 조선총독 등 일제 고관, 헌병, 경관), 매국적(賣國賊), 창귀(佯鬼 : 고등 정탐, 형사), 친일 부호, 친일 관리, 불량배(애국의연금을 횡령한 자, 기밀 누설 또는 배반자),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 모반한 자 등을 죽여야 할 '7가살' 범주로 공표하였다. 5월에는 청년 감사대(敢死隊)와 작탄대를 조직하여 적괴 및 창귀 격살과 건물 파괴를 단행할 것을 언명하였다.

독립군 부대들의 병력과 장비는 일본 정규군에 비하여 열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충하면서 독립군의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의미에서 별동 조직의 기습공격과 같은 항전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열투쟁은 1920년대 초부터 독립운동 방략의 하나로 중요시되었다. 결사적 태세로 의열투쟁을 계속하면, 일제가 결국은 식민지 경영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군사조직에 의한 무력투쟁과 배합되어 전과를 상승시키며, 대중 봉기를 촉발하는 선동적 투쟁양식이라고 인식되었다. 소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기동

성과 집중성을 최대한 살려 저격과 파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군사행동 못지않은 위력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었다.

의열투쟁은 개인적인 결의와 준비로써, 또는 소집단 규모의 비밀결사나 큰 조직체의 하위 별도조직의 독자적 판단과 선택으로 목표와 행동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노출될 우려가 적고 조직이나 준비가 비교적 간단하였다.

## 2. 1920년대 전반의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31운동 이후 바로 나타났다. 서간도에서 구성된 27명의 결사대가 이 탁(李鐸)의 인솔로 1919년 2월말에 서울로 잠입하여, 고종의 장례일에 을사5적과 정미7적을 격살기로 하였다. 그러나 무기 도착이 늦어져 실행되지 못하고, 군자금 수합과 격문 부착 등의 활동을 하다가 대원 23명이 피체되었다. 신흥학교 학우단(學友團)이 9월에 요원을 국내에 밀파하여 암살폭파거사를 계획하였고, 유하현(柳河縣)에서 결성된 대한독립단도 10월에 국내에서 지하공작을 수행할 특파원을 잠입시켰다.

9월 2일에 65세의 노인 강우규(姜宇奎)는 남대문정거장에서 새로 부임하는 총독 사이토가 막 올라탄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수류탄이 빗나가 총독 폭살에는 실패했으나, 정무총감 등 총독부 요인 등 34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강우규의 의거는 국내외에서 의열지향적 비밀결사와 특종 단체들이 계속 결성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10월에 기독교 장로파 신도면서가교사 등이 한민회(韓民會)를 조직하여 관공리와 친일파를 암살하며 철도전신전



화 및 관공서 건물과 공장 등을 파괴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민회는 1920년 9월에 평남 영원군 온화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1919년 늦가을에 대한독립단이 특파한 김봉규(金琫奎) 등은 영원덕천맹산 등에 지단 조직을 마치고 진명단(盡命團)진충단의열단혈맹단 등의 명칭을 번갈아 써가며 게릴라 전법으로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습격파괴와 무기 탈취, 일경 사살, 공금수송대 습격과 거금 탈취, 친일 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만주 길림(吉林)에서 유동열(柳東悅)황상규(黃尙奎) 등의 지도로 동지 규합과 폭탄제조법을 학습한 김원봉(金元鳳) 등 13명이 1919년 11월 10일에 의열단(義烈團)을 결성하였다. 의열단 단원들은 상해에서 입수한 폭탄 13개를 밀송하여 경남 밀양과 진영에 나누어 숨기고 사전 정찰까지 하였으나, 1920년 6월에 탐지되어 실패하였다. 그러나 9월에 박재혁(朴載赫)이 부산경찰서에, 12월에 최수봉(崔壽鳳)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서장을 폭살하고 청사를 파괴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외곽단체로 1920년 1월 손정도(孫貞道)김 구(金九)가 결성한 의용단(義勇團)이 평양에 파견한 김석황(金錫璜)은 서울평안황해도 등에 의용단 지단과 분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상해로 돌아가 폭탄 12개를 각지 지단으로 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서북지방에서는 1920년 봄에 의열무장단체와 비밀결사가 잇따라 조직되었다. 의주군 천마산에서 조직된 천마산대(天摩山隊)는 의주삭주구성창성군 일대에서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파괴, 일경 및 친일분자 등을 처단하였다.

3월초 의주군 월화면에서 김동식(金東植)은 대조선청년결사대를 조직하여 군자금 수취 활동에 주력하다가, 5월에 총기를 획득하자 대조선독립보합단(大朝鮮獨立普合團)으로 개칭하고 무장활동에 돌

입하였다.

4월에는 황해도 사리원 주민들이 독립단결사대를 조직하여 사직 권고에 불응하는 관공리 처단을 계획하였다. 5월에는 평북 구성에 대한민족자결국민회, 진남포에 국민회가 결성되어 무장투쟁 방침을 세웠다.

국내 단체들은 일경의 정보망에 걸려 활동 초기에 조직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서북지방에서는 무장대의 지방관서 습격 및 파괴 방화, 관공리친일유지 저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서북지방의 일제 통치기관은 타격을 받고, 친일 협력자들의 행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도 1920년 봄부터 대규모 투탄 계획이 추진되었다. 대구 농민들이 6월 하순에 관공리 습격을 목적으로 폭탄을 손에 넣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5월초에 미국 상하원 의원단 42명이 8월 극동 시찰 길에 한반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외 의열단체와 지사들이 대대적인 투탄거사를 계획하였다. 임시정부의 이동휘(李東輝)이시영(李始榮) 등으로부터 폭탄 10개와 권총 40정을 제공받은 광복단 결사대장 한 훈(韓焄)은 국내에 잠입하여 암살단을 조직한 김상옥(金相玉)을 만나 행동을 같이할 것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미국 의원단의 입경 예정일인 8월 24일에 출영하는 일본 고관들을 저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23일 일경의 예비 검속에 걸려 한훈과 동지들이 피체되고 말았다.

한편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가 특별기관으로 설치한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은 대원 13명을 3개의 결사대로 나누어 국내로 밀파하였다. 서울 거사 임무를 맡은 제1지대 3명은 포목상으로 위장하고 평북 자성군수와 황해도 장연군수를 사살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서울역종로경찰서를 폭파하려 하였으나,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 평양 거사 임무를 맡은 제2지대 5명은 안주에서 일인 경부를 사살한 후, 1920년 8월 3일 밤 평남경찰부에 폭탄을 던져 청사를 대파하였다. 제3지대 특과원 3명은 9월 1일 선천군청 지적도창고에 투척하였으나, 불발이었다. 그러나 행동대원으로 포섭된 학생이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청사 일부를 파괴하였다.

이외에도 평안도 지방에서는 많은 의열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런 열기는 이듬해 함경남도로 파급되었다. 1921년 1월에 풍산군 안수면 부호 김병선과 염상한이 처단되었으며, 2월에는 갑산군 운흥면에서 군청 서무주임과 면장, 면서기가 무장대에 의해 즉사하였다.<sup>47)</sup>

개인 단독 의거도 전개되었다. 1921년 2월 15일 동경 유학생 양근환(梁權煥)은 친일파 거두 민원식(閔元植)을 척살하였다. 민원식은 총독부의 조종으로 국민협회(國民協會)를 조직하여 기만적인 참정권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원식이 조선인 참정권 청원서를 일본 제국의회에 제출하려고 도일하여 동경 제국호텔에 유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양근환은 숙소로 민원식을 찾아가 크게 꾸짖고 단도로 찔러 절명시켰다.

### 3. 의열단의 국내외 투쟁

1920년대에 국내외에서 의열투쟁을 가장 활발히 전개한 것은 의열단이었다. 의열단은 창단 초에 암살대상 일곱 부류(조선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수뇌, 대만총독, 賣國賊, 친일파 거두, 敵探반민족적 土豪劣紳), 파괴 대상 다섯 가지(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47) 金榮範, 「의열투쟁의 전개」,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317~332쪽.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왜적 중요기관)를 선정했다. 1921년 9월 중순 의열단 단원 김익상(金益相)은 총독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 폭탄 2발을 던져 터뜨리고 잠적, 북경 본부로 귀환하였다. 그는 1922년 3월 28일에 상해 황포탄(黃埔灘) 부두에서 일제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에게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폭탄이 불발하고 탄환이 빗나가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후 의열단은 상해 파고려공산당으로부터 '레닌 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아 상해 12곳에 폭탄제조소를 설치하고 헝가리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성능 좋은 폭탄을 자체 제조하였다.

1922년 여름, 의열단은 국내 부호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거두라는 임정 재무총장 이시영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폭탄거사를 단행키로 하였다. 거사 실행자로 선임된 김상옥은 폭탄이 밀송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1923년 1월 12일에 누군가의 척탄으로 종로경찰서가 대파되었다. 일경은 김상옥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효제동의 은신처를 습격했다. 김상옥은 겹겹이 둘러싸인 경찰과 대치하여 3시간 동안의 총격전 끝에 최후의 1발로 자결 순국하였다.

의열단은 1923년 3월초에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조직과 합작하여 국내에서 대규모 폭탄거사를 추진하였다. 행동대장 김시현(金始顯)이 18개의 고성능 폭탄을 서울로 갖고 들어오고, 신의주와 안동현에 보관한 나머지 18개도 곧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김재진(金在震)의 밀고로 거사 요원 전원이 피검되고 말았다.

1923년 1월 의열단은 신채호(申采浩)가 쓴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여, 암살파괴 운동의 논리와 이념적 지표를 천명하였다. 상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각 운동단체들도 4월 1일에 국내일본 만주에 6개 암살 결사대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의열단 가입자도 크게 늘어나 단원이 약 150명에 이르렀다.

의열단은 대규모 거사를 추진하였다. 일본 관동군이 장악하고 있는 남만주철도를 폭파하고 그 연변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시작으로, 서울과 동경에서 대대적인 암살 파괴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열단은 국내에 결사대원 16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상해 의용단과 북경 천도교 조직과 제휴하였다. 또 일본 의회 습격과 동경 거사를 위해 박열(朴烈) 등의 한인 아나키스트그룹과 공동 행동하기로 밀약하고, 선발대를 보내고 폭탄 50개의 이송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10월에 실행하려던 거사는 9월 1일의 관동대지진으로 좌절되었다. 일제가 대지진을 이용,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하고 동경의 6,000여 한인들을 학살할 때 선발대원들도 다수 희생되었다. 박열은 일왕 암살 모의혐의로 체포되고, 상해의 폭탄 은닉처가 일경에 탄로되어 50개 모두를 빼앗겼다.

다시 의열단은 북만주의 무장단체 적기단(赤旗團)과 합작하여,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裕仁)의 결혼식을 전후한 1924년 1월에 폭탄 300개로 동경거사를 감행하려 계획했다. 거사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분격한 김지섭(金祉燮)이 일본으로 밀항하여, 1월 5일 황궁으로 접근하다 입구에서 저지당하자, 폭탄 3개를 니주바시(二重橋)에 던졌다. 폭탄은 불발했으나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거듭된 실패와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의열단은 계속 동경 공격과 민중 봉기 촉발을 목적으로 거사 계획을 밀고 나갔다. 3월 하순에 단원 3명이 일본에 건너가 5월 총선거와 임시 의회 개회를 전후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6월에도 통의부(統義府)와 합작하여 일본 거사를 준비했다. 11월말에는 의열단 결사대원 30여 명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신문 보도로 일제 당국이 당황하였다. 이들 거사 계획은 자금난과 일제 관헌의 철저한 감시망과 첩보망에 걸려 번번이

좌절되었다.

1925년에 이르러 의열단 지도부가 암살파괴 거사보다는 농민 노동자청년 대중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의식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식하고, 사회주의운동 진영에서도 암살파괴 운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열단은 대중투쟁과 군사운동의 결합을 독립운동의 대안적 노선으로 설정하고 본부를 중국 광주(廣州)로 옮기고 단원들은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26년에 의열단을 혁명정당 겸 반공개적 대중운동 조직으로 개조하려 함으로써 노선 전환을 도모하였다. 의열단의 암살파괴 운동도 1925년 상반기로 종결되었다.

아나키스트 간부 단원 유자명(柳子明)만이 기존 노선을 지키며 거사를 주도하였다. 그는 김창숙(金昌淑)과 이회영(李會榮)의 언질을 받고 단원을 시켜 다물단(多勿團)과 합작하여 북경에서 3월말 밀정 김달하(金達河)를 교살하였다.

1926년 12월 28일에 나석주(羅錫疇)가 결행한 폭탄거사에도 유자명은 일부 관여하였다. 그러나 그 거사는 국내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일신시키려 한 김창숙이동녕(李東寧)김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신채호가 준 폭탄 2개를 가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나석주는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에 폭탄을 던져, 건물을 파괴하고 일본인 7명을 총격 살상한 후 경찰과 교전하다가 자결하였다.

#### 4. 재만 독립군의 의열투쟁

1920년 8월에 서간도 관전현에서 대한광복군사령부는 국내 진

입 별동대로 벽창의용단(碧昌義勇團)을 조직하였다. 양승우(楊承雨)의 지휘 아래 의용단 단원들은 1924년 봄까지 평북 벽동창성군의 경찰관주재소와 금융조합 습격 파괴, 일경과 친일부역자 척살, 군사금 수취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922년 4월 서로군정서 헌병대원 4명은 은신처를 포위 공격해 오는 하얼빈 일본총영사와 경찰서 형사부장 외 일경 10여 명을 사살하고 전사하였다. 8월에 조직된 대한통의부 소속 의용군 6개 중대도 재만 친일단체의 파괴, 밀정주구 처단, 그리고 평북지방의 관공서 습격 파괴 활동을 펼쳤다. 1924년 10월에만 일경 28명과 친일파 32명을 사살하였다. 의군부(義軍府) 유격대장 이경일(李京日)은 1923년 8월에 대원 30여 명을 이끌고 의주군 청성진의 경찰관주재소를 습격, 순사부장을 사살하고 주재소면사무소우편국세관출장소 등을 불태워버렸다.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 직속기관으로 성립한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가 파견한 특공대 8명은 1924년 5월 19일에 평북 위원군 마시탄 대안 절벽에서 매복해 있다가 사이토 총독을 태운 국경순시선에 집중 사격을 가하였다. 사정거리가 짧아서 총독 격살에는 실패했지만 독립운동을 크게 고무하였다. 1926년 7월에는 제2중대원 이수흥(李壽興)과 유탉수(柳澤秀)가 서울 동대문파출소,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를 타격하였다.

정의부(正義府)에서도 이청천(李青天)오동진(吳東振) 등의 지휘로 군사부 별동대가 수시로 국내에 진입하여 주구배 암살, 관리 처단, 적기관 방화 및 파괴 등을 수행했다.

제5중대원 이진무는 1925년 7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및 경찰관서 습격, 일경 사살, 밀정 처단 등을 수행하여, ‘국경의 흑선풍’, ‘애꾸눈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북만주의 의성단(義成團)은 길림장춘이통 일대의 일제 관서 습격과 일경 사살, 주구 토벌 등을 감행하였다. 신민부(新民府)도 만주 각처에 일제 주구단체의 간부를 처단하여 그 조직을 해체시켰다.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 졸업생들로 구성된 특수공작대가 국내에 특파되어 암살 파괴 임무를 수행하였다.

## 5. 1920년대 후반의 의열투쟁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6년 1월초에 병인의용대를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 초부터 국내 폭탄거사를 전개하였다. 경무국원들이 일본영사관 밀정 김도순(金道淳)과 총독부 밀정 정필화(鄭弼和)를, 구국모험단 이석(李錫)이 총독부 밀정 김병헌(金秉憲)을 처단하였다. 이러한 거사에 참여했던 최병선(崔炳善)장영환(張英煥, 張鎭元)이 수감되자, 이덕삼(李德三)이 일본영사관원 사무실을 습격하여 수류탄을 던져, 일경 수명을 폭살시켰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장 나창헌(羅昌憲)의 주도로 1926년 1월 초 상해에서 병인의용대가 창립되었다. 병인의용대는 “암살파괴는 혁명가의 무상(無上)의 무기이며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하고, 일제 주구 숙청, 반동분자 엄단, 식민지 기구 파괴 및 중요 인물 격살 등을 주요 임무로 내세웠다.

1926년에는 3차에 걸쳐 일본영사관 건물 폭파공작을 전개했다. 4월 8일 김광선(金光善) 등 대원 3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며 영사관 구내로 폭탄 2발을 던져 건물 벽과 유리창을 대파하였다. 9월 5일에는 인력거꾼을 시켜 시한폭탄을 영사관 안에 들여보내려다



정문에서 지체하는 사이에 폭탄이 터져 버렸다. 그리고 강창제(姜昌濟) 등이 시한폭탄을 장치하여 영사관 창고를 대파하였다. 이 해 6월에 순종(純宗) 장례를 전후로 국내 폭탄 거사를 계획하고 고준택(高俊澤) 등 4명의 결사대가 중국 상선을 타고 상해를 출발하였는데,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어 일본 수상경찰에 피체되었다.

병인의용대는 1927년 이후에는 상해 독립운동계 내부의 좌익세력 제압과 임시정부 보위에 전념하여, 의열투쟁에는 나서지 못했다. 당시 중국의 국공분열 및 좌우대결의 여파, 독립운동계의 민족 유일당운동 또는 협동전선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독립운동의 노선 논쟁, 임시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으로 의열투쟁은 이후 4, 5년 동안 침체되었다. 몇 건의 개인 단독 의거와 밀정 척살, 군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습격 등이 간간히 나타났을 뿐이다.

안중근의사를 흠모하던 일용노동자 송학선(宋學先)은 총독 사이포를 처치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순종이 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길의 총독을 척살하려고 돈화문과 금호문 앞에서 사흘째 기다렸다. 1926년 4월 28일에 예복을 입은 일인 3명을 태운 승용차가 금호문을 빠져 나오는데, 누군가가 “총독이 지나간다”고 말하자, 송학선은 순식간에 자동차에 뛰어올라 탑승자를 총독으로 생각하고 가슴과 복부를 비수로 찔렀다. 경성부 평의원 다카야마(高山孝行)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국수회(國粹會) 경성지회장 사토(佐藤虎次郎)는 중상을 입었다.

장진홍(張鎭弘)은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지방법원경찰서 등 9개소에 동시 투탄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동지를 구하지 못하자, 폭파 대상을 4곳으로 줄이고 혼자 거사를 단행하였다. 그는 폭탄을 만들어 산에서 시험을 해보고, 1927년 10월 8일 여관방에서 나무상자 4개에 폭탄을 장치하여 점화시켜 놓고 포장 한 뒤, 종업원에게 선물상자이니 속히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신하였

다.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배달된 상자에서 화약 냄새를 맡은 일인 은행원이 도화선을 끊어 불발되었다. 경북도지사, 식산은행 지점장, 경북경찰부장에게 배달되려던 3 상자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옆 한길에서 비상 출동한 경찰이 빼앗아 도화선을 끊으려는 순간 연쇄 폭발하였다. 은행 창문 70여 장이 완파되고 은행원과 일경수명이 중상을 입었다. 장진홍은 안동과 영천에서 거사를 계획하고 폭탄 5개를 장용희(張容熙)와 김사실(金士實)에게 주었으나, 거사 일을 미루다 실패하였다. 일본으로 건너간 장진홍은 동경의 귀족원과 경시청 건물에 투탄할 것을 계획하고, 폭약을 구하려고 힘쓰다가 경북도경 형사대에 피체되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1930년 대구형무소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1928년 5월 14일에는 대만의 대중시(臺中市)에서 한인 청년 조명하(趙明河)가 일본 육군대장 구미노미야(龜瀨宮邦彦王)를 독검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당시 대만에서 일본인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조명하는 항일운동에 투신키로 했던 결심대로 대만총독 야마가미(山上)를 격살하려고 보검을 구입하여 독약을 발라놓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는 구미노미야가 대만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마가미 대신 구미노미야를 처단키로 작정하고, 환송군중 속에서 기다렸다가 뛰쳐나가 구미노미야에게 일격을 가하려고 하였다. 수행원이 이를 제지하자, 조명하는 재빨리 독검을 던져 구미노미야의 어깨를 찔렀다. 구미노미야는 온몸에 독이 퍼져 8개월 뒤 사망했다. 조명하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24세에 사형되었다.

1931년에 918사변(만주사변) 발발과 때를 맞추어 독립운동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려는 조직적 의열투쟁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48)</sup>

48) 金榮範, 「의열투쟁의 전개」,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317~343쪽.

## 6. 횡성인 최양옥의 의열투쟁

### 1) 대동단 활동

최양옥은 1893년 음력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花田里)에서 법부주사(法部主事)를 지낸 강릉최씨(江陵崔氏) 재건(在建)과 진주강씨(晉州姜氏) 석원(錫元)의 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최양옥은 독립운동 당시 권인옥(權仁玉)이란 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반집에서 출생하여 귀동으로 대접받으며 자라 15세(1908년경) 때 결혼하여 딸 둘을 두었다.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14세 소년 최양옥은 이 때부터 일본에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1913년 4월 원주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7년 졸업하고, 3월에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중퇴하였다.<sup>49)</sup>

그는 23세부터 원주횡성흥천 등에서 측량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서울 등지에서 잡화 및 땀감 등을 팔며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최양옥은 서울 입정정(笠井町) 신병선(申炳善 : 아버지 친구)의 집에 거주할 때 31운동을 맞이했다.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온 신병선의 아들 신덕영(申德永)의 권유로 그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고향 횡성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3월 27일과 4월 1일 횡성읍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31운동 후 김가진(金嘉鎭)이 총재로 있던 대동단(大同團의) 조선지부 책임자 신덕영이 1919년 음력 11월 경 원주군 소초면 둔

49) 「애국지사 최양옥의 묘비명」.

둔리로 찾아오자, 최양옥은 대동단에 입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1920년 음력 5월 3일에 상경, 신덕영의 집에 동거하였다.

신덕영은 1919년 음력 7월경 대동단에 가입한 뒤, 대동단 조직 확대에 힘썼다. 그는 경북 문경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정인옥(鄭寅玉)을 찾아가, 「독립선언서」 『독립신문』과 권총탄환을 주고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권유하였다. 정인옥은 충북 제천 권명상(權命相), 괴산 홍승욱(洪承旭), 원주 홍순창(洪淳昌) 등을 대동단에 입단시켰다. 이들은 문경봉화, 충주괴산, 영월, 그리고 전북 금산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10월 10일 김가진이 중국으로 망명한 뒤, 대동단 조선지부의 중심인물이 된 신덕영은 1919년 음력 11월에 최양옥을 대동단에 가입시키고, 1920년 음력 4월에 인천에서 전남 화순(和順) 출신의 노형규(盧衡奎)를 만나 동지가 되었다. 화순에서 31운동을 전개했던 노형규는 광주의 노석중(盧錫仲)과 김정련(金正連)을 대동단에 가입시켰다.

신덕영은 1920년 7월경 최양옥노형규노석중,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병중위라고 자칭하는 박일봉(朴日鳳) 등과 협의, 전남지역에 대동단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의 노석정(盧錫正)유선주(劉善柱)윤영기(尹永淇)조병철(曹秉喆)양인묵(梁仁默)이 대동단에 가입하였다.

신덕영노형규최양옥은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우선 화순과 광주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대동단 총재 김가진 명의의 「포고문」과 대동단 조선지부장 한부(韓扶) 명의의 「경고문」을 광주화순 등에 보내 군자금을 내도록 촉구하였다.

최양옥은 1920년 9월 26일 혼자 광주로 내려가 이춘수(李春秀)

집에 투숙하며, 노석중과 전치영(全稚英)에게 운동계획을 통고하고, 10원씩을 받아 서울 신덕영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노석중과 함께 곡성군 화면 봉동리 신유선(辛有善)을 권유하여 대동단에 가입시키고 10원을 모금하였다.

10월 1일에 광주에 도착한 신덕영과 박일봉은 금계리(錦溪里) 조명석(趙明錫) 집에 유숙하며 대동단 조직의 확대에 힘썼다. 최양옥은 7일 유선주와 함께 조병열(曹秉烈)의 안내로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白岩里)의 손종채(孫鍾採)·손동채(孫東採)와 그 숙부 손영현(孫永絢)에게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없어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15일에 광주 본촌면 일곡리(日谷里) 이운호(李允鎬) 집에서 최양옥·신덕영·박일봉·노기준(盧基準) 등이 독립운동에 관해 협의하고, 최양옥이 권총 구입의 임무를 맡고 16일 상경하였다. 그러나 권총 구입이 여의치 않자, 장남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이경민과 함께 광주로 내려왔다.

총을 구하지 못해 거사 추진을 망설이던 신덕영과 최양옥은 27일 노천면(老泉面) 양림리(揚林里) 유한선(劉漢先) 집에서 협의,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을 위해 2반으로 나누었다. 제1반 박일봉·이운호는 화순나주군 방면을 맡고, 만약 이변이 있을 경우 동북면 오(吳)씨 집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제2반 최양옥·신덕영·노기준은 담양곡성군 방면을 맡고, 이변이 있을 경우 옥과면 합강리(合江里)의 고인식(高仁植) 집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양옥은 장남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신덕영·노기준과 함께 11월 2일 곡성군 칠보리(七寶里) 심윤택에게 독립운동자금 1,500원을 요구하고 1,000원은 음력 9월 30일, 500원은 음력 10월 5일 수령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곡성군 화면 조양(朝陽)의 신대

선(辛大善)에게 100원을 음력 9월 30일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다음날은 곡성군 삼기면(三岐面) 월경리(月境里) 정호억(鄭鎬億)에게 100원을 음력 10월 6일 임곡역(林谷驛)에서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월경리 정호필(鄭鎬弼)에게 100원을 수령하였다. 4일에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維谷里) 박종호(朴宗鎬) 집에 들어가 집안 사람을 전부 묶고 40원을 모금하였다.

신덕영을 중심으로 모금한 독립운동자금은 만주농림주식회사에 모아지고, 중간 연락책을 통하여 상해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대동단 조선지부 신덕영 일단이 광주화순곡성담양 등지에서 권총과 모의 권총을 휴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이 일경에 알려졌다. 노석중이 급히 노상영(盧庠永)을 최양옥신덕영·노기준에게 보내어 경찰 수사사실을 알렸다. 신덕영은 수집 자금을 갖고 도피하였지만, 최양옥은 노기준과 11월 5일 자동차로 광주로 가다가 함께 피체되었다. 그 후 신덕영과 대동단 조선지부원들도 대부분 체포되었다.

공판과정에서 최양옥신덕영 등은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몇몇이 밝혔다.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신덕영은 징역 8년, 최양옥노석정은 징역 7년, 노형규노석중은 징역 5년, 윤영기·양인묵조병철은 징역 1년, 신유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였으나 1921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최양옥은 징역 7년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수년간 옥고를 겪었다.

## 2) 대한독립공명단의 조직과 활동

최양옥은 1926년 11월 15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 소초면 둔둔리에서 1년간 농사일을 하였다. 1928년 4월 서울에 올라가 신덕영

의 부인 오씨를 만났다. 오씨가 최양옥의 출옥 사실을 중국 하북성 석가장(石家莊)에 있는 신덕영에게 알렸다. 곧 중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음력 4월 최양옥은 오씨와 함께 출발, 산서성 태원(太原)에서 신덕영을 만났다.

최양옥은 태원 해자변(海子邊) 문패(門牌) 3호에서 신덕영과 함께 거주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고물과 아편을 팔았다. 이들은 비행기조종사로 활동하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에 대한 민족적 분개를 느껴 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태원에서 염석산(閔錫山)의 비행기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던 안창남(安昌男)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한인들은 1926년 북경에서 '대독립당조직북경축성회'를 조직한 후 1927년 9월까지 관내(關內)의 상해광둥(廣東)무한(武漢)·남경 등지에서 '한국유일독립당축성회'를 조직하고, 11월 9일에는 축성회 대표들이 '한국독립당관내축성회연합회'를 만들고 유일독립당 조직을 위해 활동하였다. 만주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최양옥은 1928년 음력 6월에서 9월 사이 태원에서 신덕영안창남 등과 '함께 소리 내어 알린다'는 '공명(共鳴)'의 의미를 따서 '대한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을 조직하였다.

대한독립공명단은 단장, 부단장 외에 재정부정치부군사부를 두었다. 단장은 안혁명(安革命), 부단장 신덕영(39세), 재정부장 이영(李英), 최양옥(34세)은 재정부 부원을 맡았다.

대한독립공명단은 중국의 장개석(蔣介石)염석산(閔錫山) 등의 원조, 일본의 편산잠(片山潛) 등의 후원, 그리고 국내 유지로부터 지원을 받아 약 15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의 남경섬서(陝西)포두(包頭)의 3곳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청년장교를 교육시켜 5개 사단 75,000여명의 병사를 양성하려고 계획하였다. 예상대로 군인을 양성한 다음, 40,000명의 병력을 함북, 35,000여명의

병력을 평북 방향으로 침입시켜 일본과의 전면전을 일으키고, 독립군이 중소 지역으로 도피하여 일본군이 추적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소련과의 전쟁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여 국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한국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명단은 이 거대한 독립운동론을 실현하는 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릴지라도 계속 수행하기로 다짐하였다.

최양옥은 먼저 단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는 1928년 음력 9월 대동단 조선지부원으로 활동한 김정련(金正連)을 석가장에서 만나 공명단에 가입시켰다. 또 김정련으로 하여금 신의주부청에서 활동하던 이선구(李善九)를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공명단이 산서성 독군(督軍)인 염석산, 북경시장 하기공(何基鞏)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얻으려던 일이 여의치 않자, 최양옥은 1928년 음력 9월 경춘가도의 우편차량을 탈취하여 한 번에 203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최양옥과 김정련은 추진 명령을 받고, 안창남(29세)으로부터 콜트식 권총 1자루와 탄환 14발, 모젤 권총 1자루와 탄환 10발을 수령하였다(김정련은 로얄 자동권총 1자루와 탄환 12발을 수령).

최양옥은 1929년 5월 서울에서 산업박람회장이 열리므로 서울에 가서 일본의 고관과 관헌을 살해하고 아울러 송금차량을 탈취하여 공명단의 존재를 알리고 한꺼번에 다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1928년 음력 10월 태원에 있던 안창남으로부터 600원을 받은 후 음력 12월 15일 김정련과 함께 석가장에 갔다. 김정련이 천진(天津)에서 일본총영사관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신덕영은 먼저 북경의 순지문(順智門) 밖에 거주하던 김정환(金政煥)에게 충을 맡기고 천진으로 갔다.



그런데 최양옥은 천진에서 김정련이 일본총영사관에서 풀려나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양옥은 당고(塘沽)를 거쳐 1929년 음력 1월 9일 대련(大連)에 도착하였다. 그는 수상경찰서에 체포되어 천진의 일본총영사관에 압송되었으나, 안창남에게 34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월 16일 석방되었다.

최양옥은 북경으로 가서 김정환으로부터 권총 3자루를 받은 뒤, 음력 1월 25일경 북경을 출발, 봉천(奉天)으로 가면서 신의주 외각 중지도(中之島)에 머물고 있는 김정련에게 입국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봉천을 거쳐 3월 7일 밤 8시 경 단동역에서 김정련을 만나게 되었다.

최양옥과 김정련은 역 근처 송판여관(松坂旅館)해동여관(海東旅館)에 투숙하면서 김정련으로 하여금 이선구를 설득, 3월 13, 4일경 이선구의 공명단 가입을 승낙 받았다. 최양옥은 해동여관에서 김정련이선구와 경춘가도의 송금차량 탈취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을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최양옥은 국내에서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4일 김정련과 함께 평북 용천군 양광면 봉덕리(鳳德里) 김인옥(金仁玉)에게 찾아가 160원을 마련, 4월 7일 해동여관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40원을 여비로 삼아 서울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최양옥은 8일 오후 2시 경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양복 안의 복부에 은닉하고, 김정련은 한복을 입고 실탄 12발을 장전한 총 1정을 왼쪽무릎 밑 안쪽에 봉대로 감아 숨기고 신의주로 들어왔다.

최양옥은 4월 9일 오전 1시 신의주를 출발, 오전 7시 5분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는 10일 오전 7시경에 도착한 김정련, 11일 오전 10시 경에 도착한 이선구와 서울 사직공원 등에서 거사를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거사가 지체되었다. 4월 16일

최양옥과 김정련이 이선구를 설득하여 거사 추진을 결정하였다.

4월 17일 오전 11시 경 최양옥 일행은 서울 황금정(黃金町)에 위치한 이명구(李命九)의 집을 출발하여 방산정(芳山町) 잡화상에서 삼숫줄 등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차를 타고 양주군 구리면 교문리(橋門里)에서 내려, 미금면 평내리(坪內里) 안칠성(安七星)이 경영하는 여인숙에서 1박하였다. 최양옥은 이선구에게 모젤식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넘겨주고 사격술을 교수하였다.

18일 오전 7시경 아침을 먹고 최양옥 일행은 미금면과 화도면(和道面)의 경계인 마석(麻石, 마치)고개에 도착, 춘천방면으로부터 오는 차량을 감시하기에 용이한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후, 실행과 도주의 방법을 결정하고 우편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 실행 방법 -

- (가) 우편자동차가 오면 이선구는 자동차를 향해 우측에 정지하여 손을 들어 이를 세울 것.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권총을 들이대고 협박한 후 정차시키고 운전대에 올라 운전을 한다.
- (나) 최양옥은 자동차를 향해 좌측에 있어서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총으로 협박, 정차시키고 즉시 운전사를 소지한 삼숫줄로 포박한다.
- (다) 김정련은 자동차를 향해 좌측에 있어서 양옥 등보다 金谷으로 향해 23정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여 京城방면에서 오는 자동차, 기타 통행인의 경계를 하고 만일 우편자동차가 정차하지 않을 때는 권총으로 협박하여 정지시킬 것.
- (라) 그리하여 우편물간 안으로 들어가 빨간 행낭을 찢고 현금을 탈취할 것.

- 도주 방법 -

- (가) 실행 후 제1안으로서는 범행 후 양주군 의정부를 거쳐 장단

군 고랑포로 나와서 황해도로 들어가 점차로 국경으로 도주하여 안동현(현 단동시)에 도착하여 후사를 도모할 것.

(나) 제2안으로서는 즉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성에 잠입하여 기회를 보아 철도로 안동현으로 도주하고 후사를 도모할 것.

4월 18일 춘천을 출발한 경성우편국 제7호 차량이 오후 1시 40분 경 고갯마루 아래 지점에 이르자, 김정련은 망을 보고 이선구가 손을 들어 정차시켰다. 이선구최양옥은 즉시 차에 뛰어올라, 최양옥은 운전사 김영배(金泳培)에게 총을 겨누고 삼숫줄로 묶어 조수석에 앉힌 후, 이선구가 운전하여 금곡(金谷)방면으로 차를 몰았다.

마석고개 내리막길에서 서울을 출발하여 춘천으로 향하던 오성(五星)자동차 소속의 447호 자동차와 만나자, 이들은 차를 세우고 기관부의 발화장치를 파괴한 후 운전사와 승객을 차의 상자 안에 감금하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 45인도 제지하여 차의 상자에 감금하였다. 최양옥은 김정련과 우편차량의 뒤 칸에 실은 우편행낭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에 감금한 승객으로부터 33원을 획득한 후 오성자동차의 운전사 백남성(白南星), 승객인 이규면(李圭冕)에게 ‘대한독립공명단 만세’를 세 차례 소리 높여 외치게 하였다.

평내리 입구에서 춘천발 서울행 선일자동차(鮮一自動車)가 오자 이를 세워 운전할 수 없게 만든 후, 승객으로부터 현금 20여원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우편차량 운전사 김영배와 선일자동차 운전사 이기선(李起善)을 데리고 천마산으로 도피 중 평내리 뒷산에서 운전사들을 돌려보내고 오후 2시 30분 경 천마산 산중으로 도피하였다.

최양옥 등은 천마산 정상에서 자금을 분배하고, 경계가 엄중하므로 배로 독섬(蘓島)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계획하였다.

19일 새벽 화도면 녹촌리(鹿村里)의 임희종(任熙宗) 집에 도착한 후 인근의 암굴에 은거하여 식사와 의복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저녁에 한강을 통해 서울에 들어가려고 오후 8시경 임희종의 집에 이르렀을 때 경찰에게 발각되어 추적을 받게 되었다.

도피 중 일행에서 떨어진 김정련은 20일 오전 0시 20분 인근 독립가옥에서 피체되었다. 그러나 최양옥과 이선구는 오전 6시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德沼里) 동쪽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구리면 수석리(水石里)에 상륙하여 아차산에 숨었다. 이들은 오전 9시반 망우리 고개로 나와 남상진(南相鎭)이 모는 내선자동차(內鮮自動車)를 정지시켜 빼앗은 후 이선구가 직접 운전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서울에 도착한 최양옥이선구는 본정통(本町通) 4정목 경성암(京城庵)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 경 택시를 타고 감옥에서 알게 된 정국민(鄭國敏)이 있던 적선동 북일여관(北一旅館)으로 갔다. 이선구는 북일여관에 은거하고, 최양옥은 체부동(體府洞)의 친척 최상하(崔相夏)의 집에 은거하였다.

그렇지만 최양옥은, 이선구가 20일 오후 11시 경 황금정 1정목의 친구 이명구(李命求) 집에서 체포되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탓에, 21일 오전 5시 반 최상하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최양옥은 일경이 들이닥쳐 자신을 붙잡고 총을 찾으려고 허둥대자, “총은 이불 속에 들어있다”고 하며 총 있는 곳을 가리킬 정도로 태연하였다.

최양옥 일행은 경기도경찰부로 넘겨져 조사받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졌다. 여기에서 10여 일간 조사받고 5월 20일경 기소되었다. 9월 6일 열린 재판정에서 최양옥 등 세 명의 동지는 굳은 악수로써 인사를 나누는 당당함을 보였다. 최양옥은 1929년 12월 13일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우편법 위반, 강도의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

렸다.<sup>50)</sup>

중국 태원에 있던 안창남은 1930년 비행기사고로 죽었다. 신덕영은 1932년 하얼빈에서 일경에 피체되어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로써 대한독립공명단은 와해되고 말았다.<sup>51)</sup>

---

50)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1권, 2000.

51) 曹圭泰, 「大韓獨立共鳴團의 組織과 活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87~114쪽.

## 제6부

# 항일학생운동

- I. 3·1학생독립운동 / 471
- II. 학생독립운동의 발전 / 485
- III. 비밀결사와 학생운동의 심화 / 525
- IV. 황성인의 항일학생운동 / 550

박 정 수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 제6부 항일학생운동

### I . 3·1학생독립운동

#### 1. 학생독립운동의 배경

##### 1)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의 강화

1919년 31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민족저항의 불길이 솟아오르자, 일제는 무단통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종래의 무단통치 대신에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제3대 총독 사이토(齋藤實)는 부임 후 교육문제의 개편을 염두에 두고, 문화정책의 방편으로 3면 1교 설립을 추진하는 교육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20년 11월 9일 칙령 제529호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문화정치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한민족의 반일감정을 진정시키려는 표면적 구실에 불과하며, 식민통치를 추진하는 그 저의는 변함이 없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요지는, 보통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고등보통학교는 4년제 외에 2년의 보수과를 설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학자격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로 하였다.

그러나 종래와 같이 소학교(일본인 학교)와 보통학교의 구분은 존속시켰고,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입학자격을 일어 사용에 따라 구분, 세분화하였다. 보통학교 수업연한 6년은 지역에 따라 5년제 또는 4년제를 둘 수 있게 하여 학제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교육제도에 대한 획기적 변혁을 계획하고 1922년 2월 6일 칙령 19호로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개정한 교육령은 이전의 교육령이 조선 내의 조선인 교육만을 규정한 것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한국 내의 모든 교육에 관한 법규로 종합하였다.

둘째는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이고,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을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 졸업자로 한 점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초중등이 3년이 연장되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학제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

셋째는 사범교육을 위해 관립과 공립의 사범학교를 설치하였다.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보통과 5년, 연습과는 1년이었고, 여자의 보통과는 5년으로 정하였다. 보통과는 소학교(일본인 학교)와 보통학교의 졸업자로 입학자격을 두고, 강습과는 보통과를 수료한 자로 하였다. 단 특별 예외규정으로 수업연한 3년, 또는 2년의 특과 설치가 가능하였다. 특과의 입학자격은 고등소학교와 동등학력의 자로 하였다. 그리고 사범학교에 연구과, 강습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단 연구과는 특과만을 둔 사범학교에 한하였다.

넷째는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예과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비로소 대학교육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1면 1교를 목표로 1929년부터 1936년까지 1,704교의 보통학교



들이 개교하였으나, 학령기 아동의 18% 만을 수용할 수 있어 보통학교에는 수업연한 2년의 간이학교를 부설하였다.

1936년 8월 미나미(南次郎) 총독은 취임 후 가혹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일본어 사용, 창씨개명, 황국신민서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민족말살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 3월 3일 칙령 제103호로 조선교육령을 3차 개정하였다. 이것이 제4차 교육령이었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라 하였으며, 소학교는 1941년 4월부터 국민학교령에 따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도발 후는 황국신민화를 위한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횡포는 극에 달하였다. 1942년부터는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여 전쟁수행에 발악적이 되었고 모든 교육활동은 전시군사교육체제로 전환하였다. 그 법적 근거로 1943년 교육에 대한 전시비상조치령, 1944년에 학도동원령, 1945년에는 학생의 전투비상동원령인 전시교육령을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운영은 정상적으로 될 수 없었다.

## 2) 일제 식민지 교육의 실태

총독부는 1929년에 이르면 1면 3교의 계획을 추진하여 초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꾀하였다.

1935년에는 전국의 관공립학교 수는 2,271개교로 증설되어 1919년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4배가 늘었다. 1933년부터는 2년제 간이(簡易)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1935년에는 전국에 575개교의 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보통학교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거 소학교, 1941년 3월 국민학교령에 의해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3년 5월 말 현재 강원도의 관공립 국민학교의 수는 관립인 춘천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와 공립 국민학교 386개교에 1,751학급이 있었다. 그리고 공립 국민학교에 부설된 간이학교는 192개교에 193학급이 있었다.

당시 횡성군내의 공립 국민학교와 간이 학교의 개설 상황을 살펴보면, 공립 국민학교는 횡성남국민학교(15학급), 안흥국민학교(7), 갑천국민학교(6), 공근국민학교(6), 둔내국민학교(6), 양천국민학교(4), 청일국민학교(6), 서원국민학교(3), 정금국민학교(3), 당평국민학교(3), 가곡국민학교(3), 창림국민학교(2), 선천국민학교(2), 산현국민학교(1), 춘당국민학교(1), 하대국민학교(1) 등 17개교에 70학급이 운영되었으며, 5,062명의 학생이 취학하고 있었다.

횡성군내 공립국민학교의 부설 간이학교(학급수)를 보면, 정금국민학교 부설 하산전간이학교(1학급), 둔내국민학교 부설 화동간이학교(1), 가곡국민학교 부설 상토동간이학교(1), 당평국민학교 부설 병지방간이학교(1), 하대국민학교 부설 상대간이학교(1), 내교국민학교 부설 운교간이학교(1), 춘당국민학교 부설 춘당간이학교(1), 산현국민학교 부설 일리간이학교(1) 등 5개교에 8학급이 개설되어, 606명이 취학하고 있었다.

1943년 5월 현재 전국의 간이 학교 수는 1,560여 개에 학생 수는 92,178명이었다. 전국 분포와 비교하면, 강원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강원도지방은 지형상 산간지역이 많아 정상적인 학교 설립보다는 소규모의 간이 학교 운영이 재정적 부담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서라고 본다. 특히 내륙인 광산지방에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여 간이학교와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2. 학생독립운동의 전개

항일독립운동은 크게 두 계통의 맥락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의병운동으로 대표되는 무장투쟁이고 또 하나는 민족의 개화와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이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은 국권침탈 이전의 민족운동의 전통이 계승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의병토벌작전과 급격한 정치제도의 변화, 헌병경찰통치로 인하여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

의병의 무장투쟁은 1909년 9월부터 일본군이 토벌작전을 강행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일제가 국권침탈 후 이른바 무단통치하에서 헌병경찰로 가혹하게 탄압을 자행하여 국내 의병활동은 점차 소규모화 유격전화 하였다. 1908년 - 1913년 동안의 의병활동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통계에서 의병과 일본경찰의 충돌회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구국계몽운동은 1905년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자 더욱 강화되어 민족의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여 민족교육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갔다.

한말에서 시작된 민족실력양성에 의한 독립사상인 구국계몽운동은 안악사건과 105인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학교교육을 통하여 끈기 있고 강력하게 전통을 이어갔다.

조선총독부는 교육에 의한 한국민의 민족적 자각과 독립사상 고취를 위협시하여 한국민에게는 인문계열의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업교육을 위주로 우민화정책을 강요하였다. 교육령으로 사립학교규제를 제정하여 사립학교의 개설을 막고 감시하였으며, 많은 학교를 폐쇄하였다.

1917년의 통계를 보면, 사립학교의 수가 크게 격감되었다. 이로

써 그들은 사립학교를 항일독립사상의 온상지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경찰들은 한인학생의 운동을 평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학생사건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사상의 추이도 항상 일반사상에 수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sup>1)</sup> 무단통치하에서 한인학생은 민족독립이라는 민족본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학생들은 신교육을 받음으로써 민족적 자각과 세계동향을 직시할 수 있었다.

### 3. 3.1 학생독립운동

31운동을 거족적 운동으로 계획 추진한 33인의 대표들이 저항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되자, 이미 독자적으로 민중과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던 학생지도자들은 가두시위와 항쟁의 선두에서 선전활동, 군중의 조직과 동원을 주도하였다.

결연히 일어선 학생들의 선도로 군중들은 시위항쟁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시위군중은 서울 시내 도처에서 만세시위 집회를 가지고 독립의 기세를 펼쳤다. 그리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군중 가담에 활동한 학생 130여명이 체포되었다.<sup>2)</sup>

서울학생들의 항일시위는 지방학생에게 전하여지고 평양, 부산, 대구 등의 시위운동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전국 각 지방의 만세 시위운동에서 앞장서게 되었다. 일제 측의 자료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반일항쟁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나를 짐작하게 한다. 31독립운동으로 검거된 학생총수 2,037명 중 1,918명이 처벌되

1) 『高等警察報 제5호』

2) 鄭世鉉,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一志社, 서울, 1975, 106쪽.

었다. 그리고 31운동으로 인한 기소인 수 총수가 6,417명인데, 그 중 학생의 기소인 수는 약 10%인 634명이었다.

아래의 `각급 학교 항쟁참여의 비교'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교육기관이 많은 도와 종교적 세력이 강한 도에서 많은 검거자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 표에서 전국적으로 관공립학교의 85개교, 일반사립 37개교, 종교사립 93개교가 참가하였다. 참가학생 총수는 7,621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표는 31운동 때 학생의 만세운동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급 학교 항쟁참여의 비교

도명	관립학교		공립학교		일반공립		종교공립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경기	6	1,006	12	521	11	839	7	302
충북	-	-	1	13	-	-	-	-
충남	-	-	4	10	-	-	3	300
전북	-	-	6	352	-	-	3	150
전남	-	-	5	152	-	-	2	150
경북	1	100	6	232	-	-	4	259
경남	-	-	15	665	4	145	7	350
황해	-	-	3	210	-	-	6	350
평남	2	271	5	595	5	255	44	2,851
평북	-	-	6	605	-	-	10	740
강원	-	-	1	70	-	-	-	-
함남	1	210	7	137	14	300	9	500
함북	-	-	5	116	3	10	3	120
계	10	1,587	75	3,788	37	1,549	98	6,072

鄭世鉉,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 144쪽.

한편 보통학교 학생들도 민족의 항일투쟁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 1일 - 5월간 만세시위운동에 전국적으로 다수의 학교들이 참여하였던 사실은 31운동이 거족적으로 확대하여 갔던 독립항쟁임을 재확인하게 한다.

일제의 무단통치가 한민족의 항일운동을 원천 봉쇄하였지만, 학생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은 부단하게 이어졌다.

근대교육의 새로운 지식을 전수 받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 학생층의 형성은 날로 힘을 배양하여 갔다. 그리고 학생들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독립과 구국의 선도적 역할을 사명감으로 다짐하였다.

동경의 학생독립운동은 민족독립 항쟁의 길을 열었고, 유학생들은 국내 지성인들에게 독립의지를 거양 시켰다. 그리고 동경과 서울의 학생 간에 연결되는 지성의 화합으로 독립의지를 다져갔다.

학생들은 세계정세를 인식하고 신문화를 전달받아 민중계몽에도 앞장섰다. 학생독립운동은 학생층의 힘으로 독자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어갔다. 그러나 민족지도자들의 요구로 연합전선을 수행하였다.

31운동 당일 민족대표들이 구속되자, 서울 시위운동의 지도적 역할은 학생들이 담당하여 가두시위와 집회활동에 적극 나섰다.

서울의 학생운동은 평양, 부산, 대구 등지의 학생들의 시위운동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전국 각 지방 학생층의 시위주도로 민중이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귀향한 학생들은 만세시위의 정보를 전하고 민중계몽으로 거사에 궤기하였다.

학생들의 31독립운동에의 참여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립학교에 비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이 적극 참여했던 사실이다.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

31독립운동은 특정한 계층만이 부분적으로 항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유림, 상인,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이 독립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천도교, 불교의 신자들이 함께 호응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31학생운동은 학생들이 조직적인 집단을 중심으로 선도적 위치에서 전국적으로 독립의 열기를 조성하고 만세시위를 수행하여 국내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였다.

#### 4. 강원도의 3·1학생독립운동

서울의 31 만세시위가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평양,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여기에 호응하여 전국 각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중소 도시에서 면 단위 지역까지 만세운동은 계속 이어졌다. 지방의 시위에는 특히 보통학교 학생들이 종교계 등 지도자 및 지방 인사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하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43개교가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당시의 보통학교의 교육수준은 기초적인 한문수학을 마친 학생들이 많아서 현재의 초등학교 수준에 비해 월등하였고, 연령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성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보통학교는 근대적 지식교육을 통하여 민족주의 사상이 고양되어 31운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강원도에는 중등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강원도

의 학생독립운동은 서울에서 귀향한 일부 중학생들이 산발적으로 만세시위를 주도한 예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시위에서는 보통 학교 학생들이 적극 활동하였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의 보통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대표적 독립운동을 살펴본다.

### 1) 철원지방의 3.1학생독립운동

철원지방의 만세시위운동은 3월 10일에 시작되었다. 이 날은 강원도 지방의 독립운동의 시발이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1919년 2월 27일 밤 인쇄된 선언서를 강원도와 함경도 지방에 배포 책임을 진 안상덕(安相惠)은 28일 선언서 2,000매를 가지고 경원선을 이용하여 원산으로 향하였다. 강원도 평강역에 내려 평강군 천도교구장 이태윤(李泰潤)에게 700매를 전달하여 강원도 내에 배포할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3월 2일과 3일에 천도교인들에 의해 군내에 살포되어, 다른 지역보다 만세시위의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었다.

철원군은 근대문화의 수용과 함께 배영학교, 전정의숙, 봉명학교, 정의학교 등 사립학교들이 개교하였으며, 공립인 철원농업학교와 철원보통학교가 설립되어 항일독립의식이 높았다.

3월 19(?)일 철원농업학교와 철원보통학교 학생들 250명은 태극기를 들고 북간산(北看山)에 집결하여 시위를 결의하고 만세시위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만세의 합성을 외치며 읍내를 돌았다. 이에 호응하여 일반 민중들은 북간산 기슭 철원군청으로 모여왔고 청년 이배근(李培根)과 이학수(李學洙) 등이 철원군청에 게양된 일본국기 대신에 태극기를 게양한 뒤 군청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 때 군청에 도착한 학생들이 군중과 합류하여 시위군중은 군수 오태환 집으로 달려갔다. 군중들의 수는 거리를 메우고 함성은 읍내에 퍼졌다. 군중들은 군수를 폭행한 뒤 군청으로 끌고 가서 군수에게 대한독립만세 선창을 시키고 다시 만세를 불렀다.

한편 학생들과 일부 군중은 친일파로 지목 받던 박의병(朴義秉)의 집으로 몰려가 그를 구타하고 곤욕을 가하였다.

철원역의 만세시위는 3월 11일 전개되었는데 이날의 시위에도 철원농업학교와 철원보통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 2) 원주지방의 3.1학생독립운동

원주지방의 학생 만세시위는 노림(魯林)학교와 안양의숙(安養義塾)에서 일어났다. 31운동 무렵 이 학교의 교사 홍남표, 이수갑은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여 노림학교 졸업생 40여명에게 배부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3월 27일 원주군수 오유영(吳惟泳)이 부론면에 민심 수습차 순시에 나서서 면소재지인 흥호리에서 강연하였다. 노림학교 졸업생들은 강연회장에서 군수에게 항거하다가 면서기 유필준의 제지로 밀려났다. 노림리로 돌아온 노림학교 졸업생인 한범우(韓範愚)한돈우(韓敦愚)한태우(韓泰愚)한민우(韓民愚)김현기(金鉉基)김성수(金聖洙)김일수(金一壽) 등 7명은 '대한독립만세'라는 기를 만들어 군수의 귀로를 지키고 있었다. 군수가 나타나자 이들은 '철원군수도 만세를 불렀으니 원주군수도 만세를 부를 것'을 요구하며 대한독립의 정당함을 내세우며 다시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으로 한범우와 정현기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이웃 경계지역인 문막면에서는 곽한선(郭漢漩)이도순(李道淳)

이장)채홍묵(蔡鴻默)이 주동이 되고 안양의숙의 교사 홍승복(洪承復)이 학생들을 지도하여 군중동원에 참여하여, 4월 8일 100여명이 구은평(九銀坪)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마을 뒷산에 올라서 다시 만세시위를 하였다.

### 3) 횡성보통학교 학생의 상장 패용

횡성 지방에서는 3월 12일부터 시위 계획이 추진되어, 3월 27일 첫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고, 4월 1일과 2일은 횡성 장터에서, 4월 12일에는 다시 서원면 분일리(매호리)에서 만세운동이 계속되면서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였다.

연속된 만세세위로 5명의 피살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는 물론이고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이 일제 헌병에게 구속되어 고문과 태형을 받았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그 중 횡성 천도교회의 지도층 인사인 강만형(姜萬馨)은 옥중에서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sup>3)</sup>

횡성군에서는 만세시위 이전에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의 상장(喪章) 패용 시위운동이 있었다. 횡성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감리교회, 유학자들이 만세시위를 은밀히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횡성보통학교 4학년 학생 5, 6명이 주동이 되어, 학생들도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협의하고 3월 18일 졸업식 종료 후 군청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만세운동 계획 추진에 관여한 지역 인사들이 전 주민과 동참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라고 권고하자, 학생들은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 학생 대표들은 학생들의 단독시위가 무산되는 아쉬움

3) 趙東杰, 『橫城과 31운동』, 31운동기념비건립횡성군협찬회, 1972, 75쪽.

에서 다시 수회 비밀모임을 한 결과, '무언의 상장 패용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3월 16일 상장을 달고 등교하도록 전교생에게 알리었다.

3월 16일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이 고종황제의 승하를 애도하여 상장을 패용하고 등교하여 일제에 대하여 무언의 시위를 하였다. 학생들의 행동은 일사불란하였다. 일본인 중서(中西)교장은 당황하였다. 횡성 시장 거리에서도 상장을 패용한 학생들이 다수 통행하자, 헌병들은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이 학생들의 만세시위운동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휴교령을 내렸다.

3월 18일로 예정된 졸업식은 상장 시위로 중단되고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식을 거행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났다. 그 시위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일제 조선군 사령관은 3월 12일 이후부터 춘천에 주둔 중인 보병 79연대 병력의 일부를 원주로 이동시켰으며 삼엄한 경계를 폈다.

뒤 이어 3월 17일 횡성 장날 전 군민의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으니,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의 '상장 시위운동'은 곧 횡성 31만 세운동의 시발이며 자극제가 되었다. 횡성보통학교 학생들도 3월 17일의 만세시위에 대거 참여하였다.<sup>4)</sup>

#### 4) 기타 지방의 학생시위운동

만세시위는 강원도의 여타 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영월에서는 읍내 향교 인근에 위치한 영월보통학교 장준영의 집에서 4학년생 엄정훈(嚴廷勳, 20세)을 중심으로 만세계획이 추진되었으나, 4월

4) 橫城國民學校, 『橫城國民學校 80년사』, 1992, 387~388쪽(제6회 張錫潤 전 內務部長官 回顧).

15일 거사 전에 발각이 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통천군 순령면 고저에서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연 삼일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계속되었다. 노동자와 서당학생들이 합세하여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통천보통학교 기숙사 학생들은 4월 8일 태극기를 사전에 준비하여 4월 9일 아침부터 통천읍내를 돌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군청 앞에서 시위 중 모두 연행되었다.

간성(현 고성군)에서는 김동원(金東元)이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인쇄하여 배포함으로써 민중의 시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당시 개성 한영서원에 다니던 학생 이동진(李東振)이 간성에 귀향하여 청년 함기석(咸基錫)과 독립운동에 관한 선전문을 작성하였다. 그들은 선전문을 간성보통학교 4학년 교실 앞에 게시하여 학생들의 만세시위를 촉구하였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간성보통학교 학생 정종구(鄭鍾龜)남기일(南基一)이응규(李應奎) 등 7명이 선두에 서서 간성읍내 장날인 3월 17일에 전교생 150여명을 운동장에 집결시켜 일제히 쫓겨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교정에서 일차 만세를 외쳤던 학생들은 장터의 군중과 합세하려고 교문을 나섰으나 일제 관헌에게 제지당하였다. 주동학생들은 연행되었다가 일본인 교장의 교섭으로 석방되었으나, 배후 조종을 한 혐의로 이동진은 고문을 받은 끝에 6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삼척지방의 31운동은 비교적 규모가 작았다. 삼척보통학교 학생 김달하(金達河)는 4월 14일에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여 교사 김기덕(金基德)의 지도로 심부윤(沈富潤)오원모(吳元模) 등과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다음날 1시 20분경 전교생 176명을 운동장에 모으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독립만세를 불렀다. 헌병이 출동

하여 주동자 4명이 체포되고 94명은 훈계 방면되었다.<sup>5)</sup> 삼척보통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비록 교내시위에 그쳤으나 그 영향은 군내 학교에 크게 미쳤다.

## Ⅱ . 학생 독립운동의 발전

### 1. 1920년대의 학생독립운동

31독립운동이 일제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실패되자, 국내의 민족독립운동은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민족운동을 실력양성운동을 통하여 발전시키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진흥, 교육운동, 문화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한편 항일운동의 한 세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여 독립운동의 방법을 두고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1920년대 초의 사회현상 속에서 학생들은 독립의 의지를 지키며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여갔다. 1920년대 학생운동은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920년대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은 학생들이 주류가 되어 31운동 이후 다시 한번 거족적 민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632쪽; 『조선독립운동』1, 611~621쪽.

족운동으로 전개되었다. 31운동으로 학생층이 확대되고 교육의 역량이 축적되어 가능하였던 것이다.

학생들은 민족의 실력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세력의 결집을 위해 단체결성에 나섰다. 1920년 4월 서울에서 8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조선학생대회'를 조직하였다. 사업의 목적을 조선학생의 친목과 단결도모에 두고 조선물산의 장려와 지방색 타파를 강령으로 내세웠다.

조선학생대회는 강연회, 토론회, 음악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순회 강연회에도 참여하여 민중들에게 신학문을 소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섰다. 회원 수는 전국에 걸쳐 약 2만여 명이 되었다.

일제는 중등학교 교장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학생대회의 조직을 무력화시켰다. 중등학교학생들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하고 이미 가입자는 탈퇴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러나 조선학생대회는 1923년 전문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어 조선학생회로 재출발하였다. 조선학생회는 현장을 만들고 조선학생의 단결 도모, 학생문제의 해결을 기할 것, 학생 상호간의 선도와 친목 도모를 표방하였다.

조선학생회는 언론의 후원으로 민족세력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1924년 6월 조선학생총연합회가 창립 발기하면서 대립 국면에 들었으나 조선학생회의 학생운동을 교란하는 행동이라는 비난과 성토로 집회소집에 실패하고 양측의 대립 가운데 조선학생총연합회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조선학생회는 각종 강연회, 웅변대회를 개최하며 활동하였다.

조선학생총연합회도 조선학생회와의 대립 속에서 중등, 전문학생 외에 해외유학생까지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활동을 계속하여 갔다.

1925년 5월 일부 민족주의 학생과 사회주의 경향의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조선학생회 등을 배척하고 사회과학의 연구와 민족본위 교육을 강령으로 '조선공학회(朝鮮共學會)'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곧 해산되고, 그 회원 일부가 사회주의 단체인 화요회 계통과 제휴하여, 1925년 9월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창립하였다. 결성집회에는 7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사회과학의 보급, 학생의 사상상 통일과 상호 단결, 인간교육 본위의 교육 실시, 조선학생 당면 문제의 해결 등을 강령으로 삼았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학술강연, 과학강좌,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 경향의 학생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이후 동맹휴학운동에 관계하였고, 610만세 운동에서 조직과 연락책임을 맡아 많은 역할을 하였다.

610만세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통과 사회주의 계통의 민족운동이 합작하여 민족운동을 통합한 추진기구로 1927년 2월 신간회(新幹會)를 설립하였다.

이 신간회 아래 청소년들로 신간회학생부가 조직되었다. 신간회학생부는 조선학생회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두 학생단체를 조정하여 학생세력의 단일화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신간회학생회의 활동은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국의 많은 학교가 참가하도록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이를 기회로 대중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전 발각으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노선 대립으로 일어난 갈등이 심해져 신간회가 해산되자, 신간회 학생회 또한 1932년 4월 해산되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이 동화교육의 미명 아래 가일층 탄압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학생들은 가두실력투쟁 대

신에 항일동맹휴학운동의 형태로 저항방법을 택하였다.

동맹휴학은 일제가 말하던 태업이 아닌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전개였다.

조선총독부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의 행동 내용을, 무자격 교원의 배척, 시설 충실, 일제 축제일의 식전 참여 기피와 봉축가의 불합창 등으로 인식하였다.<sup>6)</sup>

이외에 일본인 교사 배척, 학생 상호관계, 지방문제,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의 반영 등이 있었다.<sup>7)</sup>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항일 저항운동이 위축된 1920년대에 학생들의 동맹휴학운동은 민족운동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1920년대의 동맹휴학운동이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1920년	20건	1921년	33	1922년	52	1923년	57
1924년	24	1925년	48	1926년	55	1927년	72
1928년	83	1929년	78	1930년	107	1931년	102
1932년	33	1933년	38	1934년	39	1935년	36

자료 : 조선총독부경무국, 「최근의 조선의 치안상황」, 1937년.

사회주의적인 학생동맹휴학운동이 일부 있었으나 1924년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민족독립의 정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민족사립학교 설립운동은 민족사상을 더욱 고양하였고 동맹휴학운동은 증대하여 갔다.

6) 朝鮮總督府警務局, 「高等警察報」, 제5호, 39쪽.

7) 金興洙, 「한국근대민족사학의 성립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歷史教育』 50집, 역사교육연구회, 1991, 77쪽.



동맹휴학운동의 발단은 일본인 교사 배척운동이 그 한 원인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의 시책으로 관공립 학교에 다수의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였다. 이들은 한국인 교사와 학생들을 감시하는 임무도 부여되었다. 이들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교육과 한국인을 멸시하는 언동으로 민족적 모욕감을 주었고 망언과 폭력을 자행하였다.

1920년대 초 항일학생 동맹휴학운동으로 대표적인 사건은 1921년 (?)월부터 6월 28일까지 계속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일본인 교수 배척운동을 들 수 있다. 일본인 교수는 민족멸시와 망언으로 조선인 학생들을 분노케 하였다. 194명의 조선인 학생들은 교내에서 조선인학생대회를 소집하여 교수 배척과 망언의 해명을 요구하며 맹휴에 들어갔다.

식민지 차별교육과 민족적 멸시에 저항한 동맹휴학운동은 많은 학교에서 계속되었다. 보통학교에서도 일본인 교원의 민족적 멸시에 맹휴로 항거하였다.

한편 교과과정 문제로 우리 역사와 국어수업을 줄이고 일본어와 일본역사를 늘려 수업하는데 대한 불만도 동맹휴학의 원인이 되었다. 그 외에 학교시설, 수업연한에서 일본인 학생들과의 차별조치에 대한 불만도 맹휴에 작용하였다. 이러한 동맹휴학운동은 식민지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자 저항이었고, 급기야는 1926년 6 10만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25년의 48건에 이르는 동맹휴학의 원인 분석에서 교장, 교사 배척이 38건, 교과과정 변경요구 2건, 학교시설 확충 2건, 학교의 기준승격 요구 5건, 기타 2건으로, 교장 교사 배척이 단연 앞섰던 점으로 보면, 일본인 교장과 교사의 배척이 동맹휴학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

8) 金興洙, 앞의 글, 79쪽.

학교 구분으로는 보통학교의 맹휴가 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많다.

1926년의 610만세운동은 순종의 인산 일을 기하여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으로 이미 조선공산당과 연관을 가지고 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학생조직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조선공산당의 계획은 일제의 예비 검속에 의하여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못하였다. 반면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울의 전문학교들과 중등학교, 중앙학교 학생들은 계획대로 거사를 추진하였다. 거사 당일 서울에는 30만의 애도 군중이 집결하였으며, 일제는 5,000여명의 군대 및 경찰을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를 폈다. 학생들이 상여 통과 지역 곳곳에서 격문을 살포하고 시위를 벌이자, 많은 학생들과 민중들이 시위대열에 가담하였다.

다음은 당시 학생들이 뿌린 격문의 내용이다.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의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만세”

단기 4259년 6월 10일

조선민족대표 김성수 최남선 최 린

당일 일제는 시위군중에게 무력으로 탄압을 가하여 210여명이 구속되었다. 6월 10일을 전후하여 고창, 순창, 군산, 공주, 전주 등 지방에서도 시위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으며, 18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 당원 100여명이 검거되어 와해되었으며, 11명의 학생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총독부는 학교 측에 만세시위 참가 학생들의 처벌을 지시하여 다수 학생들이 무기징역을 당하였다.

610만세운동은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투쟁이 좌절되었으나, 그 영향은 전국에 퍼져나가 이에 동조하여 각지에서 식민지교육과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는 동맹휴학이 그치지 않았다.

강원도 지방에서도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전개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다. 6월 13일 원주보통학교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학교 뒷산에서 망곡례를 행하였다. 1926년 10월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순종황제 서거에 대한 애도 상장 폐용 문제로 일본인 교사의 민족을 멸시하는 언동에 항의하며 교사 배척 맹휴를 하였다.

1927년 4월 평강보통학교 학생들은 지역 거주 일본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항하여 처벌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927년 9월 춘천농업학교, 1929년 5월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각각 동맹휴학을 단행 또는 계획하는 등 맹휴는 계속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은 610 만세운동을 통하여 다시 전기를 맞았으며,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갔다.

1929년 11월 3일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은 지속되어 온 동맹휴학운동을 기반으로 일제의 식민교육에 대한 철폐 요구와 한국의 역사 교육 요구 등 한국본위의 교육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학생운동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면을 들어 배후의 사주선동으로 간주하여, 사회주의운동자들이 배후 조정한다고 하며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신간회 등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감시하며 민중운동과의 연결을 저지하였다.

1920년대의 항일학생운동은 광주학생운동이후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고 전국적인 동맹휴학,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 더욱 강압적인 식민지통치하에서 꾸준히 전개하여오던 국내민족운동이 난관에 처해 있을 시기에 학생들의 주도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즉 광주학생의 거사에 전국적인 학생의 쫓기가 촉구되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항일민족운동이 계속되었다.

광주학생운동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대일항쟁에서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피검자 1,642명의 희생을 가져왔으며, 참가학교 194교, 참가학생 수는 약 5만4천여 명이었다.<sup>9)</sup>

다음은 광주학생운동시의 격문이다. 이 격문을 통하여 희생을 각오한 광주학생의 항일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 격문 1

장엄한 학생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들의 슬로우건을 지지하라!  
그리하여 쫓기하자! 싸우자! 굳세게 싸우라.  
검거자를 즉시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교내에 경찰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직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적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 격문 2

조선민중아 쫓기하라.

---

9)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자료편 5, 1968, 261쪽.

청년대중아! 죽음을 초월하고 싸우라.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  
재향군인단의 비상소집을 즉시 해산하라.  
경계망을 즉시 철폐하라.  
소방대, 청년단을 즉시 해산하라.  
만행의 광주중학을 폐쇄하라.  
기성학부형위원회를 분쇄하라.

## 2. 1930년대 학생독립운동 심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학생은 물론 전 국민의 항일민족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29년 2월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당시의 민족운동을 침체상태인 '퇴조기'로 파악하고 활동에 비관적 견해들을 토로하였다. 1929년 1월의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4월까지 장기간 계속되었지만,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대 연계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우려는 1930년 봄이 되면서 바뀌어 갔다. 1929년 10월 뉴욕 증권가에서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사회주의 운동자들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의 시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말기현상으로 혁명적 시기로 보였다. 더욱이 1929년 11월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의 사건으로 역사의 전환기라고 보았다.<sup>10)</sup> 그리하여 대중투쟁의 열기는 학생, 노동자, 농민운동에까지 확산되었다.

세계대공황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후인 1930년 - 1931년

10) 임경석, 「세계공황기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의 세계정세인식」, 『역사와 현실』, 11, 1994, 24~34쪽.

에 학생들의 동맹휴학운동, 노동자의 파업, 농민의 소작쟁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참여인원도 이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이는 항일운동의 전 부문에 걸쳐 대중투쟁이 고양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열강은 뉴우딜정책과 블럭경제화정책 추진으로 공황에 대처하여 나갔으나 일본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농산물 수요는 줄어 가격은 폭락하고 비료값은 인상되어 농민의 생활은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시기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으며, 학생들의 시위운동은 전국에 확산되고 신간회와 노동자, 농민조합이 개입하여 학생의 시위운동과 연계로 발전하자 노동자 농민의 항일의식은 파업과 시위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고조되었던 민족운동은 1932년 이후 약화되어 갔다. 신간회의 해산으로 민족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

세계대공황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은 군국주의화되어가고 1931년 9월 공황타개를 위해 만주침략을 시작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에서 문화정치를 버리고 전시체제 통치로 바꾼 뒤 한국의 민족운동을 극도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대중투쟁 대신에 정예 학생들 중심의 비밀결사운동으로 전국에 확대되었다. 당시 학생비밀결사의 특징 중에는 사회주의 또는 반전반제의 성격을 띤 단체들이 많았다. 경성제국대학 반제부의 설립을 비롯하여, 평양고보의 독서회, 동래고보의 적기회, 공주고보의 독서회, 원산 각 중등학교의 연합독서회, 함흥의 학생공동위원회 등 많은 비밀결사가 결성되었다. 이들 비밀결사들은 만주침략을 전후하여 반전반제투

쟁이 요구되었던 당시의 정세와 관계있다고 하겠다.

당시 비밀결사들이 모두 사회주의와 반전반제의 단체들이던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주도로 농촌계몽이 활발하였으므로 그 영향을 받아 성립된 독서회도 상당수 있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상록수운동과 독서회가 대표적이다. 1920년대 초반부터 건아단(健兒團)과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를 조직하여 활동 중 적발되었던 수원고등농림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이 전통을 계승하여 김종수(金鍾壽) 등이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야학을 설치하여 문맹퇴치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교내에는 독서회를 만들어 황국신민학교육에 반대하며 식민지 농업정책에 대항하는 등 민족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35년 7월에 발각되어 관련자 11명이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sup>11)</sup>

학생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으킨 문자보급운동에 참여하여 농촌계몽운동과 문맹퇴치에 나서며 평화적인 수단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등의 구호를 내건 ‘한글원본’ 책을 나누어주며, 1929년 여름부터 1934년까지 귀향학생 문자보급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는 125개 교에 4,91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특별반 161명을 포함하여 총 참가 인원은 5,078명으로 조사되었다.<sup>12)</sup>

동아일보에서도 1928년 8월 창간 8주년 행사로 문맹퇴치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총독부의 간섭으로 실패하였다. 동아일보는 다시 1931년 7월 ‘브나로드(Vnarod : 인민 가운데로)’운동을 전개하였다. ‘브나로드’ 운동은 19세기 러시아에서 지식층이 농민 속으로 들어

11) 鄭世鉉, 앞의 책, 463~464쪽.

12) 『조선일보』, 1934년 6월 10일.

가서 계몽운동을 전개한 것에서 유래된 운동이다. 하기방학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촌에 나가서 야학을 개설하여 문맹자에게는 한글을 가르치고 보건, 음악, 연극 등을 지도하면서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운동에는 1,321개 지역에 5,75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수강생 총인원은 9만 8,598명이었다.

1921년 창립된 조선어연구회는 1931년 1월 조선어학회로 개칭하고 조선어강습회 개최와 문자보급운동의 교재를 제작하는 등 사업으로 조선일보의 농촌계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4차 연도인 1934년까지 벌인 이 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은 기독교계통에서도 문자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앙기독교청년회의의 문맹퇴치운동과 하계성경학교의 문자보급운동이 대표적이었다. 하계성경학교의 경우 1933년에 장로교, 감리교의 1,139개교에서 7,951명의 교사가 11만 6,518명의 학생을 지도하였다.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로 대표되는 소설들은 이 시기의 농촌계몽운동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적인 민족운동도 1930년대 후반에 가면서 더욱 어려워진다. 일본은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6년 2·26사건을 계기로 군부파시즘체제로 이행하였고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되었다.

일본의 미나미(南次郎)총독은 병참화정책과 함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37년 10월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 관공서, 회사 등 모든 단체의 조회와 모임에서 강제로 제창하게 하고, 1면 1 신사정책을 추진하여 참배를 의무화하였다.

1939년 11월에 들어서서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행하여 한국인



의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동화정책을 강요하였다.

1936년에 제정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사상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항일민족운동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내에서도 전개되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으며 조회시간에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해야만 했다. 1938년에는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어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가 학생들에게 철저히 강요되었다.

일본인 학생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명분으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을 일본식으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고치고 교육과정도 개편하였다. 한국어 시간은 전부 없애고 수업도 일본어로만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치체제하에서 활동범위는 축소되었지만, 학생들의 비밀결사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오히려 1930년대 후기의 비밀결사는 전반기의 사회주의 색채와는 다르게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좌익편향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인민전선 전술을 채택한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 결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강원 지방의 학생비밀결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37년 3월 춘천고등보통학교에서 남궁태(南宮珩)이찬우(李燦雨)·백흥기(白興基)문세현(文世鉉)용환각(龍煥珪)조규석(趙圭錫) 등 6명이 결성한 상록회(常綠會)였다.

학생들은 독서회를 조직하여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매월 정기 모임을 가지고 민족주의와 독립운동 방안, 귀농운동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춘천농업학교 독서회와 연대하고 졸업생 회원들과 연락하면서 민족 교양을 함양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수양단(修養團)이란 농민단체도 조직하고 이찬우·백흥기 등 졸업 회원들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가하면서 모교의 학생활동을 지원하였다.

상록회는 1938년 가을 적발되어 관련자 12명이 최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밖에 원산상업학교의 경회(鯨會), 광주 서중학교의 독서회, 대구사범학교의 운동회, 함흥농업학교의 지경친목회, 강서친목회 등 1940년대까지 활동이 계속되는 학생비밀결사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결성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재판을 받은 학생들과 퇴학을 당한 많은 수의 학생들도 학생운동과 협조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거나 청년, 노동, 농민운동에 참여하여, 각 부문에서 1930년대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40년대에 일본제국주의의 발호는 극심하여졌다.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는 전쟁에 휘말려갔고, 식민지 통치하의 한국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해 착취당하였다.

일제는 국민총동원체제를 강화하여, 식량공출제, 노동력 강제동원을 시행하였다. 학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애국반상회를 만들어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하였고, 1944년에는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을 만들어 중등학교 고학년은 360일, 저학년은 180일을 노령봉사에 동원되었다. 여기서 한 걸음 나가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어 전문대학과 대학의 학생들이 전쟁에 끌려갔다.<sup>13)</sup>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하여졌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과 조선독립의 확신은 한국인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었다. 한 동안 줄었던 사상범죄가 1941년부터 증가되었는데, 학생이 관련된 것 같은 경

13) 趙東杰, 「日帝末期戰時收奪」,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 988~990쪽.

향을 보이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이 시기에 학생비밀결사로 대구사범의 문예부 등 조직과 함흥의 철혈단, 대구상업의 태극단, 광주서중학교의 무등회 등을 들 수 있다.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 오면서는 학생들의 무장항쟁운동이 계획되기도 하였으나, 시행 초기에 발각되어 실패하였지만 이들의 독립의지는 지대하였다.

### 3. 강원도 학생독립운동의 발전

#### 1) 보통학교 학생의 항일독립운동

당시 보통학교는 학생들의 연령이 높기도 하였지만 학력수준도 서당 또는 한문을 수학한 학생들이 많아서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늘에 비해 월등하였다. 이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지치하에서 투철한 민족 독립의식을 가지고 식민지교육의 차별에 대항하여 만세 시위와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항일민족운동의 저변이 그만큼 넓었음을 의미한다.<sup>15)</sup>

1926년 이후 1928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항일학생운동이 610만세에 영향을 받아 보통학교학생들의 동맹휴학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각 지방의 대표적 학생동맹휴학과 그 발단 원인 등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4)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光州學生獨立運動史』, 1996, 208쪽.

1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제5권, 1977, 449쪽.

일 시	학 교	동맹휴학의 원인
1926년 4월	청양보통학교	일본인 교장과 교사 배척
1926년 4월 30일	강화 길상보통학교	순종서거 애도로 상장 패용 탄압
1926년 5월 5일	진남포 제1보통학교	일본인 교장과 교사 배척
1926년 5월	논산보통학교	순종서거 애도
1926년 6월 5일	경주보통학교	일본인 교사의 민족멸시의 모욕적 발언
1926년 6월 2일	황해도 신평보통학교	한국인 모욕언사와 편지사전검열
1926년 6월 14일	제천보통학교	일본인 교장 배척

위의 사례에서 보면 일본인 교장과 교사의 민족멸시 언행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폭언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의도적으로 민족의 열등감을 가지게 하려고 하였으며 폭행도 예사가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민족차별과 민족멸시의 태도를 일본인 교사들로 하여금 자행하게 하였으니 학생들의 저항과 민족적 분노를 자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학생들의 동맹휴학운동의 원인을 동맹휴학 이유서에서 살펴본다.

#### 동맹휴학 이유서

- 금반 이왕전하께서 승하하심에 대하여 교장선생의 말이 이왕전하를 이태왕양(李太王樣)이라 하니, 이는 이왕전하인지 이태왕전하인지 불변(不辨)하는 교장선생이고, 기타 다수 불경의 사(事)가 유하다.
- 수업료를 불납한 사람에 대하여 도적놈이라는 극도의 몰상식한 어법을 썼다.
- 학교내의 일을 교장이 주의시키지 않고 경찰서에 부담시켜 학생 5, 6인을 10여 시간 취조 받게 한 무책임한 일
- 학생을 무리로 압박하고 또는 선생이며 학생에게 불측한 행동과 불

친절한 언행 또는 무단히 노하는 폐, 기타 다수의 불친절이 있음.<sup>16)</sup>

진정서에는 교내의 사소한 학생 사안에 대하여서도 경찰의 사찰에 의뢰하는 일본인 교장의 행위를 규탄하는 것도 있었다.

위의 학교들 이외에도 항일운동으로 맹휴에 들어간 보통학교들은 전국적으로 많았다.

일제의 고등경찰의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1921년 - 1928년간의 각급학교의 동맹휴학 총수는 404건이며 그 중 보통학교가 192건으로 절반에 가깝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 동맹휴교의 연도별 비교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계
건수	사립	2	2	7		8	6	6	5	36
	관공립	4	18	15	5	30	27	30	27	158

31운동 이후 강원도는 특히 보통학교의 동맹휴학운동이 거듭 전개되었다. 이것은 꾸준한 민족의 항일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은 강원도에 널리 파급되어 동맹휴학운동으로 일어났다.

1926년 이후 전국적인 학생운동의 흐름 속에서 강원도 지방에서 일어난 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의 회수는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인다. 동맹휴학의 원인도 일본인 교사의 배척이었던 것으로 보아 항일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하겠다.<sup>17)</sup>

16) 1926년 6월 17일, 東亞日報.

17) 李求鎔金興洙崔昌熙,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III), 光復會江原道支部, 1992, 416~417쪽.

### (1) 삼척보통학교

삼척보통학교 학생들은 4학년 담임인 김기덕(金基德)교사로부터 세계정세와 국내 동향을 자주 들었다. 즉 1921년 11월 무렵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리게 되자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이 기회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할 기회로 삼아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과 국내에서의 시위계획과 학생들의 동맹휴학운동 추진상황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1921년 11월 9일 4학년생 오원모(吳元模)최삼용(崔三龍)심부윤(沈富潤)김윤달(金潤達) 등이 중심이 되어 동맹휴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보내온 것처럼 선전지를 작성하여 등교 길에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 회의를 열어 항일시위와 동맹휴학을 결의하였으나 실행 전에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기덕 교사와 오원모 등 관련 학생이 경찰에 연행되어 고초를 당하였다.<sup>18)</sup>

### (2) 고성보통학교

고성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의 한국인 멸시 언행에 대항하여 교사 배척운동을 일으켰다. 군인 출신인 일본인 교사 등전문일(藤田門一)은 평소에 한국인 학생들을 대할 때 민족 모욕과 폭언, 폭행까지도 자주 하였다.

1923년 4월 4, 5학년 학생 60여명은 등전(藤田)의 축출을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감행하였다.

---

18) 趙東杰, 『太白抗日史』, 강원일보사, 1977, 245~252쪽.

### (3) 양양보통학교

양양보통학교에서 일어난 항일동맹휴학운동도 일본인 교사 배척에서 발단되었다. 일본인 교사 고하(高賀)는 무자격 교사로서 태도가 심히 불친절하였다. 그는 일본인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어린 한국인 학생들에 대해 민족적 멸시로 무시하였다.

1926년 12월 양양보통학교 5학년생 160여 명은 일본인 교사 고하를 배척하고 동맹휴학운동에 돌입하였다. 처음에 학생들은 교장의 간곡한 권유로 등교를 하였다.

그러나 1927년 2월 9일 고하 교사가 사직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수업에 임하자, 5학년 학생들은 재차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혈서로서 고하 교사를 배척하려는 뜻을 관철하려 하였다. 그리고 2월 15일 다시 단식동맹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였다.

학교 당국의 노력으로도 학생과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사태가 확대되자, 학부모들이 개입하여 학생들을 설득하였다. 급기야는 고하의 사직으로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끝내고 정상 등교하였다.<sup>19)</sup>

### (4) 원주보통학교

원주보통학교 학생들은 순종황제의 인산 일에 일어난 610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순종황제에 대한 망곡(望哭) 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학생들의 신망을 받던 김용형(金容亨)교사는 6월 13일 서울의 인산과 만세운동 소식을 전해주며 학생들의 궤기를 자극하였다. 이에 6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수업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상급생들은 학교 뒷산인 봉산과 남산의 숲 속에서 서울을

19) 李求鎔金興洙崔昌熙, 앞의 책, 418~419쪽.

향하여 망곡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급거 출동으로 학생들은 분산하여 귀가하였다.

일본인 교장 원실(原實)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궁여지책으로 학교에서 망곡제를 거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교를 당부하였다. 이튿날 학교장은 교정에 천막, 제상, 술과 과일을 준비하였고 학생들은 전원 등교하여 남녀 일천여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통곡하며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그러나 교장 원실은 문책인사로 좌천되었고 김용형 교사도 전출되었다.

원주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교장이 망곡제를 무마책으로 거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지를 관철시킨데 의미가 깊다.<sup>20)</sup>

#### (5) 평강보통학교

평강보통학교 남학생 전원이 일본인과 그 자녀의 문제로 충돌을 일으켜 동맹휴학을 하였던 사건이다.

평강 읍내에는 일본인 잡화상인 신원철태랑(新原鐵太郎)이 있었는데, 평소에 한국인에 대한 멸시의 언동과 행패가 심하였다. 1927년 4월 6일 아침에 평강보통학교 2학년생 조병식(趙丙植)과 이창엽(李昌燁)이 일본인 잡화상 신원의 아들 강일(康一)과 충돌하였다. 강일이 자전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두 학생의 책보를 빼앗아 진흙물 도랑에 던지게 되어 서로 다투었다. 한인 두 학생은 그대로 등교하였다.

다음 날인 4월 7일에 같은 학교 2학년 이순석(李淳錫)이 역시 아침 등교 길에 일본인 소림단장(小林丹藏)의 아들 현일(賢一)이 이유 없이 달려들어 폭행하여 이가 부러지는 등 증상을 입었다. 그러나 현일은 입건 처벌도 되지 않았다.

20) 趙東杰, 앞의 책, 249~250쪽.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평강보통학교 학생들은 6일의 사건에 이어 일어난 일본인의 횡포에 민족적 분개로 흥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인들의 만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절대 등교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당황한 학교측은 학부형회의를 열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sup>21)</sup>

## 2) 춘천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운동

일제는 31운동 이후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식민지 교육도 회유정책을 실시하여, 1922년 2월 4일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조선교육령의 기본은 일시동인(一視同仁) 정책을 내세우고,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교육을 불식하며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동일한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교육에도 적용한다.
- 교육제도를 원칙적으로 일본과 동일하게 하고 한국인에게 대학교 교육과 사범교육을 실시한다.
- 보통교육에 있어서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소학교)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보통학교)로 구분하고 실업교육 이상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인정한다.
-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을 일본과 동일하게 한다.  
형식상으로 '일시동인'(一視同仁)을 실현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던 학교제도를 개선하여, 한국인

21) 李求鎔金興洙崔昌熙, 앞의 책, 419~420쪽.

에 대한 교육차별을 없애고 일본의 교육과 같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일본인 소학교)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한국인의 보통학교)라는 구분을 적용하여 민족적 차별은 이전과 같이 두었으며, 다만 한국인을 동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이었다.

1911년의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한국의 중등학교는 4년제의 고등보통학교와 3년제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제였다. 수업연한이 일본의 학교에 비해 짧아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었다.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없애, 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인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지방에 따라 3년제로 하였으며, 각각 1년의 보습과를 설치하였다. 농업상업실업학교는 3-5년제로 하였고, 3-4년의 실업보습학교 과정을 설치하였다.

일제의 실용주의 교육방침의 추진으로 강원도에는 중등학교로는 1910년에 설립된 2년제의 춘천농업학교만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1924년 3월 31일 관립 춘천고등보통학교(현재의 춘천고등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아 4월 25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교장으로 평양고등보통학교의 좌등원장(佐藤元藏)이 부임하였다.

개교 당시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입학정원은 100명이었으며 갑조, 을조 두 학급이었다.<sup>22)</sup> 춘천고등보통학교는 초창기인 610만세운동 때부터 전국적인 학생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광주학생운동 이후까지 계속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독립운동 기운을 강원도 일원에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강원도 학생독립운동의 중요한 맥이 되었다.

22) 춘천고등학교동창회, 『춘고 60년사』, 1985.

춘천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과 시위운동을 610만세와 광주학생운동의 양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6·10만세운동과 동맹휴학

1926년 4월 26일에 순종이 서거하였다는 소식은 일시에 경향 각지에 전하여졌다.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소식을 접하고 민족적 울분과 애도애차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당국이 서거 5일이 지나도록 황제서거에 대한 공식발표와 애도의례가 없자, 이는 학교가 한민족을 멸시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여 분개하고, 이에 대항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최고 학년인 3학년 을조의 조장 최병규의 주도로 강당에 집결한 학생들은 황제서거에 애도하는 복상문제를 의론하고 상장을 폐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알게 된 일본인 교무주임 모리(森廣美)는 총독부의 지시가 없다며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야만인 자식들’, ‘개새끼들’ 등의 모욕적 언동을 학생들에게 퍼부었다.

학생들이 분개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좌등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학생 개인적인 상장 폐용은 묵인하겠다고 조치하여, 더 이상의 사건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리 교사의 민족적 모욕을 주는 폭언과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을 수시로 구타하였다.

학생들은 모리 교사 배척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926년 10월 4일 학교와 도학무과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동일 오후 2시부터 고학년인 3학년 학생들 120명이 일제히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동맹휴학의 표면적 사유는 일본인 교사 배척이었다. 그러나

그 실제의 발단 이면에는 610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동맹휴학 다음날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고 등교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리 교사의 사퇴를 강경하게 주장하며 등교를 거부하였다. 학교는 동맹휴학의 주동 학생 최병규(崔秉圭)·이영길(李永吉) 등 4명의 학생은 퇴학시켰다.

배척의 대상인 모리 교사는 주동 학생인 최병규를 하숙집으로 찾아와 전학생에게 맹휴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며, 전원 징계 퇴학은 물론 학교를 폐쇄한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 최병규는 모리 교사의 인책사퇴를 주장하며, 징계는 본인과 이영길만이 대상이며, 다른 학생들은 징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운동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해결이 장기화되자, 총독부 학무국장까지 개입하여 최병규·이영길을 면담하고 설득하였다.

긴급학부형회의가 소집되어 교섭위원을 선출, 중재에 나섰다. 10월 10일 교섭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이임수 등 5인은 학생대표에게 학생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을 학부형 측에서 담당하여 해결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맹휴학운동을 종결하고,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졌다.<sup>23)</sup>

1926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 까지 계속되었던 춘천고보의 동맹휴학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최병규 등 4명의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말았다.

이 1차 항일동맹휴학운동은 이후의 항일운동에 선구가 되어 계승되어갔다. 제1회 입학생 100명 중 정상 졸업생은 32명뿐이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항일운동과 관련되어 희생되었다.<sup>24)</sup>

23) 東亞日報, 1926년 10월 13일.

24) 『춘고 60년사』, 213쪽.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1929년 조선본위교육의 주장을 내세우고 제2차 동맹휴학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한민족에 대한 단계적 교육정책으로 한국어의 수업시간을 감소하고 일본어 시간을 늘렸다. 그리고 한국어는 교과과정에서 제외되고 일본사를 교육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려는 동화정책이며 노예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610만세운동은 이러한 일제의 노예교육에 정면 대항하였다. 610만세의 시위운동이 전국에 파급되면서 학생들은 노예교육의 철폐와 조선본위의 교육 실시를 강령으로 내세우며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강원도에서는 1929년 5월 10일 춘천고등보통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역사와 조선어문법의 교수, 조선어 시간의 확대, 독서의 자유, 학우회 운영의 학생위임 등을 요구사항으로 결정하고 동맹휴학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사전에 감지하고 저지함으로써 실행하지 못하고, 주동학생 6명이 징계로 정학에 처하여졌다.

조선본위교육의 주장을 내세우며 계획된 동맹휴학운동은 사전 발각되었지만 학생들의 항일운동의 목표가 일본인 교사 배척이라는 학내문제에서 민족적 선결문제를 제시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강원 지방의 식민지교육에 대한 반대운동은 한 걸음 앞서 춘천의 청년운동에서도 제기되었다. 1925년에 창립된 강원청년연맹은 1927년 9월 혁신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인 교육제도개선에 관하여 조선인본위로 노력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제2차 춘천고보의 동맹휴학운동에서 제기되었음은 그 영향과 함께 강원

청년연맹과의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sup>25)</sup>

## (2) 광주학생운동 이후 만세시위와 동맹휴학

31운동에서 점화된 항일학생독립운동은 610만세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1929년 11월 3일 광주항일운동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광주항일 학생운동은 단 시간에 전국에 확대되어 각급학교에서는 일제의 민족차별교육, 노예화교육에 항거하는 동맹휴학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춘천지방에는 광주학생운동의 소식이 뒤늦게 전하여졌다. 이 소식을 들은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였다. 2학년 갑조의 곽재원(郭在元)이창호(李彰浩)정원식(鄭元植)김영일(金英一)김용덕(金龍德) 등은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자금을 모으고 서울의 사정을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행동을 취하기로 하고, 곽재원을 서울로 보내 서울 학생운동의 동향을 탐사하도록 하였다.

곽재원은 인제 출신으로 서울의 보성고보에서 2학년 재학 중 전학을 온 학생이었다. 그는 다른 학생보다 민족사상이 강하여 학교에서 일본인 교사 배척과 조선인본위의 교육을 주장하였던 일도 있어서, 학생들 간에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동향 출신 이창호 등과 은밀하게 학생운동을 도모하여왔다.

곽재원은 상경하여 동향친구인 중등학교 학생 박광옥(朴光玉)으로부터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소식과 학생운동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춘천으로 내려왔다.

계획을 추진하던 학생들은 비밀회합을 갖고 만세시위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웠다. 격문은 곽재원이 그가 하숙하고 있던 김상준 집

25) 이구용김홍수최창희, 『춘천항일독립운동사』, 춘천문화원, 1999, 325쪽.

(현재의 중앙시장 부근)에서 만들어 1천여 매를 프린트하였다. 그 중 200매는 춘천농업학교 동지들에게 넘겨주고, 800매는 거사일인 12월 19일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거사 장소는 춘천고등보통학교로 정하였다. 격문은 광주학생운동의 내용과 민족해방을 위하여 동맹 휴학을 단행하자는 결의였다.

오호(嗚呼) 백의의 신흥동지여! 피압박민족은 너희들의 압박교육에 복종해야 하는가. 해방운동을 위하여 결사의 각오로 휴교를 단행하자.

12월 19일 아침에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등교한 5인의 주동 학생들은 전교의 각 학급 교실을 돌며 격문을 살포하였다. 거사의 시작은 2교시 시작 종소리를 신호로 하기로 춘천농업학교 학생들과 약속이 되었다.

5학년은 이날 졸업시험을 치루고 있었다. 2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왔다. 광재원이 조례대 단상 위로 올라가서 광주학생운동과 전국에서 학생들이 껴기한 사실을 알리며,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껴기할 것을 선언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전교생이 이를 따라 만세를 불렀다.

이 때 일본인 교사 귀산(龜山)이 달려와서 광재원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광재원은 끝까지 만세를 선창하였고 학생들도 그를 따랐다. 일인 귀산 교사에 의하여 광재원은 교무실로 불려갔고, 학생들은 담임교사들에 의해 교실로 들어갔다.

학교 측에서는 출입문을 닫고 학생들의 동요를 봉쇄하였다. 이에 격분한 5학년 갑조 학생들이 교실 유리창문을 부수고 책상 걸상을 집어 들고 뛰어나왔다. 흥분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다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교장의 거듭된 사과로 학생들은 진정이

되어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이 곧 출동하여 관재원을 비롯한 10여명의 학생들을 연행하였다. 그리고 춘천농업학교에 전달한 200매의 격문도 압수당하였다. 20일에도 일부 학생들의 항일 시위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조기방학을 실시하였다.

20일부터 춘천의 지역사회 인사들에 의해 체포된 학생들의 구제운동이 진행되었다.

춘천고보 학생들의 만세 시위에는 350여명이 참여하였다. 체포된 학생은 10명이었고 그 중에 6명이 송치되었으나 1930년 1월 9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은 퇴학 처분되었고, 5명은 무기정학 당하였다.<sup>26)</sup>

1920년대 학생동맹휴학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었던 일본인 교사 배척운동이 강원도에서 다시 일어났다. 2차례의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한 춘천고등보통학교는 이후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학교의 전통적인 맥으로 이어갔다. 춘천고등보통학교는 강원도의 유일한 인문계 중등학교로서의 자부심과 신지식인의 긍지로 지역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애국사상은 한서 남궁역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sup>27)</sup> 남궁역은 홍천군 서면 모곡리(보리울)에서 무궁화 묘포를 만들고 학교를 세워 그 무렵 민족교육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며, ‘현재 조선이 일본에 침탈되었으나,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꺾이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면 독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애국의식을 심어주었다.

26) 『朝鮮日報』, 1930년 1월 10일. 『中外日報』, 1930년 2월 12일.

27) 『춘고 60년사』, 216쪽.



춘천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운동은 일본인 교사 오카다(岡田)의 학생폭행에서 발단되었다. 오카다는 자주 민족정신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여 학생들의 미움과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은 1935년 6월 24일 수학수업 시간 중 숙제검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태도가 좋지 않자, 오카다가 학생들을 구타하고 폭언을 하였다. 28일 학생대표가 오카다 교사의 집을 방문하여 모욕적인 언행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오카다는 민족을 모욕하는 폭언을 다시 계속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오카다의 배척을 결의하였다.

7월 1일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오카다 교사의 사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직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5학년 등 학생들 250여명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학생들은 진정서에서, 오카다(岡田) 교사를 즉시 사퇴시킬 것, 차별교육을 금지할 것, 조선어 시간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전임교사를 둘 것 등을 주장하였다.<sup>28)</sup>

학부모협의회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끝내고 등교할 것을 촉구함으로서 사태는 10일 만에 일단 끝났다. 오카다는 사직하였으나, 동맹휴학을 일으킨 주동학생들은 7월 14일 징계회의 결과, 4명 퇴학, 7명 무기정학 등 24명이 처벌을 당하였다.<sup>29)</sup>

이후 춘천고보의 3차례의 학생동맹휴학운동은 비밀결사인 상록회 운동으로 다시 이어갔다.

### 3) 춘천농업학교의 동맹휴학운동

춘천농업학교(현재의 춘천농공 고등학교)는 1906년 통감부의 실

28) 『朝鮮日報』, 1935년 7월 5일. 『東亞日報』, 1935년 7월 7일.

29) 『東亞日報』, 1935년 7월 17일.

업교육령에 의한 농업학교설치에 관한 칙령(1910. 3. 28)으로 설치되었다.

1910년 4월 29일 1년제의 춘천공립실업학교로 개교하였다. 강원도 최초의 근대교육 도입 후의 중등교육기관이다. 공립학교로는 전국적으로 소수의 중등학교의 하나였다. 비록 일제의 간섭이 시작되었지만 시기적으로는 대한제국의 주권 하라는 의미도 있다. 초대 교장은 강원도관찰사인 이규완(李圭完)이 겸임하였다.

1911년 11월 2년제의 춘천공립농업학교로 개편되었고, 1926년 12월 5년제로 승격되어 전국적인 유수의 명문교로 발전하여 갔다.

춘천농업학교는 춘천지방 31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하였다. 서울 학생의 만세시위운동이 아직 전하여지기 전에, 5회 졸업생인 양양 출신의 김병환(金秉煥)이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 궤기를 촉구하여, 2학년생 김종식(金淙植)의 하숙집에 유재화(劉在和)김영한(金永漢)정만시(鄭萬時)김주경(金周卿) 등이 모여 만세시위운동 전개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거사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노무라(野村)교장이 설득에 나섰다. 학생들은 예정대로 3월 7일 조회시간에 일제히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 소방대가 동원되어 학교를 포위하여 교문 밖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교내 만세시위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수업이 중단되어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또 한 차례 만세를 불렀으며 기숙사 주변에는 아침마다 ‘조선민족은 끝까지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단결하고 궤기하라!’라는 백수십 매의 격문전단이 뿌려졌다.

학교는 3월 10일 1주일간의 휴교령을 내렸다. 휴교령과 함께 경찰에 의해 주동학생인 유재화김종식김영한 등 20여명이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다. 이 보다 훨씬 시일이 경과한 뒤 춘천에서 민중

에 의해 31독립운동이 벌어졌다.<sup>30)</sup>

(1) 6·10만세운동과 동맹휴학운동

610만세운동 이후 전국적인 항일학생운동의 기치는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대한 항거가 대부분의 성격이었다.

1920년대의 항일학생운동의 흐름으로 각 지방에서 연속적으로 동맹휴학운동이 일어났던 바, 이러한 운동은 춘천농업학교에서도 감행되었다.

동맹휴학의 발단은 신임 일본인 교사인 오카와(大川立七)의 민족적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오카와는 부임 후 무용한 실습을 시키면서 불만을 샀고, 한국인에 대한 민족 멸시의 발언을 자주하면서, ‘조선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여 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조선인은 어쩔 수 없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주저 없이 하여 민족감정을 자극하였다.

드디어 3년제의 마지막 졸업반인 손의재(孫義在)박웅남(朴熊南)장삼영(張三英)홍완식(洪完植)정재철(鄭在哲)김윤옥(金潤玉)김기영(金琪榮)김중영(金仲榮) 등은 오카와 교사를 배척하는 동맹휴학을 모의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교장 시부다(澁田)에게 전달하고 3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해답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이 잔정서를 통해 요구한 것은, 교무주임 오카와(大川)를 학교에서 추방할 것, 쓸데없는 실습을 무가치하게 시키지 말 것, 학교의 제반 시설을 충실히 할 것, 교수 내용을 충실히 할 것 등이었다..

3일간의 약속 일이 경과하였으나 학교 측은 답변이 없었다. 1927년 9월 12일 학생들은 학교에 자퇴원을 제출하고 교내농성시

30) 춘천농업고등학교 동창회, 『春農 75年の 脈絡』, 1984, 69쪽.

위를 시작하였으며, 2학년 학생들도 동조하여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sup>31)</sup> 학교는 학부모, 졸업생들과 함께 무마하려 하여 중재를 거쳐 10월 하순에 학교는 정상운영으로 돌아왔다. 사건의 중심이 된 3학년 학생들은 다음 해에 졸업하였다.

1928년 여름 방학이 끝나면서 3학년으로 진급된 학생들이 오카와 축출을 요구하며 다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도학무과와 교장은 학교의 안정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대로 오카와를 면직하였다.

2년 동안 계속된 동맹휴학운동으로 일본인 교사는 축출되었으나 7명의 학생들이 퇴학처분을 받았다.<sup>32)</sup>

## (2) 광주학생운동과 만세시위

총독부의 보도통제가 강화되어 1929년 11월 3일의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였다는 소식이 춘천지방에선 12월 10일 경에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은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광주학생운동의 열기를 춘천에서 다시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은 격문 200매를 춘천고보 학생들로부터 입수하고 만세시위 계획을 추진하였다.<sup>33)</sup>

4학년인 김무규(金武圭)송철호(宋哲鎬)김남순(金南舜)이정호(李曄浩)윤향학(尹香鶴), 3학년 윤여중(尹呂重)윤형중(尹衡重)임문승(林文承)김금덕(金今德), 2학년 신유철(申瑜撤)김재준(金才俊)김덕균(金德均), 1학년 이승춘(李承春 : 전 춘천시 국회의원) 권의준(權儀俊) 등이 시위 계획 협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꺾기 격문을 만들고 12월 19일 조회를 이용하여 교내에

31) 朝鮮日報, 1927년 9월 15일.

32) 『春農 75年の 脈絡』, 319쪽.

33) 趙東杰, 『太白抗日史』, 254쪽.

서 만세를 부르고 학교 밖으로 진출하여 춘천 중앙로에서 춘천고보 학생시위대들과 합세하여 가두 만세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거사일 전에 장소를 옮겨 격문을 인쇄하였는데, 이를 보관한 것이 일본인 교사에게 발견되어 계획에 차질이 일어났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하였다.

19일 아침 조회시간에 학교 주위를 경찰과 헌병들이 포위하고 차단하였으므로, 학생들의 거리 진출은 실패하였다. 시위를 추진하였던 주동 학생들만 운동장에서 만세를 불렀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연행된 학생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윤형중김금덕은 퇴학, 김무규임문승이승춘윤여중 등은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한편 권의준은 사건 직후 행방을 감추었다가 1년 후 복교하여 졸업회수가 동기보다 1년 늦어진 21회(1935)가 되었다.

광주학생운동으로 5년제 제1회 졸업생(17회)은 입학당시 50명 중 21명뿐이었다. 입학 후 610만세와 광주학생운동이 계속되며 항일동맹휴학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강제퇴학, 자퇴의 수가 많아 수난을 겪었던 때문이었다.

4학년 학생으로 계획의 주도 학생 중 한 사람이었던 김무규(金武圭)는 춘천 천전리 출신으로 1931년(17회) 졸업과 동시에 횡성금융조합에 발령을 받고, 횡성금융조합장민선 횡성면장횡성수리조합장을 역임하며 횡성인으로 평생을 마쳤다.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은 1932년 4월 29일 개교 22주년 기념일에 식민지교육에 반대하여 다시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그 해의 4학년생들은 교감 우도궁(宇都宮) 등 일본인 교사들의 민족차별 언행이 자주 있자 항일동맹휴학을 결행하기로 하였다.

거사 전에 이문구(李文求)이재인(李在寅)박두서(朴斗緒)신명

철(申明喆)허계철(許啓喆)허영(許英)이기동(李基東) 등은 맹휴 계획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 우리는 일본제국주의를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식민지교육을 배격 반대한다.
- 우리는 식민지교육의 앞잡이를 배척한다.

배척 대상 교사들은 교감 우도궁과 여회치(與會治)목본청치(木幡淸治)연자휴차랑(蓮子休次郎), 교련교관 야견산(野見山), 무남(武男) 소위 등 일본인 교사 6명을 지목하였다.

거사일인 4월29일 일본인 동태 파악을 담당한 학생 2명은 춘천에 남고, 45명은 금강산으로 떠났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장안사에서 거사하기로 하였으나 일경의 저지로 중단되었다. 이기동의 퇴학과 주동학생들이 무기정학을 받고 맹휴는 끝났다.<sup>34)</sup>

1937년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은 다시 동맹휴학운동을 일으켰다. 반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학생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일본인 교장 노나카(野中鼎)를 모함한 교무주임 나카노(中野久雄)와 일본인 교사들을 배척하는 동맹휴학운동을 계획하였다.

나카노(中野久雄)는 국수주의자로 일본의 식민통치교육에 앞장섰다. 그는 황국신민화를 학교 내에서 실행하는데 철저하여, 온건적인 교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전출을 획책하였다. 학생들은 노나카 교장의 유임운동과 나카노 교사와 또한 그를 동조하는 일본인 교사들을 배척하는 동맹휴학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사건의 밑바탕에는 나카노 교사 등의 황국신민화를 강요하는 식민지교육에 저항한 민족정신이 작용한 맹휴였다.

1937년 5월 말 5학년 이준항(李俊恒)반영균(潘榮均)김창경(金

---

34) 앞의 책, 322~323쪽.

昌卿), 4학년 김재하(金載河)정용화(鄭溶和)전승원(全承元)고광돈(高光敦)송봉용(宋鳳龍)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교생의 거사를 계획하였다. 6월 1일 새벽 행군 끝에 춘천군 북산면 청평사에 도착하여, 학교 측과 도학무과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맹휴를 시작하였다.

- 노나카(野中鼎) 교장의 유임과 나카노(中野) 교무주임의 축출
- 실습시간의 단축과 학과 이론의 확장
- 기숙사 급식제도의 개선과 자율적 운영 방안

전교생 350명 중 280여명이 참가하는 거교적인 동맹휴학이었으며, 교외로 진출하여 민중들에게 항일의식을 일깨웠다. 학교장의 간곡한 설득으로 4일간 계속된 맹휴는 종결되었다.

이 사건으로 노나카 교장은 전출되고, 전표환(全杓煥)장성택(張聖澤) 두 학생은 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퇴학당하고, 정태화(鄭泰和)이종화(李鍾華)홍연표(洪蓮杓)박기석(朴起錫)고광돈(高光敦)이준항(李俊恒) 등은 무기정학을 당하였다.<sup>35)</sup>

### (3) 만보산사건과 항일운동

만보산사건은 1931년 4월 만주 장춘시 도전공사에서 연유된 만주지방의 토지개간문제로 토착 중국인과 이주 한국인 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만주인과 한국인 간의 이간을 획책하여 일으킨 것이었다.

이통하(伊通河)로 통하는 수리공사(水利工事)에서 한국인 이주 농민들이 개척공사에 참여하였는데, 토착 만주인에게 피해가 있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공사를 강제로 진행하여 완공하자,

35) 앞의 책, 323~326쪽.

중국 농민들이 반항하여 한국인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 충돌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한국인의 민족감정이 일어나고, 각지에서 중국인에 대한 배척운동이 전개되었다.

춘천에서는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이 민족감정에 자극을 받고 중국인 음식점인 동해춘과 취영루를 침입하여 기물을 파괴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에 대한 민족감정 보다는 일제의 민족이간과 중국인의 폭동에서 한국인에 대한 방관적이고 탄압적인 식민지통치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재준김덕균신윤철윤향학 등 10여명이 무기정학이 되었다.<sup>36)</sup>

#### 4) 강릉농업학교의 동맹휴학

강릉공립농업학교는 1928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학년 50명의 정원으로 7월 1일 3년제 을종급 학교로 개교하였다. 영동의 중심지인 강릉지방 최초의 중등학교였다. 이제까지 영동일대에서는 중등교육을 위해서는 서울이나 춘천으로 진학해야 하였다.

지역인사들의 설립 추진으로 강릉농업학교는 어렵게 개교하였다. 이후 강릉농업학교는 영동의 항일학생운동에 중심이 되어 만세시위, 항일동맹휴학, 비밀결사 등을 전개하였다.

##### (1) 광주학생운동과 격문 살포

강릉농업학교(현재의 강릉농공고등학교)는 영동 각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

36) 앞의 책, 321~322쪽.



언론 보도 이전에 전국적인 학생운동의 소식은 강릉에도 전하여졌으며 학생들은 항일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1930년 2월 2학년생 노화경(盧和敬)배석린(裴錫麟)이 교실 내에 ‘격! 피압박민족 조선청년학생 제군에게’라는 격문을 뿌렸다. 그러나 계획이 시위운동 실행 전에 경찰에게 알려지고 격문이 압수되었으며, 격문을 살포한 두 학생은 연행되었다. 구체적 계획과 시위운동이 전개되지 않아 10일 후에 두 학생은 석방되었다.<sup>37)</sup>

이 시위운동은 격문살포로 사전 발각되어 더 진전되지 못하였으나, 학생들의 항일정신에 큰 자극을 주었으며 이후 일어난 항일학생 동맹휴학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2) 강릉농업학교의 동맹휴학운동

광주학생운동이 1930년대의 전국적 항일학생 동맹휴학운동으로 밀물처럼 전파되면서 그 기운은 강릉에서도 일어났었다.

1930년 5월 1일에 항일 비밀결사인 독서회가 강릉농업학교에서 조직되었다. 독서회는 이후의 항일동맹휴학운동 전개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38)</sup>

1930년 7월 11일 강릉농업학교 학생들은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3학년생 김성진(金聲振)이 일본인 교사 협문명(脇文明)에 대해 벌린 사소한 장난을 교사모독이라 하며 비상교무회의를 소집하고 퇴학결정을 함으로써 확대되었다. 김성진과 3학년 대표 학생들이 교장에게 잘못을 빌고 퇴학처분 취소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교장 원구양책(原口良策)은 교권을 구실로 강경한 태도로 묵살하였다.

37) 江陵農工高等學校, 『江農 50年史』, 124쪽.

38) 趙東杰, 앞의 책, 276쪽.

학생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학생들을 엄단하려는 방침임을 알고 '김성진 퇴학 취소, 일본인 교사 배척' 등을 요지로 하는 격문을 작성하고 동맹휴학을 결의하였다.

한편 2학년 학생들은 정형철(鄭馨撤) 학생의 퇴학처분과 관련하여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는 동맹휴학을 일으켰다. 정형철은 횡성 출신으로 교무주임인 일본인 교사 전결이랑(田結二郎)의 이유 없는 미움으로 수학과목에서 과락을 받아 유급되었다. 정형철은 이를 항의하였다. 학교 측은 학생소요사건으로 단정하고 정형철을 퇴학 결의하였다.

박천봉(朴千鳳) 등 학급 대표들이 퇴학철회를 요청하였지만, 전결 교사의 강경한 반대로 여의치 못하자, 2학년생들은 학년 중심의 동맹을 결의하였다. 1학년생들도 이어 2학년과 동참하기로 하였다. 학부모들이 개입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니 문제가 된 전결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
- 퇴학생은 가능한 한 복교시킬 것
- 이번의 사태로 인해 희생되는 학생이 없을 것

학교 당국이 요구조건에 합의할 것으로 태도를 보이자, 학생들은 등교하였다. 그러나 다시 강경한 태도로 출석확인과 학업의사 타진법이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종용하고, 주동 학생으로 지목한 김남두(金南斗)·김태선(金泰善)·박천봉(朴千鳳) 등을 퇴학 처분하고, 1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sup>39)</sup>

1930년 9월 5일 학생들은 다시 항일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그 해

---

39) 조선일보, 1930년 9월 27일.

7월의 맹휴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학교와 경찰은 강경하게 사전 대처를 하며, 특히 학생들 간의 불화를 조성하여 분열책을 썼다. 따라서 동맹휴학운동은 와해되고 또 한 차례 동맹을 주도한 많은 학생들이 퇴학 등 징계를 받고 종결되었다.

이 사태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3학년 권혁남(權赫南)최종태(崔鍾泰)강덕선(姜德善)강환각(姜煥珪)김종호(金宗鎬), 2학년 정흥시(鄭興時)이재섭(李再燮)최춘영(崔春泳)최돈승(崔敦昇)김남용(金南龍) 등이었다.<sup>40)</sup>

학생들의 일본인 교사 배척운동으로 거사된 동맹휴학운동을 거의 대부분 학교 측은 교권도전으로 처리하고 강경하게 대처하였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멸시하고 퇴학 등 처벌로 위협하여 봉쇄하려 하였던 것이다. 도 학무과도 학교에 동조하여 사건의 조사 없이 방임하는 식민지차별교육의 양상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운동을 통한 저항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단호히 나선 민족독립운동의 정신의 발로로 전개되었다.

1930년대 초에 결성된 강릉농업학교의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는 동맹휴학운동이 진압되고 학생들의 퇴학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비밀리에 민족주의적인 독서활동을 통하여 학생항일운동의 축이 되었다.

1933년 6월 19일 3학년의 양잠실습 시간에 일본인 교사의 학생 구타에서 욕설과 함께 ‘조센진이 무엇을 해 내겠는가?’ ‘조선인은 미개한 야만족’이라고 폭언을 하며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였다. 그는 실습담당 십국웅(辻國雄) 교사로 평소 자주 민족멸시와 폭행 등으로 학생들을 괴롭혀왔다.

일본인 교사들은 사소한 학생사안에서도 민족멸시의 언행을 상

40) 『江農50年史』, 134쪽.

투적으로 하여 민족의 열등감으로 학생들의 패기를 억압하는 비교육자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저항의 대상이었다.

즉시 3학년 학생들은 학급회의를 열어 김성호(金成鎬)고철주(高鐵柱)원규영 등은 십국웅 교사를 성토하고 그를 배척할 것을 결의하여 수업거부 선언과 동시에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에 2학년 수업시간에서도 일본인 교사의 망언으로 학생과 교사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일본인 교사 목하시지조(木下市之助)는 영어시간에 ‘영어란 일본인에게도 외국어이고 조선인에게도 외국어인데 왜 너희만 잘 못하느냐’ `조센진은 모두 머리가 나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민족을 거론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2학년 학생들은 이미 동맹휴학을 시작한 3학년생들과 행동을 통일하여 등교 거부운동을 하였다.

독서회는 이 사건을 거교적 학생운동의 전개로 추진하기 위해 앞에 섰다. 6월 20일 독서회와 3학년 대표 학생들은 전교생에게 3학년의 맹휴 결의를 알리고, 교장실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3개항의 건의서를 제시하고, 십국웅 교사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후에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 십국웅(辻國雄) 교유를 파면할 것
- 학생들에 대하여 언동을 신실히 할 것
- 실습시간을 줄이고 학과 이론 시간을 보다 많이 할애하여 줄 것

6월 22일 1, 2학년 학생들도 참가하여 전교생 동맹휴학으로 확대되었다. 학교 당국은 서둘러 장전(長田) 교장, 교직원들이 학생 설득에 나섰고 학부형들의 협조도 구하였다.

해결이 난관에 처하자, 경찰 병력의 출동을 요청하여 학생 대표들을 연행하고 학생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은 강제 해산을 하려는 경찰과 격투가 벌어져 한 시간을 저항하였으나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당일 학교는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휴교령을 내렸다.

7월초 주동학생으로 조사된 3학년 이동언(李東彦)김형도(金炯道)김혁래(金赫來)김창회(金昌會)박병천(朴炳天)김천회(金天會)권오걸(權五傑)권혁인(權赫仁)최호섭(崔鎬燮)박연교(朴年敎), 2학년 염재근(廉在根)박용태(朴容台), 1학년 민병태(閔丙台) 등 13명이 퇴학처분을 받음으로써 사태는 겨우 수습되고 정상화되었다.

622 학생동맹휴학운동은 강릉 독서회 회원들 대부분의 희생을 가져왔으며, 동년 10월부터는 독서회에 대한 탄압이 가일층 심화되었다.

### Ⅲ. 비밀결사와 학생운동의 심화

#### 1. 항일학생운동의 변화 모색

세계대공황이 일어난 이듬해인 1930년과 1931년에는 학생의 동맹휴학운동, 노동자파업, 농민의 소작쟁의는 크게 증가하였고 참가인원도 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항일운동의 전 부문에 걸쳐 민중저항이 고양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농민운동이 빈번하여지는 것은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식민지 지배의 모순구조에서 심화되었다. 일본도 세계대공황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

해 재벌독점자본 중심의 통제경제를 강화하고 값싼 노동력과 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식민지 한국에 일본 국내에 남아도는 자본을 제사공업 등에 투자하였다.

일제는 이들 독점자본의 한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토지와 전기를 제공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도 방임하였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세계대공황은 농업부문에 도 영향을 주었다. 공황으로 일본 국내로의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농산물 가격은 폭락되었으며, 소작농민의 부담은 소작료의 인상, 비료값의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늘어갔다.

세계대공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던 일본은 군국주의체제로 전환하고 1931년 9월 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만주침략을 감행하였다. 대륙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일제는 문화정치 대신에 전시체제로 통치정책을 바꾸면서 한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 하였다. 이로부터 한국에서의 민족운동을 발악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다시 1941년에는 무모한 미국의 진주만 기습을 단행하여 드디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는 장기전쟁의 시대로 들어갔다. 전쟁수행을 위해서 한국을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병참기지화 하고 철저한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항일학생운동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1930년대의 학생운동은 정예화 된 학생들이 조직한 비밀결사운동이 주도하여갔다. 교내의 항일운동, 농촌계몽운동, 그리고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전개하였다.<sup>41)</sup>

비밀결사는 1931년대부터 193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집

41) 趙東杰, 『太白抗日史』, 275-~276쪽.

증적으로 결성되었다. 이것은 1931년 만주침략을 전후하여 반전 반제투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과 관계가 있다. 각 비밀결사들은 뉴스신문을 간행하고 반전격문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2.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상록회 운동

### 1)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

강원도지방에서 항일학생운동의 선구적 위치에 서서 활동하여 왔던 춘천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항일민족운동의 모체로서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였다.

1937년 3월 14일 5학년 남궁태(南宮珩)이찬우(李燦雨)문세현(文世鉉)용환각(龍煥珏)백흥기(白興基)조규석(趙圭錫)성수경(成綏慶) 등은 비밀결사의 결성에 의견을 모으고, 횡성 출신 백흥기의 하숙으로 장소를 옮겨 항일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sup>42)</sup>

상록회는 위원장에 조규석, 부위원장에 남궁태, 선전부장 문세현, 조직부장 이찬우, 서적부장 백흥기, 회계에 용환각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행동강령으로 회원으로 자기 완성, 지도자로서 책임 완수, 단결력 배양과 파벌 투쟁의 배척, 조선 민족을 위하여 일신을 바칠 것을 정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상록회가」를 만들었다.

백두산 성맥(聖脈)은 곳곳에 흘러나려

42) 『春高 60年史』, 217쪽.

그 성맥 끓는 피 우리 가슴 뛰놀려  
끓는 피 얼싸안고 힘차게 부르짖어  
건설의 망치 들고 행진할 때에  
자유와 평화에 주린 동포들  
희망과 행복의 날개 치리라.<sup>43)</sup>

상록회는 조직의 활성화와 회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상록회의 산하 모임을 계획하였다. 그 실행이 독서회 조직이자, 새로운 회원 확보였다.

4월 15일에 남궁대와 조규석·용환각·배근석 등이 협의하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독서회의 활동 목표는 '조선 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사를 양성하여 궁극에는 조선으로 하여금 일제로부터 독립을 달성하도록 한다'에 두었으며, 상록회의 정신을 기초로 하였다. 상록회는 회장에 용환각, 부회장 남궁대, 서적계 조규석, 회계 배근석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해방, 참된 조선인의 양성, 회원의 단결심 양양 훈련 등을 독서회 강령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독서회 회원의 증가를 위하여 학년별 담당 책임자를 결정하고 앞장서 노력하도록 하였다. 1학년은 남궁대, 2학년은 조규석, 3학년은 이찬우, 4학년 배근석, 5학년 용환각이 각각 학년별 담당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독서회는 일부회원이 탈퇴하고 침체되자 상록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다수 회원의 포섭을 위한 방편으로 조직하였다.

1937년 5월 1일 춘천 봉의산 정상에서 제1회 월례회를 열었다. 남궁대 등 11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이 모임에서 남궁대·이찬우·용환각·배근석(裵根錫) 등 4인은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연설을 하고 민족주의적 문헌의 독후감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독서회

---

43) 趙東杰, 앞의 책, 299쪽.



의 명칭을 본래의 상록회로 다시 통일하였다.

6월 20일 2차 월례회의에서는 배근석조규석의 탈퇴로 부서 조직을 다시 하여 남궁태가 회장을 맡았다. 이후 7월 17일, 9월 18일, 10월 3일 등 모두 5회의 월례회를 가지며 회원의 결속을 다지고 독립의지를 확인하여 갔다.

한편 춘천농업학교, 함흥고보, 평양고보, 서울 제1고보 등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연계로 항일운동의 공동전선을 추진하였다. 당시 농촌자립을 돕고자 적극적인 귀농운동을 함께 하며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계몽운동에도 참여하였다.<sup>44)</sup>

1938년 2월 상록회 창립회원이었던 이찬우용환각백흥기조규석 등은 후배에게 상록회의 활동을 인계하기 위해 새 임원을 정하였다. 졸업 후의 활동방침에 대한 논의도 하였는데. 이찬우와 백흥기는 만주로 갈 계획을 전하며, 그 곳에서도 독립운동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백흥기는 횡성 출신으로 결성 초기에 상록회 설립의 의의에 의견 대립으로 탈퇴를 하였었다.

동년 3월 1일 남궁태(南宮珩)전홍기(全洪基)이연호(李淵湖)신기철(申琦澈)이풍섭(李豊燮)이병주(李炳柱)최상기 등이 상록회 인계회를 가졌다. 회장에선 이연호, 부회장 최기수, 서적계 신기철, 회계에 박일환이 선임되었다.

이 인계회에서 이후의 상록회 운영의 원칙을 정하였다. 운영원칙은, 회원 사이의 연락은 종적인 방법으로 하고 절대로 횡적인 연락은 하지 말 것, 회칙 등 증거가 될만한 서류는 절대로 작성하지 말 것 등이었다.

상록회는 그 활동이 학교와 경찰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직과 활동을 비밀리에 유지하려 하였다. 새로운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

44) 『春高 60年史』, 218쪽.

확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회의 운영을 위해 월 30전의 회비도 걷기로 하였다.

상록회를 이탈한 사람도 일부 생겨났다. 최기수박일환이 탈퇴하여 부회장직을 폐지하였고, 9월에는 회장 겸 서적계로 신기철, 회계에 이철균을 선출하였다.<sup>45)</sup> 이 해 5월~9월 사이에 신규회원의 가입으로 회원은 증가하였다.

1938년 9월부터 상록회의 활동은 교내활동은 물론 청년운동과도 관련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졸업생들 중 만주에서 활동하는 선배들과도 연락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여 갔다. 그리하여 활동양상이 다양하여졌다.

청년운동과의 연계는 춘천고보 졸업생들인 이홍채(李鴻采)신영철(申瑛澈)박우홍(朴禹弘)이종식(李鍾植) 등과의 접촉이었다. 이들 졸업생들은 세계정세와 조선의 이상 등 연설로 상록회원들에게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상록회원이었던 졸업생들 중 만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남궁대문세현이찬우백흥기 등이 있었다. 백흥기와 이찬우는 길림성 영길현의 공립국민우급학교(公立國民優級學校) 교사로, 남궁태는 할빈, 문세현은 간도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만주의 한국독립운동의 지도자인 이동산(李東山)김춘광(金春光)오종태(吳鍾泰)·석일경(石一慶) 등과 연결하여 길림에서 상록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sup>46)</sup>

상록회의 활동은 졸업생들에 의해서 국외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져갔다. 백흥기는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출신으로 상록회 결성시 서적부장으로 독서활동을 이끌며, 『조선의 현재와 미래』『마의

45) 앞의 책, 229쪽.

46) 앞의 책, 218쪽. 趙東杰, 앞의 책, 301~302쪽.

태자』『흙』『상록수』 등 민족주의적 독서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독립의식 고양에 앞장섰다. 1938년 3월 졸업 후 만주로 옮겨가서 학교 교사직에 근무하면서, 길림에서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는데 솔선하고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하였다.

## 2) 상록회의 수난

1938년 가을 일제 경찰은 상록회의 활동을 추적하여 전모를 탐지하고 국내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졸업생을 포함하여 137명을 검거하여 춘천경찰서로 연행하였다. 1937년 결성초기부터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치밀한 조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여 온지 2년 만이었다.

36명이 송치되었고 학생들은 일제 고등경찰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1939년 12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사범으로 12명이 실형을 받았다.

실형복역 중 횡성출신의 백흥기(白興基)는 경찰의 고문 후유증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나이 20세로 젊음을 독립운동에 불태웠으나 광복의 새 시대를 못보고 산화하였다.

상록회 활동으로 12명이 실형을 받았다. 남궁태이찬우문세현·용환각백흥기조규석배근석조흥환(趙興煥)이연호신기철 등 10명은 징역 2년 6월, 전흥기(全洪基)차주환(車柱環)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상록회 결성전의 기 졸업생으로서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며 상록회와 연계활동을 하였던 사람들도 검거 되어 1940년 1월 역시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흥채신영철은 징역 1년 6월, 박우홍이종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항일독립운동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기꺼이 희생하였던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상록회 운동은 춘천과 강원도 전역의 학생비밀결사운동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 영향으로 춘천중학교(춘천고등보통학교를 1938년 신교육령에 의해 개칭)의 독서회 운동, 춘천농업학교의 독서회 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1937년 상록회 결성의 창립 임원이었던 이찬우의 발기로 1965년 상록탑 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전 춘천고등학교의 동문들의 참여로 건립이 착수되어 개교 43주년인 1967년 4월 25일 상록탑이 제막되었다.<sup>47)</sup> 탑의 글은 상록회 운동의 중요 인물로 회장이기도 하였던 신기철이 지은 것이다.

#### 常綠塔 塔文

조국의 운명이 어둠 속에 들었던 때  
우리 민족이 치욕의 역사를 벗어나려  
일제에 항거하는 운동을 벌이던 중에  
1936년 춘고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록회라는 숨은 모임을 조직하고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었다.  
밖으로는 독서회 형식을 빌어가지고  
안으로는 열렬한 민족사상을 기르며  
농촌에 들어가 농민을 계몽하는 한편  
함흥, 평양 등지의 호응을 구하고  
만주에까지 연결의 손을 뻗었다.  
일제의 잔인하고도 무도한 학정아래  
시들어 가는 민족의 얼을 다시 살리고  
조국을 광복하려던 스무 살 젊은이들

47) 『春高 60年史』, 233쪽.

눈보라 속에서도 푸르른 상록수 같이  
그들에겐 변절도 굴복도 없었다.  
그러다가 1938년 일경에 드러나  
124명이 체포되고 36명이 송청,  
10명이 2년 6개월씩의 체형을 받아  
서대문 감옥에서 백흥기는 옥사하고  
남은 이는 1941년 출옥했다.  
더욱이 그 정신은 모교의 전통이 되어  
구국의 정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많아  
1941년에도 24명이 구속되어  
온갖 악형을 겪고 옥고를 당하던 중에  
이광훈과 고웅주는 옥사했었다.  
역사는 비록 흘러갔어도 교훈은 남고  
그 날의 운동은 이 고장에 자랑이기에  
여기 이 마당에 상록탑을 높이 세우고  
의기의 전통을 길이 전하려 한다.

1967년 4월 25일

상록회동지 신기철 지음  
상록탑 건립위원회 세움

### 3. 춘천농업학교의 독서회 운동

#### 1) 독서회의 조직과 활동 전개

강원도 최초의 중등실업학교로서 도내 각지의 학생들이 진학하  
였던 춘천농업학교는 31운동 이후부터 항일동맹휴학운동으로 독  
립정신을 민중에게 펼쳐왔다.

춘천농업학교 4학년 학생 이준환(李俊桓)김시묵(金時默)김창경(金昌卿)반영균(潘榮均) 등이 중심이 되어 1937년 11월 비밀결사인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춘천감리교회에는 남궁억의 제자인 유한익(劉漢翼)목사가 재직 중이어서 학생들은 그로부터 세계정세와 토론으로 교양을 쌓았으며, 민족신문인 『동아일보』『조선일보』, 일본신문인 『매일신문』『경성일보』를 읽고 논쟁도 하였다.

이준환은 방학 중에는 고향인 김화군 창도리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엠벳청년회를 부흥하여 농촌계몽운동을 펴며 민족독립의 의식을 주민들에게 심어 주기도 하였다.<sup>48)</sup>

이준환 등 학생들은 독서회를 조직하기 전에 1937년 5월 농촌문학 잡지 『월파(越波)』를 간행하여, 독립운동을 목표로 농촌계몽운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월파』의 발간 목적을 첫째, 농촌문학 동호인의 발굴은 물론 작품 발표를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둘째, 작품 내용은 농촌문학의 진작과 독서회원의 독후감 발표 등 농촌 개조운동의 봉화로 삼는다. 셋째, 독자로 하여금 은연중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하여 농촌에 귀착하게 하여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독립운동의 소지에 귀일 하게 한다.

농촌 문학잡지 『월파』는 창간호를 인쇄하는 중에 일본 경찰의 사찰로 발각되어 출간이 정지되고, 이준환반영균박기종 등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정학 징계를 받았다. 이 일은 독서회 조직을 서두르게 하였으며, 후에 비밀결사조직을 유지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sup>49)</sup>

48) 『春農75年の 脈絡』, 331쪽.

49) 앞의 책, 338 ~ 340쪽.

춘천농업학교 독서회는 적극적인 포섭 활동으로 회원확보에 노력하여, 1938년경에는 회원의 수가 38명으로 증가하였다. 신입회원은 김재하(金載河)김시묵(金時默)송봉용(宋鳳龍)유근택(劉根澤)전승원(全承元)고광돈(高光敦)정용상(鄭溶相)김두섭(金斗燮)박찬하(朴贊夏)김인순(金仁順) 등이었다.

1938년 5월 하순에 독서회 회원들은 이준환 등 8명이 중심이 되어서 매월 회비 50전을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회비로 『흙』『상록수』『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의 서적을 우선 구입하여 회원들이 윤독하는 독서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들이 구입한 서적은 전기류를 비롯하여 수백 권의 도서였다. 당시 학생들이 탐독한 책은 『흙』『상록수』『조선의 현재와 장래』였다고 한다. 그 외에 많이 읽힌 도서들은 『인생의 향기』『중용과 도덕』『마의태자』『단종애사』『원효대사』『마도의 향불』『고향』『금삼의 피』『세종대왕』『무정』『간디전』『공자전』『폴르타크영웅전』『기독교전』『뭇솔리니전』『레미제라블』『경제공황』 등이었다.<sup>50)</sup>

춘천농업학교 독서회의 본연의 목적은 독서 활동만의 회합이 아니고, 항일독립운동의 원대한 희망에 있었다. 회장 이준환은 1938년 10월 중순의 회합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역설하였음을 독서회 사건판결문에 일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sup>51)</sup>

조선민족은 세계민족 중 가장 열등시 당하고 있는데 민족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그 민족의 국가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타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대다수는 하등 이 점에 관하여 자각이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의 자각을

50) 앞의 책, 338~340쪽(25회 목영균의 회고록)

51) 앞의 책, 332~333쪽.

촉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조선농촌의 현상은 극도로 피폐해 있는데 그 원인은 내지인의 압박과 착취에 있다. 그들 농민의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민족적 자각을 촉발하고 나아가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장래 농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 농민을 지도 계몽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우리는 그의 준비로서 각자 회비를 각출하고 민족정신을 함양함에 충분한 조선민족주의작가의 언문소설을 구입 구독하여 민족주의 사상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서회 회원들은 1938년 7월부터 장소를 옮겨가면서 비밀히 회합하며 민족의 현실문제와 진로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또한 방학중에는 농촌의 실상 파악에도 나서서 농촌계몽에 노력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1938년 겨울 춘천고보의 상록회 운동이 경찰의 내사로 다수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으로 회원들 간에는 일시적으로 해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난관을 극복하고 항일운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1938년 12월 독서회 회원들은 오대산 월정사에 은둔 중인 독립운동 지도자인 이종욱(李鍾郁)을 방문하여 민족의 진로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다.<sup>52)</sup>

1939년 2월 11일 이준환은 졸업에 앞서 후임 회장의 임무를 김재하(金載河)에게 위임할 것을 건의하여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후 독서회는 새로운 회원 가입에 노력하고 독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갔다. 그 해 7월부터는 매일 조기회를 갖고 회원의 단결을 다짐하고 독립의식을 고양하였다.

52) 趙東杰, 앞의 책, 306쪽.



## 2) 독서회의 수난

일제는 대륙침략 전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자, 한국 내에 항일 운동과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총독부는 1940년 10월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밀조직을 단속할 것을 비밀리에 지령으로 내렸다. 춘천경찰서는 관내 교회에 대하여 일제히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 때에 이준환과 춘천중학교의 이진해(李鎭海)가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진해는 이준환과 동향인 김화 출신으로 3년여를 같은 하숙에서 생활한 관계였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이진해는 춘천농업학교의 독서회 조직과 졸업 기념품인 태극기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학교 졸업 후 문경의 소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준환은 강원도경찰국 형사들에 의해 춘천으로 검거되었고 태극기도 증거물로 찾아내었다.

이어서 독서회에 참여하였던 졸업생들도 전국 지방 근무처에서 모두 체포되어 춘천으로 이송되었다. 재학생 회원 조직도 내사되어 1941년 3월 28일 관련 재학생으로 김두섭박찬하김인순 등은 퇴학 조치되었다.

1943년 2월 일부 회원들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예심을 받을 회원들은 춘천형무소에 이감되어 있던 중 1942년 10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거 후 1년 3월의 기간 동안 경찰은 조직의 배후 단체를 색출하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가하였던 것이다.

독서회 회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39년 3월에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한 이준환은 징역 2년, 김시묵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4년), 1940년 3월 졸업한 김재하송봉룡정용화전승원고광돈

유근택은 각각 징역 1년 6월(집행 유예 4년), 1941년 2월 퇴학된 김두섭박찬하김인순도 각각 징역 1년 6월(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sup>53)</sup>

#### 4. 춘천중학교의 독서회 운동

일제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포하고, 내선일체를 내세워 한국인에 대한 교육을 일본 국내와 동일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일본과 같은 중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춘천고등보통학교는 춘천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3차 조선교육령은 한국어 수업시간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상용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일본인 교련 교사를 배치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신사참배와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시키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꾀한 것으로,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좌절시키려는 식민지교육의 강화였다.

이러한 시기에 상록회 운동의 탄압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회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생운동은 침체의 위기에 빠져있었다.

##### 1) 독서회 운동의 전개

개교 이후 항일동맹휴학운동, 상록회 운동으로 계승된 춘천중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1930년대 말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으로 식민지 지배가 혹독한 단계로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 맥락을 굳건히 지켜갔다.

53) 『春農75년의 脈絡』, 330쪽(독서회 판결문).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이 폐지되자, 한글 소설과 애국 서적을 구입하여 읽는 독서 열풍에 몰두하고, 독후감의 발표와 토론의 모임을 가지며 접촉의 기회를 넓혀갔다. 학생들은 주로 이광수의 『흙』과 같은 계몽적 소설이나, 한용운최남선의 저서들을 구하여 읽었다.

춘천중학교에는 강원도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진학하였다. 학생들은 1학년 때는 대부분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서로 낯을 익혔으며, 그리고 하숙생활을 통해서도 가깝게 접촉하며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독서활동을 하며 독후감을 발표하고 토론회도 가졌다. 그러나 상록회와 같은 비밀결사조직으로는 발전되지는 않았다.

당시는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상록회와 춘천농업학교의 독서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다수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검거된 이후였으므로, 일제 경찰의 감시가 삼엄하여 비밀결사 조직은 무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였다.

조직이 주도하는 학생운동 단계는 아니었지만, 항일독립의식은 강화되어 학생들은 일본인 교사의 민족 차별적인 언행과 학교의 차별적 교육에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일본인 교련 교관 대정(大町)은 민족차별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학생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였다. 김인가심재영김영근 등 학생들이 야간에 교련 교관의 관사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민족의식에 영향을 준 인사는 명망 있는 독립운동의 지도자 여운형(呂運亨)이었다. 그는 춘천중학교 학생 이란(李欄)의 부친 이임수(李林洙)와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임수의 관동병원에 와서 자주 머물렀다. 그 때마다 이란과 친구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근황과 중일전쟁에 대한 전망, 세계정세를 듣고 독립운동에 대해 새로운 견문을 넓히고 애국사상을 키우는데 활력

이 되었다.<sup>54)</sup>

## 2) 독서회의 수난

일제 경찰의 사찰을 피하여 비밀리에 전개되어 온 독서회 운동은 일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학생들이 급기야 검거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1941년 3월 10일 일본 육군 기념일 행사에서 발단되었다. 군사훈련인 모의 시가전을 개최하여 연막탄을 발사하고 그 속에서 검도의 공방전을 전개하는 순서였다. 춘천중학교 4학년생인 고제훈(高濟勳)원후정(元厚貞)김영근(金榮根)박영한(朴泳漢)권혁민(權赫民) 등은 이를 기회로 포착하고, 평소에 한국인 학생들의 미움을 샀던 일본인 학생들을 골라서 공격하였다. 이에 화가 난 교관 대정(大町)과 일본인 교사들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민족의식이 발로된 계획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3월 23일 새벽 6시. 춘천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은 관련자 학생들의 집과 하숙을 급습하여 강압 수색을 하였다. 학생들의 서적, 사진, 일기장 등 소지품이 증거물로 압류되고 28명을 연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독서회 활동이 발각되었다. 일제 경찰은 학생들을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일제 경찰은 여운형과의 접촉과 배후 조사를 위해 학생들에게 심한 고문을 가하였다.

3개월간 경찰의 폭행과 고문으로 계속된 조사가 1941년 7월에 끝나고, 18명의 학생이 춘천검찰지청에 송치되었다. 11월 10일 이들 가운데 6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12명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

54) 趙東杰, 앞의 책. 310쪽.

1942년 3월 27일에 수감된 12명 전원이 치안유지법 위반과 폭력행위법으로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후정심재영김영근권혁민에게는 치안유지법 위반과 폭력행위법 위반으로, 이광훈고웅주이란윤익섭최규태임수식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그리고 고제훈박영훈은 폭력행위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각각 인천김천신의주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특히 이광훈고웅주는 복역 중에 조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41년의 독서회 항일운동은 제2의 상록회 운동으로 춘천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항일운동의 역사로 기록된다 하겠다.

## 5. 춘천사범학교의 항일학생운동

갑오경장 이후 신교육령에 의거 설치되었던 한성사범학교는 일제의 국권침탈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19년 31독립운동 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보통학교를 3면 1교의 원칙으로 설립한다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교사의 수급상 1922년 경성사범학교를 시작으로 각도에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1932년에 춘천도립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입학자격을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로 제한하였으므로, 도내 보통학교에 고등과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여 1931년(?) 폐지되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거, 사범학교에 심상과(尋常科)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1939년 4월 1일 관립 춘천사범학

교(春川師範學校)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사범학교를 일제의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식민지 교육에서 황국신민화의 목표를 담당하는 학교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보조하였다. 반면에 학교생활은 전시용 복장과 군사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여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모범적인 교사양성이라는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면면히 전개되었다.

춘천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1941년의 전투모 착용 거부운동, 학생과 경방단의 항쟁, 애국앨범 제작 사건, 징병장행회 항일 송별사 사건, 백의민족 해방단의 무장유격 투쟁 등으로 계승되어 갔다.

### 1) 전투복장 착용 거부운동

항일운동의 첫 사건은 전투모 착용 거부운동이었다. 춘천사범학교의 교복은 군인들의 전투복장에 전투모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었다. 학생들은 일반 중등학교와 다른 교복과 교모에 불만이 있어 오던 차였다.

1941년 학기 초 3학년이 전투복 착용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본인 교장의 수신과목 수업시간에 교복문제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침묵 행동으로 수업준비를 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교장은 수업을 받도록 설득을 하였으나 학생들은 침묵으로 저항하였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다음 시간에도 수 시간 계속되었다. 학교는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동 학생들을 색출하기 위해 학생들을 심문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을 정학처분하기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사건은 마루보(丸帽) 사건이라 하였으며, 춘천사범학교 학생

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에서 시작된 항일운동이었다.<sup>55)</sup>

## 2) 경방단 사건과 친일형사 구타

1941년 여름 친일단체인 경방단(警防團)과의 충돌이 있었다. 경방단 단장이 학생 한 명을 경방단 사무실로 끌고 가서 무단 구타한 사실이 발단이 되었다. 심상과 3학년 박용래(朴容來)강용석(姜用錫)박성우(朴性宇)노형우(盧亨愚)이정원(李程遠), 특강 2회생인 김문성(金文成) 등 수명의 학생들은 매를 맞고 들어 온 하급생을 보고, 친일단체인 경방단에 대한 평소의 반감이 폭발하여 경방단 사무실을 기습하였다. 그리고 피신한 경방단(警防團) 단장을 쫓아가 눈에 처넣어 집단 폭행하였다.

연락을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학생들을 연행하여 갔다. 이들 6명의 주동 학생들은 학교에 의해 퇴학 처분되었다. 학생들의 단순한 폭행으로 보지 않고 항일운동으로 보았던 식민지 교육의 횡포였다고 하겠다.<sup>56)</sup>

같은 해 여름 학생들이 악질적 일제 경찰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10여명의 학생이 퇴학과 정학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천황불경죄로까지 연관시켜 학생들을 몰아넣는 사태로 확대시키었다.

기숙사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학생과 부주의로 충돌한 사소한 일을 여학생 희룡이라 하여, 일본인 형사가 심하게 기숙사 학생을 구타하면서 사건이 전개되었다. 학생들이 분개한 것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인 형사가 일본 사관 양성소 출신으로 한국인 주민들

55) 春川教育大學, 『春川教育大學 50年史』, 1989, 121-122쪽.

56) 앞의 책, 121쪽.

을 무시하고 괴롭혀서 시민의 증오를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3학년 학생들 30여명이 모여 보복방법을 논의하고, 밤에 목검을 휴대하고 주재소로 몰려가서 형사를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경찰은 황국신민화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사범학교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을 강당과 기숙사로 옮겨가며 근신하도록 조치하였다.

학생들이 근신하던 기숙사 식당에는,

‘우리가 잘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천황의 은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고마워하라.’

는 내용의 황국신민화교육의 실천을 위한 게시문이 있었다. 근신이 1주일 계속되던 어느 날 학생들이 게시판의 글 일부를 지워버렸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일본인 교사들과 학교 당국은 천황에 대한 불경죄로 몰아 주동 학생들을 찾기 위해 학생 대표들에게 체벌과 강압적인 심문을 가하였다.

일본인 형사를 구타한 사건은 반일 민족주의적인 사건으로 확대 음모하여 주동 학생들을 퇴학과 정학 처분하였다.<sup>57)</sup>

### 3) 징병장행회 송별사 사건

일제는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한국청년들에게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징용, 징병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학생들은 수업보다는 군사훈련과 근로동원에 시달리게 되었다.

학생들의 징집이 실시되며 춘천사범학교 학생 중에서 3학년 구영찬(丘永燦)이 일차로 일본군에 징집되었다. 학생들은 남춘천역에서

57) 金興洙, 「항일학생운동」, 『春川抗日獨立運動史』, 春川文化院, 1999, 367쪽.



장행회(壯行會)를 열기로 하고, 송별사의 작성과 낭독자를 결정하였다. 김영기(金榮琦)가 책임을 맡아 아래와 같은 송별사를 작성하였다.

“구영찬군! 자네는 정말 장하네! 국가의 간성이 되어 임금님(일본 천황)의 부름을 받았으니 남아답게 떠나게! 그러나 잊지 말게. 자네 뒤에는 불쌍한 2천만 동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게! 우리는 자나 깨나 자네의 무운장구를 빌겠네.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정든 고향 산천과 정에 얽힌 부모 형제를 떨어져서 기약 없는 전쟁터로 간다고 슬퍼 말고 용감하게 떠나게! 너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아니 2천만 동포의 앞날을 위해 씩씩하게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분연히 싸워서 대장부의 기개를 온 누리에 속 시원히 펼칠 날을 기약하세. 외쳐대는 기적 소리는 자네의 애달픈 출발을 재촉하고 있네. 자, 서슴없이 가게! 2천만 동포의 앞날을 위해.”

이상의 송별사 내용 중에서 ‘2천만 동포’라 한 말이 일제 헌병의 신경을 자극하여 열차 출발 후 춘천헌병대는 가평역 헌병대에 급히 연락을 취하여 구영찬이 가지고 떠난 송별사를 압수하였다.

김영기는 학교에서 송별사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조사를 받고, 1억 국민이 아닌 2천만 동포라고 쓴 이유로 문책 당하였다. 이후 조사는 수일간 계속되었으나, 배후 조직이 없어 훈계 경고로 끝났다.<sup>58)</sup> 김영기는 송별사 사건으로 졸업 때까지 일본인 교관들의 감시와 시찰대상이 되었다.

#### 4) 백익동맹운동

1944년 일제는 태평양전쟁에 광분하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탄

---

58) 앞의 책, pp.118-120.

압을 더욱 가중시켜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일제의 패전이 멀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춘천사범학교 학생들은 유사시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려는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것이 백의동맹운동(白衣同盟運動)이다.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김화군 창도면은 광산과 일제의 군수공장이 건립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취업을 위해 전입하여 광부 또는 공장근로자로 근무하여 인구가 증가되고 있었으며, 일본인 거류자도 많았다.

일본에서 대학 재학 중 징집을 피하여 이 지방에 와서 군수공장 노동자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김광수(金光洙)와 양일민(梁一民)은 백의동맹(白衣同盟)을 조직하였다.<sup>59)</sup>

백의동맹은 지역별 혹은 학교별로 소수의 독립된 단위조직으로 결성된 것이 특성이었다. 백의동맹의 총본부는 김화군 창도면에 있고 철원, 춘천에 개별 조직이 각각 존재하였다. 춘천사범학교 내에도 두 개의 별도 조직이 있었으며, 일명 백의민족해방단이라고도 명칭을 사용하였다.

춘천사범학교 백의민족해방단은 1944년 2학기 시작 이후에 4학년 학생인 염희태(廉熙泰)김영진(金泳鎭)박형원(朴炯遠)정인호(鄭麟鎬)김철현(金喆鉉)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일제는 전쟁 수행에 고전하면서 민족말살정책을 강요하고 있었으나, 학생들은 일본의 패전은 목전에 와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백의동맹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4학년 나대식(羅大植)박성준(朴聖俊)이 주도한 다른 하나의 백의동맹도 이 시기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은신처인 ‘아지트’를 옮겨가며 활동하였다. 일정한 거처

59) 춘천교육대학, 앞의 책, 113~116쪽.

를 정하지 않은 것은 비밀누설 방지. 애국심과 투쟁의식 고취, 상부조직과의 접촉 및 연락의 편의, 투쟁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였다. 백의동맹의 투쟁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왜제(倭帝)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 패망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사보타지'와 소요를 주도한다.
- 국외의 독립투사들에게만 투쟁을 의지할 수는 없다. 국내에도 투쟁세력이 엄존함을 국내외에 알리고 민족의 사기와 나아가 민족봉기를 유도한다.

백의동맹은 패망하여 쫓기는 일제를 추격하여 연합군과 무력으로 협력 체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60)</sup> 그리하여 강원도 철원김화회양 등 산악지대를 근거로 하는 유격전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1945년 백의동맹의 조직이 일제 경찰에게 노출되었다. 당시 백의동맹단은 회양군의 산악지대에서 전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대대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키려던 유격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무장투쟁계획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된 것은 철원지역에서 한 백의동맹 단원들이 활동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일본인 상인을 습격중 체포되고, 그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으로 백의동맹의 전모가 드러났다.

1945년 3월 20일 춘천사범학교의 2회 졸업식 당일에 사복형사들이 학교에 나타났다. 단원들은 아지트로 피신하였으나 전원 체포되었다.

조직원들은 철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1945년 8월 광복 때

---

60) 趙東杰, 앞의 책, 315쪽.

까지 5개월 동안 심한 고문에 시달렸다. 수감 중에도 감방 내에서 투쟁하며 탈출 시도도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외에도 1943년 말 이성득안학수신철균 등 졸업반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던 애국 앨범 제작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공식용 앨범 외에 별도의 앨범 제작을 계획하여 표지 그림을 도안하였는데, 31운동 때 항일운동의 장소인 국사봉과 무궁화 잎이라 하며 배후조직을 찾는다고 주동학생들을 박해하고 앨범을 압수하였던 것이다. 이후에는 앨범제작을 금지시키게 되었다.

## 6. 강릉농업학교의 독서회 운동

1930년대 항일학생운동의 대표적 양상은 독서회 운동이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지역 중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합법적 독서활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일제는 불온한 단체로 인정하고 탄압하였다.

강릉농업학교의 독서회는 1929년 5월 1일 조직되었다. 시기적으로 1920년대 말에 이미 조직되었다. 권혁남(權赫南)강덕선(姜德善)김남두(金南斗)김종호(金宗鎬)배석린(裴錫麟)함중명(咸鍾明)최용정(崔容鼎)김태선(金泰善)권오훈(權五勳)권오담(權五淡) 등이 중심이 되어 발기하였다.

이 독서회의 조직을 지도한 사람은 권오훈(權五勳)이었다. 그는 북경대학(北京大學)을 졸업한 공산당원(共產黨員)으로서 독서회원 중 민족사상이 투철한 학생들을 따로 반제동맹에 가입시켰다. 이들을 핵심요원으로 삼아서 독서회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다.<sup>61)</sup> 1920

61) 江陵農業學校, 『江農50年史』, 124쪽.

년대는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로 민족운동 단체는 공산주의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1930년 동맹휴학운동의 전개로 독서회 회원들 중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 있어 타격을 받고 그 활동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다시 1932년 10월 독서회 재건이 추진되어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재조직에 참여한 학생은, 3학년생 심양섭(沈亮燮)·최건영(崔建永), 2학년 김천회(金天會)·권혁인(權赫仁)·최호섭(崔鎬燮)·김창회(金昌會)·김형도(金炯道)·김혁래(金赫來)·이동언(李東彦)·박년교(朴年敎)·박병천(朴炳天), 그리고 1학년 염재근(廉在根)·박용태(朴容台) 등이었다.

배후 지도자로는 신간회 강릉지회의 정윤시(鄭允時)·강덕선(姜德善)·권오훈(權五勳)·김성열(金聖烈) 등이었다.

독서회 조직은 항일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설정하였다.

- 사회과학 및 일반 서적을 윤독하여 사회 견문을 넓힌다.
-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을 반대한다.
- 일본제국을 타도하고 조선독립을 쟁취하는데 앞장을 선다.<sup>62)</sup>

독서회 재건 후 회원들은 1932년의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을 기해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세부 거사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친애하는 전교 학생 여러분! 금일은 광주학생 항일의 기념일입니다. 훌륭한 광주학생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우리들도 최후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합시다.“

62) 앞의 책, 136~137쪽.

격문은 밤 시간에 학교 정문 벽에 게시되었다. 11월 3일 등교한 학생들은 이 격문을 보고 동요하였다. 학교 교사들은 즉시 이를 철거하고 학생들을 내사하였다. 그러나 단서를 찾지 못하고 넘어갔다.

1933년 7월에 거사된 일본인 교사배척 동맹휴학운동의 핵심 학생들은 거의 독서회 회원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독서회 회원들이 다수 퇴학 조치되어 독서회의 조직은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더욱이 10월에 강릉농민동맹, 독서회내의 반제동맹 가입자들이 수사를 받고 검거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1934년 5월에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 때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학생들은 김성열·심양섭·최영·권혁인·최호섭·김형도·이동언·김혁래·박병찬·염재근·박용태·김천회·김창희·민병태 등 14명이었다.<sup>63)</sup>

#### IV. 횡성인의 항일학생운동

일제는 1920년대 초기부터 문화정치를 내세워 한국민족에 대한 유화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내심 독립운동을 발본색원하려는 정책은 가일층 심화되어 반일적 단체활동을 가차 없이 탄압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학교 내 학생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일한 조직 활동이 되었다. 학생들은 31운동의 상처를 잊지 않고 민족독립운동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앞서 나갔

63) 강릉농업학교, 앞의 책, 138~139쪽. 趙東杰, 앞의 책, 277쪽.

다.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은 만세시위운동, 일본인 교사 배척운동과 동맹휴학운동, 비밀결사운동, 계몽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강원도 학생운동은 춘천고등보통학교, 춘천농업학교, 강릉농업학교, 춘천사범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920년대부터 만세시위운동,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0년대는 전국 학생운동의 추이에 합류하며 상록회 등 비밀결사운동으로 이어졌고 전국의 타 지역을 능가하는 활동상을 보였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어 일제는 한국의 학교제도를 일본과 동일하게 하고 한국인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1924년 3월 관립춘천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일제는 실업교육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내세워 당시까지 강원도에는 1910년 설립한 2년제의 춘천농업학교만이 있었다.

따라서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은 강원도의 유일한 인문계 중등학교로서의 의미가 컸다. 1920년대 전반기에 강원도 중등학교는 춘천고등보통학교와 춘천농업학교의 양교만이 개교되었으므로 강원도 전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였다.

횡성 지방은 초등교육기관인 횡성보통학교가 조선교육령 공포로 1911년 11월 3일 개교하였으며, 보통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의 진학은 춘천 또는 서울로 선택하였다.

이들 중에 1920년대 이후의 항일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다. 백흥기(白興基)원후정(元厚貞)심재영(沈在暎)신현빈(申鉉彬)신현익(申鉉億)정형철(鄭馨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춘천출신으로 춘천농업학교 만세시위의 주동학생 중 한 사람이었던 김무규(金武圭)는 학교 졸업 후 1932년 횡성금융조합에 발령을 시작으로 횡성인으로서 평생을 보냈다.

## 1. 상록회 운동과 백흥기의 활동

1930년대 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하며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갔다.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비밀결사인 상록회를 조직하여 전국의 학생운동 흐름에 동참하였다.

1937년 3월 14일 5학년의 남궁태이찬우문세현용환각백흥가조규석신현빈성수경 등은 비밀결사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백흥기의 하숙에서 민족독립운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상록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책임 부서와 행동강령을 정하였다.

춘천고등보통학교 상록회는 위원장에 조규석, 부위원장 남궁태, 선전부장 문세현, 서적부장 백흥기, 회계 용환각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회원으로 자기완성, 지도자로서 책임 완수, 단결력 배양과 파벌 투쟁의 배척, 조선 민족을 위하여 일신을 바칠 것을 행동강령으로 정했다.

발기인이었던 백흥기와 신현빈은 횡성출신으로 춘천에 진학한 학생들이었다. 백흥기는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47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상록회 서적부장으로 『동아일보』와 민족의식을 담은 『흙』『상록수』『조선의 현재와 미래』『마의태자』 등을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 읽도록 권장하여 독서활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였다.<sup>64)</sup>

상록회는 회원의 확보와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적부를 강화하여 독서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활동목표를 ‘조선 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사를 양성하여 궁극에는 조선으로 하여금 일제로부터 독립을 달성하도

64) 春川警察署, ‘常綠會事件起訴文’.



록 한다'는 것이었다.

독서회는 이후 회원 증가운동에 노력하면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독후감 발표, 토론회 등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독서회의 명칭을 다시 상록회로 바꾸었다.

1938년 상록회 초기 결성에 중심이 되었던 학생들은 졸업 후의 활동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이 때 백흥기와 이찬우는 만주로 가겠다는 계획과 어느 곳에 가던 한국의 민족운동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1938년 3월 학교 졸업 후 백흥기는 문세현이찬우남궁대 등과 함께 만주로 갔다. 백흥기는 만주 길림성 영길현의 공립국민우급 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 만주지역 독립운동 지도자들인 이동산(李東山)오종태(吳鍾泰)석일경(石一慶)김춘광(金春光)전종원(田宗元)과 연계하여 길림에서 상록회를 조직하고 간도지방에서 활동하였다.

비밀리에 전개되어 온 상록회 운동은 1938년 말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었다. 백흥기는 만주에서 검거되어 춘천으로 이송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1939년 12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사범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경찰 고문으로 순국하였다.<sup>65)</sup>

신현억은 횡성군 공근면 출신으로 1938년 9월에 상록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역시 검거되었다 풀려났다.

65) 趙東杰, 『太白抗日史』, 298~302쪽. 춘천고등학교, 앞의 책, 219쪽.

國家報勳處, 『獨立運動史』 제9권, 731~733쪽. 광복 후 그의 가족은 횡성군 안흥면에서 원주시 부론면으로 옮겨가서 현재 그의 형제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 2. 독서회 운동과 심재영·원후정의 활동

강원도의 항일학생운동은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상록회 운동에 대한 일제 경찰의 검거 선봉과 춘천농업학교 독서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일시적으로 침체상태인 것으로 보였으나, 학생들의 항일의식은 민족독립의 열화 같은 집념으로 높아갔다.

1930년대 말 국내 상황은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을 병참기지화하여 군수물자를 동원하였으며,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황국신민화의 동화정책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교육제도 개편을 서둘러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개편 내용은 내선일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교육차별을 없게 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어 수업을 폐지하고 일본어의 상용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한국의 민족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독립의식을 없애려는 극단의 식민지 정책이었다. 일제의 식민지교육이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강화되자, 학생들은 조선어에 대한 관심과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신문과 소설, 잡지, 역사서 등을 읽는 독서활동이 활발하여졌다.

1939년 초기 춘천중학교의 학생들은 기숙사, 하숙 생활에서 독서활동을 통하여 자생적인 독서 모임을 종종 가지게 되었다. 이들의 독서활동은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명망이 높던 여운형(呂運亨)의 영향을 받아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운형은 춘천의 이임수(李林洙 : 관동병원원장)와 연고관계가 있어 자주 왕래하였다. 이임수는 춘천중학교 학생 이란(李欄)의 부친으로서 이란과 학생들은 여운형을 만나 상해임시정부의 활동, 중일전쟁의 전망 등 내외정세와 외국의 독립운동 지도자의 활동상도 듣게 되어 독립의지

를 다짐하였다.

자연스러운 독서모임으로서, 공식적인 독서회는 조직하지 않고 유대를 맺었던 학생들은 권혁민·김균하·최규태·김영근·이유식·김기봉·이광훈·고웅주·심재영·원후정·윤익섭·백순호·고제훈·임도식·김인가·김용태·이상휘 등 17명이었다.<sup>66)</sup>

이들 학생들 중 심재영과 원후정은 횡성출신이었다. 이들은 이란의 집에서 독서회 모임을 가지며 『조선의 현재와 장래』 『흙』 『상록수』 등을 윤독하고 독후감 발표, 토론회를 가졌다.

공식적인 조직 활동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일본인 교사들의 민족 차별과 모욕적인 언행에 불만이 많았고 자만심을 가진 일본인 학생과도 충돌이 잦았다. 일본인 교관 오마치(大町)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 되어 심재영·원후정·김인가·김영근 등은 한밤에 오마치의 관사에 투석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1941년 3월 10일 일본육군기념일 행사에서 모의 시가전 중에 4학년인 원후정·고제훈·김영근·박영한·권혁민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인 학생들만 의도적으로 공격하자, 오마치 교관과 일본인 교사들은 분개하여 한국인 학생들의 민족의식이 작용한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조사를 청하였다.

3월 23일 새벽 경찰은 주동인물로 지목된 학생들의 숙소를 급습하여 28명을 연행하였다. 학생들의 서적, 일기장 등이 압수되었고, 이때 독서회 활동의 전모가 알려졌다.

일제 경찰은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구타와 고문을 가하였다. 18명의 학생들이 1941년 7월 검찰에 송치되었고, 11월 11일 6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고, 1942년 3월 27일 12명 전원이 치안유지법 위반과 폭력행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6) 『春高60年史』, 222쪽.

특히 횡성출신의 원후정과 심재영은 독서회 활동의 대표적인 주도 학생으로 지목되어, 치안유지법 위반과 폭력행위법 위반으로 단기 1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후정은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심재영은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원후정심재영은 김영근권혁민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맞아 출감하였다.<sup>67)</sup>

백흥가원후정심재영은 강원도 학생 항일운동사의 한 면을 남긴 횡성인의 긍지이며 자랑스러운 젊음을 조국독립을 위해 바친 이들이다.

이외에도 강릉농업학교의 제1차 항일동맹휴학운동과 관련 있는 횡성 출신 정형철(鄭馨撤)이 있다.

1930년 7월 11일 강릉농업학교에서는 일본인 교사 배척을 위한 항일동맹휴학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인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퇴학조처에 대항하여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는 운동이었다. 2학년생인 정형철의 퇴학처분에서 발단이 되어 동맹휴학운동에까지 확대되었다.

정형철은 횡성 출신으로 타 교과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일본인 교사 전결(田結二郎)의 수학과목에서 과락을 받아 유급하게 되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정형철이 항의하자, 학교는 학생 소요사건으로 처리하고 정형철을 퇴학 조치하였다. 2학년 학생 대표들은 학교장에게 퇴학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전결(田結) 교사의 완강한 반대로 좌절되었다.

학교의 불공정한 조치에 항의하여 2학년 학생들은 전결 교사에 대한 배척운동을 결의하고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였다.

학부형의 개입과 학교의 설득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였으나, 학교

67) 『春高60年史』, 236 ~ 238쪽.

는 출석 확인 및 학생의사 타진법이란 비교육적 방법으로 동맹주 동학생 6명을 퇴학, 1명을 무기정학 처분하였다.

정형철의 일본인 교사에 대한 항의 사건은 퇴학으로 종결되었으나, 전교학생들이 참여하는 항일학생동맹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김무규(金武圭)는 춘천 출신으로 춘천농업학교 4학년 학생이었다.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은 보도통제로 춘천지역에는 12월 10일경에 이르러서야 풍문으로 알려졌다. 춘천농업학교 학생들은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비밀히 연락하면서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주동 학생은 4학년의 김무규송철호(宋哲鎬)김남순(金南舜)이정호(李曄浩)윤향학(尹香鶴), 3학년 윤여중(尹呂重)윤형중(尹衡重)·임문승(林文承)김금덕(金今德), 2학년 신유철(申瑜澈)김재준(金才俊)김덕균(金德均), 1학년 이승춘(李承春)권의준(權儀俊) 등이었다. 이들은 격문을 인쇄하였으나 거사 전에 발각되어 압수당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12월 19일 교내시위와 함께 시내로 진출하여 가두시위 만세운동을 감행할 계획이었으나, 경찰과 헌병들이 학교를 포위하자, 전교생들은 교실로 들어가고 주동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만세를 불렀다. 경찰은 출동 즉시 학생들을 연행하였다.

경찰의 조사 후 윤형중과 김금덕은 퇴학 조치되었으며, 김무규·임문승·윤여중·황규현·이승춘은 무기정학 처분되었다.

김무규는 1931년 3월 졸업과 동시에 횡성금융조합에 발령을 받았다. 이후 금융조합장, 수리조합장 등을 역임하면서 평생을 횡성인으로 살았다.

## 부 록

횡성항일민족운동 관련 인물

횡성항일민족운동 연표

## 횡성항일민족운동 관련 인물

### 강달회(姜達會)

1868~1919, 4, 1.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사람으로, 이명(異名)은 사문(士文)이다. 횡성 천도교회 교인인 강달회는 51세 때인 1919년 4월 1일의 횡성 31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헌병의 총탄에 피살되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묘소는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정성골에 있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향토사료 제15집), 1999. 6, 239쪽.

### 강도영(姜道永)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횡성의 대표적인 의병장 중의 한사람이다. 천도교 횡성교구장이었던 강도영은 횡성을 중심으로 항일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청일면(晴日面) 춘당고개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막내 숙부 강달회(姜達會)와 아들 만형(萬馨)은 1919년 4월 1일 횡성장날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강달회는 만세 현장에서 총탄에 피살되고, 강만형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항거하다가 옥사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향토사료 제15집), 1999. 6, 222쪽.

### 강만형(姜萬馨)

1887~1920, 2, 28.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사람으로, 전 천도교

횡성교구장 강도영의 아들이다. 아버지 강도영이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횡성군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한 뒤, 강만형도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27일 횡성 31만세운동의 주동 인물로, 최종하(崔宗河) 등 동지 4명과 함께 60여 명의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제작하여 시장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결국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이해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범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 중, 모진 고문으로 1920년 2월 28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1977년에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대통령표장을 추서하였다. 후손으로 아들인 강백선(姜伯先)이 1970년대 초에 원주시 학성동 2반에 거주하고 있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5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36~942쪽.

### 강성순(姜聲順)

1893, 9, 3~1919, 4, 1. 횡성군 우천면(隅川面) 법주리(法住里) 사람으로 이명은 사운(士允)이다. 천도교인인 강성순은 1919년 4월 1일 횡성 장날을 기하여 천도교인들이 주동하여 일으킨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횡성장 만세운동에 그가 합류하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였다. 강성순은 “죽음이 겁나 만세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며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이날 밤 일본 헌병들의 발포로 순국하였다.

1977년 정부는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강성순지사의 묘소는 우천면 법주리에 있다. 강승문(姜勝文)은 그의 부친이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8쪽.



**권대형(權大亨)**

횡성 출신의 의병장으로 이명은 대형(大衡)이다. 강릉에서 의병을 일으킨 민용호(閔龍鎬)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민용호가 1896년 1월 강릉에서 관동구군도창의소(關東九郡都倡義所)를 설치하였을 때 횡성에서 의병을 모아 참여하였는지, 또는 민용호의 의병진이 원산(元山) 공격을 감행하였다가 실패하고 강릉으로 돌아와 전열을 수습할 때 참여하였는지, 권대형의 참여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민용호 의병부대는 1896년 6월 고성(高城)양양(襄陽) 등지를 점령하고 군수를 처형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공세가 점차 강화되어 탄환화약양곡 등 군용물자가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자, 권대형은 양곡 운반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8월 초에 민용호의 지휘 아래 민동식성익현차윤옥 등과 함께 의병을 거느리고 회양(淮陽)금성(金城) 방향으로 진출하여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고 산협을 따라 황해도 곡산(谷山)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민용호 의병진은 양덕맹산을 거쳐 함흥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만주로 들어갔는데, 그의 행적은 알 수 없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17029930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11쪽.

**김명기(金明起)**

횡성군 우천면(隅川面) 두곡리(杜谷里)에 살던 유학자로, 일명 사극(士極)이라고도 한다. 김진대(金振大)의 아들로 횡성 31만세운동을 주동 추진하였는데, 일본 헌병을 피하고 독립투쟁을 계속하고자 만주로 망명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40쪽.

**김명서(金明瑞)**

김명서는 황성군 둔내면(屯內面) 화연동(花硯洞)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7년에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자, 전국에서 의병이 다시 봉기하였다. 김명서는 26세인 1907년 음력 7월 17일 의병 모집에 나선 최인순(崔仁順, 仁舜) 휘하에 들어가 원주황성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으며 활동하였다. 음력 10월 22일에는 평창(平昌) 일대에서 활약하는 정병화(鄭炳華) 의병진에 참여하여, 동지 수십 명과 황성군평창군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았다. 그 후 피체되어 1909년 2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53쪽.

**김순서(金順瑞)**

황성군 정곡면(井谷面, 현 안흥면) 가좌곡리(佳佐谷里) 사람으로 연의(演儀)라고도 하였다. 천도교인인 김순서는 21세 때인 1919년 4월 1일 정해경(鄭海璟)김성서(金聖西) 등과 황성 31만세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1천 3백여 군중에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다. 군중은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을 들고 군청 건물들을 파괴하였으며, 일본 헌병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김순서는 피체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황성군황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6, 24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955쪽.

### 김성서(金聖西)

영월군(寧越郡) 양변면(현 주천면) 주천리 사람으로 천도교인이었다. 그는 나이 68세의 노인이었으나, 장사꾼을 가장하여 횡성군 내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1919년 4월 1일 횡성 31만세운동의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41쪽.

### 김순이

횡성읍 옥동리(玉洞里)와 갑천면(甲川面) 중금리(中金里)의 경계인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경영하였다. 일명 황소 아줌마(또는 황소갈보)라고 불리었는데, 한적한 곳에 위치한 주막을 31만세운동의 모의장소로 제공하고,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 때에는 여자의 몸으로 앞장서 군중을 격려했다.

황소 아줌마 김순이여사의 묘는 갑천면 중금리 한치 고개(구방2리)에 있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63쪽.

### 김옥봉(金玉鳳)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분일리 향산(香山)의 송병기(宋秉基)성태현(成泰鉉)박민희(朴民喜)와 수동(水洞) 이정헌(李正憲), 송병기의 사촌형 송병창(宋秉昌) 등이 주민 약 50명을 거느리고 향산과 수동 사이의 동산 위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독립만세 소리가 주변 마을로 울려 퍼지자, 수동 느티나무 옆의 자기 주막에서 상춘 유정근(柳定

根)이두연(李斗淵), 수동 이종우(李鍾禹)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김옥봉은 뛰쳐나갔다. 김옥봉 등은 유정근의 제의로 수동 주민들을 규합하여 동산에 올라가 향산 주민들과 합세하여 저녁 9시경부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동산에서 내려와 독립만세를 부르며 네 마을을 순회하며 시위에 불참한 자들의 집 문을 부수고 폭력을 가했다. 70여 명의 군중은 수동, 상촌, 조항 마을로 옮겨 섬강 건너 원주 지정면 무장 마을을 향해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향산으로 돌아와 만세를 부르다가 다음날 날 샐 무렵에 해산하였다.

일제 관헌의 검거로 피체되어 5월 15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62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84쪽.

### 김용원(金溶源)

황성군 갑천면(甲川面) 상금대리(上琴垔里) 사람으로, 이명은 김성천(金聖天)이다. 김용원은 몸이 불편하였으나, 장명수(張命壽, 청일면 춘당리)의 소개로 1915년 8월에 의병장 김종철(金鍾哲, 이명은 金鍾桓 또는 金光玉) 휘하에 들어가. 황성홍천평창군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활약하다가 피체되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90~300쪽.

### 김윤배(金允培)

황성군 갑천면(甲川面) 매일리(梅日里) 사람으로 천도교인이었다.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 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황성 31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매일리 주민을

동원하고 솔선하여 만세를 불렀다. 4월 1일 오후에 1천 3백여 명의 군중이 천도교 횡성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손에는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을 들고 일본 관헌이 만들어 놓은 것, 문을 닫지 않은 상점, 군청 건물 등을 파괴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1919년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594~595쪽.

#### 김윤신(金允信)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瑞和面) 천도리(天桃里) 사람으로 천도교 인이다. 31운동 때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붓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척 하면서 횡성군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만세운동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는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 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횡성 31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그는 피체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594~595쪽.

#### 김인경(金麟卿)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현 안흥면) 상안흥리(上安興里) 사람으로 서당훈도였다. 천도교 횡성대교구장 최종하(崔宗河)와 감리교 지도자 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가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횡성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안흥리 주민을 동원하여 함께 시위에 가담한 김인경은 1,300여 명의 군중이 모이자,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일제 군경에 피체

되어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5597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쪽.

### 김인준(金仁渾)

1890, 1, 15~1950, 9, 27. 황성군 공근면(公根面) 유담리(唯潭里)에서 태어났다. 1905년 11월 18일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5조약(乙巳五條約)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김인준은 서울 상동교회(尙洞敎會)에서 동지들과 모여 을사5조약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도끼를 메고 5명씩 연명으로 1회, 2회로 나누어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하기로 결의하였다. 1905년 11월 27일 제1회로 이준(李儁)이 지은 상소를 최재학(崔在學)이 소두(疏頭)가 되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아가 바치고 을사5조약의 파기와 을사 5적의 처형을 요구하였다. 일제 경찰이 출동하여 상소에 연명한 5명을 체포해 가자, 김인준 등은 시민들에게 일제를 규탄하고 국권회복에 궤기할 것을 호소하는 가두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헌병대에 대항하여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인준은 일제 헌병대에 피체되었다.

1980년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 하였다.

宋相燾, 『騎驪隨筆』, 국사편찬위원회, 8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1983, 114~115쪽.

### 김준경(金駿卿)

1924. 4. 22~1973. 5. 5. 황성 출신으로 1944년 11월에 중국 하북성(河北省) 포기현(蒲汽縣)에서 일본군 제3702부대를 탈출하여

중국군 왕륙기(王陸基)장군 휘하의 신평 제15사 유격대에 가담하였다. 그 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 광복을 맞이하였다.

1982년에 정부는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6권, 1983, 450451, 621쪽.

### 김진대(金振大)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杜谷里)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횡성 3·1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청년회원 최동수(崔東壽)가 만세군중을 해산시키려던 코지마료(小島了) 헌병 상등병을 말에서 끌어내려 구타하자, 김진대 노인은 담뱃대로 코지마료를 때리며 호령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44쪽.

### 김치영(金致榮)

원주군 소초면 일실리(日實里) 출신으로, 일명 현국(顯國)이다. 인근 지역에서 인망이 높던 김치영은 1907년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민궁호(閔肯鎬) 휘하의 소모장(召募將)으로 의병 모집을 담당하였다. 또 독자적으로 의병부대를 편성하여 1907년 음력 7월에 약 7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여주군(驪州郡) 우편취급소를 습격한 뒤, 원주횡성홍천영월평창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 2월 민궁호가 사망하자, 분개하여 이름을 현국(顯國)이라 고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치영은 횡성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상열(韓相烈), 양양(襄陽)강릉 등지에서 활약하는 금기철(琴基哲) 의병진과 연합하여 1908년 4월 일본군 횡성수비대를 대거 공격하였다. 그리고 9월 8일에 부하 33명을 이끌고

신림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10월 24일에는 둔내면 영랑리(永浪里)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횡성원주홍천 등지에서 일본군과 도합 30여 차례 전투를 전개하였다. 1909년 일본군에 피체되어 6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교수형을 언도 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 당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 1983, 599쪽, 별집 1, 1983, 257~260쪽.

#### 김치정(金治正)

김치정은 횡성군 갑천면 매일3리(梅日3里, 속칭 잔골)에 한문서당을 마련하고 10여명의 생도에게 한학(漢學)을 가르치고 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생이었다.

1919년 4월 1일 횡성 장터에서 31만세운동이 전개되자, 50대의 장년 김치정은 제자 신건수를 대동하고 횡성으로 와서 1,3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군중의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열기가 거세어졌다. 군중들이 경찰서로 향하자, 일제 헌병들은 군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였다. 동포들이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격분한 군중들은 맨 주먹을 움켜쥐고 혹은 돌과 몽둥이를 집어 들고 왜병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태가 급박 하자 일제 헌병들은 거세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김치정이 일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쓰러졌다.

총소리가 멈추고 피신했던 군중들이 만세 현장에 나와 총탄에 맞은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했다. 잔골 마을 주민들은 김치정 시신을 마을로 운구하여, 일경의 눈을 피해가며 정성을 다해 매일2일 동산에 장사를 지냈다. 묘가 현재도 친척들의 보살핌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



김치정의 31 만세운동 참여와 순국 사실은 일본 헌병과 경찰이 두려워 숨겨오다가 신건수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졌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44쪽.

#### **박내원(朴來元)**

1855~미상. 횡성군 청일면 내실리(內實里) 출신으로 이교영(李敎榮) 의병진에 가담하여 경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경북 영천군(榮川郡) 북면(北面) 답곡리(菑谷里) 출신의 이교영(李敎永)이 1908년 12월에 의병을 일으켜 순흥(順興)풍기(豐基)안동(安東)영천(醴川)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으고 일진회(一進會) 회원과 밀정들을 총살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박내원은 이교영의 부하가 되어 1909년 8월경 경북 풍기군(豐基郡) 소룡산리(小籠山里), 안동군 풍산면(豐山面) 서미곡리(西尾谷里), 영천군 등지에서 의병활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활동 중 피체되어 1910년 1월 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부에서 유형 7년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였으나 1월 27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1996년 정부는 박내원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I, 1983, 541~542쪽.

#### **박민희(朴民喜)**

1897. 9. 25~1945. 2. 2.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박민희는 1919년 4월 12일에 서원면 분일리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전개하였다. 섬강 연안에 위치한 분일리는 조항(鳥項)상촌(上村)수동(水洞)향산(香山) 등

네 개의 작은 마을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동리이다. 원주군에서 4월 8일과 9일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향산 박민희는 동리의 송병기(宋秉箕)성태현(成泰鉉), 수동 이정헌(李正憲)과 송병기의 사촌형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12일에 향산 주민 약 50명을 거느리고 향산과 수동 사이의 동산 위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주변 마을로 울려 퍼지자, 상촌 유정근(柳定根)이두연(李斗淵)과 수동 이종우(李鍾禹)가 수동 느티나무 옆 김옥봉(金玉鳳)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뛰쳐나왔다. 유정근의 발의로 이들은 수동 주민들을 규합하여 동산에 올라가 합세하여 저녁 9시경부터 독립만세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동산에서 내려와 네 마을을 순회하며 만세시위에 불참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문을 부수고 폭력을 가했다. 70여 명의 군중은 수동에서 상촌, 상촌에서 조항으로 옮겨 섬강 건너 원주 지정면 무장 마을을 향해 만세를 외쳤다. 다시 조항향산 마을로 돌아와 만세를 부르다가 다음날 날 썰 무렵에 해산하였다고 한다.

그 후 박민희는 일제 관헌에 피체되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정부는 박민희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80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952쪽.

### 박봉수(朴鳳洙)

1898. 3. 14~1974. 12. 8. 황성 사람으로, 이명은 봉수(鳳秀)이다. 1932년 9월 국민부(國民府) 산하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의 일

원으로 평남 덕천(德川)에서 폭탄사건을 일으켰던 변낙규(邊洛奎) 김병수(金炳洙) 등이 국내에서 잠입하자, 박봉수는 이들을 도와 연락기관을 설치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는 이들과 함께 평북 구성(龜城)의 거부 최창학(崔昌學)을 납치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 12월 27일에는 장인준(張仁濬)김일봉(金一鳳)과 함께 영변(寧邊)의 도박장(賭博場)을 습격하여 군자금 모집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933년 3월 29일에 그는 변낙규와 함께 삭주군(朔州郡)의 이봉주(李鳳柱)로부터 군자금 42원을 모집하고 위조지폐(偽造紙幣)의 발행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어, 1933년 8월 9일 신의주지방 법원에서 이른바, ‘치안 유지법’ 및 제령(制令) 제7호, 폭발물취체규칙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1990년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騎驢隨筆』, 427~428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4집, 1983, 912쪽.

『동아일보』, 1933년 4월 14일, 7월 19일, 8월 11일.

『독립유공자공훈록』 9, 168쪽.

### 박영묵(朴永默)

일명 성묵(性默) 또는 치회(致會)라고도 한다. 일찍이 관계에 진출하였으나,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하여 민비시해사건이 자행되고 곧 친일내각에 의하여 단발령이 강제 시행되자, 박영묵은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항거하였다.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활약한 그는 한때 500여 명의 대부대를 거느리기도 하였다. 1896년 3월 홍천의 삼물치(三勿峙)에서 적군과 교전하여 8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올렸다. 4월부터 반년 동안 횡성에서 성을 지키면서 포고문(布告文)격고문(檄告文) 등을 배포하여 한민족의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1907년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대치하였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고 군대를 급격히 증파하자, 박영묵은 국내에서의 의병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는 유인석(柳麟錫) 의병장의 문인들과 제휴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8년 만주에서 사망하였다.

1977년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170쪽.

『朴永默先生集』.

#### **박정수(朴正洙)**

황성군 청일면 고시리(晴日面 古時里) 사람으로, 가난한 농부로 생활하면서도 동리의 길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돌보아 주었다. 그는 정의감과 공명심이 강하여 사리와 윤리도덕에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타일렸다.

장년일 때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항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다.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피체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여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와 불구의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

황성군황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26쪽.

#### **백흥기(白興基)**

1920. 5. 18~1940.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安興里) 472 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5학년 재학 중인 1937년 3월 7일에 동교생 남궁태(南宮瑋)이찬우(李燦雨)조규석

(曹圭奭)문세현(文世鉉)용환각(龍煥珪) 등과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고 민족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항일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였다. 상록회는 강령 및 부서를 정하였는데, 백흥기는 서적부장을 맡아 독서활동과 회원 확보를 위해 활동하였다. 상록회는 신입회원을 가입시키며 회세를 확장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상록회는 월례회토론회독후감 발표회를 열어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농촌자립을 통하여 독립의식을 높이는 농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회원들은 졸업 후에도 각각의 정착지에서 새롭게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졸업을 앞두고 백흥기는 이찬우와 만주로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민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백흥기는 1938년 3월에 춘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문세현이찬우 등과 만주로 건너가 길림성 영길현의 공립국민우급학교(公立國民優級學校) 교사로 봉직하였다. 그는 길림지방에서 재만독립운동가 이동산(李東山)오종태(吳宗泰)석일경(石一慶)전종원(田宗元) 등과 연계하여 상록회를 조직, 활동하였다. 그리고 문세현과 함께 간도(間島)지방에서도 활동하였다.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본 경찰에 발각됨으로, 백흥기도 이에 연루되어 이찬우와 함께 만주에서 피체되었다. 춘천으로 이송된 그는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77년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그의 형제와 일가는 현재 원주시 부론면에 살고 있다(1970년).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39. 12.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73173273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2권, 1983, 1434~1444쪽.

趙東杰, 『太白抗日史』, 298~302쪽.

### 서용인(徐用仁)

황성군 군내면(郡內面) 상동리(上東里) 출신이다. 한때 광부였다가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 군인이었다. 일제가 1907년에 강제로 한국군을 해산하자, 서용인은 평창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의병장 정병화(鄭炳化, 일명 秉煥)의 휘하에 들어가 평창영월·횡성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 8월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大和里)에서 김명조(金明祚)·정시중(鄭時鍾)·이태경(李泰慶)·안석조(安錫祚) 등과 함께 일본인 우편 체송부를 체포하여 살해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의병항쟁을 계속하다가 피체되어 1912년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강도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석방되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I, 1983, 280~283쪽.

### 성태현(成泰鉉)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書院面分一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송병기(宋秉基)·박민희(朴民喜)·이정헌(李正憲)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주민 70여명을 모아 분일리 향산(香山)과 수동(水洞) 사이의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4월 13일 오전 1시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5월 2일에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

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8년경 신간회(新幹會)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19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여 우리의 민족혼 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1992년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9~58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952쪽.  
京城地方法院, 「判決文」(1919. 5. 15.).

#### 송병기(宋秉箕)

1891. 4. 30~1930. 5. 18.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書院面 分一里) 사람이다. 송병기는 1919년 4월 12일 서원면 분일리에서 성태현(成泰鉉)박민희(朴民喜)이정헌(李正憲)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고, 주민 70여 명을 규합하여 뒷산에 올라가 봉화(烽火)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만세 소리를 듣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시 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도록 시위를 하다가 날이 샅 무렵에 해산하였다.

송병기는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80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952쪽.

#### 신재근(申在根)

횡성군 횡성면 영영포리(永永浦里)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경 장도훈(張道勳)과 함께 자기 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장도훈에게 서울 이동구(李東求)에게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구입해오도록 하여, 3월 13일 횡성군 내에 배포하였다. 그 후 3월 27일 횡성읍 장날을 맞이하여 모든 상점을 닫게 하고 3백여 명의 주민을 모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6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4575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252~254쪽.

#### 심상희(沈相熙)

심상희는 이인영(李麟榮)한갑복(韓甲復)민궁호(閔肯鎬)여용단(余龍端) 등과 함께 횡성지방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의병대장이다. 1907년 10월 31일부터 8천명을 거느리고 고모곡면(古毛谷面, 현재 書院面)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대항하면서 횡성원주는 물론 충북 제천, 충주 등지와 경기도의 양근과 지평(현재 楊平)지역에서 대대적인 의병을 모으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29쪽.

#### 심재영(沈在暎)

횡성 출신으로 1939년 춘천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 같은 횡성 출신인 원후정 등 동급생들과 독서회 모임을 만들고 조선어책과 『조선의 현재와 장래』 『흙』 『상록수』 등 민족의식과 관련 있는 소설, 역사서 등을 읽고 독후감 발표, 토론회를 하였다.

독서회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같은 모임의 급우인 이란(李欄) 집에서 그의 부친 이임수(李林洙)와 친분이 있어 자주 내왕하는



독립운동가 여운형(呂運亨)으로부터 상해임시정부의 근황과 국제 정세,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간디의 애국운동을 전해 들으면서 항일민족의식을 자각하였다.

춘천중학교 학생들의 독서회는 토요일 등 토론회를 가지며 계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직은 의도적으로 결성하지 않았다. 상록회 운동 사건과 이후의 춘천농업학교의 독서회 운동으로 학생운동이 어려움에 부딪혔다. 1940년 3학년이 된 심재영원후정김인가김영근 등은 평소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과 민족멸시의 언행으로 감정이 나쁜 일본인 교관 대정(大町)의 관사에 습격하여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으며, 일본인 학생들을 구타하기도 하였다.

1941년 3월 10일은 일본 육군기념일 이었다. 모의시가전 행사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자, 일본인 학생들은 전일의 사건으로 쌓인 감정이 겹쳐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3월 23일 심재영은 원후정 등과 검거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독서회 활동의 전모가 알려졌으며, 폭행이 아닌 항일민족운동으로 수사가 진전되었다. 11명의 학생들이 1941년 7월 검찰에 송치되고, 12명은 1942년 3월 27일 ‘치안유지법 위반’과 ‘폭력행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재영은 원후정과 함께 단기 1년 장기 3년의 형을 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광복으로 출감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1983, 734쪽.

### 안경춘(安敬春)

1900. 11. 26~1975. 7. 20. 횡성군 안흥면 상안흥리(上安興里, 641번지) 사람으로, 이명은 승훈(承勳)이다. 천도교인인 안경춘은 장도훈과 김인경(金麟卿)에게 글을 배운 청년으로서 일찍부터 일제

식민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횡성지방에서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1919년 3월 27일 횡성장터에서 천도교인 다수와 주민을 규합하였다. 그는 신재근(申在根)과 장도훈(張道勳)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교부 받아 장터에 모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경춘은 징역을 살고 출소하여 고향에 돌아왔지만, 일본 경찰이 감시하며 공연히 간섭하며 괴롭히자, 안경춘은 일제의 눈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주(四柱)같은 것을 보며 세월을 보냈다.

안경춘의 아들 안성만(安成晩)이 상안흥리 「버리소골」에 살았다. 1990년 정부는 안승훈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2~954쪽.

#### 여용단(余龍端)

여용단은 이인영(李麟榮)심상희한갑복(韓甲復)민궁호(閔肯鎬)등과 함께 횡성지방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의병대장이다. 1907년 10월 31일부터 8천명을 거느리고 고모곡면(古毛谷面, 현재 書院面)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대항하면서 횡성원주는 물론 충북 제천, 충주 등지와 경기도의 양근과 지평(현재 楊平)지역에서 의병을 모으며 활약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29쪽.

**오정묵(吳正默)**

횡성군 청룡면(현 횡성읍) 갈풍리(靑龍面 葛豐里) 출신이다. 1905년 일제의 강요로 을사5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에서 항일의병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횡성군 서기(書記)로 근무하던 오정묵은 군내의 많은 산포수(山砲手)사환(使喚)노동자들을 규합하여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오정묵은 민공호와 이강년(李康季)이 연합작전으로 제천충주를 공격하는데 참여하였다. 1907년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자, 오정묵은 9월 청일면 봉복사(鳳腹寺)에서 민공호 의병진과 더불어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청일면 울실리(栗實里)에 은신하다가, 귀순자는 면죄한다는 조칙(詔勅) 발표를 듣고, 1908년 4월 3일 그가 인솔하던 포수 등 부하 약 60여 명과 함께 의병을 해산 귀순하였다고 한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1983, 598~599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492쪽.

**용해준(龍海俊)**

횡성군 청일면 병지방리(兵之坊里) 출신으로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일명 경수(敬守)라고도 한다. 그는 정욱영(鄭旭永)의 권고로 1914년 4월경 의병장 김종철(金鍾哲, 일명 鍾桓, 鍾煥, 光玉) 휘하에 들어가, 김종근(金鍾根, 일명 成日, 許中國)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이낙여(李洛汝)오중수(吳重守)정태용(鄭泰用)김원실(金元實) 등과 함께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를 응징하며 일제 군경과 항쟁을 전개하였다. 뒤에 피체되어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90~295쪽.

### 원용팔(元容八)

1862~1907. 한말 의병장으로 일명 용석(容錫)이라 불렸고, 자는 복여(福汝), 호는 삼계(三戒)서암(恕庵)이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1895년 여주 의병장 심상희(沈相禧)의 후군장으로 임명되어 여주의진의 전세를 크게 뒷받침해주었다. 1896년 음력 2월 장호원의 병참소를 공격하였으나 실패, 원주를 거쳐 청풍으로 패퇴하였다. 뒤에 안승우(安承禹)를 잃은 제천의진의 부름을 받고 중군장으로 유인석(柳麟錫)을 보좌하였다.

제천전투 이래 전세를 크게 상실한 의진을 위하여 그해 5월의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흩어졌던 군사를 다시 모으는 등 중군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였다. 그러나 전 중군 이완하(李完夏)가 되돌아오고 서상렬(徐相烈) 등이 들어와 의진이 활기를 되찾자 보름간 중군하던 제천의진을 떠났다.

1905년 8월 박정주(朴貞珠) 등과 함께 재차 거사를 도모하여 각 처에 격문을 보내어서 1천여 명의 의병을 집결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와해공작으로 의진이 흩어지고, 그 와중에 횡성에서 붙잡혔다. 1977년 정부는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黃玟, 『梅泉野錄』, 朴貞珠, 『梅堂集』,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19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983.

### 원후정(元厚貞)

1922. 5. 27~1995. 횡성 출신으로 1939년 춘천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 중, 동향이며 같은 하숙에서 생활한 심재영과 교내 독서

모임에 참가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서적들을 읽으며 독서활동과 토론회 등을 가지고 항일의지를 높였다. 독서회는 1938년 가을 상록회사건으로 인하여 자생적 모임으로 지속되면서 활동은 적극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표면상 조직은 부재하였다.

원후정은 동급생인 이란(李欄)을 통하여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인 여운형(呂運亨)과의 만남 기회를 가지고 그로부터 세계정세의 전망, 상해임시정부의 활동, 인도의 애국사상가 간디의 소개담 등을 듣고 항일의식을 키웠다.

1941년 3월에 민족 차별적 언행을 하는 일본인 교관 대정(大町)에게 분개한 그는 심재진(沈在震)고제훈(高濟勳)김영근(金榮根)박영한(朴泳漢)권혁민(權赫民) 등과 함께 한밤중에 대정 교관의 관사를 기습하여 유리창 등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1941년 3월 10일 일본육군기념일 모의시가전 행사 중 춘천중학교 교정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싸움이 커져 개입한 일경이 수사 중 춘천중학교의 독서회 운동의 단서를 잡고 회원들을 검거하였다. 이때 안후정도 일경에 피체되어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2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언도 받았다. 또 ‘폭력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2년형을 언도 받고 11월 11일부터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1977년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1983, 734쪽.

### 유정근(柳定根)

1882. 7. 24~1946. 11. 20.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分一里) 사람

으로, 1919년 4월 12일 밤 9시경 분일리에서 송병기(宋秉基)성태현(成泰鉉)박민희(朴民喜)이정헌(李定憲) 등이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자, 유정근은 이두연(李斗淵)이종우(李鍾禹)김옥봉(金玉鳳)과 함께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그리고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폭력을 가하고 문을 부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에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趙東杰, 『橫城과 31운동』 (1977), 8310210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9~58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952쪽.

#### 윤동선(尹東先)

횡성읍(橫城邑) 영영포리(永永浦里)에 살고 있던 윤동선은 1919년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총상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2쪽.

#### 윤석환(尹錫煥)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邑下里)에 살던 윤석환은 1919년 3월 27일과 4월 1일의 횡성 31만세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2쪽.

**윤태환**(尹泰煥)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邑下里 68번지) 사람으로, 신재근(申在根) 장도훈(張道勳)이 계획하여 추진한 1919년 3월 27일의 흥천읍 장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27일 횡성시장에서 신재근의 권고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 다른 주동인물들과 함께 시장내의 모든 상점을 닫게 하고 사람들을 집합하여 300여 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6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3, 954쪽.

**위창래**(魏昌來)

1919년 31운동 당시 횡성읍 영영포리(永永浦里) 구장(區長)이었던 위창래는 당시 많은 친일적 구장들과는 달리, 마을에서 31만세운동을 계획추진하는 것을 일본 헌병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만세운동의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3쪽.

**이기순**(李奇順)

횡성군 둔내면(屯內面) 자포곡리(自浦谷里)에 살고 있던 이기순은 횡성의 31만세운동 때에 만세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3쪽.

**이동구(李東九)**

황성군 공근면(公根面) 매곡리(梅谷里)에 살던 이동구는 태극기를 만들어서 돌리며 공근면민의 만세시위 참여를 독려했으며, 면민들과 함께 1919년 4월 1일 황성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황성군황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3쪽.

**이동구(李東求)**

황성 천도교 출신인 이동구는 의사원으로 서울 천도교본부에 근무하면서 황성의 31운동에 독립선언서를 알선하고 서울의 만세운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황성군황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5쪽.

**이두연(李斗淵)**

1881. 8. 4~1946. 11. 18.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分一里) 사람으로, 이명은 공진(公進)이다. 1919년 4월 12일 서원면 분일리 송병창(宋秉昌) 등이 밤 9시경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두연은 이에 호응하여 김옥봉(金玉鳳) 집에 있던 유정근(柳定根)이종우(李鍾禹)와 함께 군중을 모아 합세, 만세운동을 펼쳤다. 그는 군중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만세를 부르고, 참가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문을 부수기도 하며 새벽 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1992년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京城地方法院, 「判決文」, (1919. 5. 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9~58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952쪽.

### 이유태(李裕泰)

횡성군 공근면 하갈마곡리(下葛麻谷里, 현 梧山里) 사람으로, 횡성 31만세운동 때 만세시위를 선동하고 친일도배를 질책하였다. 일본 헌병에게 피체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8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4쪽.

### 이인영 (李麟榮)

1867~1909. 경기도 여주 출신 의병장으로, 일명 준영(竣榮)이라고 불리었다. 정동현(鄭東鉉) 문인으로 일찍이 학문에 전념하여 대성전재임(大成殿齋任)을 지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인석(柳麟錫)이강년(李康季) 등의 의거에 호응하여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유인석의 제천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경북 문경으로 이주하여 은둔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5년 일제의 강요로 을사5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분격하여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그도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이 재기하자, 일부 해산군인이 의병에 가담하였다.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은찬(李殷贊)이구재(李九載, 본명은 九采)가 해산군인 80명을 포함한 500명의 의병을 모집한 뒤, 이인영을 찾아가 의병총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어 망설였다. 그러나 이은찬이구재가 사사(私事)로써 공사를 미룰 수 있겠느냐며 간곡히 권유하자, 원주로 출전하여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에 오른 뒤 사방으로 격문을 발하여 의병을 소모하였다. 의병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러 식량과 자금의 조달이 크게 문제되자, 반역배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서울주재 각국 영사관으로 사람을 밀파하여, 일본의 불의를 성토했고 의병은 순수한 애국단체이니 열강은 이를 국제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하여 적극 성원해줄 것을 바란다는 ‘관동창의대장’ 명의의 격문을 전달하였다.

이인영은 의병규합에 노력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각도에 격문을 발하여 전국 의병들은 경기도 양주로 집합할 것을 촉구하였다. 격문에 호응하여 11월에는 각도 의병장들이 속속 양주로 집결하였다. 경기도 허위(許蔦), 황해도 권중희(權重熙, 일명 義熙), 충청도 이강년, 강원도 민금호(閔肯鎬), 경상도 신돌석(申玆石), 전라도 문태수(文泰洙, 일명 泰鉉), 평안도 방인관(方仁寬), 함경도 정봉준(鄭鳳俊) 등이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격문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방인관이 평안도에서 80여명, 정봉준이 함경도에서 70여명을 거느리고 참여하였다.

양주에 집결한 의병은 진위대 출신의 병사와 기타 훈련받은 군인 약 3천명이었다. 의병장들의 연합전략회의 결과, 13도창의대장에 이인영을 추대하고, 곧이어 각군의 칭호를 정하고 전국연합부대 편성에 착수하였다. 13도 연합의병부대(十三道倡義軍)의 진호(陳號)와 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도의병총대장 이인영, 그 배하에 황해도 권중희, 전라유진소 전라창의대장 문태수, 호서유진대장 이강년, 교남유진소 교남유진

대장 신돌석, 진동유진소 진동창의대장 허위, 아장 박정빈(朴正斌), 관동유진소 관동창의대장 민공호, 관서유진소 관서창의대장 방인관, 관북유진소 관북창의대장 정봉준이었다.

그 뒤 원수부 13도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의병대장 민공호, 호서의병대장 이강년, 교남의병대장 박정빈, 경기황해 진동의병대장 권중희, 관서의병대장 방인관, 관북의병대장 정봉준, 호남의병대장 문태수로 개편되었다.

개편 후의 의병장은 모두 양반 유생으로서 천민출신의 용장인 신돌석이 배제되고, 홍범도(洪範圖)김수민(金秀民) 등 평민출신의병장이 연합전선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13도연합의군이 폭넓은 대중적인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서울 진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진격을 개시, 경기일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연합의진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뒤 일거에 서울을 공략할 작전계획을 세우고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이인영은 뒷일을 군사장(軍師將) 허위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장례를 마쳤다.

뒤에도 여러 차례 의병들이 찾아가 재기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3년상을 마친 뒤 다시 13도 창의군을 일으켜 일제를 소탕하겠다고 하면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노모와 두 아들을 데리고 상주군에 숨어살다가, 다시 충북 황간군(黃澗郡) 금계동으로 옮겼다. 1909년 6월 7일 일본헌병에게 피체되어 경성감옥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3월 1일에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維新社, 19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제1권.  
윤병석, 『義兵과 獨立軍』,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이정헌(李定憲)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分一里) 사람으로, 1919년 4월 12일 송병기(宋秉基)박민희(朴民喜)성태현(成泰鉉) 등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주민 70여명을 모아 마을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4월 13일 오전 1시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제 경찰에 피체되어 1919년 5월 15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80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952쪽.

#### 이종우(李鍾禹)

1880. 6. 8~1951. 11. 24. 횡성 사람으로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分一里)에서 주민 50여명이 동산에 올라 봉화를 올린 후 만세를 부르자, 이종우는 김옥봉(金玉鳳) 집에 있던 유정근(柳定根)이두연(李斗淵)과 함께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그는 군중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군중들과 함께 참가하지 않은 집의 문을 부수기도 하며 새벽 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경의 무력탄압에 의해 시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겪었다.

1992년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京城地方法院, 「判決文」(1919. 5. 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9~58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952쪽.

#### **이채일(李采一)**

횡성 천도교 출신인 이채일은 의사원으로 서울 천도교본부에 근무하면서 횡성의 31운동에 독립선언서를 알선하고, 서울의 만세운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향토사료 제15집), 1999. 255쪽.

#### **장도훈(張道勳)**

횡성 천도교회 대교구 봉훈이었던 장도훈은 31운동 당시 49세로 안흥면 안흥리(安興里) 속칭 울일골에 살았다. 횡성 31운동 계획 때 서울에 올라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구입하여 횡성에 가지고 와서 국내 각처에 배포케 하였다. 1919년 3월 27일의 횡성 31만세운동을 주동하고 앞장서서 만세 시위하다가 체포되어 2년간 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옥고를 치르고 고향에 돌아와 1935년 2월 8일 작고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안흥면 월현리(月峴里)에서 살고 있다(1970년대).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향토사료 제15집), 1999. 256쪽.

#### **장명수(張命壽)**

장명수는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春堂里) 출신으로 일명 조원배

(趙元培)라고 한다. 1907년 8월경부터 인제 횡성영월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한 김광옥(金光玉) 휘하에 들어가 김종근(金鍾根)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용해준(龍海俊)정태용(鄭泰用)최순실(崔順實)장재선(張在善)이낙여(李洛汝) 등과 함께 횡성인제홍천평창강릉양양군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파를 응징하며 일제 군경과 항쟁하다가 체포되었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이른바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90~295쪽.

#### 장재선(張在善)

횡성군 갑천면 상금대리(上琴垞里) 출신으로, 일명 장홍련(張洪連)이라고 한다. 그는 1907년부터 의병활동을 전개한 김광옥(金光玉) 휘하에 1915년 1월경 들어가, 김종근(金鍾根)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용해준(龍海俊)정태용(鄭泰用)최순실(崔順實)이낙여(李洛汝)정대성(鄭大成) 등과 함께 횡성인제홍천평창강릉양양군 등에서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파를 응징하며 일제 군경과 항쟁하다가 피체되었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이른바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90~295쪽.

#### 전성수(全聖洙)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邑上里)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 등이 주동한 횡성 31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1일 오후 횡성읍 장터에 1천 3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

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전성수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954955쪽.

### 전한국(全漢國)

횡성읍 읍하리(邑下里) 사람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수로공부(水路工夫)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1919년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헌병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 순국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6쪽.

### 정대성(鄭大成)

횡성군 청일면 병지방리(兵之坊里) 출신으로, 일명 일영(日永), 혹은 일영(一永)이라고도 불렸다. 1907년 8월경부터 인제횡성영월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김광옥(金光玉) 휘하에 있던 김종근(金鍾根)의 소집에 응하여, 20세의 청년 정대성은 1915년 5월경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김종근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용해준(龍海俊)정태용(鄭泰用)최순실(崔順實)장재선(張在善)이낙여(李洛汝)장명수(張命壽) 등과 함께 홍천횡성인제평창강릉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었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이른바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90~295쪽.

**정두철(鄭斗澈)**

횡성읍 읍하리(邑下里)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의 선봉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가장 먼저 외치며 군중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6쪽.

**정문재(鄭文在)**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新垔里) 속칭 새터에서 살던 그는 27세의 젊은 장사로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무용(武勇)을 즐겨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화포술에 능통하여 농한기만 되면 동리 청년들과 어울려 사냥하기를 즐겨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왜병이 쳐들어와 동학군을 진압한다는 소문을 들은 정문재는 왜병과 싸우기 위해 화포(火砲)를 들고 출병하였다. 화포에 명사수였던 그는 횡성원주홍천 등지에서 선봉장이 되어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하였다. 그러나 왜병을 물리치다가 불행하게도 하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귀가하였다. 가족들의 정성으로 건강은 회복하였으나 몸이 자유롭지 못하여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즐기던 사냥도 하지 못하며 조국의 앞날을 마음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81세에 별세하였다.

그의 묘소는 「새터마을」 동산에 있으며 지금도 신대리 사람들은 그의 화포술과 용맹스러웠던 무용담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33~234쪽.



**정시종(鄭時鍾)**

원주 읍내상동(邑內上洞) 출신으로 원주군청의 사환이었다. 1907년 8월에 평창(平昌)일대에서 봉기한 정병화(鄭炳化, 炳煥, 炳華) 휘하에 들어가 이태경(李泰京)안석조(安錫祚)서용인(徐用仁) 등과 함께 횡성평창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1907년 8월 4일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大和里)에서 주막을 하던 김명조(金明祚)를 만났다. 이들은 전에 같은 원주진위대 병사였던 김명조의 정보에 따라, 이곳을 통과하는 일본인 우편체송인(郵便遞送人)을 결박 살해하였다. 1912년에 체포되어, 동년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년 7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80~283쪽.

**정옥영(鄭旭永)**

횡성군 청일면 병지방리(兵之坊里)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였다. 1907년 8월경부터 인제횡성영월 등지에서 활동하던 김광옥(金光玉) 휘하의 김종근(金鍾根)을 정옥영은 1914년 봄부터 수차 재워주었다. 그리고 동리의 용해준(龍海俊)과 그의 아우 정태용(鄭泰用, 白文, 泰龍, 흥천군 영귀미면 좌운리 거주)과 정대성(鄭大成)을 김종근 의병진에 가담케 하였다. 김종근정옥영용해준은 인제군 내면 행치령(行稚嶺) 고개에서 통행하는 사람들로 부터 군자금을 모으려고, 1914년 9월 상순에 총과 군도를 휴대하고 정옥영 집을 출발, 산속을 우회하여 가던 도중에 흥천군 서석면 검산리 간촌(儉山里間村)에 이르렀다. 이들은 빈집에 충남 공주군 서면 유기장대(有岐場垜)에 거주하는 한치수(韓致守) 등 5명의 행상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옥영은 군도를 가지고 처마 밑에서 망을 보고, 김종근과 용해준은 각자 총을 가지고 집에 돌입하

여 한치수 등에게서 현금 18원 외 물품을 획득하였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이른바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90~295쪽.

### 정태용(鄭泰用)

홍천군 영귀미면(泳歸美面) 좌운리(坐雲里) 출신으로, 일명 정백문(鄭白文)이라고도 한다. 의병 활동을 하던 정태용은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의병을 탄압하자 은거하였다. 그 후 형 정욱영(鄭旭永)의 권고로 1914년 9월경 의병장 김종근(金鍾根)의 휘하에 들어갔다. 1914년 11월 22일 밤 정태용은 김종근 용해준김원실(金元實, 인제군 麒麟面 上南里 松峯)이낙여(李洛汝) 등과 총군도 또는 곤봉을 가지고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開雲里) 이희교(李熙喬) 집에 돌입하여 돈 30여 원과 물품을 군자금으로 탈취하였다. 1915년 3월경에는 1907년 8월경부터 인제군 일대에서 의병을 소모하여 활동을 한 김종환(金鍾煥, 鍾鐵) 휘하에 들어가 홍천군횡성군인제군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태용은 1916년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으나 형량(刑量)은 알 수 없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90~295쪽.

### 정해경(鄭海璟)

횡성군 횡성면 내지리(奈之里)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횡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감리교인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그는 1,300여 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만세 부르며 시위하였다. 피체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4955쪽.

### 정현석(鄭顯奭)

고종 때 사람으로 횡성군에서 출생하였다. 1886년(고종 23)에 정부가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여 서양 신학문의 교육을 실시하고, 갑오경장 이후 신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관립학교를 설치하였다. 근대적 사립학교의 시초는 이 보다 앞선 1883(고종 20)년에 개화파 관료인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德源府使兼元山監理) 정현석에 의해 원산상회의소 회원들과 지방민들의 요청으로 설립하였다.

1880년 개항한 원산은 일본인 조계(租界)가 설정되고 일본 상인들의 상권이 확장되어갔다. 개항장 주민들은 외세 침투에 대응하려면 근대적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자력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학교를 세웠다. 주민들은 정현석에게 학교 설립기금의 모금 계획을 알리고 근대학교 설립을 요청하였다. 정현석은 서북경략사인 어윤중(魚允中)과 통리기무아문의 승지 정헌시(鄭憲時)의 협조를 받아 원산상회의소, 덕원과 원산 주민 등 다수의 모금활동으로 설립 기금을 확보, 1883년 8월 정부의 승인으로 원산학사(元山學舍)를 개교하였다.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이며 개화 관료와 주민의 자력으로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여 설립한 학교라는 데 의미가 크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소학교중학교의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원산학사는 원산소학교로, 원산감리서에 역학당(譯學堂)을 설립하여 중학교 과정으로 외국어와 고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원산소학교는 원산제일국민학교로 개명되어 1945년까지 존속하였다.

정현석은 1865년 가곡과 춤의 저술인 『교방가요(敎坊歌謠)』를

편찬하였는데 전통 가곡과 무곡 연구의 희귀자료로 가치가 크다. 그 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조광보(趙光補)

1878. 5. 9~1935. 6. 12. 황성 출신으로 언제부터 어디에서 의병에 참가하였는지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다.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월삼척봉화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1911년 11월 19일 경북 봉화군(奉化郡) 소천면(小川面) 석포리(石浦里)에서 권운수(權胤洙)에게 자신이 의병임을 밝히고 군자금 4냥을 요구하여 모두 6원 2냥을 모금하였다. 그 후 김진청(金鎭淸) 집에서 4원을 모금하다가 1912년 5월 왜경에게 체포되어,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2년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처, 『獨立有功者功勳錄』 제1권, 923~924쪽.

#### 조상렬(趙常烈)

황성군 정곡면(井谷面) 하산전리(下山田里) 사람으로,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윤태환(尹泰煥)탁영재(卓英才) 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황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황성읍 장터에서 오후에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밤늦게 계속하다 헌병들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954~955쪽.

#### 조흥열(趙興烈)

황성읍 읍하리(邑下里)에서 쌀가게를 하고 있던 그는 1919년 4

월 1일 횡성 만세운동 때에 쌀가게를 수리하려고 준비하였던 서까래 등 목재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세운동을 독려하고, 탁영재(卓英才), 정두철(鄭斗澈) 등과 선봉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57쪽.

#### 천선재(千善在)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현 안흥면) 안흥리(安興里) 출신인데, 전국 각처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이 거주하던 영월군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힘을 모으려고 하였다. 4월 11일 주천장날을 거사일로 계획하고 4월 8일에는 범흥리 최춘일(崔春日) 집에서 그리고 9일에는 양변면(兩邊面) 신일리(新日里) 최성오(崔成五) 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선동하였다. 또 10일에는 수주면(水周面) 무릉리(武陵里)에서 현성준(玄聖俊)에게 만세운동을 권고하며 추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해 5월 2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9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5~956쪽.

#### 최동수(崔東壽)

횡성군 읍하리 사람으로 청년 회원이었다. 1919년 4월 1일 횡성 31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던 코지마료(小島了) 헌병상등병을 김진대(金振大)노인과 함께 합세하여 말에서 끌어내려 구타하였다. 운동이 끝난 후에 일본 헌병의 눈을 피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만주를 드나들기도 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6, 244쪽.

**최순실(崔順實)**

황성군 갑천면 상금대리(上琴垞里)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7년부터 의병활동에 참여한 최순실은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의병에 대한 대탄압으로 국내의 의병진이 대부분 와해되자 은거하였다. 그는 1915년 1월경 의병장 김종근(金鍾根) 휘하에 들어가 장명수(張命壽)용해준(龍海俊)장재선(張在善) 등과 함께 1915년 2월 1일 밤 평창군 대화면 계촌리(桂村里, 현 방림면) 박소사 여인숙에 돌입하여, 숙박중인 평창군 서기 이근세(李根世) 대화면 면서기 김관경(金館卿)계촌리 이장 김찬경(金瓚卿) 등 수명을 결박하고 이들로부터 40여 원과 의류를 모으고, 다시 방의실동(芳義實洞) 김화숙(金化淑) 집에서 5원을 모금하고, 2월 3일 밤 황성군 정곡면 산전리(山田里) 남상진(南相鎭) 집에서 5원과 의류를 모았다. 그리고 그는 1915년 3월경에 1907년 8월경부터 인제군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활동한 김종환(金鍾煥)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다고 한다.

1916년경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공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형량(刑量)은 알 수 없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290~295쪽.

**최양옥(崔養玉)**

1893. 12. 5~1983. 5. 4. 자는 길준(吉俊)이고, 호는 추강(秋岡)이다. 독립운동 때는 권인옥(權仁玉)이란 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최양옥은 1893년 음력 12월 5일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花田里)에서 법부주사(法部主事)를 지낸 강릉최씨(江陵崔氏) 재건(在建)과 진주강씨(晉州姜氏) 석원(錫元)의 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양

반집에서 출생하여 귀동이로 대접받으며 자라서 15세 때 결혼하여 딸 둘을 두었다.

1907년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소년 최양옥은 이 때부터 일본에 복수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최양옥은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原州普通學校)에 입학하여 1917년 졸업하고, 동년 3월에 서울 중동중학교(中東中學校)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중퇴하였다.

그는 23세부터 원주횡성흥천 등에서 측량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서울 등지에서 잡화 및 땀감 등을 팔았다. 최양옥은 서울 입정정(笠井町) 신병선(申炳善, 아버지 친구)의 집에 거주할 때 31운동을 맞이했다.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온 신병선의 아들 신덕영(申德永) 권유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고향 횡성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3월 27일과 4월 1일 횡성을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음력 7월경 대동단에 가입한 신덕영은 경북 문경봉화, 충북 제천충주괴산, 강원 원주영월, 전북 금산 등에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1919년 10월 10일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이 중국으로 망명한 뒤, 대동단 조선지부의 중심 인물이 된 신덕영이 1919년 음력 11월경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에 와서 최양옥을 대동단에 가입시켰다.

최양옥은 1920년 음력 5월 3일에 상경, 소격동(昭格洞) 신덕영 집에 동거하였다. 신덕영은 7월경 최양옥노형규(盧衡奎)노석중(盧錫仲)박일봉(朴日鳳) 등과 협의, 전남지역에 대동단 조직을 확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만주농림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우선 화순과 광주에 「포고문」과 「경고문」을 보내 군자금을 내도록 촉구하였다.

최양옥은 1920년 9월 26일 혼자 광주로 내려가 자금을 모아 서울 신덕영에게 송금하고, 단원을 모집하였다. 최양옥은 동지들과 화순군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최양옥은 권총 구입의 임무를 맡고 16일 상경하였다. 그러나 권총 구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장남감 권총 2정을 구하여 휴대하고 광주로 내려왔다.

신덕영과 최양옥 등은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위해 2반으로 나누었다. 제1반 박일봉이윤호는 화순나주군 방면을 맡고, 제2반 신덕영최양옥노기준은 담양곡성군 방면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최양옥은 장남감 권총 2정을 휴대하고 신덕영노기준과 함께 11월 초순에 곡성군과 담양군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다. 모금한 독립운동자금은 만주농림주식회사에서 취합하여 중간 연락책을 통하여 상해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최양옥노기준은 11월 5일 광주로 가다가 경찰에 피체되고, 신덕영과 대동단 조선지부원들도 대부분 체포되었다. 공판에서 최양옥신덕영 등은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밝혔다.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신덕영은 징역 8년, 최양옥노석정은 징역 7년, 노형규노석중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21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최양옥은 징역 7년이 확정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수년간 옥고를 겪었다.

최양옥은 1926년 11월 15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 고향을 찾았다. 부친은 이미 4개월 전에 별세하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형편이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그러나 1928년 음력 4월 최양옥은 중국으로 건너가 산서성 태원(太原)에서 신덕영을 만나고, 염석산(閔錫山)의 비행기학교 교관인 조종사 안창남(安昌男)을 알게 되었다.



1928년 여름 태원에서 최양옥은 신덕영안창남김정련(金正連) 등과 ‘함께 소리 내어 알린다’는 ‘공명(共鳴)’의 의미를 따서 ‘대한 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을 조직하였다. 단장은 안혁명(安革命), 부단장은 신덕영, 재정부장 이영(李英), 그리고 최양옥(34세)은 재정부 부원을 맡았다.

대한독립공명단은 중국의 장개석(蔣介石)염석산(閻錫山) 등과 국내 유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약 15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 남경섬서(陝西)포두(包頭)의 3곳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청년장교를 교육시켜 5개 사단 75,000여명의 병사를 양성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양성된 병사 40,000명을 함북, 35,000여명을 평북 방향으로 침입시켜 일본과의 전면전을 일으키고, 일본과 중국소련과의 전쟁을 유도하며, 동시에 국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켜 한국 독립을 이루겠다고 구상하였다.

공명단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받으려던 계획이 여의치 않자, 최양옥은 1928년 음력 9월 국내 경춘(京春)간의 도로에서 우편차량을 탈취하여 일거에 2030만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최양옥김정련은 추진 명령을 받고, 안창남으로부터 콜트식 권총 1자루와 탄환 14발, 모젤 권총 1자루와 탄환 10발을 수령하였다.

1928년 음력 10월 최양옥은 안창남으로부터 600원을 받고 태원을 출발, 다음해 음력 1월 9일 대련(大連)에 도착하였다. 그는 수상경찰서에 체포되어 천진 일본총영사관에 압송되었으나, 안창남에게 34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월 16일 석방되었다.

최양옥은 북경에서 김정환으로부터 권총 3자루를 받고 봉천(奉天)을 거쳐 3월 7일 밤 안동역에 도착, 김정련을 만났다. 최양옥김정련은 이선구를 공명단에 가입시켰다.

최양옥김정련은 4월 4일 평북 용천군 양광면 봉덕리(鳳德里) 김인옥(金仁玉)에게서 160원을 빼앗아 숙박비와 여비를 마련하였다. 8일 오후 최양옥은 권총 2정과 실탄 22발을 양복 안의 복부에 감추고, 김정련은 실탄 12발을 장전한 총 1정을 왼쪽 무릎 밑 안쪽에 봉대로 감아 숨기고 신의주로 들어왔다.

최양옥은 4월 9일 오후 1시 신의주를 출발, 오전 7시 5분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잇달아 도착한 김정련이선구와 함께 서울사직공원 등에서 거사를 협의하고, 16일 거사 추진을 결정하였다.

17일 최양옥 일행은 시장에서 삼넛줄 등을 구입해가지고 서울을 출발,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坪內里) 여인숙에서 1박하였다. 최양옥은 이선구에게 모젤식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넘겨주고 사격술을 교수하였다.

18일 오전에 최양옥 일행은 미금면과 화도면(和道面)의 경계인 마치고개에 도착, 춘천방면으로부터 오는 차량을 감시하기 좋은 정상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실행과 도주의 방법을 결정하고 우편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다.

춘천을 출발한 경성우편국 제7호 차량이 오후 1시 40분경 고갯마루 아래 지점에 이르자, 김정련은 망을 보고 이선구가 손을 들어 정차시켰다. 최양옥은 운전사에게 총을 겨누고 삼넛줄로 묶고, 이선구가 차를 운전하여 금곡(金谷)방면으로 향했다. 고개를 내려오다가 춘천행 오성(五星)자동차를 세우고 기관부의 발화장치를 파괴한 뒤 운전사와 승객을 차의 상자 안에 감금하였다. 그리고 우편차량의 우편행낭을 뒤졌으나 현금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감금한 승객으로부터 33원을 획득한 후 오성자동차의 운전사와 승객들에게 '대한독립공명단 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다시 평내리 입구에서 춘천발 서울행 선일자동차(鮮一自動車)를

세워 승객으로부터 현금 20여원 등을 획득한 다음, 우편차량과 선일자동차 운전사를 데리고 평내리 뒷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운전사들을 돌려보내고 오후 2시 30분경 천마산속으로 도피하였다. 천마산 정상에서 자금을 분배한 다음, 19일 새벽 화도면 녹촌리(鹿村里) 임희종(任熙宗) 집 근처 암굴에 숨었다. 그러나 오후 8시경 임희종의 집에 이르렀다가 발각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김정련은 20일 오전 0시 20분 인근 가옥에서 피체되었으나, 최양옥이선구는 아침 일찍 와부면 덕소리(德沼里)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구리면 수석리(水石里)에 도착하여 아차산에 숨었다. 오전 9시 반 망우리 고개에서 내선자동차(內鮮自動車)를 빼앗아 타고 이선구가 운전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이선구는 적선동 북일여관(北一旅館)에 은거하고, 최양옥은 체부동(體府洞)의 친척 최상하(崔相夏)의 집에 은거하였다. 그러나 20일 오후 11시경 피체된 이선구의 제보로 최양옥도 21일 오전 5시반 최상하 집에서 체포되었다.

최양옥 일행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10여 일간 조사받고 5월 20일경 기소되었다. 이들은 예심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재판에 회부되었다. 최양옥은 1929년 12월 13일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 우편법 위반, 강도 등의 죄목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김정련은 징역 9년, 이선구는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하였다.

최양옥은 1939년 12월 13일 만기 출옥하였다. 광복 후 최양옥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인천형무소장으로 승진 근무하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그만두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그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단장

을 수여받고 이후 훈장체계 변경 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훈격이 변경되었다.

그는 1983년 5월 4일에서 영면하였다. 그는 국립묘지보다는 부모의 묘소가 있는 횡성군 갑천면 전천리에 묻히기를 희망하였다. 그의 뜻에 따라 전천리에 안장되었다. 1962년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2003년 12월에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광복회가 공동으로 최양옥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12월 한 달 동안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뜻과 공적을 기리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강원도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강원문화인물’로 선정하였고, 순국선열유족회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애국동지원호회, 『韓國獨立運動史』, 1956.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3, 1969.

김후경신재홍,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1971.

曹圭泰, 「大韓獨立共鳴團의 組織과 活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2002, 87~114쪽.

### 최인순(崔仁舜)

1864, 11, 25~1907. 10, 23. 횡성 출신 의병장으로 일명 인순(仁淳)이라 불리었다. 1894년 갑오경장부터 청일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에서 이참령(李參領) 대대의 소모대장(召募隊長)으로 활약하였다. 1907년 일본군이 원주를 침입하려고 하자, 이참령은 8백여 명의 군대를 해산하고 도피하려고 하였다. 최인순은 이를 만류하고 해산 직전의 군사를 수습하고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내 무장시키는 한편, 원주 학곡리에서 의병을 더 모집하여 스스로 의병장이 되었다. 최인순은 7월에 원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민궁호(閔肯鎬)한갑복 의병장과 함께 수천 명

의병을 인솔하고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진을 쳤다. 최인순 의병장의 심복인 우항리 이홍선은 의병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각반을 주선해 주었다.

최인순은 우항을 떠나 안흥강림평창대화운주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하였다. 민공호 의병장은 강림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최인순한갑복 의병부대는 진부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강릉으로 행군하였다. 그러나 10월 23일 강릉 못미처 배다리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일본군의 야습을 받아 항전하였으나, 43세의 나이로 최인순은 전사하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일본군들에 의해 동해에 버려졌다. 그의 가족들도 일본 군경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정부는 최인순의 공적을 기리어 1968년에 대통령 표창, 1977년에 대한민국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국가보훈처, 『獨立有功者功勳錄』 第1卷, 954쪽.

### 최종하(崔宗河)

1877. 1. 24~1922. 7. 25. 횡성 사람으로, 1919년 2월 횡성 천도교 대구교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에 가서 손병희(孫秉熙)와 회동한 후, 독립선언서 10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김인경(金麟卿)에게 건네주어 갑천리(甲川里)둔둔리(屯屯里)정곡면(井谷面) 등지에 배부하도록 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6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겪었다.

1992년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京城地方法院, 「判決文」 (1919. 6. 9, 6. 25, 8.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83, 950쪽.

#### 추병륜(秋秉倫)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교항리(橋項里) 사람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45세로 황성 천도교 교인이었다. 그는 황성 31만세운동에서 연락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황성군황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60쪽.

#### 탁영의(卓英儀)

1922. 4. 4~미상. 황성 사람으로 이명은 운엽(雲燁)이다. 1943년 10월 일제에게 강제로 징집 당하여 중국 남경지구(南京地區) 주둔 일본군부대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중경(重慶)에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와 광복군(光復軍)이 있다는 정보를 일본군 병사로부터 전해 듣고, 광복군에 입대할 것을 결심하여, 1944년 5월 일본군을 탈출한 후 중국군 유격대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45년 4월 중경에 도착한 그는 토교대(土橋隊)에 입대하고 광복군총사령부(光復軍總司令部) 경위대(警衛隊)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동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1990년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6권, 1983, 509쪽.

김승학, 『韓國獨立史』 上卷, 305쪽.

김후경신재홍, 『獨立有功者功勳錄』 9, 510~511쪽.

#### 탁영재(卓英在)

1867~1941. 12. 23. 황성 사람으로, 1919년 3월 27일 황성 장날을 이용한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항일비밀결사 철원에국단(鐵原

愛國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철원애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강원도단의 속칭이다. 대한독립애국단의 활동은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하였고, 또한 철원은 강원도단의 중심지였으므로 흔히 철원애국단이라 불린다.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단이 설치된 것은 1919년 8월 중순경으로, 처음에는 철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후 강원도단은 양양강릉평창 등지에 군단을 설치하여 강원도 각처에 조직을 발달시켜 나갔다.

철원애국단은 임시정부의 국내조직인 연통부(聯通府)의 체계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에 대한 선전 및 군자금 모집 등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인 연통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철원애국단에서는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하하는 만세시위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는가 하면, 단원을 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 초에 철원애국단이 발각됨으로써 조직이 파괴당했다. 탁영재는 이 일로 일경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다.

1995년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趙東杰, 『橫城과 31運動』, 1972, 65~195쪽.

文一民, 『韓國獨立運動史』, 16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83, 574~58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9집, 1983, 990~1001쪽.

#### 하영현(河永賢)

일명 하돌림(河玆林)이라고도 하는 그는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屯屯里) 사람이다. 하영현은 횡성 천도교회 교인으로써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현장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순

국하였다. 그의 묘소는 횡성읍 모평리에 소재해 있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62~263쪽.

#### 한갑복(韓甲復)

한기석과 함께 민궁호 휘하의 원주진위대에 있다가 1907년 한국군이 해산되자, 의병에 참여하여 횡성홍천인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12월 28일 청룡면(靑龍面: 현 횡성읍) 추동리(楸洞里)에서 약 3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순절하였다.

1991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474, 533, 710쪽.  
국가보훈처, 『獨立有功者功勳錄』 제9권, 765쪽.

#### 한기석(韓基錫)

? ~1907. 12. 14. 횡성 출신의 의병대장. 1907년 원주진위대 해산과 함께 민궁호 의병진 휘하의 의병장으로 횡성지방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07년 12월 14일 청일면 유동리(楸洞里)에서 약 3백여 명의 부대원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여 많은 적을 섬멸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한기석이 피살되었다.

1991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474, 533, 718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1983, 687, 716, 717쪽.



**한상열(韓相烈)**

1876~1926.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文岩里) 출신, 자(字)는 문극(文極)이며 이명으로 상열(相說)이라고도 한다. 그는 일제 침략을 막기 위하여 일본군을 토멸할 것을 결심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1907년 8월 횡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 2백 명(가장 왕성하였을 때는 1천2백 명)을 영솔하고 지평(砥平)홍천원주평창영월 등지를 전전하며 일군과 교전하기 무려 500여 회에 일병을 다수 도륙하고 무기탄약 등을 노획하였다. 1908년 2월에 홍천에서 일군 대부대와 교전하여 격퇴시켰다. 횡성 일본군수비대는 이해 4월 2일 홍천군 월운면(月雲面) 서북후동(西北後洞)에 거주하는 선생의 처자를 납치 해다 놓고 선생에게 귀순하라고 유인, 협박하는 등 온갖 수단을 다 썼다. 그러나 그는 끝내 굴하지 않고 4월 20일에 횡성읍을 습격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항일투쟁을 맹렬히 계속하였으나 일군이 병력을 대거 증강하고 이른바 ‘대토벌작전’을 전개하자, 각 의진이 해산 내지 패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국내에서의 항일투쟁이 곤란함을 느끼고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함께 결합하고 대한의용부(大韓義勇府)에 가담하여 참모(參謀)의 중책을 맡아 활약하였다.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그해 9월 19일 민족진영의 분열 및 몰락을 야기했던 주중(駐中) 청년총사맹(靑年總社盟)원의 흉탄에 맞아 5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黃玿, 『梅泉野錄』, 45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 1983, 483, 53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1983, 585, 599, 734쪽.

**함재실**(咸在實)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대산(大山)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907년 정미의병(丁未義兵)때 이영숙(李永肅) 휘하에 들어가 원주군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음력 8월에는 이원오(李元五)와 함께 원주군 정지안면(正之安面)의 채성구(蔡聖九) 집에서 군자금 12원을 모금하는 등 주로 군자금 조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1912년 체포되어 동년 5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1983, 278쪽.

**홍재구**(洪在龜)

1895년 민비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할 때, 홍재구는 권대형(權大亨)박성묵(朴性默) 등과 함께 횡성 등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횡성군횡성문화원,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향토사료 제15집), 1999. 225쪽.

## 황성항일민족운동 연표

1888년

천주교 서울교구장, 황성군 서원면 유현2리 풍수원성당을 본당으로 승격.

1895년

7월 19일 소학교령에 의거, 춘천 관찰부소학교 개교.

10월 8일 일본, 민비시해(閔妃弑害).

11월 17일 건양(建陽) 연호, 단발령 발표.

12월 6일 춘천의병, 이소응(李昭應)을 의병대장으로 추대.  
황성의진장 권대형(權大衡), 춘천의병에 가담.

1896년

풍수원 천주교성당 부속 성심학원 설립(뒤에 광동학교로 개명).

1월 춘천의병, 춘천부 관찰사 겸 선유사(觀察使兼宣諭使) 조인승(曹寅承) 처단.

9월 17일 춘천공립소학교강릉공립소학교원주공립소학교 개교

1904년

2월 8일 일본, 러일전쟁 도발.

23일 일본,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한일의정서 체결.

1905년

강원도 강릉군 영주학교 설립.

7월 20일 원용팔(元容八), 강원도 영월원주횡성에서 의병을 일으킴.

8월 20일 원용팔, 창의격문(唱義檄文)을 작성하고 100여명을 거느리고 의병봉기.

9월 원용팔박정수(朴貞洙) 등, 원주횡성 접경지역에서 의병 조직.

원용팔박정수 등, 영월 주천(酒泉)과 횡성 강림(講林)의 접경지역에서 의병.

11월 17일 일본, 대한제국을 강박하여 을사5조약 체결, 한국 외교권 피탈.

1906년

강원도 양양군 현산학교, 간성군 봉명학교, 춘천군 사내학교 설립.

1907년

강원도 철원군 봉명학교 설립.

1월 29일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 시작 (음력 1906년 12월 16일).

3월 초순 춘천고성홍천화천회양군 국채보상운동.

5월 횡성군 갑천면 부동리(釜洞里)구방내(舊坊內)화전리(花田里)전촌리(荃村里)대관대(大官垓)삽교리(插橋里) 주민 국채보상금 의연.

- 횡성군 우사상도중(右社商都中) 상인들 국채보상금 의연.
- 6월            횡성군 횡성면 삼리 군영촌(三里 群英村) 주민 국채보상금 의연.
- 7월 19일      일제의 강요로 고종황제 퇴위, 순종 즉위.
- 24일      일제,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정미7조약(韓日新協約) 체결. 차관정치.
- 8월 1일        일제, 서울 시위대 해산. 참령 박승환(朴昇煥) 자결, 시위대 군사, 일본군과 시가전 전개, 의병전선 가담.
- 3일        일제, 지방진위대 해산. 해산된 지방진위대 군사들 의병 가담.
- 16일        정병화(鄭炳化) 의병부대원 500여명, 횡성군 포복사(抱腹寺, 현 鳳腹寺)에서 일본군토벌대와 교전.
- 일        횡성 출신 오정묵, 봉복사에서 민궁호(閔肯鎬)의 권유로 의병 투신.
- 일        횡성 출신 한상열(韓相烈), 약 200명과 창의, 횡성지평홍천원주평창영월 등지에서 교전.
- 9월 8일        의병, 원주 동쪽 20리 횡성 갈곡(葛谷)고지에서 교전.
- 10일        민궁호 의병부대, 홍천읍 점령, 횡성양덕원춘천 등지에서 활약.
- 횡성출신 한기석(韓基錫)한갑복 등 의병, 민궁호 의병부대와 연결, 활약.

- 민공호 의병부대 350명, 청일면 봉복사(鳳復寺)에서 일군과 격전.
- 23일 일본군 원주수비대, 의병근거지인 황성 갑천리(甲川里)와 봉복사 습격, 소각.  
민공호 의병부대, 홍천인제강릉 등지로 이동.
- 10월 이구재(李九載)이은찬(李殷瓚), 지평황성지역 의병을 기간으로 관동창의대(關東倡義隊) 결성, 이인영(李麟榮)을 창의대장으로 추대.
- 7일 한국주둔 일본헌병이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업무 장악, 헌병경찰제도 실시.
- 10월 25일 민공호 의병부대 약 300명, 둔촌에서 일본군과 격전, 대승.
- 10월 27일 의병 약간 명, 황성 갈동(葛洞). 매곡(梅谷) 신암동(新岩洞)에서 일군과 교전.
- 31일 한갑복민공호한상열심상희(沈相熙) 등이 인솔하는 의병 8천여 명, 황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 현 서원면)에 집합.
- 10월 심상희 의병부대, 한백원(韓百源)임성집(任成集) 부대와 함께 경상경가강원도에서 투쟁.
- 12월 7일 의병 약 130명, 황성 장전점(長箭店) 모평리(茅坪里)에서 일군과 접전.
- 8일 의병 약 70명, 황성 학곡(鶴谷)에서 일군과 교전.
- 14일 한기석 의병 약 300명, 황성군에서 교전, 한기석 전사(戰死).

- 19일 민공호 의병부대 약 300명, 횡성 동북쪽에서 일군과 공방전, 100여명 사상.  
 횡성의병, 둔내면 자포동(自浦洞)에서 일본군 평창수비대와 교전.
- 28일 한갑복 의병 30명, 횡성 청룡면 추동리에서 일본군과 공방전, 한갑복 전사.

1908년

- 강원도 강릉군 동진학교화산학교, 목호 망상학교 설립.
- 1월 10일 의병 40여명, 횡성 서방에서 공방전.  
 의병, 횡성군 둔동(屯洞) 걸은교(乞隱橋)에서 일본군 원주수비대와 교전.
- 2월 29일 민공호 의병부대 약 90명, 횡성 강림부근에서 일군 충주순사대(忠州巡査隊)의 피습을 받아 민공호 피살.
- 3월 5일 의병 150명, 횡성 동북쪽 40리 절동(折洞)에서 일병과 교전.
- 7일 의병 약 60명, 횡성 동쪽에서 일병과 공방전.
- 8일 의병 60여명, 횡성 동쪽 두원(斗元)부근에서 안흥(安興) 소재 헌병분견대(憲兵分遣隊)와 교전.
- 12일 횡성 김치영(金致永) 의병부대 150여명, 일군 횡성분견대의 기습에 대응 교전.
- 13일 의병 약150명, 횡성 북쪽 40리 지점에서 일병과 공방전.

- 김치영 의병부대 150여명, 횡성에서 일본군 횡성 수비대 보병분대 공격.
- 14일 횡성의병 100여명, 횡성 동쪽에서 일본군 횡성수비대와 교전.
- 충주(忠州) 의병, 횡성 갑천 전촌(荃村)지역에서 일본군 수비대에 공격받음.
- 16일 금기철(琴基哲) 의병부대 156명, 횡성 옥동(玉洞)에 침입. 군자금 모집.
- 일 한상열 의병부대의 전군대장 이창오(李昌五)중군대장 김화춘(金和春)후군대장 한상오(韓相五), 횡성에서 의병 모집.
- 4월 2일 한상열김현국(金顯國)최인순(崔仁順) 의병부대 300여명(200명), 홍천군 영귀미면(詠歸美面, 현 東面)에서 일본군 횡성수비대와 교전. 의병 60명 전사.
- 3일 의병 약 140명, 횡성 서북쪽 약 70리에서 일병과 접전.
- 7일 윤성옥(尹成旭), 횡성에서 의병장 윤성옥(尹成玉)을 구출하던 중 일본군수비대에 피체.
- 19일 의병 150여명, 횡성 학곡(鶴谷)에서 원주수비대 파견 연락병과 교전.
- 의병 300여명, 횡성군에서 일병과 교전.
- 의병 약 30명, 횡성 갈담(葛潭) 북쪽 30리에서 교전.



- 20일 민공호의 잔여 의병부대, 횡성인제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  
 횡성 의병 150여명, 횡성읍내에서 횡성분견대와 교전.  
 횡성 의병 70~80명, 횡성에서 일본군 횡성분견대와 교전.
- 5월 7일 의병 30여명, 원주군 문막(文幕) 북쪽에서 횡성분견대와 교전.
- 11일 의병 70여명, 횡성 서북쪽 하창봉동(下昌峯洞)에서 횡성분견대와 교전. 의병 13명 전사.
- 23일 의병장 한상열 등 15명, 갑천면 동평(銅坪) 운명길(尹命吉) 등 투항자 응징.
- 28일 의병 약 50명, 횡성 갈담(葛潭) 서쪽 20리에서 교전.
- 6월 28일 의병 50여명, 횡성 봉복사 남쪽에서 원주수비대와 교전. 의병 5명 전사.  
 의병 80여명, 횡성 운교역(雲橋驛) 동북쪽 지점에서 원주수비대와 교전. 의병 20명 전사.
- 10월 24일 의병 약 40명, 횡성군에서 안흥(安興)분견소 현병과 교전.
- 11월 23일 의병 35명, 횡성 옥동리(玉洞里)에서 옥동현병분견소원과 교전, 의병 3명 전사.
- 24일 의병 4명, 횡성군에서 횡성현병분견소원과 교전.

- 12월 7일 의병 20여명, 횡성 북쪽 약 15리 지점에서 횡성헌 병분견소원과 교전. 의병 6명 전사.
- 16일 의병 18명, 횡성군 군내면 옥동리 습격.
- 19일 주기준(朱基俊) 의병부대 150여명, 횡성군 둔내면 자포동(自浦洞)에서 토벌대와 교전, 의병 5명 전사, 16명 부상.

1909년

- 1월 20일 의병 약 50명, 횡성 안흥 동남 약 120리에서 교전.
- 2월 강원도 이천군 보흥학교 설립.
- 3월 강원도 이천군 삼매학교, 명의학교, 강릉군 모산학교, 삼척군 명동학교, 통천군 통명학교 설립.
- 4월 강원도 통천군 보양학교영수학교, 평강군 창흥학교 창동학교, 간성군 공명학교, 삼척군 보명학교설립.
- 5월 5일 의병 약 20명, 횡성 갈담 북쪽 약 40리서 교전.
- 19일 의병 18명, 청일면 울실리(栗實里) 동남에서 일본군 헌병분견소원과 충돌.
- 9월 일제, 정규군 보병 2개 연대(聯隊)와 해군함정 동원,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 자행, 삼남지방 의병 초토화(2개월간).
- 19일 의병 4명, 공근면 하포원 학담리(鶴潭里) 최재식(崔在植)손경홍(孫京洪) 집 공격.

1910년

- 3월 20일 의병 5명, 횡성군 공근면 상수백리(上水白里) 공격.

- 8월 29일 일제, 일한병합조약(日韓併合條約)발표, 한국을 식민지화.
- 9월 10일 일제, 조선헌병조례(朝鮮憲兵條例) 발표.
- 10월 1일 일제 조선총독부 개설.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 공포.
- 1911년
- 6월 26일 일제, 테라우찌총독암살미수사건(寺內總督暗殺未遂事件) 조작(105인 사건).
- 27일 횡성학교보통학교 설립 인가.
- 11월 3일 횡성군 객사에 있던 화성학교(花城學校)를 횡성보통학교로 발전 개교.
- 1913년
- 횡성 감리교회, 정화여학교 설립.
- 4월 삼척군 원덕면 임원리(臨院里) 주민 500여명, 삼림재측량 요구.
- 1914년
- 1월 15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개정, 전국을 13도 12부 220군 2,522면으로 개편.
- 1916년
- 4월 6일 횡성 감리교회, 화성유치원 설립.
- 1917년
- 6월 조선총독부, 면제(面制) 실시.
- 1918년
- 1월 미국 대통령 윌슨, 민족자결주의의 원칙, 전후처리의 「14개조 평화원칙」제안 .

1919년

- 1월 5일 천도교인 권동진오세창최린손병희, 독립운동 추진계획 수립.
- 6일 재일 한국유학생들, 독립운동실행위원 10명 선출.
- 중순 재일 조선청년독립단 송계백 귀국. 현상윤최 린 등과 독립운동 협의.
- 1월 22일 고종황제, 돌연히 죽음, 일본에 의한 독살설.
- 2월 8일 재일동경조선독립청년단,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식 거행.
- 25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 33인 인선.
- 27일 독립선언서 21,000매를 천도교 보성사(普成社)에서 인쇄.
- 28일 천도교, 독립선언서를 전국 각지로 전달.
- 3월 1일 31운동 발발.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독립선언서 발표.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민중 등 4~5천명 독립식전 거행.
- 10일 철원군 독립만세운동.
- 11일 횡성군 천도교인 장도훈, 서울에서 큰 태극기 1폭, 창호지 태극기 20매, 독립선언서 40매를 구하여 횡성에 돌아옴.
- 12일 춘천주둔 보병 제79연대의 병력 일부를 원주로 이동, 원주횡성지방에 대한 경계 강화.  
 횡성읍 영영포리 신재근 집에 최종하신재근장도훈 등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군내와 원주

- 소초면, 평창군에 배포 결정.
- 13일 횡성 천도교인, 군내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배포.
- 16일 횡성보통학교 학생, 고종의 죽음에 조의 표시, 상장(喪章)패용 시위.  
김인경, 독립선언서를 평창군 대화면 운교리 이인영에게 전달.  
이인영, 대화리 천도교인 최상달에게 전달, 평창군 만세시위 추진.
- 3월 21일 평창 대화면 계촌리 천도교인들 만세운동 추진계획 수립. 4월 4일 대화 장날, 5일 평창 장날에 독립만세운동 추진기로 결의.
- 27일 횡성 장날, 약 300명의 군중, 독립만세시위. 천도교인 8명 피체.
- 4월 1일 횡성 장터에서 1,300여명 군중, 독립만세운동, 강달회하영현강성순 피살.  
횡성 상인, 시장 철폐운동(~7일)
- 2일 횡성 장터에서 약 200여명 군중, 헌병분견소에 물려가 독립운동 허가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
- 3일 소초면 둔둔리 주민, 강달회 장례식 거행.
- 5일 소초면 둔둔리장양리의관리평장리교항리 등 주민 수백 명, 소초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 전개.
- 7일 횡성 장터 길가에 태극기를 세우고,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을 부착.

-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 조항(鳥項)상촌(上村)수동(水洞)향산(香山) 등 주민 독립만세운동.
- 15일    황성군수현병분견소장, 각 면장과 동장에게 선동자 포박 지시.
- °월      황성 감리교회, 앵릿청년회와 소년회 조직.
- 12월    황성인 최양옥(崔養玉), 대동단(大同團) 입단.
- 1920년
- 9월 26일    대동단 단원 최양옥, 전남 광주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 대동단 조직 확대.
- 10월 1일    대동단 단원 최양옥, 신덕영박일봉과 함께 전남 지역 조직 확대.
- 27일    신덕영최양옥, 독립운동자금 모집반 구성.
- 11월 2일    최양옥신덕영노기준, 전남 곡성담양군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
- 5일      최양옥노기준, 전남 광주로 가다가 일경에 피체.
- 1922년
- 11월 9일    삼척보통학교 학생 항일동맹휴학.
- 1923년
- 3월 24일    전조선청년당대회에 강원청년간친회(江原靑年懇親會)고성금강청년회(高城金剛靑年會)철원청년회 대표 등 참석.
- 4월 1일    고성보통학교 학생 항일동맹휴학.
- 1925년
- 1월 5일    영동지방 청년단체들, 관동청년대회 준비위원회 조직.

- 5월 22일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에서 관동청년대회 간담회 개최.
- 8월 15일 춘천청년회 조직.
- 10월 23일 영서지방 청년단체 대표자, 철원에서 청년운동 통일방안 논의.  
 평강철원 등의 부괴청년회(斧壤靑年會)철원청년회갑성청년회(甲成靑年會)철원무산청년회(鐵原無産靑年會)성우회(星友會)진세회(進世會) 발기.  
 강원청년연맹 준비회 조직.
- 11월 25일 강원지방 군연맹의 청년단체 통합, 철원에서 강원청년연맹 정식 창립.
- 1926년
  - 6월 13일 원주보통학교 학생, 순종 서거 망곡(望哭)시위.
  - 10월 4일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 순종 서거 애도 동맹휴학.
  - 12월 양양보통학교 학생 항일동맹휴학.
- 1927년
  - 2월 5일 좌우익 대표 28명 발기, 신간회(新幹會) 창립.
  - 2월 9일 양양보통학교 학생 항일동맹휴학.
  - 3월 7일 춘천농업학교 학생, 610만세 이후 만세시위.
  - 4월 7일 평강보통학교 학생 항일동맹휴학.
  - 26일 여성단체 근우회(槿友會) 발기총회.
  - 5월 16일 영서사회운동자간친회 회원, 서울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 참가.  
 대의원 10여명, 인사동 이화여관에서 강원도 청년운동 토의, 강원도 사회운동단체대회 개최 합의.

- 29일 춘천청년화올진정진화철원청년화고성변성청년회양양동화청년회원주청년회삼척진진회 등 7개 단체 발기, 전강원도사회운동단체대회 개최 결정.
- 7월 11일 춘천기독교회관에서 전강원도사회운동단체대회 개최(~12일).
- 8월 10일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준비위원회, 도내 청년단체 통일.
- 22일 춘천청년회, 추기강연회(秋期講演會) 개최,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 참여.
- 25일 춘천청년회, 신간회지회 창립준비회 개최 결의.
- 9월 12일 춘천농업학교 학생 일본인 교무주임 배척 동맹휴학.
- 28일 강릉에서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 개최(3일간).
- 10월 1일 강원청년연맹 집행위원회, 영동영북영서에 순회강연대 파견.
- 11일 춘천청년회 집행위원회, 군청년연맹 조직.
- °일 원주에 신간회지회 설립. 이후 양양강릉울진고성이천삼척양구 등에 신간회지회 설립.
- 1928년
  - 4월 3일 근우회 춘천지회 조직.
  - 7월 26일 근우회 강릉지회 조직.
  - 8월경 최양옥신덕영, 중국 산서성 태원(太原)에서 대한 독립공명단(大韓獨立共鳴團)조직.
  - 10월경 최양옥, 경춘가도의 우편차량 탈취,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할 것 제안.

1929년

- 4월 4일 최양옥김정련, 평북 용천군 양광면 봉덕리(鳳德里)에서 독립운동자금 획득.
- 16일 최양옥김정련이선구, 서울에서 거사 결정.
- 18일 최양옥 일행, 경춘도로 마석 마치 고개에서 오후 1시 40분경 경성우편국 차량탈취, 오성(五星)자동차 선일(鮮一)자동차 승객으로부터 현금 53원 모집.
- 19일 최양옥 일행, 화도면 녹촌리(鹿村里) 임희종(任熙宗) 집 인근 암굴에 은거.
- 20일 최양옥이선구, 와부면 덕소리(德沼里), 구리면 수석리(水石里)를 거쳐 망우리 고개에서 내선(內鮮)자동차 탈취, 입경.
- 21일 최양옥, 아침 5시 반 서울 체부동(體府洞)의 친척 최상하(崔相夏) 집에서 피체.
- 5월 신간회 춘천지회 설립.
- 6월 28일 신간회,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북대표위원회 개최(~29일). 강원 지방 대표로 양양(襄陽) 김병환(金炳煥) 참석. 중앙집행위원 선출.
- 12월 13일 최양옥,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 선고받음,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
- 19일 춘천농업학교와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 광주학생운동 이후 만세시위.

1930년

- 2월 강릉농업학교 학생, 항일격문 살포 시위.
- 7월 11일 강릉농업학교 학생,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
- 9월 5일 강릉농업학교 희생학생 구제 동맹휴학.
- 11월 10일 강원청년연맹 집행위원회, 조선청년동맹 지도부의 우익전향 반대. 조선청년동맹 해소 제창.

1931년

- 1월 강원청년연맹과 각 군(郡)연맹 해소 단계.
- 4월 강원청년연맹 해소.
- 5월 신간회 해소.

1932년

- 2월 12일 삼척청년동맹 해소문제 논의.
- 3월 16일 양양청년동맹 해소 결의.
- 20일 강릉청년동맹 집행위원회, 해소 결의.
- 30일 강원청년연맹 집행위원회 개최, 조선청년동맹 해소 결의.
- 4월 29일 춘천농업학교 학생,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

1933년

- 6월 19일 강릉농업학교 학생,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
- 10월 강릉농업학교 독서회 사건.

1935년

- 6월 24일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

1937년

- 6월 1일 춘천농업학교 학생, 일본인 교사 배척 동맹휴학.

1939년

12월 29일 춘천고등보통학교 상록회사건.

1941년

3월 춘천사범학교 학생, 전투복 착용거부운동.

7월 춘천사범학교 학생, 친일형사 집단구타사건.

1942년

3월 27일 춘천중학교 독서회사건.

10월 21일 춘천농업학교 독서회사건.

1945년

3월 20일 춘천사범학교 백의동맹운동.

**【저자 약력】**

**강대덕**

현. 독립기념관 교육개발부장  
관동대학교 사학과 한국사 전공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강원대학교 문학박사  
독립기념관 학예실장 역임

**박정수**

현. 한림대학교 사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대림대학 강사 역임

**최창희**

현.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역임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역임

향토사 제19집  
**횡성 민족운동사**

초판발행/2003년 12월 30일

재판발행/2004년 9월 10일

저 자/강대덕, 박정수, 최창희

발행인/이일영

편집인/홍성진

발행처/횡성문화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91-1

(033)343-2271

인쇄처/홍익출판사

0502-920-0002

《비매품》

\*이 책은 횡성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